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音樂博士學位論文

삼현육각의 악조 연구

- 서울특별시 지정 무형문화재에 대하여 -

2020年 2月

서울大學校 大學院

音樂科 國樂器樂專攻

삼현육각의 악조 연구

- 서울특별시 지정 무형문화재에 기하여 -

지도교수 김 우 진

이 논문을 음악박사 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19년 10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음악과 국악기악전공


유 경 은

유경은의 음악박사 학위논문을 인준함

2019년 12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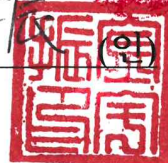
위 원 장 양 경 숙 

부위원장 김 경 아 

위 원 류 정 연 

위 원 金政丞 

위 원 金宇折 



국 문 초 록

본 연구는 서울특별시 지정 무형문화재 ‘삼현육각’을 대상으로 출현음, 구조선율·핵음·중지음, 시김새 분석을 통하여 음악의 총체적 특성을 파악하고, 이를 종합 및 분류하여 ‘삼현육각’의 악조를 구명하고자 하였다. 또한 학술적으로 사용된 바 없는 연주자에 의한 내관적(emic) 악조명 ‘염불조’·‘허튼타령조’·‘당악조’를 전제하고, 이에 대한 타당성을 밝히 고자 하였다. 연구결과 ‘삼현육각’의 악조는 크게 세 가지로 구명되었고, 특정 악곡에서는 두 가지 악조가 혼재되는 양상이 나타났다. 본고의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염불조의 특성은 다음과 같다. 염불조의 음계는 ‘e^b(솔)-f(라)-a^b(도)-b^b(레)-c^b(미)’와 ‘e^b(솔)-f(라)-a^b(도)-b^b(레)-d^b(파)’ 두 가지로 나타난다. 중지음은 e^b(솔)·a^b(도) 두 가지로 나타나며 주로 a^b(도)의 중지감이 강하다. 핵음은 e^b(솔)·a^b(도)이다. 주요 관용적 구조선율은 e^b-a^b, a^b-e^b, b^b-a^b으로 염불조의 구성음은 핵음 또는 중지음으로 귀결하려는 성격을 보인다. 염불조의 주요 시김새는 e^b(솔)의 굵은 농음 또는 보통 농음, f(라)의 퇴성, 시김새 없이 평으로 내는 a^b(도), b^b(레)의 하행농음 또는 퇴성, c^b(미)와 d^b(파)의 빠르고 얇은 농음이다. 또한 d^b(파)은 대금에서는 퇴성, 피리에서는 추성이 나타난다.

둘째, 허튼타령조의 특성은 다음과 같다. 허튼타령조의 음계는 ‘e^b(라)-g^b(도)-a^b(레)-b^b(미)-d^b(솔)’이다. 중지음은 e^b(라)과 g^b(도)이다. 핵음은 e^b(라)와 b^b(미)으로 중지음 g^b(도)이 핵음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 특징이다. 주요 관용적 구조선율은 e^b-g^b, b^b-g^b, b^b-e^b으로 핵음에서 중지음으로 또는 핵음에서 핵음으로 진행하려는 성격을 보인다. 허튼타령조의 주요 시김새는 e^b(라)의 굵은 농음 또는 보통 농음, g^b(도)의 퇴성, a^b(레)의 상행 농음 또는 보통 농음으로 나타난다. b^b(미)은 시김새 없이 평으로 내며, d^b(솔)은 대금에서 퇴성, 피리에서 퇴성과 추성이 나타난다.

셋째, 당악조의 특성은 다음과 같다. 당악조의 음계는 ‘e^b(도)-f(레)-g(미)-b^b(솔)-c^b(라)’이다. 중지는 e^b(도)에서 가장 안정된 중지감이 나타난

다. 핵음은 e^b (도) · b^b (솔)이다. 주요 관용적 구조선율은 $g-e^b$, $g-b^b$ 으로 당악조의 구성음은 핵음으로 귀결하려는 성격을 보인다. 당악조의 주요 시김새는 f (레)와 b^b (솔)의 보통 놓음, g (미)의 퇴성이며, g (미)는 보다 낮은 음고에서 끌어올려내는 시김새가 나타난다. 당악조는 핵음과 종지음 및 시김새가 악곡마다 상이한 점이 있다. 또한, 당악조는 다섯 음이 고루 비중 있게 나타나는 악곡이 있다.

넷째, 악조의 혼재 양상은 염불조 악곡에 허튼타령조가 혼재된 양상, 허튼타령조 악곡에 염불조가 혼재된 양상, 염불조 악곡에 당악조가 혼재된 양상, 당악조 악곡에 염불조가 혼재된 양상 네 가지로 나타난다. 혼재 양상은 타 악조 출현음의 혼합이 가장 높은 빈도로 나타나고, 다음으로 시김새, 핵음, 구조선율 순으로 나타난다. 종지음은 대부분 바탕 악조의 종지음으로 나타난다. 혼재 양상이 나타나는 위치는 악조가 바뀌는 경계선의 바로 직전이나 직후에 많이 나타난다.

다섯째, 분석 결과를 토대로 살펴본 경기 삼현육각의 악조 전개 양상은 다음과 같다. 《염불풍류》와 《삼현영산회상》은 염불조, 《취타풍류》는 당악조의 악곡으로 시작한다. 이후 염불조 또는 허튼타령조의 악곡을 거친 후, 마지막 악곡은 모두 당악조의 악곡으로 끝나며 최종 종지는 염불조에서 한다. 염불조는 허튼타령조나 당악조로 이동하고, 허튼타령조는 염불조로 이동하며, 당악조는 염불조로 이동한다. 순수한 염불조에서 당악조의 이동은 나타나지 않으며, 허튼타령조가 혼재되어있는 염불조에서 당악조로 이동한다.

이상으로 본 연구의 결과 <염불타령>, <허튼타령>, <당악>의 악곡에서 시김새와 핵음, 종지음이 일관되게 나타나며, 악조가 혼합되지 않고 단일한 악조로 구성되어, 위 악곡이 삼현육각 악곡에서 대표성을 띠는 악곡임을 알 수 있었다. 그러므로 이철주가 사용하는 ‘염불조’, ‘허튼타령조’, ‘당악조’의 악조 명칭을 사용하는 것에 타당함이 있다.

주요어 : 삼현육각, 염불풍류, 삼현영산회상, 취타풍류, 핵음, 시김새,
구조선율

학 번 : 2014-30583

목 차

I. 서론	1
1. 문제제기 및 연구목적	1
2. 선행연구 검토	5
3. 연구범위 및 대상	12
4. 연구방법	15
 II. ‘경기 삼현육각’ 전승 및 음악 구성	21
1. ‘경기 삼현육각’의 전승	21
2. 음악 구성	25
가. 악곡 구성 및 분장 구조	25
나. 장단	29
 III. ‘경기 삼현육각’의 악조	35
1. 염불조	35
가. 염불풍류계	36
나. 삼현영산회상계	92
다. 취타풍류계	155
라. 소결론	169
2. 허튼타령조	171
가. 염불풍류계	172
나. 삼현영산회상계	218
다. 취타풍류계	295
라. 소결론	296

3. 당악조	297
가. 엽불풍류계	298
나. 삼현영산회상계	317
다. 취타풍류계	339
라. 소결론	387
4. 악조의 혼재 양상	389
가. 엽불조 악곡에 허튼타령조가 혼재된 양상	389
나. 허튼타령조 악곡에 엽불조가 혼재된 양상	397
다. 엽불조 악곡에 당악조가 혼재된 양상	404
라. 당악조 악곡에 엽불조가 혼재된 양상	406
마. 소결론	407
5. ‘경기 삼현육각’의 악조 전개 양상	410

IV. 결론 413

참고문헌	417
Abstract	425
부록	429

<표 목 차>

[표 1] 연구자료	14
[표 2] 출판된 경기 삼현육각 수록 악보	16
[표 3] 경기 삼현육각 채보에 사용되는 시김새 부호	20
[표 4] 경기 삼현육각 전승계보	22
[표 5] 엽불풍류 장단 수	26
[표 6] 삼현영산회상 분장 및 장단 수	27
[표 7] 취타풍류 분장 및 장단 수	28
[표 8] 엽불풍류 장단	30
[표 9] 삼현영산회상 장단	32
[표 10] 취타풍류 장단	34
[표 11] 긴엽불 구조선율 · 핵음 · 종지음	45
[표 12] 반엽불 구조선율 · 핵음 · 종지음	55
[표 13] 삼현타령 제1장단~제3장단 구조선율 · 핵음 · 종지음	63
[표 14] 굿거리 구조선율 · 핵음 · 종지음	77
[표 15] 자진굿거리 구조선율 · 핵음 · 종지음	91
[표 16] 대영산 구조선율 · 핵음 · 종지음	108
[표 17] 엽불도드리 제1장~제4장 구조선율 · 핵음 · 종지음	129
[표 18] 삼현타령 제2장~제3장 구조선율 · 핵음 · 종지음	144
[표 19] 삼현타령 돌장 구조선율 · 핵음 · 종지음	154
[표 20] 길타령 구조선율 · 핵음 · 종지음	163
[표 21] 엽불조의 음조직	171
[표 22] 삼현타령 제4장단~제6장단 구조선율 · 핵음 · 종지음	175
[표 23] 느린허튼타령 구조선율 · 핵음 · 종지음	190
[표 24] 중허튼타령 구조선율 · 핵음 · 종지음	212
[표 25] 중영산 구조선율 · 핵음 · 종지음	236
[표 26] 잣영산 구조선율 · 핵음 · 종지음	255
[표 27] 삼현도드리 구조선율 · 핵음 · 종지음	279
[표 28] 삼현타령 제1장 구조선율 · 핵음 · 종지음	291
[표 29] 허튼타령조의 음조직	297
[표 30] 당악 구조선율 · 핵음 · 종지음	312

[표 31] 별곡타령 구조선율 · 핵음 · 종지음	333
[표 32] 취타 구조선율 · 핵음 · 종지음	363
[표 33] 길군악 구조선율 · 핵음 · 종지음	382
[표 34] 당악조의 음조직	388
[표 35] 엽불조 악곡에 허튼타령조가 혼재된 양상(삼현타령)	391
[표 36] 엽불조 악곡에 허튼타령조가 혼재된 양상(대영산)	392
[표 37] 엽불조 악곡에 허튼타령조가 혼재된 양상(엽불도드리)	393
[표 38] 엽불조 악곡에 허튼타령조가 혼재된 양상(삼현타령)	395
[표 39] 엽불조 악곡에 허튼타령조가 혼재된 양상(길타령)	396
[표 40] 허튼타령조 악곡에 엽불조가 혼재된 양상(중영산)	399
[표 41] 허튼타령조 악곡에 엽불조가 혼재된 양상(갯영산)	401
[표 42] 허튼타령조 악곡에 엽불조가 혼재된 양상(삼현도드리)	402
[표 43] 허튼타령조 악곡에 엽불조가 혼재된 양상(삼현타령)	403
[표 44] 엽불조 악곡에 당악조가 혼재된 양상(삼현타령 돌장)	405
[표 45] 당악조 악곡에 엽불조가 혼재된 양상(별곡타령)	407
[표 46] 경기 삼현육각 악곡의 악조 전개	412

<악 보 목 차>

<악보 1> 긴염불 출현음	37
<악보 2> 긴염불 제1악구(제1장단)	38
<악보 3> 긴염불 제2악구(제2장단)	39
<악보 4> 긴염불 제3악구(제3장단)	40
<악보 5> 긴염불 제4악구(제4장단)	41
<악보 6> 긴염불 제5악구(제5장단)	41
<악보 7> 긴염불 제6악구(제6장단)	42
<악보 8> 긴염불 제9악구(제9장단)	43
<악보 9> 긴염불 제11악구(제11장단)	44
<악보 10> 긴염불 e^b 의 시김새	46
<악보 11> 긴염불 f 의 시김새	46
<악보 12> 긴염불 a^b 의 시김새	47
<악보 13> 긴염불 b^b 의 시김새	48
<악보 14> 긴염불 c' 의 시김새	48
<악보 15> 반염불 출현음	50
<악보 16> 반염불 제1악구(제1장단)	51
<악보 17> 반염불 제2악구(제2장단)	52
<악보 18> 반염불 제3악구(제3장단)	52
<악보 19> 반염불 제4악구(제4장단)	53
<악보 20> 반염불 제5악구(제5장단)	53
<악보 21> 반염불 제6악구(제6장단)	54
<악보 22> 반염불 e^b 의 시김새	56
<악보 23> 반염불 f 의 시김새	56
<악보 24> 반염불 a^b 의 시김새	57
<악보 25> 반염불 b^b 의 시김새	57
<악보 26> 반염불 c' 의 시김새	58
<악보 27> 삼현타령 제1장단~제3장단 출현음	60
<악보 28> 삼현타령 제1악구(제1장단~제2장단)	61
<악보 29> 삼현타령 제2악구(제3장단)	62
<악보 30> 삼현타령 제1장단~제3장단 e^b 의 시김새	63

<악보 31> 삼현타령 제1장단~제3장단 f의 시김새	64
<악보 32> 삼현타령 제1장단~제3장단 a ^b 의 시김새	65
<악보 33> 삼현타령 제1장단~제3장단 b ^b 의 시김새	65
<악보 34> 삼현타령 제1장단~제3장단 g ^b 의 시김새	66
<악보 35> 굿거리 출현음	68
<악보 36> 굿거리 제1악구(제1장단)	69
<악보 37> 굿거리 제2악구(제2장단)	69
<악보 38> 굿거리 제3악구(제3장단)	70
<악보 39> 굿거리 제4악구(제4장단)	71
<악보 40> 굿거리 제5악구(제5장단)	71
<악보 41> 굿거리 제6악구(제6장단)	72
<악보 42> 굿거리 제7악구(제7장단의 제1박~제8장단의 제2박)	73
<악보 43> 굿거리 제8악구(제8장단의 제3박~제9장단의 제4박)	73
<악보 44> 굿거리 제9악구(제10장단)	74
<악보 45> 굿거리 제10악구(제11장단)	75
<악보 46> 굿거리 제11악구(제12장단)	75
<악보 47> 굿거리 제12악구(제13장단)	76
<악보 48> 굿거리 e ^b 의 시김새	78
<악보 49> 굿거리 f의 시김새	79
<악보 50> 굿거리 a ^b 의 시김새	79
<악보 51> 굿거리 b ^b 의 시김새	80
<악보 52> 굿거리 c'의 시김새	80
<악보 53> 자진굿거리 출현음	82
<악보 54> 자진굿거리 제1악구(제1장단)	83
<악보 55> 자진굿거리 제2악구(제2장단)	83
<악보 56> 자진굿거리 제3악구(제3장단)	84
<악보 57> 자진굿거리 제4악구(제4장단)	85
<악보 58> 자진굿거리 제5악구(제5장단)	85
<악보 59> 자진굿거리 제6악구(제6장단)	86
<악보 60> 자진굿거리 제7악구(제7장단의 제1박~제8장단의 제2박)	86
<악보 61> 자진굿거리 제8악구(제8장단의 제3박~제9장단의 제4박)	87
<악보 62> 자진굿거리 제9악구(제10장단)	88

<악보 63> 자진굿거리 제10악구(제11장단)	88
<악보 64> 자진굿거리 제11악구(제12장단)	89
<악보 65> 자진굿거리 제12악구(제13장단)	90
<악보 66> 대영산 출현음	92
<악보 67> 대영산 제1악구(제1장단)	94
<악보 68> 대영산 제2악구(제2장단)	95
<악보 69> 대영산 제3악구(제3장단)	96
<악보 70> 대영산 제4악구(제4장단)	97
<악보 71> 대영산 제5악구(제5장단)	98
<악보 72> 대영산 제6악구(제6장단)	99
<악보 73> 대영산 제7악구(제7장단)	100
<악보 74> 대영산 제9악구(제9장단)	101
<악보 75> 대영산 제10악구(제10장단)	102
<악보 76> 대영산 제11악구(제11장단)	103
<악보 77> 대영산 제12악구(제12장단)	104
<악보 78> 대영산 제13악구(제13장단)	105
<악보 79> 대영산 제14악구(제14장단)	106
<악보 80> 대영산 e^b 의 시김새	109
<악보 81> 대영산 f 의 시김새	110
<악보 82> 대영산 a^b 의 시김새	111
<악보 83> 대영산 b^b 의 시김새	112
<악보 84> 대영산 $d^{b'}$ 의 시김새	113
<악보 85> 대영산 g^b 의 시김새	113
<악보 86> 엽불도드리 제1장~제4장 출현음	116
<악보 87> 엽불도드리 제1악구(제1장단)	117
<악보 88> 엽불도드리 제2악구(제2장단~제3장단)	117
<악보 89> 엽불도드리 제3악구(제4장단)	118
<악보 90> 엽불도드리 제5악구(제7장단~제8장단)	119
<악보 91> 엽불도드리 제6악구(제9장단~제10장단)	119
<악보 92> 엽불도드리 제8악구(제13장단~제14장단)	120
<악보 93> 엽불도드리 제9악구(제15장단~제16장단)	121
<악보 94> 엽불도드리 제10악구(제17장단~제18장단)	121

<악보 95> 염불도드리 제11악구(제19장단 ~ 제20장단)	122
<악보 96> 염불도드리 제12악구(제21장단 ~ 제22장단)	123
<악보 97> 염불도드리 제13악구(제23장단 ~ 제24장단)	124
<악보 98> 염불도드리 제14악구(제25장단 ~ 제26장단)	125
<악보 99> 염불도드리 제15악구(제27장단 ~ 제28장단)	126
<악보 100> 염불도드리 제16악구(제29장단)	126
<악보 101> 염불도드리 제17악구(제30장단 ~ 제31장단)	127
<악보 102> 염불도드리 e^b 의 시김새	130
<악보 103> 염불도드리 f 의 시김새	130
<악보 104> 염불도드리 a^b 의 시김새	131
<악보 105> 염불도드리 b^b 의 시김새	132
<악보 106> 염불도드리 c' 의 시김새	132
<악보 107> 염불도드리 g^b 의 시김새	133
<악보 108> 염불도드리 d^b' 의 시김새	133
<악보 109> 삼현타령 제2장~제3장 출현음	136
<악보 110> 삼현타령 제7악구(제11장단)	137
<악보 111> 삼현타령 제8악구(제12장단)	137
<악보 112> 삼현타령 제9악구(제13장단)	138
<악보 113> 삼현타령 제10악구(제14장단)	139
<악보 114> 삼현타령 제11악구(제15장단)	139
<악보 115> 삼현타령 제12악구(제16장단)	140
<악보 116> 삼현타령 제13악구(제17장단 ~ 제18장단)	141
<악보 117> 삼현타령 제14악구(제19장단 ~ 제20장단)	142
<악보 118> 삼현타령 제17악구(제24장단)	143
<악보 119> 삼현타령 제2장~제3장 e^b 의 시김새	145
<악보 120> 삼현타령 제2장~제3장 f 의 시김새	146
<악보 121> 삼현타령 제2장~제3장 a^b 의 시김새	147
<악보 122> 삼현타령 제2장~제3장 b^b 의 시김새	148
<악보 123> 삼현타령 제2장~제3장 d^b' 의 시김새	148
<악보 124> 삼현타령 삼현타령 제2장~제3장 g^b 의 시김새	149
<악보 125> 삼현타령 돌장 출현음	151
<악보 126> 삼현타령 제18악구(제25장단 ~ 제26장단)	152

<악보 127> 삼현타령 제19악구(제27장단)	153
<악보 128> 길타령 출현음	156
<악보 129> 길타령 제1악구(제1장단)	157
<악보 130> 길타령 제2악구(제2장단)	157
<악보 131> 길타령 제3악구(제3장단~제4장단)	158
<악보 132> 길타령 제4악구(제5장단~제6장단)	159
<악보 133> 길타령 제6악구(제9장단~제10장단)	159
<악보 134> 길타령 제7악구(제11장단~제12장단)	160
<악보 135> 길타령 제8악구(제13장단~제14장단)	161
<악보 136> 길타령 제10악구(제17장단~제18장단)	161
<악보 137> 길타령 e^b 의 시김새	164
<악보 138> 길타령 f 의 시김새	164
<악보 139> 길타령 a^b 의 시김새	165
<악보 140> 길타령 b^b 의 시김새	166
<악보 141> 길타령 c' 의 시김새	166
<악보 142> 길타령 $d^{b'}$ 의 시김새	167
<악보 143> 삼현타령 제4장단~제6장단 출현음	173
<악보 144> 삼현타령 제3악구(제4장단~제5장단)	173
<악보 145> 삼현타령 제4악구(제6장단)	174
<악보 146> 삼현타령 제4장단~제6장단 e^b 의 시김새	176
<악보 147> 삼현타령 제4장단~제6장단 g^b 의 시김새	176
<악보 148> 삼현타령 제4장단~제6장단 a^b 의 시김새	177
<악보 149> 삼현타령 제4장단~제6장단 b^b 의 시김새	177
<악보 150> 삼현타령 제4장단~제6장단 $d^{b'}$ 의 시김새	178
<악보 151> 느린허튼타령 출현음	179
<악보 152> 느린허튼타령 제1악구(제1장단)	180
<악보 153> 느린허튼타령 제2악구(제2장단)	181
<악보 154> 느린허튼타령 제3악구(제3장단)	182
<악보 155> 느린허튼타령 제4악구(제4장단)	182
<악보 156> 느린허튼타령 제5악구(제5장단)	183
<악보 157> 느린허튼타령 제6악구(제6장단)	183
<악보 158> 느린허튼타령 제7악구(제7장단)	184

<악보 159> 느린허튼타령 제8악구(제8장단)	185
<악보 160> 느린허튼타령 제9악구(제9장단)	186
<악보 161> 느린허튼타령 제10악구(제10장단)	187
<악보 162> 느린허튼타령 제11악구(제11장단)	187
<악보 163> 느린허튼타령 제12악구(제12장단)	188
<악보 164> 느린허튼타령 e^b 의 시김새	191
<악보 165> 느린허튼타령 g^b 의 시김새	192
<악보 166> 느린허튼타령 a^b 의 시김새	192
<악보 167> 느린허튼타령 b^b 의 시김새	193
<악보 168> 느린허튼타령 d^b 의 시김새	193
<악보 169> 중허튼타령 출현음	195
<악보 170> 중허튼타령 제1악구(제1장단)	196
<악보 171> 중허튼타령 제2악구(제2장단)	196
<악보 172> 중허튼타령 제3악구(제3장단)	197
<악보 173> 중허튼타령 제4악구(제4장단)	198
<악보 174> 중허튼타령 제5악구(제5장단)	198
<악보 175> 중허튼타령 제6악구(제6장단)	199
<악보 176> 중허튼타령 제7악구(제7장단)	200
<악보 177> 중허튼타령 제8악구(제8장단)	200
<악보 178> 중허튼타령 제9악구(제9장단)	201
<악보 179> 중허튼타령 제10악구(제10장단)	202
<악보 180> 중허튼타령 제11악구(제11장단)	202
<악보 181> 중허튼타령 제12악구(제12장단)	203
<악보 182> 중허튼타령 제13악구(제13장단)	204
<악보 183> 중허튼타령 제14악구(제14장단)	204
<악보 184> 중허튼타령 제15악구(제15장단)	205
<악보 185> 중허튼타령 제16악구(제16장단)	206
<악보 186> 중허튼타령 제17악구(제17장단)	206
<악보 187> 중허튼타령 제18악구(제18장단)	207
<악보 188> 중허튼타령 제19악구(제19장단)	208
<악보 189> 중허튼타령 제20악구(제20장단)	208
<악보 190> 중허튼타령 제21악구(제21장단)	209

<악보 191> 중허튼타령 제22악구(제22장단)	210
<악보 192> 중허튼타령 제23악구(제23장단)	210
<악보 193> 중허튼타령 제24악구(제24장단)	211
<악보 194> 중허튼타령 e^b 의 시김새	214
<악보 195> 중허튼타령 g^b 의 시김새	215
<악보 196> 중허튼타령 a^b 의 시김새	215
<악보 197> 중허튼타령 b^b 의 시김새	216
<악보 198> 중허튼타령 d^b '의 시김새	216
<악보 199> 중영산 출현음	218
<악보 200> 중영산 제1악구(제1장단~제2장단)	220
<악보 201> 중영산 제2악구(제3장단~제4장단)	222
<악보 202> 중영산 제3악구(제5장단)	223
<악보 203> 중영산 제4악구(제6장단 제1박~제7장단 제5박)	224
<악보 204> 중영산 제5악구(제7장단 제6박~제8장단 제10박)	225
<악보 205> 중영산 제6악구(제9장단 제1박~제10장단 제5박)	226
<악보 206> 중영산 제7악구(제10장단 제6박~제11장단 제10박)	227
<악보 207> 중영산 제8악구(제12장단)	228
<악보 208> 중영산 제9악구(제13장단)	229
<악보 209> 중영산 제10악구(제14장단)	230
<악보 210> 중영산 제11악구(제15장단)	231
<악보 211> 중영산 제12악구(제16장단)	232
<악보 212> 중영산 제13악구(제17장단 제1박~제17장단 제5박)	233
<악보 213> 중영산 e^b 의 시김새	237
<악보 214> 중영산 g^b 의 시김새	238
<악보 215> 중영산 a^b 의 시김새	238
<악보 216> 중영산 b^b 의 시김새	239
<악보 217> 중영산 d^b '의 시김새	240
<악보 218> 중영산 f 의 시김새	241
<악보 219> 잣영산 출현음	243
<악보 220> 잣영산 제1악구(제1장단~제2장단)	244
<악보 221> 잣영산 제2악구(제3장단 제1박~제4장단 제3박)	245
<악보 222> 잣영산 제3악구(제4장단 제4박~제4장단 제10박)	246

<악보 223> 잣영산 제4악구(제5장단)	247
<악보 224> 잣영산 제5악구(제6장단~제7장단)	248
<악보 225> 잣영산 제7악구(제8장단)	249
<악보 226> 잣영산 제8악구(제9장단~제10장단)	250
<악보 227> 잣영산 제10악구(제11장단)	251
<악보 228> 잣영산 제11악구(제12장단)	251
<악보 229> 잣영산 제12악구(제13장단~제14장단)	252
<악보 230> 잣영산 제14악구(제15장단)	253
<악보 231> 잣영산 제15악구(제16장단)	253
<악보 232> 잣영산 e^b 의 시김새	256
<악보 233> 잣영산 g^b 의 시김새	257
<악보 234> 잣영산 a^b 의 시김새	257
<악보 235> 잣영산 b^b 의 시김새	258
<악보 236> 잣영산 $d^{b'}$ 의 시김새	259
<악보 237> 삼현도드리 출현음	261
<악보 238> 삼현도드리 제1악구(제1장단~제2장단)	262
<악보 239> 삼현도드리 제2악구(제2장단)	262
<악보 240> 삼현도드리 제3악구(제3장단~제4장단)	263
<악보 241> 삼현도드리 제4악구(제5장단)	264
<악보 242> 삼현도드리 제5악구(제6장단)	265
<악보 243> 삼현도드리 제6악구(제7장단~제9장단)	265
<악보 244> 삼현도드리 제7악구(제10장단~제11장단)	266
<악보 245> 삼현도드리 제8악구(제12장단~제13장단)	267
<악보 246> 삼현도드리 제9악구(제14장단)	267
<악보 247> 삼현도드리 제10악구(제15장단)	268
<악보 248> 삼현도드리 제11악구(제16장단)	269
<악보 249> 삼현도드리 제12악구(제17장단)	269
<악보 250> 삼현도드리 제13악구(제18장단)	270
<악보 251> 삼현도드리 제14악구(제19장단)	271
<악보 252> 삼현도드리 제15악구(제20장단)	271
<악보 253> 삼현도드리 제16악구(제21장단~제22장단)	272
<악보 254> 삼현도드리 제17악구(제23장단~제24장단)	273

<악보 255> 삼현도드리 제18악구(제25장단)	273
<악보 256> 삼현도드리 제19악구(제26장단)	274
<악보 257> 삼현도드리 제20악구(제27장단~제28장단)	274
<악보 258> 삼현도드리 제21악구(제29장단~제30장단)	275
<악보 259> 삼현도드리 제22악구(제31장단)	276
<악보 260> 삼현도드리 제23악구(제32장단)	276
<악보 261> 삼현도드리 제24악구(제33장단~제35장단)	277
<악보 262> 삼현도드리 e^b 의 시김새	280
<악보 263> 삼현도드리 g^b 의 시김새	281
<악보 264> 삼현도드리 a^b 의 시김새	282
<악보 265> 삼현도드리 b^b 의 시김새	282
<악보 266> 삼현도드리 d^b '의 시김새	283
<악보 267> 삼현타령 제1장 출현음	285
<악보 268> 삼현타령 제1악구(제1장단~제2장단)	286
<악보 269> 삼현타령 제2악구(제3장단~제4장단)	287
<악보 270> 삼현타령 제3악구(제5장단~제6장단)	288
<악보 271> 삼현타령 제4악구(제7장단)	288
<악보 272> 삼현타령 제5악구(제8장단~제9장단)	289
<악보 273> 삼현타령 제6악구(제10장단)	290
<악보 274> 삼현타령 제1장 e^b 의 시김새	291
<악보 275> 삼현타령 제1장 g^b 의 시김새	292
<악보 276> 삼현타령 제1장 a^b 의 시김새	293
<악보 277> 삼현타령 제1장 b^b 의 시김새	293
<악보 278> 삼현타령 제1장 d^b '의 시김새	294
<악보 279> 당악 출현음	299
<악보 280> 당악 제1악구(제1장단~제2장단)	300
<악보 281> 당악 제2악구(제3장단)	300
<악보 282> 당악 제3악구(제4장단)	301
<악보 283> 당악 제4악구(제5장단~제6장단)	301
<악보 284> 당악 제5악구(제7장단 제1박~제9장단 제3박)	302
<악보 285> 당악 제6악구(제9장단 제4박~제11장단 제4박)	303
<악보 286> 당악 제7악구(제12장단~제13장단)	304

<악보 287> 당악 제8악구(제14장단 제1박~제15장단 제2박)	304
<악보 288> 당악 제9악구(제15장단 제3박~제16장단 제4박)	305
<악보 289> 당악 제10악구(제17장단 제1박~제20장단 제3박)	306
<악보 290> 당악 제12악구(제23장단)	306
<악보 291> 당악 제13악구(제24장단)	307
<악보 292> 당악 제23악구(제44장단~제45장단)	308
<악보 293> 당악 제24악구(제46장단~제47장단)	308
<악보 294> 당악 제25악구(제48장단~제49장단)	309
<악보 295> 당악 제26악구(제50장단~제51장단)	309
<악보 296> 당악 제29악구(제55장단 제3박~제58장단 제4박)	310
<악보 297> 당악 e ^b 의 시김새	313
<악보 298> 당악 f의 시김새	314
<악보 299> 당악 g의 시김새	314
<악보 300> 당악 b ^b 의 시김새	315
<악보 301> 당악 c'의 시김새	316
<악보 302> 별곡타령 출현음	318
<악보 303> 별곡타령 제1악구(제1장단~제2장단)	319
<악보 304> 별곡타령 제2악구(제3장단~제4장단)	319
<악보 305> 별곡타령 제3악구(제5장단)	320
<악보 306> 별곡타령 제4악구(제6장단)	321
<악보 307> 별곡타령 제5악구(제7장단)	321
<악보 308> 별곡타령 제6악구(제8장단~제9장단)	322
<악보 309> 별곡타령 제7악구(제10장단~제11장단)	323
<악보 310> 별곡타령 제11악구(제16장단~제17장단)	323
<악보 311> 별곡타령 제12악구(제18장단)	324
<악보 312> 별곡타령 제13악구(제19장단)	325
<악보 313> 별곡타령 제14악구(제20장단~제21장단)	325
<악보 314> 별곡타령 제16악구(제23장단~제24장단)	326
<악보 315> 별곡타령 제17악구(제25장단)	327
<악보 316> 별곡타령 제18악구(제26장단)	327
<악보 317> 별곡타령 제19악구(제27장단)	328
<악보 318> 별곡타령 제20악구(제28장단~제29장단)	328

<악보 319> 별곡타령 제21악구(제30장단~제32장단)	329
<악보 320> 별곡타령 제22악구(제33장단~제34장단)	330
<악보 321> 별곡타령 제23악구(제35장단~제36장단)	330
<악보 322> 별곡타령 제28악구(제43장단)	331
<악보 323> 별곡타령 e^b 의 시김새	334
<악보 324> 별곡타령 f 의 시김새	335
<악보 325> 별곡타령 g 의 시김새	336
<악보 326> 별곡타령 b^b 의 시김새	336
<악보 327> 별곡타령 c' 의 시김새	337
<악보 328> 취타 출현음	339
<악보 329> 취타 제1악구(제1장단 제1박~제10박)	340
<악보 330> 취타 제2악구(제1장단 제11박~제2장단 제8박)	341
<악보 331> 취타 제3악구(제2장단 제9박~제3장단 제4박)	342
<악보 332> 취타 제4악구(제3장단 제5박~제11박)	342
<악보 333> 취타 제5악구(제3장단 제12박~제4장단 제12박)	343
<악보 334> 취타 제6악구(제5장단 제1박~제4박)	344
<악보 335> 취타 제7악구(제5장단 제5박~제6장단 제4박)	345
<악보 336> 취타 제8악구(제6장단 제5박~제6장단 제12박)	346
<악보 337> 취타 제9악구(제7장단 제1박~제7박)	346
<악보 338> 취타 제10악구(제7장단 제8박~제8장단 제4박)	347
<악보 339> 취타 제11악구(제8장단 제5박~제8장단 제12박)	348
<악보 340> 취타 제12악구(제9장단)	348
<악보 341> 취타 제13악구(제10장단 제1박~제4박)	349
<악보 342> 취타 제14악구(제10장단 제5박~제11장단 제6박)	350
<악보 343> 취타 제15악구(제11장단 제7박~제12박)	351
<악보 344> 취타 제16악구(제12장단)	351
<악보 345> 취타 제17악구(제13장단 제1박~제14장단 제4박)	352
<악보 346> 취타 제18악구(제14장단 제5박~제8박)	353
<악보 347> 취타 제19악구(제14장단 제9박~제15장단 제4박)	354
<악보 348> 취타 제20악구(제15장단 제5박~제15장단 제8박)	354
<악보 349> 취타 제21악구(제15장단 제9박~제16장단 제12박)	355
<악보 350> 취타 제22악구(제16장단 제5박~제16장단 제12박)	356

<악보 351> 취타 제23악구(제17장단 제1박~제6박)	357
<악보 352> 취타 제24악구(제17장단 제7박~제18장단 제4박)	357
<악보 353> 취타 제25악구(제18장단 제5박~제8박)	358
<악보 354> 취타 제26악구(제18장단 제9박~제12박)	359
<악보 355> 취타 제27악구(제19장단 제1박~제8박)	359
<악보 356> 취타 제28악구(제19장단 제9박~제12박)	360
<악보 357> 취타 제29악구(제20장단 제1박~제8박)	361
<악보 358> 취타 제30악구(제20장단 제9박~제21장단 제2박)	361
<악보 359> 취타 제31악구(제21장단 제3박~제12박)	362
<악보 360> 취타 e ^b 의 시김새	365
<악보 361> 취타 f의 시김새	365
<악보 362> 취타 g의 시김새	366
<악보 363> 취타 b ^b 의 시김새	367
<악보 364> 취타 c'의 시김새	367
<악보 365> 길군악 출현음	369
<악보 366> 길군악 제1악구(제1장단)	370
<악보 367> 길군악 제2악구(제2장단)	371
<악보 368> 길군악 제3악구(제3장단)	372
<악보 369> 길군악 제4악구(제4장단)	372
<악보 370> 길군악 제5악구(제5장단)	373
<악보 371> 길군악 제6악구(제6장단)	374
<악보 372> 길군악 제7악구(제7장단)	374
<악보 373> 길군악 제8악구(제8장단)	375
<악보 374> 길군악 제9악구(제9장단)	376
<악보 375> 길군악 제10악구(제10장단)	377
<악보 376> 길군악 제11악구(제11장단)	377
<악보 377> 길군악 제13악구(길군악 돌장 제1장단)	378
<악보 378> 길군악 제14악구(길군악 돌장 제2장단)	379
<악보 379> 길군악 제15악구(길군악 돌장 제3장단)	379
<악보 380> 길군악 제16악구(길군악 돌장 제4장단)	380
<악보 381> 길군악 e ^b 의 시김새	383
<악보 382> 길군악 f의 시김새	384

<악보 383> 길군악 g의 시김새	384
<악보 384> 길군악 b ^b 의 시김새	385
<악보 385> 길군악 c'의 시김새	385
<악보 386> 엮불조 악곡에 허튼타령조가 혼재된 양상(삼현타령)	390
<악보 387> 엮불조 악곡에 허튼타령조가 혼재된 양상(대영산)	391
<악보 388> 엮불조 악곡에 허튼타령조가 혼재된 양상(엮불도드리)	392
<악보 389> 엮불조 악곡에 허튼타령조가 혼재된 양상(삼현타령)	394
<악보 390> 엮불조 악곡에 허튼타령조가 혼재된 양상(길타령)	395
<악보 391> 허튼타령조 악곡에 엮불조가 혼재된 양상(중영산)	398
<악보 392> 허튼타령조 악곡에 엮불조가 혼재된 양상(잡영산)	400
<악보 393> 허튼타령조 악곡에 엮불조가 혼재된 양상(삼현도드리)	401
<악보 394> 허튼타령조 악곡에 엮불조가 혼재된 양상(삼현타령)	402
<악보 395> 엮불조 악곡에 당악조가 혼재된 양상(삼현타령 돌장)	404
<악보 396> 당악조 악곡에 엮불조가 혼재된 양상(별곡타령)	406

I. 서론

1. 문제제기 및 연구목적

삼현육각¹⁾은 대금, 목피리, 곁피리, 해금, 장구, 북으로 구성되는 악기 편성의 총칭이다. 삼현육각 악사들이 연주하는 것을 ‘새면친다’고도 하며, 삼현육각 편성으로 연주되는 형태를 ‘대풍류’라고도 한다.²⁾ 전통사회에서 삼현육각 음악인들은 궁중이나 사가의 연향 음악을 담당했고, 세악수로서 군대의 행진 음악을 담당했었다. 또한 지방 관아의 행사, 귀인의 행차, 사가의 연향, 그리고 가면극이나 무속, 무용반주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했었다. 삼현육각은 지역마다 존재했으며, 경기지역 내에서도 지역별로 음악이 달랐다.

20세기에 조사된 삼현육각은 경기 삼현육각(광주 삼현, 오산·수원 삼현), 호남 삼현육각(태인 삼현, 고흥 삼현, 전주 삼현, 영광 삼현), 해서 삼현육각(용강 삼현, 해주 삼현, 은률 삼현), 영남 삼현육각(통영 삼현, 진주 삼현)이 있다. 그러나 태인 삼현, 진주 삼현, 용강 삼현은 전승이 끊어졌고, 고흥 삼현도 전승이 끊어지기 직전에 있다.³⁾ 이 밖에 인천 삼현육각과 서울 새남굿의 삼현육각이 있다.

1) 삼현육각의 어원에 대해 이보형은 다음과 같이 언급했다. “조선초기에 三絃六角은 ‘三絃’ 즉 거문고, 가얏고, 비파와 대금, 중금, 소금, 피리, 해금, 장구, 북 가운데 6개의 악기를 ‘六角’이라 하였던 것 같으나 당시의 육각이 오늘날 육각과 같은 것인지 알 길이 없다. (중략) 삼현삼죽 음악에서는 삼현이 현악을, 삼죽이 관악을 뜻하였으나 조선후기에는 삼현육각이 관악이란 말로 굳어지면서 관악영산회상을 삼현영산회상이라 하게 되고 ‘육궐이’ 즉 육각치는 것은 ‘삼면친다’는 말로 된 것 같다.” 이보형, 『무형문화재(음악) 조사보고서(4): 삼현육각』, (대전: 문화재관리국 문화재연구소, 1984), 7~8쪽.

2) 본고에서는 ‘대풍류’ 대신 ‘삼현육각’이라는 명칭을 사용한다. 그 이유는 본고의 연구대상이 문화재청에 ‘삼현육각’이라는 이름으로 지정되어 전승되고 있기 때문이다. 한편, ‘삼현육각’은 편성을 지칭하는 용어이지만, 본고에서는 그 음악을 포괄하는 용어로 ‘삼현육각’이라 하겠다.

3) 이보형, “향제 삼현육각 소고”(대전: 국립문화재연구소, 1982).

경기 지역에서는 광주, 오산, 수원, 시흥, 김포, 인천, 안산, 평택, 과천, 양주에서 삼현육각을 했다고 전해지며, 그 중 광주의 삼현이 뛰어났다고 한다.⁴⁾ 경기 지역의 삼현육각은 대부분 전승이 미약해진 상황이고, 현재 문화재로 지정된 삼현육각은 인천광역시 무형문화재 제1호 삼현육각⁵⁾과 서울특별시 무형문화재 제44호 삼현육각⁶⁾이 있으나 인천의 삼현육각은 전승이 끊어질 위기에 있다.

한편, 광주 출신의 김광식과 평택 출신의 지영희는 서울과 경기 전역에서 삼현육각을 비롯하여 다양한 음악 활동을 하며 전승에 공헌하여 이들의 음악은 경기 삼현육각 중에서 가장 공고하게 살아남아, 현재 서울특별시 무형문화재 제44호로 지정⁷⁾되어 전승되고 있다. 이에 서울특별시 무형문화재 제44호 ‘삼현육각’은 경기도 광주와 평택의 삼현육각이 합쳐진 것으로 볼 수 있다.⁸⁾

서울특별시 무형문화재 제44호 ‘삼현육각’의 문화재 보유자는 대금에 이철주, 피리에 최경만, 해금에 김무경이며, 이철주는 김광식을, 최경만과 김무경은 지영희를 사사하였다. 또한 세 명의 보유자는 각각의 전수소에서 삼현육각을 전수하고 있으며, 매달 1회 이상 이수자 및 전수자와 보유자가 합주 연습을 하고, 매년 정기연주회⁹⁾를 열어 삼현육각을 전승하고 있다.

현재 서울특별시 무형문화재 제44호 ‘삼현육각’에서 전승 중인 삼현육

4) 이보형, “향재 삼현육각 소고”(대전: 국립문화재연구소, 1982), 2쪽.

5) 지정일은 1985년 10월 26일이고, 보유자는 김석송이다.

6) 지정일은 2014년 5월 15일이고, 보유자는 최경만, 김무경, 이철주이다.

7) 문화재 지정 명칭은 ‘삼현육각’이고, 서울특별시에서 지정한 문화재이다. 하지만 실제 음악의 발생지는 서울 외곽의 경기 지역이며, 서울의 삼현육각과는 음악이 다르다. 그러므로 지역의 구분이 필요한 경우 ‘경기 삼현육각’이라 하겠다.

8) 김광식은 서울 및 평택을 중심으로 활동하던 방용현의 영향을 많이 받았으며, 지영희는 수원 및 여주를 중심으로 활동하던 김덕진과 경기도 동부지역에서 활동한 양경원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 이것으로 보아 출신 지역 외 경기지역의 음악과 영향을 주고받았을 가능성 또한 높다.

9) 2008년부터 2013년까지 총 7회의 정기연주회를 하였으며, 2015년에는 대금, 피리, 해금 악기별로 발표회를 하였다. 2016년부터는 다시 세 악기를 통합하여 전수 발표회를 열고 있다. 상세한 내용은 부록에 제시한다. 자료 제공을 해주신 삼현육각보존회의 관계자에게 감사의 마음을 표합니다.

각 악곡은 《염불풍류》, 《삼현영산회상》, 《취타풍류》¹⁰⁾이다. 이 세 곡은 모음곡이며 구성 악곡은 총 19곡¹¹⁾이다.

경기 삼현육각은 이와 같이 전승되고 있으나 각종 사전이나 개론서에 악조에 대한 명확한 언급이 없다.¹²⁾ 이에 경기 삼현육각의 악조를 구명하고, 개별 악곡이 어떠한 음악적 특징을 지니는지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 및 학문적 분류가 필요한 시점이다. 경기 삼현육각은 민간에서 발생하여 구전으로 전승되어온 음악이었기 때문에 음악에 대한 문헌 자료¹³⁾가 부족하고, 특히 《삼현영산회상》은 거의 전승이 끊어질 위기에서 문화재로 지정되었기 때문에 연주가 지금껏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못했으며, 이로 인해 연구가 충분치 못한 면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삼현육각 문화재 보유자들의 오늘날 연주를 대상으로, 경기 삼현육각의 악조와 음악적 특징을 분석적으로 고찰하며 논하고자 한다.

한편, 이철주는 경기 삼현육각에는 세 가지 조가 있다고 말하며, 각 조의 이름을 ‘염불조’, ‘허튼타령조’, ‘당악조’라고 칭한다. 이에 따른 이철

10) 본고에서는 악곡명을 위와 같이 한다. 《염불풍류》는 《대풍류》라 부르기도 하고, 《삼현영산회상》은 《대영산》 또는 《관악영산회상》이라고도 하고, 《취타풍류》는 《관악 취타곡》이라고도 한다.

11) 《염불풍류》의 세부 악곡은 <긴염불(염불타령)>, <반염불>, <삼현타령>, <느린허튼타령>, <중허튼타령>, <자진허튼타령>, <긋거리>, <자진긋거리>, <당악(휘모리)>이다. 《삼현영산회상》의 세부 악곡은 <대영산>, <중영산>, <жат영산>, <삼현도드리>, <염불도드리>, <삼현타령>, <별곡타령>이다. <취타풍류>의 세부 악곡은 <취타>, <길군악>, <길군악 돌장>, <길타령>, <염불타령>, <삼현타령>, <별곡타령>이다. 《취타풍류》의 <염불타령>은 <염불풍류>의 <긴염불>과 동일하고, <삼현타령>과 <별곡타령>은 《삼현영산회상》의 악곡과 동일하다. 악곡의 총 개수에서 겹치는 악곡은 제외하였다. 한편, 위 악곡들은 음악의 기능에 따라 개별 악곡으로 연주되기도 하지만 현재 삼현육각보존회에서는 모음곡으로 전승 및 연주되고 있다.

12) 장사훈의 『국악대사전』에는 ‘염불’ 항목에 ‘5음 음계의 평조 선법(平調旋法)’에 의한 경기 민요 형식의 가락에 의한 곡’이라는 내용이 있으나 이 외 삼현육각 악곡의 악조에 관련된 내용은 없다. 김영운의 『국악개론』에는 ‘관악영산회상’과 ‘대풍류’ 항목에 민간전승 음악에 관련된 내용이 있지만 악조에 관한 내용은 없다. 장사훈, 『국악대사전』, (서울: 세광음악출판사, 1984), 518쪽; 김영운, 『국악개론』, (과주: 음악세계, 2015), 183쪽, 272쪽.

13) 가장 오래된 경기 삼현육각의 악보는 지영희가 1969년 편찬한 『대금교본』, 『피리교본』, 『해금교본』이다.

주의 악조 해석은 다음 인용문을 통해 살펴보겠다.

“염불조는 본청(필자주: a^b)을 높게 잡아야 해. 청은 대금이 먼저 잡아주는거야. 염불조는... <이철주가 실연으로 들려줌> 여기서 이 레 음(필자주: b^b)은 매우 죽여서 농음을 한 다음에 (c' 로) 올라가야 해. 그 음(필자주: c')은 높으면 안 돼. 허튼타령조는... <이철주가 실연으로 들려줌> 이 음(필자주: a^b)이 본청이야. 이건(필자주: d^b) 많이 제껴내야 해. 당악조는 세 스케일 중에서 본청(필자주: g)이 제일 얇은 (필자주: 낮은)거야. <이철주가 실연으로 들려줌>”

- 2014. 7. 17. 이철주 개인 강습 녹음자료(교육생: 유경은)

이철주는 위와 같은 악조 해석¹⁴⁾을 갖고 있으며, 평생 이 음악을 학습하고 연주해온 연주자의 내관적(emic)¹⁵⁾ 악조 해석은 해당 음악의 실질적 특성에 기반하기 때문에 그에 따른 적합성과 타당성이 존재할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이철주에 의한 악조 해석의 명칭인 ‘염불조’, ‘허튼타령조’, ‘당악조’를 경기 삼현육각의 악조 명칭으로 전제하고자 한다.¹⁶⁾

14) 즉, 이철주는 염불조는 구성음이 e^b - f - a^b - b^b - c' 이고, b^b 의 음고를 낮추며 농음하는 것, 그리고 a^b 에서 중지감을 느끼는 것, 본청은 a^b 라는 해석을 갖고 있다. 허튼타령조는 구성음이 e^b - g^b - a^b - b^b - d^b 이고, 본청은 a^b 이며, g^b 과 d^b 은 퇴성 또는 하행하는 성격을 갖는 음이라는 해석을 갖고 있다. 당악조는 구성음이 e^b - f - g - b^b - c' 이고, 본청은 g 라는 해석을 갖고 있다. 또한 <긴염불>, <반염불>, <굿거리>, <자진굿거리>, <대영산>, <염불도드리>, <삼현타령>을 염불조, <느린허튼타령>, <중허튼타령>, <자진허튼타령>, <중영산>, <жат영산>, <삼현도드리>를 허튼타령조, <당악>, <별곡타령>, <취타>, <길군악>을 당악조로 해석하고, <중영산>, <жат영산>, <삼현타령>은 염불조와 허튼타령조가 섞인 곡이라는 해석을 갖고 있다.

15) 내관적(emic)이란 인류학이나 민족음악학에서 문화를 비교하는 시각으로, 연구자에 의한 외부적 관점과 대조되는 현지 음악인에 의한 ‘내부적’ 관점을 말한다. 이용식, “한국음악학과 에믹(emic)/에틱(etic) 논제”, 『음악논단』17(2003).

16) 악곡명을 사용하여 악조의 개념을 전달하는 경우 연주자가 연주 시 이해하기 쉽다. 삼현육각 연주자에게 서양음악 어법을 차용한 악조명이나 다른 장르의 악조명을 사용하게 된다면, 음악 실제와 괴리되는 다소 혼란스러운 부분이 있을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현재 학계에서 사용되는 악조의 명칭으로는 경기 삼현육각의 음악적 특징을 나타내기에 어려운 점이 있다.

또한 악곡의 명칭으로 음악 양식 유형 및 특색을 지시하는 용어를 만드는 경

따라서 본 논문은 위와 같은 해석과 악조명을 제시하는 연주자의 내관적 인식의 근거, 그리고 그 분석적 타당성에 대해 체계적으로 논증하고자 한다. 궁극적으로 본 연구는 경기 삼현육각의 악조를 정리하고 음악적 특징을 고찰하여, 학술적인 연구에 더불어 연주자들과의 음악적인 소통을 보다 편리하게 하는데 주된 목적이 있다.

2. 선행연구 검토

삼현육각에 관한 선행연구는 다음 세 가지 범주로 나누어서 살펴보겠다. 첫 번째는 경기 삼현육각의 악곡 분석에 관한 연구 중 악조에 관련된 연구¹⁷⁾이고, 두 번째는 경기 삼현육각의 전승에 관한 연구이며, 세 번째는 삼현육각에 관한 지역적 연구이다.

첫째로, 경기 삼현육각에 관한 선행연구 중 악조에 관한 연구를 발췌하여 살펴보겠다. 경기 삼현육각에 대한 분석은 최태현의 1998년 논문¹⁸⁾이 대표적이다. 이 논문에서 최태현은 지영희의 음악 중 《취타풍류》와 《염불풍류》를 분석하여 각 악곡의 장단과 음계, 그리고 해금의 식지 이동에 따른 구성음을 밝혔다. 최태현의 연구 중 음계에 관한 연구를 발

우가 있다. 예를 들어, 메나리토리, 성주푸리토리 또는 창부타령조, 수심가조 등이다. 대표적으로 이보형은 음악 양식 유형 특색을 지시하는 학술 용어로 ‘토리’라는 단어를 사용하였다. 본고에서 사용하고자 하는 악조의 명칭 또한 위와 같은 의미를 지시하는 용어이나, 이보형은 이를 주로 민요나 무가의 지역 음악 양식 유형 특색을 지시하는 용어로 사용하였으며, 이는 본고의 연구대상인 삼현육각과는 다른 범주의 음악이므로 ‘토리’라는 단어를 사용하게 될 경우 혼동의 여지가 있다. 이에 ‘토리’보다는 ‘조’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적합하겠다.

17) 삼현육각 음악의 악조를 주제로 한 연구 논문은 부족하여, 삼현육각 음악에 관련된 선행연구 중 선율분석 및 악조에 관련한 연구결과를 발췌하여 살펴보겠다. 이러한 이유로 전승과 지역적 연구에 관한 선행연구와 겹치는 논문이 다수 있겠다.

18) 최태현, “지영희가 계승한 ‘취타풍류한바탕’과 ‘대풍류한바탕’의 음악적 구성”, 『중앙음악연구』7(1998).

체하자면 다음과 같다. <취타>는 f음이 ‘도’가 되는 솔음계이며, 제2장부터 제6장까지는 라음계의 분위기가 있다고 하였고, <길군악>은 f음이 ‘도’가 되며 ‘솔’이 종지감을 주어 솔음계인 반면, 제6장의 끝 밖에서는 f음이 ‘도’가 되며 ‘레’로 종지하는 레음계라고 하였다.¹⁹⁾ <길타령>과 <염불타령>은 b^b이 ‘도’가 되는 솔음계에 해당한다고 하였다. <삼현타령>의 시작은 b^b음이 ‘도’가 되는 솔음계이며, 제1장 세 번째 장단 셋째 박부터 제1장 끝까지는 a^b이 ‘도’가 되는 라음계이고, 제2장부터 제2장 다섯째 장단까지 다시 b^b음이 ‘도’가 되는 솔음계이며, 제2장 네 번째 장단부터 e^b이 ‘도’가 되고 ‘솔’로 종지하는 레음계라고 하였다. <별곡타령>은 e^b²⁰⁾이 중심이 되는 솔음계에 해당한다고 하였다. <긴염불>, <반염불>, <굿거리>의 음계는 b^b음이 ‘도’가 되는 솔음계에 해당하고, <삼현타령>은 앞의 제1장과 같으며, 허튼타령은 a^b음이 ‘도’가 되는 라음계에 해당하며, <당악>은 f음이 ‘도’가 되는 도음계라고 하였다.

김세경²¹⁾은 지역별 삼현육각에 대한 연구를 하였으며, 그 중 경기 삼현육각의 선율분석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광주 삼현육각에서 <긴염불>, <반염불>, <굿거리>는 ‘솔-라-도-레-미’의 5음이 구성음으로 나타나며, 남도경토리나 진경토리의 음악적 특징이 나타난다고 밝혔고, <삼현타령>은 4장단에서만 경토리가 나타나고 나머지는 반경토리나 수심가토리와 구성음은 같지만 시김새에서 차이를 보인다고 하였다. <길군악>은 ‘레-미-솔-라-도’의 수심가토리와 주요구성음은 같지만, 시김새에서 차이를 보인다고 하였다. 또한 평택 삼현육각에서 <긴염불>과 <굿거리>는 ‘솔-라-도-레-미’의 5음이 구성음으로 나타나며, 남도경토리나 진경토리의 음악적 특징이 나타난다고 밝혔으며, 향피리의 시김새와 주법을 분석하였다.

19) 최태현의 2015년 논문에서는 <길군악>의 음계는 f음이 ‘도’가 되는 5음계라는 언급만 있다. 최태현, “지영희 음악에 나타난 경기음악의 특징”, 『한국음악학』25(2015), 63쪽.

20) 최태현 논문의 음정은 본고의 음정보다 장2도 높으나, <별곡타령>의 음정은 본고의 음정과 같다.

21) 김세경, “삼현육각의 향피리 선율 연구: 지역별 분석 비교”,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8).

진윤경은 20세기 삼현육각 음악의 전승에 관한 연구²²⁾를 하였으며, 그 중 경기 삼현육각의 선율분석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지영희 악보의 <대영산>은 아악부 악보의 <상령산>과 동일하다고 하였으며, <중영산>, <жат영산>, <삼현도드리>도 아악부와 마찬가지로 ‘黃-夾-仲-林-無’의 황종 계면조의 안공법이라 하였다. <염불도드리>는 전반부는 ‘黃-太-仲-林-無’의 안공법으로 연주하다가 일곱 번째 장단부터 ‘黃-夾-仲-林-無’의 안공법으로 연주한다고 하였다. 또한 <반염불>은 ‘黃-太-仲-林-南’의 황종 평조로 분석된다²³⁾고 하였으며, <삼현타령>은 太(f)가 출현하여 악조가 불분명하다고 하였다. 서울 재수굿 삼현육각 연구²⁴⁾에서는 <반염불>과 굿거리를 a^b조 솔음계, <취타>는 e^b조 솔음계, <허튼타령>, <염불도드리>, <삼현도드리>는 g^b조 라음계, 당악은 f조 도음계로 구성되었다고 밝혔다. 또한 진윤경은 이외의 연구²⁵⁾에서 <삼현타령>은 ‘黃-夾-仲-林-無’(라도레미솔)로 황종궁 계면조이며, <길타령>은 ‘黃-太-仲-林-南’(솔라도레미)로 황종궁 평조이며, 이는 <긴염불>, <반염불>, <굿거리>와 같다고 하였다. <허튼타령>은 ‘黃-夾-仲-林-無’(라도레미솔)의 출현음을 기반으로 즉흥으로 연주되는 악곡이라는 것을 밝혔다.

김정림²⁶⁾은 취타계열 음악 연구에서 <취타>, <길군악>, <별곡타령>의 주요 구성음은 林-備-黃-太-故의 5음이며, <길타령>의 주요 구성음은 黃-太-仲-林-南의 5음이며, <염불타령>은 黃-太-仲-林-南, <삼현타령>은 黃-太-仲-林-南이 주요 구성음이며 <삼현타령>의 南은 실제 연주로는 無에 가까운 음정을 내고 있어 南과 無는 같다고 하였다.

임혜정²⁷⁾은 서울 및 경기 삼현육각 중 <긴염불>의 음에 대해 다음과

22) 진윤경, “20세기 삼현육각 음악의 전승 연구: 관악영산회상, 취타, 자진한잎의 피리 선율을 중심으로”, (한국학중앙연구원 박사학위논문, 2018).

23) <반염불>의 분석은 “삼현육각 <염불>에 관한 음악적 고찰”에서도 동일하게 밝혔다. 진윤경, “삼현육각 <염불>에 관한 음악적 고찰”, 『국악원논문집』37, (2018).

24) 진윤경, “서울 재수굿 삼현육각 음악연구: 김순봉 피리가락을 중심으로”, 『국악원논문집』32, (2015).

25) 진윤경, “20세기 삼현육각 <타령>에 관한 고찰: 서울·경기지역을 중심으로”, 『한국음악연구』60, (2016).

26) 김정림, “취타계열 음악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8).

같이 분석하였다. 구성음은 A^b, B^b, e^b, f, g, a^b, b^b, c, d^b, e^b이며, 이 중 f, g, c는 경과음이나 장식음 등으로 사용되었고, d^b, e^b 두 음은 원가락을 변형시키기 위한 음으로 사용되었다고 하였다. 또한 b^b은 장2도 위인 c로부터 꺾어 내며, 골격 선율의 축을 이루는 음은 e^b과 a^b이라고 하였다.²⁸⁾ 또한 임혜정은 다른 연구²⁹⁾에서 <굿거리>는 통영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솔-라-도-레-미’ 음계를 쓰며 경토리라고 밝혔다.

최상화³⁰⁾는 <염불>에 한정하여 지영희, 박승률, 김정주, 김정림과 본인의 채보 악보를 비교하여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염불>의 제1음은 굽게 떠는 농음, 제2음은 아래로 흘리는 음, 제3음은 기능이 없는 평음, 제4음은 약간 낮은 음정으로 연주, 제5음은 장식음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음의 기능으로 보아 <염불>의 음계는 레음계로 보며 서도소리의 <수심가>와 <천년만세>, 시조, 판소리 평조(길)과 같다고 하였다.

이승희³¹⁾는 산대놀이 음악 연구에서 경기지역 삼현육각 음악의 선율을 분석하였으며, <염불타령>과 <굿거리>는 ‘솔-라-도-레-미’의 진경토리, <허튼타령>은 ‘라-도-레-미-솔’의 반경토리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둘째로, 경기 삼현육각의 전승에 관한 연구를 살펴보면, 전승 집단 또는 연주자의 비교연구를 통해 음악의 기원을 밝히고자 하는 연구가 주로 나타난다.

오용록³²⁾은 세 가지 <길군악>의 해금 선율을 분석하였다. 세 가지는 국악원, 김영재, 허용업의 연주이며, 연구결과 연주 기법, 특히 요성법에 많은 차이가 있다는 것이 밝혀졌다. 김영재와 허용업의 <길군악>은 특정

27) 임혜정, “향제 삼현육각 <긴염불> 연구”, 『한국음악학』12(2002).

28) 임혜정의 서울 및 경기 삼현육각의 연구는 김점석과 허용업의 음원을 중심으로 한 음악이므로 본고의 연구대상과는 계보가 다르다. 하지만 지역적으로 유사하므로 선행연구에 포함하였고, 위 논문의 연구결과에서 나타난 골격음은 본고의 연구대상과 동일하며 이외의 세부적인 부분은 다르다.

29) 임혜정, “향제 삼현육각의 특징”, 『공연문화연구』39(2019).

30) 최상화, “경기 무속음악 대풍류(염불)의 음계 연구”, 『이화음악논집』15(2011).

31) 이승희, “산대놀이 음악의 구조 연구: 염불타령, 허튼타령, 굿거리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7).

32) 오용록, “해금 <길군악>의 여러 선율”, 『한국음악형성론』, (2012).

음에 요성을 많이 사용하는데, 이 어법이 가사 <길군악>이나 유산가 등의 잡가와 서로 통하며, 삼죽금보의 <길군악>과 맥이 닿고 있다는 사실을 논하였다.

임혜정³³⁾은 <삼현영산회상>의 <염불도드리>와 민간 삼현 <긴염불>은 모두 『유예지』 <염불타령>에서 비롯된 곡이며, 두 곡이 현재 선율에서 차이가 나는 이유는 전승 과정의 차이가 이유라고 밝혔다. 또 다른 논문³⁴⁾에서는 김점석, 허용업을 중심으로 서울 새남굿 삼현육각의 전승 계보를 살펴보고, 한강 이북의 굿을 담당했던 삼현육각 음악인, 궁중과 풍류방에서 관악을 담당했던 악곡 및 세악수들의 교류를 통해 음악이 전승되어왔으며 근대 이후에는 시나위권 삼현육각 음악인과의 교류도 있었다고 밝혔다.

진윤경³⁵⁾은 <관악영산회상>, <취타>, <자진한잎>의 피리 선율을 중심으로 20세기 삼현육각의 전승에 관해 연구하였으며 다음의 내용을 밝혔다. 20세기 전반 문화 변동에 따라 삼현육각 음악은 그 전승이 두 갈래로 나누어져 하나는 이왕직아악부를 통해 제도적으로 전승되었고, 다른 하나는 민간에서 사회적 수요에 의해 자연스럽게 전승되게 되었다고 하였다. 이때 일어난 특징은 기능음악이 무대음악으로 전환되었다는 것이며, 민간의 삼현육각은 기능음악으로서의 면모를 유지하고 있었으나 20세기 후반 전통방식의 잔치가 급격히 사라지고 거상이라는 문화가 사라지면서 삼현육각의 사회적 역할이 상실되었다고 하였다.

김정림³⁶⁾은 국립국악원 전승의 <취타계주>, 지영희 전승의 <취타풍류>, <굿 취타풍류>의 악곡을 중심으로 분장 구조와 장단 구성, 선율구조를 비교 분석한 결과 세 갈래로 전승되고 있는 각 악곡의 음계 골격이 동일하게 나타나며, 이를 근거로 세 곡 모두 뿌리가 같은 곡이라는 것을

33) 임혜정, “<삼현영산회상> 염불도드리와 <긴염불>에 관한 연구”, 『한국음악학』8(1998).

34) 임혜정, “근대 서울삼현육각의 전개와 서울새남굿의 삼현육각”, 『한국음악연구』59(2016).

35) 진윤경, “20세기 삼현육각 음악의 전승 연구: 관악영산회상, 취타, 자진한잎의 피리 선율을 중심으로”, (한국학중앙연구원 박사학위논문, 2018).

36) 김정림, “취타계열 음악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8).

밝혔다.

안재숙³⁷⁾은 국립국악원 전승의 <관악영산회상>과 지영희 전승의 <관악영산회상>, 김정길의 한양삼현육각풍류 중 <관악영산회상>을 악장구성과 분장 구조 및 출현음과 선율의 비교를 통하여 세 음악 모두 밀접한 연관성이 있음을 밝혔다. 또한 이윤경³⁸⁾은 국립국악원 전승의 <관악영산회상>과 지영희 채보의 민간대풍류를 악곡 구조와 장단, 분장 구조를 비교·분석하여 전승 경로에 따라 음악이 변화하였음을 밝혔다.

그 밖에 연주자에 따른 비교 분석 연구 논문³⁹⁾과 국립국악원 정악단 전승의 음악과 민간 삼현육각의 음악을 비교하는 논문⁴⁰⁾이 다수 있다.

셋째로, 지역별 삼현육각에 관한 연구는 여러 지역의 음악을 연구, 또는 비교하는 연구와 단일 지역의 삼현육각에 관한 분석적 연구 두 가지로 나타난다.

이보형⁴¹⁾은 경기, 호남, 해서, 영남 삼현육각의 악사와 전승 계보, 음악의 전통적 기능, 악곡의 장단 등을 밝혔으며, 이는 삼현육각 연구의 초석으로

37) 안재숙, “국립국악원과 지영희·김정길의 관악영산회상 비교 연구: 해금선율을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9).

38) 이윤경, “민간대풍류 연구: 관악영산회상과의 선율 비교”,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4).

39) 김민아, “염불풍류 피리가락 비교 분석 연구: 최경만, 허용업”, (한국예술종합학교 예술전문사 학위논문, 2013); 황세원, “지영희와 이충선의 대풍류 피리선율비교: 긴염불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6); 장재경, “대풍류의 해금가락 비교 분석 연구: 지영희와 허용업의 가락 중 염불, 굿거리, 당악을 중심으로”, (중앙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2).

40) 김지윤, “국악원과 민간의 피리 주법연구: 삼현육각 음악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1); 김종찬, “국립국악원 전승 ‘군악’과 지영희가 계승한 취타풍류 한바탕의 ‘별곡타령’ 비교고찰: 대금선율을 중심으로”, (중앙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2); 조아라, “국립국악원 관악영산회상과 민간 대풍류의 비교연구: 상령산·중령산의 해금선율을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4); 원완철, “삼현영산회상의 대영산과 관악영산회상의 상령산 비교연구: 대금선율을 중심으로”, (중앙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7); 이미경, “관악영산회상과 대풍류의 비교연구: 상령산과 대영산의 아쟁선율을 중심으로”, (단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9); 윤숙영, “대풍류와 민간대풍류의 비교연구: 상령산·중령산 아쟁선율을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9).

41) 이보형, “향계 삼현육각 소고”, 『문화재』15(1982).

현재까지 무수한 연구의 기초 자료가 되고 있어 그 연구의 의의가 크다.

임혜정⁴²⁾은 서울 및 경기 삼현육각, 해주 삼현육각, 전주 삼현육각의 <긴염불>을 연구하여 장단 구조, 악곡 구조, 음계 등이 동일하다는 것을 밝혔다. 또 다른 논문⁴³⁾에서는 향계 삼현육각의 연주자 및 연주 환경에 따른 편성의 가변성과 거상악의 가변성을 밝혔고, <긴염불>, <굿거리>, <타령> 등의 악곡의 연원은 각 지역에서 연주되고 있는 무속 음악이나 민요 등과 관련있다고 밝혔다. 임혜정은 이 밖에 인천과 해주의 삼현육각 연구를 한 바 있다.⁴⁴⁾

김세경⁴⁵⁾은 경기·해서·영호남 지역의 삼현육각 음악 중 공통으로 연주되는 악곡의 향피리선율을 중심으로 음악적 양상을 비교·분석하였다. 그 결과 각 지방 삼현육각의 음악적 특징이 다르게 나타나는 한편, 지역 간의 음악적 교류를 통해 연관성을 갖고 있는 것을 밝혀냈다. 또한 대부분 지역의 삼현육각이 장단, 악곡 구조, 토리, 주법 등에서 경기 삼현육각의 영향을 받은 것이라고 밝혔다.

이 외에 경기 삼현육각과 나주 삼현육각을 비교한 송지윤의 논문⁴⁶⁾, 경기 지역과 서도 지역의 대풍류를 연구한 선주희의 논문⁴⁷⁾, 서울 새남굿을 연구한 김소리의 논문⁴⁸⁾, 인천 삼현육각에서 전태용의 해금선율에 대해 연구한 변아미의 논문⁴⁹⁾, 전주농삼현에 관한 서경숙의 논문⁵⁰⁾, 전주 민삼현육각에 관한 이창선의 논문⁵¹⁾ 등이 있다.

42) 임혜정, “향계 삼현육각 <긴염불> 연구”, 『한국음반학』12(2002).

43) 임혜정, “향계 삼현육각의 특징”, 『공연문화연구』39(2019).

44) 임혜정, “인천 삼현육각의 특징과 연원”, 『인천학연구』7(2007); 임혜정, “해주 삼현육각 고”, 『한국음반학』13(2003).

45) 김세경, “삼현육각의 향피리 선율 연구: 지역별 분석 비교”,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8).

46) 송지윤, “경기 삼현육각과 나주 삼현육각 비교연구: 대영산과 본령산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1).

47) 선주희, “경기·서도 대풍류의 음악적 특징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2).

48) 김소리, “서울 새남굿의 삼현육각 연구”, (한양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4).

49) 변아미, “인천삼현육각의 해금선율에 관한 연구: 전태용 해금선율을 중심으로”, (한국예술종합학교 예술전문사 학위논문, 2006).

50) 서경숙, “전주농삼현에 관한 연구”, (전북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0).

51) 이창선, “전주 민삼현육각에 관한 연구”, (목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7).

이상으로 살펴본 바와 같이, 지금까지 경기 삼현육각의 연구는 지속되고 있다. 위의 연구 중 악조에 관련된 연구를 살펴보면 악조를 해석하는 관점 및 용어가 연구자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⁵²⁾ 또한 현재 전승되고 있는 경기 삼현육각의 세 악곡 《염불풍류》, 《삼현영산회상》, 《취타풍류》를 통합하여 악조를 살펴본 연구는 아직까지 다뤄진 바 없으므로 그에 대한 연구가 필요한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위 세 악곡을 연주자의 내관적 인식과 음악적 경험에 근거하여 경기 삼현육각에서 나타나는 악조를 구명하고자 한다.

3. 연구범위 및 대상

본 논문의 연구범위는 서울시 무형문화재 제44호 ‘삼현육각’ 보유자가 현재 전승하고 있는 《염불풍류》, 《삼현영산회상》, 《취타풍류》로 한다. 《염불풍류》의 구성 악곡은 <긴염불>, <반염불>, <삼현타령>, <느린허튼타령>, <중허튼타령>, <자진허튼타령>, <굿거리>, <느린굿거리>, <당악>이다.⁵³⁾ 《삼현영산회상》의 구성 악곡은 <대영산>, <중영산>, <잣영산>, <삼현도드리>, <염불도드리>, <삼현타령>, <별곡타령>이다. 《취타풍류》의 구성 악곡은 <취타>, <길군악>, <길군악 돌장>, <길타령>, <염불타령>, <삼현타령>, <별곡타령>이다.

연구대상은 대금과 피리의 선율로 한정하며, 현재 해당 문화재 보유자

52) 예를들어, <긴염불>에 한하여 살펴보면 최태현은 솔음계라고 하였고, 김세경, 이승희, 임혜정은 진경토리, 진윤경은 황종평조, 김정림은 黃-太-仲-林-南 5음음계, 최상화는 레음계라고 하였다.

53) <긴염불>의 원 이름은 <염불타령>이고, 이의 변주곡으로 보이는 ‘반염불’과의 비교에서 박자가 느리고 연주가 길다는 뜻에서 <긴염불>이라 부르기도 한다. <느린허튼타령>, <중허튼타령>, <자진허튼타령>은 원래 <허튼타령>이라 부르며, 타령장단에 맞추어 즉흥적으로 연주하는 반주음악이다. 최태현, “지영희가 계승한 ‘<취타풍류>한바탕’과 ‘대풍류한바탕’의 음악적 구성”, 『중앙음악연구』 7(1998).

인 이철주와 최경만의 연주를 대상으로 한다. 연구대상의 선정 이유는 다음과 같다. 이철주의 내관적 악조 명칭에 전제된 분석을 위해서는 그의 음악을 분석해야하며, 나아가 체계적인 논증을 통한 결론을 도출하기 위해서는 타 악기와의 종합적인 분석이 있어야 한다. 이에 전통적으로 주선율을 주로 연주해온 악기인 피리와 대금 선율의 통합적인 분석을 통해 악조의 특성을 파악하고자 한다.⁵⁴⁾

연구자료는 2009년 삼현육각보존회 정기연주회⁵⁵⁾ 영상자료의 《염불풍류》와 2011년 삼현육각보존회 정기연주회⁵⁶⁾ 영상자료의 《삼현영산회상》·《취타풍류》를 주자료로 삼는다.⁵⁷⁾ 한편, 위 자료에서는 《삼현영산회상》 중 <대영산>과 <중영산>⁵⁸⁾에서 제3장부터 제5장까지의 연주가 없어 보조자료가 필요하다. 이에 삼현육각보존회의 전체 합주 연습 녹음자료와 보유자의 개인 강습 녹음자료를 보조자료로 한다.⁵⁹⁾⁶⁰⁾ 이상의 연구자료를 정리하면 다음 [표 1]와 같다.

54) 해금은 대체로 피리와 선율진행이 유사하며 피리와 다른 진행일 경우는 대금과 유사하게 진행하는 경우가 다수 있다. 이에 본고에서는 해금 선율의 분석을 제외하였다.

55) 제3회 삼현육각보존회 정기연주회는 2009년 3월 24일 서울남산국악당에서 개최하였으며, 연주자는 피리에 최경만, 김효도, 해금에 김무경, 대금에 이철주, 장구에 윤순병, 좌고에 김성엽이다. 이날 연주된 삼현육각 곡목은 <삼현영산회상>(삼현도드리~별곡타령), <염불풍류> 전 곡, <취타풍류> 전 곡이다.

56) 2011년 삼현육각보존회 정기연주회는 2011년 2월 8일 국립국악원 우면당에서 개최하였다. <삼현영산회상>과 <취타풍류> 연주자는 피리에 최경만, 김효도, 해금에 김무경, 대금에 이철주, 장구에 윤순병, 좌고에 김성엽이며, <염불풍류> 연주자는 피리에 김효도, 김성엽, 해금에 김무경, 대금에 이철주, 장구에 최경만, 좌고에 윤순병이다. 이날 연주된 삼현육각 곡목은 <삼현영산회상>(대영산 1·2장, 중영산 1·2장, 잣영산~별곡타령), <염불풍류> 전 곡, <취타풍류> 전 곡이다.

57) 최경만은 2009년도 <염불풍류>에서 피리를 연주하였고, 2011년도 <염불풍류>에서 장구를 연주하였다. 본고에서는 최경만의 피리 연주를 연구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염불풍류>는 2009년도 자료를 기준으로 채보 및 분석하였다.

58) 경기 삼현육각의 <대영산>과 <중영산>은 5장으로 구성된다.

59) <삼현영산회상>은 호흡으로 맞춰가는 음악이므로 리듬을 채보하기 위해서는 합주 연습 자료가 필요하다. 그러나 합주 연습 자료는 보유자 외에 연주자가 많아 보유자의 상세한 연주를 채보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이에 보유자의 연주 중 상세한 시김새나 음정, 호흡 등은 개인 강습 자료를 참고하여 채보하였다.

60) 자료 제공을 해주신 이철주선생님과 여장근에게 감사의 마음을 표합니다.

[표 1] 연구자료

	자료명	일시 및 장소	연구범위
주자료	2009년 삼현육각보존회 정기연주회	2009년 3월 24일 남산국악당	염불풍류 (긴염불~당악)
	2011년 삼현육각보존회 정기연주회	2011년 2월 8일 국립국악원 우면당	삼현영산회상(대영산 1, 2장, 중영산 1, 2장, 잣영산~별곡타령), 취타풍류(취타~별곡타령)
보조 자료	삼현육각보존회 보유자 및 이수자·전수자 합주 연습 녹음자료 ⁶¹⁾	2019년 4월 20일 삼현육각 피리전수소	삼현영산회상 전곡 (대영산~별곡타령)
	이철주 개인 강습 녹음자료 (교육생: 유경은)	2015년 1월 7일 삼현육각 대금전수소 (이하 장소 동일)	삼현타령
		2015년 1월 15일	별곡타령
		2015년 1월 31일	대영산
		2015년 2월 14일	중영산
		2015년 2월 28일	잣영산
		2015년 3월 7일	삼현도드리
	최경만 개인 강습 녹음자료 (교육생: 여장근)	2015년 3월 14일	염불도드리, 삼현타령 1장
		2017년 5월 17일 삼현육각 피리전수소 (이하 장소 동일)	대영산, 중영산
		2017년 7월 20일	잣영산
		2017년 8월 8일	삼현도드리
		2017년 9월 14일	염불돌도드리
		2017년 10월 12일	삼현타령, 별곡타령

61) 합주 연습 참여자는 다음과 같다. 대금에 이철주, 이재원, 이나래, 이결, 신승민, 김규리, 유경은, 피리에 최경만, 김효도, 오노을, 이윤아, 오남영, 박세라, 여장근, 김성엽, 임재필, 해금에 김무경, 최태영, 차영수, 강지인, 이정미, 박모정, 최승은, 김보미, 장구에 윤재영이다.

4. 연구방법

본고에서는 이철주가 설명하는 세 악조 ‘엄불조’, ‘허튼타령조’, ‘당악조’를 전제한 후 경기 삼현육각의 악곡 분석을 통하여 이에 대한 적합성을 논증하고자 한다. 전통음악의 악조를 구명하기 위해서는 출현음, 각 음들이 진행하고자 하는 경향성과 음의 지배력, 종지음, 악곡에 나타나는 각 음의 고유한 시김새 등의 음조직 특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이에 본고에서는 출현음, 구조선율⁶²⁾ · 핵음⁶³⁾ · 종지음, 시김새 분석⁶⁴⁾을 통해 경기 삼현육각의 악곡을 분석하겠다.

62) 구조선율은 오용록의 논문 “보허자 형성고”에서 처음 사용한 단어이다. 오용록은 모든 악기를 지배하는 총체적인 선율이 있다고 하였으며, 각 악기의 선율에서 수식음을 제거하여 1차 구조선율을 만들고, 다시 선율의 핵이라 할 수 있는 2차 구조선율을 만들어 현행 보허자와 『속악원보』 보허자를 비교하였다. 최현은 구조선율을 통해 만대엽의 구조를 연구한 바 있으며, 구조선율은 서로 조금씩 다른 선율 가운데 각 악기의 선율들이 공통으로 표현하고자 하는 동일한 구조의 선율이며, 이는 전통음악의 내재된 단선율적 성격에 기인한다고 하였다. 오용록, “보허자 형성고”,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85); 최현, “만대엽의 선율구조분석 시론”, 『국악원논문집』4, (1992), 172쪽; 최현, “한국 전통음악의 선율 분석 방법 시론”, 『정신문화연구』, (1997).

63) 핵核(nucleus)은 Curt Sachs가 주장한 개념으로, 선율 운동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 2개의 음정과 2개 음의 사이와 바깥에서 쓰인 음으로 이루어진 선율의 기능적 기초 구조를 가리킨다. (중략) 핵음核音(nuclear note)이란 핵의 개념을 발전시킨 것으로, 일반적으로 4도 음정으로 구성되는 ‘4도핵’의 양 끝에 있는 중지 기능을 갖춘 두 음을 가리킨다, 즉 핵음은 핵의 한 요소에 해당하며, 한 옥타브에 1~3음이 존재할 수 있다. 한국음악학 연구에서 사용된 핵음은 ‘선율 진행에서 중심 역할을 하는 혹은 5도 관계에 있는 2개의 음을 가리키며, 선율에서 핵음에 인접한 음들은 핵음으로 진행하는 경향이 있다’고 정의하였다, 핵음으로 진행하는 이 경향을 ‘주변 음들에 대해 지배력’ 또는 ‘안정된 음’이라 표현한다. 김우진, 『한국 음악학 연구 방법론』(민속원, 2015), 33쪽.

‘핵음’이라는 용어를 사용한 연구로는 김우진의 논문, 김정희의 논문 등이 있다. 김우진, “거문고 산조의 우조 · 평조 · 계면조”, 『한국음악연구』62, (2017); 김정희, “토속민요 음조직의 변이 양상”,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6).

64) 시김새 분석을 통해 악조를 논한 연구는 김정승과 임병옥의 논문이 대표적이다. 김정승은 피리, 대금, 해금, 거문고, 가야금, 성악 연주자와 시김새에 관한 대담을 통하여 평조와 계면조의 시김새를 파악하고, 영산회상의 기존 악조론을 검토하였다. 임병옥은 피리의 선율을 중심으로 구성음들의 구조와 기능을 시김새를 통하여 살펴보고 평조와 계면조의 특성을 파악하였다. 김정승, “정악의 평

출현음의 분석방법은 다음과 같다. 전체 출현음을 나열하고, 주요 출현음과 주요하지 않은 출현음을 구분한다. 주요하지 않은 출현음은 꾸밈음이나 짧은 경과음, 그리고 다른 악조의 출현음을 포함한다.

구조선율·핵음·종지음의 분석방법은 다음과 같다. 먼저 악구(樂句)를 나눈다. 악구를 나누는 단위는 악곡마다 다르며, 이는 주로 종지감이 나타나거나 선율 전개가 새로이 나타나는 시점을 기준으로 한다. 악구를 나눈 후에는 수식음 또는 짧은 경과음을 제거한 후 미시적인 음의 진행 방향을 분석하여 이를 구조선율이라 한다. 이후 구조선율에서 거시적으로 보았을 때 지배력 있는 음과 선율이 귀결하려는 성격의 음을 찾아 이를 핵음이라 하고, 악구를 맺는 음을 종지음이라 한다. 모든 악구의 분석을 종합한 후 악곡에서 관용적으로 나타나는 구조선율과 핵음, 그리고 종지음을 분석한다.

시김새의 분석은 농음, 퇴성, 추성, 그리고 장식음을 포함하여 살펴볼 것이다. 농음은 세분화하여 가는 농음, 굵은 농음, 상행 농음, 하행 농음 등으로 나누어 분석하겠다.

위 연구방법으로 도출된 악곡별 분석결과를 종합하여 경기 삼현육각의 악조를 구명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연구대상의 음악을 채보한 악보를 기초로 한다. 현재 출판된 악보⁶⁵⁾가 있으나 본고의 연구대상은 현재 전승 중인 음악이므로 보유

조와 계면조 시김새 연구: 각 악기 연주자의 시김새 분석과 현악영산회상의 악조 검토를 중심으로”, 『동양음악』39, (2016); 임병옥, “평조와 계면조의 구성음에 대한 연구: 각음의 구조와 기능을 중심으로”, 『한국음악연구』30, (2001).

65)

[표 2] 출판된 경기 삼현육각 수록 악보

악보 제목	채보 및 발행	발간 연도	수록 악곡
『대금교본』	김광식 편·지영희 채보/ 국악예술학교	1969	관악영산회상, 관악취타곡, 대풍류무용곡
『피리교본』	지영희 편·지영희 채보/ 국악예술학교	1969	관악영산회상, 관악취타곡, 대풍류무용곡
『해금교본』			관악영산회상, 관악취타

자의 연주 음원을 채보하여 이를 분석한다.

채보는 2011년 삼현육각보존회 정기연주회의 음고⁶⁶⁾를 기준으로 한다.⁶⁷⁾ 주자료의 채보시 명확히 들리지 않는 음정이나 시김새는 보조자료를 참고하여 채보하겠다.

조표 선택의 근거는 다음과 같다. 우리나라 전통음악의 보편적인 음계의 특성이 5음 음계이고, 이를 솔미제이션 하였을 때 ‘시’나 ‘파’가 나타나지 않는다⁶⁸⁾. 경기 삼현육각도 전통음악의 이러한 보편적인 특성에서

			곡, 대풍류곡
『대풍류』	박승률/ 어울림	1999	대풍류
『지영희 피리풍류』	박승률/ 민속원	2007	관악영산회상(취타풍류, 엽불풍류까지 총칭)
한국음악 제37집 『민간대풍류』	오용록/ 국립국악원	2008	대영산, 취타풍류, 엽불풍류
대금풍류	원완철/ 무송	2015	삼현영산회상, 취타풍류, 엽불풍류
쉽게 풀어 쓴 해금가락 2	박정실 · 배종근/ 예 솔	2018	엽불풍류, 취타풍류

악곡명은 위 악보에 제시된 명칭을 그대로 기록한 것이다. 지영희 채보의 『대금 교본』과 『피리교본』은 성금연의 『다시 보는 지영희 민속음악연구자료집』에 수록되어 있다.

66) 이날의 연주에서 대금은 정악대금과 산조대금 5관(본청: a^b)으로 연주를 하였다. 경기 삼현육각은 이보다 장2도 높은 산조대금 4관(본청: b^b)으로 연주하기도 한다.

67) 2009년 정기연주회에서는 2011년도 정기연주회의 음정보다 장2도 높게 연주한다. 그러나 2011년도 정기연주회 자료는 <대영산>과 <중영산>이 포함되어 2009년도 자료보다 중요도가 높고, 현재 삼현육각보존회에서 전체 합주 연습을 하는 경우 기본청을 a^b으로 2011년도와 동일하게 연주하므로 2011년도 자료의 음고를 기준으로 통일하여 채보하겠다.

68) 우리 음악의 오음음계인 평조와 계면조에 ‘시’나 ‘파’를 사용하지 않는 것은 다음과 같은 이유 때문이다. “궁조인 ‘궁상각치우’는 ‘도레미솔라’로, 상조인 ‘상각치우궁’은 ‘레미솔라도’로, 각조인 ‘각치우궁상’은 ‘미솔라도레’로, 치조인 ‘치우궁상각’은 ‘솔라도레미’로, 우조인 ‘우궁상각치’는 ‘라도레미솔’로 기보하게 된다. 이때 치조는 평조에 해당하고, 우조는 계면조에 해당하게 되므로, 전자는 ‘솔라도레미’로, 후자는 ‘라도레미솔’의 계명을 사용하게 된 것이다. 따라서 어떤 선율을 ‘솔라도레미’ 또는 ‘라도레미솔’의 계명으로 읽기 위해서는 출현하지 않는 샵sharp이나 플랫flat을 하나 더 사용하게 되는 것이다.” 김우진, 『한국 음악학 연구 방법론』, (서울: 민속원, 2015), 95쪽.

벗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전제하에 먼저 ‘시’나 ‘파’가 나타나지 않도록 조표를 채택하고자 한다.

한편, 본고에서는 악조 비교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대영산>과 <삼현타령> 2, 3장을 <긴염불>외 다수 악곡⁶⁹⁾과 동일한 악조⁷⁰⁾로 전제하여 연구를 진행하려 한다. 이를 위하여 위 악곡의 조표를 A^b조의 조표로 통일하고자 한다. 조표를 동일하게 할 경우 위 악곡의 제5음⁷¹⁾이 달리 나타나며 <대영산>과 <삼현타령>은 제5음이 ‘파’가 된다. 만일 위 악곡의 음계에 ‘파’가 나타나지 않도록 조표를 달리 사용한다면, 위 악곡들이 동일한 악조일 경우 그 특성을 한눈에 파악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 이와 같은 이유로 본 연구에서는 위 악곡의 조표를 통일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이에 대해 부언하자면, ‘미’와 ‘파’를 동질음으로 보는 학계의 견해⁷²⁾와

69) <반염불>, <굿거리>, <자진굿거리>, <염불도드리>. 본고에서는 이를 염불조로 전제한다.

70) 위 악곡들은 연주 시 시김새나 음의 진행에 있어 공통되는 부분이 상당히 나타난다. 또한 최경만, 박승률, 김방현은 대담에서 위와 같은 분류를 동의한 바 있다. 최경만은 “<대영산>과 <긴염불>이 아주 비슷하다. <염불도드리>, <삼현타령>도 같은 것으로 분류할 수 있다. 차이가 있다면 <대영산>이 좀 더 젊잖고, <긴염불>은 조금 더 민속악적으로 표현한다. 특히 더름이 나오는 것, 니이이-노-(b^b하행농음-a^b) 진행이 똑같다.”고 하였다. 박승률은 “<대영산>과 <긴염불>은 음계가 다르지만, 음조직이나 시김새가 유사하다.”고 하였다. 김방현은 “(위 악곡들이) 같은 조다.”라고 하였다. 최경만, 전화 대담, 2019. 12. 19; 박승률, 경기도 동두천시 지행동 카페 ‘살롱드코나’, 2019. 12. 22; 김방현, 경기도 파주시 동패동 카페 ‘커피에반하다’, 2019. 12. 24. 대담에 응해주신 선생님들께 감사를 표합니다.

71) e^b을 제1음으로 놓았을 경우 <긴염불>의 제5음은 c'(미), <대영산>과 <삼현타령> 2~3장의 제5음은 d'(파)가 된다. 한편, 학계의 보편적인 조표를 붙이는 방법을 따른다면 <대영산>과 <삼현타령> 2~3장의 조표는 D^b조의 조표를 사용할 수 있으며 ‘레미솔라도’의 음계가 된다.

72) 현재 학계에서는 경토리 음계에서 ‘미’와 ‘파’는 동질음이라는 연구결과(장사훈·한만영의 『국악개론』에 따르면, 경토리는 ‘솔-라-도-레-미’의 5음음계이고, 5음을 고루 사용한다고 하였다. 이 중 5음인 미는 때때로 파로 불리기도 하는 ‘유동성음’으로 보았다. 한편, 한만영의 1991년도 연구에서는 mi가 판소리나 산조에서 ‘흔히 조금 낮은 fa’로 나타나기도 하나 본질상 mi와 동질음으로 본다고 하였다. 또한 김정립은 삼현타령의 출현음에서 미(南)가 실제 연주되는 파(無)에 가깝다고 분석하며, 미(南)와 파(無)는 같다고 보았다.)와 ‘미’는 ‘미’와 ‘파’의 중간음이라는 연구 결과(이성천은 서울, 경기지방 민요의 음구조를 ‘솔-라-도-레-

전통음악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양상⁷³⁾을 살펴보면, 위 악곡을 동일한 악조로 전제하고 조표를 통일하여 분석하는 것에 타당성이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위 악곡의 조표를 통일하고, 음계를 구분하여 분석하겠다.

채보시 시김새는 가는 농음, 보통 농음, 굵은 농음⁷⁴⁾, 하행 농음, 상행 농음⁷⁵⁾, 목튀김 농음, 퇴성, 추성으로 구분한다. 음을 기준음보다 낮게 시작하여 밀어올려내는 시김새는 시작하는 음을 기준음의 앞에 기보한 후 음을 밀어올리는 표시를 한다. 장식음은 모두 기보한다.⁷⁶⁾ 시김새의 기보는 아래 [표 3]에서 보는 것과 같다.

미'로 파악하고 제5음은 미와 파의 중간음이라고 하였다.)가 있다. 장사훈·한만영, 『국악개론』(서울: 한국국악학회, 1975), 213쪽; 한만영, “태백산맥 이동지방의 민요선법”, 『한국전통음악연구』(서울: 풍남, 1991), 191쪽; 김정림, “취타계열 음악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8); 이성천, 『알기쉬운 국악개론』(서울: 풍남, 1995), 81쪽.

73) 이는 산조가야금의 홀애비줄(8번째 ‘지’줄)에서 ‘미’와 ‘파’를 유동적으로 연주하는 것, 구례향제줄풍류에서 대금이 無와 南의 중간음을 연주하는 것, 영산회상에서 주음에서는 無를 연주하는 반면 장식음에서는 南에 가까운 음을 연주하는 것에서도 나타난다. 또한 <긴염불>의 ‘미’와 <대영산>의 ‘파’는 대금·피리·해금 모두 동일한 운지법에서 음을 낮추거나 밀어내며 음정을 만들어내므로 매우 탄력성있고 유동적인 음이라 할 수 있다.







최경만 또한 이 음정에 대해 동질음이라는 인식을 갖고 있으며, 대답에서 이와 같이 언급하였다. “(미 또는 파는) 같은 소리인데 곡마다의 특성상 약간 살려줘야 그런 맛이 나는 게 있고, 오히려 떨어트려줘야 그런 맛이 나는 게 있고... 그런 원리인거지.” 최경만, 전화 대담, 2019. 12. 19.

74) 채보시 여타 농음과 확연하게 분별이 가능할 정도의 굵은 농음일 경우 굵은 농음으로 기보하였다.

75) 본고에서 농음을 구분 지어 서술할 시 위와 같은 명칭을 사용하겠다.

76) 대금은 장식음이 많아 악보가 복잡해지므로 편의상 자주 출현하는 $b^{b'}$ 의 장식음 ‘떠이어’를 기호로 대체하겠다. 기호 모양은 S 이고, 실제 음정은 $b^{b'}$ - $d^{b''}$ 이며, $b^{b'}$ 의 장식음으로 사용된다.

[표 3] 경기 삼현육각 채보에 사용되는 시김새 부호

부호	연주방법	보례
~~~~~	가는 농음.	
~~~~~	보통 농음.	
cu	굵은 농음. 보통 삼현육각에서 이러한 농음은 굵고 느리게 시작하였다 점차 빨라진다.	
~~~~~	하행 농음. 기준음에서 음고를 떨어뜨리면서 흔드는 농음이다.	
mm	상행 농음. 기준음보다 조금 낮은 음고에서 음을 끌어올리며 흔드는 농음이다.	
mm	목튀김 농음. 김을 조절하여 빠르고 얇게 연주하는 대금의 농음법이다.	
˘	퇴성	
˘	추성	
—	음을 미끄러지듯 끌어올리는 표현	
s	대금의 b ^b '앞에 붙는 장식음 b ^b '-d ^b "	

## II. ‘경기 삼현육각’ 전승 및 음악 구성

본 장에서는 오늘날 삼현육각 문화재 보유자로 이어지는 경기 삼현육각의 전승 계보와 음악 구성을 살펴보겠다. 전승 계보는 연구 대상인 대금과 피리의 보유자를 중심으로 보겠다. 음악 구성은 삼현육각 악곡의 구성 및 분장 구조, 그리고 장단을 살펴보겠다.

### 1. 경기 삼현육각의 전승

이보형의 연구⁷⁷⁾에서 밝힌 경기지역의 삼현육각 연주자는 다음과 같다. 광주지방에서는 차석근, 서호봉, 서호산, 김창순, 김의순, 이일선, 이충선, 이달선, 오명옥, 김석근, 조용운, 김광식, 김덕근 등, 수원·오산지방은 이영수, 이옥수, 임학준, 장점옥, 박용현, 김덕진, 양계원, 오용해, 장희성, 이장관, 오명환, 이용우, 임선문, 시흥지방에서는 김만삼, 김봉순, 정팔봉, 정칠봉, 정일동, 정길동 등, 김포지방에서는 조일홍, 조순조가, 인천에서는 조한춘, 조인옥, 조만봉, 이영수, 전태용, 조한길 등, 안산에서는 이태순, 이안이, 이천이, 이성대, 이정엽 등, 이천에서는 신승태, 김규봉, 이충옥, 정갈복 등이, 평택에서는 지영희가 여주에서는 백점봉, 김승환, 김덕진, 김광채, 김창식, 안황운 등이 삼현육각을 하였다.⁷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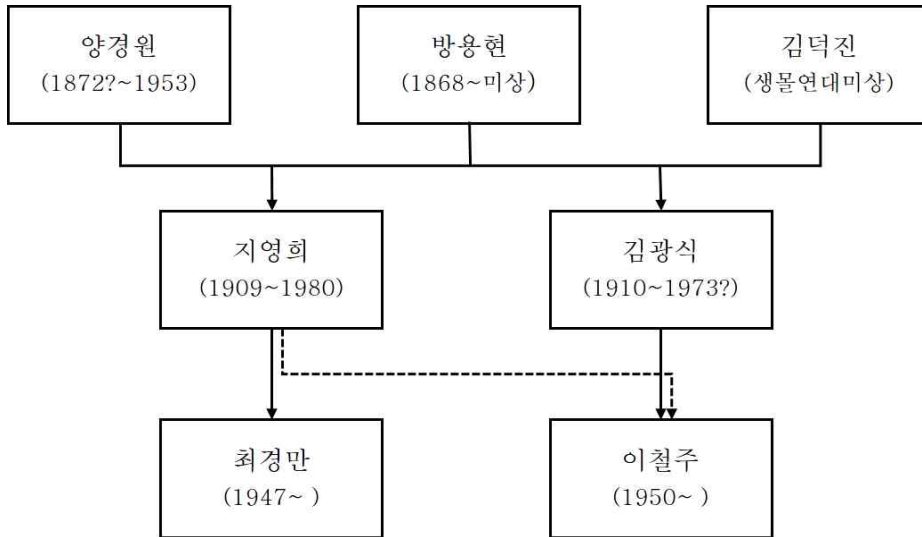
이들 중 양계원, 김덕진과 방용현⁷⁹⁾은 지영희와 김광식에게, 지영희와 김광식은 현재 문화재 보유자인 최경만, 이철주에게 그 음악을 전승하였다. 이와 같은 전승 계보는 다음 [표 4]와 같다.

77) 이보형, “향제 삼현육각 소고”(대전: 국립문화재연구소, 1982), 2-3쪽.

78) 경기지역 내에서도 지역별로 삼현육각 음악이 조금씩 달랐다고 한다. 경기지역 내 타 지역의 음악이 발견되면 경기 삼현육각의 비교연구가 가능하겠다.

79) 방용현은 위의 지역별 삼현 연주자에 언급되지는 않고, 위 논문에서 김광식을 가르쳤다는 언급만 있다.

[표 4] 경기 삼현육각 전승계보



지영희와 김광식에게 삼현육각 음악을 가르쳤던 양경원과 방용현, 김덕진에 대해 살펴보겠다. 양경원(1872?~1953)은 경기도 동부지역에서 주로 시나위와 삼현을 연주하였다. 대금과 피리의 명인으로 통도사 절에서 피리를 배웠다고 한다. 세습무 집안 출신으로 태어나 가전악⁸⁰⁾ 신분으로 궁궐을 출입하였다고 한다.⁸¹⁾ 양경원은 지영희뿐만 아니라 이충선, 김만용, 조한춘, 박일남, 양광산, 김순선 등을 지도하였다.⁸²⁾

방용현(1868~미상)은 평택에서 태어나 서울로 진출한 ‘산이’ 출신이다. 방용현은 1920년대부터 서울을 중심으로 활동하였으며, 1930년대에는 심상건·지용구·김덕진·강태홍·최수성·최도성·이동백·오태석·정정렬 등과 대금과 해금으로 공연활동을 하였다. 방용현의 문하로는 지영희

80) 조선 후기 장악원에 두었던 잡직벼슬의 하나. 음악연주와 관한 업무를 관장했던 가전악은 전악이 되기 전 단계의 벼슬로서 전악 밑에서 일을 도와주었다. 송방송, 『한겨레음악대사전』, (서울: 보고사, 2012).

81) 최명화, “피리산조의 음악적 특징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2), 36쪽.

82) 노동은, 『지영희 평전』, (서울: 민속원, 2015), 39쪽.

와 김광식, 이충선, 문상근, 조만봉, 방돌근이 있다.⁸³⁾ 방용현의 스승은 알려진 바 없으나, 이의 집안이 대대로 내려오는 세습무 집안이라서 자연스럽게 이어받았을 가능성이 있다. 방용현은 평택에서 활동하다가 서울로 이주하면서 서울 지역의 악사들과 어울려서 풍류 한바탕도 치고 서울 지역 무속 음악을 주로 했다고 한다. 왕십리에 있는 안정사에 영산제나 재반이(사십구재)가 들면, 박대홍이 쌍호적을 불고, 김만용, 조원순, 전두연, 방용현, 최석길 등이 가서 성대하게 치렀다고 하며, 이때 방용현은 대금을 연주하였다고 한다. 방용현의 제자로는 김광식이 제일 많이 배웠다고 한다.⁸⁴⁾

김덕진(생몰연대미상)은 1967년 조사한 경기도시나위 명인에 그 이름이 있으며, 경기 수원지방의 명인으로 이름이 났고, 여주 장호원 지방의 보유자 이름에도 김덕진이 있는 것으로 보아 김덕진은 수원과 여주가 주요한 활동무대였다 할 수 있다. 김덕진은 무악에 종사하였고 국악을 가업으로 하던 집안에서 태어나 성장한 것으로 추정되며, 방용현, 이동백, 이화중선, 한성준, 지용구, 정해시, 지영희, 이소향 등과 함께 활동하였다. 1967년 조사 당시 생존하지 않았으므로 1967년 이전에 별세한 것으로 추정된다.⁸⁵⁾

다음으로는 현재 보유자의 스승인 지영희와 김광식에 대해 살펴보겠다. 지영희(1909~1980)는 평택출신이며 21세인 1931년 지용구⁸⁶⁾에게 해금삼현을, 28세 때에는 김덕진에게 해금삼현을 배웠다. 또한 1931년 양경원에게 피리를, 1932년에 김계선에게 풍류 대금을, 방용현에게 민간 풍류 대금을 사사 받았다. 또한 지영희는 1933년 최군선에게 농악을, 1935년에는 오덕환에게 무용장고를, 1956년에는 박춘재에게 경서도 민요를,

83) 노동은, 『지영희 평전』(서울: 민속원, 2015), 41쪽.

84) 이자균, “유성기 음반의 명인명칭 열전(2)”, 『한국음반학』4(1994), 520~522쪽.

85) 이진원, 「경기도시나위와 남도 시나위: CD해설집」, 『국립문화재연구소 소장자료 시리즈25: 경기도시나위와 남도시나위』, KICP-062(서울: 국립문화재연구소, 2003), 21쪽; 이귀영, “김덕진의 산조합주 분석 연구”(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5), 5~6쪽.

86) 지용구(1857~1939)는 경기도 수원에서 출생한 해금 명인이다. 송방송, 『한국현대음악인사전 하』(서울: 도서출판 보고사, 2011), 1720쪽.

1941년에는 최수성에게 단소를, 1953년 김상기에게 거문고를 배웠다. 지영희는 위의 광범위한 학습을 바탕으로 활발한 음악 활동은 물론 1960년부터 국악예술학교 교사로 재직하며 교육에 공헌하였다.⁸⁷⁾

김광식(1910~1973?)은 경기도 광주 출신이며 15세 때부터 양경원에게 피리삼현을, 방용현에게 젓대삼현을 배웠다. 또한 방용현과 박종기에게 대금 시나위가락을 학습하였다. 25세 때에는 김덕진에게 해금삼현을 배웠다. 오늘날 김광식이 경기 대금의 명인으로 기억되는 것으로 보아 방용현의 영향이 지대했음을 알 수 있다. 1960년대에 국악예술학교 강사로 있었고 1973년 무렵에 작고했다.⁸⁸⁾

현재 문화재 보유자인 최경만은 지영희를 사사하였고, 이철주는 김광식을 사사하였다. 다음은 문화재 보유자와의 대담⁸⁹⁾에서 밝힌 사사 관계이다. 최경만은 1963년도부터 지영희에게 삼현육각뿐만 아니라 모든 음악을 배웠다고 하였으며, 대취타는 최인서에게도 배웠다고 하였다. 이철주는 1965년도부터 김광식에게 삼현육각 음악을 학습하였고, 김동식과 한범수에게 산조를 배웠다고 하였다. 김광식이 당뇨에 합병증으로 몸이 많이 아파지면서는 김광식의 제자 안운선에게도 많이 배웠다고 하였다. 또한 민속악회시나위⁹⁰⁾에서 활동할 때 지영희에게 삼현육각을 배웠다고 하였다.

지금까지 본고에서 연구대상으로 삼은 문화재 보유자의 전승 계보를 살펴보았으며, 그 뿌리가 지역적 특성을 갖고 현재까지 전승되어 온 것임을 알 수 있다.

---

87) 이보형, “향제 삼현육각 소고”(대전: 국립문화재연구소, 1982), 3쪽; 노동은, 『지영희 평전』(서울: 민속원, 2015), 33쪽; 지수복·이보형·이진원·노재명·오민아, 『민족음악 수호영웅, 지영희』(서울: 채륜), 28쪽.

88) 이보형, “향제 삼현육각 소고”(대전: 국립문화재연구소, 1982), 2쪽; 이진원, “김광식 대금산조에 대한 검토-오아시스 유성기음반 <대금시나위>를 중심으로”, 『한국음악학』19(2009), 14쪽.

89) 이철주 대담 날짜: 2019년 4월 4일. 장소: 도봉구 삼현육각 대금전수소; 최경만 대담 날짜: 2019년 4월 24일. 장소: 서초구 삼현육각 피리전수소. 대담에 응해주신 선생님들께 감사를 표합니다.

90) 1969년 창단된 민속악 단체.

## 2. 음악 구성

본 절에서는 다음 장의 본격적인 분석에 앞서 삼현육각 음악의 이해에 필요한 기본적인 항목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 번째 항에서는 세부 악곡 구성과 분장 구조, 두 번째 항에서는 장단을 살펴보겠다.

### 가. 악곡 구성 및 분장 구조

본 항에서는 세 모음곡의 세부 악곡 구성을 살펴보고, 악곡별 분장 구조⁹¹⁾와 장단 수를 살펴보겠다.

#### (1) 엽불풍류

《엽불풍류》는 <긴엽불>, <반엽불>, <삼현타령>, <느린허튼타령>, <중허튼타령>, <자진허튼타령>, <굿거리>, <자진굿거리>, <당악(휘모리)>의 총 9곡으로 이루어진 모음곡이다. <당악>에서는 피리 독주로 연주하는 쇠는 가락이 있고, <당악>이 끝난 후 <굿거리>의 앞 세 장단을 연주한 후 곡을 마친다. 《엽불풍류》의 장단 수를 정리하면 다음의 [표 5]에서 보는 것과 같다.⁹²⁾

---

91) 분장 구조는 지영희의 교본을 토대로 참고하였으나, 분장의 개념이 모호한 경우 본고의 해석을 첨가하였다.

92) 지영희의 교본을 살펴보면 《엽불풍류》의 세부 악곡은 장의 구분이나 마루의 구분이 일관되지 않고 각 악곡의 길이도 길지 않으므로, 본고에서는 <긴엽불> 외에 《엽불풍류》 악곡의 장 구분을 하지 않겠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지영희 교본에는 <긴엽불>과 <반엽불>이 3장으로 나누어져 있으나, 실제 연주 시 그에 대한 개념은 거의 사용하지 않는다. 실제 연주 시는 <긴엽불>을 12장단 연주하는 것을 ‘두 마루 연주한다’고 하며 6장단을 한 단위로 인식하므로, 본고에서는 <긴엽불>을 총 2장으로 구분하겠다. 또한 <굿거리>와 <자진굿거리>는 마루 단위로 구분이 되어있고, 반마루로 시작하여 그 다음 5마루~7마루, 1마루~4마루로 나누어져 있다. 이와 같은 분장 또는 마루의 구분은 지영희의 음악적 해석 또는 반주 음악 등에 필요한 구분인 것으로 짐작된다.

[표 5] 엽불풍류 장단 수

악곡명	장단 수(분장)
긴엽불	12장단(2장)
반엽불	6장단
삼현타령	6장단
느린허튼타령	12장단
중허튼타령	24장단
자진허튼타령	24장단
굿거리	13장단
자진굿거리	13장단
당악	58장단

위의 [표 5]에서 보듯이, <긴엽불>은 총 12장단을 연주한다. <긴엽불>은 6장단을 한 마루라 하고, 이 6장단을 한 번 더 연주하며 반복 시 쇠는 가락을 연주하고, 통상 ‘두 마루를 연주한다’고 한다. 이에 <긴엽불>은 6장단 단위로 분장하여 총 2장으로 본다. <반엽불>은 총 6장단, <삼현타령>은 총 6장단, <느린허튼타령>은 총 12장단, <중허튼타령>과 <자진허튼타령>은 총 24장단이다. <굿거리>와 <자진굿거리>는 각각 총 13장단, <당악>은 총 58장단으로 구성된다.

## (2) 삼현영산회상

《삼현영산회상》은 <대영산>, <중영산>, <작영산>, <삼현도드리>, <엽불도드리(돌도도리)>, <삼현타령>, <별곡타령>의 총 7곡으로 이루어진 모

이를 통해 보면 <굿거리> 악보에서의 마루에 대한 개념과 <긴엽불> 연주 시 사용되는 마루에 대한 개념은 단위가 다르게 나타난다. 이것으로 보아 마루의 개념은 고정된 단위가 아니라 음악의 단위를 구분할 때 상대적으로 사용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이에 지영희 교본의 장 구분 또는 마루의 기준에 대한 연구는 추후에 깊이 있는 연구가 필요하겠다.

음곡이다. 《삼현영산회상》의 분장 구조와 장단 수를 정리하면 다음의 [표 6]에서 보는 것과 같다.

[표 6] 삼현영산회상 분장 및 장단 수

악곡명	분장	장단 수	비고
대영산	5장	14장단	1장: 4장단, 2장: 4장단, 3장: 3장단, 4장: 2장단, 5장: 1장단
중영산	5장	18장단	1장: 4장단, 2장: 4장단, 3장: 3장단, 4장: 3장단, 5장: 4장단
잣영산	5장	16장단	1장: 4장단, 2장: 3장단, 3장: 3장단, 4장: 4장단, 5장: 2장단
삼현도드리	돌장, 7장	35장단	돌장: 2장단, 1장: 3장단, 2장: 4장단, 3장: 7장단, 4장: 4장단, 5장: 6장단, 6장: 5장단, 7장: 4장단
염불도드리	7장	44장단	1장: 6장단, 2장: 6장단, 3장: 12장단, 4장: 7장단, 5장: 6장단, 6장: 5장단, 7장 돌장: 2장단
삼현타령	3장, 돌장	27장단	1장 돌장: 10장단, 2장: 6장단, 3장: 8장단, 돌장: 3장단
별곡타령	4장	43장단	1장: 6장단, 2장: 9장단, 3장: 11장단, 4장: 17장단

위의 [표 6]에서 보듯이, <대영산>은 총 5장으로 나누어져 있으며, 총 14장단으로 구성된다. <중영산>은 총 5장으로 분장되며 총 18장단, <잣영산>은 총 5장으로 분장되며 총 16장단, <삼현도드리>는 돌장과 7장으로 분장되며 총 35장단, <염불도드리>는 총 7장으로 분장되며 총 44장단, <삼현타령>은 3장과 돌장으로 분장되며 총 27장단, <별곡타령>은 총 4장으로 분장되며 총 43장단으로 구성된다.

### (3) 취타풍류



《취타풍류》는 <취타>, <길군악>, <길타령>, <염불타령>, <삼현타령>, <별곡타령>의 총 6곡으로 이루어진 모음곡이다. <길타령>이 끝난 후 연주하는 <염불타령>은 <염불풍류>의 <긴염불>과 같으며, <긴염불>의 두 번째 장단부터 연주한다. <삼현타령>의 제1장 돌장의 여섯 장단은 <염불풍류>의 <삼현타령>과 동일하며, 이후 <삼현타령> 제2장부터 <별곡타령>까지는 《삼현영산회상》의 악곡과 동일하다. 《취타풍류》의 분장 구조와 장단 수를 정리하면 다음의 [표 7]에서 보는 것과 같다.

[표 7] 취타풍류 분장 및 장단 수

악곡명		분장	장단 수	비고
취타		7장	21장단	1장: 5장단, 2장: 2장단, 3장: 4장단, 4장: 2장단, 5장: 2장단, 6장: 4장단+전반 장단 6박, 7장: 후반 장단 6박+1장단.
길 군 악 93)	길군악	돌장, 2장	12장단	돌장: 돌장 4장, 돌장 5장, 돌장 6장. 1장: 1장, 2장, 3장, 4장, 5장, 6장. 2장: 1장', 2장', 3장'.
	길군악 돌장	2장	8장단	1장: 1장, 2장, 3장, 4장, 5장, 6장. 2장: 1장', 2장'.
길타령		돌장, 3장, 돌장	18장단	돌장: 4장단, 1장: 4장단, 2장: 4장단, 3장: 4장단, 돌장: 2장단.
염불타령		2장	11장단	1장: 5장단, 2장: 6장단.
삼현타령		3장, 돌장	23장단	1장 돌장: 6장단, 2장: 6장단, 3장: 8장단, 돌장: 3장단.
별곡타령		4장	43장단	1장: 6장단, 2장: 9장단, 3장: 11장단, 4장: 17장단.

93) <길군악>은 각 장단마다 분장이 되어있어 이를 상위 단위로 분류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고에서는 앞의 돌장 세 장단을 묶어 돌장, 1장부터 6장까지를 1장,

위의 [표 7]에서 보듯이, <취타>는 총 7장으로 분장되며, 총 21장단이다. <길군악>은 총 20장단으로, 돌장과 2장으로 구성된 <길군악> 12장단과 총 2장으로 구성된 <길군악 돌장> 8장단을 포함한다. <길타령>은 앞의 돌장과 3장, 그리고 돌장으로 나누어지며, 총 18장단이다. <길타령>의 앞 돌장은 <길군악>에서 <길타령>으로 넘어가기 위한 연결구이다. <염불타령>은 <염불풍류>의 <긴염불>을 두 번째 장단부터 연주하여 총 11장단이며, 본고에서는 이를 총 2장으로 나눈다. <삼현타령>은 3장과 돌장으로 나누어지며, 총 23장단이다. <별곡타령>은 총 4장으로 나누어지며, 총 43장단이다.

## 나. 장단

본 항에서는 악곡별 장단과 빠르기를 살펴보겠다.

### (1) 염불풍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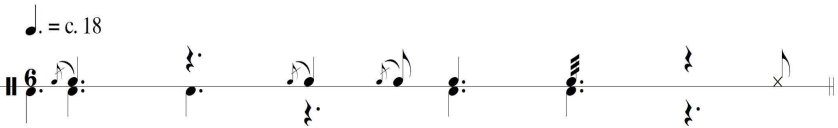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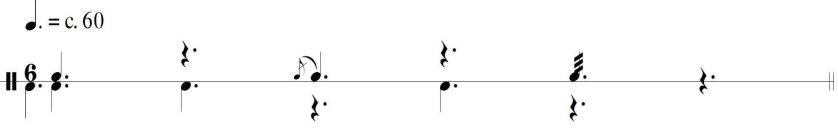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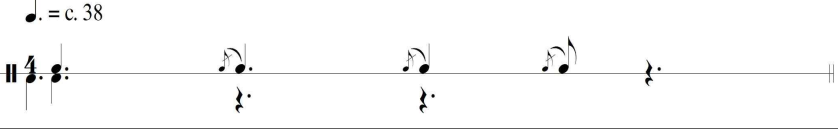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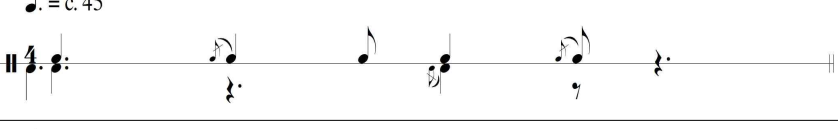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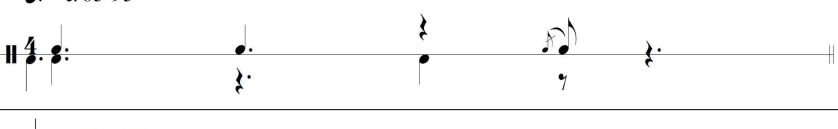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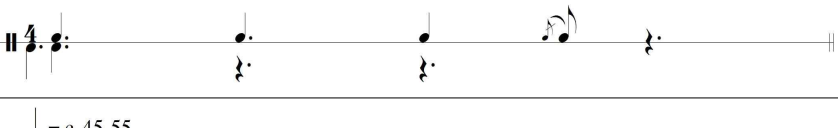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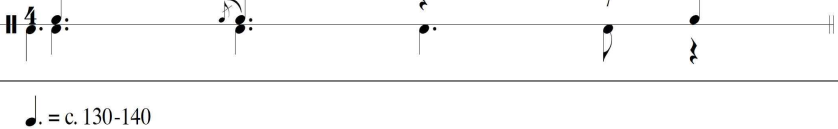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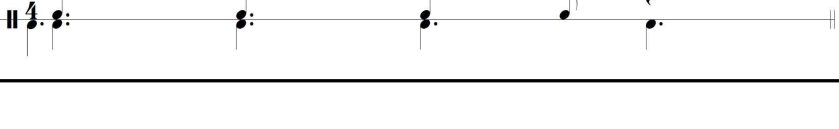
<긴염불>의 장단은 3분박 6박을 한 장단으로 하며, 긴염불장단이라고도 한다. <반염불>의 장단은 3분박 6박을 한 장단으로 하는 도드리장단이다. <삼현타령>의 장단은 3분박 4박을 한 장단으로 하는 타령장단이다. <느린허튼타령>과 <중허튼타령>, <자진허튼타령>의 장단은 3분박 4박을 한 장단으로 하는 허튼타령장단이다. <굿거리>와 <자진굿거리>의 장단은 3분박 4박을 한 장단으로 하는 굿거리장단이다. <당악>은 3분박 4박을 한 장단으로 하며, 당악장단, 휘모리장단 또는 덩더궁장단이라고도 한다. <염불풍류>의 악곡별 장단은 아래 [표 8]⁹⁴⁾에서 보는 것과 같다.

---

다음 1장'부터 3장'까지를 2장이라 보겠다. <길군악 돌장>은 앞의 1장부터 6장까지를 1장, 다음 1장'부터 2장'까지를 2장으로 나누어 살펴보겠다.

94) 한 악곡 안에서 빠르기가 달라지는 경우는 악보의 빠르기 표시에서 첫 장단의 빠르기를 앞에, 마지막 장단의 빠르기를 뒤에 표기하겠다. 예를 들어, J.= ca. 85-93는 첫 장단이 템포 85로 시작하여 점차 빨라져서 마지막 장단은 템포 93까지 당겨진다는 뜻이다.

[표 8] 엮불풍류 장단

악곡명	장단
긴엮불	♩. = c. 18 
반엮불	♩. = c. 60 
삼현 타령	♩. = c. 38 
느린 허튼 타령	♩. = c. 45 
중허튼 타령	♩. = c. 85-93 
자진 허튼 타령	♩. = c. 110-120 
굿거리	♩. = c. 45-55 
자진 굿거리	♩. = c. 90-100 
당악	♩. = c. 130-140 

위의 [표 8]에서 살펴보면 첫 곡인 <긴염불>은  $J.=ca. 18$ 의 매우 느린 템포로 시작하여 <반염불>에서 조금 빨라진 후 <삼현타령>에서 다시 느려진다. 이후 <느린허튼타령>부터 <자진허튼타령>까지  $J.=ca. 120$ 의 빠르기까지 빨라진다. <굿거리>에서는  $J.=ca. 45$ 로 <삼현타령>의 빠르기 정도로 느려진 후 <자진굿거리>, <당악>까지  $J.=ca. 140$ 의 빠르기까지 점차 빨라지며 본 악곡에서 가장 빠른 템포로 <당악>을 마친다. <당악>을 마친 후에는 <굿거리>로 돌아가 느려진 템포에서 <염불풍류>를 마친다.

## (2) 삼현영산회상

<대영산>과 <중영산>의 장단은 본래 20박(6+4+4+6) 장단의 악곡이다.⁹⁵⁾ 그러나 실제 연주 시 이 두 곡을 10박(3+2+2+3)으로 인식하며 연주한다.⁹⁶⁾ 그러므로 본고에서는 실제 연주를 기준으로 하여 3분박 10박을 한 장단으로 채보하였다. <жат영산>의 장단은 3분박 10박을 한 장단으로 한다. <삼현도드리>와 <염불도드리>의 장단은 3분박 6박을 한 장단으로 하는 도드리장단이다. <삼현타령>과 <별곡타령>의 장단은 3분박 4박을 한 장단으로 하는 타령장단이다. 삼현영산회상의 악곡별 장단은 아래 [표 9]에서 보는 것과 같다.

95) 지영희의 교본에는 <대영산>과 <중영산>이 2분박 20박자로 채보되어 있다.

96) 지영희 선생 또한 전승 시 두 박을 한 박으로 보아 10박으로 연주한다고 하였다. 이는 최경만, 이철주의 대담을 통하여 확인하였다. 최경만, 삼현육각 피리 전수소, 2019. 4. 24; 이철주, 삼현육각 대금전수소, 2019. 4. 4. 대담에 응해주신 선생님들께 감사를 포함한다.

[표 9] 삼현영산회상 장단

악곡명	장단
대영산	<p>♩. = c. 28-30</p>
중영산	<p>♩. = c. 30-35</p>
жат영산	<p>♩. = c. 37-58</p>
삼현 도드리	<p>♩. = c. 50-79</p>
염불 도드리	<p>♩. = c. 65-80</p>
삼현 타령	<p>♩. = c. 45-52</p>
별곡 타령	<p>♩. = c. 50-60</p>

위의 [표 9]에서 살펴보면 《삼현영산회상》은 모든 개별 악곡 안에서 빠르기가 점차 빨라진다. 첫 곡인 <대영산>은  $J.=ca. 28$ 의 느린 템포로 시작하며, 점차 빨라져 <삼현도드리>에서 템포  $J.=ca. 79$ 까지 빨라진다. <염불도드리>는 <삼현도드리>의 끝나는 템포보다 조금 느리게 시작하여 점차 빨라진다. 이후 <삼현타령>에서 템포가  $J.=ca. 45$ 로 느려지고 <별곡타령>까지 조금 당겨진 템포로 악곡을 마친다.

### (3) 취타풍류

<취타>의 장단은 3분박 12박을 한 장단으로 한다. <길군악>과 <길군악돌장>은 3분박 8박을 한 장단으로 하며, <길타령> 돌장부터 타령장단으로 바뀐다. <길타령>과 <삼현타령>, <별곡타령>은 3분박 4박을 한 장단으로 하는 타령장단이며, <염불타령>의 장단은 <긴염불>과 같다. <취타풍류>의 악곡별 장단은 아래 [표 10]에서 보는 것과 같다.

[표 10] 취타풍류 장단

악곡명	장단
취타	♩. = c. 45-58 
길군악	♩. = c. 45-53 
길타령	♩. = c. 45 
염불 타령	♩. = c. 20 
삼현 타령	♩. = c. 38-52 
별곡 타령	♩. = c. 48-65 

위의 [표 10]에서 살펴보면 첫 곡인 <취타>는 ♩.=ca. 45의 보통 빠르기로 시작하며 점차 빨라지다가 <길군악>에서 다시 <취타>의 처음 템포와 같이 시작한다. <길군악> 또한 점차 빨라지다가 <길타령>에서 다시 <취타>의 처음 템포로 시작한다. <길군악>은 <길군악 돌장>의 마지막 3장에서 타령 장단으로 변한다. <길타령>은 템포를 유지하며, 이후 <염불타령>에서 매우 느려진 후 <삼현타령>부터 <별곡타령>까지 점차 빨라지며 악곡을 마친다.

### Ⅲ. ‘경기 삼현육각’의 악조

본 장에서는 삼현육각의 개별 악곡을 분석한 후 이를 종합하여 악조의 특징을 도출하고자 한다. 악곡별 분석방법은 첫째, 출현음 분석, 둘째, 구조선율·핵음·중지음 분석, 셋째, 시김새 분석이다. 구조선율·핵음·중지음의 분석은 먼저 악구별 구조선율·핵음·중지음⁹⁷⁾을 분석한 후, 이를 종합하여 악곡의 관용적 구조선율과 핵음·중지음을 분석한다. 관용적 구조선율은 악곡에서 높은 빈도로 나타나는 구조선율이거나 해당 악곡을 알아차릴 수 있게 하는 특징적인 음 진행의 경우를 포함한다. 모든 악곡의 분석을 마친 후 주요한 음조식을 분석하고 이를 악조로 분류한다.

하나의 악곡 안에서 악조가 두 가지 이상 나타나는 경우에는 악조의 경계에 따라 악곡을 나누어 살펴보겠다. 구조선율·핵음·중지음은 대금과 피리의 진행이 달리 나타날 경우, 보다 지배력 있는 악기의 선율을 선택한다.

#### 1. 염불조

본고에서는 《염불풍류》의 <긴염불>, <반염불>, <삼현타령> 제1장단~제3장단, <굿거리>, <자진굿거리>, 《삼현영산회상》의 <대영산>, <염불도드리> 제1장~제4장, <삼현타령> 제2장~제3장과 돌장, 《취타풍류》의 <길타령>, <염불타령>, <삼현타령> 제1장 제1장단~제3장단, 제2장~제3장과 돌장을 염불조로 구분⁹⁸⁾하여 논의를 진행한다.⁹⁹⁾

97) 악구의 중지음은 완전중지가 아닐 수 있다. 악구로 나누었을 때 악구를 맺는 기능을 하는 마지막 음을 악구의 중지음이라 하고, 이 중 가장 안정된 중지감이 느껴지는 음을 악곡의 중지음으로 보겠다.

98) 이와 같은 악곡 분류의 세부 경계는 본고의 연구결과를 따른 것이다. 위 분류에 대해 최경만, 박승률, 김방현이 동의한 바 있다. 최경만, 전화 대담, 2019. 12. 19; 박승률, 경기도 동두천시 지행동 카페 ‘살롱드코나’, 2019. 12. 22; 김방현, 경기도 파주시 동패동 카페 ‘커피에반하다’, 2019. 12. 24.



## 가. 엽불풍류계

본 항에서는 《엽불풍류》 악곡 중 엽불조에 해당하는 악곡인 <긴엽불>, <반엽불>, <삼현타령> 제1장단~제3장단, <굿거리>, <자진굿거리>를 살펴보겠다.

### (1) 긴엽불

<긴엽불>은 《엽불풍류》의 첫 곡¹⁰⁰⁾으로, 출현음과 구조선율·핵음·종지음, 그리고 시김새 분석을 통해 악곡을 살펴보겠다.

#### 1) 출현음

<긴엽불>의 출현음을 다음 <악보 1>에서 살펴보겠다.¹⁰¹⁾

---

99) 본고에서 엽불조 악곡은 A^b조의 조표를 사용한다.

100) 본고의 연구대상 음원자료의 악곡 순서를 기준으로 한 것이다. 본래 삼현육각은 무속음악 또는 무용음악 등의 기능음악으로 연주되는 경우에는 본고에서 분석한 모음곡 형식의 음악으로 연주되지 않고, 단편 악곡으로 연주되거나 연주순서가 다르다. 하지만 지영희 이후 삼현육각 악곡을 기악곡화하여 모음곡으로 연주하기 시작하였다.

101) 흰 음표는 주요 출현음이며, 검은 음표는 짧은 경과음 또는 장식음으로 나타나는 음이다. 검은 음표의 음이름은 이탤릭체로 구분하였다. 또한 대금과 피리를 통합하여 서술하거나 구조선율·핵음·종지음을 추출할 때에는 편의상 피리의 음고로 통일하여 서술한다.

### <악보 1> 긴염불 출현음

대금

$a^b(\text{도})$   $e^b'(\text{솔})$   $f'(\text{라})$   $a^b'(\text{도})$   $b^b'(\text{레})$   $c''(\text{미})$

피리

$A^b(\text{도})$   $B^b(\text{레})$   $e^b(\text{솔})$   $f(\text{라})$   $a^b(\text{도})$   $b^b(\text{레})$   $c'(\text{미})$   $e^b'(\text{솔})$

<악보 1>을 살펴보면, <긴염불>에서 대금의 출현음은  $e^b'(\text{솔})$ ,  $f'(\text{라})$ ,  $a^b'(\text{도})$ ,  $b^b'(\text{레})$ ,  $c''(\text{미})$ 이며,  $a^b(\text{도})$ 는 장식음으로만 출현한다. 피리의 출현음은  $e^b(\text{솔})$ ,  $f(\text{라})$ ,  $a^b(\text{도})$ ,  $b^b(\text{레})$ ,  $c'(\text{미})$ ,  $e^b'(\text{솔})$ 이며,  $A^b(\text{도})$ 은 짧은 경과음으로 1회 출현하고,  $B^b(\text{레})$ 는 장식음으로만 출현한다.

## 2) 구조선율 · 핵음 · 종지음

<긴염불>은 총 12장단의 악곡이다. 선율은 장단 단위로 전개되므로 악구는 장단을 단위로 나누었으며, 총 12개 악구의 구조선율과 악구별 핵음, 종지음을 살펴보겠다. <긴염불>의 제7악구, 제8악구, 제10악구, 제12악구는 각각 제1악구, 제2악구, 제4악구, 제6악구와 동일하므로 생략한다.

### ① 긴염불 제1악구

<긴염불>의 제1악구는 제1장단과 같다. 제1악구는 다음의 <악보 2>에서 보겠다.¹⁰²⁾

102) 네모 안의 음은 핵음 및 종지음이다. 이 중 마지막 네모는 종지음이다.

## <악보 2> 긴염불 제1악구(제1장단)

위 <악보 2>에서 살펴보면 <긴염불>의 첫 음은 f로 시작한다.¹⁰³⁾ f는 퇴성하며 제2박의 e^b으로 하행한다. 제2박의 e^b은 박의 끝에서 f를 들어내고 제3박에서 a^b으로 상행한다. 제3박은 a^b을 중심으로 움직이며, 이후 제4박에서 다시 e^b으로 하행한다. 제4박의 끝에서 b^b으로 상행 후 제5박의 a^b으로 귀결한다. 이때 종지감이 나타난다. 제6박에서 대금은 a^b을 중심으로 움직이며 마치고,¹⁰⁴⁾ 피리는 e^b을 굵게 떨고 박의 끝에서 f를 들어내어 다음 악구가 이어짐을 예고한다. 제1악구의 구조선율은 f-e^b-a^b-e^b-a^b(-a^b/e^b)이며, 핵음은 e^b · f¹⁰⁵⁾ · a^b, 종지음은 a^b이다.¹⁰⁶⁾

## ② 긴염불 제2악구

<긴염불>의 제2악구는 제2장단과 같다. 제2악구는 다음의 <악보 3>에서 보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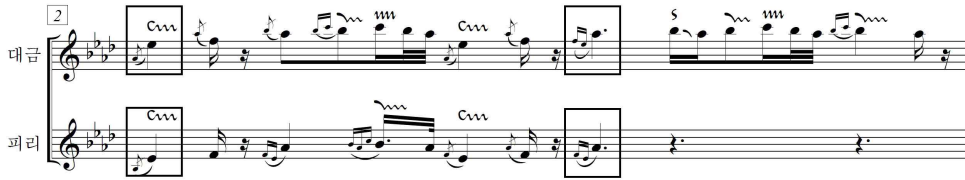
103) 대금과 피리가 동일한 진행일 경우 서술 시 악기를 언급하지 않겠다.

104) 이는 종지감이 있는 후의 선율로 제6박은 피리의 연주가 지속되지만 선율의 성격으로 보아 연음과 같은 선율형이라 볼 수 있겠다.

105) f는 염불조에서 주로 퇴성하며 e^b으로 하행하여 e^b에 종속되는 음이지만, <긴염불>의 제1악구에서는 악곡의 첫 음으로 나타나므로 중요한 음으로 판단하여 제1악구의 핵음에 포함한다.

106) 대금과 피리의 선율 진행이 동일할 경우 통합하여 서술하며 서술 시 피리의 음역에 맞추어 서술한다. 또한 분석결과와 구조선율·핵음·종지음은 편의상 피리의 음역에 맞추어 서술한다. 두 악기의 음정이 다르게 독립적으로 나타나는 경우는 두 악기의 음을 모두 서술하고 서술 순서는 대금, 피리 순으로 한다. 구조선율의 마지막 음은 악구의 종지 기능을 하는 음이며, 종지 이후 나타나는 연결구 또는 연음의 구조선율은 괄호 안에 넣겠다.

### <악보 3> 긴염불 제2악구(제2장단)



위의 <악보 3>에서 살펴보면 제2장단의 제1박은  $e^b$ 으로 시작하여 박의 끝에서  $f$ 를 들어내며, 제2박에서  $a^b$ 으로 상행한다. 제2박은  $a^b$ 을 중심으로  $b^b \cdot c'$ 를 경과한 후  $a^b$ 으로 귀결된다. 제3박은  $e^b$ 으로 하행하고, 박의 끝에서  $f$ 를 들어낸다. 제4박에서는  $a^b$ 으로 상행하여 종지한다. 피리는 제4박에서 선율이 끝나고 대금은 제5박과 제6박에서 연음¹⁰⁷⁾을 이어간다. 대금은 제5박에서  $a^b$ 을 중심으로 진행한 후, 제6박에서  $b^b$ 을 길게 지속하다가 제6박의 끝에서  $a^b$ 으로 귀결되어 마친다. 이때 대금의  $b^b$ 은  $a^b$ 으로 진행하기 위한  $a^b$ 의 종속되는 음으로 본다. 제2악구의 구조선율은  $e^b - a^b - e^b - a^b (-a^b)$ 이며, 핵음은  $e^b \cdot a^b$ , 종지음은  $a^b$ 이다.

### ③ 긴염불 제3악구

<긴염불>의 제3악구는 제3장단과 같다. 제3악구는 다음의 <악보 4>에서 보겠다.

107) <염불풍류>에서는 피리가 선율을 마치고, 나머지 박에서 대금과 해금이 선율을 이어가는 연음과 같은 성격의 선율이 <긴염불>의 제2장단과 제8장단에서만 나타난다. 본고에서는 이를 연음으로 보겠다.

#### <악보 4> 긴염불 제3악구(제3장단)



위의 <악보 4>에서 살펴보면 제3악구는 제1박부터 제5박까지 피리와 대금이 다른 진행을 보인다. 대금은  $e^b$ '으로 시작하여,  $a^b$ '으로 상행한 후  $e^b$ '으로 하행하는 선율형을 반복한다. 피리는 제1박에서  $b^b$ 을 중심으로 선율을 진행하다 제2박에서  $a^b$ 으로 도달한다. 이후  $a^b$ 은 다시  $c'$ 를 거쳐 상행하며 제3박에서  $b^b$ 으로 진행하여, 제3박까지는  $b^b$ 을 중심으로 선율이 움직인다.  $b^b$  이후 제4박에서는  $e^b$ 으로 완전5도 하행한다.  $e^b$ 은  $c'$ 까지 순차 상행 후 제5박의  $a^b$ 으로 하행한다. 이때  $a^b$ 은 제3악구의 종지감을 준다. 이후 제5박의 끝에서는 대금과 피리가 동일하게  $f$ 를 경과하여 제6박의  $e^b$ 으로 진행한다. 제6박의 끝에서는  $f$ 를 들어내며 악구를 마친다. 제3악구의 구조선율·핵심·종지음은 피리 선율을 중심으로 한다.¹⁰⁸⁾ 제3악구의 구조선율은  $b^b$ - $a^b$ - $b^b$ - $a^b$ (- $e^b$ )이며, 핵심은  $a^b$ · $b^b$ , 종지음은  $a^b$ 이다.

#### ④ 긴염불 제4악구

<긴염불>의 제4악구는 제4장단과 같다. 제4악구는 다음의 <악보 5>에서 보겠다.

108) 지영희의 『해금교본』과 주 자료의 해금선율을 살펴보면 해금과 피리가 진행을 같이 하므로 피리를 주선율로 본다.

<악보 5> 긴염불 제4악구(제4장단)



위의 <악보 5>에서 살펴보면 제4장단의 제1박은  $a^b$ 을 경과하여  $b^b$ 으로 상행한다.  $b^b$ 은 제2박까지 지속하고, 제2박의 끝에서  $a^b$ 으로 귀결한다. 제3박에서는  $e^b$ 으로 하행한 후 제3박의 끝에서  $f$ 를 들어낸다. 제4박에서는  $a^b$ 을 경과한 후, 제5박에서  $b^b$ 으로 상행하여 제6박까지 지속한다. 제4악구는  $b^b$ 을 중심으로 움직이며 종지감 없이 긴장된 상태로 악구를 마친다. 제4악구의 구조선율은  $b^b-e^b-a^b-b^b$ 이며, 핵음과 종지음은  $b^b$ 이다.

⑤ 긴염불 제5악구

<긴염불>의 제5악구는 제5장단과 같다. 제5악구는 다음의 <악보 6>에서 보겠다.

<악보 6> 긴염불 제5악구(제5장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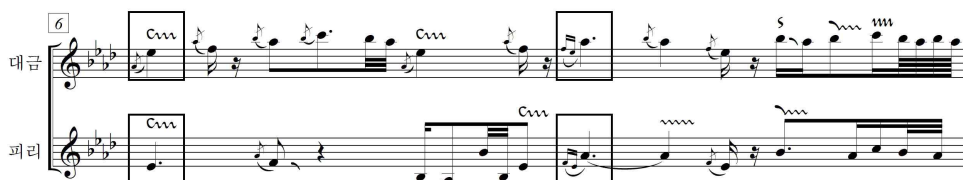
위의 <악보 6>에서 살펴보면 제5장단의 제1박은 제4악구에서 중심으로 움직였던 음인  $b^b$ 으로 시작하여, 박의 끝에서는  $a^b$ 으로 하행한다. 제2박에서는  $e^b$ 으로 하행한 후 제2박의 끝에서  $f$ 를 들어낸다. 이후 제3박에서는  $a^b$ 으로 상행 후  $b^b \cdot c'$ 를 경과하여 다시  $a^b$ 으로 돌아온다. 제4박

에서는  $e^b$ 으로 하행한다. 제4박의 끝에서 완전5도 상행한  $b^b$ 은 제5박의  $a^b$ 으로 진행하기 위한 음이며,  $a^b$ 으로 진행한 후 종지감이 나타난다. 이후 제6박에서 피리는  $e^b$ 으로 하행한 후 박의 끝에서  $f$ 를 들어내며 마치고, 대금은  $a^b$ 을 중심으로 선율을 진행하며 마친다. 제5악구의 구조선율은  $b^b-e^b-a^b-e^b-a^b(-a^b/e^b)$ 이며, 핵음은  $e^b \cdot a^b$ , 종지음은  $a^b$ 이다.

## ⑥ 긴염불 제6악구

<긴염불>의 제6악구는 제6장단과 같다. 제6악구는 다음의 <악보 7>에서 보겠다.

<악보 7> 긴염불 제6악구(제6장단)



위의 <악보 7>에서 살펴보면 제6장단의 제1박은 대금과 피리 모두  $e^b$ 으로 시작한다. 대금은 제1박의 끝에서  $f$ 를 들어낸 후 제2박에서  $a^b$ 을 경과하여  $c''$ 로 상행한다. 피리는 제2박에서  $f$ 로 상행하여 박을 짧게 하고 쉬는데 이때 대금의  $c''$ 가 드러나며 악곡의 긴장감을 높인다. 제3박에서 대금은  $e^b$ 으로 하행한 후  $f$ 를 들어내고, 피리는  $A^b$ 을 경과하여  $e^b$ 으로 상행한다. 이후 제4박에서 대금과 피리 모두  $a^b$ 으로 상행하여 종지감을 준다.  $a^b$ 은 제5박까지 지속하며 제5박의 끝에서  $e^b$ 으로 완전4도 하행하며 종지감을 약하게 한다. 제6박에서는  $a^b$ 으로 귀결되는 선율진행을 하며, 이는 연음과 같은 성격의 선율이다. 제6악구의 구조선율은  $e^b-c'-e^b-a^b(-a^b)$ 이며, 핵음은  $e^b \cdot a^b$ , 종지음은  $a^b$ 이다.

## ⑦ 긴염불 제9악구

<긴염불>의 제9악구는 제9장단과 같다. 제9악구는 다음의 <악보 8>에서 보겠다.

#### <악보 8> 긴염불 제9악구(제9장단)



위의 <악보 8>에서 살펴보면 제9악구는 제3악구의 피리 선율의 첫 세 박을 쇠는 가락으로 높여서 연주한다. 대금은 제3악구와 동일하다. 제9장단의 제1박에서 피리는 첫 음을  $e^b$ '으로 높여서 시작한다. 긴염불에서 최고음의 첫 출현이다. 이후 제2박에서  $a^b$ 으로 완전5도 하행한 후 제3박에서 다시  $e^b$ '으로 상행한다. 이후의 선율은 제3악구와 동일하다. 제9악구의 구조선율·핵음·종지음은 피리 선율을 중심으로 한다.¹⁰⁹⁾ 제9악구의 구조선율은  $e^b$ '- $a^b$ - $e^b$ '- $e^b$ - $a^b$ (- $e^b$ )이며, 핵음은  $a^b$ · $e^b$ ', 종지음은  $a^b$ 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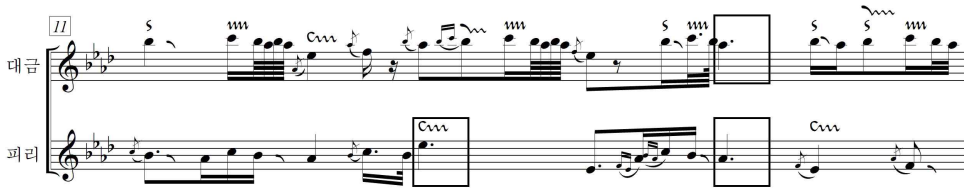
#### ⑧ 긴염불 제11악구

<긴염불>의 제11악구는 제11장단과 같다. 제11악구는 다음의 <악보 9>에서 보겠다.

109) 지영희의 『해금교본』과 주 자료의 해금선율을 살펴보면 해금과 피리가 진행을 같이 하므로 피리를 주선율로 본다.



<악보 9> 긴염불 제11악구(제11장단)



위의 <악보 9>에서 살펴보면 제11악구는 제5악구의 피리 선율의 첫 세 박을 쇠는 가락으로 높여서 연주한다. 대금은 제5악구와 동일하다. 제11장단의 제1박에서 피리는  $b^b$ 으로 시작하여 제2박에서  $a^b$ 으로 하행 후 제3박에서  $e^b$ 으로 상행한다. 이후의 선율은 제5악구와 동일하다. 제11악구의 구조선율·핵음·종지음은 피리 선율을 중심으로 한다.¹¹⁰⁾ 제11악구의 구조선율은  $b^b-a^b-e^b-e^b-a^b(-a^b/e^b)$ 이며, 핵음은  $a^b \cdot e^b$ , 종지음은  $a^b$ 이다.

이상의 내용을 정리하면, <긴염불>의 관용적 구조선율은  $e^b-a^b$ ,  $a^b-e^b-a^b$ 이며, 핵음은  $e^b$ (솔)· $a^b$ (도)이며, 종지음은  $a^b$ (도)이다.

<긴염불>에서  $f$ 는 제1악구의 핵음으로 악곡의 시작을 알리는 기능을 한다. 이외에  $f$ 는  $e^b$ 으로 하행하여 종속되는 음이다.  $b^b$ 은  $a^b$  또는  $e^b$ 으로 하행하여 종속되는 음이며, 핵음으로 나타나는 경우(제3악구, 제4악구, 제10악구)는 보편적인 선율 진행에 변화와 긴장을 주는 역할을 한다.  $c^b$ 는 주로 짧은 경과음 또는 장식음으로 나타난다. 대금의  $c^b$ 와 피리의  $e^b$ 은 악곡의 긴장을 높이는 역할을 한다.

<긴염불>의 구조선율·핵음·종지음 분석을 정리하면 다음의 [표 11]¹¹¹⁾에서 보는 것과 같다.

110) 지영희의 『해금교본』과 주 자료의 해금선율을 살펴보면 해금과 피리가 진행을 같이 하므로 피리를 주선율로 본다.

111) 구조선율에서 밑줄 친 부분은 관용적 구조선율에 해당한다.

[표 11] 긴염불 구조선율 · 해음 · 종지음

악구	구조선율	해음	종지음
1	$f - e^b - \underline{a^b - e^b - a^b} (-a^b / e^b)$	$e^b \cdot f \cdot a^b$	$a^b$
2	$e^b - \underline{a^b - e^b - a^b} (-a^b)$	$e^b \cdot a^b$	$a^b$
3	$b^b - a^b - b^b - a^b (-e^b)$	$a^b \cdot b^b$	$a^b$
4	$b^b - \underline{e^b - a^b} - b^b$	$b^b$	$b^b$
5	$b^b - e^b - \underline{a^b - e^b - a^b} (-a^b / e^b)$	$e^b \cdot a^b$	$a^b$
6	$e^b - c' - \underline{e^b - a^b} (-a^b)$	$e^b \cdot a^b$	$a^b$
7	제1악구와 동일		
8	$e^b - \underline{a^b - e^b - a^b} (-c' - a^b)$ (제2악구와 유사)	$e^b \cdot a^b$	$a^b$
9	$e^b - a^b - e^b - \underline{e^b - a^b} (-e^b)$	$a^b \cdot e^{b'}$	$a^b$
10	제4악구와 동일		
11	$b^b - a^b - e^b - \underline{e^b - a^b} (-a^b / e^b)$	$a^b \cdot e^{b'}$	$a^b$
12	제6악구와 동일		
종합			

### 3) 시김새

<긴염불>의 시김새는  $e^b$ (솔),  $f$ (라),  $a^b$ (도),  $b^b$ (레),  $c'$ (미) 다섯 음으로 나누어 살펴보겠다.

#### ① $e^b$ (솔)

<긴염불>의 e^b에서 나타나는 시김새는 아래 <악보 10>에서 보겠다.

### <악보 10> 긴염불 e^b의 시김새

위의 <악보 10>에서 살펴보면 e^b은 짧은 농음을 한다. 대금은 e^b'의 장식음으로 a^b, 피리는 B^b 또는 b^b-B^b이 나타난다. 대금과 피리 모두 a^b에서 e^b으로 하행시 e^b앞에 f가 장식음으로 나타나며, 피리는 이를 내리더름 주법으로 연주한다.

### ② f(라)

<긴염불>의 f에서 나타나는 시김새는 아래 <악보 11>에서 보겠다.

### <악보 11> 긴염불 f의 시김새

위의 <악보 11>에서 살펴보면 f는 퇴성하며 이후 주로 e^b으로 하행한

다. 또한 f의 장식음으로는 a^b이 나타난다.

### ③ a^b(도)

<긴염불>의 a^b에서 나타나는 시김새는 아래 <악보 12>에서 보겠다.

<악보 12> 긴염불 a^b의 시김새



위의 <악보 12>에서 살펴보면 a^b은 시김새 없이 평으로 낸다. 대금은 a^b'이 대박112)의 첫 음으로 나타날 때 b^b'이 a^b'의 장식음으로 나타난다. 또한 a^b'을 단순히 지속하는 경우 장식음으로 f-e^b'이 나타난다. 피리는 b^b에서 a^b으로 하행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모든 a^b의 장식음으로 f-e^b이 나타나며, 이를 올리더름 주법으로 연주한다.

### ④ b^b(레)

긴염불의 b^b에서 나타나는 시김새는 아래 <악보 13>에서 보겠다.

112) 이보형이 최초로 사용한 단어이다. 이보형, “韓國民俗音樂長短의 大綱拍(大拍), 拍, 分拍(小拍)에 대한 傳統記譜論의 考察”, 『국악원논문집』4 (1992), 56쪽.

“계층적 박 층위를 변별하여 지시하기 위하여, 우리가 보편적으로 헤아리는 박 층위를 보통박(여느박)이라 이르고 이를 정간에 적는다. 보통박의 한 층위 위의 박을 대박(대강박)이라 이르고 이를 대강에 적는다. 보통박의 상층위 박을 차례로 대박, 대대박, 대대대박...이라 이른다. 보통박의 한 층위 아래의 박을 차례로 소소박, 소소소박...이라 이른다.” 대박의 하위단위는 대박-보통박-소박-소소박이다. 이보형, “통사성분소가 생성하는 박 층위 인지론”, 『한국음악연구』56 (2014), 288쪽.

<악보 13> 긴염불  $b^b$ 의 시김새



위의 <악보 13>에서 살펴보면  $b^b$ 에서  $a^b$ 으로 하행시  $b^b$ 은 하행 농음 또는 퇴성을 한다. 대금은  $a^b$ 에서  $b^b$ 으로 상행시  $b^b$ 앞에  $b^b$ - $c''$ 가 장식음으로 나타난다.¹¹³⁾ 이외에는  $b^b$ 앞에  $b^b$ - $d^b$ 이 장식음으로 나타난다.¹¹⁴⁾ 피리는  $b^b$ 앞에  $c'$ 또는  $b^b$ - $a^b$ - $c'$ 가 장식음으로 나타난다.

⑤  $c'$ (미)

긴염불의  $c'$ 에서 나타나는 시김새는 아래 <악보 14>에서 보겠다.

<악보 14> 긴염불  $c'$ 의 시김새



위의 <악보 14>에서 살펴보면 피리는  $a^b$ 에서  $c'$ 로 상행시  $c'$  앞에  $b^b$ 이 장식음으로 나타나고, 이때 피리는  $c'$ 에서 빠르고 얇은 농음을 한다. 제4장단의 제4박, 제10장단의 제4박 이외의  $c'$ 에서 피리는 농음이 나타나지 않는다. 대금은  $b^b$ 에서  $a^b$ 으로 하행 전  $c''$ 를 경과할 때  $c''$ 에서 묵튀김¹¹⁵⁾ 농음을 한다.

113) 이 장식음은 보통 장식음에 비해 느리게 연주한다.

114) 정악 대금의 시김새 ‘떠이어’와 같다.

115) 목에서 김을 조절하여 내는 요성으로 빠르고 얇은 농음이다.

이상의 내용을 정리하면, <긴염불>의 주요 시김새¹¹⁶⁾는 다음과 같다.  $e^b$ 은 굵은 농음을 하고,  $f$ 는 퇴성을 한다.  $a^b$ 은 평으로 낸다.  $b^b$ 은 하행 농음 또는 퇴성을 한다.  $c'$ 는 빠르고 얇은 농음을 한다.

시김새 중 장식음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e^b$ 의 장식음으로 대금은 완전5도 낮은  $a^b$ , 피리는  $B^b$  또는  $b^b$ - $B^b$ 이 나타난다. 대금과 피리 모두  $a^b$ 에서  $e^b$ 으로 하행시  $e^b$ 앞에  $f$ 가 장식음으로 나타나며, 피리는 이를 내리더름 주법으로 연주한다.  $f$ 의 장식음으로는  $a^b$ 이 나타난다.  $a^b$ 의 장식음으로 대금은  $f$ - $e^b$ ,  $b^b$ 이, 피리는  $f$ - $e^b$ 이 나타나며, 피리는 이를 올리더름 주법으로 연주한다.  $b^b$ 의 장식음으로 대금은  $b^b$ - $c''$ ,  $b^b$ - $d^b$ , 피리는  $c'$ ,  $b^b$ - $a^b$ - $c'$ 가 나타난다.  $c'$ 의 장식음으로 피리는  $b^b$ 이 나타난다.

요컨대, <긴염불>의 음계는 ‘ $e^b$ (솔)- $f$ (라)- $a^b$ (도)- $b^b$ (레)- $c'$ (미)’이다.¹¹⁷⁾ 관용적 구조선율은  $e^b$ - $a^b$ ,  $a^b$ - $e^b$ - $a^b$ 이며, 핵음은  $e^b$ (솔)· $a^b$ (도), 종지음은  $a^b$ (도)이다.

<긴염불>에서  $f$ 는  $e^b$ 으로,  $b^b$ 은  $a^b$  또는  $e^b$ 으로 하행하여 종속되는 음이다.  $c'$ 는 주로 경과음으로 나타난다.

<긴염불>의 주요 시김새는 다음과 같다.  $e^b$ 은 굵은 농음을 하고,  $f$ 는  $e^b$ 으로 하행시 퇴성을 한다.  $a^b$ 은 평으로 낸다.  $b^b$ 에서  $a^b$ 으로 하행시  $b^b$ 은 하행 농음 또는 퇴성을 한다.  $c'$ 는 빠르고 얇은 농음을 한다.

시김새 중 주요 장식음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e^b$ 의 장식음으로 대금은 완전5도 낮은  $a^b$ , 피리는  $b^b$ - $B^b$ 이 나타난다. 대금과 피리 모두  $a^b$ 에

116) 시김새 분석결과 특정 음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나며 해당 악곡의 음악적 특징을 알아차릴 수 있게 하는 시김새를 주요 시김새라 한다.

117) 본고에서 음계는 모든 악곡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핵음인  $e^b$ 을 제1음으로 삼고 구성음을 차례로 쌓는다. 만일 악곡의 최저음을 제1음으로 삼고 음계를 쌓게 되면 같은 악조이지만 악곡마다 음계가 다르게 나타날 것이고, 종지음을 제1음으로 쌓게 되면 긴염불(염불조)과 허튼타령(허튼타령조), 당악(당악조)의 음계가 동일하게 나타나므로 악조의 특성을 파악하기 어렵게 된다. 이는 전체 연구결과를 종합한 후에 결정하였으나 분석과 이해의 편의를 위하여 연구결과와 내용을 본론에서 먼저 언급한다.

서  $e^b$ 으로 하행시  $e^b$ 앞에  $f$ 가 장식음으로 나타나며, 피리는 이를 내리더름 주법으로 연주한다.  $a^b$ 의 장식음으로 피리는  $f-e^b$ 이 나타나며, 피리는 이를 올리더름 주법으로 연주한다.  $b^b$ 의 장식음으로 대금은  $b^b-c''$ , 피리는  $c'$ ,  $b^b-a^b-c'$ 가 나타난다.  $c'$ 의 장식음으로 피리는  $b^b$ 이 나타난다.

## (2) 반염불

<반염불>은 《염불풍류》의 두 번째 악곡으로 연주되며, 출현음과 구조선율 · 핵음 · 종지음, 그리고 시김새 분석을 통해 악곡을 살펴보겠다.

### 1) 출현음

<반염불>의 출현음을 다음 <악보 15>에서 살펴보겠다.¹¹⁸⁾

<악보 15> 반염불 출현음

대금

$a^b(\text{도})$   $e^b'(\text{솔})$   $f'(\text{라})$   $a^b'(\text{도})$   $b^b'(\text{레})$   $c''(\text{미})$

피리

$B^b(\text{레})$   $e^b(\text{솔})$   $f(\text{라})$   $a^b(\text{도})$   $b^b(\text{레})$   $c'(\text{미})$

<악보 15>를 살펴보면, <반염불>에서 대금과 피리가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출현음은  $e^b$ (솔),  $f$ (라),  $a^b$ (도),  $b^b$ (레),  $c'$ (미)이며, 대금은  $a^b$ (도), 피리는  $B^b$ (레)이 장식음으로 출현한다.

### 2) 구조선율 · 핵음 · 종지음

118) 흰 음표는 주요 출현음이며, 검은 음표는 짧은 경과음 또는 장식음으로 나타나는 음이다. 검은 음표의 음이름은 이탤릭체로 구분하였다.

<반염불>은 총 6장단의 악곡이다. 선율은 장단 단위로 전개되므로 악구는 장단을 단위로 나누었으며, 총 6개 악구의 구조선율과 악구별 핵음, 종지음을 살펴보겠다.

## ① 반염불 제1악구

<반염불>의 제1악구는 제1장단과 같다. 제1악구는 다음 <악보 16>에서 보겠다.

<악보 16> 반염불 제1악구(제1장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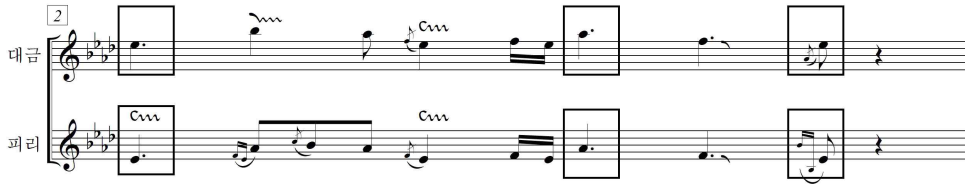
위의 <악보 16>에서 살펴보면 <반염불>의 제1박은 <긴염불>의 시작과 마찬가지로 f로 시작하여 제2박에서 e^b으로 하행한다. 이후 제3박에서 b^b을 경과한 후 제4박에서 a^b으로 진행한다. a^b은 제5박까지 지속하며 제6박에서 f로 하행하며 마친다. f는 다음 악구로 진행하기 위한 예비적 음이다. 제1악구의 구조선율은 f-e^b-a^b(-f)이며, 핵음은 e^b · f · a^b이고, 종지음은 a^b이다.

## ② 반염불 제2악구

<반염불>의 제2악구는 제2장단과 같다. 제2악구는 다음의 <악보 17>에서 보겠다.



<악보 17> 반염불 제2악구(제2장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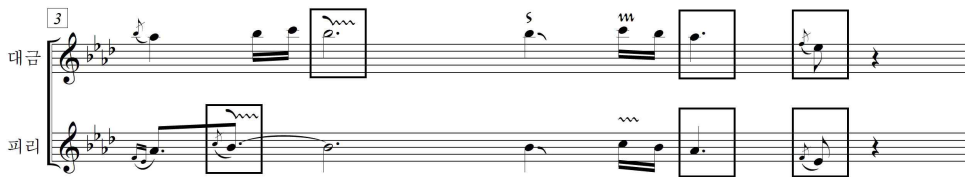


위의 <악보 17>에서 살펴보면 제2장단의 제1박은  $e^b$ 으로 시작하여 제2박에서  $a^b$ 과  $b^b$ 을 경과하여 제3박에서 다시  $e^b$ 으로 하행한다. 이후 제4박에서  $a^b$ 으로 상행한 후 제5박의  $f$ 를 경과하여 제6박의  $e^b$ 으로 귀결하여 마친다. 제2악구의 구조선율은  $e^b$ - $a^b$ - $f$ - $e^b$ 이며, 핵음은  $e^b \cdot a^b$ , 종지음은  $e^b$ 이다.

③ 반염불 제3악구

<반염불>의 제3악구는 제3장단과 같다. 제3악구는 다음의 <악보 18>에서 보겠다.

<악보 18> 반염불 제3악구(제3장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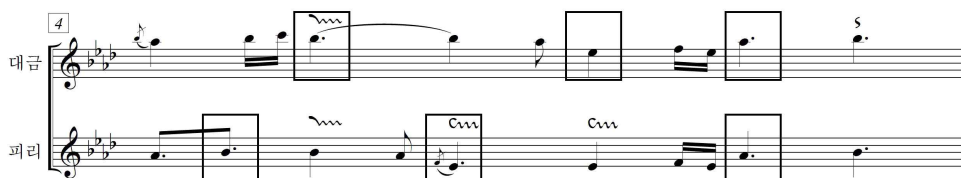


위의 <악보 18>에서 살펴보면 제3장단의 제1박은  $a^b$ 을 경과하여  $b^b$ 으로 상행한다.  $b^b$ 은 제4박까지 지속한 후 제5박에서  $a^b$ 으로 하행한다. 이후 제6박에서  $e^b$ 으로 하행하여 마친다. 제3악구의 구조선율은  $a^b$ - $b^b$ - $a^b$ - $e^b$ 이며, 핵음은  $e^b \cdot a^b \cdot b^b$ , 종지음은  $e^b$ 이다.

④ 반염불 제4악구

<반염불>의 제4악구는 제4장단과 같다. 제4악구의 구조선율은 다음의 <악보 19>에서 보겠다.

#### <악보 19> 반염불 제4악구(제4장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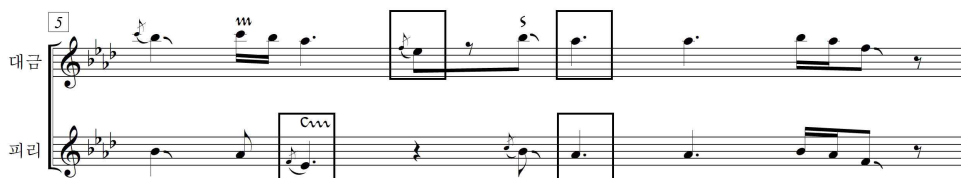


위의 <악보 19>에서 살펴보면 제4장단의 제1박은  $a^b$ 을 경과하여  $b^b$ 으로 상행한다.  $b^b$ 은 제2박(대금은 제3박)까지 지속하며  $a^b$ 을 다시 경과하여 제3박(대금은 제4박)에서  $e^b$ 으로 하행한다.  $e^b$ 은 제4박까지 지속하며 제5박에서  $a^b$ 으로 상행한다. 이후 제6박에서는  $b^b$ 으로 상행하여 다음 악구의 진행을 예고한다. 제4악구의 구조선율은  $a^b-b^b-e^b-a^b(-b^b)$ 이며, 핵음은  $e^b \cdot a^b \cdot b^b$ , 종지음은  $a^b$ 이다.

#### ⑤ 반염불 제5악구

<반염불>의 제5악구는 제5장단과 같다. 제5악구의 구조선율은 다음의 <악보 20>에서 보겠다.

#### <악보 20> 반염불 제5악구(제5장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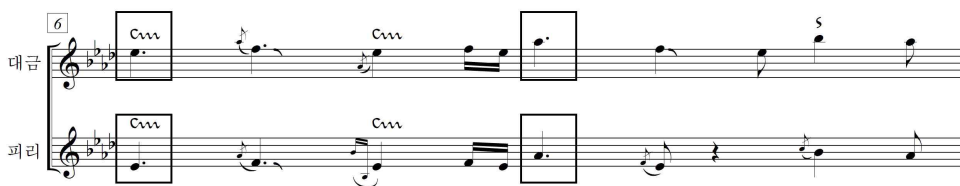
위의 <악보 20>에서 살펴보면 제5장단의 제1박은 제4악구의 마지막

음과 동일한  $b^b$ 으로 시작한다. 이후  $a^b$ 을 경과하여 제2박(대금은 제3박)에서  $e^b$ 으로 하행한다. 이후 제3박의 끝에서  $b^b$ 을 경과하여 제4박에서  $a^b$ 으로 진행한다.  $a^b$ 은 제5박까지 지속 후 제6박에서  $f$ 로 하행하며 마친다.  $f$ 는 다음 악구로 진행하려는 예비음이다. 제5악구의 구조선율은  $b^b-e^b-a^b(-f)$ 이며, 핵음은  $e^b \cdot a^b$ , 종지음은  $a^b$ 이다.

## ⑥ 반염불 제6악구

<반염불>의 제6악구는 제6장단과 같다. 제6악구의 구조선율은 다음의 <악보 21>에서 보겠다.

<악보 21> 반염불 제6악구(제6장단)



위의 <악보 21>에서 살펴보면 제6장단 제1박은  $e^b$ 으로 시작한다. 제2박에서는  $f$ 를 경과 후 제3박에서 다시  $e^b$ 으로 진행한다. 이후 제4박에서  $a^b$ 으로 상행하여 종지감을 준다. 제5박에서는  $f$ 를 경과하여  $e^b$ 으로 하행하며 종지감을 약하게 하고, 이후 마지막 박은  $b^b$ 에서  $a^b$ 으로 하행하며 다음 악곡으로 이어지려 한다. 제6악구의 구조선율은  $e^b-f-e^b-a^b(-e^b-b^b-a^b)$ 이며, 핵음은  $e^b \cdot a^b$ , 종지음은  $a^b$ 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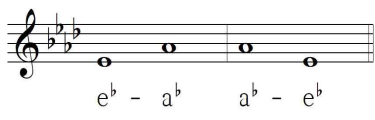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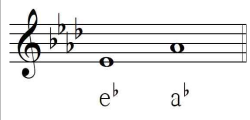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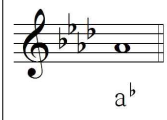
이상의 내용을 정리하면, <반염불>의 관용적 구조선율은  $e^b-a^b$ ,  $a^b-e^b$ 이며, 핵음은  $e^b$ (솔) ·  $a^b$ (도)이며, 종지음은  $a^b$ (도)이다.

<반염불>은  $e^b$ (솔)에서 종지감이 나타나기도 하고,  $a^b$ (도)에서 종지하기도 한다. 그러나  $a^b$ (도)에서의 종지가 보다 안정감있으므로  $a^b$ (도)를 종지음으로 본다. <반염불>에서  $f$ 는  $e^b$ 으로 하행하여 종속되는 음이다.

b^b은 a^b · e^b으로 하행하여 종속되는 음이다. 또한 종지음 이후에 출현하는 f와 b^b은 다음 악구의 진행이 연결됨을 예고하는 음으로 나타난다. c'는 주로 짧은 경과음 또는 장식음으로 나타난다.

<반염불>의 구조선율 · 핵음 · 종지음 분석을 정리하면 다음의 [표 12] 119)에서 보는 것과 같다.

[표 12] 반염불 구조선율 · 핵음 · 종지음

악구	구조선율	핵음	종지음
1	f-e ^b -b ^b -a ^b (-f)	e ^b · f · a ^b	a ^b
2	<u>e^b-a^b</u> -f-e ^b	e ^b · a ^b	e ^b
3	a ^b -b ^b - <u>a^b-e^b</u>	e ^b · a ^b · b ^b	e ^b
4	a ^b -b ^b - <u>e^b-a^b</u> (-b ^b )	e ^b · a ^b · b ^b	a ^b
5	b ^b - <u>e^b-a^b</u> (-f)	e ^b · a ^b	a ^b
6	e ^b -f-e ^b -a ^b (-e ^b -b ^b -a ^b )	e ^b · a ^b	a ^b
종합	 e ^b - a ^b a ^b - e ^b	 e ^b a ^b	 a ^b

### 3) 시김새

<반염불>의 시김새는 e^b(솔), f(라), a^b(도), b^b(레), c'(미) 다섯 음으로 나누어 살펴보겠다.

#### ① e^b(솔)

<반염불>의 e^b에서 나타나는 시김새는 아래 <악보 22>에서 보겠다.

119) 구조선율에서 밑줄 친 부분은 관용적 구조선율에 해당한다.

<악보 22> 반염불  $e^b$ 의 시김새

위의 <악보 22>에서 살펴보면  $e^b$ 은 굽은 농음을 한다.  $a^b$ 에서  $e^b$ 으로 하행시  $e^b$ 앞에  $f$ 가 장식음으로 나타나며, 피리는 이를 내리더름 주법으로 연주한다. 또한 대금은  $e^b$ 앞에  $a^b$ 이, 피리는  $e^b$ 앞에  $b^b$ - $B^b$ 이 장식음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②  $f$ (라)

<반염불>의  $f$ 에서 나타나는 시김새는 아래 <악보 23>에서 보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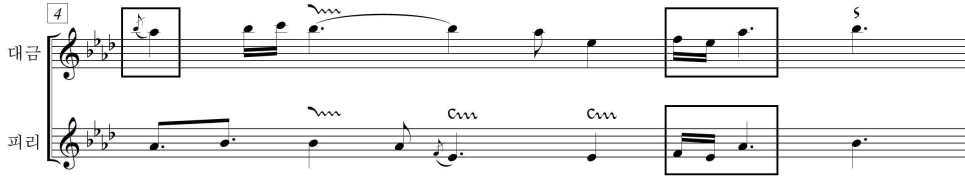
<악보 23> 반염불  $f$ 의 시김새

위의 <악보 23>에서 살펴보면  $f$ 는  $e^b$ 으로 하행시 퇴성한다.  $f$ 는 장식음으로  $a^b$ 이 나타난다.

③  $a^b$ (도)

<반염불>의  $a^b$ 에서 나타나는 시김새는 아래 <악보 24>에서 보겠다.

<악보 24> 반염불 a^b의 시김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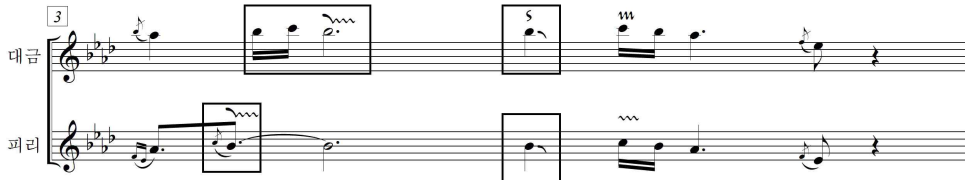


위의 <악보 24>에서 살펴보면 a^b은 시김새 없이 평으로 낸다. e^b에서 a^b으로 상행시 a^b앞에 f-e^b이 장식음으로 나타난다. 피리는 이를 올리더름 주범으로 연주한다. 대금은 a^b이 장단의 첫 음으로 나타나는 경우 장식음으로 b^b이 나타난다.

④ b^b(레)

<반염불>의 b^b에서 나타나는 시김새는 아래 <악보 25>에서 보겠다.

<악보 25> 반염불 b^b의 시김새



위의 <악보 25>에서 살펴보면 b^b은 a^b으로 하행시 하행 놓음 또는 퇴성을 한다. 대금은 a^b에서 b^b으로 상행시 b^b앞에 b^b-c"가 장식음으로 나타난다. 또한 새로운 호흡으로 b^b을 내는 경우 b^b-d^b"가 장식음으로 나타난다.¹²⁰⁾ 피리는 a^b에서 b^b으로 상행시 b^b앞에 c'가 장식음으로 나타난다.

120) 이 대금의 시김새(띠이어)는 모든 악곡에서 나타난다.

## ⑤ c'(미)

<반염불>의 c'에서 나타나는 시김새는 아래 <악보 26>에서 보겠다.

<악보 26> 반염불 c'의 시김새



위의 <악보 26>에서 살펴보면 대금과 피리는 b^b에서 a^b으로 하행시 c' -b^b을 짧게 경과하는데 이때 c'는 빠르고 얇은 농음(목튀김 농음)을 한다.

이상의 내용을 정리하면, <반염불>의 주요 시김새는 다음과 같다. e^b은 짧은 농음을 하고, f는 e^b으로 하행시 퇴성을 한다. a^b은 퇴성이나 농음 없이 지속하는 음으로 나타난다. b^b은 a^b으로 하행시 하행 농음 또는 퇴성을 하고, c'는 빠르고 얇은 농음, 대금은 목튀김 농음을 한다.

시김새 중 장식음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e^b의 장식음은 f가 나타나며, 피리는 이를 내리더름 주법으로 연주한다. 또한 대금은 완전5도 낮은 a^b이, 피리는 b^b-B^b이 e^b의 장식음으로 나타난다. f의 장식음은 a^b이 나타난다. a^b의 장식음은 f-e^b이 나타나며, 피리는 이를 올리더름 주법으로 연주한다. 또한 대금은 a^b의 장식음으로 b^b이 나타난다. b^b의 장식음으로 대금은 b^b-c", b^b-d^b"이, 피리는 c'가 나타난다.

요컨대, <반염불>의 음계는 'e^b(솔)-f(라)-a^b(도)-b^b(레)-c'(미)'이다. 관용적 구조선율은 e^b-a^b, a^b-e^b이며, 핵음은 e^b(솔)·a^b(도), 종지음은 a^b(도)이다.

<반염불>에서 f는 e^b으로, b^b은 a^b또는 e^b으로 하행하여 종속되는 음이다. 또한 종지음 이후에 출현하는 f와 b^b은 다음 악구의 진행이 연결될 것을 예고하는 음으로 나타난다. c'는 주로 경과음 또는 장식음으로 나타난다.

<반염불>의 주요 시김새는 다음과 같다. e^b은 굵은 농음을 하고, f는 e^b으로 하행시 퇴성을 한다. a^b은 평으로 내는 음으로 나타난다. b^b은 a^b으로 하행시 하행 농음 또는 퇴성을 하고, c'는 빠르고 얇은 농음을 한다.

시김새 중 주요 장식음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e^b의 장식음은 f가 나타나며, 피리는 이를 내리더름 주법으로 연주한다. 또한 대금은 완전5도 낮은 a^b이, 피리는 b^b-B^b이 e^b의 장식음으로 나타난다. a^b의 장식음은 f-c^b이 나타나며, 피리는 이를 올리더름 주법으로 연주한다. b^b의 장식음으로 대금은 b^b'-c'', 피리는 c'가 나타난다.

### (3) 삼현타령 제1장단~제3장단

<삼현타령>은 《염불풍류》의 세 번째 곡으로 연주된다. <삼현타령>은 총 여섯 장단으로 구성되는데 앞의 세 장단은 염불조이나 점차 허튼타령조가 혼합되어 나타나고, 제4장단부터 허튼타령조로 완전히 변한다. 이에 본고에서는 앞의 세 장단과 뒤의 세 장단을 다른 악조로 보고, 이를 나누어 분석하겠다. 본 항에서는 <삼현타령>의 제1장단부터 제3장단까지를 출현음과 구조선율·핵음·종지음, 그리고 시김새 분석을 통해 악곡을 살펴보겠다.

#### 1) 출현음

<삼현타령>의 제1장단부터 제3장단까지의 출현음을 <악보 27>에서 살펴보겠다.¹²¹⁾

121) 흰 음표는 주요 출현음이며, 검은 음표는 다른 악조에서 나타나는 음이다. 검은 음표의 음이름은 이탤릭체로 구분하였다.



<악보 27> 삼현타령 제1장단~제3장단 출현음

대금

피리

$b^b(\text{레})$   $e^b(\text{솔})$   $f'(\text{라})$   $g^b(\text{시}^b)$   $a^b(\text{도})$   $b^b(\text{레})$   $d^b(\text{파})$

$B^b(\text{레})$   $e^b(\text{솔})$   $f(\text{라})$   $g^b(\text{시}^b)$   $a^b(\text{도})$   $b^b(\text{레})$   $d^b(\text{파})$

<악보 27>을 살펴보면, <삼현타령> 제1장단부터 제3장단까지의 출현음은 대금과 피리가 동일하게 나타나며,  $B^b(\text{레})$ ,  $e^b(\text{솔})$ ,  $f(\text{라})$ ,  $a^b(\text{도})$ ,  $b^b(\text{레})$ 과 이외에 다른 악조의 음인  $g^b(\text{시}^b)$ 과  $d^b(\text{파})$ 가 출현한다.

## 2) 구조선율 · 핵음 · 종지음

<삼현타령>은 종지가 나타나는 부분¹²²⁾을 기준으로 하여 제1장단~제2장단을 제1악구, 그리고 제3장단을 제2악구로 나누어 총 2개 악구의 구조선율과 악구별 핵음, 종지음을 살펴보겠다.

### ① 삼현타령 제1악구

<삼현타령>의 제1악구는 제1장단부터 제2장단까지이다. 제1악구는 다음의 <악보 28>에서 보겠다.

122) <삼현타령>의 전반부는 염불조이지만 허튼타령조가 혼합되면서 종지 시에는 허튼타령조의 종지음( $g^b$ )이 나타난다. 한편, 제1장단의 마지막 박에서  $a^b$ 을 진행할 때 염불조의 종지감이 나타나지만 다음 장단과 연결되며 종지감을 상실하고 선율이 지속되므로, 제2장단까지를 하나의 악구로 분석하였다.

<악보 28> 삼현타령 제1악구(제1장단~제2장단)

위의 <악보 28>에서 살펴보면 <삼현타령>은 <긴염불>, <반염불>의 시작음과 동일한 f로 시작한다. 이후 제2박 B^b으로 완전5도 하행한다¹²³⁾. 이후 제3박에서 e^b으로 완전4도 상행한 후 순차 상행하며 제4박의 a^b으로 도달한다. 제4박의 a^b은 g^b에서부터 끌어올리며 g^b의 등장으로 허튼타령조의 악조가 혼합되어있음을 알 수 있다. 제4박의 a^b은 제2장단의 제2박까지 지속한다. 제2박의 끝에서 b^b을 경과하여 제3박의 a^b으로 진행한 후 e^b으로 하행한다. 이후 제4박에서 대금은 f를, 피리는 g^b을 퇴성하며 허튼타령조의 종지 형태¹²⁴⁾를 보인다. f와 g^b의 퇴성은 종지감과 연결감을 동시에 갖고 있다. 마지막 박의 끝에서는 b^b을 퇴성하며 다음 악구의 첫 음 a^b으로 진행하기 위한 예고를 한다. 제1악구의 구조선율은 f-B^b-e^b-a^b-e^b-f/g^b이며, 해음은 B^b·e^b·f·a^b, 대금의 종지음은 f, 피리의 종지음은 g^b이다. 제1악구의 구조선율·해음·종지음은 모두 염불조와 허튼타령조가 섞여 나타난다.

## ② 삼헌타령 제2악구

삼현타령의 제2악구는 제3장단과 같다. 제2악구는 다음의 <악보 29>에

123) <긴염불>과 <반염불>의 첫 음은 f를 퇴성하며 시작하고, 이후 핵음인 e^b으로 하행한다. 반면 <삼현타령>의 첫 음은 f를 퇴성하며 B^b으로 하행한다. <긴염불>과 <반염불>의 진행으로 비추어보면 <삼현타령>의 두 번째 음 또한 악곡의 핵이 되는 음이어야 한다. 이에 삼현타령에서 B^b으로 하행하였다는 것은 앞선 곡과는 다른 악조가 등장하게 될 것을 예고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또한 B^b은 앞으로 진행될 허튼타령조의 핵음이다.

124) 특히  $a^b \cdot c^b$ 을 선행한 후에  $g^b$ 로 진행하며 퇴성하는 것은 <허튼타령> 악곡에서 주로 나타나는 중지형태이다.

서 보겠다.

<악보 29> 삼현타령 제2악구(제3장단)



위의 <악보 29>에서 살펴보면 제3장단의 제1박은  $a^b$ 으로 시작한다.  $a^b$ 은 제1박의 끝에서  $e^b$ 으로 완전4도 하행한 후 제2박에서  $b^b$ 으로 상행한다. 이후 제2박의 끝에서  $a^b$ 으로 하행한 후, 제3박에서 다시  $b^b$ 으로 진행한다. 마지막 박에서는  $g^b$ 을 퇴성하며 허튼타령조의 종지 형태가 나타나고, 이후 제4장단부터 허튼타령조로 완전히 바뀐다. 제2악구의 구조선율은  $a^b-b^b-g^b$ 이며, 핵음은  $a^b \cdot b^b$ , 종지음은  $g^b$ 이다. 제2악구의 구조선율과 핵음은 염불조와 허튼타령조가 섞여 나타나며 종지음은 허튼타령조의 종지음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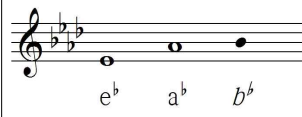

이상의 내용을 정리하면, <삼현타령> 제1장 제1장단~제3장단의 관용적 구조선율은 <긴염불> 및 <반염불>과 같은  $e^b-a^b$ 이 나타나며, 동시에 허튼타령 악곡의 관용적 구조선율인  $a^b-e^b-g^b$ ,  $b^b-g^b$ 이 나타난다. 핵음은  $e^b$ (솔) ·  $a^b$ (도) ·  $b^b$ (레)이며, 종지음은  $g^b$ (시^b)이다. 허튼타령조의 핵음인  $b^b$ (레)과 허튼타령조의 종지음  $g^b$ (시^b)이 나타난다.

f는 제1악구의 핵음으로 <긴염불> · <반염불>과 같이 악곡의 시작을 알리는 기능을 한다.  $b^b$ 은  $a^b$ 으로 하행하려는 성격이 있다.

<삼현타령> 제1장 제1장단~제3장단의 구조선율 · 핵음 · 종지음 분석을 정리하면 다음의 [표 13]¹²⁵⁾에서 보는 것과 같다.

125) 구조선율에서 밑줄 친 부분은 관용적 구조선율에 해당한다. 이탤릭체와 검은 음표는 다른 악조(허튼타령조)의 특징이 나타나는 것이다.

[표 13] 삼현타령 제1장단~제3장단 구조선율 · 핵음 · 종지음

악구	구조선율	핵음	종지음
1	f-B ^b -e ^b -a ^b -e ^b -f/g ^b	B ^b · e ^b · f · a ^b	f/g ^b
2	a ^b -b ^b -g ^b	a ^b · b ^b	g ^b
종합	 e ^b - a ^b	 e ^b a ^b b ^b	 g ^b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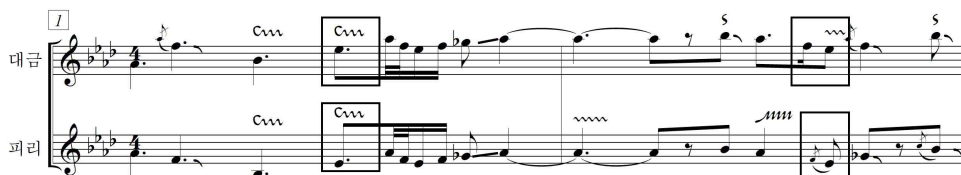
### 3) 시김새

<삼현타령> 제1장단부터 제3장단까지의 시김새는 e^b(솔), f(라), a^b(도), b^b(레), 그리고 g^b(시^b) 다섯 음으로 나누어 살펴보겠다. c'는 출현하지 않고, 이외에 d^b'이 출현하나 d^b'은 짧은 경과음으로만 나타나므로 생략한다. g^b은 제4장단부터 바뀌는 악조의 구성음이지만 제1장단부터 출현하며 조변화를 암시하는 음으로 나타나므로 포함하여 살펴보겠다.

#### ① e^b(솔)

<삼현타령> 제1장단부터 제3장단에서 나타나는 e^b의 시김새는 아래 <악보 30>에서 보는 것과 같다.

<악보 30> 삼현타령 제1장단~제3장단 e^b의 시김새



위의 <악보 30>에서 살펴보면 e^b은 굵은 농음을 한다. a^b에서 e^b으로

하행할 때  $e^b$  앞에  $f$ 가 장식음으로 나타나며, 피리는 이를 내리더름 주법으로 연주한다.

## ② $f$ (라)

<삼현타령> 제1장단부터 제3장단에서 나타나는  $f$ 의 시김새는 아래 <악보 31>에서 보는 것과 같다.

<악보 31> 삼현타령 제1장단~제3장단  $f$ 의 시김새

위의 <악보 31>에서 살펴보면 <삼현타령>의 첫 음인  $f$ 는 퇴성한다. 대금은  $f$ 앞에  $a^b$ 이 장식음으로 나타난다.

## ③ $a^b$ (도)

<삼현타령> 제1장단부터 제3장단에서 나타나는  $a^b$ 의 시김새는 아래 <악보 32>에서 보는 것과 같다.

<악보 32> 삼현타령 제1장단~제3장단 a^b의 시김새

위의 <악보 32>에서 살펴보면 제1장단의 제4박에서 a^b을 g^b에서부터 음을 천천히 끌어올려 낸다. 이후 a^b에서 피리는 보통 농음을 하다가 제2장단의 제3박부터 상행 농음을 한다. 이때부터 시김새의 변화가 나타나며 악조가 혼합된다. b^b에서 a^b으로 하행할 때 a^b앞에 대금은 d^b"-b^b', 피리는 f-e^b가 장식음으로 나타나며, 피리는 이를 올리더름 주법으로 연주한다.

④ b^b(레)

<삼현타령> 제1장단부터 제3장단에서 나타나는 b^b의 시김새는 아래 <악보 33>에서 보는 것과 같다.

<악보 33> 삼현타령 제1장단~제3장단 b^b의 시김새

위의 <악보 33>에서 살펴보면 <삼현타령>의 제2박에서는 B^b을 굵게

놓음 하며, 이러한 시김새는 이후 나타나지 않는다. 이는 허튼타령조의 핵음인 B^b의 출현을 강조하며 앞으로 허튼타령조로 변화되는 것을 알리기 위한 시김새로 해석된다. b^b은 a^b으로 하행할 때 퇴성한다. 대금은 b^b의 장식음으로 b^b'-d^b", 피리는 b^b'의 장식음으로 c^b가 나타난다.

### ⑤ g^b(시^b)

<삼현타령> 제1장단부터 제3장단에서 나타나는 g^b의 시김새는 아래 <악보 34>에서 보는 것과 같다.

<악보 34> 삼현타령 제1장단~제3장단 g^b의 시김새

The image shows a musical score for two instruments: Daegum (대금) and Piri (피리). The score is divided into two systems, labeled 2 and 3. In system 2, the Daegum part has a melodic line with a note marked with a '5' and a Piri part with a lower melodic line. In system 3, the Daegum part continues the melody, and the Piri part has a note marked with a '5'. Boxed areas highlight the g^b notes in both parts.

위의 <악보 34>에서 살펴보면 g^b은 퇴성한다. 이는 허튼타령조의 종지음이자 시김새이다. 제2장단에서는 f와 g^b이 동시에 퇴성하며 염불조와 허튼타령조의 성격이 혼합되어 나타난다.

이상의 내용을 정리하면, <삼현타령> 제1장단~제3장단의 주요 시김새는 다음과 같다. e^b은 굵은 놓음을 하고, f는 퇴성한다. a^b에서 피리는 보통 놓음을 하다가 제2장단의 제3박부터 상행 놓음을 하며, 이때부터 허튼타령조의 시김새가 혼합된다. b^b에서 a^b으로 하행할 때 b^b은 퇴성한다. 허튼타령조의 구성음 g^b은 퇴성한다.

시김새 중 장식음의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e^b$ 은  $a^b$ 에서  $e^b$ 으로 하행시  $f$ 가 장식음으로 나타나며, 피리는 이를 내리더름 주법으로 연주한다.  $f$ 는 대금에서  $a^b$ '이 장식음으로 나타난다.  $a^b$ 의 장식음으로 피리는  $f-e^b$ 이 나타나며, 이를 올리더름 주법으로 연주한다.  $b^b$ '의 장식음으로 대금은  $b^b$ '- $d^b$ ", 피리는  $c'$ 가 나타난다.

요컨대, <염불풍류> 중 <삼현타령>의 제1장단부터 제3장단까지의 음계는 ' $e^b$ (솔)- $f$ (라)- $a^b$ (도)- $b^b$ (레)- $c'$ (미)'이다.¹²⁶⁾ 관용적 구조선율은  $e^b$ - $a^b$ 이며, 핵음은  $e^b$ (솔) ·  $a^b$ (도) ·  $b^b$ (레), 종지음은  $g^b$ (시^b)이다.

$f$ 는 제1악구의 핵음으로 <긴염불> · <반염불>과 같이 악곡의 시작을 알리는 기능을 한다.  $b^b$ 은  $a^b$ 으로 하행하려는 성격이 있다.

주요 시김새는 다음과 같다.  $e^b$ 은 굵은 농음을 하고,  $f$ 는 퇴성한다.  $a^b$ 에서 피리는 보통 농음을 한다.  $b^b$ 에서  $a^b$ 으로 하행할 때  $b^b$ 은 퇴성한다.

시김새 중 주요 장식음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e^b$ 은  $a^b$ 에서  $e^b$ 으로 하행시  $f$ 가 장식음으로 나타나며, 피리는 이를 내리더름 주법으로 연주한다.  $a^b$ 은  $b^b$ 에서  $a^b$ 으로 하행시  $a^b$ 의 장식음으로 피리는  $f-e^b$ 이 나타나며, 이를 올리더름 주법으로 연주한다.

<삼현타령>의 제1장단~제3장단에서 나타나는 악조의 혼재 양상은 제4절에서 정리하여 살펴보겠다.

#### (4) 굿거리

<굿거리>는 《염불풍류》의 일곱 번째 악곡으로 연주되며, 출현음과 구조선율 · 핵음 · 종지음, 그리고 시김새 분석을 통해 악곡을 살펴보겠다.

126) <삼현타령> 제1장단~제3장단은  $c'$ 가 출현하지 않지만 분석 결과 염불조에 해당하므로 음계에 포함하였다.



## 1) 출현음

<굿거리>의 출현음을 다음 <악보 35>에서 살펴보겠다.

<악보 35> 굿거리 출현음

대금: a^b(도) e^b(솔) f'(라) a^b(도) b^b(레) c''(미)

피리: e^b(솔) f(라) a^b(도) b^b(레) c'(미)

<악보 35>를 살펴보면, <굿거리>에서 대금과 피리의 공통된 출현음은 e^b(솔), f(라), a^b(도), b^b(레), c'(미)이다. 대금은 a^b(도)이 최저음으로 출현한다.

## 2) 구조선율 · 핵음 · 종지음

<굿거리>는 총 13장단의 악곡이다. <굿거리>는 주로 장단 단위로 선율이 전개되므로 악구는 장단을 단위로 나눈다. 단, 제7장단부터 제9장단까지의 선율 전개는 장단과 일치하지 않는다. 제7장단부터 시작되는 선율은 제8장단 제2박의 e^b에서 종지감이 나타나므로 이를 하나의 악구로 본다. 제8장단의 제3박부터는 새로운 선율이 전개되고 제9장단의 제4박의 a^b에서 종지감이 나타나므로 이를 하나의 악구로 본다.¹²⁷⁾ 위와 같이 나누어진 총 12개 악구의 구조선율과 악구별 핵음, 종지음을 살펴보겠다.

### ① 굿거리 제1악구

127) 한 호흡으로 이어가는 기준은 피리를 기준으로 한다. 대금은 호흡 단위가 상대적으로 짧고 불규칙하기 때문이다.

<굿거리>의 제1악구는 제1장단과 같다. 제1악구는 다음의 <악보 36>에서 보겠다.

### <악보 36> 굿거리 제1악구(제1장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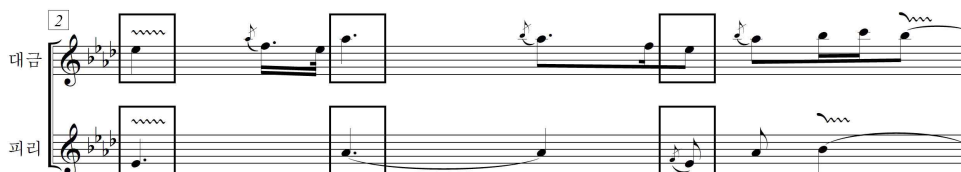


위의 <악보 36>에서 살펴보면 제1장단의 제1박은  $b^b$ 을 하행 놓음하며  $a^b$ 으로 하행 진행한다.  $a^b$ 은 제2박까지 지속하며 제2박의 끝에서  $b^b$ 으로 상행경과하였다가 제3박에서 다시  $a^b$ 으로 진행한다. 제3박의 끝에서  $f$ 로 하행한다. 이후 대금은 제4박에서  $e^b$ 을 경과하여  $a^b$ 으로 하행하여 종지감을 준다. 피리는 제4박에서  $e^b$ 으로 하행하여 종지감이 있지만 대금의  $a^b$ 보다 약한 종지감을 보인다. 제1악구의 구조선율은  $a^b - a^b - f - A^b/e^b$ 이며, 핵음과 종지음은  $a^b$ 이다.

### ② 굿거리 제2악구

<굿거리>의 제2악구는 제2장단과 같다. 제2악구는 다음의 <악보 37>에서 보겠다.

### <악보 37> 굿거리 제2악구(제2장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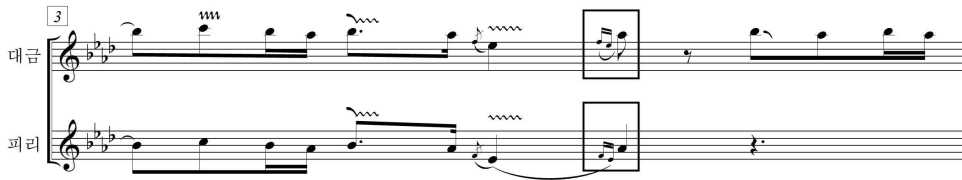
위의 <악보 37>에서 살펴보면 제2장단의 제1박은  $e^b$ 으로 시작한다.  $e^b$

은 농음한 후 제2박에서  $a^b$ 으로 완전4도 상행한다.  $a^b$ 은 제3박까지 지속한 후, 제3박의 끝에서  $e^b$ 으로 하행하여 선율을 맺는다. 이때 종지감은 약하지만 제2악구의 종지음은  $e^b$ 으로 본다. 제4박에서는  $a^b$ 을 경과하여  $b^b$ 으로 상행한다.  $b^b$ 은 하행농음을 하며 다음 악구와 연결하려 한다. 제2악구의 구조선율은  $e^b-a^b-e^b(-b^b)$ 이며, 핵음은  $e^b \cdot a^b$ , 종지음은  $e^b$ 이다.

### ③ 굿거리 제3악구

<굿거리>의 제3악구는 제3장단과 같다. 제3악구는 다음의 <악보 38>에서 보겠다.

<악보 38> 굿거리 제3악구(제3장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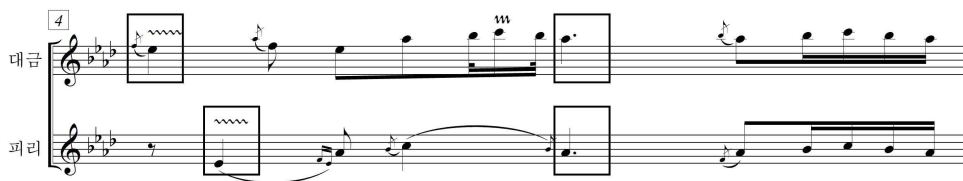
위의 <악보 38>에서 살펴보면 제3장단의 제1박은 직전 악구의 마지막 음을 이어받아  $b^b$ 으로 시작한다. 이후  $c' \cdot b^b \cdot a^b$ 을 경과하여 제2박에서 다시  $b^b$ 으로 진행한다.  $b^b$ 은 하행 농음하여  $a^b$ 으로 하행한다. 이후  $e^b$ 으로 하행한다.  $e^b$ 은 농음하며  $a^b$ 으로 상행하여 종지감을 준다. 제4박에서는 대금만 남아서  $b^b$ 에서  $a^b$ 으로 하행하는 진행을 보이는데 연음과 같은 성격으로 볼 수 있다. 제3악구의 구조선율은  $b^b-a^b-e^b-a^b(-b^b-a^b)$ 이며, 핵음과 종지음은  $a^b$ 이다.

### ④ 굿거리 제4악구

<굿거리>의 제4악구는 제4장단과 같다. 제4악구의 구조선율은 다음의

<악보 39>에서 보겠다.

#### <악보 39> 굿거리 제4악구(제4장단)



위의 <악보 39>에서 살펴보면 제4장단의 제1박은  $e^b$ 으로 시작하여 제2박에서  $f \cdot a^b \cdot b^b$ 을 경과하여  $c'$ 로 상행한다. 제3박에서는  $a^b$ 으로 하행하여 종지감을 준다. 제4박은  $a^b$ 을 중심으로 움직이며 다음 악구와 연결하려는 성격을 보인다. 제4악구의 구조선율은  $e^b-c'-a^b(-a^b)$ 이며, 핵음은  $e^b \cdot a^b$ , 종지음은  $a^b$ 이다.

#### ⑤ 굿거리 제5악구

<굿거리>의 제5악구는 제5장단과 같다. 제5악구는 다음의 <악보 40>에서 보겠다.

#### <악보 40> 굿거리 제5악구(제5장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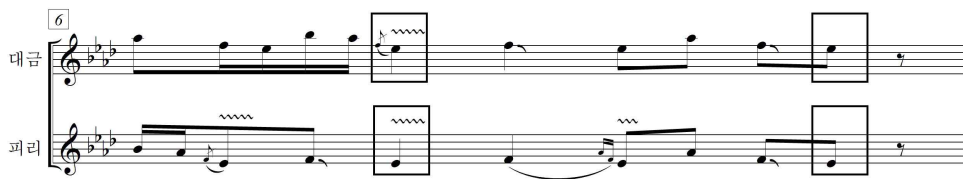
위의 <악보 40>에서 살펴보면 제5장단의 제1박은  $e^b$ 으로 시작한다. 제2박에서 피리는  $e^b$ 에서  $c'$ 로 상행하고, 대금은  $e^b$ 에서  $a^b$ 으로 상행한 후,  $b^b \cdot c'$ 까지 상행경과하였다가 다시  $a^b$ 으로 하행한다. 제3박에서는  $e^b$ 으로 하행한 후, 제4박에서  $a^b$ 으로 상행하여 종지감을 준다. 제5악구의 구

조선율은  $e^b - a^b$ 이며, 핵음은  $e^b \cdot a^b$ , 종지음은  $a^b$ 이다.

## ⑥ 굿거리 제6악구

<굿거리>의 제6악구는 제6장단과 같다. 제6악구는 다음의 <악보 41>에서 보겠다.

<악보 41> 굿거리 제6악구(제6장단)



위의 <악보 41>에서 살펴보면 제6장단의 제1박에서 피리는  $b^b$ 을 경과한  $a^b$ 으로 시작하여  $e^b$ 으로 하행하였다가  $f$ 로 상행하여 퇴성한다. 제1박에서 대금은  $a^b$ 으로 시작하여  $f \cdot e^b \cdot b^b$ 을 경과하여  $a^b$ 으로 돌아온다. 제2박부터는 대금과 피리 모두 동일한 선율을 연주한다. 제2박에서는  $e^b$ 을 놓음 후  $f$ 로 상행한다.  $f$ 는 퇴성 후 제3박에서 다시  $e^b$ 으로 하행한다. 이후  $a^b$ 을 경과한 후 제4박에서  $f$ 로 하행한다.  $f$ 는 퇴성하고  $e^b$ 으로 하행하여 반종지한다. 제6악구의 구조선율은  $a^b - e^b - f - e^b$ 이며, 핵음과 종지음은  $e^b$ 이다.

## ⑦ 굿거리 제7악구

<굿거리>의 제7악구는 제7장단의 제1박부터 제8장단의 제2박까지이다. 제7악구는 다음의 <악보 42>에서 보겠다.

<악보 42> 굿거리 제7악구(제7장단의 제1박~제8장단의 제2박)



위의 <악보 42>에서 살펴보면 제7장단의 제1박은  $a^b$ 으로 시작하여  $c'$ 로 장3도 상행한다. 이후  $b^b \cdot a^b$ 을 경과하여 제3박에서  $e^b$ 으로 하행한다. 이후  $a^b$ 으로 상행하며 제7장단의 끝에서  $b^b \cdot c' \cdot b^b \cdot a^b$ 을 경과하여, 제8장단의 제1박에서  $e^b$ 으로 하행한다. 제8장단의 제1박에서는  $e^b$ 을 낮고  $a^b$ 으로 상행한 후, 제2박에서  $e^b$ 으로 하행하여 마친다. 제7악구의 구조선율은  $a^b - c' - a^b - e^b - a^b - e^b$ 이다. 핵음은  $e^b \cdot a^b$ , 종지음은  $e^b$ 이다.

⑧ 굿거리 제8악구

<굿거리>의 제8악구는 제8장단의 제3박부터 제9장단의 제4박까지이다. 제8악구의 구조선율은 다음의 <악보 43>에서 보겠다.

<악보 43> 굿거리 제8악구(제8장단의 제3박~제9장단의 제4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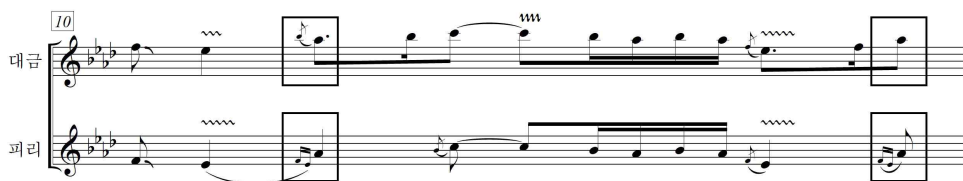
위의 <악보 43>에서 살펴보면 제8장단의 제3박은  $a^b$ 에서  $b^b$ 으로 상행하며 시작한다.  $b^b$ 은 제4박까지 지속하며 하행 농음을 한다. 제4박의 끝에서  $c' \cdot b^b$ 을 경과하여 제9장단의 제1박의  $a^b$ 으로 하행한다. 제2박에서는  $a^b$ 으로 지속하며  $b^b \cdot c' \cdot b^b \cdot a^b$ 을 경과하여 제3박에서  $e^b$ 으로 하행한다.  $e^b$ 은 농음하며 제4박에서 완전4도 상행한  $a^b$ 으로 진행하여 종지감

을 준다. 제8악구의 구조선율은  $b^b - a^b - a^b - e^b - a^b$ 이며, 핵음과 종지음은  $a^b$ 이다.

### ⑨ 굿거리 제9악구

<굿거리>의 제9악구는 제10장단과 같다. 제9악구는 다음의 <악보 44>에서 보겠다.

<악보 44> 굿거리 제9악구(제10장단)



위의 <악보 44>에서 살펴보면 제10장단의 제1박은  $f$ 를 퇴성하여  $e^b$ 으로 하행하며 시작한다.  $e^b$ 은 놓음한 후, 제2박에서  $a^b$ 으로 상행한다. 제2박의 끝에서는  $c'$ 로 상행하여 제3박까지 지속한다. 제3박에서는  $c'$ 이후  $b^b \cdot a^b$ 을 경과하여 제4박에서  $e^b$ 으로 하행한다.  $e^b$ 은 놓음하며  $f$ 를 경과하여  $a^b$ 으로 상행하여 반종지한다. 제9악구의 구조선율은  $e^b - a^b - c' - e^b - a^b$ 이며, 핵음과 종지음은  $a^b$ 이다.

### ⑩ 굿거리 제10악구

<굿거리>의 제10악구는 제11장단과 같다. 제10악구는 다음의 <악보 45>에서 보겠다.

<악보 45> 굿거리 제10악구(제11장단)



위의 <악보 45>에서 살펴보면 제11장단의 제1박은  $b^b$  으로 시작한다.  $b^b$  은 퇴성하며  $c'$  을 경과하여  $b^b$  으로 돌아온 후  $a^b$  으로 하행한다. 제3박에서는  $e^b$  을 놓음한 후  $f$  를 경과하여  $a^b$  으로 상행하여 종지감을 준다. 제11장단의 마지막에서는  $b^b$  에서  $a^b$  으로 하행하는 선율이 다음 악구와 연결하려는 예고를 한다. 제10악구의 구조선율은  $b^b - a^b - e^b - a^b (-b^b - a^b)$  이며, 핵음과 종지음은  $a^b$  이다.

⑪ 굿거리 제11악구

<굿거리>의 제11악구는 제12장단과 같다. 제11악구는 다음의 <악보 46>에서 보겠다.

<악보 46> 굿거리 제11악구(제12장단)



위의 <악보 46>에서 살펴보면 제12장단의 제1박은  $b^b$  으로 시작한다.  $b^b$  은 하행 놓음 또는 퇴성을 한다. 제2박에서 피리가 쉬는 동안 대금은  $c''$  로 상행한다. 피리는 제2박의 끝에서  $c'$  와  $b^b$  를 경과하여 제3박에서  $a^b$  으로 진행한다. 피리는 제3박의 끝에서  $e^b$  으로 하행하여 선율을 맺고, 대금은 제4박에서  $e^b$  으로 하행한 후 선율을 맺는 듯하다가 제4박의 끝



에서 f를 들어내며 다음 악구의 진행을 예고한다. 피리는 제4박에서  $a^b$ 을 경과하여  $b^b$ 으로 상행한다.  $b^b$ 은 하행 놓음하며 다음 악구의 첫 음과 연결된다. 제11악구의 구조선율은  $b^b-c'-a^b-e^b(-b^b)$ 이며, 핵음은  $e^b \cdot a^b \cdot c'$ , 종지음은  $e^b$ 이다.

## ⑫ 굿거리 제12악구

<굿거리>의 제12악구는 제13장단과 같다. 제12악구는 다음의 <악보 47>에서 보겠다.

<악보 47> 굿거리 제12악구(제13장단)



위의 <악보 47>에서 살펴보면 제13장단의 제1박은  $b^b \cdot c'$ 를 경과하여  $a^b$ 으로 진행한다. 제2박에서는  $e^b$ 으로 하행진행한다. 제2박의 끝에서는  $b^b$ 으로 완전5도 상행한다.  $b^b$ 은 퇴성하여 제3박에서  $a^b$ 으로 하행한다. 제4박에서는  $e^b$ 으로 하행하여 종지감을 주고, 바로 f로 상행하여 f를 퇴성하면서 다음 악곡이 이어짐을 예고한다. 제12악구의 구조선율은  $a^b-e^b-a^b-e^b(-f)$ 이며, 핵음은  $e^b \cdot a^b$ , 종지음은  $e^b$ 이다.

이상의 내용을 정리하면, <굿거리>의 관용적 구조선율은  $e^b-a^b$ ,  $a^b-e^b$ ,  $a^b-e^b-a^b$ ,  $e^b-a^b-e^b$ 이며, 핵음은  $e^b$ (솔)  $\cdot$   $a^b$ (도)이며, 종지음은  $e^b$ (솔)  $\cdot$   $a^b$ (도)이다.  $e^b$ 으로 종지시 완전4도 위음인  $a^b$ 이 선행되며,  $a^b$ 으로 종지시 완전4도 아래음인  $e^b$ 이 선행된다.

f는  $e^b$ 으로 하행하여 종속되는 음이다. 제12악구의 마지막 음 f는  $e^b$ 의 종지 후에 나타나 다음 악곡이 이어짐을 예고한다.  $b^b$ 은  $a^b$  또는  $e^b$ 으

로 하행하여 종속되는 음이다.  $c'$ 는 주로 짧은 경과음 또는 장식음으로 나타나며, 핵음으로 나타나는 경우(제11악구)는 일반적인 선율 진행에 변화와 긴장을 주는 역할을 한다.

<굿거리>의 구조선율 · 핵음 · 종지음 분석을 정리하면 다음의 [표 14] [128]에서 보는 것과 같다.

[표 14] 굿거리 구조선율 · 핵음 · 종지음

악구	구조선율	핵음	종지음
1	$a^b - a^b - f - A^b / e^b$	$a^b$	$a^b$
2	$e^b - a^b - e^b (-b^b)$	$e^b \cdot a^b$	$e^b$
3	$b^b - a^b - e^b - a^b (-b^b - a^b)$	$a^b$	$a^b$
4	$e^b - c' - a^b (-a^b)$	$e^b \cdot a^b$	$a^b$
5	$e^b - a^b$	$e^b \cdot a^b$	$a^b$
6	$a^b - e^b - f - e^b$	$e^b$	$e^b$
7	$a^b - c' - a^b - e^b - a^b - e^b$	$e^b \cdot a^b$	$e^b$
8	$b^b - a^b - a^b - e^b - a^b$	$a^b$	$a^b$
9	$e^b - a^b - c' - e^b - a^b$	$a^b$	$a^b$
10	$b^b - a^b - e^b - a^b (-b^b - a^b)$	$a^b$	$a^b$
11	$b^b - c' - a^b - e^b (-b^b)$	$e^b \cdot a^b \cdot c'$	$e^b$
12	$a^b - e^b - a^b - e^b (-f)$	$e^b \cdot a^b$	$e^b$
종합			

### 3) 시김새

<굿거리>의 시김새는  $e^b$ (솔),  $f$ (라),  $a^b$ (도),  $b^b$ (레),  $c'$ (미) 다섯 음으로

128) 구조선율에서 밑줄 친 부분은 관용적 구조선율에 해당한다.

나누어 살펴보겠다.

### ① e^b(솔)

<굿거리>의 e^b에서 나타나는 시김새는 아래 <악보 48>에서 보는 것과 같다.

<악보 48> 굿거리 e^b의 시김새



위의 <악보 48>에서 살펴보면 e^b은 보통 농음을 한다. <굿거리>에서 e^b의 시김새는 주로 보통 농음이 나타난다. 또한 e^b의 장식음으로는 f가 a^b에서 e^b으로 하행 시 나타난다. 피리는 이를 내리더름 주법으로 연주한다.

### ② f(라)

<굿거리>의 f에서 나타나는 시김새는 아래 <악보 49>에서 보는 것과 같다.

<악보 49> 굿거리 f의 시김새

위의 <악보 49>에서 살펴보면 f는 퇴성을 한다. <굿거리>에서 f의 시김새는 주로 퇴성이 나타난다. f의 장식음은 대금에서  $a^b$ 이 나타난다.

③  $a^b$  (도)

<굿거리>의  $a^b$ 에서 나타나는 시김새는 아래 <악보 50>에서 보는 것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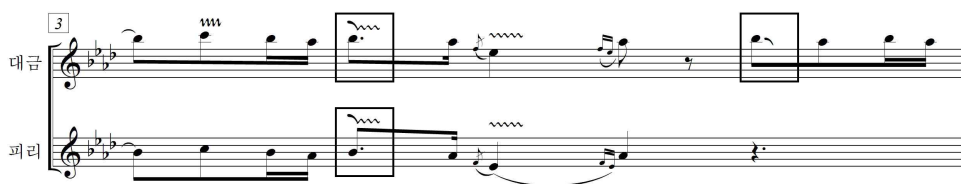
<악보 50> 굿거리  $a^b$ 의 시김새

위의 <악보 50>에서 살펴보면  $a^b$ 은 농음이나 퇴성의 시김새가 나타나지 않고 평으로 낸다.  $a^b$ 의 장식음으로는 대금·피리 모두  $f-e^b$ 이 나타나고, 이를 피리는 올리더름 주법으로 연주한다. 대금은  $b^b$ 이 장식음으로 나타난다.

#### ④ $b^b$ (레)

<굿거리>의  $b^b$ 에서 나타나는 시김새는 아래 <악보 51>에서 보는 것과 같다.

<악보 51> 굿거리  $b^b$ 의 시김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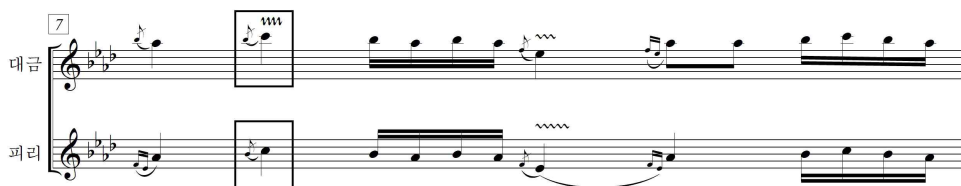


위의 <악보 51>에서 살펴보면  $b^b$ 은 하행 농음 또는 퇴성을 한다.

#### ⑤ $c'$ (미)

<굿거리>의  $c'$ 에서 나타나는 시김새는 아래 <악보 52>에서 보는 것과 같다.

<악보 52> 굿거리  $c'$ 의 시김새



위의 <악보 52>에서 살펴보면 대금은  $c'$ 에서 목튀김 농음을 한다.  $c'$ 의 장식음으로는 대금 · 피리 모두  $b^b$ 이 나타난다.

이상의 내용을 정리하면, <굿거리>의 주요 시김새는 다음과 같다.  $e^b$

은 보통 농음을 하며, f는 퇴성을 한다. a^b은 농음이나 퇴성 등의 시김새 없이 평으로 낸다. b^b은 하행 농음 또는 퇴성이 나타난다. c"에서 대금은 목튀김 농음을 한다.

시김새 중 장식음의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e^b의 장식음으로는 f가 a^b에서 e^b으로 하행시 나타나며, 피리는 이를 내리더름으로 연주한다. f의 장식음으로는 대금에서 a^b'이 나타난다. a^b의 장식음으로는 대금·피리 모두 f-e^b이 나타나고, 이를 피리는 올리더름 주법으로 연주한다. 또한 a^b의 장식음으로 대금은 b^b이 장식음으로 나타난다. c'의 장식음으로는 대금·피리 모두 b^b이 나타난다.

요컨대, <굿거리>의 음계는 'e^b(솔)-f(라)-a^b(도)-b^b(레)-c'(미)'이다. 관용적 구조선율은 e^b-a^b, a^b-e^b, e^b-a^b-e^b, a^b-e^b-a^b이며, 핵음은 e^b(솔)·a^b(도)이며, 종지음은 e^b(솔)·a^b(도)이다.

e^b으로 종지시 완전4도 위 음인 a^b이 선행되며, a^b으로 종지시 완전4도 아래 음인 e^b이 선행된다.

f는 e^b으로 하행하여 종속되는 음이다. 제12악구의 마지막 음 f는 e^b의 종지 후에 나타나 다음 악곡이 이어짐을 예고한다. b^b은 a^b 또는 e^b으로 하행하여 종속되는 음이다. c'는 주로 짧은 경과음 또는 장식음으로 나타나며, 핵음으로 나타나는 경우는 일반적인 선율 진행에 변화와 긴장을 주는 역할을 한다.

주요 시김새는 다음과 같다. e^b은 보통 농음을, f는 퇴성을 한다. a^b은 평으로 낸다. b^b은 하행 농음 또는 퇴성이 나타난다. c"에서 대금은 목튀김 농음을 한다.

시김새 중 주요 장식음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e^b의 장식음으로는 f가 나타나며, 피리는 이를 내리더름 주법으로 연주한다. a^b의 장식음으로는 대금·피리 모두 f-e^b이 나타나고, 이를 피리는 올리더름 주법으로 연주한다. c'의 장식음으로는 대금·피리 모두 b^b이 나타난다.

## (5) 자진굿거리

<자진굿거리>는 《염불풍류》의 여덟 번째 악곡으로 연주되며, 출현음과 구조선율 · 핵음 · 종지음, 그리고 시김새 분석을 통해 악곡을 살펴보겠다.

### 1) 출현음

<자진굿거리>의 출현음을 다음 <악보 53>에서 살펴보겠다.¹²⁹⁾

<악보 53> 자진굿거리 출현음

The musical notation for '자진굿거리' (Jajin Gudeuri) is shown on two staves. The top staff is for the Daegum (대금) and the bottom staff is for the Piri (피리). The notes are labeled with Korean letter names and their corresponding solfège syllables.

대금 (Daegum)	피리 (Piri)
a ^b (도)	B ^b (레)
e ^b '(솔)	e ^b (솔)
f'(라)	f(라)
a ^b '(도)	a ^b (도)
b ^b '(레)	b ^b (레)
c''(미)	c'(미)

<악보 53>를 살펴보면, <자진굿거리>의 출현음은 <굿거리>의 출현음과 동일하며, 이에 더하여 피리에서 B^b이 장식음으로 나타난다.

### 2) 구조선율 · 핵음 · 종지음

<자진굿거리>는 총 13장단의 악곡이다. 악구를 나누는 기준은 <굿거리>와 동일하다. <자진굿거리>는 총 12개 악구의 구조선율과 악구별 핵음, 종지음을 살펴보겠다.

129) 흰 음표는 주요 출현음이며, 검은 음표는 장식음으로 나타나는 음이다. 검은 음표의 음이름은 이탤릭체로 구분하였다.

### ① 자진긋거리 제1악구

<자진긋거리>의 제1악구는 제1장단과 같다. 제1악구는 다음의 <악보 54>에서 보겠다.

<악보 54> 자진굿거리 제1악구(제1장단)

위의 <악보 54>에서 살펴보면 제1장단의 제1박은  $a^b$ 으로 시작한다.  $a^b$ 은 제3박까지 지속하며 제3박의 끝에서  $f \cdot e^b$ 을 경과한 후, 제4박에서  $f$ 로 하행한다.  $f$ 는 퇴성하며 다음 악구의 진행을 예고한다. 제1악구의 구조선율은  $a^b(-f)$ 이며, 핵음과 종지음은  $a^b$ 이다.

## ② 자진긋거리 제2악구

<자진굿거리>의 제2악구는 제2장단과 같다. 제2악구는 다음의 <악보 55>에서 보겠다.

<악보 55> 자진굿거리 제2악구(제2장단)

Example 1. Measures 2 and 3 of the score. The notation shows the musical notation for the second and third measures of the piece. The first staff is labeled '대금' (Daegu) and the second staff is labeled '피리' (Piri). Both staves have a '2' in a box above the first measure. The notation includes various musical symbols such as notes, rests, and accidentals.

위의 <악보 55>에서 살펴보면 제2장단의 제1박은  $e^b$ 으로 시작한다.  $e^b$ 은 제2박에서  $a^b$ 으로 완전4도 상행한다.  $a^b$ 은 제3박까지 지속한 후, 제3



박의 끝에서  $e^b$ 을 경과 후 제4박에서 다시  $a^b$ 으로 진행한다. 이때  $a^b$ 은 짧게 나타나지만 종지감이 있으며 이후  $b^b$ 으로 상행하여 종지감을 상실한다.  $b^b$ 은 퇴성을 하며 다음 악구의 첫 음과 연결하려는 성격을 보인다. 제2악구의 구조선율은  $e^b-a^b(-b^b)$ 이며, 핵음과 종지음은  $a^b$ 이다.

### ③ 자진굿거리 제3악구

<자진굿거리>의 제3악구는 제3장단과 같다. 제3악구는 다음의 <악보 56>에서 보겠다.

<악보 56> 자진굿거리 제3악구(제3장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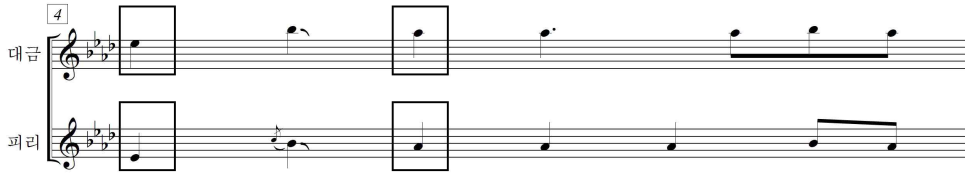


위의 <악보 56>에서 살펴보면 제3장단의 제1박은 직전 악구의 마지막 음을 이어받아  $b^b$ 으로 시작한다.  $b^b$ 은 퇴성하며  $a^b$ 으로 하행한다. 이후 제3박에서는  $e^b$ 으로 하행한다. 제4박에서 대금은  $a^b$ 으로 상행하여 종지감을 주고, 피리는  $a^b$ 에서  $b^b$ 을 들어내며 마친다. 제3악구의 구조선율은  $b^b-a^b-e^b-a^b$ 이며, 핵음과 종지음은  $a^b$ 이다.

### ④ 자진굿거리 제4악구

<자진굿거리>의 제4악구는 제4장단과 같다. 제4악구는 다음의 <악보 57>에서 보겠다.

<악보 57> 자진굿거리 제4악구(제4장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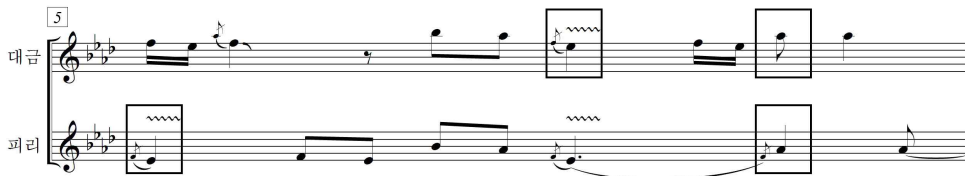


위의 <악보 57>에서 살펴보면 제4장단의 제1박은  $e^b$ 으로 시작하여  $b^b$ 으로 상행한다.  $b^b$ 은 퇴성하여  $a^b$ 으로 하행한다.  $a^b$ 은 제4박까지 이어지며, 제4박에서는  $b^b$ 을 경과한 후 다시  $a^b$ 으로 돌아온다. 제4악구의 구조선율은  $e^b - b^b - a^b$ 이며, 핵음은  $e^b \cdot a^b$ , 종지음은  $a^b$ 이다.

⑤ 자진굿거리 제5악구

<자진굿거리>의 제5악구는 제5장단과 같다. 제5악구는 다음의 <악보 58>에서 보겠다.

<악보 58> 자진굿거리 제5악구(제5장단)



위의 <악보 58>에서 살펴보면 제5장단의 제1박에서 피리는  $e^b$ 으로 시작하고, 대금은  $f^b$ 로 시작한다. 이후  $b^b \cdot a^b$ 을 경과하여 제3박의  $e^b$ 으로 진행한다.  $e^b$ 은 제4박의  $a^b$ 으로 상행한다. 제5악구의 구조선율은  $e^b - e^b - a^b$ 이며, 핵음은  $e^b \cdot a^b$ , 종지음은  $a^b$ 이다.

⑥ 자진굿거리 제6악구

<자진굿거리>의 제6악구는 제6장단과 같다. 제6악구는 다음의 <악보 59>에서 보겠다.

<악보 59> 자진굿거리 제6악구(제6장단)



위의 <악보 59>에서 살펴보면 제6장단의 제1박은  $a^b$ 으로 시작하여  $b^b \cdot a^b$ 을 경과하여 제2박의  $e^b$ 으로 하행한다. 이후 제3박에서  $f$ 로 상행한 후 제4박에서  $e^b$ 으로 하행하여 마친다. 제6악구의 구조선율은  $a^b - e^b - f - e^b$ 이며, 핵음과 종지음은  $e^b$ 이다.

⑦ 자진굿거리 제7악구

<자진굿거리>의 제7악구는 제7장단의 제1박부터 제8장단의 제2박까지이다. 제7악구는 다음의 <악보 60>에서 보겠다.

<악보 60> 자진굿거리 제7악구(제7장단의 제1박~제8장단의 제2박)



위의 <악보 60>에서 살펴보면 제7장단의 제1박은  $a^b \cdot b^b$ 을 경과하여  $c^b$ 로 상행한다. 이후  $b^b \cdot a^b$ 을 경과하여 제3박에서  $e^b$ 으로 하행한다.  $e^b$ 은 이후  $a^b$ 으로 상행한다. 제8장단의 제1박에서는  $e^b$ 을 밝고  $a^b$ 으로 상행한 후, 제2박에서  $e^b$ 으로 하행하여 종지감을 준다. 제7악구의 구조선

울은  $c'-e^b-a^b-e^b$ 이며, 핵음은  $e^b \cdot a^b \cdot c'$ , 종지음은  $e^b$ 이다.

### ⑧ 자진굿거리 제8악구

<자진굿거리>의 제8악구는 제8장단의 제3박부터 제9장단의 제4박까지이다. 제8악구는 다음의 <악보 61>에서 보겠다.

<악보 61> 자진굿거리 제8악구(제8장단의 제3박~제9장단의 제4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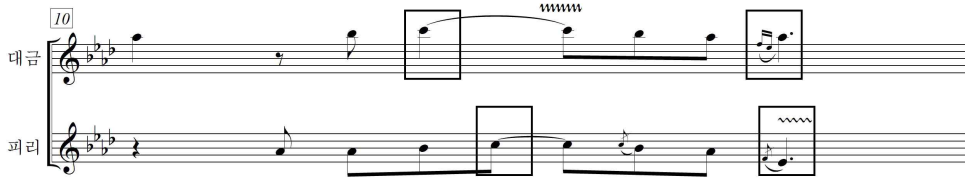


위의 <악보 61>에서 살펴보면 제8장단의 제3박은 피리가 쉬는 박이며, 대금이  $a^b$ 으로 시작한다. 이후 제4박에서 대금은  $c'$ , 피리는  $b^b$ 으로 진행한 후, 제9장단의 제1박에서  $a^b$ 으로 하행한다. 제2박에서는  $a^b$ 을 중심으로  $b^b \cdot a^b$ 을 경과하여 제3박에서  $e^b$ 으로 하행한다. 제4박에서는  $e^b$ 에서  $a^b$ 으로 완전4도 상행하여 종지감을 준다. 제8악구의 구조선율은  $a^b-b^b-a^b-e^b-a^b$ 이며, 핵음과 종지음은  $a^b$ 이다.

### ⑨ 자진굿거리 제9악구

<자진굿거리>의 제9악구는 제10장단과 같다. 제9악구는 다음의 <악보 62>에서 보겠다.

<악보 62> 자진굿거리 제9악구(제10장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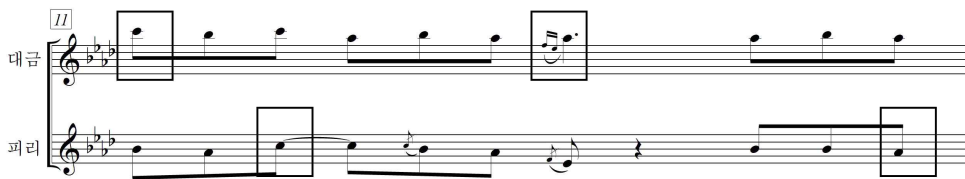


위의 <악보 62>에서 살펴보면 제10장단의 제1박은  $a^b$ 으로 시작한다. 이후 제2박에서는  $b^b$ 을 경과하여  $c'$ 로 상행한다. 제3박에서는  $c'$ 를 지속하다가  $b^b \cdot a^b$ 을 경과한 후, 제4박에서 대금은  $a^b$ 으로 하행하고, 피리는  $e^b$ 으로 하행한다. 이때 대금의  $a^b$ 과 피리의  $e^b$  모두 종지감이 있다. 제9악구의 구조선율은  $a^b - c' - a^b / e^b$ 이며, 핵음은  $e^b \cdot a^b \cdot c'$ , 종지음은  $e^b \cdot a^b$ 이다.

⑩ 자진굿거리 제10악구

<자진굿거리>의 제10악구는 제11장단과 같다. 제10악구는 다음의 <악보 63>에서 보겠다.

<악보 63> 자진굿거리 제10악구(제11장단)



위의 <악보 63>에서 살펴보면 제11장단의 제1박에서 피리는  $b^b \cdot a^b$ 을 경과하여  $c'$ 로 상행한다.  $c'$ 는 제2박까지 지속한 후  $b^b \cdot a^b$ 을 경과하여 제3박에서  $e^b$ 으로 하행한다. 제4박에서는  $b^b$ 을 경과하여  $a^b$ 으로 하행한다. 대금은 제1박에서  $c''$ 로 시작하여  $b^b$ 을 경과하며, 제2·3·4박에서는  $a^b$ 을 중심으로 움직인다. 제10악구의 구조선율은  $c' - e^b - a^b$ 이며, 핵음은  $a$

$b \cdot c'$ , 종지음은  $a^b$ 이다.

### ⑪ 자진굿거리 제11악구

<자진굿거리>의 제11악구는 제12장단과 같다. 제11악구는 다음의 <악보 64>에서 보겠다.

<악보 64> 자진굿거리 제11악구(제12장단)



위의 <악보 64>에서 살펴보면 제12장단의 제1박은  $b^b$ 으로 시작한다. 이후  $c' \cdot b^b$ 을 경과한 후 제2박에서  $a^b$ 으로 하행한다.  $a^b$ 은 제3박까지 지속하며 제3박의 끝에서  $f$ 를 경과하여  $e^b$ 으로 하행한다. 이후 제4박에서는  $a^b$ 을 경과하여  $b^b$ 으로 상행한다.  $b^b$ 은 퇴성하며 다음 악구와의 연결을 예비한다. 제11악구의 구조선율은  $b^b - a^b (-b^b)$ 이며, 핵음과 종지음은  $a^b$ 이다.

### ⑫ 자진굿거리 제12악구

<자진굿거리>의 제12악구는 제13장단이다. 제12악구는 다음의 <악보 65>에서 보겠다.

<악보 65> 자진굿거리 제12악구(제13장단)



위의 <악보 65>에서 살펴보면 제13장단에서 피리는 제1박을  $b^b$ 으로 시작하여  $a^b$ 을 경과 후  $e^b$ 으로 하행한다. 대금은 제1박을  $a^b$ 을 중심으로 진행한 후 제2박에서  $c'$ 로 상행한다. 이후 대금과 피리는  $b^b$ 을 경과 하며  $a^b$ 을 중심으로 제3박까지 진행한다. 제4박에서는  $e^b$ 으로 하행하여 종지한다. 제12악구의 구조선율은  $b^b-a^b-e^b$ 이며, 핵음은  $e^b \cdot a^b$ , 종지음은  $e^b$ 이다.

이상의 내용을 정리하면, <자진굿거리>의 관용적 구조선율은  $e^b-a^b$ ,  $a^b-e^b$ ,  $e^b-a^b-e^b$ ,  $a^b-e^b-a^b$ 이며, 핵음은  $e^b$ (솔) ·  $a^b$ (도)이며, 종지음은  $e^b$ (솔) ·  $a^b$ (도)이다.

$a^b$ 의 종지가  $e^b$ 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빈도로 나타나지만 악곡의 마지막 종지는  $e^b$ 으로 나타나고, 두 음 모두 안정된 종지감을 준다.  $e^b$ 의 종지 전에는 주로 완전4도 위 음인  $a^b$ 이 선행된다.  $a^b$ 의 종지 전에는 주로 완전4도 아래 음인  $e^b$ 이 선행된다.

$f$ 는  $e^b$ 으로 하행하기 위한 경과음으로 나타나며, 악구의 마지막 음으로 나타나는 경우에는 다음 악구의 진행을 예고하는 성격을 보인다.  $b^b$ 은  $a^b$ 으로 하행하기 위한 경과음으로 나타나며, 악구의 마지막 음으로 나타나는 경우에는 다음 악구의 진행을 예고하는 성격을 보인다.  $c'$ 는 주로 경과음 또는 악곡의 긴장감을 고조시키기 위한 기능을 한다.

<자진굿거리>의 구조선율 · 핵음 · 종지음 분석을 정리하면 다음의 [표 15]에서 보는 것과 같다.

[표 15] 자진굿거리 구조선율 · 핵음 · 종지음

악구	구조선율	핵음	종지음
1	$a^b (-f)$	$a^b$	$a^b$
2	$e^b - a^b (-b^b)$	$a^b$	$a^b$
3	$b^b - a^b - e^b - a^b$	$a^b$	$a^b$
4	$e^b - b^b - a^b$	$e^b \cdot a^b$	$a^b$
5	$e^b - e^b - a^b$	$e^b \cdot a^b$	$a^b$
6	$a^b - e^b - f - e^b$	$e^b$	$e^b$
7	$c' - e^b - a^b - e^b$	$e^b \cdot a^b \cdot c'$	$e^b$
8	$a^b - b^b - a^b - e^b - a^b$	$a^b$	$a^b$
9	$a^b - c' - a^b / e^b$	$e^b \cdot a^b \cdot c'$	$e^b \cdot a^b$
10	$c' - e^b - a^b$	$a^b \cdot c'$	$a^b$
11	$b^b - a^b (-b^b)$	$a^b$	$a^b$
12	$b^b - a^b - e^b$	$e^b \cdot a^b$	$e^b$
종합			

### 3) 시김새

<자진굿거리>의 시김새는 <굿거리>와 동일하므로 생략하겠다.

요컨대, <자진굿거리>의 음계는 ‘ $e^b$ (솔)- $f$ (라)- $a^b$ (도)- $b^b$ (레)- $c'$ (미)’이다. 관용적 구조선율은  $e^b - a^b$ ,  $a^b - e^b$ ,  $a^b - e^b - a^b$ ,  $e^b - a^b - e^b$ 이며, 핵음은  $e^b$ (솔) ·  $a^b$ (도)이며, 종지음은  $e^b$ (솔) ·  $a^b$ (도)이다.

$f$ 는  $e^b$ 으로,  $b^b$ 은  $a^b$ 으로 하행하여 종속되는 음이다. 또한  $f$ 와  $b^b$ 은 악구의 마지막 음으로 나타나는 경우 다음 악구의 진행을 예고하는 성격을 보인다.  $c'$ 는 주로 경과음 또는 악곡의 긴장감을 고조시키기 위한 기



능을 한다. 시김새는 <굿거리>와 동일하게 나타난다.

## 나. 삼현영산회상계

본 항에서는 《삼현영산회상》 악곡 중 엽불조에 해당하는 악곡인 <대영산>, <엽불도드리> 제1장~제4장, <삼현타령> 제2장~제3장과 돌장을 살펴보겠다.

### (1) 대영산

<대영산>은 《삼현영산회상》의 첫 번째 악곡이며, 출현음과 구조선을 ·핵음·중지음, 그리고 시김새 분석을 통해 악곡을 살펴보겠다.

#### 1) 출현음

<대영산>의 출현음을 다음 <악보 66>에서 살펴보겠다.¹³⁰⁾

<악보 66> 대영산 출현음

대금

a^b(도) b^b(레) c'(미) e^b(솔) f'(라) g^b(사) a^b(도) b^b(레) d^b''(파)

피리

B^b(레) c'(미) e^b(솔) f(라) g^b(사) a^b(도) b^b(레) d^b(파) e^b(솔)

<악보 66>을 살펴보면, <대영산>에서 대금의 주요 출현음은 a^b(도), b

130) 흰 음표는 주요 출현음이며, 검은 음표는 다른 악조의 출현음, 또는 짧은 경과음이나 장식음으로 나타나는 음이다. 검은 음표의 음이름은 이탤릭체로 구분하였다.

$b^b$ (레),  $e^b$ (솔),  $f$ (라),  $a^b$ (도),  $b^b$ (레),  $d^b$ (파)이다.  $c$ (미)는 장식음 또는 짧은 경과음으로 출현한다.  $g^b$ (시^b)은 허튼타령조의 구성음이며 4장에서 1회 나타난다. 피리의 주요 출현음은  $B^b$ (레),  $e^b$ (솔),  $f$ (라),  $a^b$ (도),  $b^b$ (레),  $d^b$ (파),  $e^b$ (솔)이다.  $c$ (미)는 경과음으로 1회, 그리고 선율적 요성으로 종지 시 밀어올려 내는 음으로 나타나 주요 음계에 포함하지 않는다.  $g^b$ (시^b)은 허튼타령조의 구성음이며, 출현 횟수가 5회로 대금보다 높은 빈도로 나타나지만 제4장에서 대금과 동시에 출현하는 부분¹³¹⁾을 제외하면 모두 짧은 경과음으로 나타난다.

## 2) 구조선율 · 핵음 · 종지음

<대영산>은 총 14장단의 악곡이다. <대영산>은 모든 장단에서 피리가 종지한 후 대금이 연음을 하는 규칙적인 진행을 한다. 그러므로 악구는 장단을 기준으로 하여, 총 14개 악구의 구조선율과 악구별 핵음, 종지음을 살펴보겠다. 제8악구는 제4악구와 동일하므로 생략한다.

### ① 대영산 제1악구

<대영산>의 제1악구는 제1장단이다. 제1악구는 다음의 <악보 67>에서 보겠다.

---

131) <대영산> 제4장의 두 번째 장단의 제2박부터 제3박까지 대금 · 피리 · 해금 모두  $g^b$ (시^b)을 지속하며 앞으로 이어지는 악곡인 <중영산>에서 시작되는 조변화를 암시한다.

<악보 67> 대영산 제1악구(제1장단)

(1장)

위의 <악보 67>에서 살펴보면 제1장단은 제6박에서 피리가 먼저 시작하며, 대금은 제8박에서 시작한다. 피리는 제6박에서  $a^b$ 으로 시작하여  $b^b$ 을 경과한 후 제7박의  $e^b$ 으로 상행한다. 이후 제8박에서  $b^b$ 으로 완전4도 하행한 후, 제9박에서  $a^b$ 으로 하행하여 종지한다. 대금은 제8박에서  $e^b \cdot a^b \cdot b^b \cdot d^b$ 을 경과하여 제9박의  $b^b$ 으로 상행한다. 이후  $a^b$ 으로 하행한 후,  $b^b$ 을 경과하여  $d^b$ 으로 상행하는 연음을 하며 다음 장단의 첫 음까지 지속한다. 제1악구의 구조선율은  $a^b - e^b - b^b - a^b (-a^b - d^b)^{132}$ 이며, 핵음은  $a^b \cdot e^b$ , 종지음은  $a^b$ 이다.

② 대영산 제2악구

<대영산>의 제2악구는 제2장단이다. 제2악구는 다음의 <악보 68>에서 보겠다.

132) 괄호 안의 구조선율은 대금의 연음이다.

<악보 68> 대영산 제2악구(제2장단)

위의 <악보 68>에서 살펴보면 제2장단의 제1박에서 피리는  $a^b$ 을 밟고  $d^b$ '으로 완전4도 상행한다. 이후 제2박에서  $a^b$ 으로 하행하여 제4박까지 지속하며 종지한다.  $d^b$ '은 거시적으로 보았을 때  $a^b$ 으로 진행하기 위한 경과음이다. 대금은 직전 악구의 연음인  $d^b$ "을 제1박까지 지속한다. 제2박에서는 피리와 같이  $a^b$ '을 지속한다. 이후 제4박부터 제10박까지  $b^b$ '과  $d^b$ "을 중심으로 하는 긴 연음이 나타난다. 제2악구의 구조선율은  $d^b$ '- $a^b$  ( $-b^b$ - $a^b$ - $d^b$ '- $b^b$ - $e^b$ - $b^b$ - $d^b$ '')이며, 핵음과 종지음은  $a^b$ 이다.

### ③ 대영산 제3악구

<대영산>의 제3악구는 제3장단이다. 제3악구는 다음의 <악보 69>에서 보겠다.

<악보 69> 대영산 제3악구(제3장단)



위의 <악보 69>에서 살펴보면 제3장단의 제1박에서 피리는  $a^b$ 을 밟고  $d^b$ 으로 상행한다. 이후 제2박의  $a^b$ ,  $b^b$ 을 경과하여 제3박에서  $e^b$ 으로 상행한다. 제2박과 제3박에서 대금은  $a^b$ 에서  $b^b$ 으로 상행하는데  $b^b$ 은 피리의  $e^b$ 과 같은 기능을 하는 음으로 보고, 이 부분의 구조선율은  $e^b$ 으로 한다.¹³³⁾ 이후 제4박에서 피리는  $b^b$ 으로 완전4도 하행하여 제5박까지 지속하고, 대금은  $b^b$ 에서  $a^b$ 으로 하행한 후 제5박에서  $d^b$ 으로 상행한다. 제6박부터 제8박까지의 선율은 앞의 선율과 유사한 음의 진행을 보인다. 이후 제9박에서는 피리가  $a^b$ 으로 하행하여 중지하고, 이후 대금은 제10박에서  $b^b$ 에서  $d^b$ 으로 상행하는 연음을 한다. 제3악구의 구조선율은  $d^b \cdot a^b \cdot e^b \cdot b^b \cdot d^b \cdot e^b \cdot b^b \cdot a^b (-b^b \cdot d^b)$ 이며, 핵음은  $a^b \cdot e^b$ , 중지음은  $a^b$ 이다.

#### ④ 대영산 제4악구

<대영산>의 제4악구는 제4장단이다. 제4악구는 다음의 <악보 70>에서

133) <대영산>에서는 피리가 최고음  $e^b$ 을 낼 경우 대금이  $b^b$ 으로 진행하는 경우가 상당히 나타난다. <중영산>에서는 피리가 최고음  $e^b$ 을 내는 경우 반드시 대금이  $b^b$ 을 연주한다. 이것으로 미루어 <대영산>과 <중영산>에서 피리의  $e^b$ 은 대금의  $b^b$ 과 기능을 같이 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와 같은 경우에는 보다 지배적으로 들리는 피리의  $e^b$ 을 구조선율로 본다.

보겠다.

### <악보 70> 대영산 제4악구(제4장단)

위의 <악보 70>에서 살펴보면 제4장단의 제1박은  $d^b$ '으로 시작하여 제2박에서  $a^b$ 으로 완전4도 하행한 후 제3박까지 지속한다. 이후 제4박에서  $e^b$ 으로 완전4도 하행한 후, 제5박에서 한 번 더 완전4도 하행하여  $B^b$ 으로 도달한다. 이후 제6박에서  $f$ 로 완전5도 상행한 후, 제7박의  $e^b$ 으로 하행하여 제8박의  $a^b$ 으로 귀결하여 종지한다. 이후 대금은 제10박에서  $b^b$ '에서  $d^b$ '으로 상행하는 연음을 한다. 제4악구의 구조선율은  $d^b-a^b-e^b-B^b-f-e^b-a^b(-b^b-d^b')$ 이며, 핵음은  $e^b \cdot a^b$ , 종지음은  $a^b$ 이다.

### ⑤ 대영산 제5악구

<대영산>의 제5악구는 제5장단이다. 제5악구는 다음의 <악보 71>에서 보겠다.

<악보 71> 대영산 제5악구(제5장단)

위의 <악보 71>에서 살펴보면 제5장단의 제1박에서 피리는  $b^b$ 을 밟고  $e^b$ 으로 상행한다. 이때 대금은 직전 악구의 연음인  $d^b$ 을 지속한다. 제2박과 제3박에서 피리는  $b^b$ 을 밟고  $e^b$ 으로 상행하는 제1박과 동일한 진행을 리듬을 달리한다. 이때 대금은  $b^b$ 에서  $a^b$ 으로 하행한다. 이후 제4박에서 대금과 피리 모두  $a^b$ 으로 하행한 후, 제5박에서  $e^b$ 으로 완전4도 하행한다. 제6박에서 피리는  $B^b$ 으로 완전 4도 하행하고, 대금은  $f$ 로 상행한다. 제7박에서 피리는  $f$ , 대금은  $e^b$ 을 경과하여, 제8박의  $B^b$ 으로 하행한다. 피리는  $B^b$ 에서  $c$ 까지 반복적으로 끌어올리는 선율적 요성을 하며 종지한다. 이후 대금은  $e^b$ 에서  $d^b$ 까지 상행하는 연음을 한다. 제5악구의 구조선율은  $e^b \cdot a^b \cdot e^b \cdot f \cdot B^b$  ( $e^b \cdot b^b \cdot d^b$ )이며, 핵음은  $B^b \cdot a^b \cdot e^b$ , 종지음은  $B^b$ 이다.

⑥ 대영산 제6악구

<대영산>의 제6악구는 제6장단이다. 제6악구는 다음의 <악보 72>에서 보겠다.

<악보 72> 대영산 제6악구(제6장단)

위의 <악보 72>에서 살펴보면 제6악구의 제1박에서 피리는  $a^b$ ,  $d^b$ ,  $b^b$ 을 경과하여 제2박의  $e^b$ 으로 도달한다.  $e^b$ 은 제3박까지 지속하며, 제4박에서  $b^b$ 을 경과하여  $a^b$ 으로 귀결하며 종지감을 준다. 대금은 제2박의  $b^b$ 이 제3박의  $a^b$ 으로 하행하고, 이후 제5박에서  $d^b$ 으로 상행하는데 이는 연음과 유사하다. 제6박에서 피리는  $a^b$ 을 밝고  $d^b$ 으로 상행하고, 이후 제7박에서  $g^b$ 을 경과하여  $b^b$ 으로 진행한다.  $b^b$ 은 길게 지속하다  $g^b$ 을 퇴성하며 종지한다.  $g^b$ 은 허튼타령조의 구성음이며,  $b^b$ - $g^b$ 으로의 종지하는 형태 또한 허튼타령조의 구조선율이다. 이는 피리가 앞으로 이어지는 악곡에서 악조의 변화가 있음을 예고하는 것이다.¹³⁴⁾ 제6악구의 후반부에서 대금은  $a^b$ 을 중심으로 움직이다 피리의 종지 후에  $d^b$ 으로 상

134) 이는 앞으로 진행될 악곡의 예고일 수도 있고, 본래 한 악곡 안에서 두 가지 조가 공존하는 악곡일 가능성도 있다. <대영산>을 만든 작자미상의 누군가가 <대영산>과 <중영산> 이후의 악곡을 동시에 만들어 <대영산>에서조를 변화하는 요소를 넣고 자연스럽게 <중영산>으로 넘어가도록 해야겠다는 의도를 갖고 만들었을 수도 있지만, <대영산>을 누군가가 만들고, 이후 후대에 누군가가 <중영산>을 포함한 이후의 악곡을 <대영산>에서 파생시켜 만들었다면 이러한 부분은 다음 악곡의 조변화를 위한 예고라고 할 수 없다. 또 하나의 가능성으로, <대영산>이 오랜 세월 전승되면서 <중영산>과 그 후속 곡들이 생겨나 모음곡으로 연주되며 음악이 변질되었을 가능성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본고에서는 현재 연주되는 악곡을 대상으로 분석하는 것이므로 <<삼현영산회상>>이 모음곡이라는 큰 틀에서의 흐름을 살피고자 위와 같이 분석하였다.



행하여 연음을 한다. 제6악구의 구조선율은  $e^b \cdot a^b \cdot d^b \cdot b^b (-g^b)(-a^b \cdot d^b)$ 이며, 핵음은  $a^b \cdot b^b \cdot e^b$ , 종지음은  $b^b(-g^b)$ ¹³⁵이다.

## ⑦ 대영산 제7악구

<대영산>의 제7악구는 제7장단이다. 제7악구는 다음의 <악보 73>에서 보겠다.

<악보 73> 대영산 제7악구(제7장단)

위의 <악보 73>에서 살펴보면 제7장단의 제1박에서 피리는  $a^b$ 을 밟고  $d^b$ '으로 상행한 후 제2박에서  $a^b$ 으로 하행한다.  $a^b$ 은 제4박까지 지속하여 종지감을 주며, 박의 끝에  $g^b$ 을 퇴성한다. 이는 <중영산>의 종지형태와 같다. 대금은 제2박부터  $a^b$ '을 중심으로 진행하며 제5박에서 대금은  $d^b$ "으로 상행하여 짧은 연음을 한다. 이후 제6박에서 피리는  $a^b$ 을 밟고  $d^b$ '으로 상행한 후 제7박에서  $e^b$ '으로 상행한다. 제8박에서는  $b^b$ 을 하행놓음하며 제9박의  $a^b$ 으로 귀결하여 종지한다. 피리의 종지 이후 대금은  $b^b$ '에서  $d^b$ "으로 상행하는 연음을 한다. 제7악구의 구조선율은  $d^b \cdot a^b (-g$

135) 종지감이 있는 음의 끝에 짧게 붙는 음이 연결감과 종지감을 모두 갖고 있는 경우, 두 음을 모두 종지음으로 보고 연결감을 갖는 마지막 음은 괄호 안에 넣는다.

$\flat$ )- $d^{\flat}$ '- $e^{\flat}$ '- $b^{\flat}$ - $a^{\flat}$  ( $-b^{\flat}$ - $d^{\flat}$ ')이며, 핵음은  $a^{\flat} \cdot e^{\flat}$ ', 종지음은  $a^{\flat}$ 이다.

## ⑧ 대영산 제9악구

<대영산>의 제9악구는 제9장단이다. 제9악구는 다음의 <악보 74>에서 보겠다.

<악보 74> 대영산 제9악구(제9장단)

위의 <악보 74>에서 살펴보면 제9장단의 제1박에서 피리는  $a^{\flat}$ 을 밝고  $d^{\flat}$ 으로 상행 후, 제2박에서  $b^{\flat}$ 을 밝고  $e^{\flat}$ 으로 상행한다.  $e^{\flat}$ 은 제3박까지 지속한다. 이후 제4박에서  $d^{\flat}$ '· $b^{\flat}$ 을 경과하여 제5박에서  $a^{\flat}$ 으로 하행한다. 이후 제6박에서  $b^{\flat}$ 으로 상행하여 제7박까지 지속하다 제8박에서  $a^{\flat}$ 으로 하행한다.  $a^{\flat}$ 은 종지감을 주며 제9박까지 지속하다 제9박의 끝에서  $f$ 를 퇴성하며 마친다. 대금은 제9악구의 전반에서는  $a^{\flat}$ 을 중심으로 움직이며 제6박에서  $b^{\flat}$ 으로 상행한 후 제7박에서  $e^{\flat}$ 으로 하행한다. 이후 제8박의  $f$ 를 경과하여 제9박에서  $a^{\flat}$ 으로 진행한 후  $e^{\flat}$ 으로 하행한다. 제10박에서는  $b^{\flat}$ 에서  $d^{\flat}$ 으로 상행하는 연음을 한다. 제9악구는 대금과 피리의 진행이 다르지만 피리의 선율이 보다 지배적이므로 구조선율은 피리를 따른다. 제9악구의 구조선율은  $d^{\flat}$ '- $e^{\flat}$ '- $d^{\flat}$ '- $a^{\flat}$ - $b^{\flat}$ - $a^{\flat}$  ( $-f$ )-( $-b^{\flat}$ - $d^{\flat}$ ')이며, 핵음은  $a^{\flat} \cdot e^{\flat}$ ', 종지음은  $a^{\flat}$ 이다.

## ⑨ 대영산 제10악구

<대영산>의 제10악구는 제10장단이다. 제10악구는 다음의 <악보 75>에서 보겠다.

<악보 75> 대영산 제10악구(제10장단)

위의 <악보 75>에서 살펴보면 제10장단의 제1박부터 제3박까지 피리는  $a^b \cdot d^{b'} \cdot f^{136}$ 를 경과하여  $b^b$ 에 도달한다. 이후 제4박에서  $e^{b'}$ 으로 상행한 후 제5박에서 다시  $b^b$ 으로 하행한다. 이후 제6박의  $b^b$ 을 경과한 후, 제7박에서  $e^{b'}$ 으로 하행한다.  $e^{b'}$ 은 제8박까지 지속한 후  $a^b$ 으로 귀결하여 종지한다. 대금은 제10악구의 전반부는  $b^{b'}$ 과  $d^{b''}$ , 후반부는  $a^{b'}$ 을 중심으로 진행하고, 피리가 종지한 후  $b^{b'}$ 에서  $d^{b''}$ 으로 상행하는 연음을 한다. 제10악구의 구조선율은  $d^{b'}-b^b-e^{b'}-b^b-e^b-a^b(-b^b-d^{b'})$ 이며, 핵음은  $a^b \cdot b^b$ , 종지음은  $a^b$ 이다.

## ⑩ 대영산 제11악구

136) 이때 피리는  $g^b$ 을 내는 지공에서  $f$  음정을 낸다.

<대영산>의 제11악구는 제11장단이다. 제11악구는 다음의 <악보 76>에서 보겠다.

<악보 76> 대영산 제11악구(제11장단)

The musical score is written for two staves, labeled '대금' (Daegum) and '피리' (Piri). The key signature has three flats (B-flat, E-flat, A-flat). The score consists of two systems. The first system has two measures. The second system has two measures. In the first measure of the second system, the Daegum part has a triplet of eighth notes. In the second measure of the second system, the Piri part has a triplet of eighth notes. There are various musical notations including slurs, ties, and dynamic markings like 'Cm'.

위의 <악보 76>에서 살펴보면 제11악구는 제4악구와 동일하나, 마지막 피리의 종지가 다르다. 마지막 피리의 종지는 제8박에서  $a^b$ 을 지속하다  $b^b$ 까지 반복적으로 끌어올리는 선율적 요성으로 마친다. 제11악구의 구조선율은  $d^b - a^b - e^b - B^b - f - e^b - a^b (-b^b - e^b)$ 이며, 핵음은  $e^b \cdot a^b$ , 종지음은  $a^b$ 이다.

⑪ 대영산 제12악구

<대영산>의 제12악구는 제12장단이다. 제12악구는 다음의 <악보 77>에서 보겠다.

<악보 77> 대영산 제12악구(제12장단)

위의 <악보 77>에서 살펴보면 제12장단의 제1박에서 피리는  $a^b \cdot d^{b'}$  ·  $b^b$  을 경과하여 제2박에서  $e^b$  '으로 상행한다. 이후  $d^{b'}$  ·  $b^b$  ·  $a^b$  ·  $g^b$  을 경과하며 지속적으로  $e^b$  '으로 상행한다. 이때 대금은 피리보다 상대적으로 한 옥타브 낮은  $e^b$  '을 중심으로 진행한다. 이후 대금과 피리는 제7박의  $e^b$  '이후  $b^b$  을 경과하여 제8박의  $a^b$  으로 하행한다. 피리는  $a^b$  에서 선율적 요성을 하며 종지한다. 이후 대금은 연음으로  $b^b$  '을 낸다. 제12악구의 구조선율은  $e^b$  '- $d^{b'}$  '- $e^b$  '- $a^b$  (- $b^b$ )이며, 핵음은  $a^b$  ·  $e^b$  ', 종지음은  $a^b$  이다.

⑫ 대영산 제13악구

<대영산>의 제13악구는 제13장단이다. 제13악구는 다음의 <악보 78>에서 보겠다.

<악보 78> 대영산 제13악구(제13장단)

위의 <악보 78>에서 살펴보면 제13장단의 제1박에서 피리는  $a^b$ ,  $b^b$ 을 경과하여 제2박에서  $g^b$ 으로 진행한다. 제2박에서는 대금과 피리 모두  $g^b$ 을 연주하며 제3박까지 지속한다. 이는 앞으로 조가 바뀌게 될 예고를 한다. 제4박에서 피리는  $e^b$ 으로 진행 후  $c$ 로 하행한다. 이후 제6박에서  $B^b \cdot f$ 를 경과하여  $e^b$ 으로 하행한 후 제8박에서  $a^b$ 으로 귀결하여 종지한다. 제4박부터 제6박까지 대금은  $b^{b'} \cdot e^{b'} \cdot f$ 를 경과하여 제7박의  $e^{b'}$ 으로 하행한다. 이후 피리와 같이  $a^{b'}$ 으로 귀결한 후,  $b^{b'}$ 에서  $d^{b''}$ 으로 상행하는 연음을 한다. 제13악구의 구조선율은  $b^b - g^b - e^b - c - f - e^b - a^b (-b^b - d^b)$ 이며, 핵음은  $a^b \cdot g^b$ , 종지음은  $a^b$ 이다.

⑬ 대영산 제14악구

<대영산>의 제14악구는 제14장단이다. 제14악구는 다음의 <악보 79>에서 보겠다.

<악보 79> 대영산 제14악구(제14장단)

위의 <악보 79>에서 살펴보면 제14악구의 제1박에서 피리는  $a^b$ 을 밝고  $d^b$ 으로 상행한다. 제2박에서는  $a^b$ 으로 완전4도 하행한다. 이후 제4박에서  $b^b$ 으로 상행한 후 제5박에서  $e^b$ 으로 하행한다.  $e^b$ 은 제6박까지 지속한 후 제6박의 끝에서  $b^b$ 을 경과하여  $a^b$ 으로 하행한다. 피리는  $a^b$ 에서 완전중지 후  $a^b$ 의 끝에  $f$ 를 퇴성하며 이후 악곡이 이어짐을 예고한다.¹³⁷⁾ 대금은 피리와 진행을 같이 하며, 제8박에서 피리가 종지할 때  $b^b$ 으로 상행한 후,  $e^b$ 으로 하행하였다 제10박에서 다시  $b^b$ 으로 상행하여  $d^b$ 으로 마치는 연음을 한다. 제14악구의 구조선율은  $d^b-a^b-b^b-e^b-a^b(-f)(-e^b-b^b-d^b)$ 이며, 핵음과 종지음은  $a^b$ 이다.

이상의 내용을 정리하면, <대영산>의 관용적 구조선율은  $e^b-a^b$ ,  $d^b-a^b$ ,  $e^b-a^b$ ,  $e^b-b^b-a^b$ 이며, 핵음은  $a^b$ (도) ·  $e^b$ (솔)이며, 종지음은  $a^b$ (도)이다.

137) 엽불조에서 대부분의 종지음은  $e^b$ 이나  $a^b$ 이며, 다음 악구 또는 다음 악곡으로 연결하고자하는 의도가 있을 경우에 종지음 이후에  $f$ 가 출현하여 연결감을 준다. 그러므로  $f$ 를 종지음으로 보지 않고  $f$ 앞에서 종지감을 주는 음을 종지음으로 본다. 한편, 허튼타령조에서 <중영산>이나 <작영산>의 경우에  $a^b$ 의 종지감 이후에  $g^b$ 이 나타나는 경우는 연결감과 종지감이 동시에 나타나며, 특수한 위치가 아닌 전반적인 악구의 종지에서 나타나는 형태이므로  $a^b$ 과  $g^b$ 을 모두 종지음으로 본다.

$a^b$ 은 종지 시 주로  $b^b$  또는  $e^b$ 을 선행한다. <대영산>에서 가장 안정된 종지음은  $a^b$ 이나, 예외적으로 피리가  $B^b$ 에서 선율적 요성을 하는 종지가 제5악구에서 나타나며,  $b^b$ 에서  $g^b$ 으로 하행하여 종지하는 허튼타령조의 종지 형태가 제6악구에서 나타난다.

$e^b$ 은  $a^b$ 으로 상행하려는 성격을 갖고 있다. 반면,  $e^b$ (138)은 독립적으로 나타나며 특히 악구의 전반부에 출현한다.

$f$ 는 대부분  $e^b$ 으로 하행하는 경과음으로 나타나며,  $a^b$ 으로 종지 후 나타나는  $f$ 는 다음 악구 또는 악곡이 계속됨을 알려주는 역할을 한다.  $b^b$ 은  $a^b$ 으로 하행하거나  $e^b$ 으로 상행하기 위해 밟고 가는 음으로 나타난다.  $d^b$ 은 대금의 연음과 피리의 악구의 시작을 알리는 음으로 사용되며, 이후  $a^b$ 이나  $e^b$ 으로 도달하여 대부분 경과음으로 나타난다. 허튼타령조의 구성음  $g^b$ 은 제13악구의 핵음으로 나타나며 다음 악곡에서 조가 변화될 것을 암시한다.

<대영산>의 구조선율 · 핵음 · 종지음 분석을 정리하면 다음의 [표 16]139)에서 보는 것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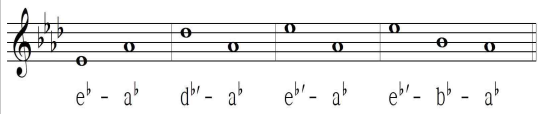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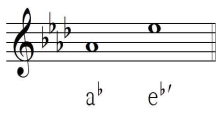

---

138) <대영산>에서 피리가  $e^b$ 으로 진행할 때 대금과 해금은  $b^b$  또는 한 옥타브 낮은  $e^b$ 으로 진행한다. 다음 곡인 <중영산>에서는 피리가  $e^b$ 으로 진행할 때 해금은 피리와 같은 음을 내고, 대금은  $b^b$ 을 낸다. <잣영산>(2장부터)부터는 피리가  $e^b$ 으로 진행할 때 해금은 피리와 같은 음을 내고, 대금은  $d^b$ 을 낸다. 이를 통해 삼현영산회상은 점차 음역이 높아짐을 알 수 있다.

139) 구조선율에서 밑줄 친 부분은 관용적 구조선율에 해당한다. 이탤릭체와 검은 음표는 다른 악조(허튼타령조)의 특징이 나타나는 것이다.



[표 16] 대영산 구조선율 · 핵심 · 종지음

악구	구조선율	핵심	종지음
1	$a^b - \underline{e^b - b^b - a^b} (-a^b - d^b')$	$a^b \cdot e^b'$	$a^b$
2	$\underline{d^b' - a^b} (-b^b - a^b - d^b' - b^b - e^b - b^b - d^b')$	$a^b$	$a^b$
3	$\underline{d^b' - a^b - e^b' - b^b} - d^b' - \underline{e^b' - b^b - a^b} (-b^b - d^b')$	$a^b \cdot e^b'$	$a^b$
4	$\underline{d^b' - a^b - e^b} - B^b - f - \underline{e^b - a^b} (-b^b - d^b')$	$e^b \cdot a^b$	$a^b$
5	$\underline{e^b' - a^b} - e^b - f - B^b (-e^b - b^b - d^b')$	$B^b \cdot a^b \cdot e^b'$	$B^b$
6	$\underline{e^b' - a^b} - d^b' - b^b (-g^b)(-a^b - d^b')$	$a^b \cdot b^b \cdot e^b'$	$b^b(-g^b)$
7	$\underline{d^b' - a^b} (-g^b) - d^b' - \underline{e^b' - b^b - a^b} (-b^b - d^b')$	$a^b \cdot e^b'$	$a^b$
8	제4악구와 동일		
9	$d^b' - e^b' - d^b' - a^b - b^b - a^b (-f)(-b^b - d^b')$	$a^b \cdot e^b'$	$a^b$
10	$d^b' - b^b - e^b' - b^b - \underline{e^b - a^b} (-b^b - d^b')$	$a^b \cdot b^b$	$a^b$
11	$\underline{d^b' - a^b - e^b} - B^b - f - \underline{e^b - a^b} (-b^b - e^b)$ (제4악구와 유사)	제4악구와 동일	
12	$e^b' - d^b' - \underline{e^b' - a^b} (-b^b)$	$a^b \cdot e^b'$	$a^b$
13	$b^b - g^b - e^b - c - f - \underline{e^b - a^b} (-b^b - d^b')$	$a^b \cdot g^b$	$a^b$
14	$\underline{d^b' - a^b} - b^b - e^b - a^b (-f)(-e^b - b^b - d^b')$	$a^b$	$a^b$
종합			

### 3) 시김새

<대영산>의 시김새는  $e^b$ (솔),  $f$ (라),  $a^b$ (도),  $b^b$ (레),  $d^b'$ (파)와  $g^b$ (시^b) 여섯 음으로 나누어 살펴보겠다. <대영산>의 주요 구성음 외에  $g^b$ (시^b)이 출현하므로 이를 포함하여 살펴보겠다.

## ① e^b(솔)

<대영산>의 e^b에서 나타나는 시김새는 아래 <악보 80>에서 보겠다.

<악보 80> 대영산 e^b의 시김새

The musical score for 'Daeryongsan' (대영산) shows the 'e-flat' (솔) section. It consists of three staves. The first staff is for Piri (피리) and the second for Daegeum (대금). The third staff is for Piri (피리) and the fourth for Daegeum (대금). The score includes various musical notations such as notes, rests, and ornaments (Cim). The first staff shows a Piri melody starting with a quarter note, followed by a half note, and then a quarter note. The second staff shows a Daegeum melody starting with a quarter note, followed by a half note, and then a quarter note. The third staff shows a Piri melody starting with a quarter note, followed by a half note, and then a quarter note. The fourth staff shows a Daegeum melody starting with a quarter note, followed by a half note, and then a quarter note. The score includes various musical notations such as notes, rests, and ornaments (Cim).

위의 <악보 80>에서 살펴보면 e^b은 주로 굵은 농음을 한다. 피리는 예외로 악곡의 첫 장단에서 e^b'에서 b^b으로 하행할 때 e^b'을 추성한다. 한 옥타브 높은 e^b'은 보통 농음을 한다. 이때 e^b'의 장식음으로 a^b이 나타난다. 또한 a^b에서 e^b으로 하행할 경우 e^b앞에 피리는 f가 장식음으로 나타나며, 이를 내리더름 주법으로 연주한다. 대금은 e^b'의 장식음으로 b^b-a^b이 나타나며, 이외에 a^b, a^b-f, f, a^b'또한 장식음으로 나타난다.

## ② f(라)

<대영산>의 f에서 나타나는 시김새는 아래 <악보 81>에서 보겠다.

<악보 81> 대영산 f의 시김새

위의 <악보 81>에서 살펴보면 f에서  $e^b$ 으로 하행할 경우 f를 퇴성한 다. 또한 마지막 장단의 종지 이후에 나타나는 f의 퇴성은 다음 악곡의 연결을 예고한다. 대금은  $e^b$ '- $a^b$ ', 피리는  $f$ - $e^b$ 이 장식음으로 나타난다.

③  $a^b$  (도)

<대영산>의  $a^b$ 에서 나타나는 시김새는 아래 <악보 82>에서 보겠다.

<악보 82> 대영산  $a^b$ 의 시김새

3

대금

피리

4

대금

피리

6

대금

피리

11

대금

피리

위의 <악보 82>에서 살펴보면 주로 피리는  $a^b$ 을 시김새 없이 지속하며, 대금은 가는 농음을 하므로  $a^b$ 은 평으로 내는 음이다. 이외에 피리는  $a^b$ 이  $b^b$  또는  $e^b$ 으로 진행할 경우 보통 농음을 한다. 이는 주로 장단의 초입에 나타난다. 피리는  $a^b$ 에서  $b^b$ 까지 반복적으로 음을 끌어올리는 선율적 요성이 종지 시 나타난다. 피리는  $a^b$ 에서  $d^b$ 으로 상행할 때  $a^b$ 을  $b^b$ 까지 끌어올리는 추성을 한다. 이는 주로 장단의 첫 진행으로 나타난다. 대금과 피리는  $e^b$ 에서  $a^b$ 으로 상행할 때  $f-e^b$ 이 장식음으로 나타나며, 피리는 이를 올리더름 주법으로 연주한다. 대금은  $a^b$ 이 대박의 첫 음으로 나타날 때  $b^b$ 이  $a^b$ 의 장식음으로 나타난다. 피리는  $b^b$ 에서  $a^b$ 으로 하행할 때  $a^b$ 앞에  $d^b$ 이 장식음으로 나타난다.

#### ④ $b^b$ (레)

<대영산>의  $b^b$ 에서 나타나는 시김새는 아래 <악보 83>에서 보겠다.

<악보 83> 대영산  $b^b$ 의 시김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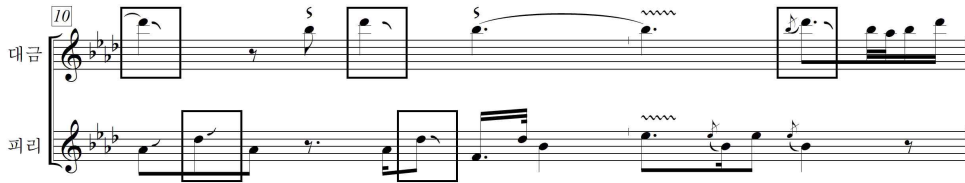
The musical score for 'Daeryongsan' in the key of B-flat (B-flat major) is presented in three systems. Each system consists of two staves: the top staff for 'Daegum' (대금) and the bottom staff for 'Piri' (피리). The key signature is B-flat major, indicated by two flats (B-flat and E-flat). The score includes various musical notations such as notes, rests, and ornaments (wavy lines above notes). The first system shows the initial ornamentation for both instruments. The second system, marked '(2장)', shows further ornamentation. The third system shows more complex ornamentation, including triplets and grace notes.

위의 <악보 83>에서 살펴보면  $b^b$ 에서  $a^b$ 으로 하행할 경우  $b^b$ 을 퇴성 또는 하행 놓음한다. 피리는  $B^b$ 에서  $c$ 까지 반복적으로 음을 끌어올리는 선율적 요성이 종지 시나타난다. 대금은  $b^b$ 이 대박의 첫 음으로 출현할 때  $b^b$ 의 장식음으로  $b^b-d^b$ 이 나타난다. 피리는  $d^b$  또는  $e^b$ 에서  $b^b$ 으로 하행할 때  $b^b$ 앞에 장식음으로  $d^b \cdot e^b \cdot f$ 가 나타나며, 이를 혀침주법으로 연주한다.

#### ⑤ $d^b$ (파)

<대영산>의  $d^b$ 에서 나타나는 시김새는 아래 <악보 84>에서 보겠다.

<악보 84> 대영산 d^b'의 시김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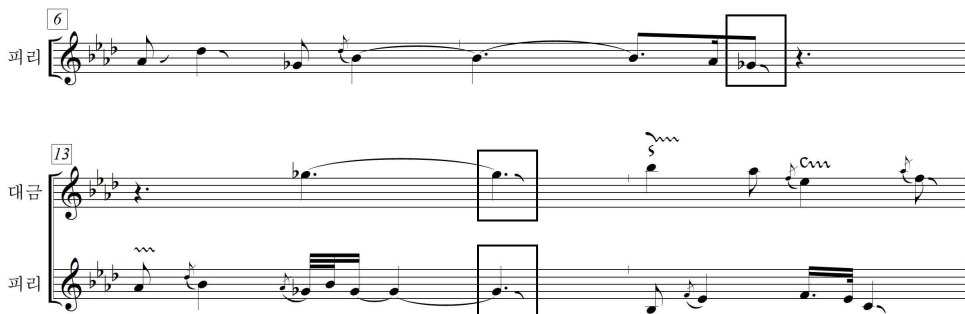


위의 <악보 84>에서 살펴보면 대금은 d^b'을 주로 퇴성하며, d^b'이후에 b^b 또는 a^b으로 하행한다. 피리는 d^b'에서 a^b으로 하행할 때 d^b'을 추성하며, d^b'에서 f 또는 g^b, b^b으로 하행할 때는 d^b'을 퇴성하기도 한다.

⑥ g^b(시^b)

<대영산>의 g^b에서 나타나는 시김새는 아래 <악보 85>에서 보겠다.

<악보 85> 대영산 g^b의 시김새



위의 <악보 85>에서 살펴보면 g^b은 퇴성을 한다.

이상의 내용을 정리하면, <대영산>의 주요 시김새는 다음과 같다. e^b은 굵은 농음을 한다. 한 옥타브 높은 e^b'에서 피리는 보통 농음을 한다. f는 퇴성을 한다. a^b은 평으로 낸다. b^b은 퇴성 또는 하행 농음을 한다.

대금은  $d^b$ '을 주로 퇴성한다. 피리는  $d^b$ '에서  $a^b$ 으로 하행할 때  $d^b$ '을 추성하며,  $d^b$ '에서  $f$ 또는  $g^b$ ,  $b^b$ 으로 하행할 때는  $d^b$ '을 퇴성하기도 한다. 허튼타령조의 구성음인  $g^b$ 에서는 퇴성이 나타난다.

시김새 중 장식음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피리는  $e^b$ '의 장식음으로  $a^b$ 이 나타난다. 또한  $a^b$ 에서  $e^b$ 으로 하행할 경우  $f$ 가 장식음으로 나타나며, 이를 내리더름 주법으로 연주한다. 대금은  $e^b$ '의 장식음으로  $a^b \cdot b^b \cdot a^b \cdot a^b \cdot f \cdot f \cdot a^b$ '이 나타난다. 대금은  $f$ 의 장식음으로  $e^b \cdot a^b$ '이 나타난다.  $a^b$ 의 장식음으로 대금과 피리는  $e^b$ 에서  $a^b$ 으로 상행할 때  $f \cdot e^b$ 이 나타나며 피리는 이를 올리더름 주법으로 연주한다.  $a^b$ 의 장식음으로 대금은  $b^b$ , 피리는  $d^b$ '이 나타난다.  $b^b$ 의 장식음으로 대금은  $b^b \cdot d^b$ ', 피리는  $d^b \cdot e^b \cdot f$ 가 나타나며, 피리는 이를 혀침 주법으로 연주한다.

요컨대, <대영산>의 음계는 ' $e^b$ (솔)- $f$ (라)- $a^b$ (도)- $b^b$ (레)- $d^b$ (파)'이며, 음계 외에 허튼타령조의 구성음인  $g^b$ 이 출현한다. 관용적 구조선율은  $e^b \cdot a^b$ ,  $d^b \cdot a^b$ ,  $e^b \cdot a^b$ ,  $e^b \cdot b^b \cdot a^b$ 이며, 핵음은  $a^b$ (도)  $\cdot$   $e^b$ (솔)이며, 종지음은  $a^b$ (도)이다.

$f$ 는 대부분  $e^b$ 으로 하행하는 경과음으로 나타나며,  $a^b$ 으로 종지 후 나타나는  $f$ 는 다음 악구 또는 악곡이 계속됨을 알려주는 역할을 한다.  $b^b$ 은  $a^b$ 으로 하행하거나  $e^b$ 으로 상행하기 위해 밟고 가는 경과음으로 나타난다.  $d^b$ '은 악구의 시작을 알리는 음이며 이후  $a^b$ 이나  $e^b$ '으로 진행하며, 대부분 경과음으로 나타난다. 허튼타령조의 구성음인  $g^b$ 은 제13악구의 핵음으로 나타나며 다음 악곡에서 조가 변화될 것을 암시한다.

<대영산>의 주요 시김새는 다음과 같다.  $e^b$ 은 굵은 농음을 한다. 한 옥타브 높은  $e^b$ '에서 피리는 보통 농음을 한다.  $f$ 는 퇴성한다.  $a^b$ 은 평으로 낸다.  $b^b$ 은 퇴성 또는 하행 농음을 한다.  $d^b$ '에서 대금은 주로 퇴성을 하며, 피리는 추성 또는 퇴성을 한다.

시김새 중 주요 장식음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피리는  $e^b$ '의 장식음으로  $a^b$ 이 나타난다. 또한  $a^b$ 에서  $e^b$ 으로 하행할 경우  $f$ 가 장식음으로 나

타나며, 피리는 이를 내리더름 주법으로 연주한다. 대금은  $e^b$ 의 장식음으로  $a^b \cdot b^b \cdot a^b \cdot a^b \cdot f \cdot f \cdot a^b$ 이 나타난다.  $a^b$ 의 장식음으로 대금과 피리는  $e^b$ 에서  $a^b$ 으로 상행할 때  $f \cdot e^b$ 이 나타나며 피리는 이를 올리더름 주법으로 연주한다.  $b^b$ 의 장식음으로 피리는  $d^b \cdot e^b \cdot f$ 가 나타나며, 이를 혀침 주법으로 연주한다.

## (2) 엽불도드리 제1장~제4장

<엽불도드리>는 《삼현영산회상》의 다섯 번째 악곡으로 연주된다. <엽불도드리>의 전반부는 엽불조이며 점차 허튼타령조가 혼합되어 나타나고 제5장부터 허튼타령조로 완전히 변한다. 이에 본고에서는 <엽불도드리>를 제1장~제4장과 제5장~제7장을 다른 악조로 보고 나누어 분석하겠다. 본 항에서는 <엽불도드리> 제1장부터 제4장까지를 출현음과 구조선율·핵음·종지음, 그리고 시김새 분석을 통해 악곡을 살펴보겠다.

### 1) 출현음

<엽불도드리>의 제1장~제4장까지의 출현음을 <악보 86>에서 살펴보겠다.¹⁴⁰⁾

---

140) 흰 음표는 주요 출현음이며, 검은 음표는 다른 악조의 출현음, 또는 짧은 경과음이나 장식음으로 출현하는 음이다. 검은 음표의 음이름은 이탤릭체로 구분하였다.



<악보 86> 엽불도드리 제1장~제4장 출현음

<악보 86>를 살펴보면, <엽불도드리> 제1장부터 제4장까지에서 대금의 주요 출현음은  $e^b$ '(솔),  $f$ (라),  $a^b$ '(도),  $b^b$ '(레),  $c''$ (미)이다.  $b^b$ (레)와  $c'$ (미)는 짧은 경과음으로 나타난다.  $g^b$ '(시^b)과  $d^b$ '(파)는 허튼타령조의 구성음으로 제7장단에서, 그리고 제15장단 이후부터 점차 허튼타령조가 혼합되며 출현한다. 피리의 주요 출현음은  $B^b$ (레),  $e^b$ (솔),  $f$ (라),  $a^b$ (도),  $b^b$ (레),  $c'$ (미)이며,  $g^b$ (시^b)과  $d^b$ (파)는 대금과 같은 내용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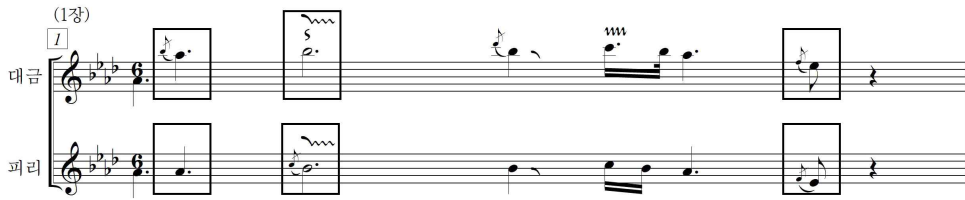
## 2) 구조선율 · 핵음 · 종지음

<엽불도드리>는 총 44장단의 악곡이다. <엽불도드리>에서 악구를 나누는 단위는 두 가지이다. 첫째, 한 장단 단위의 독립적인 선율의 전개와 둘째, 두 장단 단위로 선후 장단이 대구를 이루며 선율이 전개되는 것이다. <엽불도드리>는 총 26개 악구로 나누어지며, 제1장부터 제4장까지의 17개 악구의 구조선율과 악구별 핵음, 종지음을 살펴보겠다. 제4악구와 제7악구는 제2악구와 동일하므로 생략한다.

### ① 엽불도드리 제1악구

<엽불도드리>의 제1악구는 제1장단이다. 제1악구는 다음의 <악보 87>에서 보겠다.

<악보 87> 엽불도드리 제1악구(제1장단)



위의 <악보 87>에서 살펴보면 제1장단의 제1박은  $a^b$ 으로 시작하여 제2박에서  $b^b$ 으로 상행한다.  $b^b$ 은 제4박까지 지속한다. 이후  $b^b$ 은 제4박의 끝에서  $c' \cdot b^b$ 을 경과하여 제5박에서  $a^b$ 으로 하행한다. 이후 제6박에서  $f$ 를 경과하여  $e^b$ 으로 하행하며 악구를 마친다. 제1악구의 구조선율은  $a^b - b^b - a^b - e^b$ 이며, 핵음은  $e^b \cdot a^b \cdot b^b$ , 종지음은  $e^b$ 이다.

② 엽불도드리 제2악구

<엽불도드리>의 제2악구는 제2장단부터 제3장단까지이다. 제2악구는 다음의 <악보 88>에서 보겠다.

<악보 88> 엽불도드리 제2악구(제2장단~제3장단)



위의 <악보 88>에서 살펴보면 제2장단의 제1박은  $b^b$ 으로 시작하여  $a^b \cdot c'$ 를 경과하여 제2박에서  $a^b$ 으로 진행한다.  $a^b$ 은 제5박까지 지속한 후 제6박에서  $b^b \cdot a^b \cdot f$ 를 경과 후 제3장단 제1박의  $e^b$ 으로 하행한다. 이후  $f \cdot e^b$ 을 경과하여 제2박에서  $a^b$ 으로 상행한다. 제3박에서는  $b^b \cdot a^b$ 을 경과하여  $f$ 로 하행한다. 이후 제4박에서는  $e^b$ 으로 하행한 후  $f$ 를 경과한 후

제6박의  $e^b$  으로 귀결한다. 제2악구의 구조선율은  $b^b - a^b - e^b - a^b - e^b - f - e^b$ 이며, 핵음은  $e^b \cdot a^b$ , 종지음은  $e^b$ 이다.

### ③ 엽불도드리 제3악구

<엽불도드리>의 제3악구는 제4장단이다. 제3악구는 다음의 <악보 89>에서 보겠다.

<악보 89> 엽불도드리 제3악구(제4장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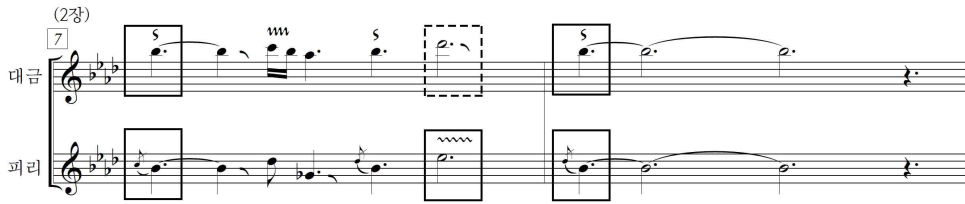
위의 <악보 89>에서 살펴보면 제4장단의 제1박은  $f$ 로 시작하여 제2박에서  $e^b$ 으로 하행한다. 이후 제3박의  $b^b$ 을 경과하여 제4박의  $a^b$ 으로 하행한다.¹⁴¹⁾  $a^b$ 은 제5박까지 지속한 후 제6박에서  $e^b$ 으로 귀결하여 마친다. 제3악구의 구조선율은  $f - e^b - b^b - a^b - e^b$ 이며, 핵음은  $e^b \cdot a^b$ , 종지음은  $e^b$ 이다.

### ④ 엽불도드리 제5악구

<엽불도드리>의 제5악구는 제7장단부터 제8장단까지이다. 제5악구의 구조선율은 다음의 <악보 90>에서 보겠다.

141)  $f$ 를 퇴성하여  $e^b$ 으로 하행하는 진행과  $b^b$ 을 퇴성하여  $a^b$ 으로 하행하는 진행은 전형적인 엽불조의 진행이다.

<악보 90> 염불도드리 제5악구(제7장단~제8장단)



위의 <악보 90>에서 살펴보면 대금은 제1박에서  $b^b$ '으로 시작하여 제3박에서  $a^b$ 으로 하행한다. 피리는 제1박에서  $b^b$ 으로 시작하여 제2박의 끝에서  $d^b$ '을 경과 후 제3박에서  $g^b$ 으로 하행한다. 이때 피리는 허튼타령조의 구성음이 출현한다. 제4박에서는  $b^b$ '으로 진행한 후 제5박에서 피리는  $e^b$ ', 대금은  $d^b$ ''으로 상행한다.¹⁴²⁾ 이후 제8장단에서 피리와 대금은 제1박부터 제5박까지  $b^b$ 으로 지속하며 마친다. 제5악구는 허튼타령조의 양상이 나타난다. 제5악구의 구조선율은  $b^b - a^b / g^b - b^b - e^b' - b^b$ 이며, 핵음은  $b^b \cdot e^b'$ , 종지음은  $b^b$ 이다.

⑤ 염불도드리 제6악구

<염불도드리>의 제6악구는 제9장단부터 제10장단까지이다. 제6악구는 다음의 <악보 91>에서 보겠다.

<악보 91> 염불도드리 제6악구(제9장단~제10장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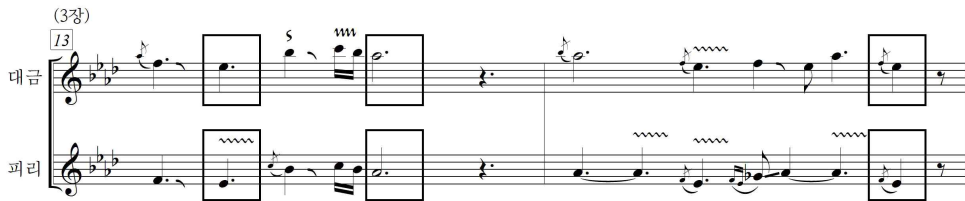
142) 이는 <삼현도드리>에서 피리와 해금이  $e^b$ '으로 진행할 때 대금이  $d^b$ ''으로 진행하는 형태와 동일한 모습으로 허튼타령조의 양상이다.

위의 <악보 91>에서 살펴보면 제9장단의 제1박은  $b^b$ 으로 시작하여 제2박에서  $a^b$ 으로 하행한다. 이후 제3박에서 대금은  $b^b$ '으로 상행하고, 피리는  $b^b$ 을 경과하여  $e^b$ '으로 상행한다. 제4박에서는  $b^b$ 을 경과하여 제5박  $a^b$ 으로 하행한다. 제6박에서는  $f$ 로 하행하며  $f$ 는 퇴성하여 제10장단의 제1박  $e^b$ 으로 하행한다. 제2박에서는  $f$ 를 경과한 후 제3박에서  $e^b$ 으로 다시 진행한다. 제4박에서는  $b^b$ 을 경과한 후 제5박에서  $a^b$ 으로 하행한다. 이후 제6박에서  $e^b$ 으로 귀결하여 종지감을 준다. 피리가 제9장단의 제3박에서  $e^b$ '으로 상행할 때 대금은  $b^b$ 으로 진행한다. 제6악구의 구조선율은  $b^b - a^b - e^b - b^b - a^b - f - e^b - b^b - a^b - e^b$ 이며, 핵음은  $e^b \cdot a^b$ , 종지음은  $e^b$ 이다.

## ⑥ 염불도드리 제8악구

<염불도드리>의 제8악구는 제13장단부터 제14장단까지이다. 제8악구는 다음의 <악보 92>에서 보겠다.

<악보 92> 염불도드리 제8악구(제13장단~제14장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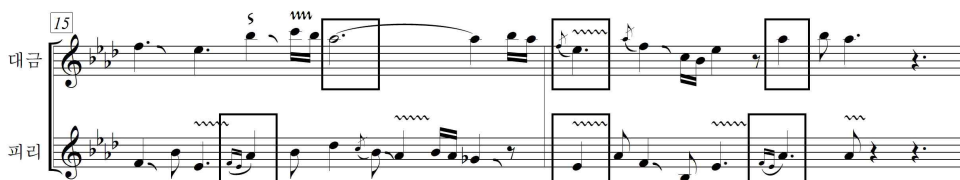


위의 <악보 92>에서 살펴보면 제13장단의 제1박은  $f$ 로 시작하여 제2박에서  $e^b$ 으로 하행한다. 이후 제3박에서  $b^b$ 을 경과한 후, 제4박에서  $a^b$ 으로 하행한다.  $a^b$ 은 제5박까지 지속한다. 제14장단은  $a^b$ 을 중심으로  $e^b \cdot f$ 를 경과한 후 제6박에서  $e^b$ 으로 귀결하여 악구를 마친다. 제8악구의 구조선율은  $f - e^b - b^b - a^b - a^b - e^b - a^b - e^b$ 이며, 핵음은  $e^b \cdot a^b$ , 종지음은  $e^b$ 이다.

## ⑦ 염불도드리 제9악구

<염불도드리>의 제9악구는 제15장단부터 제16장단까지이다. 제9악구의 구조선율은 다음의 <악보 93>에서 보겠다.

<악보 93> 염불도드리 제9악구(제15장단~제16장단)



위의 <악보 93>에서 살펴보면 제15장단의 제1박은 f로 시작하여 제2박에서 e^b으로 하행한다. 이후 a^b을 중심으로 b^b·d^b/c^b을 경과하여 제5박까지 진행한다. 피리는 제6박에서 허튼타령조의 구성음 g^b으로 하행한다. 대금은 a^b을 제6박까지 지속한 후, 제16장단의 제1박에서 피리와 함께 e^b으로 하행한다. 이후 f를 경과하여 제3박에서 다시 e^b으로 하행한다. 제4박에서는 a^b으로 귀결하여 제6박까지 지속하며 종지감을 준다. 제9악구의 구조선율은 f-e^b-a^b-b^b-a^b/g^b-e^b-f-e^b-a^b이며, 핵음은 e^b·a^b, 종지음은 a^b이다.

⑧ 염불도드리 제10악구

<염불도드리>의 제10악구는 제17장단부터 제18장단까지이다. 제10악구의 구조선율은 다음의 <악보 94>에서 보겠다.

<악보 94> 염불도드리 제10악구(제17장단~제18장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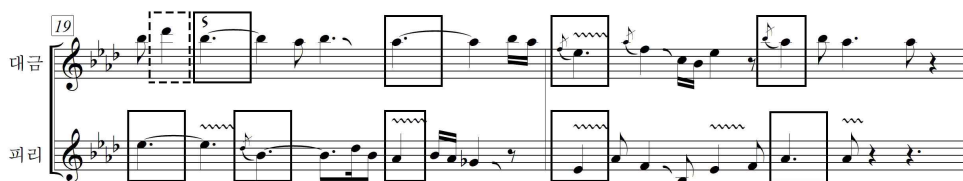


위의 <악보 94>에서 살펴보면 제17장단의 제1박은  $b^b$ 으로 시작하여  $a^b$ 을 경과한 후 제3박에서 대금은  $d^b$ 으로上行하고 피리는 다시  $b^b$ 으로 돌아온다. 제4박에서는 대금이  $b^b$ 으로 하행한 후 제5박에서는 대금과 피리 모두  $a^b$ 으로 하행한다. 제6박에서 대금은  $f$ , 피리는  $g^b$ 으로 하행한다. 이때 허튼타령조의 종지감이 나타난다.  $g^b \cdot f$ 는 퇴성하며 제18장단의 제1박  $e^b$ 으로 도달한다. 이후  $f$ 를 경과하여 제3박에서  $e^b$ 으로 다시 하행한 후, 제4박의  $a^b$ 으로 귀결한다.  $a^b$ 은 제5박까지 지속하며 종지감을 주며, 제6박에서는  $b^b$ 을 들어내며 종지감을 상실하고, 다음 진행을 예고한다.¹⁴³⁾ 제10악구의 구조선율은  $b^b - a^b - f/g^b - e^b - f - e^b - a^b (-b^b)$ 이며, 핵음은  $e^b \cdot a^b \cdot b^b$ , 종지음은  $a^b$ 이다.

### ⑨ 염불도드리 제11악구

<염불도드리>의 제11악구는 제19장단부터 제20장단까지이다. 제11악구는 다음의 <악보 95>에서 보겠다.

<악보 95> 염불도드리 제11악구(제19장단~제20장단)



위의 <악보 95>에서 살펴보면 제19장단의 제1박에서 피리는  $e^b$ , 대금

143)  $a^b$ 에서 종지감을 준 후  $b^b$ 으로上行하여 악구를 마치는 것은 <염불도드리>에서는 처음 출현하는 진행이다. 이어지는 다음 악구의 첫 음은  $e^b$ 으로上行하여 시작한다. 악구의 마지막 음인  $b^b$ 과 다음 악구의 첫 음  $e^b$ 의 진행을 붙여서 살펴보면 허튼타령조의 관용적 구조선율인  $b^b - e^b$ 과 같다. 이것으로 점차 <삼현도드리>와 같은 허튼타령조가 혼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제12악구의 마지막에서도 유사한 진행이 나타난다.

은  $d^b$ ''으로 시작한다.¹⁴⁴⁾ 이후 대금은 제2박, 피리는 제3박에서  $b^b$ 으로 하행한다.  $b^b$ 은 제4박까지 지속한 후 제5박에서  $a^b$ 으로 하행한다. 제6박에서 피리는  $g^b$ 으로 하행하며 허튼타령조의 종지감을 준다. 대금은  $a^b$ '을 제6박까지 지속하며 다음 장단의  $e^b$ '으로 하행한다. 제20장단은 대금과 피리가 동일한 진행을 한다. 제20장단의 제1박에서  $e^b$ 으로 하행한 후  $f$ 를 경과하여 제3박에서  $e^b$ 으로 다시 돌아온다. 제4박에서는  $a^b$ 으로 귀결하여 종지감을 준다. 제11악구의 전반부는 허튼타령조가 혼합되어 나타나고, 후반부는 염불조로 돌아와 악구를 마친다. 제11악구의 구조선율은  $e^b \cdot b^b \cdot a^b \cdot a^b / g^b \cdot e^b \cdot f \cdot e^b \cdot a^b$ 이며, 핵음은  $e^b \cdot a^b \cdot b^b \cdot e^b$ , 종지음은  $a^b$ 이다.

#### ⑩ 염불도드리 제12악구

<염불도드리>의 제12악구는 제21장단부터 제22장단까지이다. 제12악구는 다음의 <악보 96>에서 보겠다.

<악보 96> 염불도드리 제12악구(제21장단~제22장단)



위의 <악보 96>에서 살펴보면 제12악구는 대금과 피리의 선율이 다르다. 대금은 제21장단의 제1박에서  $d^b$ ''으로 시작하여 제2박에서  $b^b$ 으로 하행한 후, 제5박까지  $b^b$ 을 지속하다가 제6박에서  $a^b$ 으로 하행하고, 이를 제22장단에서 반복한다. 제21장단의 제1박에서 피리는  $b^b$ 으로 시작하여 제3박까지 지속한다. 제4박에서는  $d^b$ '으로 상행하여 제5박까지 지속

144) 이는 <삼현도드리>의 진행과 같으며, 이와 같은 진행에서 피리의  $e^b$ '을 구조선율 및 핵음으로 본다.



한 후 제6박에서  $b^b$ 으로 다시 돌아온다. 이후 제22장단의 제1박에서  $e^b$ 으로上行하여 제2박까지 지속한다. 제3박은  $b^b$ 을 경과하여 제4박에서  $d^b$ 으로上行한 후 제5박에서  $g^b$ 으로下行한다.  $g^b$ 은 퇴성하며 종지감을 준다. 제6박에서는  $b^b$ 으로 장3도上行하여 다음 진행¹⁴⁵⁾을 예고한다. 피리는 허튼타령조의 양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반면 대금은 엽불의 종지음인  $a^b$ 으로 종지하여 악조가 혼합된 양상이 나타난다. 제12악구의 구조선율은  $b^b-d^b-b^b-e^b-b^b-d^b-a^b/g^b(-b^b)$ 이며, 핵음은  $a^b \cdot b^b \cdot e^b$ , 대금의 종지음은  $a^b$ , 피리의 종지음은  $g^b$ 이다.

### ⑪ 엽불도드리 제13악구

<엽불도드리>의 제13악구는 제23장단부터 제24장단까지이다. 제13악구는 다음의 <악보 97>에서 보겠다.

<악보 97> 엽불도드리 제13악구(제23장단~제24장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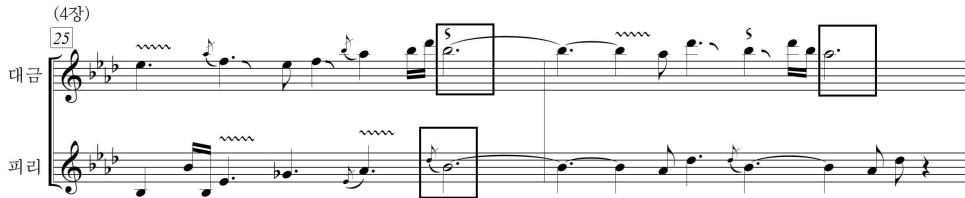
위의 <악보 97>는 제13악구이며, 제13악구는 제11악구와 유사하며 대금이 제23장단의 마지막 박에서  $f$ 로下行하는 것이 다르다. 대금이  $f$ 로 진행하는 때에 피리는  $g^b$ 으로 진행하여 허튼타령조가 혼합된 양상이 나타난다. 제13악구의 구조선율은  $e^b-b^b-a^b-f/g^b-e^b-f-e^b-a^b$ 이며, 핵음은  $e^b \cdot a^b \cdot b^b \cdot e^b$ , 종지음은  $a^b$ 이다.

### ⑫ 엽불도드리 제14악구

145) 다음 악구의 첫 음은  $e^b$ 으로, 이를 붙여서 살펴보면 허튼타령조의 관용적 구조선율인  $b^b-e^b$ 이 나타난다.

<염불도드리>의 제14악구는 제25장단부터 제26장단까지이다. 제14악구는 다음의 <악보 98>에서 보겠다.

<악보 98> 염불도드리 제14악구(제25장단~제26장단)



위의 <악보 98>에서 살펴보면 제25장단의 제1박에서 피리는 B^b을 경과하여 제2박에서 e^b으로 상행한다. 대금은 제1박에서 e^b'으로 시작한다. 이후 대금과 피리는 제3박부터 제5박까지 f/g^b · a^b을 경과하여 b^b으로 도달한다. b^b은 제26장단 제2박까지 지속한다. 제2박의 끝에서는 a^b을 경과하여 제3박의 d^b'으로 상행한다. 이후 대금은 b^b'에서 a^b'으로 하행하여 종지감을 주고, 피리는 제1박부터 제3박의 선율을 반복하여 d^b'으로 마친다. 피리는 종지감이 없다. 제14악구의 구조선율은 e^b-f/g^b-a^b-b^b-d^b'-b^b-a^b/d^b'이며, 핵음은 a^b · b^b, 종지음은 a^b이다.

⑬ 염불도드리 제15악구

<염불도드리>의 제15악구는 제27장단부터 제28장단까지이다. 제15악구는 다음의 <악보 99>에서 보겠다.

<악보 99> 염불도드리 제15악구(제27장단~제28장단)



위의 <악보 99>에서 살펴보면 제27장단의 제1박은  $b^b$ 으로 시작하여 제2박에서  $a^b$ 으로 하행한다. 제3박에서 피리는  $d^{b'}$ , 대금은  $b^{b'}$ 으로 진행하여 제28장단의 제1박까지 지속한다. 제2박에서는  $a^b$ 으로 하행하여 제6박까지  $a^b$ 을 지속하며 악구를 마친다. 제15악구의 구조선율은  $b^b - a^b - d^{b'}$  -  $a^b$ 이며, 핵음은  $a^b \cdot d^{b'}$ , 종지음은  $a^b$ 이다.

⑭ 염불도드리 제16악구

<염불도드리>의 제16악구는 제29장단이다. 제16악구는 다음의 <악보 100>에서 보겠다.

<악보 100> 염불도드리 제16악구(제29장단)



위의 <악보 100>에서 살펴보면 제29장단의 제1박은  $b^b$ 으로 시작하여,  $d^{b'}$ 을 경과 후 제2박에서  $a^b$ 으로 하행한다. 제3박에서는  $e^b$ 으로 하행한 후 제4박에서 대금은  $f$ , 피리는  $g^b$ 을 경과하여 제5박의  $a^b$ 으로 순차 상행한 후, 제6박에서  $e^b$ 으로 다시 하행하여 마친다.¹⁴⁶⁾ 제16악구의 구조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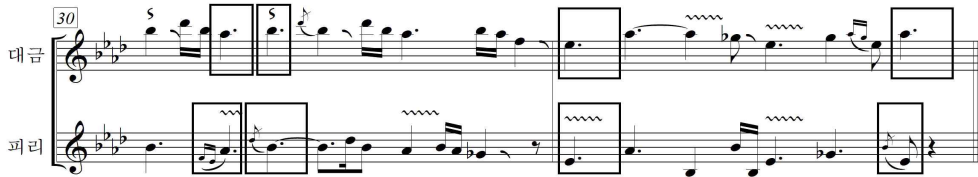
146) 본 악구는 <삼현도드리>의 제11악구와 동일한 선율이다. 그러나 대금은

울은  $b^b - a^b - e^b - f/g^b - a^b - e^b$ 이며, 핵음은  $e^b \cdot a^b$ , 종지음은  $e^b$ 이다.

### ⑮ 염불도드리 제17악구

<염불도드리>의 제17악구는 제30장단부터 제31장단까지이다. 제17악구는 다음의 <악보 101>에서 보겠다.

<악보 101> 염불도드리 제17악구(제30장단~제31장단)



위의 <악보 101>에서 살펴보면 제30장단은  $b^b$ 과  $a^b$ 을 중심으로 진행하다 제6박에서 대금은  $f$ 로, 피리는  $g^b$ 으로 하행한다. 이후 제31장단의 제1박에서  $e^b$ 으로 하행한다. 제2박에서는  $a^b$ 으로 상행한다. 피리는 제3박에서  $B^b$ 을 경과한 후 제4박에서  $e^b$ 으로 진행한다. 대금은 제3박까지  $a^b$ 을 지속한 후 제4박에서  $e^b$ 으로 하행한다. 제5박에서 대금과 피리는  $g^b$ (147)을 경과한 후 제6박에서 대금은  $a^b$ 으로 상행, 피리는  $e^b$ 으로 하행하여 종지음을 준다. 대금과 피리의 종지음이 다르게 나타나지만 두 음 모두 종지음을 준다. 제17악구의 구조선율은  $b^b - a^b - b^b - a^b - f/g^b - e^b - a^b - e^b - g^b - a^b/e^b$ 이며, 핵음은  $e^b \cdot a^b \cdot b^b$ 이다. 대금의 종지음은  $a^b$ , 피리의 종지음은  $e^b$ 이다.

이상의 내용을 정리하면, <염불도드리>의 관용적 구조선율은  $e^b - a^b$ ,  $a^b - e^b$ ,  $b^b - a^b - e^b$ 이며, 핵음과 종지음은  $e^b$ (술) ·  $a^b$ (도)이다.

<삼현도드리>에서  $g^b$ 을 내던 자리에서  $f$ 를 낸다.

147) 제31장단 제5박에서 모든 악기가 동시에  $g^b$ 을 내는 것으로 <삼현도드리>의 악조로 완전히 변화됨을 알 수 있다.

f는 e^b으로, b^b은 a^b으로 하행하는 경향을 보인다. c'는 짧은 경과음으로 나타난다.

<염불도드리>는 제5악구와 제9악구~제17악구에서 허튼타령조가 혼합되어 나타난다. 이때 허튼타령조의 구성음인 g^b과 d^{b'}이 나타난다. 대금이 주로 a^{b'}또는 f'로 진행할 때 피리가 g^b으로 진행하며 대금은 마지막 제17악구에서 g^{b'}이 출현한다. d^{b'}은 대금과 피리 모두 나타나며 특히 피리가 e^{b'}으로 진행할 때 대금은 d^{b''}으로 진행하는 형태가 나타난다. 또한 <삼현도드리>의 관용적 구조선율 b^b-e^{b'}, b^b-g^b, d^{b'}-g^b이 나타난다.

<염불도드리> 제1장부터 제4장까지의 구조선율·핵음·종지음 분석을 정리하면 다음의 [표 17]¹⁴⁸⁾에서 보는 것과 같다.

---

148) 구조선율에서 밑줄 친 부분은 관용적 구조선율에 해당한다. 이탤릭체와 검은 음표는 다른 악조(허튼타령조)의 특징이 나타나는 것이다.

[표 17] 염불도드리 제1장~제4장 구조선율 · 핵음 · 종지음

악구	구조선율(149)	핵음	종지음
1	$a^b - \underline{b^b - a^b - e^b}$	$e^b \cdot a^b \cdot b^b$	$e^b$
2	$\underline{b^b - a^b - e^b - a^b - e^b - f - e^b}$	$e^b \cdot a^b$	$e^b$
3	$f - \underline{e^b - b^b - a^b - e^b}$	$e^b \cdot a^b$	$e^b$
4	$\underline{b^b - a^b - e^b - a^b - f - e^b - f - e^b}$ (제2악구와 유사)	제2악구와 동일	
5	$b^b - a^b / g^b - b^b - e^{b'} - b^b$	$b^b \cdot e^{b'}$	$b^b$
6	$b^b - a^b - e^{b'} - b^b - a^b - f - e^b - \underline{b^b - a^b - e^b}$	$e^b \cdot a^b$	$e^b$
7	제2악구와 동일		
8	$f - \underline{e^b - b^b - a^b - a^b - e^b - a^b - e^b}$	$e^b \cdot a^b$	$e^b$
9	$f - \underline{e^b - a^b - b^b - a^b / g^b - e^b - f - e^b - a^b}$	$e^b \cdot a^b$	$a^b$
10	$b^b - a^b - f / g^b - e^b - f - \underline{e^b - a^b} (-b^b)$	$e^b \cdot a^b \cdot b^b$	$a^b$
11	$e^{b'} - b^b - a^b - a^b / g^b - e^b - f - \underline{e^b - a^b}$	$e^b \cdot a^b \cdot b^b \cdot e^{b'}$	$a^b$
12	$b^b - d^{b'} - b^b - e^{b'} - b^b - d^{b'} - a^b / g^b (-b^b)$	$a^b \cdot b^b \cdot e^{b'}$	$a^b / g^b$
13	제11악구와 동일		
14	$e^b - f / g^b - a^b - b^b - d^{b'} - b^b - a^b / d^{b'}$	$a^b \cdot b^b$	$a^b$
15	$b^b - a^b - d^{b'} - a^b$	$a^b \cdot d^{b'}$	$a^b$
16	$b^b - a^b - e^b - f / g^b - \underline{a^b - e^b}$	$e^b \cdot a^b$	$e^b$
17	$b^b - a^b - b^b - a^b - f / g^b - \underline{e^b - a^b} - e^b - g^b - a^b / e^b$	$e^b \cdot a^b \cdot b^b$	$a^b / e^b$
종합			

### 3) 시김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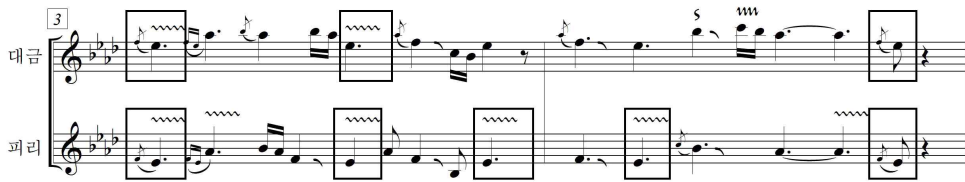
<염불도드리> 제1장부터 제4장까지의 시김새는  $e^b$ (솔),  $f$ (라),  $a^b$ (도),  $b^b$ (레),  $c'$ (미)와  $g^b$ (시^b),  $d^{b'}$ (파) 일곱 음으로 나누어 살펴보겠다.

149) 이탤릭체의 구조선율은 다른 악조가 나타나는 부분이다.

## ① e^b(솔)

<염불도드리> 제1장부터 제4장까지의 e^b에서 나타나는 시김새는 아래 <악보 102>에서 보는 것과 같다.

<악보 102> 염불도드리 e^b의 시김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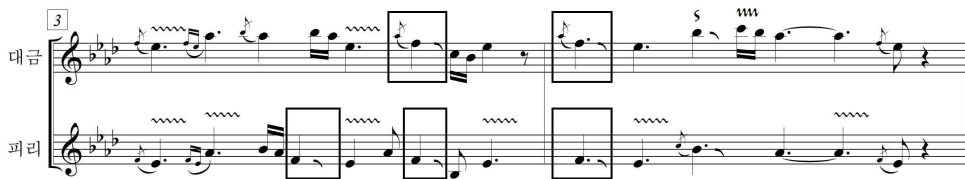


위의 <악보 102>에서 살펴보면 e^b은 주로 보통 농음을 한다. a^b에서 e^b으로 하행할 경우 대금·피리 모두 e^b앞에 f가 장식음으로 나타나며, 피리는 이를 내리더름 주법으로 연주한다. 또한 피리는 b^b-B^b이, 대금은 c'-b^b이 장식음으로 나타난다.

## ② f(라)

<염불도드리> 제1장부터 제4장까지의 f에서 나타나는 시김새는 아래 <악보 103>에서 보는 것과 같다.

<악보 103> 염불도드리 f의 시김새



위의 <악보 103>에서 살펴보면 f에서 e^b으로 하행할 경우 f를 퇴성한

다.  $a^b$ 에서  $f$ 로 하행할 경우 또한  $f$ 를 퇴성하며,  $f$ 앞에  $a^b$ ,  $b^b$ - $a^b$ 이 장식음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 ③ $a^b$ (도)

<염불도드리> 제1장부터 제4장까지의  $a^b$ 에서 나타나는 시김새는 아래 <악보 104>에서 보는 것과 같다.

<악보 104> 염불도드리  $a^b$ 의 시김새



위의 <악보 104>에서 살펴보면  $a^b$ 에서 피리는 보통 농음을 하며 대금은 평으로 낸다. 대금은  $a^b$ 에서  $b^b$ 으로 상행할 때  $a^b$ 을 보통 농음하며 이는 제18장단에서 1회 나타난다. 대금과 피리는  $e^b$ 에서  $a^b$ 으로 상행할 때  $f$ - $e^b$ 이 장식음으로 나타나며, 피리는 이를 올리더름 주법으로 연주한다. 대금은  $a^b$ 이 대박의 첫 음으로 나타날 때 장식음으로  $b^b$ 이 나타난다. 피리는 제14장단과 제18장단에서  $g^b$ 에서 음을 미끄러지듯 끌어올려  $a^b$ 까지 상행하며, 이는 허튼타령조가 혼재된 양상을 나타낸다.

### ④ $b^b$ (레)

<염불도드리> 제1장부터 제4장까지의  $b^b$ 에서 나타나는 시김새는 아래 <악보 105>에서 보는 것과 같다.



<악보 105> 엽불도드리  $b^b$ 의 시김새

위의 <악보 105>에서 살펴보면  $b^b$ 은  $a^b$ 으로 하행할 경우 퇴성 또는 하행 놓음을 한다. 대금은  $b^b$ 에서  $d^{b''}$ 으로 상행 시  $b^b$ 을 보통 놓음하며 이는 제26장단에서 1회 나타난다. 이때 피리는 시김새가 나타나지 않으며, 이는 허튼타령조의 시김새이다. 대금은  $b^b$ 이 대박의 첫 음으로 출현할 때 장식음으로  $b^b-d^{b''}$ 이 나타나며, 동음 진행할 경우 장식음으로  $d^{b''}$ 이 나타난다.¹⁵⁰⁾ 피리는  $b^b$ 의 장식음으로  $c'$ 가 나타난다.

⑤  $c'$ (미)

<엽불도드리> 제1장부터 제4장까지의  $c'$ 에서 나타나는 시김새는 아래 <악보 106>에서 보는 것과 같다.

<악보 106> 엽불도드리  $c'$ 의 시김새

위의 <악보 106>에서 살펴보면 대금은  $b^b$ 에서  $a^b$ 으로 하행 전  $c''-b^b$

150) 이때 장식음  $d^{b''}$ 은 허튼타령조의 출현이라 볼 수 없다. 대금은 연주법상  $b^b$ 에서 악조와 상관없이 위와 같은 장식음이 나타난다.

을 경과하는데, 이때 c"에서 목튀김 놓음을 한다. 피리는 c'의 시김새가 나타나지 않는다.

## ⑥ g^b(시^b)

<염불도드리> 제1장부터 제4장까지의 g^b에서 나타나는 시김새는 아래 <악보 107>에서 보는 것과 같다.

<악보 107> 염불도드리 g^b의 시김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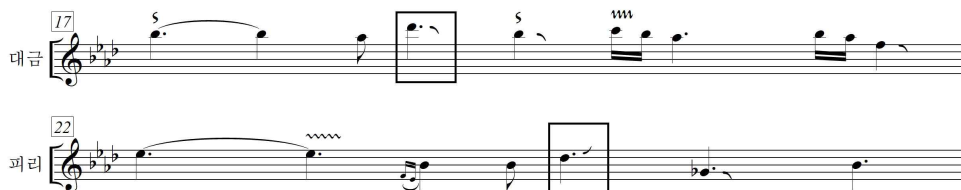


위의 <악보 107>에서 살펴보면 g^b은 퇴성을 하며, 이는 허튼타령조의 시김새이다. 이는 피리에서 나타나며, 이때 대금은 f를 퇴성한다. 그러나 제4장의 마지막 장단에서는 대금 또한 g^b을 퇴성하며, 이후 허튼타령조로 바뀐다.

## ⑦ d^b(파)

<염불도드리> 제1장부터 제4장까지의 d^b에서 나타나는 시김새는 아래 <악보 108>에서 보는 것과 같다.

<악보 108> 염불도드리 d^b의 시김새



위의 <악보 108>에서 살펴보면 대금은  $d^b$ 을 퇴성한다. 피리는 22마디에서  $d^b$ 을 추성하며  $g^b$ 으로 하행하여, 허튼타령조의 시김새가 나타난다.

이상의 내용을 정리하면, <염불도드리>의 주요 시김새는 다음과 같다.  $e^b$ 은 보통 농음을,  $f$ 는 퇴성을 한다.  $a^b$ 에서 피리는 보통 농음을 하며 대금은 평으로 낸다.  $b^b$ 은 퇴성 또는 하행 농음을 한다.  $c'$ 에서 대금은 목튀김 농음을 하며, 피리는 시김새가 나타나지 않는다.

시김새 중 장식음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e^b$ 의 장식음으로 대금·피리 모두  $a^b$ 에서  $e^b$ 으로 하행할 경우  $f$ 가 장식음으로 나타나며, 피리는 이를 내리더름 주법으로 연주한다. 또한 피리는  $b^b$ - $B^b$ 이, 대금은  $c'$ - $b^b$ 이  $e^b$ 의 장식음으로 나타난다.  $f$ 의 장식음으로는  $a^b$ · $b^b$ - $a^b$ 이 나타난다.  $a^b$ 의 장식음으로 대금과 피리는  $e^b$ 에서  $a^b$ 으로 상행할 때  $f$ - $e^b$ 이 장식음으로 나타나며, 피리는 이를 올리더름 주법으로 연주한다. 또한 대금은  $a^b$ 의 장식음으로  $b^b$ 이 나타난다.  $b^b$ 의 장식음으로 대금은  $b^b$ - $d^b$ · $d^b$ , 피리는  $c'$ 가 장식음으로 나타난다.

허튼타령조의 시김새는 다음과 같다. 피리는  $g^b$ 에서 음을 미끄러지듯  $a^b$ 으로 끌어올리는 연주법이 나타난다.  $g^b$ 은 퇴성을 한다.  $d^b$ 에서 대금은 퇴성을, 피리는 추성을 한다.

요컨대, <염불도드리>의 음계는 ‘ $e^b$ (솔)- $f$ (라)- $a^b$ (도)- $b^b$ (레)- $c'$ (미)’이다. 관용적 구조선율은  $e^b$ - $a^b$ ,  $a^b$ - $e^b$ ,  $b^b$ - $a^b$ - $e^b$ 이며, 핵음과 종지음은  $e^b$ (솔)· $a^b$ (도)이다.

$f$ 는  $e^b$ 으로,  $b^b$ 은  $a^b$ 으로 하행하는 경향을 보인다.  $c'$ 는 짧은 경과음으로 나타난다.

주요 시김새는 다음과 같다.  $e^b$ 은 보통 농음을 한다.  $f$ 는 퇴성한다.  $a^b$ 은 평으로 내며, 피리는 보통 농음을 하기도 한다.  $b^b$ 은 퇴성 또는 하행 농음을 한다.  $c'$ 에서 대금은 목튀김 농음을 하며, 피리는 시김새가 나타

나지 않는다.

시김새 중 주요 장식음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e^b$ 의 장식음으로 대금 · 피리 모두  $a^b$ 에서  $e^b$ 으로 하행할 경우  $f$ 가 장식음으로 나타나며, 피리는 이를 내리더름 주법으로 연주한다. 또한 피리는  $b^b$ - $B^b$ 이, 대금은  $c'-b^b$ 이  $e^b$ 의 장식음으로 나타난다.  $a^b$ 의 장식음으로 대금과 피리는  $e^b$ 에서  $a^b$ 으로 상행할 때  $f-e^b$ 이 장식음으로 나타나며, 피리는 이를 올리더름 주법으로 연주한다.

<염불도드리>는 전반부에서 순수한 염불조의 진행을 보이다가 점차 허튼타령조가 혼합되어 나타난다. 이와 같은 악조의 혼재 양상은 제4절에서 정리하여 살펴보겠다.

### (3) 삼현타령 제2장~제3장

<삼현타령>은 ≪삼현영산회상≫의 여섯 번째 악곡으로 연주되며, 제2장~제3장과 돌장이 염불조에 해당한다. 돌장은 <별곡타령>으로 넘어가기 위한 부분으로 <별곡타령>의 악조인 당악조가 혼합되어 나타난다. 이에 <삼현타령> 돌장은 다음 항목에서 분리하여 살펴보겠다. 본 항에서는 <삼현타령> 제2장~제3장을 출현음과 구조선율 · 핵음 · 종지음, 그리고 시김새 분석을 통해 악곡을 살펴보겠다.

#### 1) 출현음

<삼현타령>의 제2장~제3장까지의 출현음을 <악보 109>에서 살펴보겠다.¹⁵¹⁾

---

151) 흰 음표는 주요 출현음이며, 검은 음표는 다른 악조의 출현음이다. 검은 음표의 음이름은 이탤릭체로 구분하였다.

<악보 109> 삼현타령 제2장~제3장 출현음

대금

e^{b'}(솔) f'(라) g^{b'}(시^b) a^{b'}(도) b^{b'}(레) d^{b''}(파)

피리

B^b(레) e^b(솔) f(라) g^b(시^b) a^b(도) b^b(레) d^{b'}(파) e^{b'}(솔)

<악보 109>를 살펴보면, <삼현타령>에서 대금의 주요 출현음은 e^{b'}(솔), f'(라), a^{b'}(도), b^{b'}(레), d^{b''}(파)이며, 허튼타령조의 구성음 g^{b'}(시^b)이 출현한다. 피리의 주요 출현음은 B^b(레), e^b(솔), f(라), a^b(도), b^b(레), d^{b'}(파), e^{b'}(솔)이며, 허튼타령조의 구성음 g^b(시^b)이 출현한다.

## 2) 구조선율 · 핵음 · 종지음

<삼현타령>은 총 27장단의 악곡이다. <삼현타령>의 악구는 한 장단 또는 대구를 이루는 두 장단 단위로 나눈다. <삼현타령>의 악구는 총 19개로 나누어지며, 제2장부터 제3장까지는 제7악구부터 제17악구까지로 총 11개 악구의 구조선율과 악구별 핵음, 종지음을 살펴보겠다. 제15악구부터 제16악구는 제12악구부터 제13악구와 동일하므로 생략한다.

### ① 삼현타령 제7악구

<삼현타령>의 제7악구는 제11장단이다. 제7악구는 다음의 <악보 110>에서 보겠다.

<악보 110> 삼현타령 제7악구(제11장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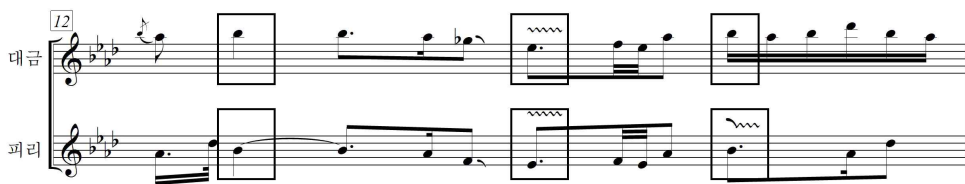


위의 <악보 110>에서 살펴보면 제11장단의 제1박은  $b^b$ 으로 시작하여  $a^b$ 으로 하행한다. 제2박은 다시  $b^b$ 으로 시작한 후, 제3박에서 피리는  $e^b$ , 대금은  $d^b$ 으로 상행한다. 이후 제3박의 끝에서  $b^b$ 을 경과 후, 제4박에서  $a^b$ 으로 하행한다.  $a^b$ 은  $e^b$ 으로 하행하여 악구를 마친다. 제7악구의 구조선율은  $b^b - e^b - b^b - a^b - e^b$ 이며, 핵음은  $e^b \cdot a^b \cdot b^b$ , 종지음은  $e^b$ 이다.

② 삼현타령 제8악구

<삼현타령>의 제8악구는 제12장단이다. 제8악구는 다음의 <악보 111>에서 보겠다.

<악보 111> 삼현타령 제8악구(제12장단)



위의 <악보 111>에서 살펴보면 제12장단의 제1박은  $a^b$ 을 경과하여  $b^b$ 으로 상행한다.  $b^b$ 은 제2박까지 지속하며, 2박의 끝에서 대금은  $g^b$ , 피리는  $f$ 로 하행한다. 이때 허튼타령조의 구성음이 대금에서 출현한다. 제3박에서는  $e^b$ 으로 하행한다.  $e^b$ 은  $f$ 를 경과하여  $a^b$ 으로 상행한다. 제4박에서는  $b^b$ 으로 상행한 후, 제4박의 끝에서 대금은  $a^b$ 으로 하행하고, 피리는

d^b'으로 상행하여 다음 악구와의 연결을 위한 예비적 음으로 악구를 마친다. 제8악구의 구조선율은 b^b-e^b-b^b-a^b/d^b'이며, 핵음은 e^b · b^b, 대금의 종지음은 a^b, 피리의 종지음은 d^b'이다. 제8악구의 종지감은 약하다.

### ③ 삼현타령 제9악구

<삼현타령>의 제9악구는 제13장단이다. 제9악구는 다음의 <악보 112>에서 보겠다.

<악보 112> 삼현타령 제9악구(제13장단)



위의 <악보 112>에서 살펴보면 제13장단의 제1박은 f로 시작한다. f는 제2박까지 지속한 후, e^b으로 하행한다. 제3박에서는 B^b을 경과한 후 제3박의 끝에서 e^b으로 상행한다. 제4박에서는 a^b으로 귀결하여 종지감을 준다. 그러나 제4박의 끝에서 b^b을 들어내며 종지감을 상실하고, 다음 악구의 진행을 예비한다. 제9악구의 구조선율은 f-e^b-B^b-e^b-a^b(-b^b)¹⁵²⁾이며, 핵음은 e^b · f · a^b, 종지음은 a^b이다.

### ④ 삼현타령 제10악구

<삼현타령>의 제10악구는 제14장단이다. 제10악구는 다음의 <악보 113>에서 보겠다.

152) 종지음 이후 짧게 들어내는 음은 구조선율의 괄호 안에 넣는다.

<악보 113> 삼현타령 제10악구(제14장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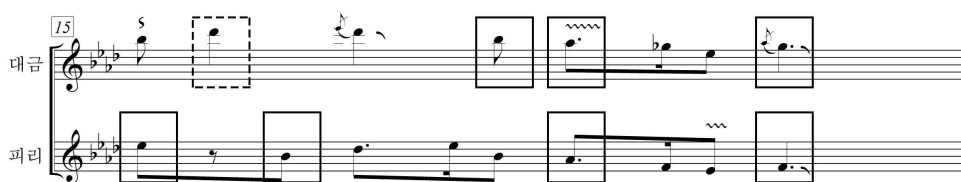


위의 <악보 113>에서 살펴보면 제14장단의 제1박에서 피리는  $e^b'$ 으로 대금은  $d^b''$ 으로 시작한다. 제1박의 끝에서  $b^b$ 으로 하행 후, 제2박까지  $b^b$ 을 이어간다.  $b^b$ 은 퇴성하여 제3박에서  $a^b$ 으로 하행한다. 제3박의 끝에서  $e^b$ 으로 하행한 후, 제4박에서  $a^b$ 으로 진행하여 종지감을 준다. 그러나 제4박의 끝에서  $b^b$ 으로 상행하여 종지감을 상실하며 다음 악구의 진행을 예비한다. 제10악구의 구조선율은  $e^b' \cdot b^b \cdot a^b (-b^b)$ 이며, 핵음은  $a^b \cdot b^b \cdot e^b'$ , 종지음은  $a^b$ 이다.

⑤ 삼현타령 제11악구

<삼현타령>의 제11악구는 제15장단이다. 제11악구는 다음의 <악보 114>에서 보겠다.

<악보 114> 삼현타령 제11악구(제15장단)



위의 <악보 114>에서 살펴보면 제15장단의 제1박에서 피리는  $e^b'$ 으로 대금은  $d^b''$ 으로 시작한다. 제1박의 끝에서  $b^b$ 으로 하행 후, 제2박까지  $b^b$ 을 이어간다.  $b^b$ 은 퇴성하여 제3박에서  $a^b$ 으로 하행한다. 제3박의 끝에서  $e^b$ 으로 하행한 후, 제4박에서  $a^b$ 으로 진행하여 종지감을 준다. 그러나 제4박의 끝에서  $b^b$ 으로 상행하여 종지감을 상실하며 다음 악구의 진행을 예비한다. 제11악구의 구조선율은  $e^b' \cdot b^b \cdot a^b (-b^b)$ 이며, 핵음은  $a^b \cdot b^b \cdot e^b'$ , 종지음은  $a^b$ 이다.



시작하여  $b^b$ 을 경과한 후, 제2박에서는  $d^b$ '으로 하행한다. 대금은 제1박부터 제2박까지  $d^b$ "을 지속한다. 제2박의 끝에서는 대금·피리 모두  $b^b$ 을 경과 후, 제3박에서  $a^b$ 으로 하행한다. 제3박의 끝에서 대금은  $g^b$ 을 피리는  $f$ 를 경과하여  $e^b$ 으로 하행한다. 제4박에서 대금은  $g^b$ '으로 피리는  $f$ 로 진행한다. 대금의  $g^b$ '과 피리의  $f$ 는 퇴성하며 허튼타령조의 종지감을 준다.¹⁵⁴⁾ 제11악구의 구조선율은  $e^b-d^b-b^b-a^b-g^b/f$ 이며, 핵음은  $a^b \cdot b^b \cdot e^b$ , 대금의 종지음은  $g^b$ , 피리의 종지음은  $f$ 이다.

## ⑥ 삼현타령 제12악구

<삼현타령>의 제12악구는 제16장단이다. 제12악구는 다음의 <악보 115>에서 보겠다.

<악보 115> 삼현타령 제12악구(제16장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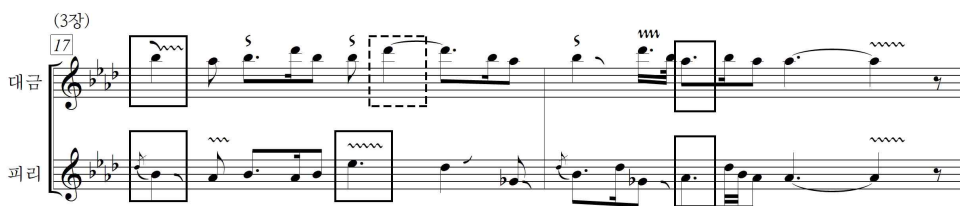
위의 <악보 115>에서 살펴보면 제16장단의 제1박은  $f$ 로 시작하여 제1박의 끝에서  $d^b \cdot b^b$ 을 경과한 후, 제2박에서  $e^b$ 으로 상행한다. 제3박에서는  $d^b$ 으로 하행한 후,  $b^b$ 을 경과하여 제4박에서 다시  $e^b$ 으로 상행한다. 대금은 피리가  $e^b$ 으로 진행할 때  $d^b$ "으로 진행한다. 제12악구의 구조선율은  $f-e^b-d^b-e^b$ 이며, 핵음과 종지음은  $e^b$ 이다.

154) 염불조에서는  $f$ 를 퇴성하는 것은 종지감을 주지는 않으나, 삼현타령의 제11악구는 악조가 혼합되어  $f$ 의 퇴성은  $g^b$  퇴성의 허튼타령조와 같은 종지의 성격이 나타난다. 또한 제3·4박에서 대금의  $a^b-e^b-g^b$ 의 진행은 <허튼타령> 악곡의 종지형과 동일하다.

## ⑦ 삼현타령 제13악구

<삼현타령>의 제13악구는 제17장단부터 제18장단까지이다. 제13악구는 다음의 <악보 116>에서 보겠다.

<악보 116> 삼현타령 제13악구(제17장단~제18장단)



위의 <악보 116>에서 살펴보면 제17장단의 제1박은  $b^b$ 으로 시작하여  $a^b$ 을 경과한 후 제2박에서 다시  $b^b$ 으로 진행한다. 이후 제3박에서는 피리는  $e^{b'}$ , 대금은  $d^{b''}$ 으로 상행한다. 제4박에서 피리는  $d^{b'}$ 으로 하행한 후 제4박의 끝에서  $g^b$ 으로 하행하며 짧은 종지감을 준다. 이는 허튼타령조의 종지이다.¹⁵⁵⁾ 대금은 제3박의  $d^{b'}$ 을 제4박까지 지속한 후  $b^b$ 을 경과하여 염불조의 종지음인  $a^b$ 으로 하행한다.¹⁵⁶⁾ 이후 제18장단의 제1박에서 피리는  $b^b$ 에서  $d^{b'}$ 을 경과하여  $g^b$ 으로 하행 후,  $g^b$ 을 퇴성하여 직전 박과 유사한 진행을 보인다. 제1박에서 대금은  $b^{b'}$ 을 경과 후 대금과 피리 모두 제2박에서  $a^b$ 으로 하행한다.  $a^b$ 은 제4박까지 지속하며 종지감을 준다. 제13악구의 구조선율은  $b^b - e^{b'} - d^{b'} - a^b / g^b - b^b - a^b$ 이며, 해음은  $a^b \cdot b^b \cdot e^{b'}$ , 종지음은  $a^b$ 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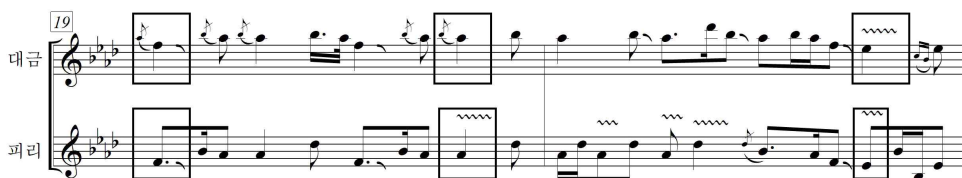
155) 제17장단의 제4박에서 피리의  $d^{b'} - g^b$  진행은 허튼타령조인 <삼현도드리>에서 나타나는 피리의 종지형과 동일하다.

156) 피리와 대금·해금은 제17장단의 마지막 음이 다르다. 이것을 제17장단의 종지음으로 보았을 때, 서로 다른 악조의 종지음이 동시에 나타나는 형태이다. 피리는 허튼타령조의 종지음인  $g^b$ 으로, 대금과 해금은 염불조의 종지음인  $a^b$ 으로 마친다. 이러한 형태로 <삼현타령>은 악조가 혼합되어있는 악곡임을 알 수 있다. 한편, 다음 장단인 제18장단에서는 세 악기가 모두 염불조의 종지음인  $a^b$ 으로 종지를 하여 악구를 마치므로 중심이 되는 악조는 염불조임을 알 수 있다.

## ⑧ 삼현타령 제14악구

<삼현타령>의 제14악구는 제19장단부터 제20장단까지이다. 제14악구는 다음의 <악보 117>에서 보겠다.

<악보 117> 삼현타령 제14악구(제19장단~제20장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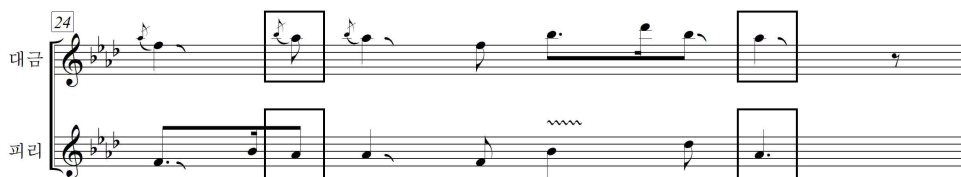


위의 <악보 117>에서 살펴보면 제19장단의 제1박은 f로 시작하여 b^b을 경과하여 a^b으로 상행한다. a^b은 제2박까지 이어지며 제2박의 끝에서 대금은 b^b, 피리는 d^b으로 상행한다. 제3, 4박은 제1, 2박의 선율을 반복한다. 제20장단의 제1, 2박은 제19장단의 제4박과 동일한 음 진행을 리듬을 변주한다. 이후 제3박에서 대금은 a^b, 피리는 b^b으로 시작하여 f를 경과한 후, 제4박에서 e^b으로 하행하여 종지감을 준다. 제14악구의 구조 선율은 f-a^b-f-a^b-d^b-b^b-e^b이며, 핵음은 e^b · f · a^b, 종지음은 e^b이다.

## ⑨ 삼현타령 제17악구

<삼현타령>의 제17악구는 제24장단이다. 제17악구는 다음의 <악보 118>에서 보겠다.

<악보 118> 삼현타령 제17악구(제24장단)



위의 <악보 118>에서 살펴보면 제24장단의 제1박은 f로 시작하여  $b^b$ 을 경과한 후  $a^b$ 으로 상행한다. 제2박은  $a^b$ 으로 시작하여 f로 하행한 후, 제3박에서  $b^b$ 으로 상행한다. 제3박의 끝에서  $d^b$ 을 경과한 후, 제4박에서  $a^b$ 으로 하행하여 종지한다. 제17악구의 구조선율은  $f-a^b-b^b-a^b$ 이며, 핵음과 종지음은  $a^b$ 이다.

이상의 내용을 정리하면, <삼현타령> 제2장~제3장의 관용적 구조선율은  $f-a^b, b^b-a^b$ 이며, 핵음은  $e^b$ (솔) ·  $a^b$ (도) ·  $b^b$ (레), 종지음은  $a^b$ (도)이다.

구성음 f는  $e^b$ 으로,  $b^b$ 은  $a^b$ 으로 하행하려는 성격을 갖고 있으며,  $d^b$ 은 경과음으로 나타난다.

<삼현타령> 제2장~제3장은 악곡의 전반에 걸쳐 허튼타령조가 혼합된 양상이 나타나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허튼타령조의 구성음  $g^b$ 이 출현하며, 대금의  $g^b$ 과 피리의 f가 동시에 나타나기도 한다.¹⁵⁷⁾ 또한 제13악구와 제16악구에서 허튼타령조의 구조선율  $d^b-g^b$ 가 혼합되어 나타난다. 허튼타령조의 구조선율 이후에는 염불조의 구조선율과 종지음으로 마친다. 핵음은 허튼타령조의 핵음인  $b^b$ 의 비중이 염불조의 핵음과 비등하게 나타난다. 더하여, 피리가  $e^b$ 으로 진행할 때 대금은  $d^b$ 으로 진행하는 형태가 허튼타령조 악곡인 <삼현도드리>와 같다.



한편, 염불조와 허튼타령조의 핵음이 고루 섞여서 나타나고,  $d^b$ 이 주요 구성음에 포함되며,  $g^b$ 과 f가 섞여 나타나 어떤 악조가 중심이 되는지에 대한 근거가 필요하다. 종지를 살펴보면 염불조의 종지음인  $a^b$ (도)

157) <염불도드리>와 반대의 양상을 보인다. <염불도드리>에서는 피리가  $g^b$ , 대금이 f를 낸다.

으로 귀결될 때 가장 안정감 있는 종지가 나타난다. 또한  $g^b$ 보다  $f$ 가 비중 있게 나타나, 주요 구성음을 염불조 음계인 ‘솔( $e^b$ )-라( $f$ )-도( $a^b$ )-레( $b^b$ )-파( $d^b$ )’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그러므로 <삼현타령> 제2장과 제3장은 염불조에 허튼타령조가 혼재된 것으로 본다.

<삼현타령> 제2장부터 제3장까지의 구조선율 · 핵음 · 종지음 분석을 정리하면 다음의 [표 18]¹⁵⁸⁾에서 보는 것과 같다.

[표 18] 삼현타령 제2장~제3장 구조선율 · 핵음 · 종지음

악구	구조선율	핵음	종지음
7	$b^b - e^b - b^b - a^b - e^b$	$e^b \cdot a^b \cdot b^b$	$e^b$
8	$b^b - e^b - \underline{b^b - a^b} / d^b$	$e^b \cdot b^b$	$a^b \cdot d^b$
9	$f - e^b - B^b - e^b - a^b (-b^b)$	$e^b \cdot f \cdot a^b$	$a^b$
10	$e^b - \underline{b^b - a^b} (-b^b)$	$a^b \cdot b^b \cdot e^b$	$a^b$
11	$e^b - d^b - \underline{b^b - a^b} - g^b / f$	$a^b \cdot b^b \cdot e^b$	$g^b \cdot f$
12	$f - e^b - d^b - e^b$	$e^b$	$e^b$
13	$b^b - e^b - d^b - a^b / g^b - \underline{b^b - a^b}$	$a^b \cdot b^b \cdot e^b$	$a^b$
14	$\underline{f - a^b - f - a^b} - d^b - b^b - e^b$	$e^b \cdot f \cdot a^b$	$e^b$
15	제12악구와 동일		
16	제13악구와 동일		
17	$\underline{f - a^b - b^b - a^b}$	$a^b$	$a^b$
종합	 f - a ^b b ^b - a ^b	 e ^b a ^b b ^b	 a ^b

### 3) 시김새

<삼현타령> 제2장부터 제3장까지의 시김새는  $e^b$ (솔),  $f$ (라),  $a^b$ (도),  $b^b$

158) 구조선율에서 밑줄 친 부분은 관용적 구조선율에 해당한다. 이탤릭체와 검은 음표는 허튼타령조의 양상이다.

(레),  $d^b$ (파) 그리고  $g^b$ (시 b ) 여섯 음으로 나누어 살펴보겠다.

## ① $e^b$ (솔)

<삼현타령> 제2장부터 제3장까지의  $e^b$ 에서 나타나는 시김새는 아래 <악보 119>에서 보는 것과 같다.

<악보 119> 삼현타령 제2장~제3장  $e^b$ 의 시김새

위의 <악보 119>에서 살펴보면  $e^b$ 은 주로 보통 농음을 한다. 제11장단에서는  $a^b$ 에서  $e^b$ 으로 하행 시  $e^b$ 앞에  $g^b$ 과  $f$ 가 각각 대금과 피리의 장식음으로 나타나며, 이것으로 허튼타령조가 혼합되어 나타남을 알 수 있다. 피리는 장식음  $f$ 를 내리더름 주법으로 연주한다.

## ② $f$ (라)

<삼현타령> 제2장부터 제3장까지의  $f$ 에서 나타나는 시김새는 아래 <악보 120>에서 보는 것과 같다.

<악보 120> 삼현타령 제2장~제3장 f의 시김새

위의 <악보 120>에서 살펴보면 f는 퇴성한다. f에서 e^b으로 하행할 때의 퇴성은 염불조의 진행이다. 반면 b^b으로 상행 시 f의 퇴성은 이후 허튼타령조의 진행으로 이어진다. f의 장식음으로는 대금과 피리 모두 a^b이 나타난다.

③ a^b(도)

<삼현타령> 제2장부터 제3장까지의 a^b에서 나타나는 시김새는 아래 <악보 121>에서 보는 것과 같다.

<악보 121> 삼현타령 제2장~제3장 a^b의 시김새

<삼현타령>의 a^b은 대부분 보통 농음을 하지만 f로의 하행 시 또는 중지 시 퇴성하는 경우도 나타난다. e^b에서 a^b으로 상행할 때 a^b앞에 f-e^b이 장식음으로 나타나며, 이를 피리는 올리더름 주법으로 연주한다. 대금의 장식음으로는 b^b'이 나타난다.

④ b^b(레)

<삼현타령> 제2장부터 제3장까지의 b^b에서 나타나는 시김새는 아래 <악보 122>에서 보는 것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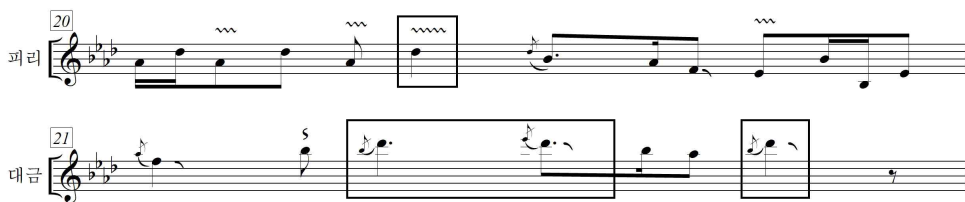
<악보 122> 삼현타령 제2장~제3장  $b^b$ 의 시김새

위의 <악보 122>에서 살펴보면  $b^b$ 에서  $a^b$ 으로 하행 시  $b^b$ 은 하행 놓음 또는 퇴성을 한다. 대금은 한 옥타브 낮은  $b^b$ 에서는 보통 놓음을 하며 이는 1회 나타난다. 피리는 제24장단에서  $b^b$ 을 보통 놓음하며 이는 다음 악곡인 <별곡타령>의 시김새이다. 대금은  $b^b$ '이 대박의 첫 음으로 출현할 때 또는 새로운 호흡에서 출현할 때 장식음으로  $b^b$ - $d^b$ 이 나타난다. 피리는  $b^b$ 앞에  $d^b$ '이 장식음으로 나타난다.

⑤  $d^b$ (파)

<삼현타령> 제2장부터 제3장까지의  $d^b$ '에서 나타나는 시김새는 아래 <악보 123>에서 보는 것과 같다.

<악보 123> 삼현타령 제2장~제3장  $d^b$ '의 시김새



위의 <악보 123>에서 살펴보면 대금은  $b^b$ '에서  $a^b$ '으로 하행 전  $d^b$ '을 경과하는 경우  $d^b$ '을 목튀김 농음을 한다.¹⁵⁹⁾ 피리는  $d^b$ '에서  $g^b$ 으로 하행할 때  $d^b$ '을 추성한다. 이는 제17장단과 제22장단에 나타나며 허튼타령조의 시김새이다. 제20장단에서 피리가  $d^b$ '을 중심으로 움직일 때  $d^b$ '은 보통 농음을 한다. 대금은  $d^b$ '을 하행 시 또는 악구의 마지막 음일 경우 퇴성하며, 이는 피리가  $e^b$ '으로 진행하는 경우 나타나는 진행으로 허튼타령조의 양상으로 볼 수 있다. 대금의 장식음으로는  $b^b$ '과  $e^b$ '이 나타나며,  $e^b$ '은 동음진행하는 경우 나타난다.

## ⑥ $g^b$ (시^b)

<삼현타령> 제2장부터 제3장까지의  $g^b$ (시^b)에서 나타나는 시김새는 아래 <악보 124>에서 보는 것과 같다.

<악보 124> 삼현타령 삼현타령 제2장~제3장  $g^b$ 의 시김새



위의 <악보 124>에서 살펴보면  $g^b$ 은 퇴성을 한다. 악구를 맺을 때  $g^b$

159) 이는 염불조의 시김새이다. <긴염불>에서 목튀김 농음을 하는 음정은  $c'$ 이며, 목튀김 농음이 나타나는 위치( $b^b$ 에서  $a^b$ 으로 하행 전 경과음)가 위와 같다.

을 퇴성하는 것은 허튼타령조의 종지이며, 나아가  $g^b$  종지 전  $e^b$  을 선행하는 것은 <허튼타령> 악곡의 종지형이다.

이상의 내용을 정리하면, <삼현타령> 제2장~제3장의 주요 시김새는 다음과 같다.  $e^b$  은 보통 농음을 한다.  $f$  는 퇴성한다.  $a^b$  은 보통 농음을 한다.  $b^b$  은  $a^b$  으로 하행 시 하행 농음 또는 퇴성을 한다. 대금은  $b^b$  '에서  $a^b$  '으로 하행 전  $d^b$  '을 경과하는 경우  $d^b$  '을 목퇴김 농음한다.

또한  $f$  가 퇴성을 한 후  $e^b$  으로 하행하는 것은 염불조의 진행이며, 반면  $f$  의 퇴성 이후  $b^b$  으로 상행하는 경우는 허튼타령조의 진행으로 이어진다.

시김새 중 장식음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e^b$  의 장식음으로  $a^b$  에서  $e^b$  으로 하행시 피리는  $f$  가 나타나며, 이를 내리더름 주법으로 연주한다.  $f$  의 장식음으로는 대금과 피리 모두  $a^b$  이 나타난다.  $a^b$  의 장식음으로는  $e^b$  에서  $a^b$  으로 상행할 때  $f-e^b$  이 나타나며, 이를 피리는 올리더름 주법으로 연주한다. 또한 대금은  $a^b$  의 장식음으로  $b^b$  '이 나타난다.  $b^b$  의 장식음으로 대금은  $b^b$  '- $d^b$  ", 피리는  $d^b$  '이 나타난다.  $d^b$  '의 장식음으로 대금은  $b^b$  '과  $e^b$  "이 나타난다.

허튼타령조의 시김새는 다음과 같다. 대금과 피리 모두  $g^b$  에서 퇴성한다. 피리는  $d^b$  '에서  $g^b$  으로 하행할 때  $d^b$  '을 추성한다. 대금은  $e^b$  '의 장식음으로  $a^b$  '에서  $e^b$  '으로 하행 시  $g^b$  '이 나타난다.

요컨대, <삼현타령> 제2장~제3장의 음계는 ' $e^b$ (솔)- $f$ (라)- $a^b$ (도)- $b^b$ (레)- $d^b$ (파)'이다. 관용적 구조선율은  $f-a^b$ ,  $b^b-a^b$ 이며, 핵음은  $e^b$ (솔)· $a^b$ (도)· $b^b$ (레), 종지음은  $a^b$ (도)이다.

$f$  는  $e^b$  으로 하행,  $b^b$  은  $a^b$  으로 하행하며,  $d^b$  '은 경과음으로 나타난다.

주요 시김새는 다음과 같다.  $e^b$  은 보통 농음을 한다.  $f$  는 퇴성을 한다.  $a^b$  은 보통 농음을 한다.  $b^b$  은  $a^b$  으로 하행 시 하행 농음 또는 퇴성을 한다. 대금은  $b^b$  '에서  $a^b$  '으로 하행 전  $d^b$  '을 경과하는 경우  $d^b$  '을 목퇴

김 놓음 한다.

시김새 중 주요 장식음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e^b$ 의 장식음으로 피리는  $f$ 가 나타나며, 이를 내리더름 주법으로 연주한다.  $a^b$ 의 장식음으로는  $e^b$ 에서  $a^b$ 으로 상행할 때  $f-e^b$ 이 나타나며, 이를 피리는 올리더름 주법으로 연주한다.  $d^b$ 의 장식음으로 대금은  $b^b$ 이 나타나난다.

<삼현타령> 제2장~제3장에서 나타나는 악조의 혼재 양상은 제4절에서 정리하여 살펴보겠다.

#### (4) 삼현타령 돌장

<삼현타령> 돌장은 《삼현영산회상》에서 <삼현타령> 3장이 끝난 후, <별곡타령>으로 넘어가기 전의 마지막 세 장단이다. <삼현타령> 돌장은 염불조에서 <별곡타령>의 당악조로 넘어가기 위한 구간으로 염불조와 당악조가 혼합되어 나타난다. 본 항에서는 <삼현타령> 돌장의 출현음과 구조선율·핵음·종지음, 그리고 시김새 분석을 통해 악곡을 살펴보겠다.

##### 1) 출현음

<삼현타령> 돌장의 출현음을 다음 <악보 125>에서 살펴보겠다.¹⁶⁰⁾

<악보 125> 삼현타령 돌장 출현음

대금

$b^b$ (레)  $c'$ (미)  $e^b$ (솔)  $f'$ (라)  $g'$ (시)  $a^b$ (도)  $b^b$ (레)  $c''$ (미)  $e^{b''}$ (솔)

피리

$B^b$ (레)  $C$ (미)  $e^b$ (솔)  $f$ (라)  $g$ (시)  $a^b$ (도)  $b^b$ (레)  $C'$ (미)

160) 흰 음표는 주요 출현음이며, 검은 음표는 다른 악조의 출현음 또는 짧은 경과음이나 장식음으로 나타나는 음이다. 검은 음표의 음이름은 이탤릭체로 구분하였다.

<악보 125>를 살펴보면, <삼현타령> 돌장은 <별곡타령>으로 넘어가기 위한 연결구로 <별곡타령>의 악조인 당악조의 구성음이 나타난다. 대금과 피리의 주요 출현음은 B^b(레), e^b(솔), f(라), a^b(도), b^b(레)이며, 당악조의 구성음 c(미), g(시), c'(미)가 나타난다. 이외에 대금은 e^b"(솔)이 장식음으로 나타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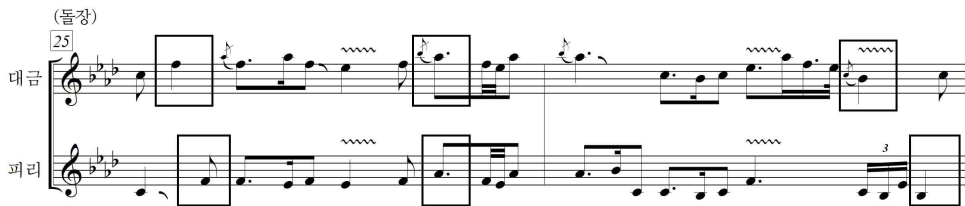
## 2) 구조선율 · 핵음 · 종지음

<삼현타령> 돌장은 총 3장단이다. 돌장은 제18악구와 제19악구로 나누어지며, 총 2개 악구의 구조선율과 악구별 핵음, 종지음을 살펴보겠다.

### ① 삼현타령 제18악구

<삼현타령>의 제18악구는 제25장단부터 제26장단까지이다. 제18악구는 다음의 <악보 126>에서 보겠다.

<악보 126> 삼현타령 제18악구(제25장단~제26장단)



위의 <악보 126>에서 살펴보면 제25장단은 <삼현타령>의 돌장이 시작되는 장단이다. 제1박은 당악조의 구성음 c로 시작한 후 f로 상행하여 제2박까지 지속한다. 제3박에서는 e^b으로 하행한 후 f를 경과하여 제4박에서 a^b으로 상행한다. 제26장단의 제1박은 a^b으로 시작하여 c로 하행한다. 이후 제3박에서 피리는 f, 대금은 e^b'으로 상행한다. 이후 제4박에서는 B^b으로 하행하여 악구를 마친다. 제18악구의 전반부는 c에서 a^b까지

순차 상행한 후 후반부에서는  $a^b$ 에서  $B^b$ 까지 순차 하행하는 구조이다. 제18악구의 구조선율은  $c-f-e^b-a^b-c-e^b/f-B^b$ 이며, 핵음은  $B^b \cdot f \cdot a^b$ , 종지음은  $B^b$ 이다.

## ② 삼현타령 제19악구

<삼현타령>의 제19악구는 마지막 장단인 제27장단이다. 제19악구는 다음의 <악보 127>에서 보겠다.

<악보 127> 삼현타령 제19악구(제27장단)



위의 <악보 127>에서 살펴보면 제27장단의 제1박은 당악조의 구성음인  $c$ 로 시작한 후  $f$ 로 상행한다. 제2박은  $f$ 를 지속하며  $g$ 를 경과하여 제3박의  $b^b$ 으로 상행한다.  $b^b$ 은  $e^b \cdot c' \cdot b^b \cdot g \cdot f$ 를 경과하여  $e^b$ 으로 귀결하여 종지한다. 제19악구는 <별곡타령>의 선율이 출현하며, 온전한 당악조로 바뀐다. 제19악구의 구조선율은  $c-f-b^b-e^b$ 이며, 핵음은  $e^b \cdot f \cdot b^b$ , 종지음은  $e^b$ 이다.

이상의 내용을 정리하면, <삼현타령> 돌장의 관용적 구조선율은  $b^b-e^b$ 이다. 핵음은  $e^b$ (솔) ·  $b^b$ (레)¹⁶¹⁾이며, 종지음은  $e^b$ (솔)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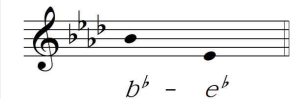


$b^b$ (레)은 제18악구의 종지음이지만  $e^b$ (솔)보다 종지감이 약하다. 하지

161) <삼현타령> 돌장은 <별곡타령>의 동일한 선율이 의도적으로 혼합되어 나타난다. 이에 돌장의 핵음은 <별곡타령>의 핵음을 따른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f$ 는 <삼현타령> 돌장의 두 악구에서 핵음으로 나타나지만 <별곡타령> 전체 악곡의 분석결과 핵음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이를 비추어 <삼현타령> 돌장의 핵음에 포함하지 않는다.

만 제18악구의 선율에서 흡인력 있는 음이므로 핵음에 포함한다.  $e^b$ (솔)은 가장 안정된 종지감을 준다.  $c$ 는  $f$ 로 상행하는 경과음으로 나타난다. 또한 관용적 구조선율인  $b^b-e^b$ 은 당악조 악곡인 <별곡타령>의 구조선율이다. 이에 <삼현타령> 돌장은 당악조가 혼합된 악곡임을 알 수 있다.

<삼현타령> 돌장의 구조선율 · 핵음 · 종지음 분석을 정리하면 다음의 [표 19]¹⁶²⁾에서 보는 것과 같다.

[표 19] 삼현타령 돌장 구조선율 · 핵음 · 종지음

악구	구조선율	핵음	종지음
18	$c-f-e^b-a^b-c-e^b/f-B^b$	$B^b \cdot f \cdot a^b$	$B^b$
19	$c-f-b^b-e^b$	$e^b \cdot f \cdot b^b$	$e^b$
종합			

## 2) 시김새

<삼현타령> 돌장은 염불조인 <삼현타령>의 시김새와 당악조인 <별곡타령>의 시김새가 세 장단에 걸쳐 혼합되어 나타난다. 이를 간략하게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염불조의 시김새는  $f$ 의 퇴성과  $e^b$ 의 보통 놓음이 나타난다. 당악조의 시김새는  $f$ 와  $b^b$ 의 보통 놓음, 피리가  $c$ 에서  $f$ 로 상행할 때  $c$ 를 퇴성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요컨대, <삼현타령> 돌장의 음계는 ‘ $e^b$ (솔)- $f$ (라)- $a^b$ (도)- $b^b$ (레)- $d^b$ (파)’를 중심으로 점차 ‘ $e^b$ (도),  $f$ (레),  $g$ (미),  $b^b$ (솔),  $c'$ (라)’의 당악조 음계가

162) 구조선율에서 밑줄 친 부분은 관용적 구조선율에 해당한다. 이탤릭체와 검은 음표는 다른 악조(당악조)의 특징이 나타나는 것이다.

혼합된다. 관용적 구조선율은  $b^b$ - $e^b$ , 핵음은  $e^b$ (솔)· $b^b$ (레)이며, 종지음은  $e^b$ (솔)으로 모두 당악조의 성격이다. 주요 시김새는 f와  $b^b$ 를 놓음하는 것이며 이 또한 당악조의 성격이다. 염불조의 관용적 구조선율은  $e^b$ - $a^b$ 이, 염불조의 시김새는 f의 퇴성과  $e^b$ 의 놓음이 나타난다.

## 다. 취타풍류계

본 항에서는 《취타풍류》 악곡 중 염불조에 해당하는 악곡인 <길타령>, <염불타령>, <삼현타령> 제1장의 제1장단~제3장단, <삼현타령> 제2장~제3장, 그리고 돌장을 살펴보겠다.

### (1) 길타령

<길타령>은 《취타풍류》의 세 번째 악곡이며, 출현음과 구조선율·핵음·종지음, 그리고 시김새 분석을 통해 악곡을 살펴보겠다.

#### 1) 출현음

<길타령>의 출현음을 다음 <악보 128>에서 살펴보겠다.¹⁶³⁾

---

163) 흰 음표는 주요 출현음이며, 검은 음표는 짧은 경과음이나 장식음으로 나타나는 음이다. 검은 음표의 음이름은 이탤릭체로 구분하였다.



<악보 128> 길타령 출현음

대금

피리

$a^b$ (도)  $b^b$ (레)  $e^b$ (솔)  $f'$ (라)  $a^b$ (도)  $b^b$ (레)  $c''$ (미)  $d^{b''}$ (파)  $e^{b''}$ (솔)

$A^b$ (도)  $B^b$ (레)  $e^b$ (솔)  $f$ (라)  $a^b$ (도)  $b^b$ (레)  $c'$ (미)  $e^b$ (솔)  $f'$ (라)

<악보 128>을 살펴보면, <길타령>의 출현음은  $A^b$ (도),  $B^b$ (레),  $e^b$ (솔),  $f$ (라),  $a^b$ (도),  $b^b$ (레),  $c'$ (미)까지 대금과 피리가 동일하게 나타난다. 대금은 허튼타령조의 구성음인  $d^{b''}$ (파)이 1회 나타나고,  $e^{b''}$ (솔)은 장식음으로 나타난다. 피리는  $e^b$ (솔),  $f$ (라)까지 출현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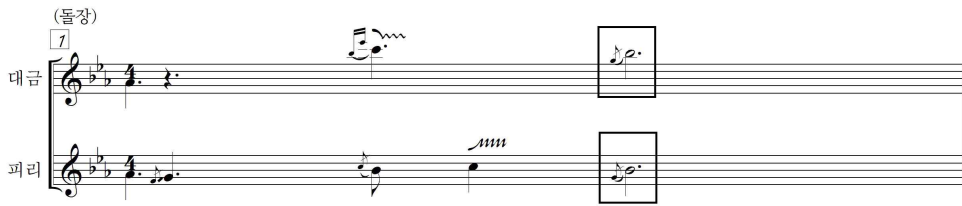
## 2) 구조선율 · 핵음 · 종지음

<길타령>은 총 18장단의 악곡이다. 길타령은 앞 장단과 뒷 장단이 서로 대구하며 하나의 악구를 이루므로, 두 장단 단위로 악구를 나누어 살펴보겠다. 단, 제1장단과 제2장단은 앞선 악곡인 <길군악>에서 <길타령>으로 전환하기 위한 성격으로 한 장단 단위로 선율이 전개되므로 각각을 하나의 악구로 나눈다. 위와 같이 나누어진 총 10개 악구의 구조선율과 악구별 핵음, 종지음을 살펴보겠다. <길타령>의 제5악구와 제9악구는 제3악구와 동일하므로 생략한다.

### ① 길타령 제1악구

<길타령>의 제1악구는 제1장단이다. 제1악구는 <길군악 돌장>을 마치고 <길타령>으로 넘어가기 위한 돌장이다. 제1악구는 다음의 <악보 129>에서 보겠다.

<악보 129> 길타령 제1악구(제1장단)



위의 <악보 129>에서 살펴보면 제1장단의 제1박에서 피리가 당악조의 구성음 g로 시작하고, 대금은 제2박부터 시작한다. 제2박에서는 b^b을 경과하여 c'로 상행한다. 제3박에서는 b^b으로 하행하여 제4박까지 지속하며 종지한다. 제1악구의 구조선율은 g-c'-b^b이며, 핵음과 종지음은 b^b이다.

② 길타령 제2악구

<길타령>의 제2악구는 제2장단이다. 제2악구는 다음의 <악보 130>에서 보겠다.

<악보 130> 길타령 제2악구(제2장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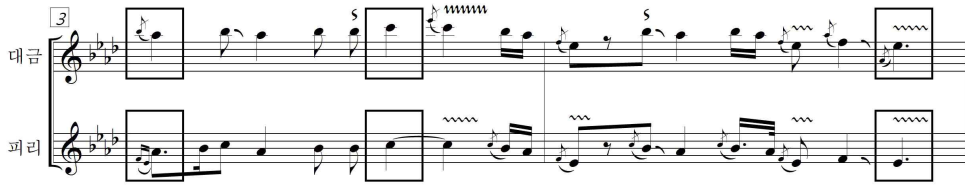


위의 <악보 130>에서 살펴보면 제2장단의 제1박은 b^b으로 시작하여 제2박까지 지속한다. 제3박에서는 a^b으로 하행한 후 제4박에서 e^b으로 완전4도 하행하여 종지감을 준다. <길타령> 제2악구의 구조선율은 b^b-a^b-e^b이며, 핵음은 e^b · a^b · b^b, 종지음은 e^b이다.

### ③ 길타령 제3악구

<길타령>의 제3악구는 제3장단부터 제4장단까지이다. 제3악구는 다음의 <악보 131>에서 보겠다.

<악보 131> 길타령 제3악구(제3장단~제4장단)



위의 <악보 131>에서 살펴보면 제3장단의 제1박은  $a^b$ 으로 시작하여 제1박의 끝에서 대금은  $b^b$ , 피리는  $c'$ 로 상행한다. 이후 제2박에서 다시  $a^b$ 으로 진행한다. 이후  $b^b$ 을 경과하여 제3박의  $c'$ 으로 상행한다.  $c'$ 는 제4박까지 지속한다. 제4박의 끝에서  $b^b \cdot a^b \cdot f$ 를 경과하여 제4장단 제1박  $e^b$ 으로 하행한다. 제1박의 끝에서는  $b^b$ 을 경과하여 제2박의  $a^b$ 으로 하행한다. 제2박의 끝에서  $b^b \cdot a^b \cdot f \cdot e^b$ 을 경과하여  $f$ 로 하행한다.  $f$ 는 퇴성하며 제4박의  $e^b$ 으로 하행하여 종지감을 준다. 제3악구의 구조선율은  $a^b - c' - e^b - a^b - f - e^b$ 이며, 핵음은  $e^b \cdot a^b \cdot c'$ , 종지음은  $e^b$ 이다.

### ④ 길타령 제4악구

<길타령>의 제4악구는 제5장단부터 제6장단까지이다. 제4악구는 다음의 <악보 132>에서 보겠다.

<악보 132> 기타령 제4악구(제5장단~제6장단)



위의 <악보 132>에서 살펴보면 제5장단의 제1박은  $b^b$  으로 시작한다.  $b^b$  은 하행 놓음하며 제2박의  $a^b$  으로 하행한다. 제2박의  $a^b$  은  $f \cdot e^b$  을 경과하여 다시  $a^b$  으로 진행한다. 제3, 4박은 제1, 2박의 반복이다. 제6장단의 제1박은  $b^b$  으로 시작한다.  $b^b$  은 하행 놓음하며 제2박의  $a^b$  으로 하행한다. 제2박의 끝에서  $b^b \cdot c^b$  를 경과한 후, 제3박에서 다시  $a^b$  으로 진행한다. 제3박의 끝에서는  $b^b \cdot a^b \cdot f$  를 경과하며, 제4박의  $e^b$  으로 하행하여 종지한다. 제4악구의 구조선율은  $b^b - a^b - b^b - a^b - b^b - a^b - e^b$  이며, 핵음은  $e^b \cdot a^b \cdot b^b$ , 종지음은  $e^b$  이다.

⑤ 기타령 제6악구

<기타령>의 제6악구는 제9장단부터 제10장단까지이다. 제6악구는 다음의 <악보 133>에서 보겠다.

<악보 133> 기타령 제6악구(제9장단~제10장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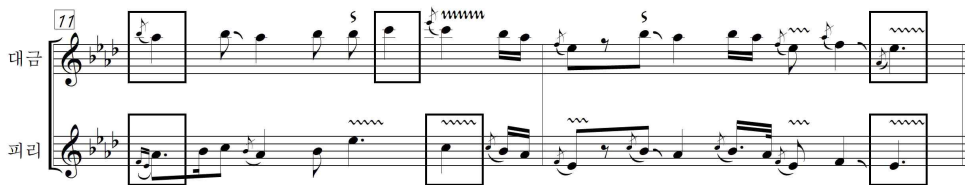
위의 <악보 133>에서 살펴보면 제9장단의 제1박은  $b^b$  으로 시작하여 제2박에서 피리는  $e^b$ , 대금은  $d^b$  으로 상행한다. 이는 허튼타령조의 양

상이다.¹⁶⁴⁾ 제3박에서 피리는  $f$ 까지 상행하였다가 퇴성하며 제4박에서 다시  $e^b$ '으로 진행한다. 대금은 제3박에서 대금은  $b^b$ ', 제4박에서  $d^b$ ''으로 진행하며 제1·2박과 동일한 진행을 한다. 제10장단의 제1박은  $b^b$ 으로 시작하여 제1박의 끝에서  $c'$ 를 경과하여 제2박에서  $a^b$ 으로 하행한다. 제2박의 끝에서  $b^b \cdot c'$ 로 상행한 후, 제3박에서 다시  $a^b$ 으로 진행한다. 제3박의 끝에서는  $b^b \cdot a^b \cdot f$ 를 경과하며, 제4박의  $e^b$ 으로 하행하여 종지한다. 제6악구의 구조선율은  $b^b - e^b - f - e^b - b^b - a^b - e^b$ 이며, 핵음은  $e^b \cdot a^b \cdot e^b$ , 종지음은  $e^b$ 이다.

## ⑥ 길타령 제7악구

<길타령>의 제7악구는 제11장단부터 제12장단까지이다. 제7악구는 다음의 <악보 134>에서 보겠다.

<악보 134> 길타령 제7악구(제11장단~제12장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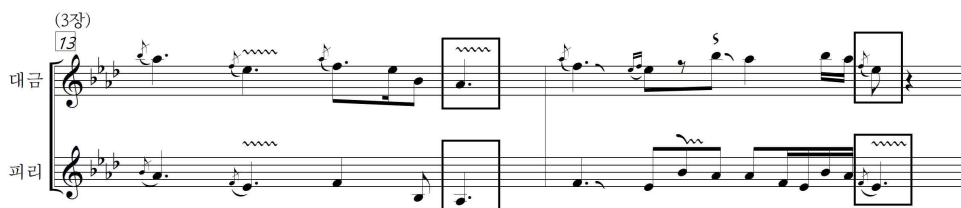
위의 <악보 134>에서 살펴보면 제7악구는 제3악구와 유사하며, 제3박에서 피리가  $e^b$ '으로 상행하는 것이 다르다. 제7악구의 구조선율은  $a^b - e^b - c' - e^b - a^b - f - e^b$ 이며, 핵음은  $e^b \cdot a^b \cdot c'$ , 종지음은  $e^b$ 이다.

## ⑦ 길타령 제8악구

164) 피리·해금이  $e^b$ '으로 상행할 때 대금이  $d^b$ ''으로 진행하는 것은 허튼타령조 악곡(삼현도드리)에서 나타나는 진행이다. 또한 제1·2박의 구조선율은 허튼타령조의 관용적 구조선율( $b^b - e^b$ )이 나타난다. 따라서 제5장단은 악조가 잠시 변한 것임을 알 수 있다.

<길타령>의 제8악구는 제13장단부터 제14장단까지이다. 제8악구는 다음의 <악보 135>에서 보겠다.

<악보 135> 길타령 제8악구(제13장단~제14장단)



위의 <악보 135>에서 살펴보면 제13장단의 제1박은  $a^b$ 으로 시작하여 제2박에서  $e^b$ 으로 하행한다. 제3박에서는  $f$ 로 상행한 후  $B^b$ 을 경과하여, 제4박에서 장6도 하행한  $A^b$ 으로 도달하여 종지감을 준다. 제14장단의 제1박은  $f$ 로 시작한다.  $f$ 는 퇴성하여 제2박의  $e^b$ 으로 도달한다.  $e^b$ 은  $b^b$ 을 경과하여 제3박에서  $a^b$ 으로 진행한다. 이후  $b^b \cdot a^b \cdot f$ 를 경과하며, 제4박의  $e^b$ 으로 하행하여 종지한다. 제8악구의 구조선율은  $a^b \cdot e^b \cdot f \cdot A^b \cdot f \cdot e^b \cdot a^b \cdot e^b$ 이며, 핵음은  $A^b \cdot e^b$ , 종지음은  $e^b$ 이다.

⑧ 길타령 제10악구

<길타령>의 제10악구는 제17장단부터 제18장단까지이다. 제10악구는 다음의 <악보 136>에서 보겠다.

<악보 136> 길타령 제10악구(제17장단~제18장단)



위의 <악보 136>에서 살펴보면 제17장단의 제1박은  $b^b$ 으로 시작하며 제2박의  $a^b$ 으로 하행한다. 제2박의  $a^b$ 은  $f \cdot e^b$ 을 경과하여 다시  $a^b$ 으로 진행한다. 제3, 4박은 제1, 2박의 반복이다. 제18장단의 제1박은  $b^b$ 으로 시작한다.  $b^b$ 은 하행 놓음하며 제2박의  $a^b$ 으로 하행한다. 제2박의 끝에서  $b^b \cdot c'$ 로 상행한 후, 제3박에서 다시  $a^b$ 으로 진행한다. 제3박의 끝에서는  $b^b \cdot a^b \cdot f$ 를 경과하며, 제4박의  $e^b$ 으로 하행한다.  $e^b$ 에서 종지감이 있으나 바로  $f$ 로 상행하여 종지감을 상실한다.  $f$ 는 퇴성하며 다음 악곡의 연결을 예고한다. 제10악구의 구조선율은  $b^b - a^b - b^b - a^b - b^b - a^b - e^b (-f)$ 이며, 핵음은  $e^b \cdot a^b \cdot b^b$ , 종지음은  $e^b$ 이다.

이상의 내용을 정리하면, <길타령>의 관용적 구조선율은  $a^b - e^b$ ,  $a^b - f - e^b$ ,  $b^b - a^b - e^b$ 이며, 핵음은  $e^b$ (솔)  $\cdot$   $a^b$ (도)이며, 종지음은  $e^b$ (솔)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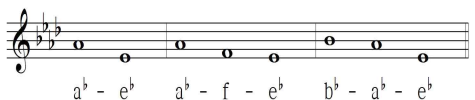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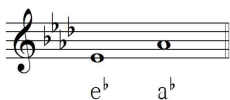

$e^b$ 은 종지시 완전4도 위의 음인  $a^b$ 이 선행된다.  $f$ 는  $e^b$ 으로 하행하여 종속되는 음이며, 마지막 악구에서는  $e^b$ 종지 후  $f$ 로 마치면서 다음 악곡으로 넘어가기 위한 예고를 한다.  $b^b$ 은  $a^b$ 으로 하행하여 종속되는 음이다.  $c'$ 는 핵음으로 나타나는 악구도 있지만 이외에는 주로 경과음 또는 장식음으로 사용되어 악곡의 핵음으로 보기 어렵다.

제1악구는 구조선율의 첫 음이  $g$ 이고, 종지음 및 핵음이  $b^b$ 으로 직전 악곡인 길군악의 성격이 남아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제6악구는 전반부에는 허튼타령조의 구조선율( $b^b - e^b$ )이 나타나 잠시 악조가 변화되었음을 알 수 있다.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제1박은  $b^b$ 으로 시작한 후, 제2박에서 피리는  $e^b$ , 대금은  $d^b$ 으로 상행하여 <삼현도드리>와 같은 진행이 나타난다.

<길타령>의 구조선율 · 핵음 · 종지음 분석을 정리하면 다음의 [표 20]165)에서 보는 것과 같다.

165) 구조선율에서 밑줄 친 부분은 관용적 구조선율에 해당한다. 이탤릭체와 검은 음표는 다른 악조(허튼타령조)의 특징이 나타나는 것이다.

[표 20] 길타령 구조선율 · 해음 · 종지음

악구	구조선율	해음	종지음
1	$g-c'-b^b$	$b^b$	$b^b$
2	$b^b-a^b-e^b$	$e^b \cdot a^b \cdot b^b$	$e^b$
3	$a^b-c'-e^b-a^b-f-e^b$	$e^b \cdot a^b \cdot c'$	$e^b$
4	$b^b-a^b-b^b-a^b-b^b-a^b-e^b$	$e^b \cdot a^b \cdot b^b$	$e^b$
5	제3악구와 동일		
6	$b^b-e^b-f'-e^b-b^b-a^b-e^b$	$e^b \cdot a^b \cdot e^b$	$e^b$
7	$a^b-e^b-f'-e^b-a^b-f-e^b$ (제3악구와 유사)	$e^b \cdot a^b \cdot c'$	$e^b$
8	$a^b-e^b-f-A^b-f-e^b-a^b-e^b$	$A^b \cdot e^b$	$e^b$
9	제3악구와 동일		
10	$b^b-a^b-b^b-a^b-b^b-a^b-e^b(-f)$	$e^b \cdot a^b \cdot b^b$	$e^b$
종합			

### 3) 시김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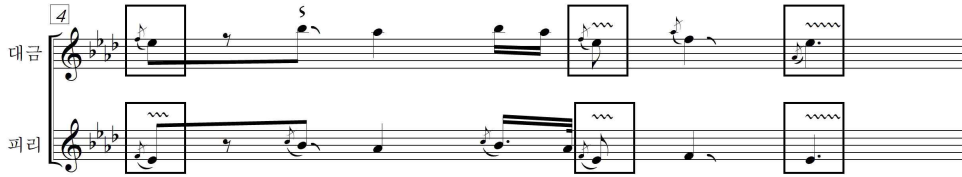
<길타령>의 시김새는  $e^b$ (솔),  $f$ (라),  $a^b$ (도),  $b^b$ (레),  $c'$ (미)와  $d^b$ (파) 여섯 음으로 나누어 살펴보겠다.

#### ① $e^b$ (솔)

<길타령>의  $e^b$ 에서 나타나는 시김새는 아래 <악보 137>에서 보는 것과 같다.



<악보 137> 기타령 e^b의 시김새



<기타령>에서 e^b은 보통 농음을 한다. a^b에서 e^b으로 하행할 경우 e^b 앞에 f가 장식음으로 나타나며, 피리는 이를 내리더름 주법으로 연주한다. 또한 대금의 장식음으로 a^b이 나타난다.

② f(라)

<기타령>의 f에서 나타나는 시김새는 아래 <악보 138>에서 보는 것과 같다.

<악보 138> 기타령 f의 시김새



위의 <악보 138>에서 살펴보면 f에서 e^b으로 하행할 때 f는 퇴성한다. 또한 악곡의 마지막 음으로 f 퇴성이 나타나며 다음 악곡의 연결을 예고한다. 대금은 f의 장식음으로 a^b이 나타난다.

### ③ a^b(도)

<길타령>의 a^b에서 나타나는 시김새는 아래 <악보 139>에서 보는 것과 같다.

<악보 139> 길타령 a^b의 시김새

<길타령>에서 a^b은 농음 또는 퇴성을 하지 않는다. 예외로 제13장단에서 대금이 a^b으로 종지하는 경우 농음이 나타난다. 대금은 a^b이 대박의 첫 음으로 나타날 때 장식음으로 b^b이 나타난다. 이러한 시김새는 피리에서도 제13장단에서 1회 나타난다. 피리는 a^b이 장단의 첫 음으로 나타날 때 장식음으로 f-e^b이 나타난다. 이는 피리의 올리더를 주법으로 연주한다.

### ④ b^b(레)

<길타령>의 b^b에서 나타나는 시김새는 아래 <악보 140>에서 보는 것과 같다.

<악보 140> 길타령  $b^b$ 의 시김새

<길타령>에서  $b^b$ 은 하행 농음 또는 퇴성하며  $a^b$ 으로 하행한다. 대금은  $b^b$ '이 대박의 첫 음 또는 새로운 호흡으로 출현할 때 장식음으로  $b^b$ - $d^b$ 이 나타난다. 피리는  $b^b$ 의 장식음으로  $c'$ 가 나타난다.

⑤  $c'$ (미)

<길타령>의  $c'$ 에서 나타나는 시김새는 아래 <악보 141>에서 보는 것과 같다.

<악보 141> 길타령  $c'$ 의 시김새

위의 <악보 141>에서 살펴보면 피리는  $c'$ 를 보통 농음을 하며, 대금은 묵튀김 농음을 한다. 대금의 장식음으로는  $c'$ 를 동음 진행하는 경우  $e^b$ 이 나타난다.

## ⑥ d^b'(파)

<길타령>의 d^b'은 제9장단 대금에서 나타나며, 시김새는 아래 <악보 142>에서 보는 것과 같다.

<악보 142> 길타령 d^b'의 시김새

위의 <악보 142>에서 살펴보면 대금은 d^b"이 출현한다. d^b"은 퇴성한다. 이때 피리는 e^b'으로 진행하는데 이는 허튼타령조 중 <삼현도드리> 악곡과 동일한 진행이다. 이를 통해 <길타령>에서 허튼타령조가 제9장단에서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상의 내용을 정리하면, <길타령>의 주요 시김새는 다음과 같다. e^b은 보통 농음을 한다. f는 퇴성한다. a^b에서는 농음 또는 퇴성을 하지 않는다. b^b은 하행 농음 또는 퇴성한다. c'에서 피리는 보통 농음을 하며, 대금은 목튀김 농음을 한다.

시김새 중 장식음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a^b에서 e^b으로 하행할 경우 e^b앞에 f가 장식음으로 나타나며, 피리는 이를 내리더름 주법으로 연주한다. 대금은 e^b'의 장식음으로 a^b'이 나타난다. 대금은 f의 장식음으로 a^b'이 나타난다. 대금은 a^b'의 장식음으로 b^b'이 나타난다. 피리는 a^b의 장식음으로 f-e^b이 나타나며, 이는 피리의 올리더름 주법으로 연주한다. 대금은 b^b'의 장식음으로 b^b'-d^b", 피리는 b^b의 장식음으로 c'가 나타난다. 대금은 c" 장식음으로는 c"를 동음진행하는 경우 e^b"이 나타난다.

요컨대, <길타령>의 음계는 ‘e^b(솔)-f(라)-a^b(도)-b^b(레)-c'(미)’이다. 관용적 구조선율은 a^b-e^b, a^b-f-e^b, b^b-a^b-e^b이며, 핵음은 e^b(솔)·a^b(도)이며, 종지음은 e^b(솔)이다.

f는 e^b으로 하행하여 종속되는 음이며, 마지막 악구에서는 e^b 종지 후 f로 마치면서 다음 악곡으로 넘어가기 위한 예고를 한다. b^b은 a^b으로 하행하여 종속되는 음이다. c'는 주로 경과음으로 나타난다.

주요 시김새는 다음과 같다. e^b은 보통 농음을 한다. f는 퇴성한다. a^b에서는 농음 또는 퇴성을 하지 않는다. b^b은 하행 농음 또는 퇴성한다. c'에서 피리는 보통 농음을 하며, 대금은 목퇴김 농음을 한다.

시김새 중 주요 장식음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a^b에서 e^b으로 하행할 경우 e^b앞에 f가 장식음으로 나타나며, 피리는 이를 내리더름 주법으로 연주한다. 대금은 e^b'의 장식음으로 a^b'이 나타난다. 피리는 a^b의 장식음으로 f-e^b이 나타나며, 이는 피리의 올리더름 주법으로 연주한다.

## (2) 엽불타령

<엽불타령>은 《취타풍류》의 네 번째 곡으로 연주되며, 《엽불풍류》의 <긴엽불>과 동일한 악곡으로 《취타풍류》에서는 <긴엽불>의 두 번째 장단부터 연주된다. <엽불타령>은 <긴엽불>과 동일하므로 생략한다.

## (3) 삼현타령 제1장 제1장단~제3장단

<삼현타령>은 《취타풍류》의 다섯 번째 곡으로 연주되며, 제1장에서 엽불조에 해당하는 제1장단~제3장단은 《엽불풍류》의 <삼현타령> 제1장단~제3장단과 동일하므로 생략한다.

## (4) 삼현타령 제2장~제3장

<삼현타령> 제2장~제3장은 《삼현영산회상》의 <삼현타령> 제2장~제3장과 동일하므로 생략한다.

## (5) 삼현타령 돌장

<삼현타령> 돌장은 《삼현영산회상》의 <삼현타령> 돌장과 동일하므로 생략한다.

## 라. 소결론

염불조의 음계¹⁶⁶⁾는 ‘e^b(솔)-f(라)-a^b(도)-b^b(레)-c'(미)’와 ‘e^b(솔)-f(라)-a^b(도)-b^b(레)-d^b(파)’ 두 가지로 나타난다. 종지음은 e^b(솔)·a^b(도) 두 가지로 나타나며 주로 a^b(도)의 종지감이 강하다.¹⁶⁷⁾ 핵음은 e^b(솔)·a^b(도)¹⁶⁸⁾이다. 주요 관용적 구조선율은 e^b-a^b, a^b-e^b, b^b-a^b으로 염불조의 구성음은 핵음 또는 종지음으로 귀결되려는 성격을 보인다.

염불조의 주요 시김새는 e^b(솔)의 굵은 농음 또는 보통 농음, f(라)의 퇴성이 나타나며, 시김새 없이 평으로 내는 a^b(도),¹⁶⁹⁾ b^b(레)의 하행농음 또는 퇴성, c'(미)와 d^b(파)의 빠르고 얇은 농음이 나타난다. 또한 d^b(파)은 대금에서는 퇴성, 피리에서는 추성이 나타나 시김새가 다양하다.

염불조의 장식음은 다음과 같다. e^b(솔)의 장식음으로 대금은 e^b(솔)보다 완전5도 낮은 a^b, 피리는 b^b-B^b, f가 나타난다. 피리는 장식음 f를 내리더름 주법으로 연주한다. a^b(도)의 장식음으로는 f-e^b이 나타나며, 피리는 이를 올리더름 주법으로 연주한다. c'의 장식음으로는 장2도 아래음인

166) 악조의 음계 중 제1음은 경기 삼현육각의 모든 악곡에서 공통으로 나타나는 핵음인 e^b으로 한다.

167) 예외로 <길타령>은 e^b(솔)으로만 종지한다.

168) 염불조를 종합하여 분석할 때에는 <대영산>의 핵음 중 e^b은 한 옥타브 낮은 e^b으로 포함하여 분석한다.

169) 예외로 <염불도드리>는 a^b(도)에서 보통 농음을 하기도 한다.

b^b이¹⁷⁰⁾ 나타난다.

이 외에 염불조 구성음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f는 e^b으로, b^b은 a^b또는 e^b으로 하행하여 종속되는 음이다. f와 b^b은 퇴성 또는 하행농음의 시김새를 통해 이와 같은 특징이 나타난다. 또한 f는 악구의 종지 이후 마지막 음으로 나타나는 경우 다음 악구 또는 악곡이 이어짐을 예고한다. c'는 주로 경과음으로 나타난다. d^b'은 주로 경과음으로 나타나며, <대영산>에서는 a^b이나 e^b'으로 귀결한다.

즉, 염불조는 핵음 및 종지음인 e^b(솔)과 a^b(도)을 중심으로 선율이 움직이며, f(라)와 b^b(레)은 하행하는 시김새와 함께 e^b(솔)과 a^b(도)으로 하행하여 귀결하려는 성격의 악조이다.

염불조에 해당하는 악곡은 《염불풍류》 중 <긴염불>, <반염불>, <삼현타령> 제1장단~제3장단, <굿거리>, <자진굿거리>, 《삼현영산회상》 중 <대영산>, <염불도드리> 제1장~제4장, <삼현타령> 제2장~돌장, 《취타풍류》 중 <길타령>, <염불타령>, <삼현타령> 제1장 제1장단~제3장단, <삼현타령> 제2장~돌장이다.

염불조의 음조식을 다음 [표 21]¹⁷¹⁾에서 보는 것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

170) 당악조에서는 c'의 장식음으로 단3도 위 음인 e^b'이 나타나 악조 간의 장식음의 차이가 있다.

171) [표 21]에서 대금과 피리를 구분하는 경우 대금은 '대', 피리는 '피'라고 서술하겠다. 악기의 구분이 없는 것은 대금과 피리에서 공통으로 나타나는 시김새이다. 대금과 피리가 공통으로 나타나는 경우 피리의 음역으로 통일하였으며, 악기를 구분할 경우 각 악기의 음역에 맞추어 서술하였다.

[표 21] 염불조의 음조직

음계					
	e ^b (솔)	f(라)	a ^b (도)	b ^b (레)	c'(미)
					
	e ^b (솔)	f(라)	a ^b (도)	b ^b (레)	d ^b '(파)
종지음	○		○		
핵음	○		○		
시김새	굵은 농음, 보통 농음	퇴성	평으로 내는 음	하행 농음, 퇴성	c'(미) 대: 목튀김, 파: 빠르고 얇은 농음
					d ^b '(파) 대: 목튀김, 퇴성 파: 퇴성, 추성
	장식음: b ^b -B ^b (파), f(내리더름:파)		장식음: f-e ^b (올리더름:파)		장식음: b ^b
구조 선율	 e ^b - a ^b a ^b - e ^b b ^b - a ^b				

## 2. 허튼타령조

본고에서는 《염불풍류》의 <삼현타령> 제4장단~제6장단, <느린허튼타령>, <중허튼타령>, <자진허튼타령>과 《삼현영산회상》의 <중영산>,



<잣영산>, <삼현도드리>, <염불도드리> 제5장~제7장, <삼현타령> 제1장, 그리고 《취타풍류》의 <삼현타령> 제1장 제4장단~제6장단을 허튼타령조로 구분¹⁷²⁾하여 논의를 진행한다.¹⁷³⁾

## 가. 염불풍류계

본 항에서는 《염불풍류》 악곡 중 허튼타령조에 해당하는 악곡인 <삼현타령> 제4장단~제6장단, <느린허튼타령>, <중허튼타령>, <자진허튼타령>을 살펴보겠다.

### (1) 삼현타령 제4장단~제6장단

<삼현타령>은 《염불풍류》의 세 번째 곡으로 연주된다. <삼현타령>은 총 여섯 장단으로 구성되는데, 앞의 세 장단은 염불조를 바탕으로 점차 허튼타령조가 섞여 나타나고, 제4장단부터 새로운 선율이 전개되며 악조가 허튼타령조로 완전히 바뀐다. 본고에서는 제4장단부터 제6장단까지를 허튼타령조로 보고 출현음과 구조선율·핵음·종지음, 그리고 시김새 분석을 통해 악곡을 살펴보겠다.

#### 1) 출현음

<삼현타령>의 제1장 제4장단부터 제6장단의 출현음을 <악보 143>에서 살펴보겠다.

---

172) 이와 같은 악곡 분류의 세부 경계는 본고의 연구결과를 따른 것이다. 위 분류에 대해 최경만, 박승률, 김방현이 동의한 바 있다. 최경만, 삼현육각 피리 전수소, 2020. 1. 18; 박승률, 경기도 동두천시 지행동 카페 ‘살롱드코나’, 2019. 12. 22; 김방현, 경기도 파주시 동패동 카페 ‘커피에반하다’, 2019. 12. 24.

173) 본고에서 허튼타령조 악곡은 G^b조의 조표를 사용한다.

<악보 143> 삼현타령 제4장단~제6장단 출현음

대금

e^{b'}(라) g^{b'}(도) a^{b'}(레) b^{b'}(미) d^{b''}(솔) e^{b''}(라)

피리

e^b(라) g^b(도) a^b(레) b^b(미) d^b(솔) e^b(라)

<악보 143>을 살펴보면, <삼현타령> 제4장단부터 제6장단까지의 출현음은 e^b(라), g^b(도), a^b(레), b^b(미), d^b(솔), e^b(라)으로 대금과 피리가 동일하게 나타난다.

## 2) 구조선율 · 핵음 · 종지음

<삼현타령>의 제4장단과 제5장단에서는 종지가 나타나지 않지만, 같은 리듬을 반복하며 점차 상행하는 구조이므로 이를 하나의 악구로 본다. 제6장단은 선율이 새롭게 전개되므로 이를 하나의 악구로 본다. 위와 같이 나누어진 총 2개 악구의 구조선율과 악구별 핵음, 종지음을 살펴보겠다.

### ① 삼현타령 제3악구

<삼현타령>의 제3악구는 제4장단부터 제5장단까지이다. 제3악구는 다음의 <악보 144>에서 보겠다.

<악보 144> 삼현타령 제3악구(제4장단~제5장단)

대금

피리

위의 <악보 144>에서 살펴보면 제4장단의 제1박은  $a^b$ 으로 시작한다. 이후  $b^b \cdot d^{b'}$ 을 경과하여 제2박에서  $b^b$ 으로 진행한다.  $b^b$ 은 제3박까지 지속하며 제3박의 끝에서  $g^b$ 으로 하행하였다가 제4박에서 대금은  $b^{b'}$ , 피리는  $a^b$ 으로 진행한다. 제4박의 끝에서 대금은  $d^{b''}$ , 피리는  $b^b$ 으로 상행한 후, 제5장단 제1박에서 대금과 피리 모두  $b^b$ 으로 진행한다. 이후 제3박까지  $b^b$ 을 중심으로 진행한다. 제4박에서는  $d^{b'}$ 으로 상행하고, 대금은  $e^{b''}$ 으로 상행한 후 다시  $d^{b''}$ 으로 하행하고, 피리는 제4박의 끝에서  $e^{b'}$ 으로 상행한다. 제3악구는  $a^b$ 부터  $e^{b'}$ 까지 점차 상행하며 전개되는 악구이며, 종지감이 없으나 피리의 마지막 음을 악구의 종지음으로 본다. 제3악구의 구조선율은  $a^b - b^b - g^b - b^b - d^{b'} - e^{b'}$ 이며, 핵음은  $b^b$ , 종지음은  $e^{b'}$ 이다.

## ② 삼현타령 제4악구

<삼현타령>의 제4악구는 제6장단이다. 제4악구는 다음의 <악보 145>에서 보겠다.

<악보 145> 삼현타령 제4악구(제6장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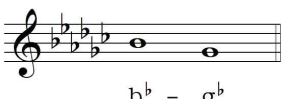


위의 <악보 145>에서 살펴보면 제1박은  $g^b$ 으로 시작하여 피리는  $b^b$ , 대금은  $a^b$ 을 경과한 후  $e^b$ 으로 도달한다. 이후 제2박에서  $b^b$ 으로 완전 5도 상행하여 제3박까지  $b^b$ 을 중심으로 움직인다. 마지막 박에서는  $g^b$ 을 퇴성하며 종지한다. 제4악구의 구조선율은  $g^b - e^b - b^b - g^b$ 이며, 핵음은  $e^b \cdot b^b$ , 종지음은  $g^b$ 이다.

이상의 내용을 정리하면, <삼현타령>의 관용적 구조선율은  $b^b$ - $g^b$ 이며, 핵음은  $e^b$ (라) ·  $b^b$ (미)이며, 종지음은  $g^b$ (도)이다.

$a^b$ 과  $d^b$ '은 주로 경과음으로 나타난다.

<삼현타령> 제4장단~제6장단의 구조선율 · 핵음 · 종지음 분석을 정리하면 다음의 [표 22]¹⁷⁴⁾에서 보는 것과 같다.

[표 22] 삼현타령 제4장단~제6장단 구조선율 · 핵음 · 종지음

악구	구조선율	핵음	종지음
3	$a^b$ - $b^b$ - $g^b$ - $b^b$ - $d^b$ '- $e^b$ '	$b^b$	$e^b$ '
4	$g^b$ - $e^b$ - $b^b$ - $g^b$	$e^b$ · $b^b$	$g^b$
종합	 $b^b - g^b$	 $e^b b^b$	 $g^b$

### 3) 시김새

<삼현타령> 제4장단부터 제6장단까지의 시김새는  $e^b$ (라),  $g^b$ (도),  $a^b$ (레),  $b^b$ (미),  $d^b$ '(솔) 다섯 음으로 나누어 살펴보겠다.

#### ① $e^b$ (라)

<삼현타령> 제4장단부터 제6장단에서 나타나는  $e^b$ 의 시김새는 아래 <악보 146>에서 보는 것과 같다.

174) 구조선율에서 밑줄 친 부분은 관용적 구조선율에 해당한다.

<악보 146> 삼현타령 제4장단~제6장단 e^b의 시김새



위의 <악보 146>에서 살펴보면 <삼현타령> 제4장단부터 제6장단의 e^b은 출현빈도가 낮아 시김새가 잘 나타나지 않는다. 장식음은 대금에서 g^b, 피리에서 B^b이 나타난다.

② g^b(도)

<삼현타령> 제4장단부터 제6장단에서 나타나는 g^b의 시김새는 아래 <악보 147>에서 보는 것과 같다.

<악보 147> 삼현타령 제4장단~제6장단 g^b의 시김새



위의 <악보 147>에서 살펴보면 g^b은 퇴성한다.

③ a^b(레)

<삼현타령> 제4장단부터 제6장단에서 나타나는 a^b의 시김새는 아래 <악보 148>에서 보는 것과 같다.

<악보 148> 삼현타령 제4장단~제6장단 a^b의 시김새

위의 <악보 148>에서 살펴보면 피리는 a^b에서 치켜 떠는 상행 농음을 한다. b^b에서 a^b으로 하행할 때 a^b앞에 대금은 d^b"-b^b', 피리는 f-e^b이 장식음으로 나타난다. 피리는 이를 올리더름 주법으로 연주한다. 이는 염불조의 시김새가 나타나는 것이다. 또한 대금은 a^b'의 장식음으로 b^b'이 나타난다.

④ b^b(미)

<삼현타령> 제4장단부터 제6장단에서 나타나는 b^b의 시김새는 아래 <악보 149>에서 보는 것과 같다.

<악보 149> 삼현타령 제4장단~제6장단 b^b의 시김새

위의 <악보 149>에서 살펴보면 b^b은 농음이나 퇴성이 나타나지 않으며, 평으로 낸다. 대금은 b^b'이 대박의 첫 음으로 나타날 때 또는 새로운

호흡에서 출현할 때 장식음으로  $b^b-d^b$ 이 나타난다. 피리는  $b^b$ 의 장식음으로  $d^b$ 이 나타난다.

### ⑤ $d^b$ (솔)

<삼현타령> 제4장단부터 제6장단에서 나타나는  $d^b$ 의 시김새는 아래 <악보 150>에서 보는 것과 같다.

<악보 150> 삼현타령 제4장단~제6장단  $d^b$ 의 시김새



위의 <악보 150>에서 살펴보면  $d^b$ 은 퇴성하며, 이후 하행하는 음진행을 보인다.

이상의 내용을 정리하면, <삼현타령> 제1장 제4장단~제6장단의 주요 시김새는 다음과 같다.  $e^b$ 은 출현빈도가 낮아 시김새가 나타나지 않는다.  $g^b$ 은 퇴성한다.  $a^b$ 에서 피리는 치켜 떠는 상행 농음을 한다.  $b^b$ 은 평으로 낸다.  $d^b$ 은 주로 퇴성한다.

시김새 중 장식음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e^b$ 의 장식음으로 대금은  $g^b$ , 피리는  $B^b$ 이 나타난다.  $a^b$ 의 장식음으로 대금은  $b^b$ ,  $d^b-b^b$ , 피리는 염불조의 시김새인  $f-e^b$ (올리더름)이 나타난다. 대금은  $b^b$ 의 장식음으로  $b^b-d^b$ 이 나타나며, 피리는  $b^b$ 의 장식음으로  $d^b$ 이 나타난다.

요컨대, <삼현타령> 제1장 제4장단~제6장단의 음계는 ' $e^b$ (라)- $g^b$ (도)- $a^b$ (레)- $b^b$ (미)- $d^b$ (솔)'이다. 관용적 구조선율은  $b^b-g^b$ 이며, 핵음은  $e^b$ (라)

·  $b^b$ (미), 중지음은  $g^b$ (도)이다.

$a^b$ 과  $d^b$ '은 경과음으로 나타난다.

주요 시김새는 다음과 같다.  $g^b$ 은 퇴성한다.  $a^b$ 에서 피리는 치켜 떠는 상행 농음을 한다.  $b^b$ 은 평으로 내는 음이다.  $d^b$ '은 주로 퇴성한다.  $a^b$ 의 장식음으로 피리는 염불조의 시김새인  $f-e^b$ (올리더름)이 나타난다.

## (2) 느린허튼타령

<느린허튼타령>은 《염불풍류》의 네 번째 악곡으로 연주되며, 출현음과 구조선율 · 핵음 · 중지음, 그리고 시김새 분석을 통해 악곡을 살펴보겠다.

### 1) 출현음

<느린허튼타령>의 출현음을 다음 <악보 151>에서 살펴보겠다.¹⁷⁵⁾

<악보 151> 느린허튼타령 출현음

대금

$e^b$ (라)  $g^b$ (도)  $a^b$ (레)  $b^b$ (미)  $d^{b''}$ (솔)

피리

$e^b$ (라)  $g^b$ (도)  $a^b$ (레)  $b^b$ (미)  $d^{b'}$ (솔)  $e^{b'}$ (라)  $g^{b'}$ (도)

<악보 151>를 살펴보면, <느린허튼타령>의 출현음은  $e^b$ (라),  $g^b$ (도),  $a^b$ (레),  $b^b$ (미),  $d^b$ '(솔)까지 대금 · 피리가 동일하게 나타난다. 피리는 최고음이  $e^b$ '(라)까지 나타나며,  $g^b$ '(도)이 짧은 경과음으로 출현한다.

175) 흰 음표는 주요 출현음이며, 검은 음표는 짧은 경과음이나 장식음으로 나타나는 음이다. 검은 음표의 음이름은 이탤릭체로 구분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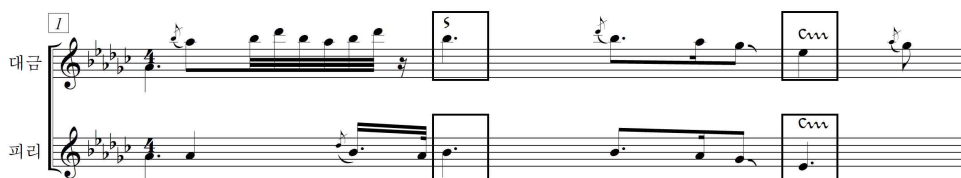
## 2) 구조선율 · 핵음 · 종지음

<느린허튼타령>은 총 12장단의 악곡이다. <느린허튼타령>의 종지는 대부분 장단 단위로 나타나므로, 악구는 장단을 단위로 하여 총 12개로 나누어 살펴보겠다. 제1악구부터 제5악구와 제12악구는 대금과 피리의 선율이 유사하게 진행하지만 제6악구부터 제11악구의 선율은 서로 다르다. 그러므로 제6악구부터 제11악구는 대금과 피리를 각각 나누어 분석하겠다.

### ① 느린허튼타령 제1악구

<느린허튼타령>의 제1악구는 제1장단이다. 제1악구는 다음의 <악보 152>에서 보겠다.

<악보 152> 느린허튼타령 제1악구(제1장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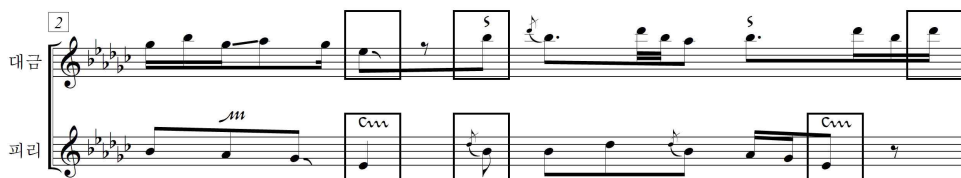


위의 <악보 152>에서 살펴보면 대금은 제1박에서  $a^b$ '으로 시작하여 박의 끝에서  $a^b$ ' ·  $b^b$ '을 거쳐  $d^b$ "까지 상행한 후 제2박에서  $b^b$ '으로 진행한다.  $b^b$ '은 제3박까지 이어지며 제3박의 끝에서  $a^b$ '을 경과하여  $g^b$ '으로 하행한다. 이후 마지막 박에서  $e^b$ '으로 하행하여 종지감을 준 후, 박의 마지막에  $g^b$ '을 들어내며 종지감을 상실한다. 피리는 제1박에서  $a^b$ 으로 시작하여  $b^b$ ,  $a^b$ 을 경과 후 제2박에서  $b^b$ 으로 진행한다.  $b^b$ '은 제3박까지 이어지며 제3박의 끝에서  $a^b$ 을 경과하여  $g^b$ 으로 하행한다. 이후 마지막 박에서  $e^b$ 으로 하행하여 종지감을 준다. 제1악구의 구조선율은  $a^b$ - $b^b$ - $e^b$ , 핵음은  $e^b$  ·  $b^b$ , 종지음은  $e^b$ 이다.

## ② 느린허튼타령 제2악구

<느린허튼타령>의 제2악구는 제2장단이다. 제2악구는 다음의 <악보 153>에서 보겠다.

<악보 153> 느린허튼타령 제2악구(제2장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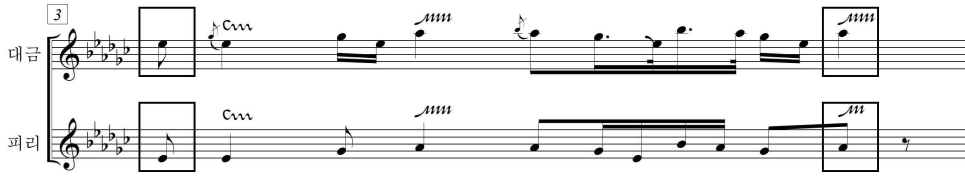


위의 <악보 153>에서 살펴보면 대금은 제1박에서  $g^b \cdot b^b$ 을 경과하여  $a^b$ 으로 진행 후  $g^b$ 을 경과하여 제2박의  $e^b$ 으로 도달한다. 이후  $b^b$ 으로 완전5도 상행하여 제4박까지  $b^b$ 을 중심으로 진행한다. 마지막 박의 끝에서는  $d^b$ 을 들어내며 다음 진행을 예고한다. 피리는 제1박에서  $b^b \cdot a^b \cdot g^b$ 을 순차적으로 하행하여 제2박의  $e^b$ 으로 도달한다. 이후  $b^b$ 으로 완전5도 상행한 후 제3박은  $b^b$ 을 중심으로 진행한다. 제4박에서는 순차 하행하여  $e^b$ 으로 귀결하여 종지한다. 대금과 피리는 유사한 진행을 보인다 종지에서 다른 진행을 한다. 대금은 상행하여 다음 악구의 진행을 예고하며 악구를 마치고, 피리는 하행하여 종지감을 주며 악구를 마친다. 제2악구의 구조선율은  $a^b - e^b - b^b - d^b / e^b$ 이다. 핵음은  $e^b \cdot b^b$ , 대금의 종지음은  $d^b$ , 피리의 종지음은  $e^b$ 이다. 제2악구의 종지감을 주는 음은 피리의  $e^b$ 이다.

## ③ 느린허튼타령 제3악구

<느린허튼타령>의 제3악구는 제3장단이다. 제3악구는 다음의 <악보 154>에서 보겠다.

<악보 154> 느린허튼타령 제3악구(제3장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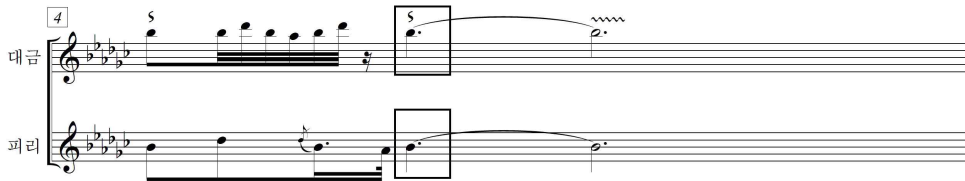


위의 <악보 154>에서 살펴보면 대금과 피리는  $e^b$ 으로 시작하여 제2박에서  $g^b$ 을 경과하여  $a^b$ 으로 상행한다. 제3박에서는  $a^b$ 을 시작으로  $g^b$ ,  $e^b$ ,  $b^b$ ,  $a^b$ 을 경과하여 제4박에서 다시  $a^b$ 으로 진행한다. 제3악구의 구조선율은  $e^b - a^b$ 이고, 핵음은  $e^b \cdot a^b$ , 종지음은  $a^b$ 이다.

④ 느린허튼타령 제4악구

<느린허튼타령>의 제4악구는 제4장단이다. 제4악구는 다음의 <악보 155>에서 보겠다.

<악보 155> 느린허튼타령 제4악구(제4장단)



위의 <악보 155>에서 살펴보면 대금과 피리는  $b^b$ 으로 시작하여  $d^{b'}$ ,  $b^b$ ,  $a^b$ 을 경과하여 제2박에서 다시  $b^b$ 으로 진행한다.  $b^b$ 은 제2박부터 제4박까지 길게 지속한다. 제4악구의 구조선율은  $b^b$ 이고, 핵음과 종지음은  $b^b$ 이다.

⑤ 느린허튼타령 제5악구

<느린허튼타령>의 제5악구는 제5장단이다. 제5악구는 다음의 <악보 156>에서 보겠다.

<악보 156> 느린허튼타령 제5악구(제5장단)



위의 <악보 156>에서 살펴보면 대금은 제1박에서  $d^b$ ''으로 시작하여  $e^b$ ''으로上行 후 다시  $d^b$ ''으로 돌아온다. 이후 제2박의  $b^b$ '으로 하행한다. 제3박에서는  $d^b$ ''으로上行 후 제4박에서  $b^b$ ' ·  $a^b$ ' ·  $g^b$ '을 순차 하행하여  $e^b$ '으로 도달한다. 피리는 제1박에서  $d^b$ '으로 시작하여  $e^b$ '으로上行한다. 제2박에서는  $d^b$ ' ·  $b^b$ 을 경과하여  $a^b$ 까지 순차 하행한다. 제4박에서는  $g^b$ 으로 하행한 뒤  $e^b$ 으로 귀결한다. 제5악구의 구조선율은  $e^b$ '- $d^b$ '/ $a^b$ - $e^b$ 이고, 핵음은  $e^b$ ' ·  $e^b$ , 종지음은  $e^b$ 이다.

⑥ 느린허튼타령 제6악구

<느린허튼타령>의 제6악구는 제6장단이다. 제6악구는 다음의 <악보 157>에서 보겠다.

<악보 157> 느린허튼타령 제6악구(제6장단)



위의 <악보 157>에서 살펴보면 대금은 제1박에서  $b^b$ '으로 시작하여  $d$

$b^b$ 을 경과 후 다시  $b^b$ 으로 돌아온다. 제2박에서는  $b^b$ 을 중심으로 움직이며, 제3박에서는  $a^b$ 으로 하행한 후  $e^b$ 으로 귀결한다. 제4박에서는  $b^b$ 으로 상행한 후  $d^b$ 을 들어내며 다음 진행을 예고한다. 피리는 제1박에서  $b^b$ 으로 시작하여  $d^b$ 으로 상행하였다가 다시  $b^b$ 으로 돌아온다. 제2박에서는  $a^b$ 으로 하행하고, 제3박에서  $e^b$ 으로 완전4도 하행한 후 마지막 박에서  $g^b$ 을 들어내며 종지한다. 제6악구의 대금의 구조선율은  $b^b-a^b-e^b-b^b-d^b$ 이고, 핵음은  $e^b \cdot b^b$ , 종지음은  $d^b$ 이다. 피리의 구조선율은  $b^b-a^b-e^b-g^b$ 이고, 핵음은  $e^b \cdot b^b$ , 종지음은  $g^b$ 이다.

### ⑦ 느린허튼타령 제7악구

<느린허튼타령>의 제7악구는 제7장단이다. 제7악구는 다음의 <악보 158>에서 보겠다.

<악보 158> 느린허튼타령 제7악구(제7장단)



위의 <악보 158>에서 살펴보면 대금은 제1박에서  $b^b \cdot a^b \cdot g^b \cdot e^b \cdot a^b$ 을 경과하여 제2박의  $e^b$ 으로 도달한다. 이후 제2박의 끝에서  $b^b$ 으로 상행한 후 제3박의  $d^b$ 으로 상행한다. 제3박의 끝에서는  $a^b$ 으로 하행한다. 제4박에서는  $b^b$ 으로 진행하여 제4박의 끝에서  $d^b$ 을 들어내며 마친다. 피리는 제1박에서  $d^b$ 으로 시작하여  $b^b$ 을 경과 후  $e^b$ 으로 상행한다. 제2박에서는  $g^b$ 을 경과 후 다시  $e^b$ 으로 돌아온다. 제3박에서는  $d^b$ 에서 시작하여 제4박까지 순차 하행하여  $e^b$ 으로 귀결한다. 제7악구의 대금의 구조선율은  $e^b-d^b-b^b-d^b$ , 핵음은  $e^b \cdot b^b$ , 종지음은  $d^b$ 이다. 피리의 구조선율은  $d^b-e^b-d^b-a^b-e^b$ , 핵음은  $e^b \cdot e^b$ 이, 종지음은  $e^b$ 이다.

## ⑧ 느린허튼타령 제8악구

<느린허튼타령>의 제8악구는 제8장단이다. 제8악구는 다음의 <악보 159>에서 보겠다.

<악보 159> 느린허튼타령 제8악구(제8장단)



위의 <악보 159>에서 살펴보면 대금은 제1박에서  $d^b$ ''으로 시작하여 퇴성하며  $b^b$ '으로 향한다. 제2박에서는  $g^b$ '으로 하행한 후  $e^b$ '을 경과하여  $b^b$ 으로 상행한다. 이후 제3박에서  $d^b$ ''으로 상행 후  $b^b$ '을 경과하여  $a^b$ '으로 하행한다. 제4박은  $b^b$ '으로 시작 후  $d^b$ '' ·  $b^b$ '을 경과하여  $a^b$ '으로 하행한다. 피리는 제6악구의 피리 선율과 동일하다. <느린허튼타령>에서는 이와 같은 피리의 진행에서 선율이 일단락되는 느낌을 주며, 가장 안정된 종지감을 준다. 제8악구의 대금의 구조선율은  $b^b$ '- $g^b$ '- $d^b$ ''- $b^b$ '- $a^b$ ', 핵음은  $b^b$ ', 종지음은  $a^b$ '이다. 피리의 구조선율은  $b^b$ - $a^b$ - $e^b$ - $g^b$ 이, 핵음은  $e^b$  ·  $b^b$ , 종지음은  $g^b$ 이다.

## ⑨ 느린허튼타령 제9악구

<느린허튼타령>의 제9악구는 제9장단이다. 제9악구는 다음의 <악보 160>에서 보겠다.

<악보 160> 느린허튼타령 제9악구(제9장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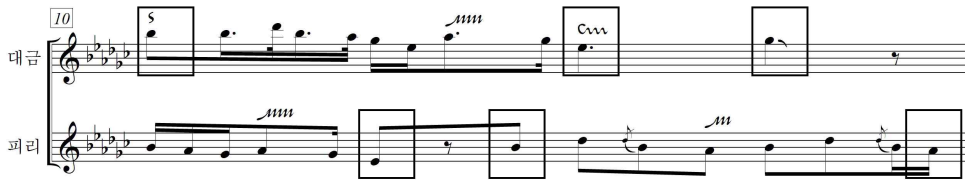


위의 <악보 160>에서 살펴보면 대금은 제1박에서  $b^{\flat'}$ 을 중심으로  $d^{\flat''}$  ·  $a^{\flat'}$ 을 경과하여 제2박의  $g^{\flat'}$ 으로 진행한다.  $g^{\flat'}$ 은  $e^{\flat'}$ 을 경과하여  $b^{\flat}$ 으로 상행한다. 제3박에서는  $b^{\flat'}$ 으로 시작하여 박의 끝에서  $d^{\flat''}$ 을 들어낸 후, 제4박에서 순차 하행하여  $e^{\flat'}$ 으로 귀결하며 종지감을 준다. 피리는 제1박에서  $b^{\flat}$ 을 중심으로  $d^{\flat'}$  ·  $a^{\flat}$ 을 경과하여 제2박의  $b^{\flat}$ 으로 진행한다. 제3박에서는  $g^{\flat}$ 을 경과하여  $a^{\flat}$ 으로 진행 후  $e^{\flat}$ 으로 도달한다. 이때  $e^{\flat}$ 에서 종지감을 주지만 마지막 박에서  $b^{\flat}$ 으로 상행 후  $d^{\flat'}$ 을 들어내며 다음 악구와의 연결을 예비한다. 제9악구의 대금의 구조선율은  $b^{\flat'}-g^{\flat'}-b^{\flat'}$  ·  $e^{\flat'}$ 이고, 핵음은  $e^{\flat'} \cdot b^{\flat'}$ , 종지음은  $e^{\flat'}$ 이다. 피리의 구조선율은  $b^{\flat}-a^{\flat}-e^{\flat}-b^{\flat}-d^{\flat'}$ 이고, 핵음은  $e^{\flat} \cdot b^{\flat}$ , 종지음은  $d^{\flat'}$ 이다.

㉑ 느린허튼타령 제10악구

<느린허튼타령>의 제10악구는 제10장단이다. 제10악구는 다음의 <악보 161>에서 보겠다.

<악보 161> 느린허튼타령 제10악구(제10장단)



위의 <악보 161>에서 살펴보면 대금은 제1박에서  $b^{\flat'}$ 을 중심으로  $d^{\flat''}$  ·  $a^{\flat'}$ 을 경과하여 제2박의  $a^{\flat'}$ 으로 하행한 후 제3박에서  $e^{\flat'}$ 으로 하행한다.  $e^{\flat'}$  이후 제4박에서  $g^{\flat'}$ 으로 상행하여 퇴성하며 종지감을 준다. 피리는 제1박에서  $b^{\flat}$ ,  $a^{\flat}$ ,  $g^{\flat}$ 을 경과하여  $a^{\flat}$ 으로 진행한 후 제2박에서  $e^{\flat}$ 으로 도달한다. 제2박의 끝에서  $b^{\flat}$ 으로 완전5도 상행 후, 제3박에서  $d^{\flat'}$ 까지 상행한 후  $b^{\flat}$ 을 거쳐  $a^{\flat}$ 으로 귀결한다. 제4박에서는 직전 박의 진행을 반복한다. 제10악구의 대금의 구조선율은  $b^{\flat'}-a^{\flat'}-e^{\flat'}-g^{\flat'}$ , 핵음은  $e^{\flat'} \cdot b^{\flat'}$ , 종지음은  $g^{\flat'}$ 이다. 피리의 구조선율은  $a^{\flat}-e^{\flat}-b^{\flat}-a^{\flat}$ 이고, 핵음은  $e^{\flat} \cdot b^{\flat}$ , 종지음은  $a^{\flat}$ 이다.

⑪ 느린허튼타령 제11악구

<느린허튼타령>의 제11악구는 제11장단이다. 제11악구는 다음의 <악보 162>에서 보겠다.

<악보 162> 느린허튼타령 제11악구(제11장단)



위의 <악보 162>에서 살펴보면 대금은 제1박에서  $b^{\flat'}$ 을 중심으로 움직인다. 제2박에서는  $g^{\flat'}$ 으로 시작하여  $b^{\flat'}$ 을 경과하여  $d^{\flat''}$ 으로 상행한다.



제3박에서는  $b^b$ '으로 시작하여  $a^b$ '을 경과한 후  $d^b$ '으로 상행한다. 제4박에서는  $b^b$ '을 중심으로 진행한다. 피리는 제1박에서  $b^b$ 을 중심으로 움직인다. 제2박에서는  $g^b$ 으로 시작하여  $e^b$ 을 경과한 후  $b^b$ 으로 상행한다. 제3박에서는  $b^b$ 으로 시작하여 박의 끝에서  $d^b$ '을 들어낸 후, 제4박에서  $e^b$ 으로 하행하여 종지감을 준다. 제11악구부터 대금과 피리의 선율이 유사해진다. 제11악구의 대금의 구조선율은  $b^b$ '- $g^b$ '- $b^b$ ', 핵음은  $b^b$ ', 종지음은  $b^b$ '이다. 피리의 구조선율은  $b^b$ - $g^b$ - $b^b$ - $e^b$ 이고, 핵음은  $e^b$  ·  $b^b$ , 종지음은  $e^b$ 이다.

## ⑫ 느린허튼타령 제12악구

<느린허튼타령>의 제12악구는 제12장단이다. 제12악구의 대금 선율은 제10악구와 동일하고, 피리 선율은 제8악구와 동일하므로 상세한 서술은 생략한다. 또한 대금과 피리의 진행이 유사하므로 두 악기의 분석은 통합한다. 제12악구는 다음의 <악보 163>에서 보겠다.

<악보 163> 느린허튼타령 제12악구(제12장단)



제12악구의 구조선율은  $b^b$ - $a^b$ - $e^b$ - $g^b$ 이고, 핵음은  $e^b$  ·  $b^b$ , 종지음은  $g^b$ 이다.

이상의 내용을 정리하면, <느린허튼타령>의 관용적 구조선율은  $a^b$ - $e^b$  176),  $b^b$ - $e^b$ ,  $a^b$ - $e^b$ - $g^b$ 이다. 핵음은  $e^b$ (라) ·  $b^b$ (미)이며, 종지음은  $e^b$ (라)

176)  $a^b$ - $e^b$ 은 염불조의 관용적 구조선율과 같지만, 세부 진행에서 두 음 사이에  $g^b$ 을 경과하여( $a^b$ - $g^b$ - $e^b$ ) 차이가 있다. 본고에서는 <느린허튼타령>에서 자주 나타

·  $g^b$ (도)이다.

$e^b$ 과  $g^b$ 은 두 음 모두 종지감을 주며,  $g^b$ 의 종지는 항상 단3도 아래 음인  $e^b$ 을 선행한다. 또한  $g^b$ 은 퇴성을 하여 종지감과 동시에 연결감이 나타난다.  $g^b$ 의 종지는 악곡의 마지막 장단과 단락의 마무리를 지을 때 나타난다. 한편,  $g^b$ 은 종지 이외에 나타나는 경우 경과음 또는  $e^b$ 으로 하행하려는 성질의 음으로, 독립적으로 나타나는 음이 아니므로 핵음에는 포함하지 않는다.  $d^b$ '은 다음 악구의 진행을 예고하며 반종지하는 경우에 마지막 음으로 나타난다.¹⁷⁷⁾ 이때  $d^b$ '앞에  $b^b$ 이 선행한다.  $a^b$ 과  $d^b$ '은 주로 경과음으로 나타나는 음이다.

<느린허튼타령>의 구조선율 · 핵음 · 종지음 분석을 정리하면 다음의 [표 23]¹⁷⁸⁾에서 보는 것과 같다.

---

나는 관용적 구조선율이므로 이를 포함하였다.

177) 이러한 경우  $d^b$ '을 악구의 종지음으로 보았으나, 종지감을 주는 음은 아니므로 악곡의 종지음에는 포함하지 않는다. 이러한  $d^b$ '의 성격은 <삼현도드리>에서도 나타난다.

178) 구조선율에서 밑줄 친 부분은 관용적 구조선율에 해당한다.

[표 23] 느린허튼타령 구조선율 · 핵음 · 종지음

악구	구조선율		핵음	종지음
1	$a^b - \underline{b^b} - e^b$		$e^b \cdot b^b$	$e^b$
2	$a^b - \underline{e^b} - b^b - d^b / \underline{e^b}$		$e^b \cdot b^b$	$d^b, e^b$
3	$e^b - a^b$		$e^b \cdot a^b$	$a^b$
4	$b^b$		$b^b$	$b^b$
5	$e^b, d^b / \underline{a^b} - e^b$		$e^b, e^b$	$e^b$
6	대금	$b^b, a^b, e^b, b^b, d^b$	$e^b, b^b$	$d^b$
	피리	$b^b - \underline{a^b} - e^b - g^b$	$e^b \cdot b^b$	$g^b$
7	대금	$e^b, d^b, b^b, d^b$	$e^b \cdot b^b$	$d^b$
	피리	$d^b, e^b, d^b, \underline{a^b} - e^b$	$e^b \cdot e^b$	$e^b$
8	대금	$b^b, g^b, d^b, b^b, a^b$	$b^b$	$a^b$
	피리	$b^b - \underline{a^b} - e^b - g^b$	$e^b \cdot b^b$	$g^b$
9	대금	$b^b, g^b, b^b, \underline{e^b} - e^b$	$e^b, b^b$	$e^b$
	피리	$b^b - \underline{a^b} - e^b - b^b - d^b$	$e^b \cdot b^b$	$d^b$
10	대금	$b^b, a^b, e^b, g^b$	$e^b, b^b$	$g^b$
	피리	$a^b - e^b - b^b - a^b$	$e^b \cdot b^b$	$a^b$
11	대금	$b^b, g^b, b^b$	$b^b$	$b^b$
	피리	$b^b - g^b - b^b - e^b$	$e^b \cdot b^b$	$e^b$
12	$b^b - a^b - e^b - g^b$		$e^b \cdot b^b$	$g^b$
종합	<p>$a^b - e^b \quad b^b - e^b \quad a^b - e^b - g^b$</p>		<p>$e^b \quad b^b$</p>	<p>$e^b$</p>

### 3) 시김새

<느린허튼타령>의 시김새는  $e^b$ (라),  $g^b$ (도),  $a^b$ (레),  $b^b$ (미),  $d^b$ (솔) 다섯 음으로 나누어 살펴보겠다.

### ① e^b(라)

<느린허튼타령>의 e^b에서 나타나는 시김새는 아래 <악보 164>에서 보는 것과 같다.

<악보 164> 느린허튼타령 e^b의 시김새

위의 <악보 164>에서 살펴보면 e^b은 굵은 농음을 하며, a^b에서 e^b으로 하행하는 경우 장식음으로 g^b이 나타난다. 대금은 e^b'을 짧게 끊는 경우 퇴성한다.

### ② g^b(도)

<느린허튼타령>의 g^b에서 나타나는 시김새는 아래 <악보 165>에서 보는 것과 같다.

<악보 165> 느린허튼타령  $g^b$ 의 시김새

위의 <악보 165>에서 살펴보면  $g^b$ 은 퇴성한다.  $g^b$ 은 대부분 퇴성하며 중지하거나 또는  $e^b$ 으로 하행한다.  $e^b$ 을 선행한 후  $g^b$ 을 퇴성하는 진행은 안정된 중지감을 준다. 대금은 제11장단 제2박에서는  $g^b$ 에서 농음이 나타난다.  $g^b$ 의 장식음으로는  $a^b$ 이 나타난다.

③  $a^b$ (레)

<느린허튼타령>의  $a^b$ 에서 나타나는 시김새는 아래 <악보 166>에서 보는 것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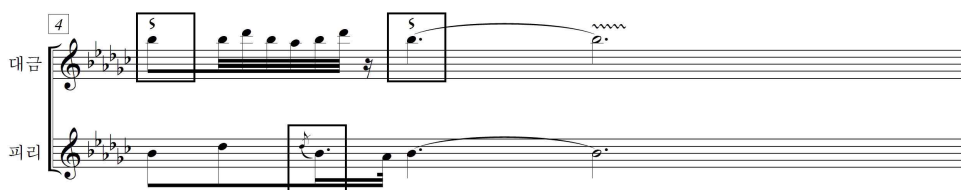
<악보 166> 느린허튼타령  $a^b$ 의 시김새

위의 <악보 166>에서 살펴보면  $a^b$ 은 상행 농음한다. 대금은  $a^b$ '이 대박의 첫 음으로 나타날 때  $b^b$ '이 장식음으로 나타난다.

#### ④ $b^b$ (미)

<느린허튼타령>의  $b^b$ 에서 나타나는 시김새는 아래 <악보 167>에서 보는 것과 같다.

<악보 167> 느린허튼타령  $b^b$ 의 시김새



<느린허튼타령>에서  $b^b$ 은 농음을 하지 않고 평으로 내는 음이다. 위의 <악보 167>에서 살펴보면 대금은  $b^b$ 을 길게 지속하며 박의 끝에서 농음을 한다. 이외에 대금과 피리 모두  $b^b$ 의 농음이나 퇴성은 나타나지 않는다. 대금은  $b^b$ 이 대박의 첫 음으로 나타날 때 또는 새로운 호흡에서 출현할 때 장식음으로  $b^b$ - $d^b$ 이 나타난다. 피리는  $d^b$ 에서  $b^b$ 으로 하행할 때  $d^b$ 이  $b^b$ 의 장식음으로 나타난다. 피리는 이를 혀침주법으로 연주한다.

#### ⑤ $d^b$ (솔)

<느린허튼타령>의  $d^b$ 에서 나타나는 시김새는 아래 <악보 168>에서 보는 것과 같다.

<악보 168> 느린허튼타령  $d^b$ 의 시김새



위의 <악보 168>에서 살펴보면 대금은  $d^b$ 에서  $b^b$ 으로 하행시  $d^b$ 을 퇴성한다. 피리는 시김새가 나타나지 않는다.

이상의 내용을 정리하면, <느린허튼타령>의 주요 시김새는 다음과 같다.  $e^b$ 은 굵은 농음을 하고, 대금은  $e^b$ 을 짧게 끊는 경우 퇴성한다.  $g^b$ 은 퇴성,  $a^b$ 은 상행 농음을 한다.  $b^b$ 은 농음이나 퇴성 등의 시김새가 나타나지 않는다.  $d^b$ 의 시김새는 대금은  $b^b$ 으로 하행 시 퇴성하고, 피리의 시김새는 나타나지 않는다.

시김새 중 장식음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e^b$ 의 장식음으로는  $a^b$ 에서  $e^b$ 으로 하행하는 경우  $g^b$ 이 나타난다.  $g^b$ 의 장식음으로는  $a^b$ 이 나타난다. 대금은  $a^b$ 의 장식음으로  $b^b$ 이 나타난다. 대금은  $b^b$ 의 장식음으로  $b^b-d^b$ 이, 피리는  $d^b$ 에서  $b^b$ 으로 하행할 때  $d^b$ 이  $b^b$ 앞에서 장식음으로 나타난다. 피리는 이를 혀침주법으로 연주한다.

요컨대, <느린허튼타령>의 음계는 ‘ $e^b$ (라)- $g^b$ (도)- $a^b$ (레)- $b^b$ (미)- $d^b$ (솔)’이다. 관용적 구조선율은  $a^b-e^b$ ,  $b^b-e^b$ ,  $a^b-e^b-g^b$ 이며, 핵음은  $e^b$ (라)· $b^b$ (미)이며, 종지음은  $e^b$ (라)· $g^b$ (도)이다.

$g^b$ 은 종지 이외에는 주로 경과음으로 나타나므로 핵음에는 포함하지 않는다.  $d^b$ 은 경과음 또는 다음 악구의 진행을 예비하며 반종지하는 경우 마지막 음으로 나타난다.  $a^b$ 은 주로 경과음으로 나타나는 음이다.

주요 시김새는 다음과 같다.  $e^b$ 은 굵은 농음을 한다.  $g^b$ 은 퇴성,  $a^b$ 은 상행 농음한다.  $b^b$ 은 평으로 내는 음이다.  $d^b$ 은 대금이  $b^b$ 으로 하행할 때 퇴성을 한다. 장식음은 각 구성음의 한 음 위의 음으로 나타난다.

### (3) 중허튼타령

<중허튼타령>은 《염불풍류》의 다섯 번째 악곡으로 연주되며, 출현음과 구조선율·핵음·종지음, 그리고 시김새 분석을 통해 악곡을 살펴보

겠다.

## 1) 출현음

<중허튼타령>의 출현음을 다음 <악보 169>에서 살펴보겠다.

<악보 169> 중허튼타령 출현음

대금

e^b(라) g^b(도) a^b(레) b^b(미) d^b(솔) e^b(라)

피리

e^b(라) g^b(도) a^b(레) b^b(미) d^b(솔) e^b(라)

<악보 169>을 살펴보면, <중허튼타령>의 출현음은 e^b(라), g^b(도), a^b(레), b^b(미), d^b(솔), e^b(라)으로 대금과 피리가 동일하게 나타난다.

## 2) 구조선율 · 핵음 · 종지음

<중허튼타령>은 총 24장단의 악곡이다. 악구는 장단을 단위로 총 24개 악구로 나누어, 악구별 구조선율과 핵음, 종지음을 살펴보겠다. <중허튼타령>은 전 악구에 걸쳐 대금과 피리의 선율 진행이 각각 다르므로 악기별로 나누어 분석하겠다.

### ① 중허튼타령 제1악구

<중허튼타령>의 제1악구는 제1장단과 같다. 제1악구는 다음의 <악보 170>에서 보겠다.



<악보 170> 중허튼타령 제1악구(제1장단)



위의 <악보 170>에서 살펴보면 대금은 제1박에서  $b^b$ '을 밟고  $d^b$ '으로 상행한다. 이후  $b^b$ ',  $a^b$ '을 경과 후 제2박의  $b^b$ '으로 진행한다.  $b^b$ '은 제1장단의 마지막 박까지 지속한다. 피리는 제1박에서  $g^b$ 에서 끌어올린  $a^b$ 으로 시작하여 제3박에서  $b^b$ 으로 상행한다.  $b^b$ 은 다음 악구의 제2박까지 지속한다. 제1악구의 대금의 구조선율은  $d^b$ '- $b^b$ '이고, 핵음과 종지음은  $b^b$ '이다. 피리의 구조선율은  $a^b$ - $b^b$ 이고, 핵음과 종지음은  $b^b$ 이다.

② 중허튼타령 제2악구

<중허튼타령>의 제2악구는 제2장단과 같다. 제2악구는 다음의 <악보 171>에서 보겠다.

<악보 171> 중허튼타령 제2악구(제2장단)



위의 <악보 171>에서 살펴보면 대금은 제1박에서 직전 악구의  $b^b$ '을 이어간다. 제2박까지  $b^b$ '을 지속한 후 제3박에서  $b^b$ '· $a^b$ '을 경과하여  $g^b$ '으로 하행한다. 제4박의 진행( $g^b$ '- $a^b$ '- $g^b$ ')은 대부분 다음 박의  $e^b$ '으로 귀결된다.¹⁷⁹⁾ 피리는 직전 악구의  $b^b$ 을 제2박까지 지속한다. 제2박의 끝

179) 이는 피리에서도 나타난다. 이러한 진행이 악구의 마지막 박에 나타나는

에서  $a^b$ 을 경과 후 제3박에서  $g^b$ 으로 하행하고, 제4박에서  $e^b$ 으로 귀결하여 종지감을 준다. 제2악구의 대금의 구조선율은  $b^b'-a^b'-g^b'$ 이고, 핵음은  $b^b'$ , 종지음은  $g^b'$ 이다. 피리의 구조선율은  $b^b-a^b-g^b-e^b$ 이고, 핵음은  $e^b \cdot b^b$ , 종지음은  $e^b$ 이다.

### ③ 중허튼타령 제3악구

<중허튼타령>의 제3악구는 제3장단과 같다. 제3악구는 다음의 <악보 172>에서 보겠다.

<악보 172> 중허튼타령 제3악구(제3장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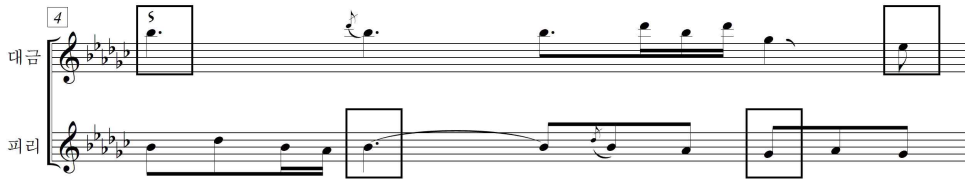
위의 <악보 172>에서 살펴보면 대금은 제1박에서  $e^b'$ 으로 시작하여 제2박에서  $g^b'$ , 제3박에서  $a^b'$ , 제4박에서  $b^b'$ 으로 진행하여  $e^b'$ 에서  $b^b'$ 까지 순차 상행한다. 피리는 제1박에서  $g^b$ 으로 시작하여 제2박에서  $a^b$ 으로 상행한다. 제2박의 끝에서  $g^b$ 을 경과하여, 제3박의  $e^b$ 으로 하행한 후 제4박에서  $g^b$ 으로 진행하며 종지감을 준다. 제3악구의 대금의 구조선율은  $e^b'-g^b'-a^b'-b^b'$ 이고, 핵음은  $e^b' \cdot b^b'$ , 종지음은  $b^b'$ 이다. 피리의 구조선율은  $g^b-a^b-e^b-g^b$ 이고, 핵음은  $e^b \cdot g^b$ , 종지음은  $g^b$ 이다.

### ④ 중허튼타령 제4악구

<중허튼타령>의 제4악구는 제4장단과 같다. 제4악구는 다음의 <악보 173>에서 보겠다.

경우  $g^b$ 을 핵음에는 포함하지 않고, 악구의 종지음으로 보겠다.

<악보 173> 중허튼타령 제4악구(제4장단)



위의 <악보 173>에서 살펴보면 대금은 제1박에서  $b^b$ '으로 시작하여 제3박까지 이어간 후 제3박의 끝에서  $d^b$ '을 들어낸다. 제4박에서는  $g^b$ '으로 하행하여  $e^b$ '으로 귀결한다. 피리는 제1박에서  $b^b$ 을 경과하여  $d^b$ '으로 상행 후 제2박에서  $b^b$ 으로 진행한다. 제3박까지  $b^b$ 을 지속하며 박의 끝에서  $a^b$ 으로 하행한다. 이후 제4박에서  $g^b$ 으로 하행한다. 제4악구의 대금의 구조선율은  $b^b$ '- $g^b$ '- $e^b$ ', 핵음은  $e^b$ '· $b^b$ ', 종지음은  $e^b$ '이다. 피리의 구조선율은  $d^b$ '- $b^b$ - $g^b$ 이고, 핵음은  $b^b$ , 종지음은  $g^b$ 이다.

⑤ 중허튼타령 제5악구

<중허튼타령>의 제5악구는 제5장단과 같다. 제5악구는 다음의 <악보 174>에서 보겠다.

<악보 174> 중허튼타령 제5악구(제5장단)



위의 <악보 174>에서 살펴보면 대금은 제1박의 끝에서  $d^b$ '으로 시작하여 제2박  $b^b$ '으로 진행한다. 제2박과 제3박은  $b^b$ '을 중심으로 움직이며  $d^b$ '이 경과음으로 출현한다. 제4박에서는  $g^b$ 으로 하행하여  $e^b$ '으로 귀결

⑥ 중허튼타령 제6악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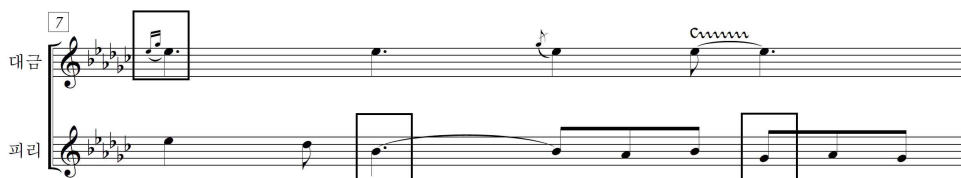
<악보 175> 중허튼타령 제6악구(제6장단)

The first system of musical notation for 'The Wind and the Sun'. It consists of two staves. The top staff is for the '대금' (Daegu) and the bottom staff is for the '피리' (Piri). Both staves are in 3/4 time and use a key signature of two flats (B-flat and E-flat). The '대금' part begins with a measure containing a box labeled '6' and a box labeled 'C#m'. The '피리' part begins with a measure containing a box labeled '111111'. The notation continues with various notes and rests, with some measures enclosed in boxes.

⑦ 중허튼타령 제7악구

- 199 -

<악보 176> 중허튼타령 제7악구(제7장단)



위의 <악보 176>에서 살펴보면 대금은 제1박부터 제4박까지  $e^b$ '을 지속한다. 피리는 제1박에서  $e^b$ '으로 시작하여  $d^b$ '을 경과하여 제2박에서  $b^b$ 으로 하행한다. 이후 제3박에서  $a^b$ 을 경과하여 제4박의  $g^b$ 으로 하행한다. 제7악구의 대금의 구조선율은  $e^b$ '이고, 핵음과 종지음은  $e^b$ '이다. 피리의 구조선율은  $e^b$ '- $b^b$ - $g^b$ 이고, 핵음은  $b^b$ , 종지음은  $g^b$ 이다.

⑧ 중허튼타령 제8악구

<중허튼타령>의 제8악구는 제8장단과 같다. 제8악구는 다음의 <악보 177>에서 보겠다.

<악보 177> 중허튼타령 제8악구(제8장단)



위의 <악보 177>에서 살펴보면 대금은 제1박에서  $e^b$ '으로 시작하여 제2박에서  $g^b$ ', 제3박에서  $a^b$ '으로 상행한다. 제4박에서  $e^b$ '을 경과한 후  $g^b$ '으로 도달한다. 피리는 제1박에서  $e^b$ 으로 시작하여  $b^b$ 으로 상행한다. 제3박에서는  $d^b$ '으로 상행하였다가  $b^b$ 으로 하행 후, 제4박에서  $a^b$ 을 경과하여  $b^b$ 으로 진행한다. 제8악구의 대금의 구조선율은  $e^b$ '- $g^b$ '- $a^b$ '- $g^b$ '이고, 핵음은  $e^b$ ', 종지음은  $g^b$ '이다. 피리의 구조선율은  $e^b$ - $b^b$ - $d^b$ '- $b^b$ 이고,

핵음은  $e^b \cdot b^b$ , 종지음은  $b^b$ 이다.

### ⑨ 중허튼타령 제9악구

<중허튼타령>의 제9악구는 제9장단과 같다. 제9악구는 다음의 <악보 178>에서 보겠다.

<악보 178> 중허튼타령 제9악구(제9장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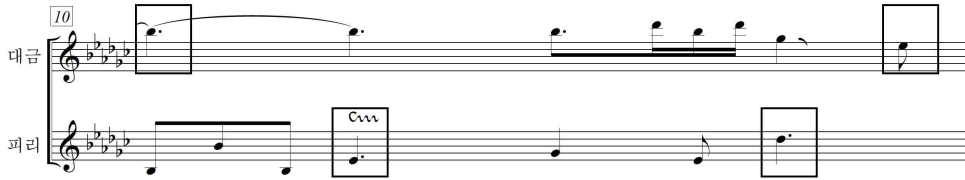


위의 <악보 178>에서 살펴보면 대금은 제1박에서  $a^b \cdot b^b$ 을 경과하여  $d^b$ 으로 상행한다. 이후  $b^b \cdot a^b$ 을 경과한 후 제2박의  $b^b$ 으로 진행한다.  $b^b$ 은 다음 악구의 제2박까지 지속한다. 피리는 제1박에서  $b^b$ 으로 시작하여  $a^b$ 을 경과 후 제2박에서  $g^b$ 으로 하행한다. 제3박에서는  $e^b$ 으로 하행한 후, 제4박에서  $g^b$ 으로 상행하며 종지음을 준다. 제9악구의 대금의 구조선율은  $d^b - b^b$ 이고, 핵음과 종지음은  $b^b$ 이다. 피리의 구조선율은  $b^b - g^b - e^b - g^b$ 이고, 핵음은  $e^b$ , 종지음은  $g^b$ 이다.

### ⑩ 중허튼타령 제10악구

<중허튼타령>의 제10악구는 제10장단과 같다. 제10악구의 구조선율은 다음의 <악보 179>에서 보겠다.

<악보 179> 중허튼타령 제10악구(제10장단)



대금은 제4악구와 동일한 진행이므로 상세한 서술은 생략한다. 위의 <악보 179>에서 살펴보면 피리는 제1박에서 B^b으로 시작하여 제2박의 e^b으로 완전4도 상행한다. 제3박에서는 g^b으로 상행하였다가 박의 끝에서 다시 e^b으로 하행하며 이때 약한 종지감을 준다. 제4박에서는 d^b'으로 단 7도 도약하여 다음 악구의 첫 음인 d^b'으로의 진행을 예비한다. 제10악구의 대금의 구조선율은 b^b'-g^b'-e^b', 핵음은 e^b'·b^b', 종지음은 e^b'이다. 피리의 구조선율은 B^b-e^b-g^b-d^b'이고, 핵음은 e^b', 종지음은 d^b'이다.

⑪ 중허튼타령 제11악구

<중허튼타령>의 제11악구는 제11장단과 같다. 제11악구는 다음의 <악보 180>에서 보겠다.

<악보 180> 중허튼타령 제11악구(제11장단)



대금은 제5악구와 동일한 진행이므로 상세한 서술은 생략한다. 위의 <악보 180>에서 살펴보면 피리는 제1박에서 d^b'으로 시작하여 박의 끝에서 b^b으로 하행한다. 제2박에서는 다시 d^b'으로 상행하여 b^b·a^b을 경과하여 제3박의 b^b으로 진행한다. b^b은 제4박까지 지속하며 박의 끝에서 a

$b^b$ 으로 하행하며 다음 악구의 진행을 예비한다. 제11악구의 대금의 구조선율은  $b^b'-g^b'-e^b'$ 이고, 핵음은  $e^b' \cdot b^b'$ , 종지음은  $e^b'$ 이다. 피리의 구조선율은  $d^b'-b^b'$ 이고, 핵음과 종지음은  $b^b$ 이다.

## ㉔ 중허튼타령 제12악구

<중허튼타령>의 제12악구는 제12장단과 같다. 제12악구는 다음의 <악보 181>에서 보겠다.

<악보 181> 중허튼타령 제12악구(제12장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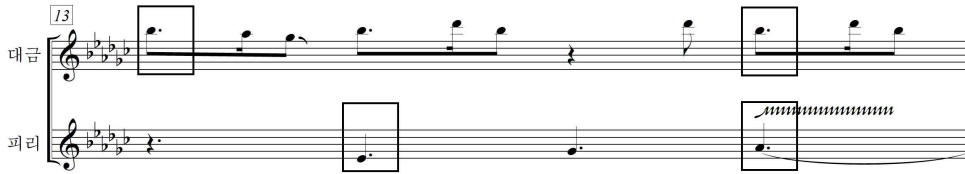
위의 <악보 181>에서 살펴보면 대금은 제1박의 끝에서  $d^b$ 으로 시작하여 제2박의  $b^b$ 으로 진행한다. 제2박은  $b^b$ 을 중심으로 움직이며  $d^b$ 이 박의 중간에 경과음으로 출현한다. 이후 제3박과 제4박은 앞의 선율을 반복한다. 피리는 제1박에서  $g^b$ 으로 시작하여 제2박의  $e^b$ 으로 하행한다. 제2박의 끝에서  $b^b$ 을 경과 후 제3박의  $a^b$ 으로 진행한다. 제3박의 끝에서는  $g^b$ 을 경과하여 제4박의  $e^b$ 으로 귀결한다. 제12악구의 대금의 구조선율은  $b^b'-b^b'$ 이고, 핵음과 종지음은  $b^b$ 이다. 피리의 구조선율은  $g^b-e^b-a^b-e^b$ 이고, 핵음과 종지음은  $e^b$ 이다.

## ㉕ 중허튼타령 제13악구

<중허튼타령>의 제13악구는 제13장단과 같다. 제13악구는 다음의 <악보 182>에서 보겠다.



<악보 182> 중허튼타령 제13악구(제13장단)



위의 <악보 182>에서 살펴보면 대금은 제1박에서  $b^b$ '으로 시작하여  $a^b$ '을 경과하여  $g^b$ '으로 하행한다. 제2박에서는  $b^b$ '을 중심으로 움직이며  $d^b$ '이 박의 중간에 경과음으로 출현한다. 이후 제3박의 끝에서  $d^b$ '으로 시작하여 제4박  $b^b$ '으로 진행한다. 제4박은 제2박과 동일한 진행을 한다. 피리는 제2박에서  $e^b$ 으로 시작한다. 이후 제3박에서  $g^b$ 으로 상행하고 제4박의  $a^b$ 까지 순차 상행한다.  $a^b$ 은 다음 악구까지 이어진다. 제13악구의 대금의 구조선율은  $b^b$ '- $b^b$ '이고, 핵음과 종지음은  $b^b$ '이다. 피리의 구조선율은  $e^b$ - $g^b$ - $a^b$ 이고, 핵음은  $e^b$ , 종지음은  $a^b$ 이다.

⑭ 중허튼타령 제14악구

<중허튼타령>의 제14악구는 제14장단과 같다. 제14악구는 다음의 <악보 183>에서 보겠다.

<악보 183> 중허튼타령 제14악구(제14장단)



위의 <악보 183>에서 살펴보면 대금은 제1박에서  $b^b$ '을 경과하여  $d^b$ '으로 상행한다. 제2박에서는  $b^b$ '으로 하행 후 박의 끝에서 다시  $d^b$ '으로 상행한다. 제3박에서는  $b^b$ '으로 시작하여  $a^b$ '을 경과하여  $d^b$ '으로 상행한

다. 제4박은  $b^b$ '을 중심으로 움직이며  $d^b$ "이 박의 중간에 경과음으로 출현한다. 피리는 직전 악구의 마지막 음  $a^b$ 을 제1박까지 지속한다. 제1박의 끝에서  $b^b$ 을 경과 후 제2박에서  $d^b$ '으로 상행한다. 제2박의 끝에서  $b^b$ 을 경과하여 제3박의  $a^b$ 으로 하행한다. 이후 제4박에서  $b^b$ 으로 상행하며 다음 악구와 연결하려 한다. 제14악구의 대금의 구조선율은  $d^b$ "- $b^b$ '- $b^b$ '이고, 해음과 종지음은  $b^b$ '이다. 피리의 구조선율은  $a^b$ - $d^b$ '- $a^b$ - $b^b$ 이고, 해음은  $a^b \cdot b^b$ , 종지음은  $b^b$ 이다.

### ㉕ 중허튼타령 제15악구

<중허튼타령>의 제15악구는 제15장단과 같다. 제15악구는 다음의 <악보 184>에서 보겠다.

<악보 184> 중허튼타령 제15악구(제15장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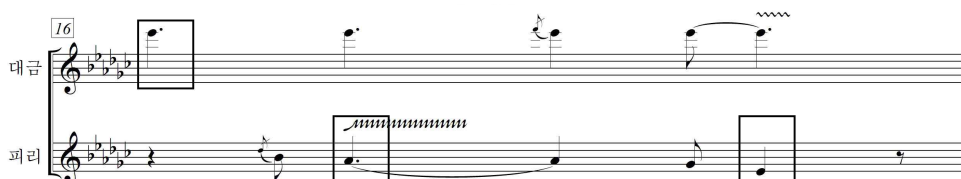


위의 <악보 184>에서 살펴보면 대금은 제1박부터 제4박까지  $d^b$ "을 지속하고, 제4박의 끝에서  $b^b$ '으로 하행하며 다음 악구의 첫 음  $e^b$ "으로의 도약을 준비한다. 피리는 제1박에서  $g^b$ 으로 시작하여 제2박의  $a^b$ 으로 상행한다. 이후  $g^b$ 을 경과하여 제3박에서  $e^b$ 으로 하행한 후, 제4박에서  $g^b$ 으로 진행하며 종지감을 준다. 제15악구의 대금의 구조선율은  $d^b$ "- $b^b$ '이고, 해음은  $d^b$ ", 종지음은  $b^b$ '이다. 피리의 구조선율은  $g^b$ - $a^b$ - $e^b$ - $g^b$ 이고, 해음은  $e^b \cdot a^b$ , 종지음은  $g^b$ 이다.

### ㉖ 중허튼타령 제16악구

<중허튼타령>의 제16악구는 제16장단과 같다. 제16악구는 다음의 <악보 185>에서 보겠다.

<악보 185> 중허튼타령 제16악구(제16장단)



위의 <악보 185>에서 살펴보면 대금은 제1박부터 제4박까지  $e^b$ 을 지속한다. 피리는 제1박의 끝에서  $b^b$ 으로 시작하여 제2박  $a^b$ 으로 진행한다.  $a^b$ 은 제3박까지 지속하다  $g^b$ 을 경과하여 제4박에서  $e^b$ 으로 하행하여 종지감을 준다. 제16악구의 대금의 구조선율은  $e^b$ 이고, 핵음과 종지음은  $e^b$ 이다. 피리의 구조선율은  $a^b - e^b$ 이고, 핵음은  $e^b \cdot a^b$ , 종지음은  $e^b$ 이다.

⑰ 중허튼타령 제17악구

<중허튼타령>의 제17악구는 제17장단과 같다. 제17악구는 다음의 <악보 186>에서 보겠다.

<악보 186> 중허튼타령 제17악구(제17장단)



위의 <악보 186>에서 살펴보면 대금은 제1박에서  $d^b$ 으로 시작한 후  $b^b$ 을 경과하여 제2박의  $e^b$ 으로 상행한다. 위 진행을 제3박과 제4박에

서 동일하게 반복한다. 피리는 제1박의 끝에서  $b^b$ 으로 시작하여 제2박의  $d^b$ 으로 상행한다. 이후 제2박의 끝에서  $b^b$ 을 경과하여 제3박의  $a^b$ 으로 하행한다. 제4박에서는  $b^b$ 으로 상행하여 반중지한다. 제17악구의 대금의 구조선율은  $d^b - e^b - d^b - e^b$ , 핵음은  $d^b \cdot e^b$ , 종지음은  $e^b$ 이다. 피리의 구조선율은  $b^b - d^b - a^b - b^b$ 이고, 핵음과 종지음은  $b^b$ 이다.

### ㉘ 중허튼타령 제18악구

<중허튼타령>의 제18악구는 제18장단과 같다. 제18악구는 다음의 <악보 187>에서 보겠다.

<악보 187> 중허튼타령 제18악구(제18장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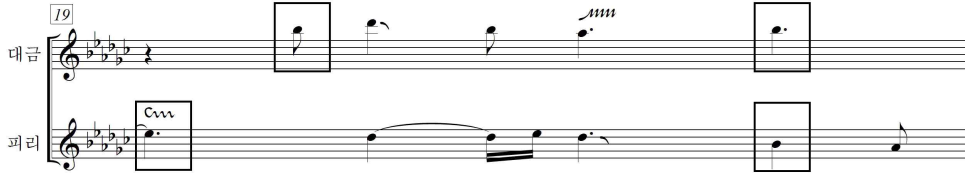


위의 <악보 187>에서 살펴보면 대금은 제1박에서  $d^b$ 으로 시작하여  $b^b$ 으로 하행한 후  $e^b$ 으로 도달한다. 제3박에서는  $d^b$ 을 중심으로 진행하다가 제4박에서  $b^b$ 으로 하행한다. 피리는 제2박에서  $d^b$ 으로 시작하여  $b^b$ 을 경과한 후 제3박에서  $e^b$ 으로 상행하여 다음 악구의 제1박까지  $e^b$ 을 지속한다. 제18악구의 대금의 구조선율은  $d^b - b^b - e^b - d^b - b^b$ 이고, 핵음은  $b^b \cdot e^b$ , 종지음은  $b^b$ 이다. 피리의 구조선율은  $d^b - e^b$ 이고, 핵음과 종지음은  $e^b$ 이다.

### ㉙ 중허튼타령 제19악구

<중허튼타령>의 제19악구는 제19장단과 같다. 제19악구는 다음의 <악보 188>에서 보겠다.

<악보 188> 중허튼타령 제19악구(제19장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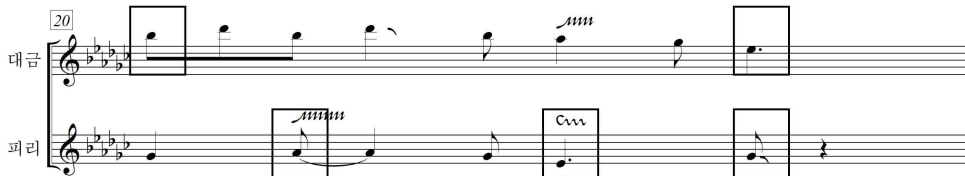


위의 <악보 188>에서 살펴보면 대금은 제1박의 끝에서  $b^b$ '으로 시작하여 제2박의  $d^b$ ''으로 상행한다. 이후  $b^b$ '을 경과하여 제3박의  $a^b$ '으로 하행한다. 제4박에서는  $b^b$ '으로 상행하여 반중지한다. 피리는 직전 악구의  $e^b$ '을 제1박까지 이어서 연주하고 제2박에서  $d^b$ '으로 하행한다. 이후 제4박에서  $b^b$ 으로 도달한다. 제4박의 끝에서는  $a^b$ 을 경과하며 다음 악구의 첫 음  $g^b$ 으로 하행하려는 예비를 한다. 제19악구의 대금의 구조선율은  $b^b$ '- $d^b$ ''- $a^b$ '- $b^b$ '이고, 핵음과 중지음은  $b^b$ '이다. 피리의 구조선율은  $e^b$ '- $d^b$ '- $b^b$ 이고, 핵음은  $b^b$  ·  $e^b$ ', 중지음은  $b^b$ 이다.

㉔ 중허튼타령 제20악구

<중허튼타령>의 제20악구는 제20장단과 같다. 제20악구는 다음의 <악보 189>에서 보겠다.

<악보 189> 중허튼타령 제20악구(제20장단)



위의 <악보 189>에서 살펴보면 대금은 제1박과 제2박에서  $b^b$ '을 중심으로  $d^b$ ''을 경과하는 진행을 한다. 이후 제3박에서  $a^b$ '으로 하행한다. 제

3박의 끝에서  $g^b$ '을 경과 후 제4박에서  $e^b$ '으로 귀결하여 종지감을 준다. 피리는 제15악구와 동일하므로 상세한 서술은 생략한다. 제20악구의 대금의 구조선율은  $b^b'-d^b''-a^b'-e^b'$ 이고, 핵음은  $b^b$ ', 종지음은  $e^b$ '이다. 피리의 구조선율은  $g^b-a^b-e^b-g^b$ 이고, 핵음은  $e^b \cdot a^b$ , 종지음은  $g^b$ 이다.

## ㉔ 중허튼타령 제21악구

<중허튼타령>의 제21악구는 제21장단과 같다. 제21악구는 다음의 <악보 190>에서 보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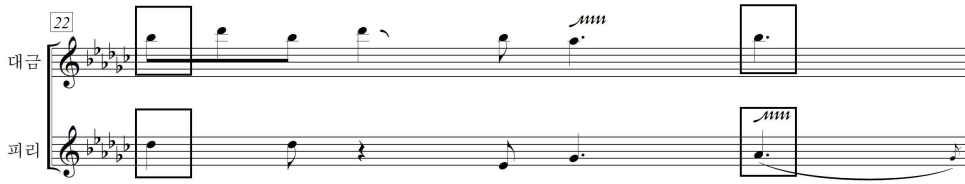
<악보 190> 중허튼타령 제21악구(제21장단)

위의 <악보 190>에서 살펴보면 대금은 제1박에서  $e^b$ '으로 시작하여 제2박에서  $g^b$ ', 제3박에서  $a^b$ ', 제4박에서  $b^b$ '으로 진행하며  $e^b$ '에서  $b^b$ '까지 순차 상승한다. 피리는 제1박의 끝에서  $b^b$ 으로 시작하여 제2박에서  $d^b' \cdot b^b \cdot a^b$ 을 순차 하행하며 경과 후, 제3박에서 다시  $b^b$ 으로 도달한다. 제21악구의 대금의 구조선율은  $e^b'-g^b'-a^b'-b^b'$ , 핵음은  $e^b' \cdot b^b$ , 종지음은  $b^b$ '이다. 피리의 구조선율은  $b^b-b^b$ 이고, 핵음과 종지음은  $b^b$ 이다.

## ㉔ 중허튼타령 제22악구 구조선율

<중허튼타령>의 제22악구는 제22장단과 같다. 제22악구는 다음의 <악보 191>에서 보겠다.

<악보 191> 중허튼타령 제22악구(제22장단)



위의 <악보 191>에서 살펴보면 대금은 제1박과 제2박에서  $b^b$ '을 중심으로  $d^b$ '을 경과하는 진행을 한다. 제3박에서  $a^b$ '으로 하행하였다가 제4박의  $b^b$ '으로 돌아온다. 피리는 제1박에서  $d^b$ '으로 시작한다. 제2박의 끝에서는 단7도 하행한  $e^b$ 을 시작으로 제3박에서  $g^b$ , 제4박에서  $a^b$ 으로 상행한다. 마지막 박의 끝에는  $g^b$ 을 내며 다음 악구의 첫 음  $e^b$ 으로 연결하려 한다. 제22악구의 대금의 구조선율은  $b^b-d^b-a^b-b^b$ , 핵음과 종지음은  $b^b$ '이다. 피리의 구조선율은  $d^b-g^b-a^b$ 이고, 핵음은  $a^b \cdot d^b$ , 종지음은  $a^b$ 이다.

㉔ 중허튼타령 제23악구 구조선율

<중허튼타령>의 제23악구는 제23장단과 같다. 제23악구는 다음의 <악보 192>에서 보겠다.

<악보 192> 중허튼타령 제23악구(제23장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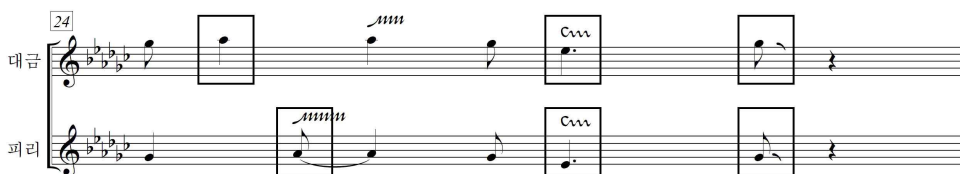
위의 <악보 192>에서 살펴보면 대금은 제22악구와 동일하게 진행하다 제4박의 끝에서  $a^b$ '으로 하행하며 다음 악구와 연결하려 한다. 피리는 제1박에서  $e^b$ 으로 시작하여 박의 끝에서  $b^b$ 으로 상행한다. 제2박에서는

a^b을 경과하여, b^b으로 진행하여 제3박까지 이어진다. 제3박의 끝에서 d^b을 경과한 후 제4박에서 다시 b^b으로 돌아온다. 제23악구의 대금의 구조선율은 b^b'-d^b'-a^b'-b^b', 핵음과 종지음은 b^b'이다. 피리의 구조선율은 e^b-b^b-a^b-b^b이고, 핵음은 e^b · b^b, 종지음은 b^b이다.

## ㉔ 중허튼타령 제24악구

<중허튼타령>의 제24악구는 제24장단과 같다. 제24악구는 다음의 <악보 193>에서 보겠다.

<악보 193> 중허튼타령 제24악구(제24장단)



제24악구는 대금과 피리가 동일한 진행을 하며, 피리 선율은 제15악구와 동일하므로 상세한 서술은 생략한다. 제24악구의 대금의 구조선율은 g^b'-a^b'-e^b'-g^b'이고, 핵음은 e^b' · a^b', 종지음은 g^b'이다. 피리의 구조선율은 g^b-a^b-e^b-g^b이고, 핵음은 e^b · a^b, 종지음은 g^b이다.

이상의 내용을 정리하면, <중허튼타령>의 관용적 구조선율은 e^b-g^b, g^b-e^b, a^b-e^b-g^b이며, 핵음은 e^b(라) · b^b(미)이며, 종지음은 e^b(라) · g^b(도)이다.

<중허튼타령>은 g^b으로 마칠 때 가장 종지감이 강하며, g^b은 퇴성을 하여 종지감과 연결감이 동시에 존재한다. g^b으로 완전종지할 때에는 항상 단3도 아래음인 e^b이 선행된다. e^b으로 종지할 때는 g^b퇴성이 선행될 때 종지감을 준다. b^b은 높은 빈도로 악구를 마치는 음으로 나타나지만 종지감은 약하다. 또한 a^b · d^b' · e^b'으로 악구를 마치는 경우는 종지



감 없이 다음 악구와 연결하기 위한 성격이 강하다.

$g^b$ 은 종지 외에 독립적인 음으로 나타나지 않으므로 핵음에 포함하지 않는다.  $a^b$ 은  $b^b$ 으로 상행하거나  $e^b$ 으로 하행하려는 경과음으로 주로 나타난다.  $d^b$ 은 주로  $b^b$ 을 중심으로 움직이는 선율에서 경과음으로 나타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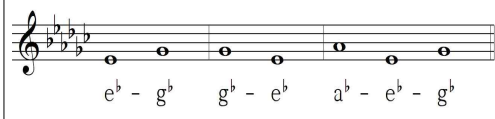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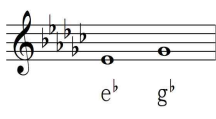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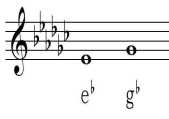
<중허튼타령>의 구조선율 · 핵음 · 종지음 분석을 정리하면 다음의 [표 24]¹⁸⁰⁾에서 보는 것과 같다.

[표 24] 중허튼타령 구조선율 · 핵음 · 종지음

악구		구조선율	핵음	종지음
1	대금	$d^b - b^b$	$b^b$	$b^b$
	피리	$a^b - b^b$	$b^b$	$b^b$
2	대금	$b^b - a^b - g^b$	$b^b$	$g^b$
	피리	$b^b - a^b - g^b - e^b$	$e^b \cdot b^b$	$e^b$
3	대금	$e^b - g^b - a^b - b^b$	$e^b \cdot b^b$	$b^b$
	피리	$g^b - a^b - e^b - g^b$	$e^b \cdot g^b$	$g^b$
4	대금	$b^b - g^b - e^b$	$e^b \cdot b^b$	$e^b$
	피리	$d^b - b^b - g^b$	$b^b$	$g^b$
5	대금	$b^b - g^b - e^b$	$e^b \cdot b^b$	$e^b$
	피리	$e^b - g^b$	$e^b$	$g^b$
6	대금	$e^b - g^b - a^b - e^b$	$e^b$	$e^b$
	피리	$a^b - e^b - b^b - e^b$	$e^b \cdot b^b$	$e^b$
7	대금	$e^b$	$e^b$	$e^b$
	피리	$e^b - b^b - g^b$	$b^b$	$g^b$
8	대금	$e^b - g^b - a^b - g^b$	$e^b$	$g^b$
	피리	$e^b - b^b - d^b - b^b$	$e^b \cdot b^b$	$b^b$
9	대금	$d^b - b^b$	$b^b$	$b^b$

180) 구조선율에서 밑줄 친 부분은 관용적 구조선율에 해당한다.

	피리	$b^b - \underline{g^b - e^b - g^b}$	$e^b$	$g^b$
10	대금	$b^{b'} - \underline{g^{b'} - e^{b'}}$	$e^{b'} \cdot b^{b'}$	$e^{b'}$
	피리	$B^b - \underline{e^b - g^b} - d^{b'}$	$e^b$	$d^{b'}$
11	대금	$b^{b'} - \underline{g^{b'} - e^{b'}}$	$e^{b'} \cdot b^{b'}$	$e^{b'}$
	피리	$d^{b'} - b^b$	$b^b$	$b^b$
12	대금	$b^{b'} - b^{b'}$	$b^{b'}$	$b^{b'}$
	피리	$\underline{g^b - e^b} - a^b - e^b$	$e^b$	$e^b$
13	대금	$b^{b'} - b^{b'}$	$b^{b'}$	$b^{b'}$
	피리	$\underline{e^b - g^b} - a^b$	$e^b$	$a^b$
14	대금	$d^{b''} - b^{b'} - b^{b'}$	$b^{b'}$	$b^{b'}$
	피리	$a^b - d^{b'} - a^b - b^b$	$a^b \cdot b^b$	$b^b$
15	대금	$d^{b''} - b^{b'}$	$d^{b''}$	$b^{b'}$
	피리	$\underline{g^b - a^b - e^b - g^b}$	$e^b \cdot a^b$	$g^b$
16	대금	$e^{b''}$	$e^{b''}$	$e^{b''}$
	피리	$a^b - e^b$	$e^b \cdot a^b$	$e^b$
17	대금	$d^{b''} - e^{b''} - d^{b''} - e^{b''}$	$d^{b''} \cdot e^{b''}$	$e^{b''}$
	피리	$b^{b'} - d^{b'} - a^b - b^b$	$b^{b'}$	$b^{b'}$
18	대금	$d^{b''} - b^{b'} - e^{b''} - d^{b''} - b^{b'}$	$b^{b'} \cdot e^{b''}$	$b^{b'}$
	피리	$d^{b'} - e^{b'}$	$e^{b'}$	$e^{b'}$
19	대금	$b^{b'} - d^{b''} - a^{b'} - b^{b'}$	$b^{b'}$	$b^{b'}$
	피리	$e^{b'} - d^{b'} - b^b$	$b^b \cdot e^{b'}$	$b^b$
20	대금	$b^{b'} - d^{b''} - a^{b'} - e^{b'}$	$b^{b'}$	$e^{b'}$
	피리	$\underline{g^b - a^b - e^b - g^b}$	$e^b \cdot a^b$	$g^b$
21	대금	$e^{b'} - g^{b'} - a^{b'} - b^{b'}$	$e^{b'} - b^{b'}$	$b^{b'}$
	피리	$b^{b'} - b^b$	$b^b$	$b^b$
22	대금	$b^{b'} - d^{b''} - a^{b'} - b^{b'}$	$b^{b'}$	$b^{b'}$
	피리	$d^{b'} - \underline{g^b} - a^b$	$a^b \cdot d^{b'}$	$a^b$
23	대금	$b^{b'} - d^{b''} - a^{b'} - b^{b'}$	$b^{b'}$	$b^{b'}$
	피리	$e^b - b^b - a^b - b^b$	$e^b \cdot b^b$	$b^b$
24	대금	$\underline{g^b - a^{b'} - e^{b'} - g^{b'}}$	$e^{b'} \cdot a^{b'}$	$g^{b'}$

	피리	$g^b - a^b - e^b - g^b$	$e^b \cdot a^b$	$g^b$	
종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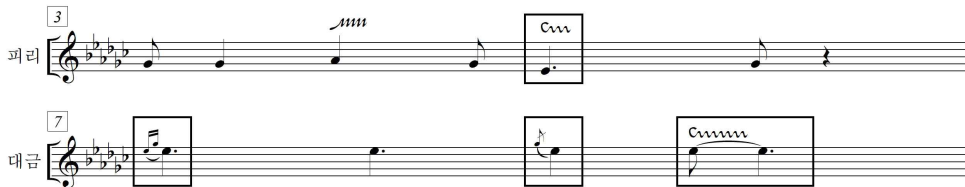
### 3) 시김새

<중허튼타령>의 시김새는  $e^b$ (라),  $g^b$ (도),  $a^b$ (레),  $b^b$ (미),  $d^b$ (솔) 다섯 음으로 나누어 살펴보겠다.

#### ① $e^b$ (라)

<중허튼타령>의  $e^b$ 에서 나타나는 시김새는 아래 <악보 194>에서 보는 것과 같다.

<악보 194> 중허튼타령  $e^b$ 의 시김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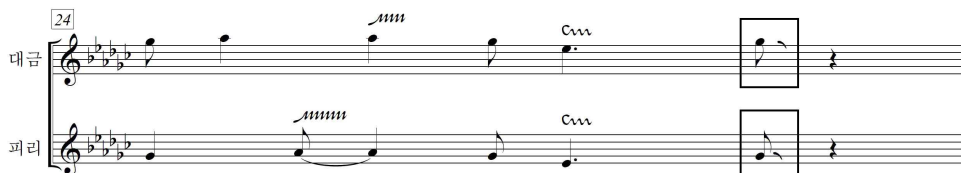
위의 <악보 194>에서 살펴보면 대금·피리 모두  $e^b$ 에서 굽은 농음을 하며, 이는 <중허튼타령>의  $e^b$ 에서 나타나는 주요 시김새이다. 또한  $e^b$ 의 장식음으로는 대금에서  $e^b - g^b$ 이 나타나며, 동음 진행하는 경우  $g^b$ 이 나타난다.

#### ② $g^b$ (도)

<중허튼타령>의  $g^b$ 에서 나타나는 시김새는 아래 <악보 195>에서 보는

것과 같다.

<악보 195> 중허튼타령  $g^b$ 의 시김새



위의 <악보 195>에서 살펴보면 대금 · 피리 모두  $g^b$ 은 퇴성하며, <중허튼타령>에서 대부분의  $g^b$ 은 퇴성한다.

③  $a^b$ (레)

<중허튼타령>의  $a^b$ 에서 나타나는 시김새는 아래 <악보 196>에서 보는 것과 같다.

<악보 196> 중허튼타령  $a^b$ 의 시김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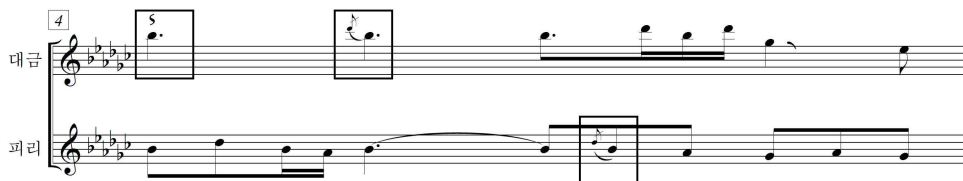


위의 <악보 196>에서 살펴보면  $a^b$ 은 상행 농음하며, <중허튼타령>에서 대부분의  $a^b$ 은 상행 농음한다.  $a^b$ 의 장식음으로는 대금에서  $b^b$ 이 나타난다.

④  $b^b$ (미)

<중허튼타령>의  $b^b$ 에서 나타나는 시김새는 아래 <악보 197>에서 보는 것과 같다.

<악보 197> 중허튼타령  $b^b$ 의 시김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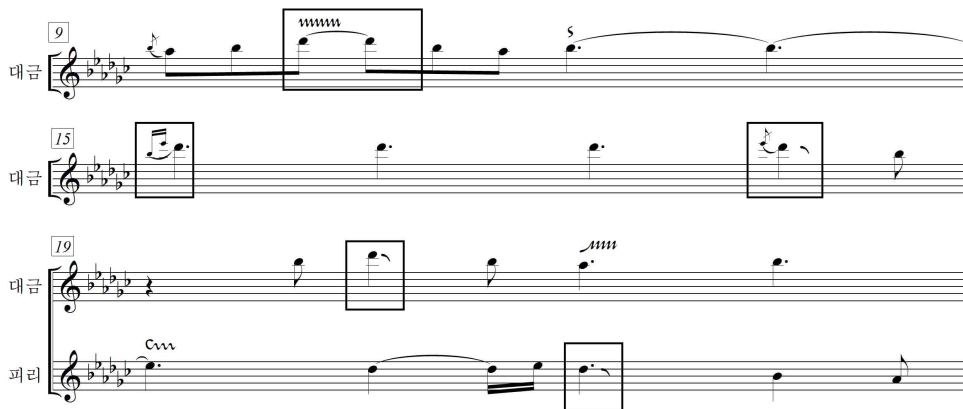


<중허튼타령>에서  $b^b$ 은 농음이나 퇴성이 나타나지 않는다. <악보 197>에서 살펴보면 대금·피리 모두 장식음으로  $d^b$ '이 나타나며, 대금은  $b^b$ - $d^b$ "이 나타난다.

⑤  $d^b$ '(솔)

<중허튼타령>의  $d^b$ '에서 나타나는 시김새는 아래 <악보 198>에서 보는 것과 같다.

<악보 198> 중허튼타령  $d^b$ '의 시김새



위의 <악보 198>에서 살펴보면  $d^b$ '은 하행 시 퇴성한다. 대금은 대부분 이러한 진행에서 퇴성하고, 피리는 19마디에서만 퇴성이 나타난다. 대금은  $d^b$ '을 짧게 경과할 때 목튀김 농음을 한다. 또한 대금은  $d^b$ '의 장식음으로  $e^b$ ",  $b^b$ '- $e^b$ "이 나타난다.

이상의 내용을 정리하면, 주요 시김새는 다음과 같다.  $e^b$ 은 굵은 농음을 한다.  $g^b$ 은 퇴성을 한다.  $a^b$ 은 상행 농음을 한다.  $b^b$ 은 농음이나 퇴성이 나타나지 않으며 평으로 낸다.  $d^b$ '에서 대금은 하행 시 퇴성을 한다. 또한 대금은  $d^b$ '을 짧게 경과할 때 목튀김 농음을 한다.

시김새 중 장식음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e^b$ 의 장식음으로는 대금에서  $e^b$ '- $g^b$ '이 나타나며, 동음 진행하는 경우  $g^b$ '이 나타난다.  $a^b$ 의 장식음으로는 대금에서  $b^b$ '이 나타난다.  $b^b$ 의 장식음으로는 대금·피리 모두  $d^b$ '이 나타나며, 대금은  $b^b$ '- $d^b$ "이 나타난다. 또한 대금은  $d^b$ '의 장식음으로  $e^b$ ",  $b^b$ '- $e^b$ "이 나타난다.

요컨대, <중허튼타령>의 음계는 ' $e^b$ (라)- $g^b$ (도)- $a^b$ (레)- $b^b$ (미)- $d^b$ '(솔)'이다. 관용적 구조선율은  $e^b$ - $g^b$ ,  $g^b$ - $e^b$ ,  $a^b$ - $e^b$ - $g^b$ 이며, 핵음은  $e^b$ (라)· $b^b$ (미)이며, 종지음은  $e^b$ (라)· $g^b$ (도)이다.

$a^b$ 은  $b^b$ 으로 상행하거나  $e^b$ 으로 하행하는 경과음으로 주로 나타난다.  $d^b$ '은 주로  $b^b$ 을 중심으로 움직이는 선율에서 경과음으로 나타난다.

주요 시김새는 다음과 같다.  $e^b$ 은 굵은 농음,  $g^b$ 은 퇴성,  $a^b$ 은 상행 농음을 한다.  $b^b$ 은 평으로 내는 음이다.  $d^b$ '에서 대금은 하행 시 퇴성하며, 또한 대금은  $d^b$ '을 짧게 경과할 때 목튀김 농음을 한다. 장식음은 구성음의 한 음 위의 음으로 나타난다.

#### (4) 자진허튼타령

<자진허튼타령>은 <중허튼타령>과 매우 유사하므로 생략한다.

## 나. 삼현영산회상계

본 항에서는 《삼현영산회상》 악곡 중 허튼타령조에 해당하는 악곡인 <중영산>, <жат영산>, <삼현도드리>, <염불도드리> 제5장~제7장, <삼현타령> 제1장을 살펴보겠다.

### (1) 중영산

<중영산>은 《삼현영산회상》의 두 번째 악곡으로 연주되며, 출현음과 구조선을 · 핵음 · 종지음, 그리고 시김새 분석을 통해 악곡을 살펴보겠다.

#### 1) 출현음

<중영산>의 출현음을 다음 <악보 199>에서 살펴보겠다.¹⁸¹⁾

<악보 199> 중영산 출현음

대금

a^b(레) b^b(미) e^b(라) f'(사) g^b(도) a^b(레) b^b(미) d^b''(솔)

피리

e^b(라) f'(사) g^b(도) a^b(레) b^b(미) d^b(솔) e^b(라)

<악보 199>를 살펴보면, <중영산>에서 대금의 주요 출현음은 a^b(레), b^b(미), e^b(라), g^b(도), a^b(레), b^b(미), d^b''(솔)이다. 피리의 주요 출현음은 e^b(라), g^b(도), a^b(레), b^b(미), d^b(솔), e^b(라)이다. 대금과 피리의 출

181) 흰 음표는 주요 출현음이며, 검은 음표는 다른 악조의 출현음이다. 검은 음표의 음이름은 이탤릭체로 구분하였다.

현음 중 f(시)는 출현빈도¹⁸²⁾가 낮고, 타 악조의 구성음이므로 주요 출현음에 포함하지 않는다.

## 2) 구조선율 · 핵음 · 종지음

<중영산>은 총 18장단의 악곡이다. 악구는 피리가 일관된 종지 선율을 보이며, 동시에 대금이 연음 또는 연음과 유사한 진행을 보이는 구간을 기준으로 나눈다. 이는 장단 단위로 나타나지 않으며, 악구의 길이는 불규칙하다. 악구는 총 13개로 나누어지며, 악구별 구조선율과 핵음, 종지음을 살펴보겠다.

### ① 중영산 제1악구

<중영산>의 제1악구는 제1장단부터 제2장단까지이다. 제1악구는 다음의 <악보 200>에서 보겠다.

---

182) 대금은 f의 출현이 독립적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1회, 꾸밈음 또는 짧은 경과음으로는 7회 나타난다. 피리는 f의 출현이 독립적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3회, 장식음 또는 경과음으로는 15회로 대금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빈도로 나타난다.



<악보 200> 중영산 제1악구(제1장단~제2장단)

위의 <악보 200>에서 살펴보면 제1장단 제1박에서 피리는  $a^b$ 을 밝고  $d^b$ 으로 상행한다. 제2박에서는  $b^b$ 을 밝고  $e^b$ 으로 상행한다. 제4박에서는 앞의 선율을 변주한다. 제6박에서는  $b^b$ 에서  $g^b$ 으로 하행하였다가  $b^b$ 을 경과한 후  $e^b$ 으로 도달한다. 제9박에서는  $d^b$ · $b^b$ 을 경과하여 제10박에서 다시  $e^b$ 으로 도달한다. 대금은 제1장단에서  $b^b$ 으로 시작한다. 이후 피리가  $d^b$ 으로 상행할 때 대금도 동일한  $d^b$ 을 내며, 이외의 진행에서 대금은 지속적으로  $b^b$ 을 중심으로 진행한다.¹⁸³⁾

183) <중영산>에서는 피리가  $e^b$ 을 진행할 때 대금은  $b^b$ 으로 진행한다. 이러한 진행이 나타날 때의 구조선율은 피리의  $e^b$ 으로 보겠다. 대금의  $b^b$ 이 출현하는 위치는 피리가  $e^b$ 또는  $b^b$ 으로 진행하는 경우이므로, 대금은 상대적으로  $b^b$ 의 진행이 높은 빈도로 나타난다. 이러한 연주 형태를 보면 대금 선율은 피리 선율의

제2장단에서 대금과 피리는 제1박에서  $b^b$ 을 경과하여  $a^b$ 으로 하행한다.  $a^b$ 은 제3박까지 지속한다. 제4박에서 피리는  $g^b \cdot b^b$ 을 경과하여  $e^b$ 으로 상행한다. 이후 제5박에서  $b^b$ 으로 하행하여 퇴성한 후 제6박의  $a^b$ 으로 귀결한다.  $a^b$ 은 제9박까지 길게 지속하며 종지감을 준다. 이후  $b^b$ 을 경과하여  $g^b$ 을 퇴성하며 종지한다. 제4박에서 대금은  $a^b$ 을 경과하여  $b^b$ 으로 상행한다. 이후 제6박에서부터  $a^b$ 을 중심으로 진행하여 제8박에서 종지감이 나타난 후에, 제9박과 제10박은  $b^b$ 에서  $d^b$ 으로 상행하는 연음을 한다.¹⁸⁴⁾ 제1악구의 구조선율은  $d^b \cdot e^b \cdot d^b \cdot e^b \cdot b^b \cdot g^b \cdot e^b \cdot d^b \cdot e^b \cdot b^b \cdot a^b \cdot (-g^b) \cdot (-b^b \cdot d^b)$ ¹⁸⁵⁾이며, 핵음은  $a^b \cdot e^b$ , 종지음은  $a^b \cdot (-g^b)$ ¹⁸⁶⁾이다.

## ② 중영산 제2악구

<중영산>의 제2악구는 제3장단부터 제4장단까지이다. 제2악구는 다음의 <악보 201>에서 보겠다.

배경 역할임을 알 수 있고, 이로 인해 피리 선율의 움직임이 뚜렷하게 드러나게 한다. 그러므로 피리 선율을 주선율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며, 이러한 경우 구조 선율은 피리를 따르겠다.

184) <중영산>의 연음은 <대영산>과 달리 다음 장단의 첫 박으로 이어지지 않고, 장단의 마지막 박에서 마치며 <대영산>에 비해 상대적으로 짧다.

185) 괄호 안의 구조선율은 대금의 연음이다.

186) <중영산>은 악구의 종지에서 <대영산>과 같이  $a^b$ 으로 진행 시 종지감이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종지에서 피리는  $a^b$ 의 끝에  $g^b$ 을 붙이고,  $g^b$ 은 퇴성을 한다. 이때  $g^b$ 의 퇴성은 종지감과 연결감이 모두 존재하므로 두 음을 함께 종지음으로 보며, 종지감이 강하게 느껴지는  $a^b$ 을 앞에 두고, 연결감이 있는  $g^b$ 은 괄호 안에 넣는다.

<악보 201> 중영산 제2악구(제3장단~제4장단)

The musical score is for two instruments: Daegum (대금) and Piri (피리). The key signature is G-flat major (four flats). The time signature is 4/4. The score is divided into two systems. The first system contains measures 3 and 4. The second system contains measures 5, 6, 7, and 8. Measures 9 and 10 are also shown. The Piri part has various ornaments (trills, grace notes) and dynamic markings (s, Crr). The Daegum part has some ornaments and dynamic markings (Crr).

위의 <악보 201>에서 살펴보면 제3장단의 제1박에서 피리는  $a^b$ 을 밟고  $d^b$ 으로 상행하여 제2박까지 지속한 후, 제3박의  $e^b$ 으로 도달한다. 제4박에서 피리는  $b^b \cdot e^b \cdot f$ 를 경과하여 제5박의  $a^b$ 으로 진행하여 염불조의 종지감을 준다. 이후 제6박에서  $b^b$ 을 경과하여  $e^b$ 으로 상행한다. 제8박에서는 다시  $b^b$ 을 경과하여 제9박의  $d^b$ 으로 상행 후  $e^b$ 까지 끌어올리는 요성을 한다. 제10박에서는  $b^b$ 을 경과하여, 제4장단 제1박의  $a^b$ 으로 하행한다.  $a^b$ 은 제4박까지 지속하며 종지감을 준다. 이후 제5박에서  $f$ 로 하행하여 퇴성하며 제6박의  $e^b$ 으로 하행한 후, 제8박에서  $a^b$ 으로 귀결한 후  $g^b$ 으로 하행하며 종지한다.

제3장단의 제4박까지 대금은 피리와 유사하게 진행하고, 제4박에서 피

리가 f로 진행할 때 대금은 g^{b'}으로 진행하며 제5박에서 e^{b'}으로 하행하였다가 a^{b'}으로 상행한다. 이후 제6박부터 제4장단의 제9박까지 피리와 유사한 진행을 하고, 제10박에서는 b^{b'}에서 d^{b''}으로 상행하는 연음을 한다. 제2악구의 구조선율은 d^{b'}-e^{b'}-a^b-b^b-e^{b'}-b^b-d^{b'}-e^{b'}-b^b-a^b-f-e^b-a^b(-g^b)(-b^{b'}-d^{b''})이며, 핵음은 a^b · e^{b'}, 종지음은 a^b(-g^b)이다.

### ③ 중영산 제3악구

<중영산>의 제3악구는 제5장단과 같다. 제3악구는 다음의 <악보 202>에서 보겠다.

<악보 202> 중영산 제3악구(제5장단)

위의 <악보 202>에서 살펴보면 제5장단의 제1박에서 피리는 b^b을 밟고 e^{b'}으로 상행한다. 이후 제2박에서 b^b을 경과한 후 제3박의 a^b으로 귀결한다. a^b은 제4박까지 지속한 후 g^b을 퇴성하며 종지감을 준다. 이후 제5박에서 b^b으로 상행 후 제7박에서 a^b으로 귀결한다. 이후 a^b은 g^b으로 하행하여 퇴성하는 종지 선율을 반복한 후 제10박에서 종지한다. 대금은 피리와 유사한 진행을 하며, 피리의 종지 후 대금은 d^{b''}으로 상행하는 연음을 한다. 제3악구의 구조선율은 e^{b'}-b^b-a^b(-g^b)-b^b-a^b(-g^b)(-d^b)이며, 핵음은 a^b · e^{b'}, 종지음은 a^b(-g^b)이다.

#### ④ 중영산 제4악구

<중영산>의 제4악구는 제6장단 제1박부터 제7장단 제5박까지이다. 제4악구는 다음의 <악보 203>에서 보겠다.

<악보 203> 중영산 제4악구(제6장단 제1박~제7장단 제5박)

위의 <악보 203>에서 살펴보면 제6장단의 제1박에서 피리는  $a^b$ 을 밝고  $d^b$ '으로 상행한다. 이후 제2박의 끝에서  $b^b$ 을 밝고 제3박에서  $e^b$ '으로 도달한다.  $e^b$ '은 제5박까지 이어진다. 제6박에서 피리는 제1박부터 제5박의 진행( $a^b$ - $d^b$ '- $e^b$ ')을 반복한 후  $b^b$ 으로 하행한 후  $a^b$ 으로 귀결한다.  $a^b$ 은 제7장단의 제3박까지 지속하며 제4박에서  $g^b$ 으로 하행하여 퇴성하며 종지한다. 대금은 피리와 유사하게 진행하며 피리의 종지 후  $d^b$ "으로 상행하는 연음으로 마친다. 제4악구의 구조선율은  $d^b$ '- $e^b$ '- $d^b$ '- $e^b$ '- $b^b$ - $a^b$  ( $-g^b$ )-( $d^b$ )이며, 핵음은  $a^b \cdot e^b$ , 종지음은  $a^b$  ( $-g^b$ )이다.

⑤ 중영산 제5악구

<중영산>의 제5악구는 제7장단 제6박부터 제8장단 제10박까지이다. 제5악구는 다음의 <악보 204>에서 보겠다.

<악보 204> 중영산 제5악구(제7장단 제6박~제8장단 제10박)

위의 <악보 204>에서 살펴보면 제7장단 제6박에서 피리는  $b^b$ 을 밝고  $e^b$ '으로 상행한다.  $e^b$ '은 제7박까지 지속한다. 제8박에서는  $b^b$ 으로 하행 후 제9박에서  $d^b$ '으로 상행하여  $e^b$ '까지 끌어올리는 요성을 한다. 제10박에서는  $d^b \cdot b^b$ 을 경과하여 제8장단 제1박의  $a^b$ 으로 하행한다.  $a^b$ 은 제4박까지 지속하며 중지감을 준다. 이후 제5박에서  $f$ 로 하행하여 퇴성하며 제6박의  $e^b$ 으로 하행한 후, 제8박에서  $a^b$ 으로 귀결한 후  $g^b$ 으로 하행하며 중지한다.

대금은 피리와 유사한 진행을 하다 제8장단의 제5박에서 피리가 f로

진행할 때 대금은  $e^b$ '으로 하행한 후  $g^b$ '으로 진행한다. 이후 제6박에서  $a^b$ 을 경과한 후 피리와 동일한 진행을 한다. 제10박에서 대금의 연음은  $b^b$ '에서  $d^b$ '으로 상행하여 마친다. 제5악구의 구조선율은  $e^b$ '- $b^b$ - $d^b$ '- $e^b$ '- $a^b$ - $f$ - $e^b$ - $a^b$ (- $g^b$ )(- $b^b$ - $d^b$ ')이며, 핵음은  $a^b \cdot e^b$ ', 종지음은  $a^b$ (- $g^b$ )이다.

## ⑥ 중영산 제6악구

<중영산>의 제6악구는 제9장단 제1박부터 제10장단 제5박까지이다. 제6악구는 다음의 <악보 205>에서 보겠다.

<악보 205> 중영산 제6악구(제9장단 제1박~제10장단 제5박)

위의 <악보 205>에서 살펴보면 제9장단의 제1박에서 피리는  $a^b$ 을 밟고  $d^b$ '으로 상행한다. 이후 제2박에서  $b^b$ 을 밟고  $e^b$ '으로 도달한다.  $e^b$ '은  $d^b$ ',  $b^b$ 을 경과하며 제5박까지 이어진다. 제6박에서는 제1박과 같이  $a^b$ 을 밟고  $d^b$ '으로 상행한 후  $g^b$ 으로 완전5도 하행한다. 이후 제8박에서

다시  $e^b$ '으로 도달한다. 제9박에서는  $b^b$ 을 경과 후 제10박의  $a^b$ 으로 귀결한다.  $a^b$ 은 제10장단의 제3박까지 이어지며 제4박에서  $g^b$ 으로 하행하여 퇴성하며 종지한다. 대금은 피리와 유사한 진행을 보이다 피리가  $a^b$ 을 지속하는 도중 제10장단의 제3박에서  $f$ 가 출현한다. 이후  $b^b$ 에서  $d^b$ 으로 상행하는 연음을 한다. 제6악구의 구조선율은  $d^b-e^b-d^b-e^b-d^b-g^b-e^b-b^b-a^b(-g^b)(-b^b-d^b)$ 이며, 핵음은  $a^b \cdot e^b$ , 종지음은  $a^b(-g^b)$ 이다.

### ⑦ 중영산 제7악구

<중영산>의 제7악구는 제10장단 제6박부터 제11장단 제10박까지이다. 제7악구는 다음의 <악보 206>에서 보겠다.

<악보 206> 중영산 제7악구(제10장단 제6박~제11장단 제10박)

The musical score for 'Jungyeong Mountain' (중영산) 7th movement, measures 6-10, is presented in two staves: '대금' (Daegum) and '피리' (Piri). The key signature is three flats (B-flat, E-flat, A-flat). The score includes various musical notations such as notes, rests, and dynamic markings. There are also some annotations in Korean, including 'Cm' and 's'.

위의 <악보 206>에서 살펴보면 제10장단의 제6박과 제7박에서 피리는  $g^b$ 에서  $b^b$ 으로 상행하는 진행을 반복한다. 제8박에서는  $a^b$ 으로 진행 후



e^b · b^b을 경과하여 제10박의 e^b'으로 도달한다. 제7악구에서 대금은 b^b'으로 시작하여 a^b'으로 하행 후 e^b'을 경과한 후 제10장단의 제9박에서 피리와 동일한 a^b으로 진행한다. 이후 제10박에서는 피리가 e^b'으로 상행할 때 대금은 d^b"으로 상행한다.

제11장단의 제1박에서는 피리가 a^b에서 b^b으로 상행 후 제2박에서는 g^b에서 b^b으로 상행한다. 이후 제3박에서 d^b'으로 상행한다. 이때 대금은 제11장단의 제1박에서 b^b을 경과하여 a^b으로 도달한 후 제3박까지 지속한다. 제4박부터는 대금 · 피리 모두 유사하게 진행한다. 대금과 피리는 제4박에서 b^b을 경과하여 제5박에서 a^b으로 하행한다. 이후 e^b으로 하행하였다가 제7박에서 a^b으로 귀결한다. a^b은 제11장단 제8박까지 지속한 후 제9박에서 g^b으로 하행하여 종지한다. 이후 대금은 b^b에서 d^b"으로 상행하는 연음을 한다. 제7악구의 구조선율은 g^b-a^b-e^b'-b^b-d^b'-b^b-a^b-e^b-a^b(-g^b)(-b^b-d^b')이며, 핵음은 g^b · a^b · e^b', 종지음은 a^b(-g^b)이다.

## ⑧ 중영산 제8악구

<중영산>의 제8악구는 제12장단과 같다. 제8악구는 다음의 <악보 207>에서 보겠다.

<악보 207> 중영산 제8악구(제12장단)

The musical score is for the 8th measure group (제8악구) of 'Jungyeong Mountain' (중영산), which corresponds to the 12th measure group (제12장단). It is written for two staves: 'Daegum' (대금) and 'Piri' (피리). The key signature is three flats (B-flat, E-flat, A-flat). The time signature is 4/4. The score consists of two systems, each with four measures. The first system has four measures. The second system has four measures. The score includes various musical notations such as notes, rests, slurs, and dynamic markings. There are also some annotations in Korean, including '(4장)' and '12' in a box.

위의 <악보 207>에서 살펴보면 제12장단의 제1박에서 피리는  $a^b$ 을 밝고  $d^b$ '으로 상행한다. 이후 제2박에서  $b^b$ 을 밝고  $e^b$ '으로 도달한다.  $e^b$ '은  $d^b$ ',  $b^b$ 을 경과하며 제5박까지 이어진다. 제6박에서는  $b^b$ 을 밝고 다시  $e^b$ '으로 상행한 후 제7박에서  $b^b$ 을 경과하여  $a^b$ 으로 하행한다.  $a^b$ 은 제8박까지 이어지며 제9박에서  $g^b$ 으로 하행하여 종지한다. 제8악구의 대금은 단조로운 선을 진행을 보인다. 대금은  $b^b$ '을 제1박부터 제8박까지 지속한다. 이후 제9박에서  $b^b$ '으로 시작하여  $g^b$ '으로 하행 후, 제10박에서  $e^b$ '을 경과하여  $a^b$ '으로 상행하는 연음을 한다. 제8악구의 구조선율은  $d^b \cdot e^b \cdot d^b \cdot e^b \cdot a^b (-g^b)(-b^b - a^b)$ 이며, 핵음은  $a^b \cdot e^b$ , 종지음은  $a^b(-g^b)$ 이다.

### ⑨ 중영산 제9악구

<중영산>의 제9악구는 제13장단과 같다. 제9악구는 다음의 <악보 208>에서 보겠다.

<악보 208> 중영산 제9악구(제13장단)

위의 <악보 208>에서 살펴보면 피리는 제13장단의 제1박에서  $b^b$ 을 밝고  $e^b$ '으로 상행한다. 이후  $e^b$ '은  $d^b \cdot b^b$ 을 경과하며 제4박까지 이어진다. 제5박에서는  $d^b \cdot b^b$ 을 경과하여  $a^b$ 까지 하행한다. 제6박에서는  $g^b$ 으로 시작하여  $b^b$ 을 경과한 후 다시  $e^b$ '으로 도달한다. 제8박에서는  $b^b$

으로 하행한 후  $a^b$ 으로 귀결한다.  $a^b$ 은 제10박에서  $g^b$ 으로 하행하여 중지한다. 제9악구에서 대금은  $b^b$ 을 중심으로 움직이며, 제10박에서는  $b^b$ 에서  $a^b$ 으로 하행하며 다음 악구의  $a^b$ 을 예비하는 연음을 한다. 제9악구의 구조선율은  $e^b-d^b-e^b-d^b-g^b-e^b-b^b-a^b(-g^b)(-b^b-a^b)$ 이며, 핵음은  $a^b \cdot e^b$ , 종지음은  $a^b(-g^b)$ 이다.

### ⑩ 중영산 제10악구

<중영산>의 제10악구는 제14장단과 같다. 제10악구는 다음의 <악보 209>에서 보겠다.

<악보 209> 중영산 제10악구(제14장단)

위의 <악보 209>에서 살펴보면 피리는 제14장단의 제1박에서  $d^b$ 을 추성한 후  $a^b$ 으로 완전4도 하행한다. 이후 제3박에서  $e^b$ 으로 상행한다. 제4박에서는  $d^b$ 으로 하행 후 제5박의  $g^b$ 으로 완전5도 하행한다.  $g^b$ 은  $b^b$ 을 경과하여 제6박의  $d^b$ 으로 다시 상행한다. 이후  $b^b$ 으로 하행하여 제7박과 제8박을 지속하다  $g^b$ 으로 하행한다. 피리의 제6박부터 제8박의 선율은 <중영산>에서 보편적으로 나타나는 종지선율이 장2도 위로 나타나는 것으로 볼 수 있다.¹⁸⁷⁾ 이후 제9박과 제10박에서  $e^b-d^b$ 으로 진행하며 연음과 같은 성격을 보인다.

대금은 제14장단의 제1박부터 제4박까지  $a^b$ '을 중심으로 지속하다가 제5박에서  $b^b \cdot d^b$ "으로 상행한다. 제6, 7박에서는  $b^b$ '을 지속하다  $a^b$ '으로 귀결한다.  $a^b$ '은 지속하다 제9박의 끝에서  $g^b$ '으로 하행하며 종지감을 준다. 제10박에서는  $b^b$ '에서  $d^b$ "으로 상행하는 연음을 한다. 제10악구는 대금의 종지에서 안정감이 있으며, 피리의 종지는 변화된 종지형이 나타난다. 제10악구의 구조선율은  $a^b \cdot e^b \cdot d^b \cdot a^b / b^b (-g^b) (-b^b - d^b$  [대금]  $- e^b \cdot d^b$  [피리])이며, 핵음은  $a^b \cdot b^b \cdot e^b$ , 대금은 종지음은  $a^b (-g^b)$ , 피리의 종지음은  $b^b (-g^b)$ 이다.

### ⑪ 중영산 제11악구

<중영산>의 제11악구는 제15장단과 같다. 제11악구는 다음의 <악보 210>에서 보겠다.

<악보 210> 중영산 제11악구(제15장단)

187) <중영산>에서 피리의 종지음은 대부분  $a^b (-g^b)$ 이 나타나고,  $a^b$ 앞에는 주로  $b^b$ 이나  $e^b$ 이 선행된다.  $b^b$ 이 선행될 경우의 종지선율을 제10악구와 대조하여 보면,  $b^b \cdot a^b (-g^b)$ 의 선율이  $d^b \cdot b^b (-g^b)$ 으로 한 음씩 올라간 형태이고, 시김새 또한 동일하게 나타나 지금까지 보편적으로 나타났던 <중영산>의 종지 형태가 변화되어 나타난 것임을 알 수 있다. 이 위치를 기점으로 피리는  $b^b$ 의 시가가 길어지며, 이후 <자영산>부터는  $b^b$ 이 핵음으로 나타난다.

위 <악보 210>에서 살펴보면 피리는 제15장단의 제1박에서  $b^b$ 을 밝고  $e^b$ '으로 상행한다. 이후 제2박에서  $b^b$ 으로 하행한 후 제4박의  $a^b$ 으로 귀결한다.  $a^b$ 은 제5박에서  $g^b$ 으로 하행하여 종지감을 준다. 이후 제6박에서  $e^b$ 으로 하행한 후 제8박에서  $b^b$ 을 경과하여  $a^b$ 으로 다시 귀결한다.  $a^b$ 은 제9박까지 이어지며  $g^b$ 으로 하행하여 종지한다. 제11악구에서는 피리의 종지형이 2회 나타난다.

대금은 제15장단의 제2박부터 시작하며, 제9박까지  $a^b$ '과  $d^b$ ''을 경과하며  $b^b$ '을 중심으로 움직인다. 제10박에서는  $d^b$ ''으로 상행하는 연음을 한다. 제11악구의 구조선율은  $e^b \cdot b^b \cdot a^b \cdot (g^b) \cdot e^b \cdot a^b \cdot (g^b) \cdot (d^b)$ 이며, 핵음은  $e^b \cdot a^b \cdot b^b \cdot e^b$ , 종지음은  $a^b \cdot (g^b)$ 이다.

## ⑫ 중영산 제12악구

<중영산>의 제12악구는 제16장단과 같다. 제12악구는 다음의 <악보 211>에서 보겠다.

<악보 211> 중영산 제12악구(제16장단)

위 <악보 211>에서 살펴보면 피리는 제16장단의 제1박에서  $a^b$ 을 밝고  $b^b$ 으로 상행한다. 이후 제3박에서  $a^b$ 으로 하행한다. 제4박에서는  $e^b$ 으로 하행한 후 제5박에서  $b^b$ 을 경과하여  $a^b$ 으로 진행한다. 이후  $e^b$ 으로 하

행한 후 제8박에서  $a^b$ 으로 귀결한다.  $a^b$ 은 제9박까지 지속하며  $g^b$ 으로 하행하여 종지한다. 대금은 피리와 유사한 진행을 하며, 종지 후  $b^b$ 에서  $d^b$ 으로 상행하는 연음을 한다. 제12악구의 구조선율은  $b^b-a^b-e^b-b^b-e^b-a^b(-g^b)(-b^b-d^b)$ 이며, 핵음은  $e^b \cdot a^b \cdot b^b$ , 종지음은  $a^b(-g^b)$ 이다.

### ㉓ 중영산 제13악구

<중영산>의 제13악구는 제17장단부터 제18장단까지이다. 제13악구는 제2악구 · 제5악구와 유사하다. 제13악구는 다음의 <악보 212>에서 보겠다.

<악보 212> 중영산 제13악구(제17장단 제1박~제17장단 제5박)

The musical score for 'Jungyeong Mountain' (중영산) measures 17-18 is presented in two systems. Each system consists of two staves: the top staff is for the Daegum (대금) and the bottom staff is for the Piri (피리). The key signature is three flats (B-flat, E-flat, A-flat). Measure 17 begins with a box around the first note on the Piri staff. Measure 18 features a box around the first note on the Daegum staff. The score includes various musical notations such as notes, rests, and dynamic markings like 'Cresc.' and 'Dim.'.

위 <악보 212>에서 살펴보면 피리는 제17장단의 제1박에서  $a^b$ 을 밟고  $d^b$ 으로 상행한다. 이후 제2박에서  $b^b$ 을 밟고  $e^b$ 으로 도달한다. 제4박에서는  $b^b$ 으로 하행하여  $d^b$ 을 경과 후 제5박에서  $a^b$ 으로 하행한다.  $a^b$ 은  $g^b$ 으로 하행하며 짧은 종지감을 준다. 대금은 제17장단의 제2박부터 시작하며, 제4박까지  $b^b$ 을 중심으로 진행한다. 제5박에서는  $e^b$ 으로 하행한 후  $a^b$ 으로 상행한다. 이후의 진행은 제2악구·제5악구와 동일하다. 제13악구의 구조선율은  $d^b-e^b-b^b-a^b(-g^b)-e^b-b^b-d^b-e^b-b^b-a^b-f-e^b-a^b(-g^b)(-b^b-d^b)$ 이며, 핵음은  $a^b \cdot e^b$ , 종지음은  $a^b(-g^b)$ 이다.

이상의 내용을 정리하면, <중영산>의 관용적 구조선율은  $e^b-a^b(-g^b)$ ,  $b^b-a^b(-g^b)$ ,  $d^b-e^b$ 이며, 핵음은  $a^b$ (레)· $e^b$ (라)이며, 종지음은  $a^b$ (레)· $g^b$ (도)이다.

$e^b$ 은  $a^b$ 으로 상행하려는 성격을 갖고 있다. 반면,  $e^b$ 보다 한 옥타브 높은  $e^b$ 은 독립적으로 나타나며 특히 악구의 전반부, 중반부에 출현한다.  $g^b$ 은 종지음 외에는 경과음으로 나타난다.  $a^b$ 은  $d^b$ 의 밟고 가는 음 또는 종지음으로 나타난다.  $b^b$ 은 주로  $a^b$ 으로 하행하기 위한 경과음 또는  $e^b$ 의 밟고 가는 음으로 나타난다.  $d^b$ 은  $e^b$ 으로 상행하기 위한 경과음,  $e^b$ 에서 다른 음으로 하행하기 위한 경과음, 또는 악구의 시작하는 음으로 주로 나타난다.

<중영산>은 악곡의 전반에 걸쳐 염불조가 혼합된 양상이 나타나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구조선율 중  $e^b-a^b$ ,  $b^b-a^b$ 는 염불조의 구조선율이다. 핵음은 염불조의 핵음( $a^b \cdot e^b$ )이 나타난다. 종지음은 염불조( $a^b$ )¹⁸⁸⁾와 허튼타령조( $g^b$ )의 종지음이 나타난다. 완전종지는  $a^b$ 에서 종지감을 준 후  $g^b$ 으로 하행하였을 경우 나타난다. 또한 제2악구, 제5악구, 제13악구에서 염불조의 구성음  $f$ 가 출현한다.  $f$ 는 종지 선율이 나타나기 직전에 출현하며, 이는 <대영산>의 종지에서 나타나는 진행과 유사하다.

188) 염불조의 종지음인  $a^b$ 으로만 종지하는 경우는 제2악구(제4장단 제3박), 제5악구(제8장단 제3박), 제13악구(제18장단 제3박)에서 나타난다.

이에 <중영산>은 아직 <대영산>의 악조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제10악구 이후  $b^b$ 은 점차 중요한 음(핵음 또는 종지음)으로 나타나며, 제10악구 이전까지  $b^b$ 은  $a^b$ 에 종속되는 음, 또는 경과음으로 사용되어 염불조의 성격을 띠는 음으로 나타난다.¹⁸⁹⁾

<중영산>의 구조선율 · 핵음 · 종지음 분석을 정리하면 다음의 [표 25]¹⁹⁰⁾에서 보는 것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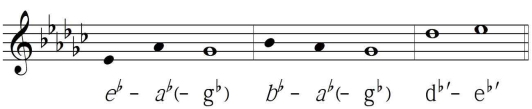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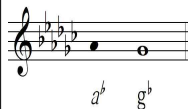
---

189)  $b^b$ 이  $a^b$ 으로 하행하는 진행은 염불조의 성격이고,  $b^b$ 이 핵음으로 나타나는 것은 허튼타령조의 성격이다. <중영산>의 다음 악곡인 <잣영산>은 허튼타령조의 성격이 더 강해지므로, 제10악구부터  $b^b$ 이 중요하게 사용되는 것은 <잣영산>으로의 진입을 예고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잣영산>부터  $b^b$ 은 핵음으로 나타난다.

190) 구조선율에서 밑줄 친 부분은 관용적 구조선율에 해당한다. 이탤릭체와 검은 음표는 다른 악조(염불조)의 특징이 나타나는 것이다.



[표 25] 중영산 구조선율 · 핵음 · 종지음

악구	구조선율	핵음	종지음
1	$\underline{d^b - e^b - d^b - e^b - b^b - g^b - e^b - d^b - e^b - b^b - a^b(-g^b)}$ ( $-b^b - d^b$ )	$a^b \cdot e^b$	$a^b(-g^b)$
2	$\underline{d^b - e^b - a^b - b^b - e^b - b^b - d^b - e^b - b^b - a^b - f - e^b - a^b(-g^b)}$ ( $-b^b - d^b$ )	$a^b \cdot e^b$	$a^b(-g^b)$
3	$e^b - b^b - a^b(-g^b) - b^b - a^b(-g^b) (-d^b)$	$a^b \cdot e^b$	$a^b(-g^b)$
4	$\underline{d^b - e^b - d^b - e^b - b^b - a^b(-g^b)} (-d^b)$	$a^b \cdot e^b$	$a^b(-g^b)$
5	$e^b - b^b - d^b - e^b - a^b - f - e^b - a^b(-g^b) (-b^b - d^b)$	$a^b \cdot e^b$	$a^b(-g^b)$
6	$\underline{d^b - e^b - d^b - e^b - d^b - g^b - e^b - b^b - a^b(-g^b)} (-b^b - d^b)$	$a^b \cdot e^b$	$a^b(-g^b)$
7	$g^b - a^b - e^b - b^b - d^b - b^b - a^b - e^b - a^b(-g^b) (-b^b - d^b)$	$g^b \cdot a^b \cdot e^b$	$a^b(-g^b)$
8	$\underline{d^b - e^b - d^b - e^b - a^b(-g^b)} (-b^b - a^b)$	$a^b \cdot e^b$	$a^b(-g^b)$
9	$e^b - d^b - e^b - d^b - g^b - e^b - b^b - a^b(-g^b) (-b^b - a^b)$	$a^b \cdot e^b$	$a^b(-g^b)$
10	$a^b - e^b - d^b - a^b / b^b(-g^b)$ ( $-b^b - d^b$ [대금] / $e^b - d^b$ [피리])	$a^b \cdot b^b \cdot e^b$	$a^b(-g^b) \cdot b^b(-g^b)$
11	$e^b - b^b - a^b(-g^b) - e^b - a^b(-g^b) (-d^b)$	$e^b \cdot a^b \cdot b^b \cdot e^b$	$a^b(-g^b)$
12	$b^b - a^b - e^b - b^b - e^b - a^b(-g^b) (-b^b - d^b)$	$e^b \cdot a^b \cdot b^b$	$a^b(-g^b)$
13	$\underline{d^b - e^b - b^b - a^b(-g^b) - e^b - b^b - d^b - e^b - b^b - a^b - f - e^b}$ $- a^b(-g^b) (-b^b - d^b)$	$a^b \cdot e^b$	$a^b(-g^b)$
종합	 $e^b - a^b(-g^b) \quad b^b - a^b(-g^b) \quad d^b - e^b$	 $a^b \quad e^b$	 $a^b \quad g^b$

### 3) 시김새

<중영산>의 시김새는  $e^b$ (라),  $g^b$ (도),  $a^b$ (레),  $b^b$ (미),  $d^b$ (솔)와  $f$ (시) 여섯 음으로 나누어 살펴보겠다.

①  $e^b$  (라)

<중영산>의 e^b에서 나타나는 시김새는 아래 <악보 213>에서 보겠다.

<악보 213> 중영산  $e^b$ 의 시김새

1

피리

4

대금

피리

17

피리

위의 <악보 213>에서 살펴보면 대금과 피리 모두  $e^b$ 은 굵은 농음을 하며,  $e^b$ 에서 피리는 주로 농음을 하지 않으나 보통 농음을 하는 경우도 있다. 피리는  $a^b$ 에서  $e^b$ 으로 하행할 때  $e^b$ 앞에  $f$ 가 장식음으로 나타난다. 이는 제16장단에서 1회 나타난다. 또한 피리는  $b^b$ 에서  $e^b$ 으로 상행할 때  $e^b$ 앞에  $a^b$ 이 장식음으로 나타난다.

②  $g^b(\text{도})$

<중영산>의  $g^b$ 에서 나타나는 시김새는 아래 <악보 214>에서 보겠다.

<악보 214> 중영산  $g^b$ 의 시김새

위의 <악보 214>에서 살펴보면  $g^b$ 은 퇴성한다. 피리는  $g^b$ 에서  $b^b$ 으로 상행할 경우 주로  $g^b$ 을 퇴성하며, 이외에 굵은 농음을 하는 경우가 1회¹⁹¹⁾ 나타난다.

③  $a^b$ (레)

<중영산>의  $a^b$ 에서 나타나는 시김새는 아래 <악보 215>에서 보겠다.

<악보 215> 중영산  $a^b$ 의 시김새

191) 이때 대금과 해금은 장2도 위 음인  $a^b$ 으로 진행하여, 피리가  $g^b$ 에서 굵은 농음을 하는 시김새는 예외의 경우로 볼 수 있다.

위의 <악보 215>에서 살펴보면  $a^b$ 은 주로 보통 농음을 한다. 대금은  $a^b$ 을 길게 지속할 때는 <대영산>과 같이 가는 농음을 한다. 한편, 피리는  $a^b$ 을 길게 지속한 채로 호흡을 마치는 경우, 또는  $a^b$ 에서  $f$ 로 하행할 경우 농음을 하지 않는다. 이는 염불조의 성격으로 아직 <대영산>의 악조에서 벗어나지 않은 모습이다. 또한 피리는  $a^b$ 에서  $d^b$ 으로 상행할 때  $a^b$ 을 추성한다. 대금과 피리는  $e^b$ 에서  $a^b$ 으로 상행할 때  $a^b$ 앞에  $f-e^b$ 이 장식음으로 나타나며, 피리는 이를 올리더름 주법으로 연주한다.

#### ④ $b^b$ (미)

<중영산>의  $b^b$ 에서 나타나는 시김새는 아래 <악보 216>에서 보겠다.

<악보 216> 중영산  $b^b$ 의 시김새

위의 <악보 216>에서 살펴보면  $b^b$ 에서  $a^b$ 으로 하행할 때  $b^b$ 은 퇴성 또는 대금은 하행 농음을 한다. 하행 농음은 주로 장단 끝의 연음 위치에서 나타난다. 이러한 진행과 시김새는 염불조의 특징이다. 대금은  $b^b$ 에서 보통 농음이 나타나기도 한다. 피리는  $g^b$ 으로 하행할 때  $b^b$ 을 추성하는 진행이 1회 나타난다.

대금은  $b^b$ 이 대박의 첫 음으로 출현할 때 장식음으로  $b^b-d^b$ 이 나타

난다. 피리는  $d^b$ '에서  $b^b$ 으로 하행할 때  $b^b$ 앞에  $d^b$ '이 장식음으로 나타난다. 또한  $e^b$ '에서  $b^b$ 으로 하행할 때  $b^b$ 앞에  $e^b$ ' ·  $f$ '이 장식음으로 나타나며, 이는 피리의 혀침주법으로 연주한다.

### ⑤ $d^b$ '(솔)

<중영산>의  $d^b$ '에서 나타나는 시김새는 아래 <악보 217>에서 보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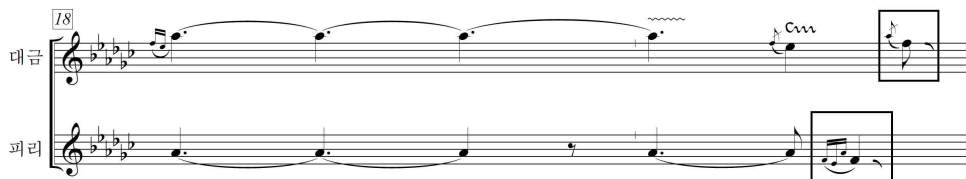
<악보 217> 중영산  $d^b$ '의 시김새

위의 <악보 217>에서 살펴보면 대금과 피리 모두  $d^b$ '에서  $b^b$ 으로 하행할 때  $d^b$ '을 퇴성한다. 피리는  $d^b$ '에서  $e^b$ '으로 음을 반복적으로 끌어올리는 선율적 요성이 나타난다. 피리는  $d^b$ '에서  $a^b$  또는  $g^b$ 로 하행할 때 추성을 하며, 각각 1회씩 나타난다.

### ⑥ $f$ (시)

<중영산>의  $f$ 에서 나타나는 시김새는 아래 <악보 218>에서 보겠다.

<악보 218> 중영산 f의 시김새



위의 <악보 218>에서 살펴보면 f는 퇴성을 한다. f는 주로 a^b를 지속한 이후에 출현하여 퇴성하며, e^b으로 하행한다. 피리는 4회(제3장단, 제4장단, 제8장단, 제18장단), 대금은 제18장단에서만 나타난다. f의 장식음으로 대금은 a^b, 피리는 f-e^b-a^b이 나타난다.

이상의 내용을 정리하면, <중영산>의 주요 시김새는 다음과 같다. e^b은 굽은 농음을 하며, e^b에서 피리는 주로 농음을 하지 않는다. g^b은 퇴성한다. a^b은 보통 농음을 한다. 또한 피리는 a^b에서 d^b으로 상행할 때 a^b을 추성한다. b^b에서 대금은 보통 농음을 한다. d^b은 b^b으로 하행 시 퇴성하며, 피리는 a^b이나 g^b으로 하행 시 d^b을 추성한다. 또한 피리는 d^b에서 e^b으로 음을 반복적으로 끌어올리는 선율적 요성이 나타난다.

시김새 중 장식음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e^b의 장식음으로 피리는 b^b에서 e^b으로 상행할 때 e^b앞에 a^b이 장식음으로 나타난다. b^b의 장식음으로 대금은 b^b-d^b이 나타나고, 피리는 상대적으로 높은음에서 b^b으로 하행 시 d^b·e^b·f가 장식음으로 나타나며, 이는 피리의 허침주법으로 연주한다.

염불조의 시김새는 f의 퇴성, a^b을 평으로 내는 것과 b^b에서 a^b으로 하행할 때 b^b을 퇴성 또는 하행 농음 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염불조의 시김새 중 장식음은 다음과 같다. e^b의 장식음으로 피리는 a^b에서 e^b으로 하행할 때 f가 장식음으로 나타나며, 피리는 이를 내리더름 주법으로 연주한다. f의 장식음으로 대금은 a^b, 피리는 f-e^b-a^b이 나타난다. a^b의 장식음으로 대금과 피리는 e^b에서 a^b으로 상행할 때 a^b앞에 f-e^b이 장식음으로 나타나며, 피리는 이를 올리더름 주법으로 연주한다.

다.

요컨대, <중영산>의 음계는 ‘e^b(라)-g^b(도)-a^b(레)-b^b(미)-d^b(솔)’이다. 관용적 구조선율은 e^b-a^b(-g^b), b^b-a^b(-g^b), d^b-e^b이며, 핵음은 a^b(레) · e^b(라)이며, 종지음은 a^b(레) · g^b(도)이다.

구성음의 성격은 다음과 같다. e^b은 a^b으로 상행하려는 성격을 갖고 있다. 반면, e^b은 독립적으로 나타나며 특히 악구의 전반부, 중반부에 출현한다. g^b은 종지음 외에는 경과음으로 나타난다. a^b은 d^b의 밟고 가는 음 또는 종지음으로 나타난다. b^b은 주로 a^b으로 하행하기 위한 경과음 또는 e^b의 밟고 가는 음으로 나타난다. d^b은 e^b으로 상행하기 위한 경과음, e^b에서 다른 음으로 하행하기 위한 경과음, 또는 악구의 시작하는 음으로 주로 나타난다.

주요 시김새는 다음과 같다. e^b은 굽은 농음을 한다. g^b은 퇴성한다. a^b은 보통 농음을 하며, 피리는 상행 시 a^b을 추성한다. b^b에서 대금은 보통 농음을 한다. d^b은 퇴성하며, 피리는 a^b이나 g^b으로 하행 시 추성이 나타난다.

시김새 중 장식음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e^b의 장식음으로 피리는 a^b이 나타난다. b^b의 장식음으로 피리는 d^b · e^b · f가 나타나며, 이는 피리의 혀침주법으로 연주한다.

<중영산>은 악곡 전반에 걸쳐 악조의 혼재 양상이 나타나며, 이는 제4절에서 정리하여 살펴보겠다.

## (2) 잣영산

<잣영산>은 ≪삼현영산회상≫의 세 번째 악곡으로 연주되며, 출현음과 구조선율 · 핵음 · 종지음, 그리고 시김새 분석을 통해 악곡을 살펴보겠다.

### 1) 출현음

<жат영산>의 출현음을 다음 <악보 219>에서 살펴보겠다.¹⁹²⁾

### <악보 219> жат영산 출현음

대금

e^b'(라)      g^b'(도)      a^b'(레)      b^b'(미)      d^b''(솔)

피리

B^b(미)      e^b(라)      f(시)      g^b(도)      a^b(레)      b^b(미)      d^b(솔)      e^b(라)

<악보 219>을 살펴보면, <жат영산>에서 대금의 출현음은 e^b'(라), g^b'(도), a^b'(레), b^b'(미), d^b''(솔)이다. 피리의 주요 출현음은 B^b(미), e^b(라), g^b(도), a^b(레), b^b(미), d^b(솔), e^b(라)이며, f(시)는 장식음으로 출현한다.

## 2) 구조선율 · 핵음 · 종지음

<жат영산>은 총 16장단의 악곡이다. 악구는 피리와 대금의 종지가 나타나는 구간을 기준으로 나누며, 종지감이 약하고 선율의 전개가 계속될 때는 피리의 호흡이 다시 시작하는 때를 기준으로 한다. 위와 같은 기준으로 나누어진 총 15개 악구의 구조선율과 핵음, 종지음을 살펴보겠다. 제6악구, 제9악구, 제13악구는 제3악구와 동일하므로 상세한 서술은 생략하겠다.

### ① жат영산 제1악구

<жат영산>의 제1악구는 제1장단부터 제2장단까지이다. 제1악구는 다음의 <악보 220>에서 보겠다.

192) 흰 음표는 주요 출현음이며, 검은 음표는 다른 악조의 출현음이다. 검은 음표의 음이름은 이탤릭체로 구분하였다.



<악보 220> 잣영산 제1악구(제1장단~제2장단)

위의 <악보 220>에서 살펴보면 피리는 제1장단의 제1박에서  $b^b$ 으로 시작하여 제2박에서  $d^b$ '으로 상행한다.  $d^b$ '은  $b^b$ 을 경과하여  $e^b$ '으로 상행한다.  $e^b$ '은 추성하여 제4박에서  $a^b$ 으로 완전5도 하행한다. 이후 제5박에서  $b^b$ 으로 상행한다.  $b^b$ 은 제6박까지 지속한 후 제7박의  $a^b$ 으로 하행한다. 이후 제8박에서  $e^b$ 으로 완전4도 하행한다. 제9박에서는  $b^b$ 으로 완전5도 상행한다. 이후  $g^b \cdot a^b$ 을 경과하여 제2장단의  $b^b$ 으로 도달한다.  $b^b$ 은 제2장단의 제8박까지 지속하며 악구를 마친다. 대금은 제1장단 제1박에서  $d^b$ "으로 시작하여 제2박에서  $b^b$ '으로 하행한 후 제4박의  $a^b$ '으로 도달한다. 이후 다시  $b^b$ '으로 상행한 후 제8박부터 피리와 동일한 진행을 한다. 제2장단은 제1박부터 제10박까지  $b^b$ 을 지속하다, 마지막 박의 끝에서  $d^b$ '을 경과하며 다음 악구와 연결하려 한다. 제1악구의 구조선율은  $b^b-e^b-a^b-b^b-a^b-e^b-b^b$ 이며, 핵음과 종지음은  $b^b$ 이다.

② 잣영산 제2악구

<잣영산>의 제2악구는 제3장단 제1박부터 제4장단 제3박까지이다. 제2악구는 다음의 <악보 221>에서 보겠다.

<악보 221> 잣영산 제2악구(제3장단 제1박~제4장단 제3박)

위의 <악보 221>에서 살펴보면 피리는 제3장단의 제1박에서 B^b으로 시작하여 제2박 e^b으로 완전4도 상행한다. 이후 제3박에서 a^b으로 완전4도 상행한다. a^b은 b^b·g^b을 경과하며 제6박까지 지속한다. 제7박부터 제10박까지는 b^b을 중심으로 e^b'과 d^b'을 경과하며 움직인다.

대금은 제1박에서 a^b'으로 시작한 후 제3박에서 e^b'으로 하행하였다가 제4박에서 다시 a^b'으로 귀결한다. a^b'는 제7박까지 지속한 후, 제8박에서 b^b으로 상행하며 제10박까지 지속한다. 이후 대금과 피리 모두 제4장단 제1박에서 a^b으로 하행한다. a^b은 b^b·g^b을 경과 후 제3박의 e^b으로 하행하여 종지감을 준다. 제2악구의 구조선율은 e^b-a^b-b^b-e^b'-b^b-a^b-e^b이며, 핵음은 e^b·a^b·b^b, 종지음은 e^b이다.

### ③ 잣영산 제3악구

<잣영산>의 제3악구는 제4장단 제4박부터 제4장단 제10박까지이다. 제3악구는 다음의 <악보 222>에서 보겠다.

<악보 222> 잣영산 제3악구(제4장단 제4박~제4장단 제10박)



위의 <악보 222>에서 살펴보면 피리는 제4장단의 제4박에서  $a^b$ 으로 시작하여  $b^b$ 으로 상행한다. 이후  $g^b$ 을 경과하여 제6박에서  $e^b$ 으로 하행한다.  $e^b$ 은 제7박까지 지속한 후 제8박에서는  $a^b$ 으로 상행한다.  $a^b$ 은  $b^b$ 을 경과하여 제9박의  $g^b$ 으로 하행하며 종지한다.¹⁹³⁾

대금은 피리와 반대되는 진행으로 제4박에서  $b^{b'}$ 으로 시작하여 제5박의  $a^{b'}$ 으로 하행한다.¹⁹⁴⁾ 제5박의 끝에서는  $g^{b'}$ 을 경과하여  $e^{b'}$ 으로 하행하며 제8박까지 피리와 동일한 진행을 한다. 피리가 종지할 때 대금은 제10박까지  $a^{b'}$ 을 지속하다가 박의 끝에서  $e^{b'}$ 으로 하행하며 종지감을 준다.¹⁹⁵⁾ 제3악구의 구조선율은  $b^b - a^b - e^b - a^b - g^b (-a^b - e^b)$ ¹⁹⁶⁾이며, 핵음은  $e^b \cdot a^b$ , 종지음은  $g^b$ 이다.

#### ④ 잣영산 제4악구

<잣영산>의 제4악구는 제5장단이다. 제4악구는 다음의 <악보 223>에서

193) 제8박과 제9박은 <중영산>의 종지 시 음 진행과 동일하다. <중영산>의 종지 시 구조선율은  $a^b(-g^b)$ 으로  $a^b$ 에서부터 종지감이 있어  $a^b$ 과  $g^b$  두 음을 모두 종지음으로 보았다. 그러나 <잣영산>은 상대적으로  $a^b$ 에서의 종지감이 약하며, <잣영산>의 종지형은  $a^b - g^b$  외에 제5악구에서  $d^{b'} - g^b$ 으로 종지하는 경우도 있어  $g^b$ 을 독립적인 종지음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또한 다음 악곡인 <삼현도드리>의 종지에서는  $a^b - g^b$ ,  $b^b - g^b$ ,  $d^{b'} - g^b$ 가 종지 시 나타나므로  $g^b$ 의 선행음보다  $g^b$ 음이 독자적인 종지 기능을 갖추고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해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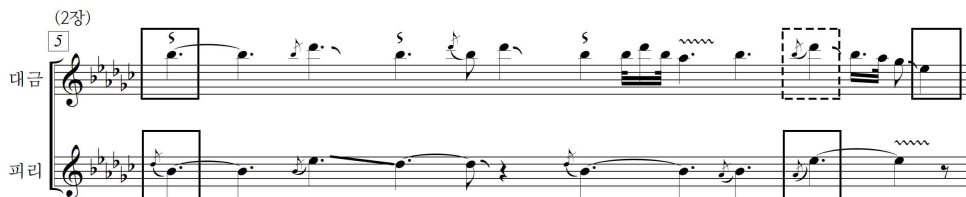
194) 지영희의 『해금교본』과 주자료의 음원을 참고하여 살펴보면, 해금은 대금과 같은 진행을 하므로 대금의 진행을 구조선율로 보겠다.

195) <잣영산>에서 대금의 연음은 <중영산>의 연음과 달리 종지감을 준다.

196) 괄호 안의 구조선율은 대금의 연음이다. <잣영산>에서는 대금의 연음이 이따금 짧게 나타난다.

보겠다.

### <악보 223> 잣영산 제4악구(제5장단)



위의 <악보 223>에서 살펴보면 제5장단의 제1박은  $b^b$ 으로 시작하여 제3박에서  $e^b$ 으로 상행한다. 이때 대금은  $d^b$ 으로 상행한다.¹⁹⁷⁾ 이후 제4박에서 피리는  $d^b$ 으로 하행하고, 대금은  $b^b$ 으로 하행한 후 다시  $d^b$ 으로 상행한다. 제6박에서 피리는  $b^b$ 으로 하행하여 제8박까지 지속하다가 제9박에서  $e^b$ 으로 도달한다. 제6박부터 제8박까지 대금은  $a^b$ 을 경과하며  $b^b$ 을 중심으로 움직인다. 이후 피리가  $e^b$ 으로 상행할 때 대금은  $d^b$ 으로 상행 후  $e^b$ 까지 순차 하행하여 종지감을 준다. 제3악구는 대금이 종지감을 준다. 제4악구의 구조선율은  $b^b - e^b - d^b - b^b - e^b / e^b$ 이며, 핵음은  $b^b \cdot e^b$ , 대금의 종지음은  $e^b$ , 피리의 종지음은  $e^b$ 이다.

### ⑤ 잣영산 제5악구

<잣영산>의 제5악구는 제6장단 제1박부터 제7장단 제3박까지이다. 제5악구는 다음의 <악보 224>에서 보겠다.

197) <잣영산> 제2장부터는 피리와 해금이  $e^b$ 을 낼 때 대금은  $d^b$ 을 낸다. 이때 구조선율은 피리의  $e^b$ 을 따른다. 한편, <중영산>부터 <잣영산> 전반부는 피리와 해금이  $e^b$ 을 낼 때 대금은  $b^b$ 을 낸다.

<악보 224> 잣영산 제5악구(제6장단~제7장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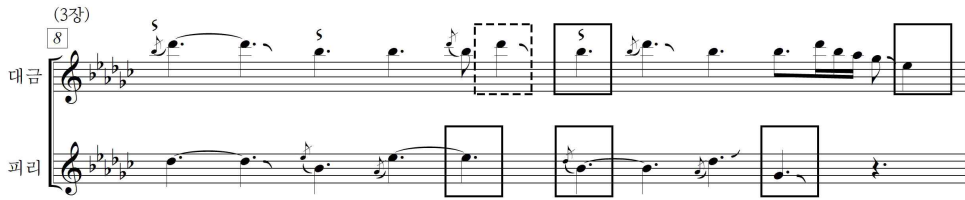
위의 <악보 224>에서 살펴보면 제6장단에서 피리는  $d^b$ '으로 시작하여  $g^b$ 으로 하행한다.¹⁹⁸⁾ 제3박에서는  $b^b$ 으로 상행한 후 제4박의  $e^b$ '으로 도달하여 제5박까지 지속한다. 대금은 제1박부터 제4박까지  $b^b$ '을 지속한다 제5박에서  $d^b$ '으로 상행한다. 제6박에서는 대금과 피리가  $b^b$ 으로 진행하고, 이후 제2악구와 동일하다. 제5악구의 구조선율은  $d^b-g^b-b^b-e^b-b^b-e^b-b^b-a^b-e^b$ 이며, 핵음은  $e^b \cdot a^b \cdot b^b \cdot e^b$ , 종지음은  $e^b$ 이다.

## ⑥ 잣영산 제7악구

<잣영산>의 제7악구는 제8장단이다. 제7악구는 다음의 <악보 225>에서 보겠다.

198) 제5악구에서 제1·2박의 피리 선율은 제7악구 또는 <삼현도드리>의 종지 선율( $d^b-g^b$ )과 같다. 그러므로 제4악구를 제6장단의 제2박까지로 나눌 수도 있으나, 제5장단의 마지막 박에서 대금이 종지감을 주고, 피리가 호흡을 맺으므로 위와 같이 악구를 나누었다.

<악보 225> 잣영산 제7악구(제8장단)



위의 <악보 225>에서 살펴보면 피리는 제8장단의 제1박은  $d^{b'}$ 으로 시작하여 제3박의  $b^b$ 으로 하행한다. 이후 제4박에서  $e^{b'}$ 으로 도달한다. 제6박은  $b^b$ 으로 시작하여 제8박에서  $d^{b'}$ 으로 상행한 후 제9박에서  $g^b$ 으로 하행하여 퇴성하며 종지한다. 대금은 피리와 유사한 진행을 하다 제7박에서  $d^{b''}$ 으로 상행한 후 제8박에서  $b^{b'}$ 으로 진행한다.  $b^{b'}$ 은 제9박에서  $d^{b''} \cdot b^{b'} \cdot a^{b'} \cdot g^{b'}$ 을 경과하여 제10박의  $e^{b'}$ 으로 귀결하여 종지한다. 제7악구의 구조선율은  $d^{b'}-b^b-e^{b'}-b^b-d^{b'}-g^b(-b^b-e^b)$ 이며, 핵음은  $b^b \cdot e^{b'}$ , 종지음은  $g^b$ 이다.

⑦ 잣영산 제8악구

<잣영산>의 제8악구는 제9장단 제1박부터 제10장단 제3박까지이다. 제8악구는 다음의 <악보 226>에서 보겠다.

<악보 226> 잣영산 제8악구(제9장단~제10장단)

위의 <악보 226>에서 살펴보면 피리는 제9장단의 제1박에서  $b^b$ 으로 시작하여 제2박의 끝에서  $d^b$ 을 경과 후  $g^b$ 으로 하행한다. 제3·4박에서는 제1박부터 제2박까지의 진행을 리듬을 달리하여 반복하며 이때 종지감이 있다.¹⁹⁹⁾ 대금은 제9장단의 제1박부터 제5박까지  $b^b$ 을 지속한다. 제6박은 새로운 전개가 시작된다. 피리는  $B^b$ 으로 시작하여 제10박까지  $e^b \cdot a^b \cdot b^b \cdot d^b$ 까지 순차 상행한다.  $d^b$ 까지 상행 후 제10박의 끝에서  $b^b$ 을 경과한 후 제10장단 제1박의  $a^b$ 으로 하행한다. 대금은 제6박부터 제10박까지  $a^b \cdot b^b$ 을 경과하며  $b^b$ 을 중심으로 움직인다. 이후는 제2악구와 같다. 제8악구의 구조선율은  $b^b-g^b-e^b-a^b-b^b-a^b-e^b$ 이며, 핵음은  $e^b \cdot a^b \cdot b^b$ , 종지음은  $e^b$ 이다.

### ⑧ 잣영산 제10악구

<잣영산>의 제10악구는 제11장단이다. 제10악구는 다음의 <악보 227>에서 보겠다.

199) 이러한 선율( $b^b-g^b$ )은 <삼현도드리>의 종지형에서 나타난다. 이를 통해 점차 <삼현도드리>에 근접해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악보 227> 잣영산 제10악구(제11장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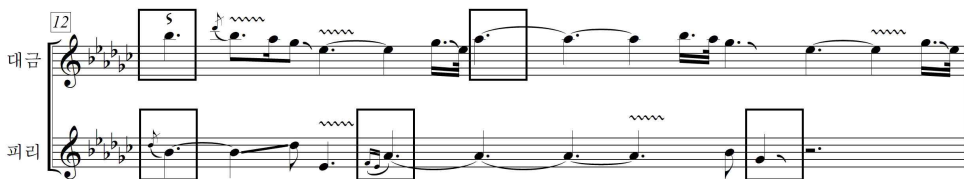


위의 <악보 227>에서 살펴보면 피리는 제11장단 제1박에서  $b^b$ 으로 시작하여 제2박에서  $e^b$ '으로 상행한다. 제3박에서  $d^b$ '과  $b^b$ 을 경과하여 제5박의  $a^b$ 으로 귀결한다.  $a^b$ 은 제7박까지 지속하며 염불조의 종지감을 준다. 이후 제8박에서  $b^b$ 으로 상행한 후 제9, 10박에서  $e^b$ '으로 도달한다. 대금은 제1박과 제2박에서  $b^b$ '으로 진행하다 제3박에서  $e^b$ '으로 완전5도 하행하여 피리와 상반되는 진행을 보인다. 이후 제6박부터 피리와 유사한 진행을 한다. 제10악구의 구조선율은  $b^b-e^b-d^b-a^b-b^b-e^b$ 이며, 핵음은  $a^b \cdot e^b$ , 종지음은  $e^b$ 이다.

⑨ 잣영산 제11악구

<잣영산>의 제11악구는 제12장단이다. 제11악구는 다음의 <악보 228>에서 보겠다.

<악보 228> 잣영산 제11악구(제12장단)



위의 <악보 228>에서 살펴보면 피리는 제12장단의 제1박에서  $b^b$ 으로 시작하여 제3박에서  $e^b$ 으로 도약 하행한다. 이후 제4박의  $a^b$ 으로 진행한



다.  $a^b$ 은 제7박까지 지속하며 제8박에서  $b^b$ 을 경과 후  $g^b$ 으로 하행하여 종지한다. 대금은 피리와 유사한 진행을 하며 제8박의 종지 이후 제9박과 제10박에서  $e^b$ '으로 하행한다. 제10박의 끝에서는  $g^b$ ' ·  $e^b$ '을 경과하며 다음 악구의 첫 음과의 연결을 예비한다. 제11악구의 구조선율은  $b^b$  -  $e^b$  -  $a^b$  -  $g^b$  - ( $e^b$ )이며, 핵음은  $a^b$  ·  $b^b$ , 종지음은  $g^b$ 이다.

### ⑩ 잣영산 제12악구

<잣영산>의 제12악구는 제13장단 제1박부터 제14장단 제3박까지이다. 제12악구는 다음의 <악보 229>에서 보겠다.

<악보 229> 잣영산 제12악구(제13장단~제14장단)

위의 <악보 229>에서 살펴보면 피리는 제13장단 제1박에서  $e^b$ 으로 시작하여 제2박에서  $g^b$ 으로 상행한다. 이후 제3박의  $e^b$  ·  $a^b$ 을 경과 후 제4박의  $b^b$ 으로 도달한다.  $b^b$ 은 제7박까지 지속한다. 이후 피리의 진행은 제2악구 · 제5악구와 같다. 대금은 제1박에서  $a^b$ '으로 시작하여 제2박의 끝에서  $b^b$ ' ·  $d^b$ "을 경과 후, 제4박의  $b^b$ '으로 도달하여 제5박까지 지속한다. 이후 대금의 진행은 제5악구 · 제8악구와 같다. 제12악구의 구조선율은  $e^b$  -  $b^b$  -  $e^b$  -  $b^b$  -  $a^b$  -  $e^b$ 이며, 핵음은  $e^b$  ·  $a^b$  ·  $b^b$ , 종지음은  $e^b$ 이다.

## ⑪ 잣영산 제14악구

<잣영산>의 제14악구는 제15장단이다. 제14악구는 다음의 <악보 230>에서 보겠다.

### <악보 230> 잣영산 제14악구(제15장단)

위의 <악보 230>에서 살펴보면 피리는 제15장단에서  $b^b$ 으로 시작하여 제2박에서  $e^b$ 으로上行한다. 제4박에서  $d^b$ · $b^b$ 을 경과하여 제6박의  $a^b$ 으로 진행한다.  $a^b$ 은 제7박까지 지속하며 이때 염불조의 종지감이 있다. 이후 제8박에서  $b^b$ 으로上行하고 이어 제9박의  $e^b$ 으로 도달하는 전개로 마친다. 대금은 피리와 유사한 진행을 한다. 제14악구의 구조선율은  $b^b$ - $e^b$ - $d^b$ - $a^b$ - $b^b$ - $e^b$ 이며, 핵음은  $a^b$ ,  $e^b$ , 종지음은  $e^b$ 이다.

## ⑫ 잣영산 제15악구

<잣영산>의 제15악구는 제16장단이다. 제15악구는 다음의 <악보 231>에서 보겠다.

### <악보 231> 잣영산 제15악구(제16장단)

위의 <악보 231>에서 살펴보면 대금과 피리 모두 제16장단 제1박에서  $b^b$ 으로 시작하여  $d^b$ 을 경과한 후 제2박의  $a^b$ 으로 진행한다. 피리는  $a^b$ 을 제7박까지 지속하며 제7박의 끝에서  $b^b$ 을 경과 후 제8박에서  $g^b$ 으로 하행하여 종지한다. 대금은 제5박까지  $a^b$ 을 지속하다가 제6박에서  $d^b$ 으로 상행 후 제7박에서  $b^b$ 으로 진행하여 제10박까지  $b^b$ 을 지속한 후 제10박의 끝에서  $g^b$ 으로 하행하여 종지한다. 이때  $b^b$ 을 대금의 핵음으로 본다. 대금과 피리의 종지 전 선행음이 다르다. 제15악구의 구조선율은  $b^b-a^b-g^b(-b^b-g^b)$ 이며, 핵음은  $a^b \cdot b^b$ , 종지음은  $g^b$ 이다.

이상의 내용을 정리하면, <жатые>의 관용적 구조선율은  $e^b-a^b-g^b$  또는  $a^b-g^b$ , 그리고  $b^b-e^b$ 이며, 핵음은  $a^b$ (레) ·  $b^b$ (미) ·  $e^b$ (라)이며, 종지음은  $e^b$ (라) ·  $g^b$ (도)이다.

$e^b$ 은  $a^b$ 으로 상행하려는 경과음의 성격을 갖고 있다. 반면,  $e^b$ 보다 한 옥타브 높은  $e^b$ 은 독립적이며 주로  $b^b$ 을 선행한 후 출현한다.  $g^b$ 은 종지음 이외에는 경과음으로 나타난다.  $b^b$ 은  $b^b$ 보다 높은음에서  $a^b$ 으로 하행할 때의 경과음, 그리고  $e^b$ 의 밟고 가는 음으로 나타난다. 한편,  $b^b$ 은 제1악구의 종지음, 과반수 이상의 악구에서 핵음으로 나타난다.  $d^b$ 은  $e^b$ 으로 상행하기 위한 경과음,  $e^b$ 에서 하행하기 위한 경과음으로 나타난다.

염불조가 혼합된 양상은 다음과 같다. 염불조의 대표적인 구조선율인  $e^b-a^b$ ,  $a^b-e^b$ 가 나타난다. 또한 제10악구와 제14악구의 중간에서  $a^b$ 을 길게 지속할 때 염불조의 종지감이 나타난다.

또한 제3악구 · 제6악구 · 제9악구 · 제11악구 · 제13악구의 종지시 구조선율  $e^b-a^b-g^b$ 에 <대영산>의 종지시 구조선율  $e^b-a^b$ , 그리고 <중영산>의 종지시 구조선율  $e^b-a^b(-g^b)$ 이 나타나므로 <жатые>은 <대영산>의 악조가 남아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жатые>은  $b^b$ 이 핵음으로 등장하고, 종지음으로  $a^b$ 이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중영산>보다 허튼타령조에 더 가까워진 양상을 보인다.

다.

<жат영산>의 구조선율 · 핵음 · 종지음 분석을 정리하면 다음의 [표 26]200)에서 보는 것과 같다.

[표 26] жат영산 구조선율 · 핵음 · 종지음

악구	구조선율	핵음	종지음
1	$\underline{b^b - e^b} - a^b - b^b - a^b - e^b - b^b$	$b^b$	$b^b$
2	$e^b - a^b - \underline{b^b - e^b} - b^b - a^b - e^b$	$e^b \cdot a^b \cdot b^b$	$e^b$
3	$b^b - a^b - \underline{e^b - a^b} - g^b (-a^b - e^b)$	$e^b \cdot a^b$	$g^b$
4	$\underline{b^b - e^b} - d^b - \underline{b^b - e^b} / e^b$	$b^b \cdot e^b$	$e^b \cdot e^b$
5	$d^b - g^b - \underline{b^b - e^b} - b^b - e^b - b^b - a^b - e^b$	$e^b \cdot a^b \cdot b^b \cdot e^b$	$e^b$
6	제3악구와 동일		
7	$d^b - b^b - \underline{e^b - b^b} - d^b - g^b (-b^b - e^b)$	$b^b \cdot e^b$	$g^b$
8	$b^b - g^b - e^b - a^b - b^b - a^b - e^b$	$e^b \cdot a^b \cdot b^b$	$e^b$
9	제3악구와 동일		
10	$\underline{b^b - e^b} - d^b - a^b - \underline{b^b - e^b}$	$a^b \cdot e^b$	$e^b$
11	$b^b - e^b - a^b - g^b (-e^b)$	$a^b \cdot b^b$	$g^b$
12	$e^b - b^b - e^b - b^b - a^b - e^b$	$e^b \cdot a^b \cdot b^b$	$e^b$
13	제3악구와 동일		
14	$\underline{b^b - e^b} - d^b - a^b - \underline{b^b - e^b}$	$a^b \cdot e^b$	$e^b$
15	$b^b - a^b - g^b (-b^b - g^b)$	$a^b \cdot b^b$	$g^b$
종합	 $e^b - a^b - g^b \quad a^b - g^b \quad b^b - e^b$	 $a^b \quad b^b \quad e^b$	 $e^b \quad g^b$

### 3) 시김새

200) 구조선율에서 밑줄 친 부분은 관용적 구조선율에 해당한다. 이탤릭체와 검은 음표는 다른 악조(염불조)의 특징이 나타나는 것이다.

<жат영산>의 시김새는  $e^b$ (라),  $g^b$ (도),  $a^b$ (레),  $b^b$ (미),  $d^{b'}$ (솔) 다섯 음으로 나누어 살펴보겠다.

## ① $e^b$ (라)

<жат영산>의  $e^b$ 에서 나타나는 시김새는 아래 <악보 232>에서 보겠다.

<악보 232> жат영산  $e^b$ 의 시김새

The musical score for 'жат영산' (Jat-eung-san) is presented in two systems. The first system contains measures 1 through 12, and the second system contains measures 13 through 24. Each system has two staves: the top staff is for '대금' (Daegum) and the bottom staff is for '피리' (Piri). The key signature is three flats (B-flat, E-flat, A-flat). The notation includes various musical symbols such as notes, rests, and dynamic markings.

위의 <악보 232>에서 살펴보면 대금, 피리 모두  $e^b$ 에서 보통 농음을 한다. 피리는  $e^b$ 에서 보통 농음을 한다. 피리는  $e^b$ 에서  $a^b$ 으로 하행할 때  $e^b$ 을 추성하며, 이는 <жат영산>에서 1회 나타난다. 피리는  $b^b$ 에서  $e^b$ 으로 상행할 때  $e^b$ 앞에  $a^b$ 이 장식음으로 나타난다. 피리는  $a^b$ 에서  $e^b$ 으로 하행할 때  $e^b$ 앞에  $f$ 가 장식음으로 나타나며,²⁰¹⁾ 피리는 이를 내리더름 주법으로 연주한다. 이는 염불조의 시김새이다.

## ② $g^b$ (도)

<жат영산>의  $g^b$ 에서 나타나는 시김새는 아래 <악보 233>에서 보는 것

201) 이는 제1장단에서 1회 나타난다.

과 같다.

<악보 233> 잣영산  $g^b$ 의 시김새



위의 <악보 233>에서 살펴보면  $g^b$ 은 항상 퇴성을 한다.

③  $a^b$ (레)

<잣영산>의  $a^b$ 에서 나타나는 시김새는 아래 <악보 234>에서 보는 것과 같다.

<악보 234> 잣영산  $a^b$ 의 시김새



위의 <악보 234>에서 살펴보면  $a^b$ 은 보통 농음을 한다. 대금은  $a^b$ '이 대박의 첫 음으로 출현할 때 장식음으로  $b^b$ '이 나타난다. 피리는  $e^b$ 에서  $a^b$ 으로 상행할 때  $f-e^b$ 이 장식음으로 나타나며,²⁰²⁾ 이를 올리더름 주법으로 연주한다. 이는 염불조의 시김새이다.

④  $b^b$ (미)

202) 이는 3회(제3장단 · 제9장단 · 제12장단) 나타난다.

<жат영산>의  $b^b$ 에서 나타나는 시김새는 아래 <악보 235>에서 보는 것과 같다.

#### <악보 235> жат영산 $b^b$ 의 시김새

위의 <악보 235>에서 살펴보면 피리는  $b^b$ 에서 농음을 하지 않고, 대금은  $b^b$ 을 두 박 이상 지속할 경우 마지막 박에서만 보통 농음을 하므로  $b^b$ 은 평으로 내는 음이라 할 수 있다. 또한  $b^b$ 에서  $a^b$ 으로 하행할 때  $b^b$ 을 퇴성 또는 하행 농음²⁰³⁾이 나타나는데, 이는 염불조의 시김새이다. 대금은  $b^b$ 이 대박의 첫 음으로 출현할 때 장식음으로  $b^b-d^b$ 이 나타난다. 피리는  $g^b$ 에서  $b^b$ 으로 상행할 때  $b^b$ 앞에  $e^b$ 이 장식음으로 나타난다. 이는 2장에서 1회 나타난다. 피리는  $e^b$  또는  $d^b$ 에서  $b^b$ 으로 하행할 때  $b^b$ 앞에  $e^b$  또는  $d^b$ 이 장식음으로 나타나며, 이를 혀침주법으로 연주한다.

#### ⑤ $d^b$ (솔)

<жат영산>의  $d^b$ 에서 나타나는 시김새는 아래 <악보 236>에서 보겠다.

203) 대금은 첫 장단에서  $b^b$ 의 하행 농음이 나타나며, 이후  $b^b$ 은 보통 농음을 한다.

<악보 236> 잣영산  $d^{b'}$ 의 시김새

(3장)

대금

피리

The image shows a musical score for two instruments, Daegu (대금) and Piri (피리), in a key of three flats (B-flat major or D-flat minor). The score is divided into two staves. The top staff is for the Daegu and the bottom staff is for the Piri. The music is written in a 4/4 time signature. The Daegu part starts with a measure marked with a box containing the number 8. Both parts feature a series of notes and rests, with some measures highlighted by boxes. The Piri part has a more melodic line with some grace notes.

위의 <악보 236>에서 살펴보면  $d^b$ 에서  $b^b$ 으로 하행할 때  $d^b$ 은 퇴성을 한다. 피리는  $d^b$ 에서  $g^b$ 으로 하행할 때  $d^b$ 을 추성한다.  $d^b$ 의 장식음으로 대금음은  $b^b$ , 피리는  $b^b$ 에서  $d^b$ 으로 상행 시  $a^b$ 이 나타난다.

이상의 내용을 정리하면, <좇영산>의 주요 시김새는 다음과 같다.  $e^b$ 은 보통 농음을 한다.  $g^b$ 은 퇴성한다.  $a^b$ 은 보통 농음을 한다.  $b^b$ 은 평으로 낸다.  $d^b$ 은  $b^b$ 으로 하행할 때 퇴성을 한다. 피리는  $d^b$ 에서  $g^b$ 으로 하행할 때  $d^b$ 을 추성한다.

시김새 중 장식음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피리는  $e^b$ '의 장식음으로 완전 5도 아래음인  $a^b$ 이  $b^b$ 에서  $e^b$ '으로 상행할 때 나타난다.  $a^b$ '의 장식음으로 대금은  $b^b$ '이 나타난다.  $b^b$ 의 장식음으로 대금은  $b^b$ '- $d^b$ ''이 나타난다. 피리는  $b^b$ 의 장식음으로는  $d^b$ '· $e^b$ '이  $d^b$ '또는  $e^b$ '에서  $b^b$ 으로 하행할 때 나타나며, 이를 혀침주법으로 연주한다.  $d^b$ '의 장식음으로 대금은  $b^b$ ', 피리는  $b^b$ 에서  $d^b$ '으로 상행 시 완전4도 아래음인  $a^b$ 이 나타난다.

염불조의 시김새는 다음과 같다.  $b^b$ 은  $a^b$ 으로 하행 시 퇴성을 한다.  $b^b$ 에서  $a^b$ 으로 하행 시 나타나는  $b^b$ 의 하행 놓음 또한 염불조의 시김새이며, 이는 첫 장단의 대금에서 나타난다. 이후  $b^b$ 은 평으로 내며 허튼타령조의 비중이 높아진다.

염불조의 시김새 중 장식음은 다음과 같다. 피리는  $e^b$ 의 장식음으로  $f$ 가  $a^b$ 에서  $e^b$ 으로 하행할 때 나타나며, 피리는 이를 내리더름 주법으로 연주한다. 피리는  $a^b$ 의 장식음으로  $f\text{-}e^b$ 이  $e^b$ 에서  $a^b$ 으로 상행할 때 나



타나며, 이를 올리더름 주법으로 연주한다.

요컨대, <жат영산>의 음계는 ‘e^b(라)-g^b(도)-a^b(레)-b^b(미)-d^b(솔)’이다. 관용적 구조선율은 e^b-a^b-g^b 또는 a^b-g^b, 그리고 b^b-e^b이며, 핵음은 a^b(레) · b^b(미) · e^b(라)이며, 종지음은 e^b(라) · g^b(도)이다.

구성음의 성격은 다음과 같다. e^b은 a^b으로 상행하려는 경과음적인 성격을 갖고 있다. 반면, e^b보다 한 옥타브 높은 e^b'은 독립적이며 주로 b^b을 선행한 후 출현한다. g^b은 종지음 이외에는 경과음으로 나타난다. b^b은 b^b보다 높은음에서 a^b으로 하행할 때의 경과음, 그리고 e^b'의 밟고 가는 음으로 나타난다. 한편, b^b은 제1악구의 종지음, 과반수 이상의 악구에서 핵음으로 나타난다. d^b'은 e^b'으로 상행하기 위한 경과음, e^b'에서 하행하기 위한 경과음으로 나타난다.

주요 시김새는 다음과 같다. e^b은 보통 놓음을 한다. g^b은 퇴성을 한다. a^b은 보통 놓음을 한다. b^b은 평으로 낸다. d^b'은 b^b으로 하행 시 퇴성을 한다. 피리는 d^b'에서 g^b으로 하행할 때 d^b'을 추성한다.

시김새 중 장식음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e^b'의 장식음으로 피리는 a^b이 나타난다. b^b의 장식음으로 피리는 d^b'또는 e^b'이 나타나며, 이를 혀침주법으로 연주한다. d^b'의 장식음으로 피리는 a^b이 나타난다.

<жат영산>에서 나타나는 악조의 혼재 양상은 제4절에서 정리하여 살펴보겠다.

### (3) 삼현도드리

<삼현도드리>는 《삼현영산회상》의 네 번째 악곡이며, 출현음과 구조선율 · 핵음 · 종지음, 그리고 시김새 분석을 통해 악곡을 살펴보겠다.

#### 1) 출현음

<삼현도드리>의 출현음을 다음 <악보 237>에서 살펴보겠다.²⁰⁴⁾

### <악보 237> 삼현도드리 출현음

대금

피리

e^b'(라) f'(시) g^b'(도) a^b'(레) b^b'(미) d^b''(솔)

e^b(라) f(시) g^b(도) a^b(레) b^b(미) d^b'(솔) e^b'(라)

<악보 237>를 살펴보면, <삼현도드리>에서 대금의 주요 출현음은 e^b'(라), g^b'(도), a^b'(레), b^b'(미), d^b''(솔)이다. 피리의 주요 출현음은 e^b(라), g^b(도), a^b(레), b^b(미), d^b'(솔), e^b'(라)이다. 대금과 피리의 f(시)는 4장에 서 짧은 경과음 또는 장식음으로 출현한다.

## 2) 구조선율 · 핵음 · 종지음

<삼현도드리>는 총 35장단의 악곡이다. 악구는 종지감이 나타나는 단위²⁰⁵⁾로 나누며, 한 장단 단위부터 세 장단 단위까지 나타난다. 위와 같이 나누어진 총 24개 악구의 구조선율과 악구별 핵음, 종지음을 살펴보겠다.

### ① 삼현도드리 제1악구

<삼현도드리>의 제1악구는 제1장단이다. 제1악구는 다음의 <악보 238>

204) 흰 음표는 주요 출현음이며, 검은 음표는 다른 악조의 출현음이다. 검은음표의 음이름은 이탤릭체로 구분하였다.

205) <삼현도드리>에서 종지감이 나타나는 특징은 다음과 같다. e^b과 g^b이 선율의 종지음으로 나타나는 경우 가장 안정된 종지감이 들고, b^b이 길게 지속하며 장단을 마치는 경우 또한 안정된 종지감이 든다. a^b으로 종지하는 경우는 종지감이 약하며, 다음 악구와 연결하려는 성격을 보인다.

에서 보겠다.

<악보 238> 삼현도드리 제1악구(제1장단~제2장단)

(돌장)

대금

피리

위의 <악보 238>에서 살펴보면 제1장단의 제1박은  $e^b$ 을 경과하여  $a^b$ 으로 완전4도 상행한다.  $a^b$ 은 제5박까지 지속한 후, 제6박에서  $g^b$ 을 경과하여  $e^b$ 으로 하행하여 종지감을 준다. 제1악구의 구조선율은  $e^b$ - $a^b$ - $e^b$ 이며, 핵음은  $e^b \cdot a^b$ , 종지음은  $e^b$ 이다.

## ② 삼현도드리 제2악구

<삼현도드리>의 제2악구는 제2장단이다. 제2악구는 다음의 <악보 239>에서 보겠다.

<악보 239> 삼현도드리 제2악구(제2장단)

위의 <악보 239>에서 살펴보면 제2장단은  $b^b$ 을 중심으로 진행하며  $d^{b'}$ · $a^b$ 을 경과한 후 피리는 제4박에서  $g^b$ 으로 하행하여 종지하고, 대금  
은 제5박에서  $g^b$ 으로 하행한 후 제6박의  $e^{b'}$ 으로 귀결하여 종지한다. 제  
2악구는 대금과 피리의 종지음이 다르다. 제2악구의 구조선율은  $b^b$ - $d^{b'}$ - $a$

$\flat\text{-g}^\flat/\text{e}^\flat$ 이며, 핵음은  $\text{e}^\flat$ ²⁰⁶⁾ ·  $\text{b}^\flat$ , 대금의 종지음은  $\text{e}^\flat$ , 피리의 종지음은  $\text{g}^\flat$ 이다.

### ③ 삼현도드리 제3악구

<삼현도드리>의 제3악구는 제3장단부터 제4장단까지이다. 제3악구는 다음의 <악보 240>에서 보겠다.

<악보 240> 삼현도드리 제3악구(제3장단~제4장단)

위의 <악보 240>에서 살펴보면 제3장단의 제1박은  $\text{b}^\flat$ 으로 시작하여 제2박에서  $\text{e}^\flat$ '으로 완전4도 상행한다.  $\text{e}^\flat$ '은 제3박까지 지속한다. 이후 제1박부터 제3박까지의 선율을 반복한다. 대금은 피리가  $\text{e}^\flat$ '으로 진행할 때  $\text{d}^\flat$ '으로 진행한다.²⁰⁷⁾ 이후 제4장단의 제1박에서  $\text{b}^\flat$ 을 경과하여 제2박의  $\text{a}^\flat$ 으로 하행한다.  $\text{a}^\flat$ 은 제3박까지 지속하며 제3박의 끝에서  $\text{g}^\flat$ 을 경과하여 제4박의  $\text{e}^\flat$ 으로 하행한다. 이후 제5박에서  $\text{g}^\flat$ 을 경과하여 제6박의  $\text{a}^\flat$ 으로 상행하여 마친다.  $\text{a}^\flat$ 의 종지감은 약하다. 제3악구의 구조선율은  $\text{b}^\flat\text{-e}^\flat\text{'-b}^\flat\text{-e}^\flat\text{'-b}^\flat\text{-a}^\flat\text{-e}^\flat\text{-g}^\flat\text{-a}^\flat$ 이며, 핵음은  $\text{a}^\flat \cdot \text{e}^\flat$ ' , 종지음은  $\text{a}^\flat$ 이

206)  $\text{e}^\flat$ 은 대금의 종지음으로 핵음에 포함한다.

207) <삼현도드리>에서 피리가  $\text{e}^\flat$ '을 내는 경우, 해금은 피리와 동일한 음을 내고, 대금은  $\text{d}^\flat$ '을 낸다. 이러한 진행의 구조선율은 피리의  $\text{e}^\flat$ '을 따른다. 더불어 피리가  $\text{d}^\flat$ '으로 진행할 경우 대금은  $\text{b}^\flat$ '으로 진행하는 경우가 다수 있다. 이는 대금의  $\text{d}^\flat$ '(=피리의  $\text{e}^\flat$ ')보다 상대적으로 낮은음을 내기 위한 것으로, 피리의  $\text{d}^\flat$ '과 같은 기능을 하는 음으로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이러한 진행의 구조선율은 피리의  $\text{d}^\flat$ '을 따른다.

또한, 이와 같은 진행이 핵음일 경우 악보에서 피리는 실선의 네모, 대금은 점선의 네모로 표시한다.

다.

#### ④ 삼현도드리 제4악구

<삼현도드리>의 제4악구는 제5장단이다. 제4악구는 다음의 <악보 241>에서 보겠다.

<악보 241> 삼현도드리 제4악구(제5장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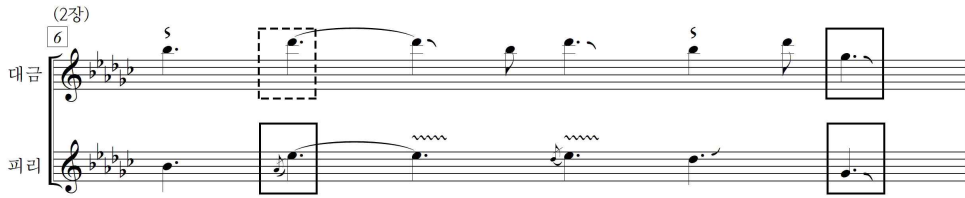
위 <악보 241>에서 살펴보면 제5장단의 제1박은  $d^b$ '으로 시작하여 제2박의  $b^b$ 으로 하행한다.  $b^b$ 은 제3박까지 지속하며 제3박의 끝에서  $a^b$ 을 경과 후 제4박에서  $d^b$ '으로 상행한다.²⁰⁸⁾  $d^b$ '은 추성하며 제5박에서  $g^b$ 으로 하행하여 종지한다. 제4악구의 구조선율은  $d^b-b^b-d^b-g^b$ 이며, 핵음은  $b^b$ , 종지음은  $g^b$ 이다.

#### ⑤ 삼현도드리 제5악구

<삼현도드리>의 제5악구는 제6장단이다. 제5악구는 다음의 <악보 242>에서 보겠다.

208) 이때 대금은  $b^b$ 으로 진행하나 구조선율은 피리의  $d^b$ 을 따른다. 이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위에서 다루었다. 이하 이와 같은 진행은 피리의  $d^b$ 을 따르며 설명은 생략한다.

<악보 242> 삼현도드리 제5악구(제6장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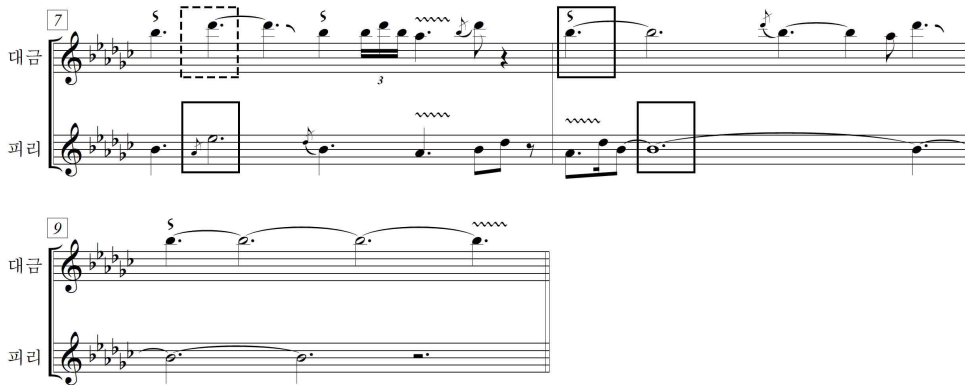


위 <악보 242>에서 살펴보면 제6장단의 제1박은  $b^b$ 으로 시작하여 제2박에서  $e^b$ 으로 상행한다.  $e^b$ 은 제4박까지 지속하며 제5박에서  $d^b$ 으로 하행한다. 이후 제6박에서  $g^b$ 으로 완전5도 하행한다.  $g^b$ 은 퇴성하며 중지감을 준다. 대금은 피리와 유사한 진행을 하며, 피리가  $e^b$ 으로 진행할 때  $d^b$ 으로, 피리가  $d^b$ 으로 진행할 때  $b^b$ 으로 진행한다. 제5악구의 구조선율은  $b^b-e^b-d^b-g^b$ 이며, 핵음은  $e^b$ , 종지음은  $g^b$ 이다.

⑥ 삼현도드리 제6악구

<삼현도드리>의 제6악구는 제7장단부터 제9장단까지이다. 제6악구는 다음의 <악보 243>에서 보겠다.

<악보 243> 삼현도드리 제6악구(제7장단~제9장단)



위 <악보 243>에서 살펴보면 제7장단의 제1박은  $b^b$ 으로 시작하여 제2박의  $e^b$ 으로 상행한다.  $e^b$ 은 제3박까지 지속하며 제4박에서 다시  $b^b$ 으로 하행한다. 이후 제5박의  $a^b$ 과 제6박의  $b^b \cdot d^b$ 을 경과하여 제8장단의  $b^b$ 으로 도달한다.  $b^b$ 은 두 장단에 걸쳐 지속하며 종지한다. 제6악구의 구조선율은  $b^b-e^b-b^b-a^b-d^b-b^b$ 이며, 핵음은  $b^b \cdot e^b$ , 종지음은  $b^b$ 이다.

### ⑦ 삼현도드리 제7악구

<삼현도드리>의 제7악구는 제10장단부터 제11장단까지이다. 제7악구는 다음의 <악보 244>에서 보겠다.

<악보 244> 삼현도드리 제7악구(제10장단~제11장단)



위 <악보 244>에서 살펴보면 피리는 제10장단의 제1박에서  $d^b$ 으로 시작하여 제3박까지 이어진다. 제4박에서는  $b^b$ 으로 하행한 후 제5박의  $e^b$ 으로 도달한다. 제11장단의 제1박부터 제3박까지는 제10장단의 진행을 리듬을 축소하여 반복한다. 이후 제4박에서  $d^b$ 으로 하행한 후 제5박에서  $g^b$ 으로 완전5도 하행하여 종지한다. 제10장단에서 피리는 상행하는 진행인 반면, 대금은  $d^b$ 에서  $b^b$ 을 경과하여  $a^b$ 으로 하행하는 진행을 보인다. 이후 제11장단부터 대금은 피리와 동일한 진행을 한다. 제7악구의 구조선율은  $d^b-b^b-e^b-d^b-e^b-d^b-g^b$ 이며, 핵음은  $d^b \cdot e^b$ , 종지음은  $g^b$ 이다.

### ⑧ 삼현도드리 제8악구

<삼현도드리>의 제8악구는 제12장단부터 제13장단까지이다. 제8악구 다음의 <악보 245>에서 보겠다.

<악보 245> 삼현도드리 제8악구(제12장단~제13장단)



위 <악보 245>에서 살펴보면 제12장단의 제1박은  $d^b$ '으로 시작하여 제2박의  $b^b$ 으로 하행한다.  $b^b$ 은 제3박의 끝에서  $a^b$ 을 경과 후 제4박까지 지속한다. 제5박에서는  $d^b$ 을 경과 후 제6박  $e^b$ '으로 상행한다. 제13장단은  $g^b$ 으로 시작하여  $d^b$ '으로 상행한 후, 제4박부터는 제12장단의 제4박부터 제6박까지와 동일한 진행으로  $e^b$ '까지 상행하여 마친다. 제8악구의 구조선율은  $d^b-b^b-d^b-e^b-g^b-d^b-b^b-d^b-e^b$ 이며, 핵음은  $g^b \cdot b^b \cdot e^b$ , 종지음은  $e^b$ 이다.

⑨ 삼현도드리 제9악구

<삼현도드리>의 제9악구는 제14장단이다. 제9악구는 다음의 <악보 246>에서 보겠다.

<악보 246> 삼현도드리 제9악구(제14장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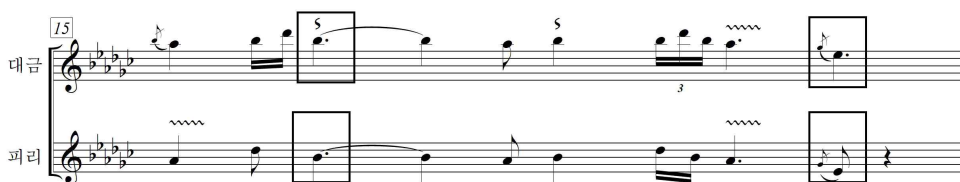


위 <악보 246>에서 살펴보면 제14장단의 제1박에서 피리는 B^b을 경과하여 e^b으로 상행하고, 대금은 g^b'을 경과하여 e^b'으로 하행한다. 이후 피리와 대금은 g^b을 경과하여 b^b까지 상행한다. 제5박에서는 a^b으로 하행한 후 제6박에서 e^b으로 도달하여 종지감을 준다. 제9악구의 구조선율은 e^b-g^b-b^b-a^b-e^b이며, 핵음과 종지음은 e^b이다.

#### ⑩ 삼현도드리 제10악구

<삼현도드리>의 제10악구는 제15장단이다. 제10악구는 다음의 <악보 247>에서 보겠다.

<악보 247> 삼현도드리 제10악구(제15장단)



위 <악보 247>에서 살펴보면 제15장단의 제1박은 a^b으로 시작하여 b^b · d^b'을 경과하여 제2박의 b^b으로 상행한다. 이후 제14장단과 동일한 진행을 한다. 제10악구의 구조선율은 a^b-b^b-a^b-e^b이며, 핵음은 e^b · b^b, 종지음은 e^b이다.

#### ⑪ 삼현도드리 제11악구

<삼현도드리>의 제11악구는 제16장단이다. 제11악구는 다음의 <악보 248>에서 보겠다.

<악보 248> 삼현도드리 제11악구(제16장단)



위 <악보 248>에서 살펴보면 제16장단의 제1박은  $a^b$ 으로 시작하여  $b^b \cdot d^b$ 을 경과 후 제2박의  $b^b$ 으로 상행한다.  $b^b$ 은 제4박까지 지속한다. 제4박의 끝에서 피리는  $d^b$ 을 경과 후 제5박에서  $g^b$ 으로 하행하며 종지한다. 대금은 제4박의  $b^b$ 을 제6박까지 지속하여 피리와 다른 종지를 하며 피리보다 종지감이 약하다. 제11악구의 구조선율은  $a^b - b^b - g^b$ 이며, 핵음은  $b^b$ , 종지음은  $g^b$ 이다.

⑫ 삼현도드리 제12악구

<삼현도드리>의 제12악구는 제17장단이다. 제12악구는 다음의 <악보 249>에서 보겠다.

<악보 249> 삼현도드리 제12악구(제17장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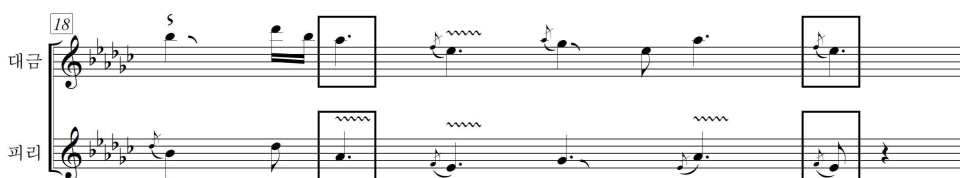


위 <악보 249>에서 살펴보면 제17장단의 제1박은  $b^b$ 으로 시작하여 제2박의  $a^b$ 으로 하행한다.  $a^b$ 은  $f \cdot e^b$ 을 경과하며 제6박까지 지속한다. 제12악구의 구조선율은  $b^b - a^b - a^b$ 이며, 핵음과 종지음은  $a^b$ 이다. 제12악구는 염불조의 구조선율( $b^b - a^b$ )과 핵음 · 종지음( $a^b$ )이 나타난다.

### ⑬ 삼현도드리 제13악구

<삼현도드리>의 제13악구는 제18장단이다. 제13악구는 다음의 <악보 250>에서 보겠다.

<악보 250> 삼현도드리 제13악구(제18장단)



위 <악보 250>에서 살펴보면 제18장단의 제1박은  $b^b$ 으로 시작하여 제2박에서  $a^b$ 으로, 제3박에서  $e^b$ 으로 하행한다. 이후 제4박과 제5박에서  $g^b$ 과  $a^b$ 으로 상행하였다가 제6박에서 다시  $e^b$ 으로 귀결하여 종지감을 준다. 제13악구의 구조선율은  $b^b-a^b-e^b-g^b-a^b-e^b$ 이며, 핵음은  $e^b \cdot a^b$ , 종지음은  $e^b$ 이다. 제13악구에서는 염불조의 구조선율( $b^b-a^b$ ,  $a^b-e^b$ )과 핵음( $e^b \cdot a^b$ )이 나타난다.

### ⑭ 삼현도드리 제14악구

<삼현도드리>의 제14악구는 제19장단이다. 제14악구는 다음의 <악보 251>에서 보겠다.

<악보 251> 삼현도드리 제14악구(제19장단)



위 <악보 251>에서 살펴보면 제19장단은  $b^b$ 으로 시작하여 제2박에서  $a^b$ 을 경과한 후  $b^b$ 을 대금은 제3박, 피리는 제4박까지 지속한다. 이후 대금은 제4박, 피리는 제5박에서  $a^b$ 으로 하행한다. 제6박에서는  $b^b \cdot a^b$ 을 경과하여  $g^b$ 으로 하행하여 종지감을 준다. 제14악구의 구조선율은  $b^b - a^b - b^b - a^b - g^b$ 이며, 핵음은  $b^b$ , 종지음은  $g^b$ 이다.

⑮ 삼현도드리 제15악구

<삼현도드리>의 제15악구는 제20장단이다. 제15악구는 다음의 <악보 252>에서 보겠다.

<악보 252> 삼현도드리 제15악구(제20장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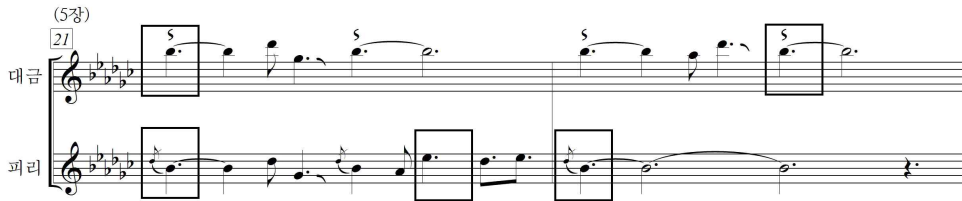
위의 <악보 252>에서 살펴보면 제20장단의 제1박은  $e^b$ 으로 시작하여 제2박의  $a^b$ 으로 상행한다. 피리는 제3박에서  $B^b$ 을 경과한 후 제4박의  $e^b$ 으로 진행한다. 대금은 제3박까지  $a^b$ 을 지속한 후 제4박의  $e^b$ 으로 하행한다. 제5박에서는 대금과 피리가  $g^b$ 을 경과한 후 제6박에서 피리는  $e^b$ 으로 귀결하여 종지한다. 반면 제6박에서 대금은  $a^b$ 으로 상행하며 종지

감은 약하다. 제15악구의 구조선율은  $e^b - a^b - e^b - g^b - a^b / e^b$ 이며, 핵음은  $e^b \cdot a^b$  209), 종지음은  $e^b$ 이다.

## ⑩ 삼현도드리 제16악구

<삼현도드리>의 제16악구는 제21장단부터 제22장단까지이다. 제16악구는 다음의 <악보 253>에서 보겠다.

<악보 253> 삼현도드리 제16악구(제21장단~제22장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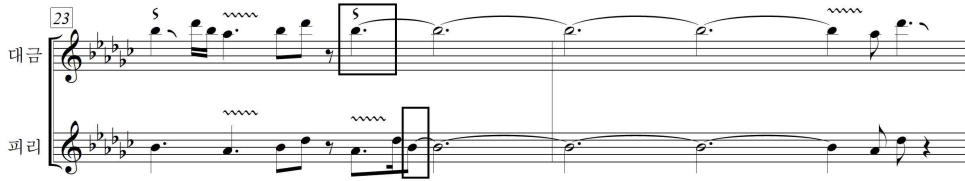
위 <악보 253>에서 살펴보면 제21장단의 제1박은  $b^b$ 으로 시작하여 제2박까지 지속한 후  $d^b$ '을 경과하여 제3박에서  $g^b$ 으로 하행한다. 이후 제4박에서  $b^b$ 으로 진행한다. 제5박에서 피리는  $e^b$ '으로 상행 후 제22장단에서  $b^b$ 으로 하행하여 제5박까지 지속하며 종지한다. 대금은 제21장단 제4박에서부터 제22장단 제6박까지  $b^b$ '을 중심으로 이어지며 종지한다. 제16악구의 구조선율은  $b^b - g^b - b^b - e^b - b^b$ 이며, 핵음은  $b^b \cdot e^b$ , 종지음은  $b^b$ 이다.

## ⑪ 삼현도드리 제17악구

<삼현도드리> 제17악구는 제23장단부터 제24장단까지이다. 제17악구는 다음의 <악보 254>에서 보겠다.

209)  $a^b$ 은 대금의 핵음이다.

<악보 254> 삼현도드리 제17악구(제23장단~제24장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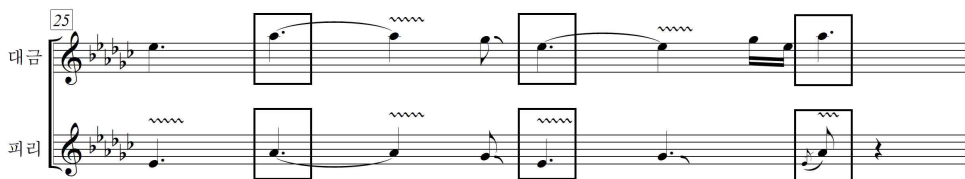


위 <악보 254>에서 살펴보면 제23장단의 제1박은  $b^b$ 으로 시작하여 제2박에서  $a^b$ 으로 하행한다. 제3박에서는  $b^b$ 을 경과하여  $d^b$ 으로 상행한다. 이후 제4박에서  $a^b$ 을 경과하여  $b^b$ 으로 도달한다.  $b^b$ 은 다음 장단의 제5박까지 지속하며 종지감을 준다. 이후 제5박의 끝에서  $a^b$ 을 경과 후 제6박에서  $d^b$ 을 들어내며 종지감을 상실한다. 제17악구의 구조선율은  $b^b$ - $a^b$ - $d^b$ - $b^b$ (- $d^b$ )이며, 핵음과 종지음은  $b^b$ 이다.

⑱ 삼현도드리 제18악구

<삼현도드리> 제18악구는 제25장단과 같다. 제18악구는 다음의 <악보 255>에서 보겠다.

<악보 255> 삼현도드리 제18악구(제25장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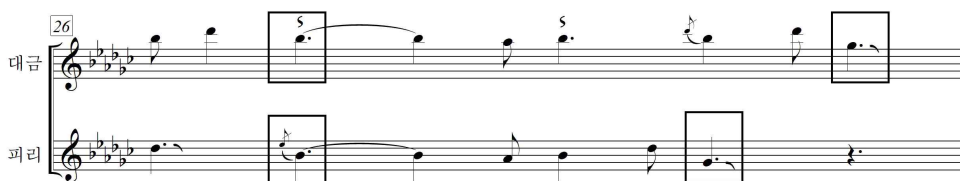
위 <악보 255>에서 살펴보면 제25장단의 제1박은  $e^b$ 으로 시작하여 제2박에서  $a^b$ 으로 상행한다.  $a^b$ 은 제3박까지 지속한 후 제4박에서  $e^b$ 으로 하행한다. 이후  $g^b$ 을 경과하여 제6박의  $a^b$ 으로 상행하여 마친다.  $a^b$ 의 종지감은 약하다. 제18악구의 구조선율은  $e^b$ - $a^b$ - $e^b$ - $g^b$ - $a^b$ 이며, 핵음은  $e^b$

· a^b, 종지음은 a^b이다.

### ㉑ 삼현도드리 제19악구

<삼현도드리> 제19악구는 제26장단과 같다. 제19악구는 다음의 <악보 256>에서 보겠다.

<악보 256> 삼현도드리 제19악구(제26장단)



위의 <악보 256>에서 살펴보면 제19악구는 제4악구와 유사하며, 제4박에서 피리가 b^b으로 단3도 낮게 진행하는 점이 제4악구와 다르다. 제19악구의 구조선율은 d^b'-b^b-g^b이며, 핵음은 b^b, 종지음은 g^b이다.

### ㉒ 삼현도드리 제20악구

<삼현도드리>의 제20악구는 제27장단부터 제28장단까지이다. 제20악구는 다음의 <악보 257>에서 보겠다.

<악보 257> 삼현도드리 제20악구(제27장단~제28장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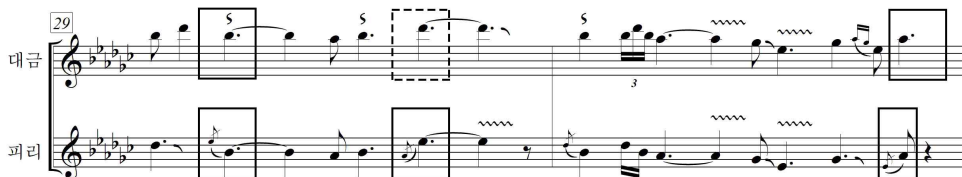


위 <악보 257>에서 살펴보면 제27장단의 제1박은  $b^b$ 으로 시작하여 제2박의  $e^b$ 으로 상행한다.  $e^b$ 은 제3박까지 지속한다. 제4박에서는  $d^b$ 으로 하행하여 제5박까지 지속하다 제5박의 끝에서  $b^b$ 을 경과한 후 제6박에서 다시  $e^b$ 으로 도달한다. 제28장단의 제1박부터 제3박까지는 앞선 제27장단의 제4박부터 제6박까지의 선율을 반복한다. 이후 제28장단의 제4박에서  $d^b$ 으로 하행한 후 제5박의  $g^b$ 으로 하행하여 종지한다. 제20악구의 구조선율은  $b^b-e^b-d^b-e^b-d^b-e^b-d^b-g^b$ 이며, 핵음은  $e^b$ , 종지음은  $g^b$ 이다.

## ㉔ 삼현도드리 제21악구

<삼현도드리>의 제21악구는 제29장단부터 제30장단까지이다. 제21악구는 다음의 <악보 258>에서 보겠다.

### <악보 258> 삼현도드리 제21악구(제29장단~제30장단)



위 <악보 258>에서 살펴보면 제29장단의 제1박은  $d^b$ 으로 시작하여 제2박에서  $b^b$ 으로 하행한다.  $b^b$ 은 제3박까지 지속하며  $a^b$ 을 경과 후 제4박에서 다시  $b^b$ 으로 진행한다. 이후 제5박에서  $e^b$ 으로 상행하여 제6박까지 지속한다. 제30장단의 제1박은  $b^b$ 으로 시작하여 제2박의  $a^b$ 으로 하행한다.  $a^b$ 은 제3박까지 지속한 후 제3박의 끝에서  $g^b$ 을 경과 후 제4박의  $e^b$ 으로 하행한다. 제5박에서는  $g^b$ 과  $e^b$ 을 경과한 후 제6박의  $a^b$ 으로 도달하여 마친다.  $a^b$ 의 종지감은 약하다. 제21악구의 구조선율은  $d^b-b^b-e^b-b^b-a^b-e^b-g^b-a^b$ 이며, 핵음은  $a^b \cdot b^b \cdot e^b$ , 종지음은  $a^b$ 이다.



## ㉔ 삼현도드리 제22악구

<삼현도드리>의 제22악구는 제31장단이다. 제22악구는 다음의 <악보 259>에서 보겠다.

<악보 259> 삼현도드리 제22악구(제31장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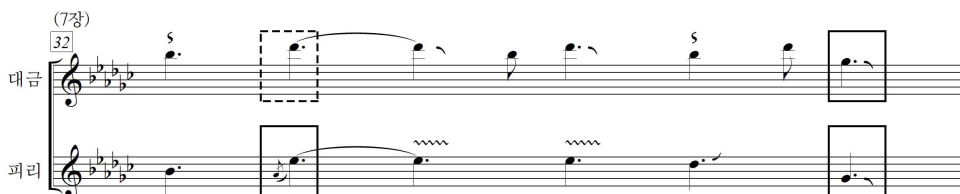


위 <악보 259>에서 살펴보면 제31장단의 제1박은  $d^b$ '으로 시작하여 제2박  $b^b$ 으로 하행한다.  $b^b$ 은 제3박까지 지속하며 제3박의 끝에서  $a^b$ 을 경과 후 제4박에서 다시  $b^b$ 으로 진행한다. 이후 피리는 제5박에서  $g^b$ 으로 하행하여 종지한다. 대금은  $b^b$ '을 제5박까지 지속한 후 제6박에서  $g^b$ 으로 하행하여 종지한다. 제22악구의 구조선율은  $d^b$ '- $b^b$ - $g^b$ 이며, 핵음은  $b^b$ , 종지음은  $g^b$ 이다.

## ㉕ 삼현도드리 제23악구

<삼현도드리>의 제23악구는 제32장단이다. 제23악구는 다음의 <악보 260>에서 보겠다.

<악보 260> 삼현도드리 제23악구(제32장단)



위 <악보 260>에서 살펴보면 제32장단의 제1박은  $b^b$ 으로 시작하여 제2박에서  $e^b$ '으로 상행한다.  $e^b$ '은 제4박까지 유지하며 제5박에서  $d^b$ '으로 하행한다.  $d^b$ '은 추성하며 제6박의  $g^b$ 으로 하행하여 종지감을 준다. 제23악구의 구조선율은  $b^b-e^b-d^b-g^b$ 이며, 핵음은  $e^b$ ' , 종지음은  $g^b$ 이다.

#### ㉔ 삼현도드리 제24악구

<삼현도드리>의 제24악구는 제33장단부터 제35장단까지이다. 제24악구는 다음의 <악보 261>에서 보겠다.

<악보 261> 삼현도드리 제24악구(제33장단~제35장단)

제24악구는 제6악구와 동일하므로 상세한 설명은 생략한다. 제24악구의 구조선율은  $b^b-e^b-b^b-a^b-d^b-b^b$ 이며, 핵음은  $b^b \cdot e^b$ ' , 종지음은  $b^b$ 이다.

이상의 내용을 정리하면, <삼현도드리>의 관용적 구조선율은  $b^b-e^b$ ' ,  $b^b-g^b$  ,  $d^b-g^b$ 이며, 핵음은  $b^b$ (미) ·  $e^b$ '(라)이며, 종지음은  $e^b$ (라) ·  $g^b$ (도) ·  $b^b$ (미)이다.

$b^b$ 은 길게 지속하며 악구를 마칠 때 종지감이 나타나며, 악곡의 최종

중지음으로 나타난다.  $g^b$ 은 가장 높은 빈도의 중지음으로 나타나지만, 중지음으로 출현하는 경우가 아니면 주로 경과음으로 나타나므로 핵음에 포함하지 않는다.  $a^b$ 은 염불조가 혼합되는 악구 외에서는 주로 경과음으로 나타난다.  $d^b$ '은  $e^b$ '으로 상행하기 위한 경과음,  $e^b$ '에서 하행하기 위한 경과음 또는 악구의 시작음으로 주로 사용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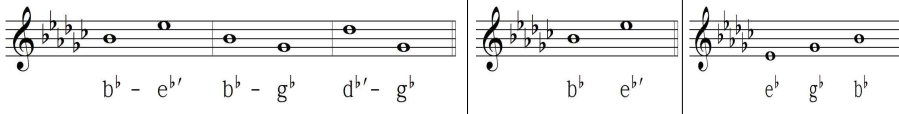
<삼현도드리>에서는 제12악구, 제13악구, 제14악구에서 염불조의 성격이 나타나는데, 이때 염불조의 구조선율인  $a^b-e^b \cdot b^b-a^b$ 이, 염불조의 핵음 및 중지음인  $e^b \cdot a^b$ 이 나타난다.

<삼현도드리>의 구조선율 · 핵음 · 중지음 분석을 정리하면 다음의 [표 27]²¹⁰⁾에서 보는 것과 같다.

---

210) 구조선율에서 밑줄 친 부분은 관용적 구조선율에 해당한다. 이탤릭체와 검은 음표는 다른 악조(염불조)의 특징이 나타나는 것이다.

[표 27] 삼현도드리 구조선율 · 핵음 · 종지음

악구	구조선율	핵음	종지음
1	e ^b -a ^b -e ^b	e ^b · a ^b	e ^b
2	b ^b -d ^b '-a ^b -g ^b /-e ^b	e ^b · b ^b	e ^b · g ^b
3	<u>b^b-e^b'-b^b-e^b'</u> -b ^b -a ^b -e ^b -g ^b -a ^b	a ^b · e ^b '	a ^b
4	d ^b '-b ^b -d ^b '-g ^b	b ^b	g ^b
5	<u>b^b-e^b'-d^b'-g^b</u>	e ^b '	g ^b
6	<u>b^b-e^b'-b^b-a^b-d^b'-b^b</u>	b ^b · e ^b '	b ^b
7	d ^b '-b ^b -e ^b '-d ^b '-e ^b '-d ^b '-g ^b	d ^b ' · e ^b '	g ^b
8	d ^b '-b ^b -d ^b '-e ^b '-g ^b -d ^b '-b ^b -d ^b '-e ^b '	g ^b · b ^b · e ^b '	e ^b '
9	e ^b -g ^b -b ^b -a ^b -e ^b	e ^b	e ^b
10	a ^b -b ^b -a ^b -e ^b	e ^b · b ^b	e ^b
11	a ^b - <u>b^b-g^b</u>	b ^b	g ^b
12	b ^b -a ^b -a ^b	a ^b	a ^b
13	b ^b -a ^b -e ^b -g ^b -a ^b -e ^b	e ^b · a ^b	e ^b
14	b ^b -a ^b -b ^b -a ^b -g ^b	b ^b	g ^b
15	e ^b -a ^b -e ^b -g ^b -a ^b /e ^b	e ^b · a ^b	e ^b
16	<u>b^b-g^b-b^b-e^b'</u> -b ^b	b ^b · e ^b '	b ^b
17	b ^b -a ^b -d ^b '-b ^b -(d ^b ')	b ^b	b ^b
18	e ^b -a ^b -e ^b -g ^b -a ^b	e ^b · a ^b	a ^b
19	d ^b '-b ^b -g ^b	b ^b	g ^b
20	<u>b^b-e^b'-d^b'-e^b'-d^b'-e^b'-d^b'-g^b</u>	e ^b '	g ^b
21	d ^b '-b ^b -e ^b '-b ^b -a ^b -e ^b -g ^b -a ^b	a ^b · b ^b · e ^b '	a ^b
22	d ^b '-b ^b -g ^b	b ^b	g ^b
23	<u>b^b-e^b'-d^b'-g^b</u>	e ^b '	g ^b
24	<u>b^b-e^b'-b^b-a^b-d^b'-b^b</u> (제6악구와 동일)	b ^b · e ^b '	b ^b
종합			

### 3) 시김새

<삼현도드리>의 시김새는  $e^b$ (라),  $g^b$ (도),  $a^b$ (레),  $b^b$ (미),  $d^b$ (솔) 다섯 음으로 나누어 살펴보겠다.

#### ① $e^b$ (라)

<삼현도드리>의  $e^b$ 에서 나타나는 시김새는 아래 <악보 262>에서 보겠다.

<악보 262> 삼현도드리  $e^b$ 의 시김새

위의 <악보 262>에서 살펴보면  $e^b$ 은 주로 보통 농음을 한다.  $e^b$ 의 장식음으로는  $g^b$ 이  $a^b$ 에서  $e^b$ 으로 하행할 때 나타난다. 대금은  $g^b$ 에서  $e^b$ 으로 하행할 때  $e^b$ 의 장식음으로  $a^b$ - $g^b$ 이 나타나며, 이때  $g^b$ 은 퇴성하지 않는다. 피리는  $b^b$ 에서  $e^b$ 으로 상행할 때  $e^b$ 의 장식음으로  $a^b$ 이 나타난다. 제18장단에서는  $e^b$ 의 장식음으로  $f$ 가 나타나며, 이는 염불조의

시김새이다.

## ② $g^b$ (도)

<삼현도드리>의  $g^b$ 에서 나타나는 시김새는 아래 <악보 263>에서 보겠다.

<악보 263> 삼현도드리  $g^b$ 의 시김새

<삼현도드리>에서  $g^b$ 은 대부분 퇴성을 한다. 예외로  $g^b$ 에서 농음을 하는 경우는 제13장단에서 1회 나타난다. 대금은  $g^b$ 의 장식음으로  $a^b$ '이  $e^b$ '에서  $g^b$ '으로 상행할 때 나타난다.

## ③ $a^b$ (레)

<삼현도드리>의  $a^b$ 에서 나타나는 시김새는 아래 <악보 264>에서 보겠다.

<악보 264> 삼현도드리 a^b의 시김새

위의 <악보 264>에서 살펴보면 a^b은 주로 보통 농음을 한다. 대금은 a^b'이 장단의 첫 음으로 나타날 때 장식음으로 b^b'이 나타난다. 피리는 g^b에서 a^b으로 상행할 때 a^b의 장식음으로 e^b이 나타난다.

④ b^b(미)

<삼현도드리>의 b^b에서 나타나는 시김새는 아래 <악보 265>에서 보겠다.

<악보 265> 삼현도드리 b^b의 시김새

위의 <악보 265>에서 살펴보면 피리는  $b^b$ 에서 농음을 하지 않고, 대금은  $b^b$ 이 두 박 이상 지속할 경우 마지막 박에서만 보통 농음을 하므로  $b^b$ 은 평으로 내는 음이라 할 수 있다. 대금은  $b^b$ 이 대박의 첫 음으로 나타날 때 장식음으로  $b^b$ - $d^b$ 이 나타난다. 피리는  $b^b$ 의 장식음으로  $e^b$ 이 제3장에서  $g^b$ 에서  $b^b$ 으로 상행할 때 나타난다. 피리는  $e^b$ 또는  $d^b$ 에서  $b^b$ 으로 하행할 때  $b^b$ 의 장식음으로  $e^b$ 또는  $d^b$ 이 나타나며 이를 허침주법으로 연주한다. 제17장단에서  $b^b$ 을 퇴성하며  $a^b$ 으로 하행하는데, 이는 염불조의 시김새이다.

### ⑤ $d^b$ '(솔)

<삼현도드리>의  $d^b$ 에서 나타나는 시김새는 아래 <악보 266>에서 보겠다.

<악보 266> 삼현도드리  $d^b$ '의 시김새

위의 <악보 266>에서 살펴보면  $d^b$ 은  $b^b$ 으로 하행할 때 퇴성을 한다. 피리는  $d^b$ 에서  $g^b$ 으로 하행할 때  $d^b$ 을 추성한다. 예외로 피리가  $d^b$ 을 농음하는 시김새가 3회 나타난다.

이상의 내용을 정리하면, <삼현도드리>의 주요 시김새는 다음과 같다.  $e^b$ 은 보통 농음을 한다.  $g^b$ 은 퇴성을 한다.  $a^b$ 은 보통 농음을 한다.  $b^b$ 은 평으로 낸다.  $d^b$ 은  $b^b$ 으로 하행 시 퇴성을 하며, 피리는  $g^b$ 으로 하



행 시 추성을 한다.

시김새 중 장식음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e^b$ 의 장식음으로는  $g^b$ 이  $a^b$ 에서  $e^b$ 으로 하행할 때 나타나며, 대금은  $a^b-g^b$ 이  $g^b$ 에서  $e^b$ 으로 하행할 때 나타난다. 피리는  $e^b$ 의 장식음으로  $a^b$ 이  $b^b$ 에서  $e^b$ 으로 상행할 때 나타난다.  $g^b$ 의 장식음으로 대금은  $a^b$ 이 나타난다.  $a^b$ 의 장식음으로 대금은  $b^b$ 이 나타나고, 피리는  $e^b$ 이  $g^b$ 에서  $a^b$ 으로 상행할 때 나타난다.  $b^b$ 의 장식음으로 대금은  $b^b-d^b$ , 피리는  $e^b$ 이  $g^b$ 에서  $b^b$ 으로 상행할 때 나타난다. 또한  $b^b$ 의 장식음으로 피리는  $d^b \cdot e^b$ 이  $d^b$ 또는  $e^b$ 에서  $b^b$ 으로 하행할 때 나타나며, 이를 혀침주법으로 연주한다.

염불조의 시김새로는  $b^b$ 의 퇴성과  $e^b$ 의 장식음인  $f$ 가 나타난다.

요컨대, <삼현도드리>의 음계는 ‘ $e^b$ (라)- $g^b$ (도)- $a^b$ (레)- $b^b$ (미)- $d^b$ (솔)’이다. 관용적 구조선율은  $b^b-e^b$ ,  $b^b-g^b$ ,  $d^b-g^b$ 이며, 핵음은  $b^b(미) \cdot e^b(라)$ 이며, 종지음은  $e^b(라) \cdot g^b(도) \cdot b^b(미)$ 이다.

$g^b$ 은 종지음으로의 출현 외에는 주로 경과음으로 나타난다.  $a^b$ 은 염불조가 혼합되는 악구 외에서는 주로 경과음으로 나타난다.  $d^b$ 은  $e^b$ 으로 상행하기 위한 경과음,  $e^b$ 에서 하행하기 위한 경과음 또는 악구의 시작음으로 사용된다.

주요 시김새는 다음과 같다.  $e^b$ 은 보통 농음을 한다.  $g^b$ 은 퇴성을 한다.  $a^b$ 은 보통 농음을 한다.  $b^b$ 은 평으로 내는 음이다.  $d^b$ 은  $b^b$ 으로 하행 시 퇴성을 하며, 피리는  $g^b$ 으로 하행 시 추성을 한다.

시김새 중 장식음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e^b$ 의 장식음으로  $g^b$ , 대금은  $a^b-g^b$ 이 나타나며,  $e^b$ 의 장식음으로 피리는  $a^b$ 이 나타난다.  $a^b$ 의 장식음으로 피리는  $e^b$ 이 나타난다.  $b^b$ 의 장식음으로 피리는  $e^b \cdot d^b \cdot e^b$ 이 장식음으로 나타나며,  $d^b \cdot e^b$ 은 혀침주법으로 연주한다.

<삼현도드리>에서는 염불조가 혼재된 양상이 짧게 나타나는데, 이는 제4절에서 정리하여 살펴보겠다.

#### (4) 염불도드리 제5장~제7장

<염불도드리> 제5장~제7장은 <삼현도드리> 제5장~제7장과 동일하므로 생략한다.

## (5) 삼현타령 제1장

<삼현타령>은 ≪삼현영산회상≫의 여섯 번째 악곡이며, 제1장²¹¹⁾이 허튼타령조에 해당한다. 출현음과 구조선을 · 핵음 · 종지음, 그리고 시김새 분석을 통해 악곡을 살펴보겠다.

### 1) 출현음

<삼현타령>은 제1장의 출현음을 <악보 267>에서 살펴보겠다.²¹²⁾

<악보 267> 삼현타령 제1장 출현음

The musical score for Samhyeon Talryung, Part 1, shows the appearance of notes on two staves: Daegum (대금) and Piri (피리). The Daegum staff is in treble clef with a key signature of three flats (B-flat, E-flat, A-flat). The Piri staff is in treble clef with a key signature of two flats (B-flat, E-flat). The notes are as follows:

Instrument	Note	Interval
Daegum	e ^{b'} (라)	
Daegum	g ^{b'} (도)	
Daegum	a ^{b'} (레)	
Daegum	b ^{b'} (미)	
Daegum	d ^{b''} (솔)	
Piri	B ^b (미)	
Piri	e ^b (라)	
Piri	f(시)	
Piri	g ^b (도)	
Piri	a ^b (레)	
Piri	b ^b (미)	
Piri	d ^b (솔)	
Piri	e ^{b'} (라)	

<악보 267>을 살펴보면, 대금의 주요 출현음은 e^{b'}(라), g^{b'}(도), a^{b'}(레), b^{b'}(미), d^{b''}(솔)이며, 피리의 주요 출현음은 e^b(라), g^b(도), a^b(레), b^b(미), d^b(솔), e^{b'}(라)이다. 피리는 B^b(미)이 장식음으로 나타나고, 염불조의 구성음인 f(시)가 장식음으로 출현한다.

211) ≪삼현영산회상≫의 <삼현타령> 제1장은 ≪염불풍류> 또는 ≪취타풍류>의 <삼현타령> 제1장과 다르다.

212) 흰음표는 주요 출현음이며, 검은음표는 장식음으로만 나타나는 음이다. 검은음표의 음이름은 이탤릭체로 구분하였다.

## 2) 구조선율 · 핵음 · 종지음

<삼현타령>은 총 27장단의 악곡이다. <삼현타령>의 악구는 총 19개로 나누며, 제1장은 제1악구부터 제6악구까지이다. 총 6개 악구의 구조선율과 악구별 핵음, 종지음을 살펴보겠다.

### ① 삼현타령 제1악구

<삼현타령>의 제1악구는 제1장단부터 제2장단까지이다. 제1악구는 다음의 <악보 268>에서 보겠다.

<악보 268> 삼현타령 제1악구(제1장단~제2장단)



위의 <악보 268>에서 살펴보면 제1장단의 제1박은  $a^b$ 을 경과하여  $b^b$ 으로 상행한다.  $b^b$ 은 제2박까지 지속하며 제3박에서는  $a^b$ 으로 하행한다.  $a^b$ 은  $f(g^b_{213})$ 을 경과하여  $e^b$ 으로 하행한다. 이후 제4박에서 다시  $a^b$ 으로 진행하며 제2장단의 제2박까지 지속한다. 이후  $b^b$ 과  $d^b$ 으로 상행하였다가 제4박에서  $a^b$ 으로 하행한다. 제4박의 끝에서는  $e^b$ 으로 하행하여 종지감을 준다. 제1악구의 구조선율은  $b^b - a^b - d^b - b^b - a^b - e^b$ 이며, 핵음은  $e^b \cdot a^b \cdot b^b$ , 종지음은  $e^b$ 이다.

### ② 삼현타령 제2악구

213) 피리는  $f$ , 대금과 해금은  $g^b$ 으로 진행한다.  $f$ 는 엽불조의 구성음이며,  $f$ 와  $g^b$ 이 동시에 출현하는 것은 악조가 혼재된 양상이다.

<삼현타령>의 제2악구는 제3장단부터 제4장단까지이다. 제2악구는 다음의 <악보 269>에서 보겠다.

### <악보 269> 삼현타령 제2악구(제3장단~제4장단)



위의 <악보 269>에서 살펴보면 피리는 제3장단의 제1박에서  $g^b$ 으로 시작하여  $b^b$ 을 경과하여 제2박의  $e^b$ 으로 상행한다. 제2박의 끝에서  $d^b$ 을 경과하여  $b^b$ 으로 하행한다. 이후 제1박과 제2박의 선율을 반복한다. 제4장단은 제3장단의 선율을 변주한다. 제1박은  $g^b$ 으로 시작하여  $b^b$ 을 경과 후, 제2박에서  $d^b$ 으로 상행한다. 이후  $e^b$ 으로 상행하여  $b^b$ 을 경과 후 다시  $e^b$ 으로 도달하여 마친다. 이때 종지감은 약하다. 대금은 피리가  $e^b$  또는  $d^b$ 으로 진행할 때  $b^b$  또는  $d^b$ 으로 진행하며, 마지막 박에서는  $b^b$ 에서  $d^b$ 으로 상행하며 악구를 마친다. 제2악구의 구조선율은  $g^b-e^b$ ,  $-g^b-e^b$ ,  $-g^b-d^b-e^b$ 이며, 핵음은  $g^b \cdot e^b$ , 종지음은  $e^b$ 이다.

### ③ 삼현타령 제3악구

<삼현타령>의 제3악구는 제5장단부터 제6장단까지이다. 제3악구는 다음의 <악보 270>에서 보겠다.

<악보 270> 삼현타령 제3악구(제5장단~제6장단)



위의 <악보 270>에서 살펴보면 피리는 제5장단의 제1박에서  $b^b$ 으로 시작하여  $e^b$ '으로 상행한 후, 제2박까지  $e^b$ '을 지속한다. 제3박에서는  $d^b$ '과  $b^b$ 을 경과한 후, 제4박에서 다시  $e^b$ '으로 상행한다. 제6장단은 제5장단의 선율을 변주하며  $b^b$ 로 시작하여  $e^b$ '으로 도달한다. 대금은 피리가  $e^b$ '으로 진행할 때 전반부에서는  $b^b$ , 후반부에서는  $d^b$ ''으로 진행한다. 대금의 마지막 박은  $b^b$ 에서  $d^b$ ''으로 상행하여 종지감 없이 악구를 마친다. 제3악구의 구조선율은  $b^b-e^b-d^b-e^b-b^b-e^b-d^b-e^b$ 이며, 핵음은  $b^b \cdot e^b$ , 종지음은  $e^b$ '이다.

④ 삼현타령 제4악구

<삼현타령>의 제4악구는 제7장단이다. 제4악구는 다음의 <악보 271>에서 보겠다.

<악보 271> 삼현타령 제4악구(제7장단)



위의 <악보 271>에서 살펴보면 제7장단의 제1박은  $g^b$ 으로 시작하여 피리는  $b^b$ , 대금은  $a^b$ '을 경과한 후,  $e^b$ 으로 하행한다. 이후 제2박에서  $b$

$b^b$ 으로 상행하여 피리는  $e^b$ , 대금은  $d^{b''} \cdot b^{b'}$ 을 경과한 후,  $a^b$ 으로 하행한다. 제3박에서는  $b^b$ 으로 진행한 후, 제4박에서  $g^b$ 으로 하행한다. 피리는  $g^b$ 을 퇴성하여 종지한다. 대금은 제4박의  $g^{b'}$ 에서  $e^{b'}$ 으로 하행하며 종지한다. 제4악구는 대금과 피리의 종지음이 다르다. 제4악구의 구조선율은  $g^b - e^b - b^b - e^b / g^b$ 이며, 핵음은  $e^b \cdot b^b$ , 대금의 종지음은  $e^b$ , 피리의 종지음은  $g^b$ 이다.

### ⑤ 삼현타령 제5악구

<삼현타령>의 제5악구는 제8장단부터 제9장단까지이다. 제5악구는 다음의 <악보 272>에서 보겠다.

<악보 272> 삼현타령 제5악구(제8장단~제9장단)



위의 <악보 272>에서 살펴보면 피리는 제8장단의 제1박에서  $a^b$ 으로 시작하여  $b^b$ 을 경과하여  $g^b$ 으로 하행한다. 제2박에서는  $b^b$ 으로 상행한다. 제1박에서 대금은  $a^{b'}$ 을 중심으로  $b^{b'} \cdot d^{b''} \cdot b^{b'}$ 을 경과하여 제2박부터 피리와 유사한 진행을 한다. 제3박에서는  $b^b$ 에서  $g^b$ 으로 하행한다. 이후 제4박에서  $a^b$ 으로 진행한 후  $b^b$ 을 들어낸다. 대금은 제4박에서 피리보다 한 음 높은 진행( $b^{b'} - d^{b''}$ )을 한다. 제9장단은 제8장단의 선율을 변주하며  $b^b$ 에서  $e^{b'}$ 까지 점차 상행하며 악구를 마친다. 제9장단의 제4박에서 대금은 피리보다 한 음 낮은 진행( $b^{b'} - d^{b''}$ )을 한다. 제5악구의 구조선율은  $a^b - b^b - a^b - b^b - d^{b'} - e^{b'}$ 이며, 핵음은  $b^b \cdot e^{b'}$ , 종지음은  $e^{b'}$ 이다.

### ⑥ 삼현타령 제6악구

<삼현타령>의 제6악구는 제10장단이다. 제6악구는 다음의 <악보 273>에서 보겠다.

<악보 273> 삼현타령 제6악구(제10장단)



<삼현타령> 제6악구는 제4악구와 동일한 진행을 하다 제4박에서 차이를 보인다. 제6악구의 제4박은 대금이 피리와 동일하게  $g^b$ 으로 하행하여 종지를 한다. 제6악구의 구조선율은  $g^b-e^b-b^b-g^b$ 이며, 핵음은  $b^b$ , 종지음은  $g^b$ 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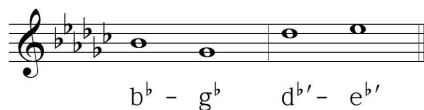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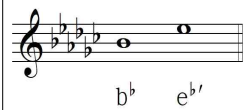

이상의 내용을 정리하면, <삼현타령> 제1장의 관용적 구조선율은  $b^b-g^b, d^b-e^b$ 이며, 핵음은  $b^b$ (미) ·  $e^b$ (라)이며, 종지음은  $g^b$ (도)이다.

악구의 종지음으로  $e^b$ (라)가 가장 많이 나타나지만, 이때의 종지감은 약하다.  $a^b$ 은 제1악구를 제외하고 대부분 경과음으로 나타난다.  $d^b$  또한 경과음으로 나타나며 대금은 피리가  $e^b$ 으로 진행할 때  $e^b$ 과 같은 기능으로  $d^b$ 을 낸다.

<삼현타령> 제1장의 구조선율 · 핵음 · 종지음 분석을 정리하면 다음의 [표 28]²¹⁴⁾에서 보는 것과 같다.

214) 구조선율에서 밑줄 친 부분은 관용적 구조선율에 해당한다. 이탤릭체는 다른 악조(염불조)의 특징이 나타나는 것이다.

[표 28] 삼현타령 제1장 구조선율 · 핵음 · 종지음

악구	구조선율	핵음	종지음
1	$b^b - a^b - d^{b'} - b^b - a^b - e^b$	$e^b \cdot a^b \cdot b^b$	$e^b$
2	$g^b - e^b - g^b - e^b - g^b - d^{b'} - e^{b'}$	$g^b \cdot e^{b'}$	$e^{b'}$
3	$b^b - e^b - d^{b'} - e^b - b^b - e^b - d^{b'} - e^{b'}$	$b^b \cdot e^{b'}$	$e^{b'}$
4	$g^b - e^b - b^b - e^b / g^b$	$e^b \cdot b^b$	$e^b \cdot g^b$
5	$a^b - b^b - a^b - b^b - d^{b'} - e^{b'}$	$b^b \cdot e^{b'}$	$e^{b'}$
6	$g^b - e^b - b^b - g^b$	$b^b$	$g^b$
종합	 $b^b - g^b \quad d^{b'} - e^{b'}$	 $b^b \quad e^{b'}$	 $g^b$

### 3) 시김새

<삼현타령> 제1장의 시김새는  $e^b$ (라),  $g^b$ (도),  $a^b$ (레),  $b^b$ (미),  $d^{b'}$ (솔) 다섯 음으로 나누어 살펴보겠다.

#### ① $e^b$ (라)

<삼현타령> 제1장의  $e^b$ 에서 나타나는 시김새는 아래 <악보 274>에서 보는 것과 같다.

<악보 274> 삼현타령 제1장  $e^b$ 의 시김새





위의 <악보 274>에서 살펴보면 피리는  $e^b$ 과  $e^b$ '에서 보통 농음을 한다. 대금은  $e^b$ '에서 농음이 나타나지 않으며  $a^b$ '에서  $e^b$ '으로 하행할 때  $e^b$ '앞에  $g^b$ '이 장식음으로 나타난다. 피리는  $a^b \cdot b^b$ 에서  $e^b$ 으로 하행할 때  $e^b$ 앞에  $f$ 가 장식음으로 나타나며, 이를 내리더름 주법으로 연주한다. 피리는  $b^b$ 에서  $e^b$ '으로 상행할 때  $e^b$ '앞에  $a^b$ 이 장식음으로 나타난다.

## ② $g^b$ (도)

<삼현타령> 제1장의  $g^b$ 에서 나타나는 시김새는 아래 <악보 275>에서 보는 것과 같다.

<악보 275> 삼현타령 제1장  $g^b$ 의 시김새

위의 <악보 275>에서 살펴보면  $g^b$ 은 항상 퇴성한다. 대금은  $g^b$ '을 동음 진행하는 경우  $a^b$ '으로  $g^b$ '을 꾸며준다.

## ③ $a^b$ (레)

<삼현타령> 제1장의  $a^b$ 에서 나타나는 시김새는 아래 <악보 276>에서 보는 것과 같다.

<악보 276> 삼현타령 제1장 a^b의 시김새

(1장)

위의 <악보 276>에서 살펴보면 a^b은 보통 농음을 한다. 제1장단의 제4박에서 a^b은 g^b에서 음을 끌어올리는 시김새를 보인다. 대금은 a^b'이 대박의 첫 음으로 나타날 때, 또는 동음 진행할 때 b^b'이 장식음으로 나타난다.

④ b^b(미)

<삼현타령> 제1장의 b^b에서 나타나는 시김새는 아래 <악보 277>에서 보는 것과 같다.

<악보 277> 삼현타령 제1장 b^b의 시김새

(1장)

위의 <악보 277>에서 살펴보면 대금이 b^b에서 a^b'으로 하행할 때 b^b'의 퇴성이 제1장단에서 1회, 하행 농음이 제6장단에서 1회 나타난다. 이는 염불조의 시김새이다. 이외에 대금과 피리의 b^b은 농음 또는 퇴성 등

의 시김새가 나타나지 않고, 평으로 낸다. 대금은  $b^b$ '이 대박의 첫 음으로 출현할 때 또는 새로운 호흡에서 출현할 때 장식음으로  $b^b$ '- $d^b$ '이 나타난다. 피리는  $e^b$ '또는  $d^b$ '에서  $b^b$ 으로 하행할 때  $b^b$ 앞에  $d^b$ '이 장식음으로 나타나며, 이를 혀침주법으로 연주한다.

### ⑤ $d^b$ '(솔)

<삼현타령> 제1장의  $d^b$ '에서 나타나는 시김새는 아래 <악보 278>에서 보는 것과 같다.

<악보 278> 삼현타령 제1장  $d^b$ '의 시김새



위의 <악보 278>에서 살펴보면 대금과 피리는  $d^b$ '에서  $b^b$ 으로 하행할 때  $d^b$ '을 퇴성한다.

이상의 내용을 정리하면, <삼현타령> 제1장의 주요 시김새는 다음과 같다. 피리는  $e^b$ 에서 보통 농음을 하며, 대금은 농음이 나타나지 않는다.  $g^b$ 은 퇴성을 한다.  $a^b$ 은 보통 농음을 한다.  $b^b$ 은 평으로 낸다.  $d^b$ '은  $b^b$ 으로 하행 시 퇴성을 한다.

시김새 중 장식음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대금은  $e^b$ '의 장식음으로  $a^b$ '에서  $e^b$ '으로 하행 시  $g^b$ '이 나타난다. 피리는  $e^b$ '의 장식음으로  $b^b$ 에서  $e^b$ '으로 상행할 때  $a^b$ 이 나타난다.  $g^b$ '의 장식음으로 대금은  $a^b$ '이 나타난다.  $a^b$ '의 장식음으로 대금은  $b^b$ '이 나타난다.  $b^b$ 의 장식음으로 대금은  $b^b$ '- $d^b$ '', 피리는  $d^b$ '이 장식음으로 나타나며, 피리는 이를 혀침주법으로 연주한다.

염불조의 시김새는 대금의  $b^b$ ' 하행 농음 및 퇴성, 그리고 피리의 내리더름 주법으로 나타난다.

요컨대, 《삼현영산회상》 중 <삼현타령> 제1장의 음계는 ' $e^b$ (라)- $g^b$ (도)- $a^b$ (레)- $b^b$ (미)- $d^b$ '(솔)'이다. 관용적 구조선율은  $b^b$ - $g^b$ ,  $d^b$ '- $e^b$ '이며, 핵음은  $b^b$ (미) ·  $e^b$ '(라)이며, 종지음은  $g^b$ (도)이다.

악구의 종지음으로  $e^b$ '(라)이 가장 많이 나타나지만, 이때의 종지감은 약하다.  $a^b$ 은 제1악구를 제외하고 대부분 경과음으로 나타난다.  $d^b$ ' 또한 경과음으로 나타나며, 대금은 피리가  $e^b$ '으로 진행할 때  $e^b$ '과 같은 기능으로  $d^b$ '을 낸다.

주요 시김새는 다음과 같다.  $e^b$ 은 보통 농음을 하며,  $g^b$ 은 퇴성한다.  $a^b$ 은 보통 농음을 한다.  $b^b$ 은 평으로 내는 음이다.  $d^b$ '은  $b^b$ 으로 하행 시 퇴성한다. 피리는  $b^b$ 에서  $e^b$ '으로 상행할 때  $e^b$ '앞에  $a^b$ 이 장식음으로 나타난다.

<삼현타령> 제1장은 염불조의 성격이 드문드문 혼합되어 나타나며, 이와 같은 악조의 혼재 양상은 제4절에서 정리하여 살펴보겠다.

## 다. 취타풍류계

《취타풍류》 악곡 중 허튼타령조에 해당하는 악곡은 <삼현타령> 제1장의 제4장단~제6장단이다.

### (1) 삼현타령 제1장 제4장단~제6장단

<삼현타령> 제1장의 제4장단~제6장단은 《염불풍류》의 <삼현타령> 제4장단~제6장단과 동일하므로 생략한다.

## 라. 소결론

허튼타령조의 음계²¹⁵⁾는 ‘e^b(라)-g^b(도)-a^b(레)-b^b(미)-d^b’(솔)’이다. 종지음은 e^b(라)과 g^b(도)이며,²¹⁶⁾ 핵음은 e^b(라)과 b^b(미)²¹⁷⁾이다. 허튼타령조는 종지음인 g^b(도)이 핵음으로 나타나지 않는 것이 특징이다.²¹⁸⁾ 주요 관용적 구조선율은 e^b-g^b, b^b-g^b, b^b-e^b’으로 핵음에서 종지음 g^b으로 또는 핵음에서 핵음으로 진행하려는 성격을 보인다.

허튼타령조의 주요 시김새는 e^b(라)의 굽은 농음 또는 보통 농음, g^b(도)의 퇴성, a^b(레)의 상행 농음(염불풍류) 또는 보통 농음으로 나타난다. 또한 b^b(미)은 평으로 내며, d^b’(솔)에서 대금은 퇴성, 피리는 퇴성과 추성²¹⁹⁾이 나타난다. 허튼타령조의 특징적인 장식음은 나타나지 않는다.

이외에 허튼타령조 구성음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a^b(레)과 d^b’(솔)은 경과음의 성격으로 주로 나타나며, g^b(도) 또한 종지 외에는 주로 경과음으로 나타난다. d^b’(솔)은 <느린허튼타령>과 <삼현도드리>에서 다음 악구의 진행을 예고하며 반종지하는 경우에 악구의 마지막 음으로 출현한다.

즉, 허튼타령조는 핵음인 e^b(라)과 b^b(미)을 중심으로 선율이 움직이며,

215) 악조의 음계 중 제1음은 경기 삼현육각의 모든 악곡에서 공통으로 나타나는 핵음인 e^b으로 한다.

216) <삼현도드리>에서는 위의 두 종지음에 더하여 b^b(미)이 종지음으로 나타난다.

217) <<염불풍류>> 중 허튼타령조 악곡의 핵음은 e^b(라)와 미(b^b)이고, <<삼현영산회상>> 중 허튼타령조 악곡의 핵음은 미(b^b)와 라’(e^b)이다. 허튼타령조를 종합하여 분석할 때에는 <<삼현영산회상>> 악곡의 핵음 중 e^b은 한 옥타브 낮은 e^b으로 포함하여 분석한다.

218) 허튼타령조의 종지음인 g^b에 선행하는 선율 진행을 살펴보면, g^b으로 귀결하고자 하는 흡인력이 약하며, g^b은 독자적으로 종지의 위치에 나타난다. 또한 종지 시 퇴성을 하며 종지감과 연결감을 동시에 갖고 있다. 한편, 종지 외의 진행을 살펴보면 g^b은 주로 경과음으로 사용되는 음으로, 악곡 안에서 g^b의 지배력은 약하다고 판단하여, 종지음에 포함하되 핵음에서는 제외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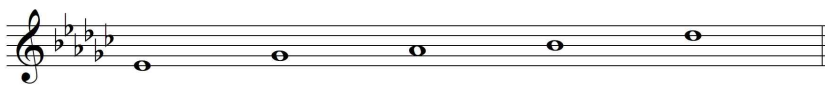

219) 대금과 피리의 d^b’(솔) 퇴성은 주로 b^b으로 하행 시 나타나며, 피리의 d^b’(솔) 추성은 g^b또는 a^b으로 하행 시 나타난다. 피리의 추성은 <<삼현영산회상>>의 허튼타령조 악곡에서 나타나는 특징이다.

종지 시 퇴성하는 음인  $g^b$ (도)이 나타나는 것이 특징인 악조이다.

허튼타령조에 해당하는 악곡은 《염불풍류》 중 <삼현타령> 제4장단~제6장단, <느린허튼타령>, <중허튼타령>, <자진허튼타령>, 《삼현영산회상》 중 <중영산>, <жат영산>, <삼현도드리>, <염불도드리> 제5장~제7장, <삼현타령> 제1장, 《취타풍류》 중 <삼현타령> 제1장 제4장단~제6장단이다.

허튼타령조의 음조식을 다음 [표 29]²²⁰⁾에서 보는 것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표 29] 허튼타령조의 음조식

음계					
	$e^b$ (라)	$g^b$ (도)	$a^b$ (레)	$b^b$ (미)	$d^b$ (솔)
종지음	○	○			
핵음	○			○	
시김새	굵은 농음, 보통 농음	퇴성	상행 농음 (염불풍류), 보통 농음	평으로 내는 음	대: 퇴성 피: 퇴성, 추성
구조 선율	 $e^b - g^b$ $b^b - g^b$ $b^b - e^{b'}$				

### 3. 당악조

220) [표 29]에서 대금과 피리를 구분하는 경우 대금은 ‘대’, 피리는 ‘피’라고 서술하겠다. 악기의 구분이 없는 것은 대금과 피리에서 공통으로 나타나는 시김새이다. 악보 및 음이름은 피리의 음역으로 통일하였다.

본고에서는 《염불풍류》의 <당악>, 《삼현영산회상》의 <별곡타령>, 《취타풍류》의 <취타>, <길군악>, <별곡타령>을 당악조로 구분²²¹⁾하여 논의를 진행한다.²²²⁾

## 가. 염불풍류계

본 항에서는 《염불풍류》 악곡 중 당악조에 해당하는 악곡인 <당악>을 살펴보겠다.

### (1) 당악

<당악>은 《염불풍류》의 마지막 곡으로 연주되며, 출현음과 구조선을 ·핵음·중지음, 그리고 시김새 분석을 통해 악곡을 살펴보겠다.

#### 1) 출현음

<당악>의 출현음을 다음 <악보 279>에서 살펴보겠다.

---

221) 이와 같은 악곡 분류의 세부 경계는 본고의 연구결과를 따른 것이다. 위 분류에 대해 최경만, 박승률, 김방현이 동의한 바 있다. 최경만, 삼현육각 피리 전수소, 2020. 1. 18; 박승률, 경기도 동두천시 지행동 카페 ‘살롱드코나’, 2019. 12. 22; 김방현, 경기도 파주시 동패동 카페 ‘커피에반하다’, 2019. 12. 24.

222) 본고에서 당악조 악곡은 E^b조의 조표를 사용한다.

### <악보 279> 당악 출현음

대금

피리

e^{b'}(도) f'(레) g'(미) b^{b'}(솔) c''(라) e^{b''}(도)

e^b(도) f(레) g(미) b^b(솔) c'(라) e^{b'}(도) f'(레)

<악보 279>를 살펴보면, <당악>의 출현음은 e^b(도), f(레), g(미), b^b(솔), c'(라), e^{b'}(도)까지 대금·피리가 동일하게 나타난다. 피리는 최고음이 f'(레)까지 나타난다.

## 2) 구조선율·핵음·종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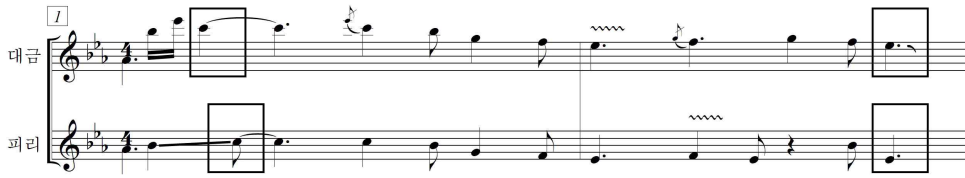
<당악>은 총 58장단의 악곡이다. <당악>의 악구를 나누는 기준은 종지음이 나타나는 구간, 동일한 리듬의 반복이 나타나는 구간, 한 호흡으로 이어지는 구간, 순차 상행 또는 순차 하행하는 구간 등으로 나눌 수 있으며, 악구의 길이는 불규칙하다. 위와 같이 나누어진 총 29개 악구의 구조선율과 악구별 핵음, 종지음을 살펴보겠다. 당악의 제11악구는 제6악구와 동일하고, 제14악구부터 제22악구까지는 제4악구부터 제12악구까지와 동일하고, 제27악구부터 제28악구까지는 제7악구부터 제8악구까지와 동일한 선율이므로 생략하겠다. 제23악구부터 제27악구까지는 피리의 쇠는가락이다.

### ① 당악 제1악구

<당악>의 제1악구는 제1장단부터 제2장단까지이다. 제1악구는 다음의 <악보 280>에서 보겠다.



<악보 280> 당악 제1악구(제1장단~제2장단)



위의 <악보 280>에서 살펴보면 제1장단의 제1박은  $b^b$ 을 경과하여  $c'$ 로 상행한다.  $c'$ 는 제3박까지 지속한 후,  $b^b$ 을 경과하여 제4박에서  $g$ 로 하행한다. 이후  $f$ 를 경과하여 제2장단의 제1박에서  $e^b$ 으로 하행한다. 제2박에서는  $f$ 로 상행한 후 제3박에서  $g$ 까지 상행하였다가 마지막 박에서  $e^b$ 으로 마친다. 제1악구는  $c'$ 로 시작하여 순차하행하여  $e^b$ 으로 마치는 구조이다. 제1악구의 구조선율은  $c'-g-e^b-f-g-e^b$ 이며, 핵음은  $e^b \cdot c'$ , 종지음은  $e^b$ 이다.

② 당악 제2악구

<당악>의 제2악구는 제3장단이다. 제2악구는 다음의 <악보 281>에서 보겠다.

<악보 281> 당악 제2악구(제3장단)



위의 <악보 281>에서 살펴보면 제3장단의 제1박은  $g$ 로 시작하여 제2박에서  $b^b$ 으로 단3도 상행한다.  $b^b$ 은 제4박까지 지속한다. 제2악구의 구조선율은  $g-b^b$ 이며, 핵음은  $b^b$ , 종지음은  $b^b$ 이다.

### ③ 당악 제3악구

<당악>의 제3악구는 제4장단이다. 제3악구는 다음의 <악보 282>에서 보겠다.

<악보 282> 당악 제3악구(제4장단)



위의 <악보 282>에서 살펴보면 제4장단의 제1박은  $b^b$ 으로 시작하여 제2박까지  $b^b$ 을 중심으로 움직인다. 제3박에서는  $g$ 를 경과한 후, 제4박의  $f$ 로 도달하여 반중지한다. 제3악구의 구조선율은  $b^b$ - $c'$ - $g$ - $f$ 이며, 핵음은  $f \cdot b^b$ , 종지음은  $f$ 이다.

### ④ 당악 제4악구

<당악>의 제4악구는 제5장단부터 제6장단까지이다. 제4악구는 다음의 <악보 283>에서 보겠다.

<악보 283> 당악 제4악구(제5장단~제6장단)



위의 <악보 283>에서 살펴보면 제5장단의 제1박은  $g$ 로 시작하여  $b^b$ 으로 상행한다.  $b^b$ 은 제3박까지 지속하며  $c'$ 를 경과 후 제4박에서  $g$ 로 하

행한다. 제6장단의 제1박은  $c'$ 로 완전4도로 상행한다. 제1박의 끝에서는  $b^b$ 을 경과한 후, 제2박에서  $e^b$ 으로 상행한다. 제3박은 다시  $c'$ 로 하행 후  $e^b \cdot c'$ 를 경과하여 제4박에서  $b^b$ 으로 하행한다. 제4악구의 구조선율은  $g-b^b-g-c'-e^b-c'-b^b$ 이며, 핵음은  $g \cdot b^b \cdot c'$ , 종지음은  $b^b$ 이다.

## ⑤ 당악 제5악구

<당악>의 제5악구는 제7장단 제1박부터 제9장단 제3박까지이다. 제5악구는 다음의 <악보 284>에서 보겠다.

<악보 284> 당악 제5악구(제7장단 제1박~제9장단 제3박)

위의 <악보 284>에서 살펴보면 제7장단의 제1박에서 대금은  $b^b$ 으로 시작하여 제3박에서  $g'$ 로 하행한다. 피리는 제1박의 끝에서  $e^b$ 을 경과하여 제2박의  $c'$ 로 진행한다. 이후  $b^b$ 을 경과하여 제3박에서  $g$ 로 하행한다. 제4박에서는  $f$ 를 경과 후 다시  $g$ 로 상행한다. 이후 대금과 피리 모두 제8장단의 제1박에서  $b^b$ 으로 상행한 후 제3박에서  $g$ 로 하행한다. 이후 제4박에서 다시  $b^b$ 으로 상행한 후 제9장단의 제2박에서  $e^b$ 으로 하행하여 종지감을 준다. 제5악구의 구조선율은  $b^b-c'-g-b^b-g-b^b-e^b$ 이며, 핵음은  $e^b \cdot b^b$ , 종지음은  $e^b$ 이다.

## ⑥ 당악 제6악구

<당악>의 제6악구는 제9장단 제4박부터 제11장단 제4박까지이다. 제6악구는 다음의 <악보 285>에서 보겠다.

<악보 285> 당악 제6악구(제9장단 제4박~제11장단 제4박)

위의 <악보 285>에서 살펴보면 제9장단의 제4박은  $c'$ 를 경과하여 제10장단 제1박의  $b^b$ 으로 하행한다.  $b^b$ 은 제2박까지 지속한다. 제2박의 끝에서  $e^b$ 으로 상행 후  $c' \cdot b^b \cdot g \cdot f$ 까지 순차 하행하여 제11장단 제1박에서  $e^b$ 으로 도달한다. 이후 제2박과 제3박에서  $f$ 와  $g$ 를 경과 후, 제4박에서 다시  $e^b$ 으로 하행하여 종지감을 준다. 제6악구의 구조선율은  $c'-b^b-c'-g-e^b-f-g-e^b$ 이며, 핵음은  $e^b \cdot b^b$ , 종지음은  $e^b$ 이다.

## ⑦ 당악 제7악구

<당악>의 제7악구는 제12장단부터 제13장단까지이다. 제7악구는 다음의 <악보 286>에서 보겠다.

<악보 286> 당악 제7악구(제12장단~제13장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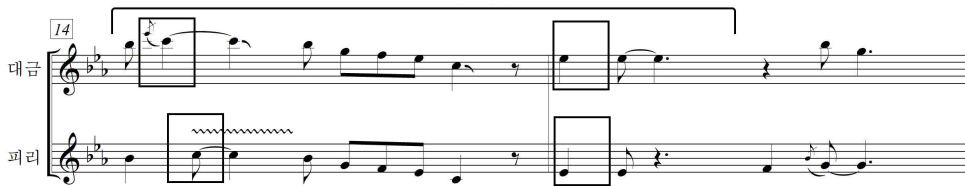


위의 <악보 286>에서 살펴보면 제12장단의 제1박은 g로 시작하여 제2박에서 b^b으로 상행한다. 이후 제3박 c'로 상행한 후 제4박에서 b^b으로 하행하였다가 제4박의 끝에서 다시 c'로 상행한다. 제13장단의 제1박은 g로 하행한 후 f를 경과하여 제3박의 e^b으로 도달한다. e^b은 중지감을 준다. 제7악구의 구조선율은 g-b^b-c'-b^b-g-f-e^b이며, 핵음은 e^b·b^b, 중지음은 e^b이다.

⑧ 당악 제8악구

<당악>의 제8악구는 제14장단 제1박부터 제15장단 제2박까지이다. 제8악구는 다음의 <악보 287>에서 보겠다.

<악보 287> 당악 제8악구(제14장단 제1박~제15장단 제2박)



위의 <악보 287>에서 살펴보면 제14장단의 제1박은 b^b을 경과하여 c'로 시작한다. c'는 제2박까지 지속한 후 b^b·g·f·e^b·c까지 순차 하행하여 제15장단의 제1박의 e^b으로 귀결하여 중지감을 준다. 제8악구의 구조선율은 c'-c-e^b이며, 핵음은 e^b·c', 중지음은 e^b이다.

### ⑨ 당악 제9악구

<당악>의 제9악구는 제15장단 제3박부터 제16장단 제4박까지이다. 제9악구는 다음의 <악보 288>에서 보겠다.

<악보 288> 당악 제9악구(제15장단 제3박~제16장단 제4박)



위의 <악보 288>에서 살펴보면 제15장단의 제3, 4박에서 f · g를 경과하여 제16장단의 제1박 f로 진행한다. f는 제2박까지 지속하며 g를 경과하여 제3박에서 b^b으로 상행하며 반종지한다. 제9악구의 구조선율은 g-f-b^b이며, 핵음은 f · b^b, 종지음은 b^b이다.

### ⑩ 당악 제10악구

<당악>의 제10악구는 제17장단 제1박부터 제20장단 제3박까지이다. 제10악구는 다음의 <악보 289>에서 보겠다.

<악보 289> 당악 제10악구(제17장단 제1박~제20장단 제3박)

위의 <악보 289>에서 살펴보면 제17장단의 제1박은 g로 시작하여 제2박에서 b^b으로 상행한다. b^b은 c'를 경과하며 제3박까지 지속한다. 제4박에서는 g를 경과한 후 18장단의 제1박의 f로 하행하여 제3박까지 지속한다. 제3박의 끝에서 g를 경과하여 제4박의 b^b으로 상행한다. b^b은 제19장단 제2박까지 지속한다. 이후 g를 경과하여 제4박에서 다시 b^b으로 상행한다. b^b은 제20장단 제1박까지 지속한 후 제2박에서 e^b으로 완전5도 하행하여 종지감을 준다. 제10악구의 구조선율은 g-b^b-g-f-b^b-g-b^b-e^b이며, 핵음은 e^b · f · b^b, 종지음은 e^b이다.

⑪ 당악 제12악구

<당악>의 제12악구는 제23장단이다. 제12악구는 다음의 <악보 290>에서 보겠다.

<악보 290> 당악 제12악구(제23장단)

위의 <악보 290>에서 살펴보면 피리는 제23장단에서 g로 시작하여 제2박에서 b^b으로 상행한다. 이후 제3박의 g를 경과하여 제4박의 f로 하행한다. 대금은 제2악구와 동일하다. 제12악구의 구조선율은 g-b^b-g-f이며, 핵음은 f·b^b, 대금의 종지음은 b^b, 피리의 종지음은 f이다.

## ⑫ 당악 제13악구

<당악>의 제13악구는 제24장단이다. 제13악구는 다음의 <악보 291>에서 보겠다.

<악보 291> 당악 제13악구(제24장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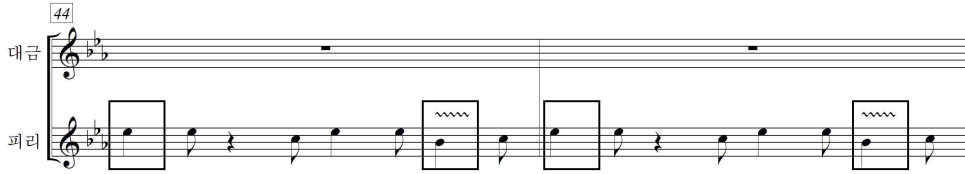
위의 <악보 291>에서 살펴보면 제24장단에서 피리는 첫 박의 끝에서 c^b을 경과하여 제2박의 c'로 하행한다. 이후 b^b·g를 경과하여 f로 도달한다. 대금은 제3악구와 동일하다. 제13악구의 구조선율은 b^b-c'-g-f이며, 핵음은 f·b^b, 종지음은 f이다.

## ⑬ 당악 제23악구

<당악>의 제23악구는 제44장단부터 제45장단까지이다. 제23악구는 다음의 <악보 292>에서 보겠다.



<악보 292> 당악 제23악구(제44장단~제45장단)



위의 <악보 292>에서 살펴보면 제23악구는  $e^b$ '을 중심으로 움직이며, 제4박에서  $b^b$ 으로 하행하였다가  $c'$ 를 경과하며 다시  $e^b$ '으로 상행하는 진행을 반복한다. 제23악구의 구조선율은  $e^b'-b^b-e^b'-b^b$ 이며, 핵음은  $b^b \cdot e^b$ , 종지음은  $b^b$ 이다.

⑭ 당악 제24악구

<당악>의 제24악구는 제46장단부터 제47장단까지이다. 제24악구는 다음의 <악보 293>에서 보겠다.

<악보 293> 당악 제24악구(제46장단~제47장단)



위의 <악보 293>에서 살펴보면 제46장단의 제1박은  $e^b$ '으로 시작하여 제2박에서  $c'$ 로, 제3박에서  $b^b$ 으로 하행하였다가 다시  $e^b$ '으로 상행한 후 앞의 선율을 반복한다. 이후 제47장단의 제3박에서  $e^b$ '으로 상행하여 제4박까지 지속한다. 제4박의 끝에서는  $c'$ 로 하행하며 다음 악구의 진행을 예비한다. 제24악구의 구조선율은  $e^b'-c'-b^b-e^b'-c'-b^b-e^b$ '이며, 핵음은  $b^b \cdot e^b$ , 종지음은  $e^b$ '이다.

## ⑮ 당악 제25악구

<당악>의 제25악구는 제48장단부터 제49장단까지이다. 제25악구는 다음의 <악보 294>에서 보겠다.

<악보 294> 당악 제25악구(제48장단~제49장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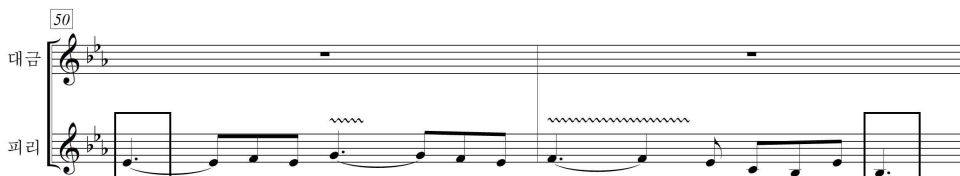


위의 <악보 294>에서 살펴보면 제48장단의 제1박은  $e^b$ '을 경과하여  $f$ 로 시작한다.  $f$ 는 제2박까지 지속한 후, 제3박에서  $b^b$ 으로 완전5도 하행한다.  $b^b$ 은 제4박까지 지속한 후 제4박의 끝에서  $c'$ 를 경과하여 제49장단의  $e^b$ '으로 상행한다.  $e^b$ '은 제4박까지 지속하며 종지감을 준다. 제25악구의 구조선율은  $f-b^b-e^b$ '이며, 핵음은  $b^b \cdot e^b' \cdot f$ , 종지음은  $e^b$ '이다.

## ⑯ 당악 제26악구

<당악>의 제26악구는 제50장단부터 제51장단까지이다. 제26악구는 다음의 <악보 295>에서 보겠다.

<악보 295> 당악 제26악구(제50장단~제51장단)



위의 <악보 295>에서 살펴보면 제50장단의 제1박은  $e^b$ 으로 시작하여

제3박에서 g로 상행한다. g는 f · e^b을 경과하여 제51장단의 제1박에서 f로 하행한다. f는 제2박까지 지속하고, 이후 e^b · c를 경과 후 제4박의 B^b으로 귀결하여 피리의 쇠는 가락을 마친다. 제26악구의 구조선율은 e^b - g - f - c - B^b이며, 핵음은 B^b · e^b, 종지음은 B^b이다.

## ⑰ 당악 제29악구

<당악>의 제29악구는 제55장단 제3박부터 제58장단 제4박까지이다. 제29악구는 다음의 <악보 296>에서 보겠다.

<악보 296> 당악 제29악구(제55장단 제3박~제58장단 제4박)

위의 <악보 296>에서 살펴보면 제29악구는 제56장단까지 제9악구와 동일한 진행을 한다. 이후 제56장단 제3박의 b^b은 제58장단까지 지속하며 악곡을 마친다. 제29악구의 구조선율은 g - f - b^b이며, 핵음은 f · b^b, 종지음은 b^b이다.

이상의 내용을 정리하면, <당악>의 관용적 구조선율은 g - e^b, g - b^b이며, 핵음은 e^b(도) · b^b(솔)이며, 종지음은 e^b(도) · b^b(솔)이다.

e^b에서 종지할 때 종지감이 안정되며, b^b의 종지는 e^b보다 종지감이 약하지만 악곡의 종지를 하는 음이므로 종지음에 포함한다. f는 악구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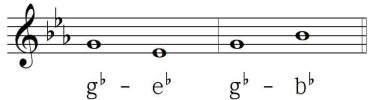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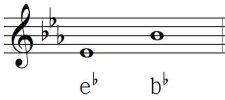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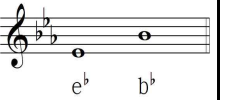
맺는 음으로 나타나기도 하지만 종지감이 약하다. g는 악구의 시작음 또는 경과음으로 주로 나타난다. f와 c'는 경과음으로 주로 나타난다.

<당악>의 구조선율·핵음·종지음 분석을 정리하면 다음의 [표 30]²²³⁾에서 보는 것과 같다.

---

223) 구조선율에서 밑줄 친 부분은 관용적 구조선율에 해당한다.

[표 30] 당악 구조선율 · 해음 · 종지음

악구	구조선율	해음	종지음
1	c'-g-e ^b -f-g-e ^b	e ^b · c'	e ^b
2	g-b ^b	b ^b	b ^b
3	b ^b -c'-g-f	f · b ^b	f
4	g-b ^b -g-c'-e ^b -c'-b ^b	g · b ^b · c'	b ^b
5	b ^b -c'-g-b ^b -g-b ^b -e ^b	e ^b · b ^b	e ^b
6	c'-b ^b -c'-g-e ^b -f-g-e ^b	e ^b · b ^b	e ^b
7	g-b ^b -c'-b ^b -g-f-e ^b	e ^b · b ^b	e ^b
8	c'-c-e ^b	e ^b · c'	e ^b
9	g-f-b ^b	f · b ^b	b ^b
10	g-b ^b -g-f-b ^b -g-b ^b -e ^b	e ^b · f · b ^b	e ^b
11	제6악구와 동일		
12	g-b ^b -g-f	f · b ^b	b ^b /f
13	b ^b -c'-g-f	f · b ^b	f
14	제4악구와 동일		
15	제5악구와 동일		
16	제6악구와 동일		
17	제7악구와 동일		
18	제8악구와 동일		
19	제9악구와 동일		
20	제10악구와 동일		
21	제11악구와 동일		
22	제12악구와 동일		
23	e ^b '-b ^b -e ^b '-b ^b	b ^b · e ^b '	b ^b
24	e ^b '-c'-b ^b -e ^b '-c'-b ^b -e ^b '	b ^b · e ^b '	e ^b '
25	f'-b ^b -e ^b '	b ^b · e ^b ' · f'	e ^b '
26	e ^b -g-f-c-B ^b	B ^b · e ^b	B ^b
27	제7악구와 동일		
28	제8악구와 동일		
29	제9악구와 동일		
종합			

### 3) 시김새

<당악>의 시김새는  $e^b$ (도), f(레), g(미),  $b^b$ (솔),  $c'$ (라) 다섯 음으로 나누어 살펴보겠다.

#### ① $e^b$ (도)

<당악>의  $e^b$ 에서 나타나는 시김새는 아래 <악보 297>에서 보는 것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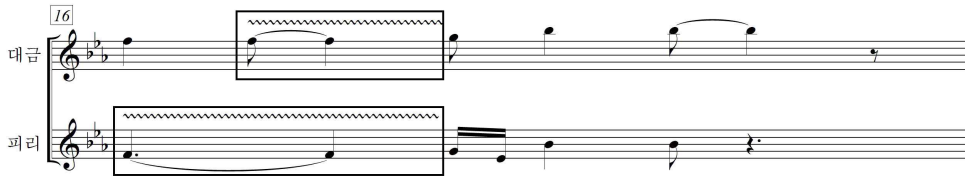
<악보 297> 당악  $e^b$ 의 시김새

위의 <악보 297>에서 살펴보면 대금은 다양한 시김새가 나타난다. 대금은  $e^b$ 에서 f로 상행할 때  $e^b$ 을 보통 놓음한다. 대금은 g'에서  $e^b$ 으로 하행하여 중지할 경우  $e^b$ 을 퇴성하기도 한다. 대금은  $e^b$ 에서 목퇴김 놓음을 하기도 한다. 피리는 쇠는가락 중  $b^b$ 에서  $e^b$ 으로 상행할 때  $e^b$ 을 보통 놓음한다. 이외에 피리는 <당악>에서  $e^b$ 의 시김새가 잘 나타나지 않는다.

#### ② f(레)

<당악>의 f에서 나타나는 시김새는 아래 <악보 298>에서 보는 것과 같다.

<악보 298> 당악 f의 시김새



위의 <악보 298>에서 살펴보면 대금은 f에서  $b^b$ 으로 상행하는 선율인 제16장단, 제34장단, 제36장단에서만 f를 보통 놓음이 나타난다. 피리는 f에서 대부분 보통 놓음을 한다.

③ g(미)

<당악>의 g에서 나타나는 시김새는 아래 <악보 299>에서 보는 것과 같다.

<악보 299> 당악 g의 시김새



위의 <악보 299>에서 살펴보면 g는 f로 하행할 때 퇴성을 하며, 이외

의 경우에는 시김새가 잘 나타나지 않는다. 예외적으로 피리의 쇠는가락에서  $e^b$ 에서  $g$ 로 상행할 때  $g$ 를 보통 놓음한다. 피리는 장단의 첫 박 또는 제3박의 시작음이  $g$ 일 경우  $f$ 에서부터 음을 끌어올려 내는 시김새를 한다.

#### ④ $b^b$ (솔)

<당악>의  $b^b$ 에서 나타나는 시김새는 아래 <악보 300>에서 보는 것과 같다.

<악보 300> 당악  $b^b$ 의 시김새

위의 <악보 300>에서 살펴보면 대금은 놓음이 나타나지 않고, 피리는  $b^b$ 에서 보통 놓음을 한다. 또한  $b^b$ 에서  $g$ 로 하행할 때  $b^b$ 은 퇴성을 한다.

#### ⑤ $c'$ (라)

<당악>의  $c'$ (라)에서 나타나는 시김새는 아래 <악보 301>에서 보는 것과 같다.



<악보 301> 당악 c'의 시김새

위의 <악보 301>에서 살펴보면 대금은 c'에서 b^b'로 하행할 때 c'는 퇴성을 한다. 피리는 b^b에서 c'로 상행할 때 c'는 보통 농음을 한다. 이는 제14장단, 제34장단, 제54장단에서 3회 출현하며, 이외에 c'에서 피리는 농음, 퇴성 등의 시김새가 나타나지 않는다. 또한 대금과 피리는 c'의 장식음으로 e^b'이 나타난다.

이상의 내용을 정리하면, <당악>의 주요 시김새는 피리에서 나타나며 f와 b^b을 보통 농음하는 것이다. 이외의 시김새와 장식음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e^b에서 대금은 보통 농음 또는 퇴성이 나타나기도 하며, 피리는 쇠는 가락에서 농음이 나타난다. f에서 대금은 때때로 보통 농음을 한다. g는 f로 하행하는 경우 퇴성이 나타난다. 피리는 장단의 첫 박 또는 제3박에서 g를 낼 때 f에서부터 음을 끌어올려 낸다. b^b에서 대금을 g로 하행 시 퇴성을 하며, 이외에는 시김새가 나타나지 않는다. c'에서 대금은 b^b'으로 하행 시 퇴성이, 피리는 때때로 보통 농음이 나타난다. c'의 장식음으로는 e^b'이 나타난다.

요컨대, <당악>의 음계는 'e^b(도), f(레), g(미), b^b(솔), c'(라)'이다. 관용적 구조선율은 g-e^b, g-b^b이며, 핵음은 e^b(도) · b^b(솔)이며, 종지음은 e^b

(도) · b^b(솔)이다.

g는 악구의 시작음 또는 경과음으로 나타난다. f와 c'는 경과음으로 주로 나타난다.

<당악>의 주요 시김새는 피리에서 나타나며 f와 b^b을 보통 놓음하는 것이다. 이외에 g는 f로 하행하는 경우 퇴성을 한다. 피리는 장단의 첫 박 또는 제3박에서 g를 낼 때 f에서부터 음을 끌어올려 낸다. c'의 장식음으로는 e^b'이 나타난다.

## 나. 삼현영산회상계

본 항에서는 《삼현영산회상》 악곡 중 당악조에 해당하는 악곡인 <별곡타령>을 살펴보겠다.

### (1) 별곡타령

<별곡타령>은 《삼현영산회상》의 마지막 곡이며, 출현음과 구조선을 ·핵음·종지음, 그리고 시김새 분석을 통해 악곡을 살펴보겠다.

#### 1) 출현음

<별곡타령>의 출현음을 다음 <악보 302>에서 살펴보겠다.²²⁴⁾

---

224) 흰 음표는 주요 출현음이며, 검은 음표는 다른 악조의 출현음 또는 장식음으로 나타나는 음이다. 검은 음표의 음이름은 이탤릭체로 구분하였다.

### <악보 302> 별곡타령 출현음

대금:  $b^b(\text{솔})$   $c'(\text{라})$   $e^b(\text{도})$   $f'(\text{레})$   $g'(\text{미})$   $a^b(\text{파})$   $b^b(\text{솔})$   $c'(\text{라})$   $e^b(\text{도})$

피리:  $B^b(\text{솔})$   $c(\text{라})$   $e^b(\text{도})$   $f(\text{레})$   $g(\text{미})$   $a^b(\text{파})$   $b^b(\text{솔})$   $c'(\text{라})$   $e^b(\text{도})$   $f'(\text{레})$   $g'(\text{미})$

<악보 302>을 살펴보면, <별곡타령>에서 대금의 주요 출현음은  $b^b(\text{솔})$ ,  $c'(\text{라})$ ,  $e^b(\text{도})$ ,  $f'(\text{레})$ ,  $g'(\text{미})$ ,  $b^b(\text{솔})$ ,  $c'(\text{라})$ 이며,  $e^b(\text{도})$ 이 장식음으로 나타난다. 피리의 주요 출현음은  $B^b(\text{솔})$ ,  $c(\text{라})$ ,  $e^b(\text{도})$ ,  $f(\text{레})$ ,  $g(\text{미})$ ,  $b^b(\text{솔})$ ,  $c'(\text{라})$ ,  $e^b(\text{도})$ ,  $f'(\text{레})$ ,  $g'(\text{미})$ 이다. 대금과 피리 모두  $a^b(\text{파})$ 은 염불조의 구성음으로 마지막 장단의 종지음²²⁵⁾으로 출현하는 음이다.

## 2) 구조선율 · 핵음 · 종지음

<별곡타령>은 총 43장단의 악곡이다. 악구를 나누는 기준은 선율이 일 단락되거나 종지감이 나타나는 구간을 기준으로 한다. 위와 같이 나누어진 총 28개 악구의 구조선율과 악구별 핵음, 종지음을 살펴보겠다. 제8악구부터 제10악구까지는 제2악구부터 제4악구까지와 동일하고, 제15악구는 제4악구와 동일하고, 제24악구부터 제27악구까지는 제1악구부터 제4악구까지와 동일한 선율이므로 생략한다.

### ① 별곡타령 제1악구

<별곡타령>의 제1악구는 제1장단부터 제2장단까지이다. 제1악구는 다음의 <악보 303>에서 보겠다.

225) 종지음은 악곡의 가장 중요한 음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나,  $a^b$ 은 <별곡타령>의 악조인 당악조의 구성음에 포함되지 않는 음이므로 <별곡타령>의 주요 출현음에 포함하지 않는다.

<악보 303> 별곡타령 제1악구(제1장단~제2장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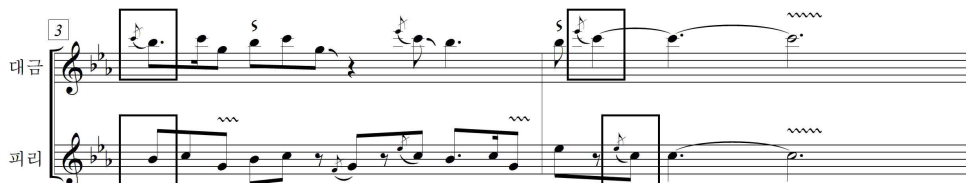


위의 <악보 303>에서 살펴보면 제1장단의 제1박은 g로 시작하여 제2박에서 b^b으로 단3도 상행한다. b^b은 제4박까지 지속한다. 제4박에서는 c'를 경과한 후, g로 하행한다. 제2장단의 제1박에서는 f를 경과하여 제2박에서 b^b으로 상행한다. 이후 c'를 경과한 후 g로 하행한다. 제3박의 끝에서 c'를 경과 후, 제4박의 b^b으로 진행하여 악구를 마친다. b^b의 종지감은 약하며, 다음 악구와 연결하려는 성격을 갖고 있다. 제1악구의 구조 선율은 g-b^b-f-b^b-g-b^b이며, 핵음과 종지음은 b^b이다.

② 별곡타령 제2악구

<별곡타령>의 제2악구는 제3장단부터 제4장단까지이다. 제2악구는 다음의 <악보 304>에서 보겠다.

<악보 304> 별곡타령 제2악구(제3장단~제4장단)



위의 <악보 304>에서 살펴보면 제3장단의 제1박은 b^b으로 시작하여 c'를 경과한 후, g로 하행한다. 이는 <별곡타령>에서 높은 빈도로 나타나는 관용적 선율형이다. 제2박은 리듬에 변화를 주며 제1박과 동일한 진

행을 한다. 제3박의 끝에서는  $c'$ 를 경과 하여 제4박의  $b^b$ 으로 진행한다. 피리는  $b^b$  이후  $c'$ 를 경과하여  $g$ 로 하행한다. 이후 제4장단에서 피리는  $e^b$ , 대금은  $b^b$ 을 경과하여  $c'$ 로 상행한 후, 제4박까지  $c'$ 를 지속하며 악구를 마친다²²⁶⁾. 제2악구의 구조선율은  $b^b-c'-g-b^b-e^b-c'$ 이며, 핵음은  $b^b \cdot c'$ , 종지음은  $c'$ 이다.

### ③ 별곡타령 제3악구

<별곡타령>의 제3악구는 제5장단이다. 제3악구는 다음의 <악보 305>에서 보겠다.

<악보 305> 별곡타령 제3악구(제5장단)



위의 <악보 305>에서 살펴보면 제5장단의 제1박은  $b^b$ 으로 시작하여  $c'$ 를 경과한 후,  $g$ 로 하행한다. 피리는 제2박에서 제1박과 동일한 진행을 한다. 대금은 제2박에서  $c''$ 로 시작하여  $g$ 로 하행한다. 제3박에서는 제2박의 끝 음인  $g$ 를 이어가며, 제4박에서  $e^b$ 을 경과하여  $c$ 로 도달하여 종지한다.  $c$ 는 종지감을 주지만 다음 악구의 종지음인  $e^b$ 에서 상대적으로 더 안정된 종지감이 나타난다. 제3악구의 구조선율은  $b^b-c'-g-e^b-c$ 이며, 핵음은  $c \cdot g \cdot b^b$ , 종지음은  $c$ 이다.

### ④ 별곡타령 제4악구

226) <별곡타령>에서 한 옥타브 낮은  $c$ 를 마지막 음으로 낼 경우 종지감이 들지만,  $c'$ 가 마지막 음일 경우 종지감은 약하다. 그러나  $c'$ 를 길게 지속하며 장단이 끝나면 선율이 일단락되는 느낌을 준다.

<별곡타령>의 제4악구는 제6장단이다. 제4악구는 다음의 <악보 306>에서 보겠다.

<악보 306> 별곡타령 제4악구(제6장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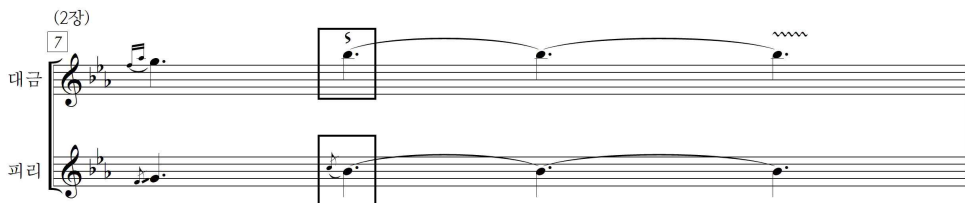


위의 <악보 306>에서 살펴보면 제6장단의 제1박은 e^b를 경과하여 f로 상행한다. f는 제2박까지 지속하며, g를 경과하여 제3박에서 b^b으로 상행한다. 이후 제3박의 끝에서 e^b부터 c' · b^b · g · f를 경과하여 e^b까지 순차 하행하며 종지한다. 제4악구의 구조선율은 e^b-f-b^b-e^b이며, 핵음은 e^b · f · b^b, 종지음은 e^b이다.

⑤ 별곡타령 제5악구

<별곡타령>의 제5악구는 제7장단이다. 제5악구는 다음의 <악보 307>에서 보겠다.

<악보 307> 별곡타령 제5악구(제7장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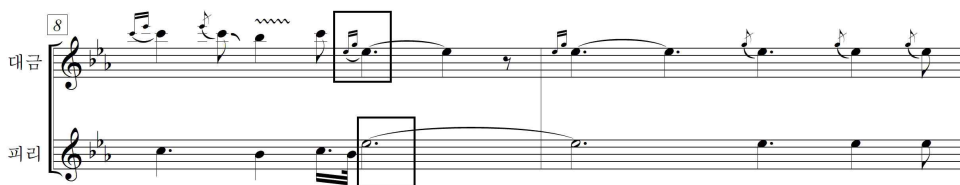
위의 <악보 307>에서 살펴보면 제7장단의 제1박은 g로 시작하여 제2

박에서  $b^b$ 으로 단3도 상행하여 제4박까지 지속한다. 제5악구의 구조선율은  $g-b^b$ 이며, 핵음과 종지음은  $b^b$ 이다.

## ⑥ 별곡타령 제6악구

<별곡타령>의 제6악구는 제8장단부터 제9장단까지이다. 제6악구의 구조선율은 다음의 <악보 308>에서 보겠다.

<악보 308> 별곡타령 제6악구(제8장단~제9장단)



위의 <악보 308>에서 살펴보면 제8장단에서는  $c'$ 와  $b^b$ 을 경과한 후 제3박에서  $e^b$ 으로 상행한다.  $e^b$ 은 제9장단은 제1박부터 제4박까지 지속한다. 대금은 피리보다 상대적으로 한 옥타브 낮은  $e^b$ 으로 하행한다. 제6악구의 구조선율은  $c'-b^b-e^b$ 이며, 핵음과 종지음은  $e^b$ 이다.

## ⑦ 별곡타령 제7악구

<별곡타령>의 제7악구는 제10장단부터 제11장단까지이다. 제7악구는 다음의 <악보 309>에서 보겠다.

<악보 309> 별곡타령 제7악구(제10장단~제11장단)



위의 <악보 309>에서 살펴보면 제10장단에서는 제1박의 끝에서  $c' \cdot b^b$ 를 경과하여 제2박의  $e^b$ 으로 상행한다. 제3박과 제4박에서는 제1, 2박의 선율을 반복한다. 대금은 피리보다 한 옥타브 낮은 선율을 연주한다. 이후 피리는 제11장단의 제1박에서  $b^b$ 으로 시작하여  $e^b$ 과  $c'$ 를 경과하여 다시  $b^b$ 로 돌아온다. 제3박에서  $g$ 로 하행한 후  $c'$ 를 경과하여  $b^b$ 으로 진행하며 악구를 마친다. 대금은 제11장단에서 제10장단의 선율을 변주한다. 제11장단의 제1박에서  $b^b$ 으로 완전4도 하행 후 제2박에서  $e^b$ 으로 귀결한다. 이후 피리와 같이  $b^b$ 으로 악구를 마친다.  $b^b$ 은 종지감 없이 다음 악구와 연결하려는 성격을 갖고 있다. 제7악구의 구조선율은  $e^b \cdot b^b \cdot c' \cdot g \cdot b^b$ 이며, 핵음은  $b^b \cdot e^b$ , 종지음은  $b^b$ 이다.

⑧ 별곡타령 제11악구

<별곡타령>의 제11악구는 제16장단부터 제17장단까지이다. 제11악구는 다음의 <악보 310>에서 보겠다.

<악보 310> 별곡타령 제11악구(제16장단~제17장단)





위의 <악보 310>에서 살펴보면 제16장단의 제1박에서 피리는 g로 시작하여 제2박에서 b^b으로 상행한다. 대금은 제2박의 b^b부터 시작한다. 이후 대금·피리 모두 제3박까지 b^b을 지속하며 제3박의 끝에서 c'를 경과한 후, g로 하행한다. 제4박은 b^b에서 c'로 상행하여 제17장단의 제1박의 g를 경과 후 제2박의 e^b으로 귀결하여 종지감을 준다. 이후 제3·4박은 피리의 g로 시작하여 b^b으로 상행 후 g로 하행한다. 제17장단의 제3·4박은 종지 이후 연결구 역할을 하는 선율로 본다. 제11악구의 구조선율은 g-b^b-c'-g-e^b(-g)이며, 핵음은 e^b·b^b, 종지음은 e^b이다.

### ⑨ 별곡타령 제12악구

<별곡타령>의 제12악구는 제18장단이다. 제12악구는 다음의 <악보 311>에서 보겠다.

<악보 311> 별곡타령 제12악구(제18장단)



위의 <악보 311>에서 살펴보면 제18장단의 제1박은 b^b을 경과하여 c'로 상행한다. c'는 제2박까지 지속한 후 g·f를 경과하여 제3박의 e^b으로 귀결하여 종지감을 준다. 이후 제4박은 g로 상행하는데 이는 다음 악구의 진행을 예비하는 연결구로 본다.²²⁷⁾ 제12악구의 구조선율은 b^b-c'-e^b(-g)이며, 핵음은 e^b·c', 종지음은 e^b이다.

### ⑩ 별곡타령 제13악구

227) 다음 악구에서는 본 악구의 마지막 음인 g를 이어서 시작한다.

<별곡타령>의 제13악구는 제19장단이다. 제13악구는 다음의 <악보 312>에서 보겠다.

<악보 312> 별곡타령 제13악구(제19장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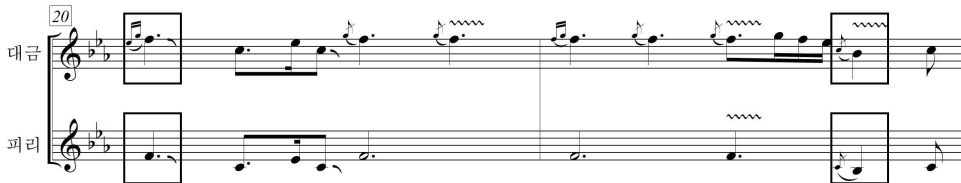


위의 <악보 312>에서 살펴보면 제19장단의 제1박은 g로 시작하여 c로 하행한다. 제2박은 c를 지속하며 B^b을 경과한다. 제3박에서 피리는 f로 완전4도 상행한다. 제3박에서 대금은 e^b'으로 단3도 상행한다. 이후 제4박에서는 대금·피리 모두 B^b으로 하행하여 반종지한다. 제13악구의 구조선율은 g-c-f-B^b이며, 핵음은 B^b·c, 종지음은 B^b이다.

⑪ 별곡타령 제14악구

<별곡타령>의 제14악구는 제20장단부터 제21장단까지이다. 제14악구는 다음의 <악보 313>에서 보겠다.

<악보 313> 별곡타령 제14악구(제20장단~제21장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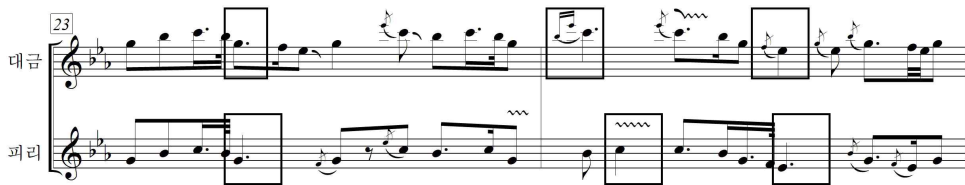
위의 <악보 313>에서 살펴보면 제20장단의 제1박은 f로 시작한다. 제2박에서는 c로 완전4도 하행한 후, 제3박에서 f로 다시 상행하여 제21장단의 제3박까지 지속한다. 이후 제4박에서 B^b으로 완전5도 하행하여 종

지감을 준다. 제4박의 끝에서는 c를 들어내며 중지감을 상실하고 다음 악구의 진행을 예비한다. 제14악구의 구조선율은 f-c-f-B^b이며, 핵음은 B^b · f, 중지음은 B^b이다.

## ⑫ 별곡타령 제16악구

<별곡타령>의 제16악구는 제23장단부터 제24장단까지이다. 제16악구는 다음의 <악보 314>에서 보겠다.

<악보 314> 별곡타령 제16악구(제23장단~제24장단)



위의 <악보 314>에서 살펴보면 제23장단의 제1박은 g로 시작하여 b^b · c'를 경과하여 제2박에서 다시 g로 돌아온다. 대금은 제2박의 끝에서 e^b을 경과한 후 다시 g'로 진행한다. g는 제3박까지 이어진다. 이후 제3박의 끝에서 c'를 경과하여, 제4박에서 b^b으로 상행한 후 c'를 경과하여 g로 하행한다. 이후 제24장단의 제1박에서는 b^b을 경과하여 c'로 상행한다. 제2박은 c'를 이어가다 b^b · g · f를 순차 하행하여 제3박의 e^b으로 하행한다. e^b은 중지감을 준다. 이후 제4박은 g로 상행하는데, 이는 다음 악구의 진행을 예비하는 연결구로 본다. 제16악구의 구조선율은 g-b^b-c'-e^b(-g)이며, 핵음은 e^b · g · c', 중지음은 e^b이다.

## ⑬ 별곡타령 제17악구

<별곡타령>의 제17악구는 제25장단이다. 제17악구는 다음의 <악보 315>에서 보겠다.

<악보 315> 별곡타령 제17악구(제25장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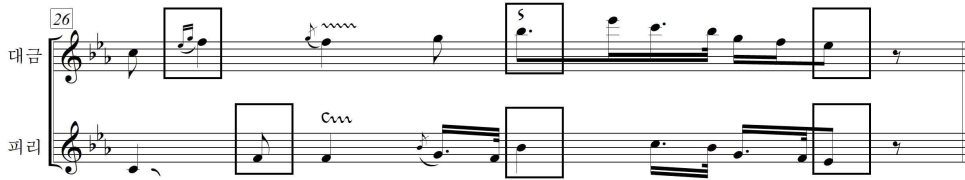


제17악구는 제13악구와 유사한 진행을 한다. 대금은 제4박의 끝에서 c를 들어내며 다음 선율의 방향을 달리하는 것이 제13악구와의 차이이다. 제17악구의 구조선율은 g-c-f-B^b이며, 핵음은 B^b · c, 종지음은 B^b이다.

⑭ 별곡타령 제18악구

<별곡타령>의 제18악구는 제26장단이다. 제18악구는 다음의 <악보 316>에서 보겠다.

<악보 316> 별곡타령 제18악구(제26장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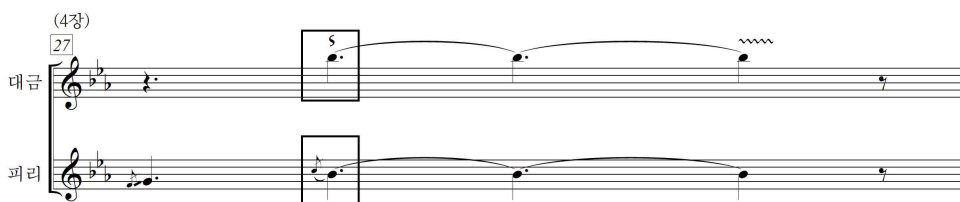


제18악구는 제1박에서 c를 경과하여 완전4도 상행한 f로 진행하며, 이후의 진행은 제4악구와 동일하다. 제18악구의 구조선율은 c-f-b^b-e^b이며, 핵음은 e^b · f · b^b, 종지음은 e^b이다.

⑮ 별곡타령 제19악구

<별곡타령>의 제19악구는 제27장단이다. 제19악구는 다음의 <악보 317>에서 보겠다.

<악보 317> 별곡타령 제19악구(제27장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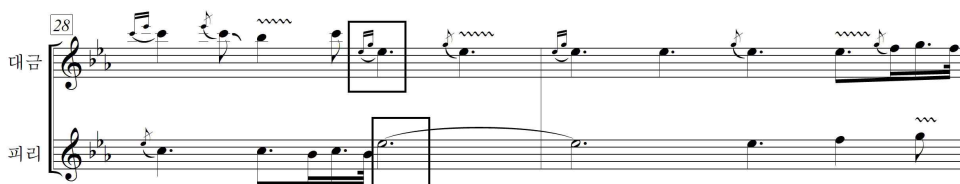


제19악구는 제5악구와 유사하며, 대금이 제1박을 쉬는 것이 제5악구와 다르다. 제19악구의 구조선율은  $g-b^b$ 이며, 핵음과 종지음은  $b^b$ 이다.

⑯ 별곡타령 제20악구

<별곡타령>의 제20악구는 제28장단부터 제29장단까지이다. 제20악구는 다음의 <악보 318>에서 보겠다.

<악보 318> 별곡타령 제20악구(제28장단~제29장단)



제20악구는 제6악구와 유사하며, 마지막 박의 진행이 제6악구와 다르다.  $e^b$ '을 중심으로 움직이던 제20악구는 마지막 박에서 피리는  $f$ '로 상행한 후, 제4박의 끝에서  $g$ '를 들어내며 다음 악구의 진행을 예고한다. 대금은 제4박에서  $e^b$ '을 지속하다  $f \cdot g \cdot f$ 를 경과하며 다음 악구의 첫음  $e^b$ '으로 진행하려 한다. 제20악구의 구조선율은  $c'-e^b$ '(-f)이며, 핵음과

종지음은  $e^b$ '이다.

### ⑰ 별곡타령 제21악구

<별곡타령>의 제21악구는 제30장단부터 제32장단까지이다. 제21악구는 다음의 <악보 319>에서 보겠다.

<악보 319> 별곡타령 제21악구(제30장단~제32장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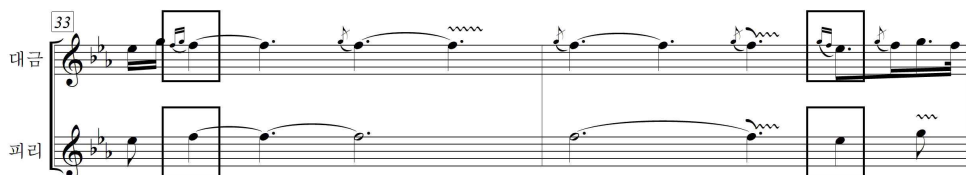
위의 <악보 319>에서 살펴보면 제30장단에서 피리는 제1박부터 제3박까지  $e^b$ '을 지속한 후, 제4박은 쉰다. 대금은 피리보다 한 옥타브 낮은  $e^b$ '을 지속하다 제4박의 끝에서  $f \cdot g \cdot f$ 를 경과하여 제31장단의  $e^b$ '으로 진행한다. 대금은  $e^b$ '을 지속하다 제31장단의 마지막 박에서  $c'$ 를 경과한 후 제32장단에서 다시  $e^b$ '으로 진행하여 악구를 마친다. 피리 또한 제31장단 제1박부터 다시  $e^b$ '을 지속한다. 이후 제32장단 제1박에서  $c' \cdot b^b$ 을 경과한 후 다시  $e^b$ '으로 상행하여 악구를 마친다. 제21악구의 구조선율은  $e^b-e^b-c'-e^b$ '이며, 핵음과 종지음은  $e^b$ '이다.

### ⑱ 별곡타령 제22악구

<별곡타령>의 제22악구는 제33장단부터 제34장단까지이다. 제22악구는

다음의 <악보 320>에서 보겠다.

<악보 320> 별곡타령 제22악구(제33장단~제34장단)



위의 <악보 320>에서 살펴보면 제33장단 제1박은  $e^b$ '을 경과하여  $f$ '로 상행한다.  $f$ '는 제34장단의 제3박까지 지속한다. 제34장단의 제3박에서는  $f$ '를 하행 놓음하며, 제4박의  $e^b$ '으로 하행한다. 제4박의 끝에서 대금은  $f' \cdot g' \cdot f$ '를 경과하고, 피리는  $g'$ '을 들어내며, 다음 악구와의 연결을 예비한다. 제22악구의 구조선율은  $f-f'-e^b$ '이며, 핵음은  $e^b' \cdot f$ , 종지음은  $e^b$ '이다.

⑨ 별곡타령 제23악구

<별곡타령>의 제23악구는 제35장단부터 제36장단까지이다. 제23악구는 다음의 <악보 321>에서 보겠다.

<악보 321> 별곡타령 제23악구(제35장단~제36장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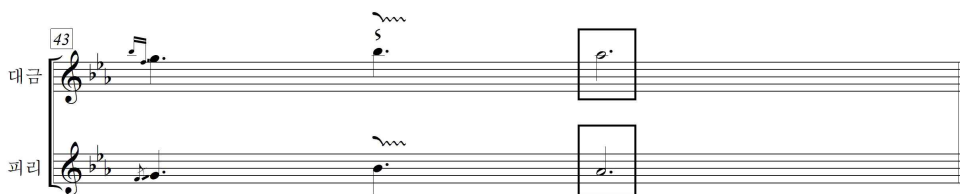
위의 <악보 321>에서 살펴보면 제35장단 제1박은  $e^b$ '으로 시작하여 제4박의 끝에서  $g'$ '을 경과한 후, 제36장단의 제3박까지  $e^b$ '을 지속한다. 제

3박의 끝에서 대금은  $g' \cdot f'$ 를 경과하고, 이후 대금과 피리 모두 제4박에서  $c'$ 로 하행한다.  $c'$ 는  $b^b'$ 으로 하행하여 짧은 종지감을 주며 악구를 마친다. 제23악구의 구조선율은  $e^b' \cdot e^b' \cdot c' \cdot b^b'$ 이며, 핵음은  $e^b'$ , 종지음은  $b^b'$ 이다.

## ㉔ 별곡타령 제28악구

<별곡타령>의 제28악구는 제43장단이다. 제28악구는 다음의 <악보 32>에서 보겠다.

<악보 32> 별곡타령 제28악구(제43장단)



위의 <악보 32>에서 살펴보면 제43장단의 제1박은  $g$ 로 시작한다. 제2박에서는  $b^b$ 으로 단3도 상행한다.  $b^b$ 은 하행 농음을 하며 염불조의 구성음  $a^b$ 으로 하행한다.  $a^b$ 은 제4박까지 지속하며 종지한다.²²⁸⁾ 제28악구는 <별곡타령>의 마지막 악구이며, <별곡타령>의 제1악구와 동일한 진행으로 시작하여 염불조의 종지로 마친다. 제28악구의 구조선율은  $g \cdot b^b \cdot a^b$ 이며, 핵음과 종지음은  $a^b$ 이다.

이상의 내용을 정리하면, <별곡타령>의 관용적 구조선율은  $g \cdot e^b$ ,  $g \cdot b^b$ ,  $b^b \cdot e^b$ 이며, 이외에 관용적 선율형으로  $b^b \cdot c' \cdot g$ 가 높은 빈도로 나타난다.²²⁹⁾ 핵음은  $e^b$ (도) ·  $b^b$ (솔)이며, 종지음은  $e^b$ (도)이다. <별곡타령>은 타

228) 이는 염불조의 종지와 같다.

229) <별곡타령>에서 특징적으로 나타나는 관용적 선율형이므로 서술하였다. 이는 <취타>와 <길군악>에서도 나타난다. <당악>에서도 나타나는 선율형이지만



악곡에 비해 상대적으로 다섯 음이 고루 비중 있게 나타나는 악곡이다.

b^b(솔)은 악구의 종지음으로 자주 나타나지만 e^b(도)에 비해 종지감이 약하다. c는 종지감이 들지만 뒤따르는 악구에서 e^b(도)으로 완전종지를 하게 되면서 c의 종지감이 상대적으로 약해진다. e^b(도)으로 선율이 귀결 될 때 가장 안정된 종지감을 주며, e^b(도)은 각 장의 종지를 하는 음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악곡의 종지음으로 본다.

g는 선율의 전개를 시작하는 음, 또는 연결구로써 선율의 방향 전환 기능을 하며 이외에는 경과음으로 나타난다. f는 경과음으로 주로 나타나지만, 악구의 핵음으로도 상당히 나타난다. c는 악구의 종지음 외에는 주로 경과음으로 나타난다.

한편, 별곡타령의 마지막 악구에서는 염불조의 종지음인 a^b으로 종지한다.²³⁰⁾

<별곡타령>의 구조선율 · 핵음 · 종지음 분석을 정리하면 다음의 [표 3 1]²³¹⁾에서 보는 것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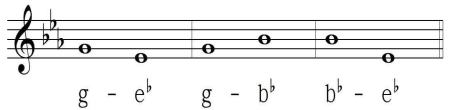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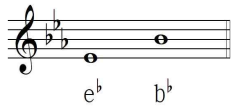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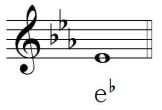
---

높은 빈도로 나타나지는 않는다. 이는 한 박 안에서 나타나는 선율이며, 구조선율에서는 첫 음 b^b을 구조선율로 보았다.

230) 또한 <별곡타령>의 최종 종지음 a^b을 선행하는 음인 b^b은 염불조의 시김새가 나타나며, 이는 염불조로 회귀하여 악곡을 마치고자 하는 의지로 해석할 수 있다. 이는 «염불풍류»를 연주할 때 마지막 곡인 <당악>에서 <굿거리>로 돌아가 염불조로 마치는 것과 일맥상통한다.

231) 구조선율에서 밑줄 친 부분은 관용적 구조선율에 해당한다. 이탤릭체는 다른 악조(염불조)의 특징이 나타나는 것이다.

[표 31] 별곡타령 구조선율 · 해음 · 종지음

악구	구조선율	해음	종지음
1	$\underline{g-b^b-f-b^b-g-b^b}$	$b^b$	$b^b$
2	$\underline{b^b-c'-g-b^b-e^{b'}-c'}$	$b^b \cdot c'$	$c'$
3	$\underline{b^b-c'-g-e^b-c}$	$c \cdot g \cdot b^b$	$c$
4	$\underline{e^b-f-b^b-e^b}$	$e^b \cdot f \cdot b^b$	$e^b$
5	$\underline{g-b^b}$	$b^b$	$b^b$
6	$\underline{c'-b^b-e^{b'}}$	$e^{b'}$	$e^{b'}$
7	$\underline{e^{b'}-b^b-c'-g-b^b}$	$b^b \cdot e^{b'}$	$b^b$
8	제2악구와 동일		
9	제3악구와 동일		
10	제4악구와 동일		
11	$\underline{g-b^b-c'-g-e^b(-g)}$	$e^b \cdot b^b$	$e^b$
12	$\underline{b^b-c'-e^b(-g)}$	$e^b \cdot c'$	$e^b$
13	$\underline{g-c-f-B^b}$	$B^b \cdot c$	$B^b$
14	$\underline{f-c-f-f-B^b}$	$B^b \cdot f$	$B^b$
15	제4악구와 동일		
16	$\underline{g-b^b-c'-e^b(-g)}$	$e^b \cdot g \cdot c'$	$e^b$
17	$\underline{g-c-f-B^b}$	$B^b \cdot c$	$B^b$
18	$\underline{c-f-b^b-e^b}$	$e^b \cdot f \cdot b^b$	$e^b$
19	$\underline{g-b^b}$	$b^b$	$b^b$
20	$\underline{c'-e^{b'}(-f)}$	$e^{b'}$	$e^{b'}$
21	$\underline{e^{b'}-e^{b'}-c'-e^{b'}}$	$e^{b'}$	$e^{b'}$
22	$\underline{f'-f'-e^{b'}}$	$e^{b'} \cdot f'$	$e^{b'}$
23	$\underline{e^{b'}-e^{b'}-c'-b^b}$	$e^{b'}$	$b^b$
24	제1악구와 동일		
25	제2악구와 동일		
26	제3악구와 동일		
27	제4악구와 동일		
28	$\underline{g-b^b-a^b}$	$a^b$	$a^b$
종합			

### 3) 시김새

<별곡타령>의 시김새는 e^b(도), f(레), g(미), b^b(솔), c'(라) 다섯 음으로 나누어 살펴보겠다.

#### ① e^b(도)

<별곡타령>의 e^b에서 나타나는 시김새는 아래 <악보 323>에서 보겠다.

<악보 323> 별곡타령 e^b의 시김새

위의 <악보 323>에서 살펴보면 e^b은 c로 하행할 때 퇴성을 한다. e^b은 농음이 잘 나타나지 않으나, 피리가 권마성 가락을 하는 경우 대금은 e^b을 길게 지속하며 이때 농음이 나타난다. 이때 피리는 농음을 하지 않는다. 장식음으로는 g에서 e^b으로 하행 시 f가 나타나며, 대금은 e^b'-g', 또는 동음 반복 시 g'가 장식음으로 나타난다.

#### ② f(레)

<별곡타령>의 f에서 나타나는 시김새는 아래 <악보 324>에서 보겠다.

#### <악보 324> 별곡타령 f의 시김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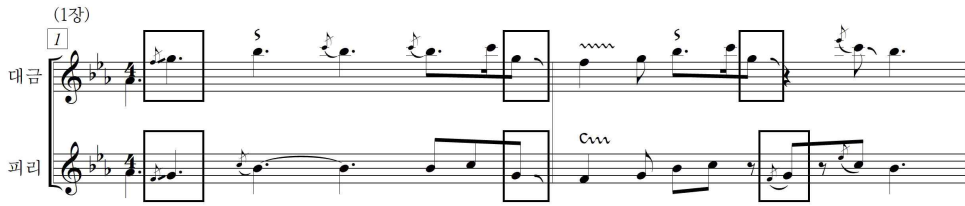
<별곡타령>에서 f는 주로 농음을 한다. 대금은 보통 농음을 하고 피리는 약간 굵은듯한 농음을 한다.

위의 <악보 324>에서 살펴보면 대금과 피리는 f에서 c로 하행할 때 f를 퇴성한다. 또한 대금과 피리는 권마성 가락의 f에서 e^{b'}으로 하행할 때 f를 하행 농음한다. f의 장식음으로는 g가 나타나며, 대금은 e^{b'}-g', f-g' 또한 장식음으로 나타난다.

### ③ g(미)

<별곡타령>의 g에서 나타나는 시김새는 아래 <악보 325>에서 보겠다.

<악보 325> 별곡타령 g의 시김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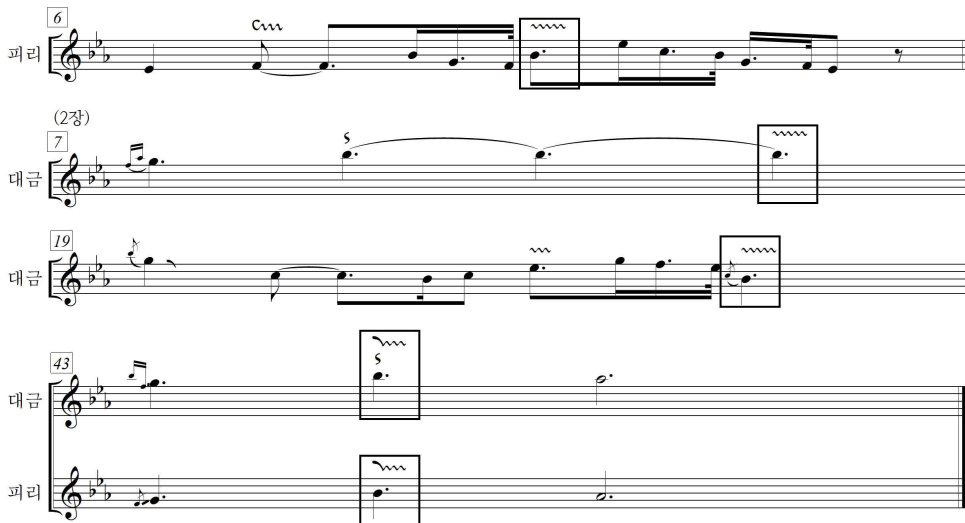


위의 <악보 325>에서 살펴보면 대금과 피리 모두 g의 시김새는 주로 퇴성이 나타난다. 피리는 g앞에 f가 장식음으로 나타나기도 하며, 이를 올리더름 주법으로 연주한다. 악구의 첫 음으로 g를 내는 경우는 g보다 음고를 낮게 시작하여 음을 끌어올려 낸다.

④ b^b (솔)

<별곡타령>의 b^b에서 나타나는 시김새는 아래 <악보 326>에서 보겠다.

<악보 326> 별곡타령 b^b의 시김새



b^b의 시김새는 주로 보통 놓음이 나타난다. 위의 <악보 326>에서 살펴

보면 대금은  $b^b$ '의 장식음으로  $b^b$ '- $d^b$ '',  $c'$ 가 나타난다. 한편, <별곡타령>의 마지막 장단에서는  $b^b$ 을 하행 놓음하는 염불조의 시김새가 나타난다.

## ⑤ $c'$ (라)

<별곡타령>의  $c'$ (라)에서 나타나는 시김새는 아래 <악보 327>에서 보겠다.

<악보 327> 별곡타령  $c'$ 의 시김새

위의 <악보 327>에서 살펴보면 <별곡타령>에서  $c$ 의 시김새는 보통 놓음과 퇴성이 나타난다. 대금의  $c$ '는  $b^b$ '으로 하행 시 퇴성하고, 한 옥타브 낮은  $c$ '는 악구의 종지 시 또는  $f$ 로 상행 시 퇴성을 한다. 또한 대금은  $c$ '에서  $g$ 로 하행할 때  $c$ '를 하행 놓음한다. 피리는  $c$ 에서  $f$ 로 상행할 때  $c$ 를 퇴성한다. 장식음으로는 대금·피리 모두  $e^b$ '이 나타난다. 대금은  $b^b$ '- $e^b$ '이 장식음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이상의 내용을 정리하면, <별곡타령>의 주요 시김새는 다음과 같다.  $e^b$ 은 특징적인 시김새가 없다.  $f$ 는 보통 놓음을 하며, 피리는 약간 굶은듯한 놓음이 나타나기도 한다.  $g$ 는 주로 퇴성이 나타나지만, 시김새 없이 출현하기도 한다.  $b^b$ 은 보통 놓음을 한다.  $c'$ 는 보통 놓음 또는 퇴성, 그리고 대금은 하행 놓음이 나타나기도 한다. 더하여, 대금과 피리 모두 악

구의 첫 음으로 g를 내는 경우, g보다 음고를 낮게 시작하여 음을 끌어 올려 낸다.

시김새 중 장식음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e^b$ 의 장식음으로는 g에서  $e^b$ 으로 하행 시 f가 나타나며, 대금은  $e^b$ '-g', 또는 동음 진행 시 g'가 나타난다. f의 장식음으로는 대금·피리 모두 g가 나타나며, 대금은  $e^b$ '-g', f'-g' 또한 장식음으로 나타난다. g의 장식음으로 피리는 f가 나타나기도 하며, 이를 올리더름 주법으로 연주한다.  $b^b$ '의 장식음으로 대금은  $b^b$ '-d^b", c'가 나타난다. c'의 장식음으로는  $e^b$ '이 나타나며, 대금은  $b^b$ '- $e^b$ "이 나타나기도 한다.

한편, 마지막 장단에서 염불조의 시김새인  $b^b$ 의 하행 농음이 나타난다.

요컨대, <별곡타령>의 음계는 ' $e^b$ (도), f(레), g(미),  $b^b$ (솔), c'(라)'이다. 관용적 구조선율은  $g$ - $e^b$ ,  $g$ - $b^b$ ,  $b^b$ - $e^b$ 이며, 이외에 관용적 선율형  $b^b$ -c'-g가 높은 빈도로 나타난다. 핵음은  $e^b$ (도)· $b^b$ (솔)이며, 종지음은  $e^b$ (도)이다. <별곡타령>은 타 악곡에 비해 상대적으로 다섯 음이 고루 비중 있게 나타나는 악곡이다.

g는 선율의 전개를 시작하는 음, 또는 연결구로써 선율의 방향 전환 기능을 하며 이외에는 경과음으로 나타난다. f는 경과음으로 주로 나타나지만, 악구의 핵음으로 상당히 나타난다. c는 악구의 종지음 외에 경과음으로 나타난다.

주요 시김새는 f의 보통 농음, g의 퇴성,  $b^b$ 의 보통 농음이다. c'는 보통 농음 또는 퇴성이 나타나며, 대금은 하행 농음이 나타나기도 한다. 대금과 피리 모두 악구의 첫 음으로 g를 내는 경우는 g보다 음고를 낮게 시작하여 음을 끌어올려 낸다.

시김새 중 주요 장식음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g의 장식음으로 피리는 f가 나타나며, 이를 올리더름 주법으로 연주한다. c'의 장식음으로는  $e^b$ '이 나타나며, 대금은  $b^b$ '- $e^b$ " 또한 나타난다.

<별곡타령>에서는 마지막 장단에서 염불조가 나타나는데, 이와 같은 악조의 흔재 양상은 제4절에서 정리하여 살펴보겠다.

## 다. 취타풍류계

본 항에서는 《취타풍류》 악곡 중 당악조에 해당하는 악곡인 <취타>, <길군악>, 그리고 <별곡타령>을 살펴보겠다.

### (1) 취타

<취타>는 《취타풍류》의 첫 번째 곡이며, 출현음과 구조선율 · 핵음 · 종지음, 그리고 시김새 분석을 통해 악곡을 살펴보겠다.

#### 1) 출현음

<취타>의 출현음을 다음 <악보 328>에서 살펴보겠다.

<악보 328> 취타 출현음

대금

b^b(솔) c'(라) e^b(도) f'(레) g'(미) b^b(솔) c'(라) e^b(도)

피리

B^b(솔) c(라) e^b(도) f(레) g(미) b^b(솔) c'(라) e^b(도)

<악보 328>을 살펴보면, 취타의 출현음은 B^b(솔), c(라), e^b(도), f(레), g(미), b^b(솔), c'(라), e^b(도)으로 대금 · 피리가 동일하게 나타난다.



## 2) 구조선율 · 핵음 · 종지음

<취타>는 총 21장단의 악곡이다. <취타>는 종지감이 나타나는 구간을 경계로 악구를 나누었으며, 주로 종지감은  $e^b$ 과  $c$ 에서 나타나나  $f$ 나  $b^b$ 에서 반종지하는 경우도 포함하여 악구를 나누었다. 종지감이 약한 경우는 새로운 선율이 전개되는 구간을 경계로 악구를 나누었다. <취타>의 악구 길이는 불규칙하다. 위와 같이 나누어진 총 31개 악구의 구조선율과 악구별 핵음, 종지음을 살펴보겠다.

### ① 취타 제1악구

<취타>의 제1악구는 제1장단 제1박부터 제10박까지이다. 제1악구는 다음의 <악보 329>에서 보겠다.

<악보 329> 취타 제1악구(제1장단 제1박~제10박)



위의 <악보 329>에서 살펴보면 제1장단의 제1박은  $g$ 로 시작하여 제2박에서  $e^b$ 으로 하행한다.  $e^b$ 은 제4박까지 지속한 후, 제4박의 끝에서  $c$ 로 하행한다. 이후 제5박에서는  $f$ 로 상행한다.  $f$ 는  $e^b$ 과  $g$ 를 경과하며 제8박까지 지속한다. 이후 제9박에서  $e^b$ 으로 하행한다.  $e^b$ 은 제10박까지 지속하며 종지감을 준다. 제1악구의 구조선율은  $g-e^b-f-g-e^b$ 이며, 핵음과 종지음은  $e^b$ 이다.

### ② 취타 제2악구

<취타>의 제2악구는 제1장단 제11박부터 제2장단 제8박까지이다. 제2악구는 다음의 <악보 330>에서 보겠다.

<악보 330> 취타 제2악구(제1장단 제11박~제2장단 제8박)

위의 <악보 330>에서 살펴보면 제1장단의 제11박은  $e^b$ 으로 시작하여 대금은  $f$ 를, 피리는  $f \cdot c$ 를 경과한 후, 제12박의  $g$ 로 상행한다. 제12박의 끝에서는  $e^b$ 을 경과하여 제2장단의 제1박  $c$ 로 하행한다.  $c$ 는  $B^b$ 을 경과하며 제3박까지 지속한다. 이후 제4박에서  $e^b$ 으로 상행한다. 제4박의 끝에서  $c$ 를 경과 후 제5박에서 다시  $e^b$ 으로 진행한다.  $e^b$ 은 제6박까지 지속하며 중지감을 준다. 이후 제7·8박은  $g$ 에서  $f$ 로 하행하여  $c$ 로 마치는 진행을 하며, 본고에서는 이러한 진행을 새로운 선율 전개를 위한 연결구로 본다. 제2악구는  $e^b-g-c-e^b(-g-f)$ 이며, 핵음은  $c \cdot e^b$ , 중지음은  $e^b$ 다.

### ③ 취타 제3악구

<취타>의 제3악구는 제2장단 제9박부터 제3장단 제4박까지이다. 제3악구는 다음의 <악보 331>에서 보겠다.

<악보 331> 취타 제3악구(제2장단 제9박~제3장단 제4박)

위의 <악보 331>에서 살펴보면 제3악구는 제2장단의 제9박에서 f로 시작하여 제10박에서 g로上行한다. 제11박에서 b^b을 경과하여 c'까지上行한다. 이후 b^b을 경과하여 제12박에서 g · f · e^b으로 순차 하행한 다음 제3장단의 제1박에서 c로 하행한다. 이후 제2박에서 B^b, 제3박에서 e^b을 경과한 후 제4박에서는 c로 도달하여 종지감을 준다. 제3악구의 구조선율은 f-g-c'-g-c-B^b-e^b-c이며, 핵음은 c · g, 종지음은 c이다.

④ 취타 제4악구

<취타>의 제4악구는 제3장단 제5박부터 제11박까지이다. 제4악구는 다음의 <악보 332>에서 보겠다.

<악보 332> 취타 제4악구(제3장단 제5박~제11박)

위의 <악보 332>에서 살펴보면 제3장단의 제5박에서 대금은  $b^b$ '을, 피리는  $g \cdot b^b$ 을 경과하여  $c'$ 로 상행한다. 제6박에서는  $g$ 로 하행하여 피리는  $g$ 를 제7박까지 지속하고, 대금은 제7박에서  $c''$ 로 상행한다. 제8박에서는  $b^b$ 으로 진행하여  $c'$ 를 경과하여  $g$ 로 하행한다. 제8박의 선율은 <취타>에서 높은 빈도로 나타나는 관용적 선율형이다. 이후 제9박에서  $f$ 로 하행한다.  $f$ 는 제10박까지 진행한 후, 제11박에서 대금은  $e^b$ '을 경과 후  $c'$ 로 하행하여 종지 하고, 피리는  $e^b$ 으로 하행하며 종지한다. 두 악기의 종지음이 다르며, 두 음 모두 종지감을 준다. 제4악구의 구조선율은  $c' - g - b^b - f - c/e^b$ 이며, 핵음은  $c \cdot e^b$ ²³²⁾  $\cdot f \cdot g$ , 대금의 종지음은  $c$ , 피리의 종지음은  $e^b$ 이다.

### ⑤ 취타 제5악구

<취타>의 제5악구는 제3장단 제12박부터 제4장단 제12박까지이다. 제5악구는 다음의 <악보 333>에서 보겠다.

<악보 333> 취타 제5악구(제3장단 제12박~제4장단 제12박)

위의 <악보 333>에서 살펴보면 제3장단의 제12박은  $g$ 를 경과하여 제4

232)  $c$ 는 대금의 종지음이자 핵음,  $e^b$ 은 피리의 종지음이자 핵음이다.

장단 제1박에서 f로 하행한다. f는 제2박까지 지속하며 c를 경과한 후 제3박에서 다시 f로 진행한다. 제4박에서는 g를 경과 후 제5박 b^b으로 상행한다. b^b은 제6박까지 지속하며 g를 경과한 후, 제7박에서 f로 하행한다. 제8박에서는 b^b으로 다시 상행 후, g를 경과하여 제9박에서 f로 하행한다. f는 제10박까지 지속한 후, e^b을 경과하여 제12박에서 c로 하행하며 종지감을 준다. 제5악구의 구조선율은 g-f-g-b^b-f-e^b-c이며, 핵음은 c · f, 종지음은 c이다.

## ⑥ 취타 제6악구

<취타>의 제6악구는 제5장단 제1박부터 제4박까지이다. 제6악구는 다음의 <악보 334>에서 보겠다.

<악보 334> 취타 제6악구(제5장단 제1박~제4박)



위의 <악보 334>에서 살펴보면 제5장단의 제1박은 g로 시작하여 제2박에서 b^b으로 상행한다. b^b은 c'를 경과하여 g로 하행한다. 제3박에서는 f로 하행한 후 e^b을 경과하여 제4박에서 c로 하행하여 종지한다. 제6악구의 구조선율은 g-b^b-f-c이며, 핵음은 c · f · g, 종지음은 c이다.

## ⑦ 취타 제7악구

<취타>의 제7악구는 제5장단 제5박부터 제6장단 제4박까지이다. 제7악구는 다음의 <악보 335>에서 보겠다.

<악보 335> 취타 제7악구(제5장단 제5박~제6장단 제4박)

위의 <악보 335>에서 살펴보면 제5장단의 제5박은 g로 시작하여 제6박에서 f로 하행한다. 제6박에서 f는  $e^b \cdot g$ 를 경과하여 제7박에서 다시 f로 진행한다. 제8박에서는 c로 하행한다. 이후 제9박에서 f로 상행한다. f는 제10박까지 지속한다. 이후 제10박의 끝에서 c를 경과한 후, 제11박에서 다시 f로 돌아온다. 제12박에서는 g를 경과하여 제6장단 제1박의  $b^b$ 으로 상행한다.  $b^b$ 은 제2박까지 지속하며 반중지한다. 이후  $b^b$ 은 제3박에서  $e^{b'} \cdot c \cdot b^b$ 을 경과하여 제4박에서 대금은 g로 하행, 피리는 f로 하행하여, 다음 악구의 진행을 예비하며 선율 전개 방향을 전환한다. 제7악구의 구조선율은  $g-f-c-f-g-b^b(-g/f)$ 이며, 핵음은  $f \cdot b^b$ , 종지음은  $b^b$ 이다.

⑧ 취타 제8악구

<취타>의 제8악구는 제6장단의 제5박부터 제12박까지이다. 제8악구는 다음의 <악보 336>에서 보겠다.

<악보 336> 취타 제8악구(제6장단 제5박~제6장단 제12박)



위의 <악보 336>에서 살펴보면 제6장단의 제5박은  $b^b$ 을 경과하여  $c'$ 로 상행한다.  $c'$ 는 제7박까지  $b^b \cdot e^b$ 을 경과하며 지속한다. 제8박에서는  $b^b$ 으로 하행한다. 이후 제9박에서  $c'$ 로 다시 상행한다. 제10박에서는  $e^b$ 으로 상행한 후 제11박에서  $b^b$ 으로 하행하여 반중지한다. 피리는  $b^b$ 을  $c'$ 까지 반복적으로 끌어올리는 선율적 요성을 하며 반중지한다. 제8악구의 구조선율은  $c'-b^b-c'-e^b-b^b-b^b/c'$ 이며, 핵음은  $b^b \cdot c'$ , 종지음은  $b^b$ 이다.

⑨ 취타 제9악구

<취타>의 제9악구는 제7장단의 제1박부터 제7박까지이다. 제9악구는 다음의 <악보 337>에서 보겠다.

<악보 337> 취타 제9악구(제7장단 제1박~제7박)



위의 <악보 337>에서 살펴보면 제7장단의 제1박은  $g \cdot b^b \cdot c' \cdot b^b$ 을 경과하여 제2박의  $g$ 로 진행한다.  $g$ 는 제3박까지 진행한다. 제4박에서는  $b^b$ 으로 상행한다. 제4박의 끝에서는  $c'$ 를 경과하여  $g$ 로 하행한 후, 제5박의  $f$ 로 하행한다.  $f$ 는 제6박까지 지속하며 제7박에서 대금은  $e^b$ 을 경과하여

c'로 하행하며 중지한다. 이때 피리는 e^b으로 하행하여 중지한다. 제9악구의 구조선율은 g-b^b-f-c/e^b이며, 핵음은 e^b · f · g, 대금의 종지음은 c, 피리의 종지음은 e^b이다.

## ⑩ 취타 제10악구

<취타>의 제10악구는 제7장단 제8박부터 제8장단 제4박까지이다. 제10악구는 다음의 <악보 338>에서 보겠다.

<악보 338> 취타 제10악구(제7장단 제8박~제8장단 제4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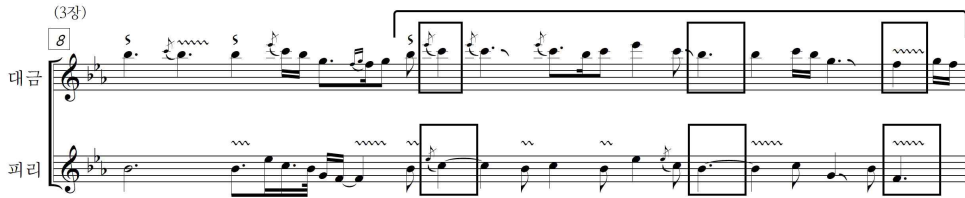
위의 <악보 338>에서 살펴보면 제7장단의 제8박은 g로 시작하여 제9박에서 f로 하행한다. f는 제10박까지 지속한다. 이후 제10박의 끝에서 c를 경과한 후 제11박에서 다시 f로 상행한다. 제12박에서는 g를 경과한 후, 제8장단 제1박에서 b^b으로 상행한다. b^b은 제2박까지 지속하며 반중지한다. 이후 b^b은 제3박에서 e^b · c · b^b을 경과한 후 제4박에서 대금은 g로 하행, 피리는 f로 하행하여 다음 악구의 진행을 예비한다. 제10악구의 구조선율은 g-f-g-b^b (-g/f)이며, 핵음은 f · b^b, 종지음은 b^b이다.

## ⑪ 취타 제11악구



<취타>의 제11악구는 제8장단의 제5박부터 제12박까지이다. 제11악구는 다음의 <악보 339>에서 보겠다.

<악보 339> 취타 제11악구(제8장단 제5박~제8장단 제12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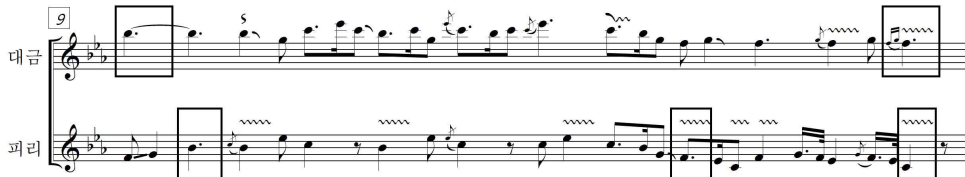


위의 <악보 339>에서 살펴보면 제11악구는  $c'$ 로 시작하여  $b^b \cdot e^b$ 를 경과하며 제8장단의 제8박까지  $c'$ 를 중심으로 이어진다. 이후 제9박에서  $b^b$ 으로 하행한다.  $b^b$ 은 제10박까지 지속한 후, 제11박에서  $g$ 를 경과하여 제12박의  $f$ 로 도달하여 반종지한다. 대금은 제12박  $f$ 의 끝에  $g$ 와  $f$ 를 경과하며 다음 악구와의 연결을 예비한다. 제11악구의 구조선율은  $c'-e^b-b^b-g-f$ 이며, 핵음은  $f \cdot b^b \cdot c'$ , 종지음은  $f$ 이다.

⑫ 취타 제12악구

<취타>의 제12악구는 제9장단이다. 제12악구는 다음의 <악보 340>에서 보겠다.

<악보 340> 취타 제12악구(제9장단)



위의 <악보 340>에서 살펴보면 제9장단의 제1박에서 대금은 제1박부

터  $b^b$ 으로 시작한다. 피리는  $g$ 를 경과하여 제2박의  $b^b$ 으로 상행한다.  $b^b$ 은 제3박까지 지속한 후, 대금은  $g'$ , 피리는  $e^b$ '을 경과하여 제4박의  $c'$ 로 상행한다. 제5·6박은 제3·4박의 반복이다. 이후 제7박에서  $c'$ 를 밟고  $e^b$ '으로 상행한 후, 제8박에서  $c'$ 로 다시 돌아온다. 제8박의 끝에서는  $b^b$ 을 경과하여  $g$ 로 하행한 후, 대금은 제9박에서  $g'$ 를 경과한 다음 제10박의  $f$ 로, 피리는 제9박의  $f$ 로 하행한다. 대금은 제12박까지  $f$ 를 지속하며 반중지한다. 피리는  $f$ 를 제10박까지 이어간 후, 제11박에서  $e^b$ 을 경과하여 제12박의  $c$ 로 하행하여 종지한다. 12악구의 구조선율은  $g-b^b-c'-e^b'-c'-f-e^b-f/c$ 이며, 핵음은  $c \cdot f \cdot b^b$ , 대금의 종지음은  $f$ , 피리의 종지음은  $c$ 이다.

### ⑬ 취타 제13악구

<취타>의 제13악구는 제10장단 제1박부터 제4박까지이다. 제13악구는 다음의 <악보 341>에서 보겠다.

<악보 341> 취타 제13악구(제10장단 제1박~제4박)



제13악구는 대금과 피리의 진행이 다르다. 위의 <악보 341>에서 살펴보면 대금은 제10장단의 제1박에서  $c''$ 로 시작하여  $b^b$ '을 경과 후 제2박의  $g'$ 로 하행한다. 이후 제3박에서  $b^b$ '으로 상행한 후 순차 하행하며 제4박에서  $e^b$ '을 경과한 후  $c'$ 로 하행하여 종지한다. 피리는 제10장단의 제1박에서  $g$ 로 시작하여  $b^b \cdot c'$ 를 경과한 후 다시  $g$ 로 돌아와 제3박까지  $g$ 를 지속한다. 이후 제3박의 끝에서  $f$ 를 경과하여 제4박의  $e^b$ 으로 하행하여 종지한다. 제13악구의 구조선율은  $c'-g-c/e^b$ 이며, 핵음은  $c \cdot e^b \cdot g$ , 대

금의 종지음은 c, 피리의 종지음은 e^b이다.

#### ⑭ 취타 제14악구

<취타>의 제14악구는 제10장단 제5박부터 제11장단 제6박까지이다. 제14악구는 다음의 <악보 342>에서 보겠다.

<악보 342> 취타 제14악구(제10장단 제5박~제11장단 제6박)

위의 <악보 342>에서 살펴보면 대금은 제10장단의 제5박에서 g로 시작하여 b^{b'} · c"를 경과하여 제6박에서 다시 g[']로 진행하고, 이후 f['] · e^{b'} · c'를 경과하여 제7박에서 다시 g로 진행한다. 피리는 제5박부터 제7박까지 g를 지속한다. 제8박에서는 대금과 피리가 b^b으로 상행하는데, 대금은 e^{b''} · c" · b^{b'}을 경과한 후 제9박의 e^{b'}으로 하행하고, 피리는 제9박에서 g로 하행한다. 이후 대금과 피리는 유사한 진행을 한다. 제10박에서 b^b으로 상행한다. 제12박까지 b^b을 중심으로 움직인 후 g를 경과하여 제11장단의 제1박에서 f로 하행한다. 제2박에서는 b^b을 경과한 후 다시 f로 돌아와 제4박까지 f를 지속한다. 이후 e^b을 경과한 후 c로 도달하여 종지한다. 제14악구의 구조선율은 g-b^b-g-b^b-f-e^b-c이며, 핵음은 c · f · g, 종지음은 c이다.

## ⑮ 취타 제15악구

<취타>의 제15악구는 제11장단 제7박부터 제12박까지이다. 제15악구는 다음의 <악보 343>에서 보겠다.

<악보 343> 취타 제15악구(제11장단 제7박~제12박)



위의 <악보 343>에서 살펴보면 제11장단의 제7박은 g로 시작하여 제8박의 b^b으로 상행한다. b^b은 c'를 경과하여 g로 하행한 후 제9박에서 f로 하행한다. 제9박의 끝에서 e^b를 경과하여 제10박에서 c로 하행하여 종지감을 준다. 제11·12박은 다음 악구의 진행을 위한 연결구로 대금은 f에서 e^b'으로, 피리는 e^b에서 f로 진행한다. 제15악구의 구조선율은 g-b^b-f-c(-e^b-f)이며, 핵음은 c·f·g, 종지음은 c이다.

## ⑯ 취타 제16악구

<취타>의 제16악구는 제12장단이다. 제16악구는 다음의 <악보 344>에서 보겠다.

<악보 344> 취타 제16악구(제12장단)



위의 <악보 344>에서 살펴보면 제12장단 제1박에서 대금은  $b^b$ 으로 시작하여 제2박에서  $g$ 로 하행한다.  $g$ 는  $c$ 까지 순차 하행하며 경과한 후 제3박까지 지속한다. 제1박에서 피리는  $g$ 로 시작하여  $b^b \cdot c$ 를 경과하며  $g$ 를 제3박까지 지속한다. 이후 제4박부터 제12박까지는 제14악구의 제10장단 제10박부터 제11장단 제6박까지와 동일하다. 제16악구의 구조선율은  $g-b^b-f-e^b-c$ 이며, 핵음은  $c \cdot f \cdot g$ , 종지음은  $c$ 이다.

### ⑰ 취타 제17악구

<취타>의 제17악구는 제13장단 제1박부터 제14장단 제4박까지이다. 제17악구는 다음의 <악보 345>에서 보겠다.

<악보 345> 취타 제17악구(제13장단 제1박~제14장단 제4박)

위의 <악보 345>에서 살펴보면 제13장단의 제1박은  $c$ 로 시작하여 대금은 제2박에서  $f$ , 제3박에서  $e^b$ 으로 하행한다. 피리는 제2박에서  $g$ , 제3박에서  $f$ 로 하행한다. 이후 대금과 피리 모두 제4박에서  $g$ 를 경과한 후 제5박의  $c$ 로 상행한다.  $c$ 는 제8박까지  $b^b \cdot e^b$ 을 경과하며 지속한다. 제9박에서는  $b^b$ 으로 하행한다.  $b^b$ 은 제10박까지 지속한 후  $g$ 를 경과한 다음, 제14장단의 제1박에서  $f$ 로 하행한다.  $f$ 는 제2박까지 지속한 후 제3박

에서  $e^b$ 을 경과하여 제4박에서  $c$ 로 하행하여 종지한다. 제17악구의 구조선율은  $c'-f-g-c'-e^b-b^b-f-e^b-c$ 이며, 핵음은  $c \cdot f \cdot b^b \cdot c'$ , 종지음은  $c$ 이다.

### ㉘ 취타 제18악구

<취타>의 제18악구는 제14장단 제5박부터 제8박까지이다. 제18악구는 다음의 <악보 346>에서 보겠다.

<악보 346> 취타 제18악구(제14장단 제5박~제8박)

위의 <악보 346>에서 살펴보면 제14장단의 제5박은  $g$ 로 시작하여 제6박에서 대금은  $b^b$ , 피리는  $c'$ 로 상행한다. 이후 제7박에서는 다시  $g$ 로 하행한 후 제8박에서  $e^b$ 으로 도달하여 종지감을 준다. 제18악구의 구조선율은  $g-c'-g-e^b$ 이며, 핵음은  $e^b \cdot g$ , 종지음은  $e^b$ 이다.

### ㉙ 취타 제19악구

<취타>의 제19악구는 제14장단 제9박부터 제15장단 제4박까지이다. 제19악구의 구조선율은 다음의 <악보 347>에서 보겠다.

<악보 347> 취타 제19악구(제14장단 제9박~제15장단 제4박)

(5장)

위의 <악보 347>에서 살펴보면 제14장단의 제9박은 g로 시작한다. 제9박의 끝에서 c'를 경과한 후 제10박에서 대금은 b^b'으로上行하고 피리는 다시 g로 돌아온다. 이후 대금과 피리는 g · f · e^b · c^b으로 순차 하행한다. 이후 제12박에서 f를 경과하여 제15장단 제1박의 e^b으로 하행한다. e^b은 중지감을 준다. e^b은 제3박까지 지속하며 제4박에서 c로 하행하여 다시 한번 중지감을 준다. 제19악구의 구조선율은 g-f-e^b-c이며, 핵음은 c · e^b, 중지음은 c이다.

㉔ 취타 제20악구

<취타>의 제20악구는 제15장단 제5박부터 제15장단 제8박까지이다. 제20악구는 다음의 <악보 348>에서 보겠다.

<악보 348> 취타 제20악구(제15장단 제5박~제15장단 제8박)

위의 <악보 348>에서 살펴보면 제20악구에서 대금은  $g''$ 로 시작하여  $c''$ 로 상행한 후  $c'$ 까지 순차 하행하여 중지하는 진행을 한다. 피리는 제15장단의 제5박에서  $c$ 로 시작하여 제6박까지 지속한 후에 제6박의 끝에서  $g$ 로 완전5도 상행한 후  $f \cdot e^b$ 을 경과하여 제8박에서 다시  $c$ 로 돌아와 중지감을 준다. 제20악구의 구조선율²³³⁾은  $c$ - $f$ - $c$ 이며, 핵음과 중지음은  $c$ 이다.

## ㉔ 취타 제21악구

<취타>의 제21악구는 제15장단 제9박부터 제16장단 제4박까지이다. 제21악구는 다음의 <악보 349>에서 보겠다.

<악보 349> 취타 제21악구(제15장단 제9박~제16장단 제12박)

제21악구는 제7악구의 제5장단 제5박부터 제12박까지와 동일하다. 위의 <악보 349>에서 살펴보면 제15장단의 제9박은  $g$ 로 시작하여 제10박에서  $f$ 로 하행한다.  $f$ 는 제11박까지 지속한 후, 제12박에서  $c$ 로 완전4도 하행한다. 이후 제16장단 제1박에서  $f$ 로 시작하여 제3박까지 지속하며

233) 제20악구의 초반은 대금과 피리가 다른 진행을 한다. 구조선율은 핵음이 뚜렷하게 드러나는 피리의 선율을 따르겠다.



악구를 맺는다. 제4박에서는 대금이  $g'$ 로 상행하며 다음 악구와의 연결을 예비한다. 제21악구의 구조선율은  $g-f-c-f(-g)$ 이며, 핵음과 종지음은  $f$ 이다.

## ㉔ 취타 제22악구

<취타>의 제22악구는 제16장단 제5박부터 제16장단 제12박까지이다. 제22악구는 다음의 <악보 350>에서 보겠다.

<악보 350> 취타 제22악구(제16장단 제5박~제16장단 제12박)



위의 <악보 350>에서 살펴보면 대금은 제16장단의 제5박에서  $b^b'$ 으로 시작하여  $e^b'' \cdot c'' \cdot b^b'$ 를 경과 후 제6박에서  $g'$ 로 하행한다.  $g'$ 는  $f' \cdot e^b' \cdot c'$ 를 경과 후 제7박에서 다시  $g'$ 로 돌아온다. 이후 제8박에서  $b^b'$ 으로 상행하여 제10박까지 지속하며 약한 종지감을 준다. 제11박에서는  $c''$ 로 상행하여 종지감을 상실하고, 선율의 새로운 전개를 예고한다. 피리는 제5박에서  $g$ 로 시작하여  $b^b \cdot c'$ 를 경과한 후, 제6박에서 다시  $g$ 로 하행한다.  $g$ 는 제7박까지 지속한다. 제8박에서는  $b^b$ 으로 시작하여  $c' \cdot g$ 를 경과한 후, 제9박에서 다시  $b^b$ 으로 진행한다.  $b^b$ 은 제12박까지 지속하며 마친다. 제22악구의 구조선율은  $g-b^b(-c')$ 이며, 핵음은  $g \cdot b^b$ , 종지음은  $b^b$ 이다.

## ㉕ 취타 제23악구

<취타>의 제23악구는 제17장단 제1박부터 제6박까지이다. 제23악구는 다음의 <악보 351>에서 보겠다.

<악보 351> 취타 제23악구(제17장단 제1박~제6박)



위의 <악보 351>에서 살펴보면 제23악구는 악구의 초반은 c'를 중심으로 진행하다 g와 f를 경과하여 e^b으로 하행하여 종지한다. 제23악구의 구조선율은 c'-f-e^b이며, 핵음은 e^b · c', 종지음은 e^b이다.

㉔ 취타 제24악구

<취타>의 제24악구는 제17장단 제7박부터 제18장단 제4박까지이다. 제24악구는 다음의 <악보 352>에서 보겠다.

<악보 352> 취타 제24악구(제17장단 제7박~제18장단 제4박)



위의 <악보 352>에서 살펴보면 제17장단의 제7박은 e^b으로 시작하여 f · c를 경과한 후, 제8박에서 f로 상행한다. 이후 제9박에서 c로 하행하여

제11박까지 지속한다. 이후 제12박에서  $e^b$ 으로 상행한다. 제12박의 끝에서  $c$ 를 경과한 후, 제18장단의 제1박에서 다시  $e^b$ 으로 진행한다.  $e^b$ 은 제2박까지 지속하며 종지감을 준다. 이후 제3·4박은  $g$ 에서  $f$ 로 하행하여  $c$ 로 마치는 진행을 하며, 이는 다음 악구와 연결을 위한 연결구로 본다. 제24악구의 구조선율은  $e^b-f-c-e^b(-g-f)$ 이며, 핵음은  $c \cdot e^b$ , 종지음은  $e^b$ 이다.

### ㉔ 취타 제25악구

<취타>의 제25악구는 제18장단 제5박부터 제8박까지이다. 제25악구는 다음의 <악보 353>에서 보겠다.

<악보 353> 취타 제25악구(제18장단 제5박~제8박)



위의 <악보 353>에서 살펴보면 제18장단의 제5박은  $f$ 로 시작하여  $e^b \cdot c$ 를 경과하며 제7박까지 지속한다. 제7박의 끝에서  $e^b$ 을 경과한 후, 제8박에서  $c$ 로 하행하여 종지감을 준다. 제25악구의 구조선율은  $f-c$ 이며, 핵음은  $c \cdot f$ , 종지음은  $c$ 이다.

### ㉕ 취타 제26악구

<취타>의 제26악구는 제18장단 제9박부터 제12박까지이다. 제26악구는 다음의 <악보 354>에서 보겠다.

<악보 354> 취타 제26악구(제18장단 제9박~제12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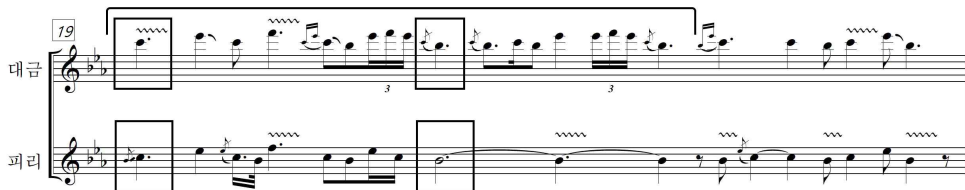


제26악구는 <별곡타령>의 제4악구와 유사하다. 위의 <악보 354>에서 살펴보면 제18장단의 제9박은 f로 시작하여, f는 제10박까지 지속한다. 제10박의 끝에서 g를 경과한 후 제11박에서 b^b으로 상행한다. 제11박의 끝에서 e^b'부터 c' · b^b · g · f까지 순차 하행하여 경과한 후, 제12박의 e^b으로 하행하여 종지한다. 제26악구의 구조선율은 f-b^b-e^b이며, 핵음은 e^b · f · b^b, 종지음은 e^b이다.

㉞ 취타 제27악구

<취타>의 제27악구는 제19장단 제1박부터 제8박까지이다. 제27악구는 다음의 <악보 355>에서 보겠다.

<악보 355> 취타 제27악구(제19장단 제1박~제8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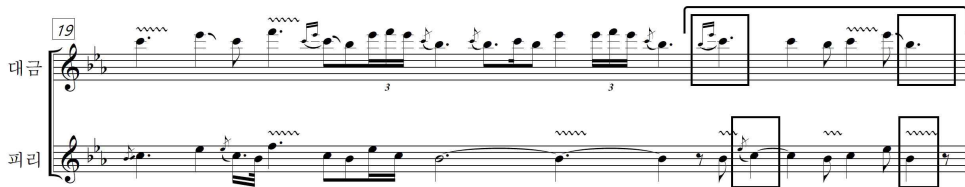
위의 <악보 355>에서 살펴보면 제19장단의 제1박은 c'로 시작한다. 제2박에서는 e^b'으로 상행한 후, c'를 경과하여 제3박에서 f로 상행한다. 이후 제4박에서 c' · b^b · e^b'을 경과하여 제5박의 b^b으로 하행한다. 피리는 b^b을 제8박까지 지속하며 반종지한다. 대금은 제5박의 b^b' 이후 e^b"까지

상행한 후 제8박에서  $b^b$ '으로 귀결하여 반종지한다. 제27악구의 구조선율은  $c'-e^b-f^b(-e^b-b^b)$ 이며, 핵음은  $b^b \cdot c'$ , 종지음은  $b^b$ 이다.

### ㉢ 취타 제28악구

<취타>의 제28악구는 제19장단 제9박부터 제12박까지이다. 제28악구는 다음의 <악보 356>에서 보겠다.

<악보 356> 취타 제28악구(제19장단 제9박~제12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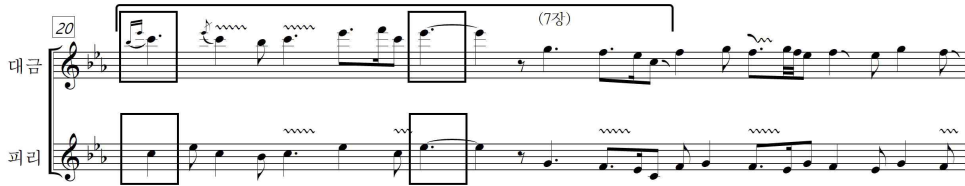


위의 <악보 356>에서 살펴보면 제19장단의 제9박은  $b^b$ 을 경과하여  $c'$ 로 상행하여 시작한다.  $c'$ 는 제10박의 끝에서  $b^b$ 을 경과하며 제11박까지 지속한다. 제11박의 끝에서  $e^b$ 을 경과한 후, 제12박에서  $b^b$ 으로 하행하여 반종지한다. 제28악구의 구조선율은  $c'-b^b$ 이며, 핵음은  $b^b \cdot c'$ , 종지음은  $b^b$ 이다.

### ㉣ 취타 제29악구

<취타>의 제29악구는 제20장단 제1박부터 제8박까지이다. 제29악구는 다음의 <악보 357>에서 보겠다.

<악보 357> 취타 제29악구(제20장단 제1박~제8박)



위의 <악보 357>에서 살펴보면 제20장단의 제1박은 c'로 시작한다. c'는 e^b'과 b^b을 경과하며 제3박까지 지속한다. 이후 제4박에서는 e^b'으로 상행하여 제4박의 끝에서 c'를 경과한 후, 제5박에서 다시 e^b'으로 상행한다. e^b'은 제6박까지 지속하며 종지한다. 이후 제7·8박은 g에서 f로 하행하여 c로 마치는 진행을 하며, 이는 다음 악구와 연결하기 위한 연결구로 본다. 제29악구의 구조선율은 c'-e^b'(-g-f)이며, 핵음은 c'·e^b', 종지음은 e^b'이다.

㉔ 취타 제30악구

<취타>의 제30악구는 제20장단 제9박부터 제21장단 제2박까지이다. 제30악구는 다음의 <악보 358>에서 보겠다.

<악보 358> 취타 제30악구(제20장단 제9박~제21장단 제2박)



위의 <악보 358>에서 살펴보면 제20장단의 제9박부터 제12박까지는 g와 e^b을 경과하며 f를 중심으로 진행한다. 이후 제21장단 제1박에서 e^b으로 하행하여 종지감을 준다. 제30악구의 구조선율은 f-g-e^b이며, 핵음은 e^b · f, 종지음은 e^b이다.

### ㉔ 취타 제31악구

<취타>의 제31악구는 제21장단 제3박부터 제12박까지이다. 제31악구는 다음의 <악보 359>에서 보겠다.

<악보 359> 취타 제31악구(제21장단 제3박~제12박)



위의 <악보 359>에서 살펴보면 제21장단의 제3박은 e^b으로 시작한다. 제3박의 끝에서 c를 경과한 후, 제4박에서 f로 상행한다. 이후 e^b을 경과하여 제5박에서 c로 하행한다. c는 B^b을 경과하며 제7박까지 지속한다. 제8박에서는 e^b으로 상행한다. e^b은 f · e^b · c를 경과한 후 다시 e^b으로 귀결한다. e^b은 제10박까지 지속하며 종지한다. 이후 제11 · 12박은 g에서 f로 하행하여 c로 마치는 진행을 하며, 이는 다음 악곡인 <길군악>과 연결을 위한 연결구로 본다. 제31악구의 구조선율은 e^b-f-c-e^b(-g-f)이며, 핵음은 c · e^b, 종지음은 e^b이다.

이상의 내용을 정리하면, <취타>의 관용적 구조선율은 f-e^b-c, g-b^b이다. 이외에 관용적 선율형으로 b^b-c'-g가 높은 빈도로 나타난다.²³⁴⁾ 핵음

234) 이는 <취타>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관용적 선율형으로, <별곡타령>과

은  $c(\text{라}) \cdot e^b(\text{도}) \cdot f(\text{레})$ 이며, 종지음은  $c(\text{라}) \cdot e^b(\text{도})$ 이다.

<취타>는  $c$ 와  $e^b$  두 음 모두 완전종지를 하고, 악곡의 마지막 종지는  $e^b$ 에서 한다.  $b^b$ 과  $f$ 의 종지는 종지감이 약하며, 다음 악구와의 연결성을 갖고 있다.

$g$ 는 선율 전개에 시작음, 또는 선율의 방향 전환을 위한 연결구의 기능을 하며, 이외에 경과음으로 주로 나타난다.  $b^b$ 은 음역이 고조되는 악구에서 핵음으로 나타나며 이후  $c$  또는  $e^b$ 으로 귀결하며 해소된다.  $b^b$ 은 이러한 악구를 제외하고는 경과음으로 주로 나타난다. 이를 종합하면 <취타>는 다섯 음이 고루 비중 있게 나타나는 악곡이라 할 수 있다.

한편,  $f$ 와  $c$ 가 중심으로 움직이는 악구에서  $e^b$ 은 경과음으로 나타나고,  $e^b$  중심으로 움직일 경우는  $f$ 가 경과음으로 나타나 취타에서는 핵음과 경과음의 구도가 변화한다.

<취타>의 구조선율 · 핵음 · 종지음 분석을 정리하면 다음의 [표 32]²³⁵⁾에서 보는 것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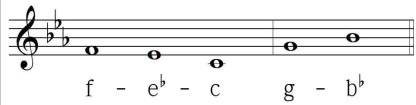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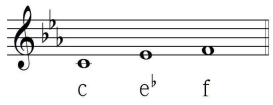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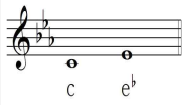
[표 32] 취타 구조선율 · 핵음 · 종지음

악구	구조선율	핵음	종지음
1	$g-e^b-f-g-e^b$	$e^b$	$e^b$
2	$e^b-g-c-e^b(-g-f)$	$c \cdot e^b$	$e^b$
3	$f-g-c'-g-c-B^b-e^b-c$	$c \cdot g$	$c$
4	$c'-g-b^b-f-c/e^b$	$c \cdot e^b \cdot f \cdot g$	$c \cdot e^b$
5	$g-f-g-b^b-f-e^b-c$	$c \cdot f$	$c$
6	$g-b^b-f-c$	$c \cdot f \cdot g$	$c$
7	$g-f-c-f-g-b^b(-g-f)$	$f \cdot b^b$	$b^b$
8	$c'-b^b-c'-e^b-b^b-b^b/c'$	$b^b \cdot c'$	$b^b$
9	$g-b^b-f-c/e^b$	$e^b \cdot f \cdot g$	$c \cdot e^b$

<길군악>에서도 나타난다. <당악>에서도 나타나는 선율형이지만 높은 빈도로 나타나지는 않는다. 이는 한 박 안에서 나타나는 선율이며, 구조선율에서는 첫 음  $b^b$ 을 구조선율로 보았다.

235) 구조선율에서 밑줄 친 부분은 관용적 구조선율에 해당한다.



10	$g-f-g-b^b (-g/f)$	$f \cdot b^b$	$b^b$
11	$c'-e^b-b^b-g-f$	$f \cdot b^b \cdot c'$	$f$
12	$g-b^b-c'-e^b-c'-f-e^b-f/c$	$c \cdot f \cdot b^b$	$c \cdot f$
13	$c'-g-c/e^b$	$c \cdot e^b \cdot g$	$c \cdot e^b$
14	$g-b^b-g-b^b-f-e^b-c$	$c \cdot f \cdot g$	$c$
15	$g-b^b-f-c(-e^b/f)$	$c \cdot f \cdot g$	$c$
16	$g-b^b-f-e^b-c$	$c \cdot f \cdot g$	$c$
17	$c'-f-g-c'-e^b-b^b-f-e^b-c$	$c \cdot f \cdot b^b \cdot c'$	$c$
18	$g-c'-g-e^b$	$e^b \cdot g$	$e^b$
19	$g-f-e^b-c$	$c \cdot e^b$	$c$
20	$c-f-c$	$c$	$c$
21	$g-f-c-f(-g)$	$f$	$f$
22	$g-b^b(-c')$	$g \cdot b^b$	$b^b$
23	$c'-f-e^b$	$e^b \cdot c'$	$e^b$
24	$e^b-f-c-e^b(-g/f)$	$c \cdot e^b$	$e^b$
25	$f-c$	$c \cdot f$	$c$
26	$f-b^b-e^b$	$e^b \cdot f \cdot b^b$	$e^b$
27	$c'-e^b-f'-b^b(-e^b-b^b)$	$b^b \cdot c'$	$b^b$
28	$c'-b^b$	$b^b \cdot c'$	$b^b$
29	$c'-e^b'(-g/f)$	$c' \cdot e^{b'}$	$e^{b'}$
30	$f-g-e^b$	$e^b \cdot f$	$e^b$
31	$e^b-f-c-e^b(-g/f)$	$c \cdot e^b$	$e^b$
종합			

### 3) 시김새

<취타>의 시김새는  $e^b$ (도),  $f$ (레),  $g$ (미),  $b^b$ (솔),  $c'$ (라) 다섯 음으로 나누어 살펴보겠다.

#### ① $e^b$ (도)

<취타>의  $e^b$ 에서 나타나는 시김새는 아래 <악보 360>에서 보는 것과 같다.

#### <악보 360> 취타 $e^b$ 의 시김새

위의 <악보 360>에서 살펴보면 대금은  $e^b$ 에서 보통 놓음이 나타나기도 한다.  $e^b$ 은  $c$ 로 하행 시 퇴성을 한다. 피리는  $e^b$ 으로 중지할 때  $e^b$ 을 퇴성하기도 한다. 대금의 장식음으로는  $e^b$ -g'가 나타난다. 이외에 <취타>에서  $e^b$ 은 보통 시김새가 잘 나타나지 않는다.

#### ② f(레)

<취타>의  $f$ 에서 나타나는 시김새는 아래 <악보 361>에서 보는 것과 같다.

#### <악보 361> 취타 $f$ 의 시김새

<취타>에서 f는 주로 보통 농음을 한다. 위의 <악보 361>에서 살펴보면 대금은 f를 하행 농음하기도 한다. 대금은 f앞에 g' · e^b'-g' · f'-g'가 장식음으로 나타난다.

### ③ g(미)

<취타>의 g에서 나타나는 시김새는 아래 <악보 362>에서 보는 것과 같다.

<악보 362> 취타 g의 시김새



위의 <악보 362>에서 살펴보면 g는 f로 하행할 때 퇴성을 한다. 피리는 g를 f에서 끌어올려 내기도 한다.²³⁶⁾

### ④ b^b(솔)

<취타>의 b^b에서 나타나는 시김새는 아래 <악보 363>에서 보는 것과 같다.

236) 해금은 이때 g를 e^b에서 끌어올려 낸다.

<악보 363> 취타  $b^b$ 의 시김새

<취타>에서  $b^b$ 은 주로 보통 농음을 한다. 위의 <악보 363>에서 살펴보면 대금은  $b^b$ 이 대박의 첫 음으로 출현할 때 장식음으로  $b^b$ - $d^b$ 이 나타나며, 동음 진행할 경우 장식음으로  $c$ 가 나타난다.

⑤  $c'$ (라)

<취타>의  $c'$ 에서 나타나는 시김새는 아래 <악보 364>에서 보겠다.

<악보 364> 취타  $c'$ 의 시김새

<취타>에서  $c'$ 의 시김새는 다양하게 나타난다. 위의 <악보 364>에서 살펴보면 대금과 피리는  $c$ 에서 보통 농음 또는 퇴성을 한다. 퇴성은 중지 시 또는 하행 시에 나타난다.  $c'$ 에서 피리는 보통 농음을 대금은 하행 농음 또는 퇴성을 한다. 피리는 제13장단에서  $c'$ 의 추성이 나타나며 이후  $g$ 로 진행한다. 장식음은  $e^b$ 이 주로 나타나며, 대금은  $b^b-e^b$ ,  $c''-e^b$  또한 장식음으로 나타난다.

이상의 내용을 정리하면, <취타>의 주요 시김새는 다음과 같다.  $e^b$ 은 시김새가 잘 나타나지 않는다.  $f$ 는 주로 보통 농음을 한다.  $g$ 는  $f$ 로 하행 시 퇴성한다.  $b^b$ 은 보통 농음을 한다.  $c'$ 는 보통 농음 또는 퇴성을 하며, 퇴성은 중지 시 또는 하행 시에 나타난다. 더하여, 대금은  $f$ 와  $c''$ 에서 하행 농음이 나타나기도 하며, 피리는  $g$ 를  $f$ 에서 끌어올려 내기도 한다.

시김새 중 장식음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e^b$ 의 장식음으로 대금은  $e^b-g'$ 가 나타난다.  $f$ 의 장식음으로 대금은  $g' \cdot e^b-g' \cdot f-g'$ 가 나타난다.  $b^b$ 의 장식음으로 대금은  $b^b-d^b$ ,  $c''$ 가 나타난다.  $c'$ 의 장식음으로 대금·피리 모두  $e^b$ ²³⁷⁾이 나타나며, 대금은  $b^b-e^b$ ,  $c''-e^b$  또한 장식음으로 나타난다.

요컨대, <취타>의 음계는 ' $e^b$ (도),  $f$ (레),  $g$ (미),  $b^b$ (솔),  $c'$ (라)'이다. 관용적 구조선율은  $f-e^b-c$ ,  $g-b^b$ 이다. 이외에 관용적 선율형으로  $b^b-c'-g$ 가 높은 빈도로 나타난다. 핵음은  $c$ (라)· $e^b$ (도)· $f$ (레)이며, 종지음은  $c$ (라)· $e^b$ (도)이다. <취타>는 타 악곡에 비해 상대적으로 다섯 음이 고루 비중 있게 나타나는 악곡이다.

$g$ 는 선율 전개 of 시작음, 또는 선율의 방향 전환을 위한 연결구의 기능을 하며, 이외에 경과음으로 주로 나타난다.  $b^b$ 은 음역이 고조되는 악

---

237) 엽불조 악곡에서  $c'$ 의 장식음으로 장2도 아래음인  $b^b$ 이 나타나는 것과 대조적이다.

구에서 핵음으로 나타나며 이후 c 또는 e^b으로 귀결하며 해소된다. b^b은 이러한 악구를 제외하고는 경과음으로 주로 나타난다.

주요 시김새는 다음과 같다. f는 보통 농음을 한다. g는 f로 하행 시 퇴성을 한다. b^b은 보통 농음을 한다. c'는 보통 농음 또는 퇴성을 하며, 퇴성은 종지 시 또는 하행 시에 나타난다. 더하여, 대금은 f와 c''에서 하행 농음이 나타나기도 하며, 피리는 g를 f에서 끌어올려 내기도 한다.

시김새 중 주요 장식음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f의 장식음으로 대금은 e^b'-g'가 나타난다. c'의 장식음으로 대금·피리 모두 e^b'이 나타나며, 대금은 b^b'-e^b'' 또한 장식음으로 나타난다.

## (2) 길군악

<길군악>은 《취타풍류》의 두 번째 악곡이며, <길군악>과 <길군악 돌장>을 포함한다. 출현음과 구조선율·핵음·종지음, 그리고 시김새 분석을 통해 악곡을 살펴보겠다.

### 1) 출현음

<길군악>의 출현음을 다음 <악보 365>에서 살펴보겠다.²³⁸⁾

<악보 365> 길군악 출현음

The musical notation shows two staves. The top staff is for Daegu (대금) and the bottom staff is for Piri (피리). Both staves are in a key with two flats (B-flat and E-flat). The notes are as follows:

Instrument	Note 1	Note 2	Note 3	Note 4	Note 5	Note 6
대금 (Daegu)	e ^b ' (도)	f' (레)	g' (미)	b ^b ' (솔)	c'' (라)	e ^b '' (도)
피리 (Piri)	e ^b (도)	f (레)	g (미)	b ^b (솔)	c' (라)	

238) 흰 음표는 주요 출현음이며, 검은 음표는 장식음으로 나타나는 음이다. 검은 음표의 음이름은 이탤릭체로 구분하였다.

<악보 365>를 살펴보면, <길군악>의 대금과 피리의 주요 출현음은 e^b (도), f(레), g(미), b^b(솔), c'(라)로 동일하며, 대금은 e^b"(도)이 장식음으로 출현한다.

## 2) 구조선율 · 핵음 · 종지음

<길군악>은 총 20장단의 악곡이다. <길군악>은 피리가 모든 장단의 제 6박 또는 제7박에서 선율을 마치고, 이후 마지막 박인 제8박까지 대금이 연음을 하는 규칙적인 진행이 나타난다. 그러므로 <길군악>의 악구를 나누는 기준은 장단을 단위로 하여, 총 20개 악구의 구조선율과 악구별 핵음, 종지음을 살펴보겠다. <길군악>의 제12악구는 제6악구와 동일하고, 제17악구부터 제20악구까지는 제2악구부터 제5악구까지와 동일하므로 생략한다.

### ① 길군악 제1악구

<길군악>의 제1악구는 제1장단과 같다. 제1악구는 다음의 <악보 366>에서 보겠다.

<악보 366> 길군악 제1악구(제1장단)

(돌장 4장)

위의 <악보 366>에서 살펴보면 제1장단의 제1박은 f로 시작한다. f는 제2박까지 지속한다. 제2박의 끝에서는 g를 경과한 후, 제3박에서 b^b으로 상행한다. 제3박의 끝에서는 c'를 경과한 후, 제4박에서 f로 하행한다.

제4박의 끝에서는 g를 경과하여 제5박에서 b^b으로 상행한다. 제6박에서는 b^b을 경과하여 c'로 상행한 후 제7박에서 b^b으로 다시 하행하여 종지한다. 피리는 제7박에서 종지하고, 대금은 b^b'을 제8박까지 지속한다. 제1악구의 구조선율은 f-b^b-f-b^b-c'-b^b(-b^b)²³⁹이며, 핵음은 f·b^b, 종지음은 b^b이다.

## ② 길군악 제2악구

<길군악>의 제2악구는 제2장단과 같다. 제2악구는 다음의 <악보 367>에서 보겠다.

<악보 367> 길군악 제2악구(제2장단)

(돌장 5장)

위의 <악보 367>에서 살펴보면 제2장단의 제1박은 g로 시작한다. 제2박은 b^b으로 시작하여 c'를 경과 후, g로 하행한다. 제2박의 선율은 <길군악>에서 높은 빈도로 나타나는 당악조 악곡의 관용적 선율형이다. 이후 제3박에서는 b^b을 경과하여 c'로 상행한다. 제4, 5박은 제2, 3박의 선율을 반복한다. 제6박에서 대금은 f로, 피리는 g로 하행하여, 제7박의 e^b으로 귀결한다. 피리는 제7박에서 종지하고, 제8박에서 대금은 e^b'에서 g'로 상행하는 연음을 한다. 제2악구의 구조선율은 g-b^b-c'-b^b-c'-g-e^b(-e^b-g)이며, 핵음은 e^b·c', 종지음은 e^b이다.

## ③ 길군악 제3악구

239) 괄호 안의 음은 연음의 구조선율이다.



<길군악>의 제3악구는 제3장단과 같다. 제3악구는 다음의 <악보 368>에서 보겠다.

#### <악보 368> 길군악 제3악구(제3장단)

(돌장 6장)

위의 <악보 368>에서 살펴보면 제3장단의 제1박은 f로 시작한다. f는 제2박까지 지속한다. 제2박의 끝에서 g를 경과한 후, 제3박에서 b^b으로 상행한다. 제4박은 b^b으로 시작하여 c'를 경과 후, g로 하행한다. 제4박에서는 f로 하행한다. 이후 g · b^b을 경과하여 c'로 상행한다. 제7박에서는 b^b으로 다시 하행하여 종지한다. 피리는 제7박에서 종지하고, 대금은 제8박까지 b^b을 지속한다. 제3악구의 구조선율은 f-b^b-f-c'-b^b(-b^b)이며, 핵음은 f · b^b, 종지음은 b^b이다.

#### ④ 길군악 제4악구

<길군악>의 제4악구는 제4장단과 같다. 제4악구는 다음의 <악보 369>에서 보겠다.

#### <악보 369> 길군악 제4악구(제4장단)

(1장)

위의 <악보 369>에서 살펴보면 제4장단의 제1박은 g로 시작한다. 대금은 c'를 경과하여 제3박의 b^{b'}으로 진행하고, 피리는 제2박에서 b^b으로 상행하여 제3박까지 지속한다. 피리는 제3박의 끝에서 g로 하행 후, 제4박에서는 f로 하행한다. 대금은 b^{b'}을 지속하다 제4박의 끝에서 g'로 하행한 후, 대금·피리 모두 제5박의 b^b으로 상행한다. 이후 피리는 제6박에서는 g를 퇴성하며 종지한다. 피리 종지 후 대금은 제7박과 제8박에서 b^b을 지속하는 연음을 한다. 제4악구의 구조선율은 g-b^b-f-b^b-g(c'-b^b)이며, 핵음은 b^b, 종지음은 g이다.

### ⑤ 길군악 제5악구

<길군악>의 제5악구는 제5장단과 같다. 제5악구는 다음의 <악보 370>에서 보겠다.

<악보 370> 길군악 제5악구(제5장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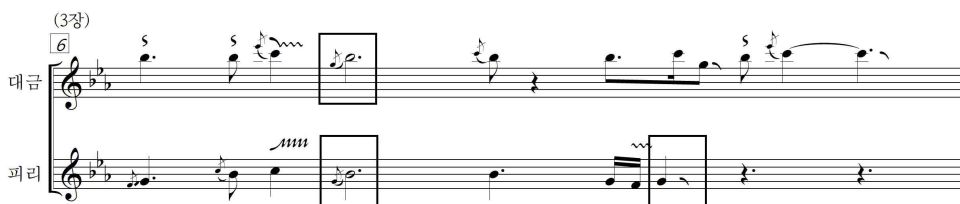
The musical score for '길군악 제5악구(제5장단)' consists of two staves. The top staff is labeled '대금' (Daegu) and the bottom staff is labeled '피리' (Piri). The time signature is 2/4. The key signature has two flats (B-flat and E-flat). The score includes various musical notations such as notes, rests, and dynamic markings. A box highlights a specific measure in the Piri staff, which corresponds to the 5th measure of the 5th measure group.

위의 <악보 370>에서 살펴보면 대금은 제4장단의 마지막 음 b^{b'}을 이어 시작하여 g'로 하행한 후 제3박까지 쉰다. 피리는 제5장단의 제1박에서 g로 시작한다. 제2박에서는 b^b으로 시작하여 c'를 경과 후, g로 하행한다. 제3박에서는 f로 하행한다. 제4박은 제2박의 선율을 반복한다. 제5박에서는 f로 하행하여 f를 제6박까지 지속하며 종지한다. 대금은 제4박에서 c''부터 시작하여 b^{b'}·g'를 순차 하행하여 f'로 도달한다. 피리의 종지 이후 제7박에서 대금은 e^b에서 g로 상행하는 연음을 한다. 제5악구의 구조선율은 g-b^b-f-b^b-f(-e^b-g)이며, 핵음과 종지음은 f이다.

## ⑥ 길군악 제6악구

<길군악>의 제6악구는 제6장단과 같다. 제6악구는 다음의 <악보 371>에서 보겠다.

<악보 371> 길군악 제6악구(제6장단)



위의 <악보 371>에서 살펴보면 제6장단의 제1박에서 대금은  $b^b$ , 피리는 g로 시작한다. 제2박에서는  $b^b$ 을 경과하여  $c'$ 로 상행한다. 제3박에서는  $b^b$ 으로 하행하여 제5박까지 지속한다. 제6박에서 피리는 g로 하행하여 종지한다. 제6박에서 대금은  $b^b$ 에서 g'로 하행한 후,  $c''$ 로 상행하여 제7·8박을 지속하는 연음을 한다. 제6악구의 구조선율은  $g-c'-b^b-g(-c')$ 이며, 핵음은  $b^b$ , 종지음은 g이다.

## ⑦ 길군악 제7악구

<길군악>의 제7악구는 제7장단과 같다. 제7악구는 다음의 <악보 372>에서 보겠다.

<악보 372> 길군악 제7악구(제7장단)



위의 <악보 372>에서 살펴보면 피리는 제7장단의 제1박에서 g로 시작한다. 제2박에서는 b^b을 경과하여 c'로 상행한다. c'는 제3박까지 지속하며 제3박의 끝에서 g를 퇴성하며 하행한다. 제4박에서는 f로 하행하여 g를 경과한 후 제5박의 b^b으로 상행한다. b^b은 제6박까지 지속하며 종지한다. 대금은 제1박에서 c''로 시작하여 b^b' · g'를 경과 후 제2박에서 f'로 하행한다. 제2박의 끝에서는 g'를 경과 후, 제3·4박에서 제1·2박의 선율을 반복한다. 제5박에서는 c''로 상행한다. c''는 제6박까지 지속한 후 제7박에서 b^b으로 하행한다. b^b은 다음 악구의 첫 박까지 지속한다. 제7악구의 구조선율은 g-c'-f-b^b(-c'-b^b)이며, 핵음은 b^b · c', 종지음은 b^b이다.

## ⑧ 길군악 제8악구

<길군악>의 제8악구는 제8장단과 같다. 제8악구는 다음의 <악보 373>에서 보겠다.

<악보 373> 길군악 제8악구(제8장단)

The musical score is written for two staves. The top staff is labeled '대금' (Daegu) and the bottom staff is labeled '피리' (Piri). Both staves are in a key with two flats (B-flat and E-flat) and a common time signature. The top staff starts with a '(5장)' marking and a 'B' in a box. The bottom staff starts with a 'B' in a box. The score consists of 8 measures. The first measure has a whole note for the Daegu and a half note for the Piri. The second measure has a whole note for the Daegu and a half note for the Piri. The third measure has a whole note for the Daegu and a half note for the Piri. The fourth measure has a whole note for the Daegu and a half note for the Piri. The fifth measure has a whole note for the Daegu and a half note for the Piri. The sixth measure has a whole note for the Daegu and a half note for the Piri. The seventh measure has a whole note for the Daegu and a half note for the Piri. The eighth measure has a whole note for the Daegu and a half note for the Piri. The score ends with a double bar lin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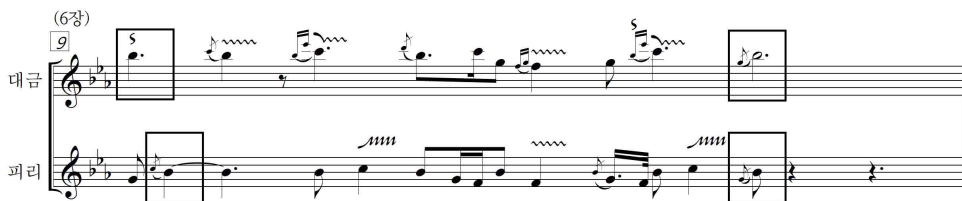
위의 <악보 373>에서 살펴보면 제8장단의 제1박에서 대금은 직전 악구의 마지막 음인 b^b을 짧게 끊어내고, 제3박까지 쉰다. 피리는 제1박에서 g로 시작한 후 b^b을 경과하여 c'로 상행한다. 이후 제3박에서는 b^b으로 시작하여 c'를 경과 후, g로 하행한다. 제4박에서 대금과 피리는 b^b을 경과하여 c'로 상행한다. 이후 제5박에서 g로 하행한다. 피리는 g를 제6박까지 지속하고 퇴성하여 종지한다. 대금은 제6박에서 f'로 하행한 후 제7박에서 c''로 상행한다. 이후 b^b'으로 시작하여 c''를 경과 후, g'로 하

행하여 마친다. 제8악구의 구조선율은  $g-c'-b^b-c'-g(-c'-b^b)$ 이며, 핵음은  $g \cdot c'$ , 종지음은  $g$ 이다.

### ⑨ 길군악 제9악구

<길군악>의 제9악구는 제9장단과 같다. 제9악구는 다음의 <악보 374>에서 보겠다.

<악보 374> 길군악 제9악구(제9장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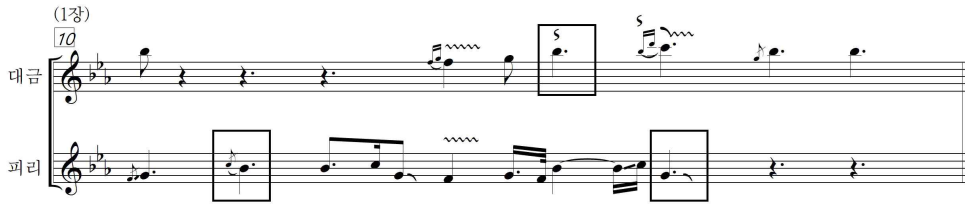


위의 <악보 374>에서 살펴보면 제9장단의 제1박은  $b^b$ 으로 시작하여 제2박까지 지속한다. 제3박에서는  $c'$ 로 상행한 후, 제4박에서  $b^b$ 으로 하행한다. 제5박에서는  $f$ 로 하행한 후  $g \cdot b^b$ 을 경과하여  $c'$ 로 상행한다. 제7박에서는  $b^b$ 으로 다시 돌아와서 종지한다. 피리는 제7박에서 종지하고, 대금은  $b^b$ 을 다음 악구의 첫 박까지 지속한다. 제9악구의 구조선율은  $b^b-c'-b^b-f-c'-b^b(-b^b)$ 이며, 핵음과 종지음은  $b^b$ 이다.

### ⑩ 길군악 제10악구

<길군악>의 제10악구는 제10장단과 같다. 제10악구는 다음의 <악보 375>에서 보겠다.

<악보 375> 길군악 제10악구(제10장단)



제10악구의 피리 선율은 제4악구와 동일하므로 피리의 분석은 생략한다. 위의 <악보 375>에서 살펴보면 대금은 직전 악구의 마지막 음인  $b^b$ '을 짧게 끊어내고, 제3박까지 쉰다. 제4박에서는  $f$ 로 진행하여  $g$ 를 경과한 후 제5박의  $b^b$ '으로 상행한다. 제6박에서는  $c''$ 로 상행한 후 제7박에서  $b^b$ '으로 귀결하여 제8박까지 지속한다. 제10악구의 구조선율은  $g-b^b-f-b^b-g(c'-b^b)$ 이며, 핵음은  $b^b$ , 종지음은  $g$ 이다.

⑪ 길군악 제11악구

<길군악>의 제11악구는 제11장단과 같다. 제11악구는 다음의 <악보 376>에서 보겠다.

<악보 376> 길군악 제11악구(제11장단)



제11악구는 피리 선율은 제5악구와 동일하므로 피리의 분석은 생략한다. 위의 <악보 376>에서 살펴보면 대금은 직전 악구의 마지막 음인  $b^b$ '을 짧게 끊어내고, 제2박까지 쉰다. 제3박에서는  $f$ 로 진행하여  $g$ 를 경과한 후 제4박의  $c''$ 로 상행한다. 이후의 대금 선율은 제5악구와 동일하

로 생략한다. 제11악구의 구조선율은  $g-b^b-f-b^b-f(-e^b-g)$ 이며, 핵음과 종지음은  $f$ 이다.

## ⑫ 길군악 제13악구

<길군악>의 제13악구는 <길군악 돌장>의 제1장단이다. 제13악구는 다음의 <악보 377>에서 보겠다.

<악보 377> 길군악 제13악구(길군악 돌장 제1장단)



위의 <악보 377>에서 살펴보면 제1장단의 제1박은  $c'$ 로 시작한다. 제2박에서는  $b^b$ 으로 하행 후 제3박에서 다시  $c'$ 로 상행한다. 제3박에서는  $b^b$ 으로 시작하여  $c'$  상행 후,  $g$ 로 하행한다.  $g$ 는 퇴성하며 제4박에서  $f$ 로 하행한다. 제4박의 끝에서  $g$ 를 경과한 후, 제5박에서  $b^b$ 을 경과하여  $c'$ 로 상행한다. 이후 제7박에서  $b^b$ 으로 진행하여 종지한다. 피리 종지 후 제7박과 제8박에서 대금은  $b^b$ 을 지속한다. 제13악구의 구조선율은  $c'-b^b-c'-b^b-f-c'-b^b(-b^b)$ 이며, 핵음은  $b^b \cdot c'$ , 종지음은  $b^b$ 이다.

## ⑬ 길군악 제14악구

<길군악>의 제14악구는 <길군악 돌장>의 제2장단이다. 제14악구는 다음의 <악보 378>에서 보겠다.

<악보 378> 길군악 제14악구(길군악 돌장 제2장단)



위의 <악보 378>에서 살펴보면 제2장단의 제1박은  $b^b$ 으로 시작하여  $c'$ 상행 후,  $g$ 로 하행한다.  $g$ 는 퇴성하며 제2박에서  $f$ 로 하행한다. 제2박의 끝에서  $g$ 를 상행경과한 후, 제3박에서  $b^b$ 을 경과하여  $c'$ 로 상행한다. 제4박에서는  $g$ 로 완전4도 하행한 후, 제5박에서  $e^b$ 까지 하행하여 종지한다. 피리 종지 후 제7박과 제8박에서 대금은  $f$ 에서  $g$ 로 상행한다. 제14악구의 구조선율은  $b^b-f-c'-g-e^b(-f-g)$ 이며, 핵음은  $e^b \cdot f \cdot c'$ , 종지음은  $e^b$ 이다.

⑭ 길군악 제15악구

<길군악>의 제15악구는 <길군악 돌장>의 제3장단이다. 제15악구는 다음의 <악보 379>에서 보겠다.

<악보 379> 길군악 제15악구(길군악 돌장 제3장단)



위의 <악보 379>에서 살펴보면 제3장단의 제1박에서 피리는  $c'$ 로 시작한다. 제2박에서는 대금과 피리가  $g$ 로 진행하여 제3박까지 지속한 후 제4박에서  $f$ 를 경과한 후 제5박의  $b^b$ 으로 상행한다. 피리는  $b^b$ 을 제6박까지 지속하며 종지한다. 대금은 제6박에서  $c''$ 로 상행하였다가 제7박과 제



8박에서 대금은  $b^b$ '을 지속하며 다음 악구의 첫 박까지 이어간다. 제15악구의 구조선율은  $c'-g-f-b^b(-c'-b^b)$ 이며, 핵음은  $g \cdot b^b$ , 종지음은  $b^b$ 이다.

## ⑮ 길군악 제16악구

<길군악>의 제16악구는 <길군악 돌장>의 제4장단이다. 제16악구는 다음의 <악보 380>에서 보겠다.

<악보 380> 길군악 제16악구(길군악 돌장 제4장단)



위의 <악보 380>에서 살펴보면 대금은 제4장단 제1박에서  $b^b$ '을 짧게 끊어 내고, 제2박까지 쉰다. 피리는 제4장단의 제1박에서  $g$ 로 시작한다. 제2박은  $b^b$ 으로 시작하여  $c'$ 를 경과 후,  $g$ 로 하행한다. 제3박에서 대금과 피리는 제2박의 선율을 반복한 후 제4박에서  $f$ 로 하행한다. 제4박의 끝에서  $g$ 를 경과한 후, 제5박의  $b^b$ 으로 상행한다. 제6박에서 대금은  $c''$ 로 상행하고, 피리는  $f$ 로 하행한 후, 제7박의  $b^b$ 으로 진행하여 종지한다. 피리는 제7박에서 종지하고, 대금은 제8박까지  $b^b$ '을 지속하여 마친다. 제16악구의 구조선율은  $g-b^b-f-b^b-f-b^b(-b^b)$ 이며, 핵음은  $f \cdot b^b$ , 종지음은  $b^b$ 이다.

이상의 내용을 정리하면, <길군악>의 관용적 구조선율은  $g-b^b$ ,  $g-c'-b^b$ ,  $f-c'-b^b$ 이며, 이외에 관용적 선율형으로  $b^b-c'-g$ 가 높은 빈도로 나타난다.²⁴⁰⁾ 핵음은  $e^b$ (도) ·  $f$ (레) ·  $b^b$ (솔)이며, 종지음은  $e^b$ (도) ·  $b^b$ (솔)이다.

240) 위와 같은 관용적 선율형은 당악조 악곡인 <별곡타령>과 <취타>에서도 나타난다. <당악>에서도 나타나는 선율형이지만 높은 빈도로 나타나지는 않는다.

가장 높은 빈도로 중지하는 음은  $b^b$ (솔)이며,  $e^b$ (도) 중지는 3회로 적은 빈도로 나타나지만 중지 시 안정감이 있으므로 두 음을 모두 중지음과 핵음으로 본다.

<길군악>에서 대금의 연음은 피리가 안정된 중지감을 주는 때는 연음에서 같은 중지감을 이어가기도 하며, 또는 다음 악구 전개를 위한 선율의 방향 전환 역할을 한다. 또한 피리가 안정된 중지가 나타나지 않는 경우( $f \cdot g$  중지)에는 연음에서  $b^b$  또는  $e^b$ 으로 진행하며 오히려 연음에서 안정된 중지감을 준다. 예외로 제6악구 · 제8악구 · 제12악구는 피리의 중지와 대금의 연음 모두 중지감이 나타나지 않는다.

$g$ 는 악구의 시작음 또는 경과음으로 나타난다.  $c'$ 는 경과음으로 주로 나타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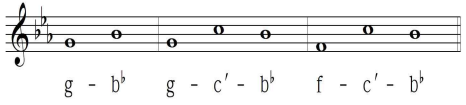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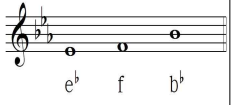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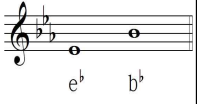
<길군악>의 구조선율 · 핵음 · 중지음 분석을 정리하면 다음의 [표 33 241]에서 보는 것과 같다.

---

이는 한 박 안에서 나타나는 선율로 본고의 분석 시 첫 음  $b^b$ 을 구조선율로 보았다.

241) 구조선율에서 밑줄 친 부분은 관용적 구조선율에 해당한다.

[표 33] 길군악 구조선율 · 핵음 · 종지음

악구	구조선율	핵음	종지음
1	$f-b^b-f-b^b-c'-b^b(-b^b)$	$f \cdot b^b$	$b^b$
2	$g-b^b-c'-b^b-c'-g-e^b(-e^b-g)$	$e^b \cdot c'$	$e^b$
3	$f-b^b-f-c'-b^b(-b^b)$	$f \cdot b^b$	$b^b$
4	$g-b^b-f-b^b-g(c'-b^b)$	$b^b$	$g$
5	$g-b^b-f-b^b-f(-e^b-g)$	$f$	$f$
6	$g-c'-b^b-g(-c')$	$b^b$	$g$
7	$g-c'-f-b^b(-c'-b^b)$	$b^b \cdot c'$	$b^b$
8	$g-c'-b^b-c'-g(-c'-b^b)$	$g \cdot c'$	$g$
9	$b^b-c'-b^b-f-c'-b^b(-b^b)$	$b^b$	$b^b$
10	$g-b^b-f-b^b-g(c'-b^b)$	$b^b$	$g$
11	$g-b^b-f-b^b-f(-e^b-g)$	$f$	$f$
12	제6악구와 동일		
13	$c'-b^b-c'-b^b-f-c'-b^b(-b^b)$	$b^b \cdot c'$	$b^b$
14	$b^b-f-c'-g-e^b(-f-g)$	$e^b \cdot f \cdot c'$	$e^b$
15	$c'-g-f-b^b(-c'-b^b)$	$g \cdot b^b$	$b^b$
16	$g-b^b-f-b^b-f-b^b(-b^b)$	$f \cdot b^b$	$b^b$
17	제2악구와 동일		
18	제3악구와 동일		
19	제4악구와 동일		
20	제5악구와 동일		
종합			

### 3) 시김새

<길군악>의 시김새는  $e^b$ (도),  $f$ (레),  $g$ (미),  $b^b$ (솔),  $c'$ (라) 다섯 음으로

나누어 살펴보겠다.

## ① e^b(도)

<길군악>의 e^b에서 나타나는 시김새는 아래 <악보 381>에서 보겠다.

### <악보 381> 길군악 e^b의 시김새

(돌장 5장)

대금

피리

(2장)

대금

피리

<길군악>에서 e^b은 일관된 시김새가 나타나지 않는다. 위의 <악보 381>에서 살펴보면 피리는 e^b으로 종지할 경우 e^b을 퇴성한다. 한편 e^b을 길게 지속하며 종지하는 경우는 시김새가 나타나지 않는다. 대금은 e^{b'}에서 농음을 하는 경우도 있으나 규칙적으로 나타나지 않는다. 대금은 장식음으로 e^{b'}-g'가 나타나며, 동음 진행하는 경우 g'가 장식음으로 나타난다.

## ② f(레)

<길군악>의 f에서 나타나는 시김새는 아래 <악보 382>에서 보겠다.

<악보 382> 길군악 f의 시김새



<길군악>에서 f는 항상 보통 농음을 한다. 위의 <악보 382>에서 살펴보면 f는 보통 농음을 하며, 장식음으로는 g가 나타나며, 대금은 e^b'-g', f'-g' 또한 장식음으로 나타난다.

③ g(미)

<길군악>의 g에서 나타나는 시김새는 아래 <악보 383>에서 보겠다.

<악보 383> 길군악 g의 시김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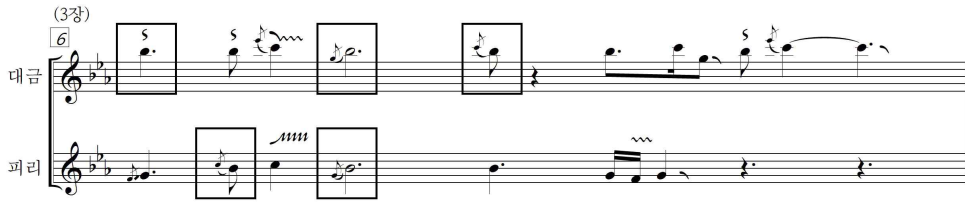
<길군악>에서 g는 각 장단에서 제1박의 출현 이외에는 대부분 퇴성을 한다. 대금과 피리는 g를 장단 첫 음으로 낼 때 f에서 끌어올려 낸다.²⁴²⁾

④ b^b(솔)

<길군악>의 b^b에서 나타나는 시김새는 아래 <악보 384>에서 보겠다.

242) 해금은 e^b에서부터 g를 끌어올려 낸다.

<악보 384> 길군악  $b^b$ 의 시김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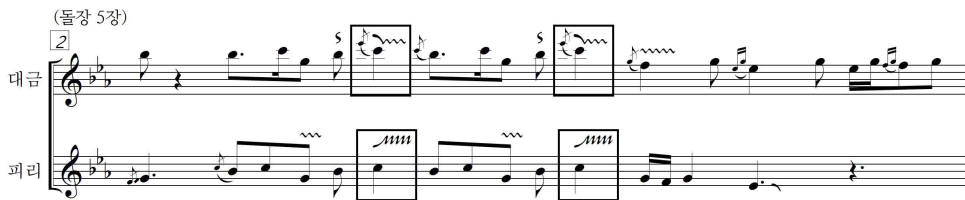


<길군악>에서  $b^b$ 은 농음이나 퇴성을 대부분 하지 않고 평으로 낸다. 위의 <악보 384>에서 살펴보면 대금과 피리는  $c'$ 에서  $b^b$ 으로 하행하는 경우  $b^b$ 앞에  $g$ 가 장식음으로 나타난다. 대금은  $b^b$ '이 대박의 첫 음으로 출현할 때 장식음으로  $b^b$ '- $d^b$ "이 나타난다. 또한 대금과 피리 모두 장식음으로  $c'$ 가 나타난다.

⑤  $c'$ (라)

<길군악>의  $c'$ 에서 나타나는 시김새는 아래 <악보 385>에서 보겠다.

<악보 385> 길군악  $c'$ 의 시김새



<길군악>에서  $c'$ 는 피리는 상행 농음을 하며, 대금은 하행 농음을 한다. 대금의 장식음으로는  $e^b$ ",  $b^b$ '- $e^b$ ",  $c$ "- $e^b$ "이 나타난다.

이상의 내용을 정리하면, <길군악>의 주요 시김새는 다음과 같다.  $e^b$ 은 일관된 시김새가 나타나지 않으며,  $f$ 는 항상 보통 농음을 한다.  $g$ 는 퇴성한다.  $b^b$ 은 평으로 낸다.  $c'$ 에서 피리는 상행 농음을 하며, 대금은

하행 농음을 한다. 더하여, 대금과 피리는 g를 장단 첫 음으로 낼 때 f에서 끌어올려 낸다.

시김새 중 장식음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e^b$ 의 장식음으로 대금은  $e^b$ -g'가 나타나며, 동음 진행하는 경우 g'가 장식음으로 나타난다. f의 장식음으로 대금과 피리는 g가 나타나며, 대금은  $e^b$ -g', f'-g' 또한 장식음으로 나타난다.  $b^b$ 의 장식음으로 대금과 피리는 c'에서  $b^b$ 으로 하행하는 경우 g가 나타난다. 또한 대금과 피리 모두  $b^b$ 의 장식음으로 c'가 나타나며, 대금은  $b^b$ -d^b"이 나타난다. c'의 장식음으로 대금은  $e^b$ ",  $b^b$ -e^b", c"-e^b"이 나타난다.

요컨대, <길군악>의 음계는 'e^b(도), f(레), g(미),  $b^b$ (솔), c'(라)'이다. 관용적 구조선율은 g- $b^b$ , g-c'- $b^b$ , f-c'- $b^b$ 이며, 이외에 관용적 선율형으로  $b^b$ -c'-g가 높은 빈도로 나타난다. 핵음은 e^b(도) · f(레) ·  $b^b$ (솔)이며, 종지음은 e^b(도) ·  $b^b$ (솔)이다.

g는 악구의 시작음 또는 경과음으로 나타난다. c'는 경과음으로 주로 나타난다.

주요 시김새는 다음과 같다. f는 보통 농음을 한다. g는 퇴성한다.  $b^b$ 은 평으로 낸다. c'에서 피리는 상행 농음을, 대금은 하행 농음을 한다. 또한 대금과 피리는 g를 장단 첫 음으로 낼 때 f에서 끌어올려 낸다.

시김새 중 주요 장식음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f의 장식음으로 대금은  $e^b$ -g'가 나타난다.  $b^b$ 의 장식음으로 대금과 피리는 c'에서  $b^b$ 으로 하행하는 경우 g가 나타난다. c'의 장식음으로 대금은  $e^b$ ",  $b^b$ -e^b"이 나타난다.

### (3) 별곡타령

<별곡타령>은 ≪삼현영산회상≫의 <별곡타령>과 동일하므로 생략한다.

## 라. 소결론

당악조의 음계²⁴³⁾는 ‘e^b(도)-f(레)-g(미)-b^b(솔)-c'(라)’이다. 종지는 e^b(도)²⁴⁴⁾에서 가장 안정된 종지감이 나타난다. 핵음은 e^b(도) · b^b(솔)²⁴⁵⁾이다. 주요 관용적 구조선율은 g-e^b, g-b^b으로 당악조의 구성음은 핵음으로 귀결하려는 성격을 보인다.

당악조는 염불조와 허튼타령조에 비해 시김새의 특성이 강하지 않으며 악곡마다 조금씩 다른 양상을 보인다. 당악조의 주요 시김새를 정리하자면 f(레)와 b^b(솔)의 보통농음, g의 퇴성, 그리고 낮은 음고에서 끌어올려내는 g의 시김새²⁴⁶⁾로 나타난다. 당악조의 장식음으로는 c'에서 단3도 위 음인 e^b'이 나타나며,²⁴⁷⁾ 대금은 b^b'-e^b" 또한 장식음으로 나타난다.

이외에 나타나는 당악조의 시김새는 다음과 같다.²⁴⁸⁾ e^b(도)은 주로 농음을 하지 않고, 하행 시 또는 종지 시 퇴성을 한다. 대금은 취타에서 f(레)를 하행 농음하기도 한다. <길군악>에서 b^b(솔)은 농음을 하지 않고 평으로 낸다. c'(라)는 퇴성 또는 보통 농음이 나타나고, <길군악>에서 피리는 상행 농음을 하고, 대금은 하행 농음을 한다.

이외에 당악조 구성음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g는 악구의 시작음 또는 경과음으로 나타난다. c'는 주로 경과음으로 나타난다. f는 <취타>와 <길군악>에서는 핵음으로 나타나며, <당악>과 <별곡타령>에서 경과음으로 나타난다.

즉, 당악조는 선율 전개에 시작에는 g(미)가 주로 나타나며, 핵음인 e^b

243) 악조의 음계 중 제1음은 경기 삼현육각의 모든 악곡에서 공통으로 나타나는 핵음인 e^b으로 한다.

244) <당악>과 <길군악>은 솔(b^b)에서, <취타>는 라(c)에서도 종지한다.

245) 당악조 악곡에서 주된 핵음은 e^b(도)과 b^b(솔)이다. 그러나 세부 악곡을 살펴보면 핵음이 조금씩 다르게 나타난다. <길군악>은 f(레)가 추가로 나타나고, <취타>는 c(라)와 f(레)가 추가로 나타나고 b^b(솔)은 핵음으로 나타나지 않는다.

246) g가 주로 악구의 첫 음으로 나타나는 경우 이러한 시김새가 나타난다.

247) 염불조에서는 c'의 장식음으로는 장2도 아래음인 b^b이 나타나 당악조와 장식음의 차이가 나타난다.

248) 당악조의 시김새는 음의 진행마다 또는 악곡별로 차이점이 있어 이를 위 문단에서 별도로 정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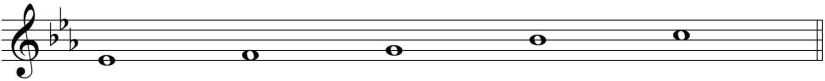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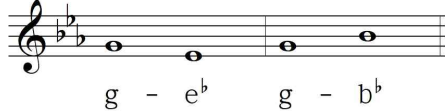


(도) · b^b(솔)을 중심으로 선율이 움직이다 e^b(도)으로 하행 시 종지감이 드는 성격의 악조이다. 또한 당악조는 악곡마다 핵음과 종지음 및 시김새가 상이한 점이 있다.

당악조에 해당하는 악곡은 《염불풍류》 중 <당악>, 《삼현영산회상》 중 <별곡타령>, 《취타풍류》 중 <취타>, <길군악>, <별곡타령>이다.

당악조의 음조식을 다음 [표 34]²⁴⁹⁾에서 보는 것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표 34] 당악조의 음조식

음계					
	e ^b (도)	f(레)	g(미)	b ^b (솔)	c'(라)
종지음	○				
핵음	○			○	
시김새		보통 놓음	퇴성, 끌어올려 냄	보통 놓음	장식음: e ^b , b ^b ·e ^b "(대)
구조 선율					

249) [표 34]에서 대금과 피리를 구분하는 경우 대금은 ‘대’, 피리는 ‘피’라고 서술하겠다. 악기의 구분이 없는 것은 대금과 피리에서 공통으로 나타나는 시김새이다. 대금과 피리 공통으로 나타나는 경우 피리의 음역으로 통일하였으며, 악기를 구분할 경우 각 악기의 음역에 맞추어 서술하였다.

## 4. 악조의 혼재 양상

본 절에서는 삼현육각 악곡에서 나타나는 악조의 혼재 양상을 살펴보고자 한다.²⁵⁰⁾ 경기 삼현육각은 본고의 분석 결과 세 가지 악조로 나타나며, 다른 악조로 넘어가는 경계에서 악조가 혼합되어 나타나기도 한다.

본 연구에서는 악곡에서 중심이 되는 음계 또는 비중이 크게 나타나는 음조직을 바탕 악조로 보고, 바탕 악조의 특징 외에 다른 악조의 특성이 혼합되어 나타나는 것을 혼재된 양상으로 분석하겠다.

악조의 혼재 양상은 엽불조 악곡에 허튼타령조가 혼재된 양상, 허튼타령조 악곡에 엽불조가 혼재된 양상, 엽불조 악곡에 당악조가 혼재된 양상, 당악조 악곡에 엽불조가 혼재된 양상의 네 가지 경우로 나타나며, 이에 대한 내용을 아래 항에서 살펴보겠다.

### 가. 엽불조 악곡에 허튼타령조가 혼재된 양상

엽불조 악곡에 허튼타령조가 혼재된 양상은 《엽불풍류》의 <삼현타령> 제1장단~제3장단, 《삼현영산회상》의 <대영산>, <엽불도드리> 제1장~제4장, <삼현타령> 제2장~제3장, 《취타풍류》의 <길타령>에서 나타난다. 본 항에서는 위 악곡에서 나타나는 악조의 혼재 양상을 살펴보겠다.

#### (1) 삼현타령 제1장 제1장단~제3장단

<삼현타령>은 제1장의 제1장단부터 제3장단까지 엽불조를 중심으로 허튼타령조의 악조가 혼합되어 나타난다. 이는 다음 <악보 386>²⁵¹⁾을 통

---

250) 제1절부터 제3절에서 전 악구의 분석을 하였으므로, 위 절에서 악조가 혼합되어 나타나는 양상에 대한 분석이 포함되어 있다. 이에 본 절에서는 이를 종합한 내용을 살펴보겠다.

해 살펴보겠다.

<악보 386> 엽불조 악곡에 허튼타령조가 혼재된 양상(삼현타령)

<삼현타령>에서 허튼타령조가 혼재된 양상은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제1악구(제1장단~제2장단)에서는 대금이 f를 낼 때 동시에 피리가 허튼타령조의 구성음인 g^b을 내며 퇴성하는 것, 피리가 a^b에서 상행농음을 하는 것, 허튼타령조의 핵음인 B^b이 핵음으로 나타나는 것, <느린허튼타령>의 구조선을 a^b-e^b-g^b 출현으로 나타난다. 제2악구(제3장단)에서는 허튼타령조의 구성음 g^b과 d^b의 출현, 피리가 a^b에서 상행농음을 하는 것, b^b에서 농음하지 않고 평으로 내며 핵음으로 나타나는 것, 허튼타령조의 구조선을 b^b-g^b 출현, g^b을 퇴성하며 종지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와 같은 양상으로 허튼타령조가 혼합되어 나타난 후, 다음 장단인 <삼현타령> 제4장단부터 허튼타령조로 온전하게 악조가 바뀐다.

이를 정리하면 다음 [표 35]²⁵²⁾에서 보는 것과 같다.

251) 흰 바탕의 네모는 다른 악조의 출현음, 시김새, 종지음을 포함하며, 색이 채워진 네모는 다른 악조의 핵음이다. 점선의 네모는 다른 악조의 출현음과 같은 기능을 하는 바탕 악조의 출현음이다.

252) 표의 음조직(출현음, 시김새, 핵음, 구조선율, 종지음) 나열의 순서는 혼재 양상이 나타나는 빈도가 높은 순서로 정렬하였다.

[표 35] 염불조 악곡에 허튼타령조가 혼재된 양상(삼현타령)

음조직 출현 악구	출현음	시김새	핵음	구조선율	종지음
1					
2					

※범례  : 허튼타령조가 혼재된 양상

## (2) 대영산

<대영산>은 제6악구, 제7악구, 제12악구, 제13악구에서 허튼타령조가 혼합되는 양상이 나타난다. 허튼타령조가 혼재된 양상은 다음 제13악구의 <악보 387>를 통해 살펴보겠다.

<악보 387> 염불조 악곡에 허튼타령조가 혼재된 양상(대영산)

<대영산>에서 허튼타령조가 혼재된 양상은 다음과 같다. 제6악구에서는 피리가 허튼타령조의 구성음  $g^b$ 을 내며 퇴성하는 것, 허튼타령조의 핵음인  $b^b$ 이 악구의 핵음으로 나타나는 것, 허튼타령조의 구조선율  $b^b$ - $g^b$ 의 출현, 피리에서 종지음으로  $g^b$ 이 출현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제7악구에서는 피리가  $g^b$ 을 내며 퇴성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제12악구에서는 피리가  $g^b$ 을 경과음으로 내는 것으로 나타난다. 제13악구에서는 대금과

피리가 동시에  $g^b$ 을 내며 두 박을 지속한 후 퇴성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와 같은 양상으로 허튼타령조가 혼합되어 나타난 후, 다음 악곡인 <중영산>에서 악조가 바뀐다.

이를 정리하면 다음 [표 36]에서 보는 것과 같다.

[표 36] 엽불조 악곡에 허튼타령조가 혼재된 양상(대영산)

음조 출현 악구	출현음	시김새	핵음	구조선율	종지음
6					
7					
12					
13					

※범례  : 허튼타령조가 혼재된 양상

### (3) 엽불도드리 제1장~제4장

<엽불도드리>는 제5악구, 제8악구, 제9악구, 제10악구, 제11악구, 제12악구, 제13악구, 제14악구, 제15악구, 제16악구, 제17악구에서 허튼타령조가 혼재되는 양상이 나타난다. 허튼타령조가 혼재된 양상은 다음 제12악구의 <악보 388>를 통해 살펴보겠다.

<악보 388> 엽불조 악곡에 허튼타령조가 혼재된 양상(엽불도드리)

<엽불도드리>에서 허튼타령조가 혼재된 양상은 다음과 같다. 제5악구에서는 대금의  $d^b$  (출현²⁵³⁾, 피리가  $g^b$ 을 내며 퇴성하는 것²⁵⁴⁾, 그리고

253) 피리가  $e^b$ 으로 진행할 때 대금이  $d^b$ 으로 진행하는 것은 허튼타령조의 진

허튼타령조의 핵음  $b^b$ 이 핵음으로 나타나는 것, 허튼타령조의 구조선을  $b^b$ - $g^b$ ,  $b^b$ - $e^{b'}$ 의 출현으로 나타낸다. 제8악구에서는 피리가  $g^b$ 에서  $a^b$ 까지 음을 미끄러지듯 끌어올리는 시김새가 나타난다. 제9악구와 제10악구에서는 피리가  $g^b$ 을 내며 퇴성하는 것²⁵⁵⁾으로 나타난다. 제11악구와 제13악구에서는 대금의  $d^{b''}$  출현, 피리의  $g^b$  출현²⁵⁶⁾과 퇴성, 허튼타령조의 핵음  $b^b$ 이 핵음으로 출현으로 나타난다. 제12악구에서는 대금과 피리의  $d^{b'}$  출현과 피리의  $d^{b'}$  추성, 그리고 허튼타령조의 핵음  $b^b$ 의 출현, 허튼타령조의 구조선을  $b^b$ - $e^{b'}$ ,  $d^{b'}$ - $g^b$ 의 출현, 피리의  $g^b$  퇴성이 종지음으로 출현²⁵⁷⁾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제14악구에서는 피리의  $g^b$  출현과 대금·피리의  $d^{b'}$  출현, 그리고 대금의  $d^{b''}$  퇴성, 허튼타령조의 핵음  $b^b$ 이 핵음으로 출현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제15악구는 피리의  $d^{b'}$  출현과 추성으로 나타난다. 제16악구는 피리의  $g^b$  출현으로 나타난다. 제4장의 마지막 악구인 제17악구는 대금 또한 피리와 함께  $g^b$ 이 출현하고,  $g^b$ 을 퇴성한다. 또한 허튼타령조의 핵음  $b^b$ 이 핵음으로 출현한다. 이와 같은 양상으로 허튼타령조가 혼합되어 나타난 후, 제18악구인 제5장부터 허튼타령조로 온전하게 조가 바뀐다.

이를 정리하면 다음 [표 37]에서 보는 것과 같다.

[표 37] 염불조 악곡에 허튼타령조가 혼재된 양상(염불도드리)

음조직 출현 악구	출현음	시김새	핵음	구조선율	종지음
5					
8, 9, 10, 15					
11, 13, 14, 17					
12					
16					

※범례  : 허튼타령조가 혼재된 양상

행과 같다.

254) 이때 동시에 대금은  $a^{b'}$ 을 낸다.

255) 이때 대금은 제9악구에서  $a^{b'}$ 으로 제10악구에서  $f$ 로 진행한다.

256) 이때 대금은  $f$ 로 진행한다.

257) 이때 대금은  $a^{b'}$ 으로 진행하여 종지한다.

#### (4) 삼현타령 제2장~제3장

<삼현타령> 제2장~제3장은 <삼현타령>의 제7악구부터 제17악구에 해당된다. 그 중 제7악구~제8악구, 제10악구~제13악구, 제15악구~제16악구에서 허튼타령조가 혼합되는 양상이 나타난다. 허튼타령조가 혼재된 양상은 다음 제10악구의 <악보 389>를 통해 살펴보겠다.

<악보 389> 염불조 악곡에 허튼타령조가 혼재된 양상(삼현타령)



<삼현타령> 제2장~제3장에서 허튼타령조가 혼재된 양상은 다음과 같다. 제7악구와 제10악구에서는 피리가  $e^b$ '으로 진행할 때 대금이  $d^b$ ''으로 진행하는 것²⁵⁸⁾, 대금의  $g^b$ ' 출현²⁵⁹⁾, 허튼타령조의 핵음인  $b^b$ 이 핵음으로 등장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제8악구에서는 대금의  $g^b$ ' 퇴성²⁶⁰⁾,  $b^b$ 이 핵음으로 등장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제11악구에서는 피리가  $e^b$ '으로 진행할 때 대금이  $d^b$ ''으로 진행하는 것,  $b^b$ 이 핵음으로 나타나는 것, 대금이  $g^b$ ' 퇴성으로 종지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제12악구와 제15악구에서는 피리가  $e^b$ '으로 진행할 때 대금이  $d^b$ ''으로 진행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제13악구와 제16악구에서는 피리가  $e^b$ '으로 진행할 때 대금이  $d^b$ ''으

258) 이는 허튼타령조에서만 나타나는 양상으로  $d^b$ '과  $e^b$ '모두 위 악곡의 구성음에 속하지만, 이 두 음이 피리와 대금에서 각각 동시에 울리는 경우를 본고에서는 허튼타령조의 특징으로 분석하였다. 이에 이러한 진행이 염불조에서 나타나는 경우 허튼타령조가 혼합되어 나타나는 양상으로 본다. [표]에서는 이러한 진행을 '출현음'에 포함하여 살펴보겠다.

259) 이때 피리는 f를 낸다.

260) 이때 피리는 f를 퇴성한다.

로 진행하는 것, 피리의  $d^b$  추성과  $g^b$  퇴성, 그리고  $b^b$ 이 핵음으로 등장하는 것, 허튼타령조의 구조선율  $d^b$ - $g^b$ 의 출현으로 나타난다. <삼현타령> 제2장과 제3장은 허튼타령조의 핵음인  $b^b$ 의 비중이 높아 염불조의 핵음과 비등하게 나타나는 것이 특징이다. 이와 같은 양상으로 제2장과 제3장 전반에 걸쳐 허튼타령조가 혼합되어 나타난 후, 돌장에서는 당악조가 혼합되고 이후 당악조 악곡인 <별곡타령>으로 이어진다.

이를 정리하면 다음 [표 38]에서 보는 것과 같다.

[표 38] 염불조 악곡에 허튼타령조가 혼재된 양상(삼현타령)

음조직 출현 악구	출현음	시김새	핵음	구조선율	종지음
7, 10					
8					
13, 16					
11					
12, 15					

※범례  : 허튼타령조가 혼재된 양상

## (5) 길타령

<길타령>은 제6악구(제9장단~제10장단) 중 제9장단에서 허튼타령조가 혼합되는 양상이 나타난다. 허튼타령조가 혼재된 양상은 다음 제6악구의 <악보 390>를 통해 살펴보겠다.

<악보 390> 염불조 악곡에 허튼타령조가 혼재된 양상(길타령)

(2장)

대금

피리



<길타령>에서 허튼타령조가 혼재된 양상은 다음과 같다. 피리가  $e^b$ '으로 진행할 때 대금이  $d^b$ '으로 진행하여  $d^b$ '을 퇴성하는 것, 그리고 피리 선율에서 허튼타령조의 구조선율  $b^b-e^b$ '이 등장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를 정리하면 다음 [표 39]에서 보는 것과 같다.

[표 39] 염불조 악곡에 허튼타령조가 혼재된 양상(길타령)

음조직 출현 악구	출현음	시김새	핵음	구조선율	종지음
6					

※범례  : 허튼타령조가 혼재된 양상

이상의 내용을 정리하면, 염불조 악곡에서 나타나는 허튼타령조의 혼재 양상은 허튼타령조의 구성음인  $g^b$  또는  $d^b$ '의 출현, 허튼타령조의 시김새인  $g^b$ 의 퇴성· $a^b$ 의 상행농음²⁶¹⁾·피리의  $d^b$ ' 추성의 출현, 허튼타령조의 핵음인  $b^b$ 이 핵음으로 나타나며 평으로 내는 것, 허튼타령조의 관용적 구조선율인  $e^b-g^b \cdot b^b-g^b \cdot b^b-e^b$ '의 등장으로 나타난다. 종지는 대부분 바탕 악조인 염불조의 종지음이 나타나지만, 예외로 허튼타령조의 종지음  $g^b$ 이 나타나기도 한다.

혼재 양상이 나타나는 악곡은 다음과 같다. <염불도드리> 제1장~제4장, <삼현타령> 제2장~제3장에서 넓은 범위에 걸쳐 나타나며, 이외에 <삼현타령> 제1장 제1장단~제3장단, <대영산>, 그리고 <길타령>에서도 다소 나타난다.

<염불도드리>는 제3장과 제4장의 전반에 걸쳐 악조가 혼합되는 양상이 나타난 후 제5장부터 허튼타령조로 바뀐다. <대영산>은 제4장의 두 번째 장단에서  $g^b$ 의 출현과 퇴성으로 다음 악곡인 <중영산>부터 허튼타령조로 바뀌게 될 암시를 한다. <삼현타령> 제1장 제1장단~제3장단은 점차 허튼타령조가 혼합되어 나타나며, 제4장단부터 허튼타령조로 완전

261)  $a^b$ 의 상행농음은 <염불풍류> 악곡에만 해당된다.

히 바뀌게 된다. 한편, <삼현타령> 제2장~제3장은 악곡 전반에 걸쳐 악조가 혼합되는 형태가 나타나며, 허튼타령조인 <삼현타령> 제1장²⁶²⁾에서 엽불조인 제2장으로 조가 바뀌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혼재 양상으로 볼 수 있다. <길타령>은 악곡의 중간에 조변화가 짧게 나타나 악곡에 긴장을 주는 역할을 하며, 이는 앞뒤에 진행되는 악조와의 관련성은 없다.

요컨대, 엽불조 악곡에 허튼타령조가 혼재된 양상은 허튼타령조의 출현음의 등장이 가장 높은 빈도로 나타나며 다음으로 허튼타령조의 시김새, 핵음, 구조선을 순으로 나타난다. 종지음은 대체로 바탕 악조인 엽불조의 종지음이 나타난다. 또한 허튼타령조가 혼재되는 양상이 나타나는 위치는 엽불조의 악곡에서 허튼타령조의 악곡으로 진행하기 전, 허튼타령조의 선율에서 엽불조로 진행한 후, 그리고 엽불조 악곡에서 긴장을 줄 때 나타난다.

## 나. 허튼타령조 악곡에 엽불조가 혼재된 양상

허튼타령조 악곡에 엽불조가 혼재된 양상은 《삼현영산회상》 중 <중영산>, <жат영산>, <삼현도드리>, <삼현타령> 제1장에서 나타난다. 본 항에서는 위 악곡에서 나타나는 악조의 혼재 양상을 살펴보겠다.

### (1) 중영산

<중영산>은 전 악구에 걸쳐 엽불조가 혼합되는 양상이 나타난다. 엽불조가 혼재된 양상은 다음 제2악구의 <악보 391>를 통해 살펴보겠다.

---

262) <삼현영산회상>의 <삼현타령> 제1장과 <취타풍류> 또는 <엽불풍류>의 <삼현타령> 제1장은 그 선율이 다르지만 모두 제2장으로 넘어가기 전의 선율은 허튼타령조가 중심이다.

<악보 391> 허튼타령조 악곡에 염불조가 혼재된 양상(중영산)

<중영산>에서 염불조가 혼재된 양상은 다음과 같다. <중영산>은 전 악구에서 <대영산>의 핵음인  $a^b$ ,  $e^b$ 이 나타나고, 염불조의 종지음인  $a^b$ 에서 종지감²⁶³⁾이 나타나므로 악곡 전반에 걸쳐 염불조가 혼합되어있음을 알 수 있다. 제1악구, 제6악구에서는 대금과 피리가  $b^b$ 을 하행농음 또는 퇴성하는 것,  $a^b$ 을 평으로 내는 것, 염불조의 구조선을  $b^b$ - $a^b$ 의 출현으로 나타난다. 제2악구와 제13악구에서는 제1악구의 내용에 더하여 피리에서 염불조의 구성음  $f$ 의 출현이 나타난다.  $f$ 는 퇴성, 또는 더름 주법의 장식음으로 나타난다. 또한 염불조의 구조선을  $e^b$ - $a^b$ 이 나타난다. 제3악


263)  $a^b$ 으로 종지하는 선율도 있으며, <중영산>의 완전종지는  $a^b$ 에서 종지감을 준 후 이어진  $g^b$ 에서 종지한다.

구, 제4악구, 제9악구에서는 피리가  $b^b$ 을 퇴성하는 염불조의 시김새와 염불조의 구조선을  $b^b-a^b$ 이 나타난다. 제5악구는 제3악구의 내용에 더하여 피리에서 염불조의 구성음인  $f$ 의 출현이 나타난다.  $f$ 는 퇴성, 또는 더름 주법의 장식음으로 나타난다. 또한 염불조의 구조선을  $e^b-a^b$ 이 나타난다. 제7악구와 제12악구는 제1악구의 내용에 더하여  $f$ 가 장식음으로 출현하며, 피리는 더름 주법으로 연주한다. 또한 염불조의 구조선을  $e^b-a^b$ 이 나타난다. 제8악구는 피리의  $b^b$  퇴성으로 염불조의 시김새가 나타난다. 제10악구에서는 대금이  $b^b$ 을 하행농음하는 염불조의 진행을 보이고,  $f$ 가 장식음으로 출현하는 반면 피리는 허튼타령조의 특징만을 보인다. 제11악구에서는 피리가  $b^b$ 을 퇴성하고, 염불조의 구조선을  $b^b-a^b$ ,  $e^b-a^b$ 이 등장하는 반면 대금은 허튼타령조의 특징만을 보인다.

이를 정리하면 다음 [표 40]에서 보는 것과 같다.

[표 40] 허튼타령조 악곡에 염불조가 혼재된 양상(중영산)

음조직 출현 악구	출현음	시김새	핵음	구조선율	종지음
1, 3, 4, 6, 9, 11					
2, 5, 7, 12, 13					
8					
10					

※범례  : 염불조가 혼재된 양상

## (2) 잣영산

<잣영산>은 제1악구~제3악구, 제6악구, 제8악구~제15악구에서 염불조가 혼합되는 양상이 나타난다. 염불조가 혼재된 양상은 다음 제2악구의 <악보 392>를 통해 살펴보겠다.

<악보 392> 허튼타령조 악곡에 염불조가 혼재된 양상(жат영산)


<жат영산>에서 염불조가 혼재된 양상은 다음과 같다. 제1악구에서는 피리에서 더름 주법으로  $f$ 가 출현하는 것, 대금과 피리가  $b^b$ 을 하행농음 또는 퇴성하는 것, 염불조의 구조선을  $a^b-e^b$ ,  $b^b-a^b$ 이 등장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제2악구, 제8악구, 제11악구에서는 피리에서 더름 주법으로  $f$ 가 출현하는 것, 염불조의 핵음  $a^b$ 이 등장하는 것, 염불조의 구조선을  $e^b-a^b$ 이 등장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제3악구, 제6악구, 제9악구, 제13악구에서는 염불조의 핵음  $a^b$ 이 등장하는 것, 염불조의 구조선을  $e^b-a^b$ 이 등장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제10악구, 제12악구, 제14악구, 제15악구에서는 염불조의 핵음  $a^b$ 이 등장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жат영산>은 이와 같은 양상으로 염불조가 혼합되며 후반부로 갈수록 혼합되는 양상이 줄어든다.

<жат영산>은 바탕 악조의 핵음인  $b^b$ 이 핵음으로 등장하고, 종지음으로 염불조의 종지음인  $a^b$ 이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중영산>보다 허튼타령조의 비중이 더 높아진 것을 알 수 있다. 이후 다음 악곡인 <삼현도드리>에서는 온전한 허튼타령조로 진행한다.

이를 정리하면 다음 [표 41]에서 보는 것과 같다.

[표 41] 허튼타령조 악곡에 염불조가 혼재된 양상(작영산)

음조식 출현 악구	출현음	시김새	핵음	구조선율	종지음
1					
2, 8, 11					
3, 6, 9, 13					
10, 12, 14, 15					

※범례  : 염불조가 혼재된 양상

### (3) 삼현도드리

<삼현도드리>는 제4장의 제12악구, 제13악구, 제14악구에서 염불조가 혼합되는 양상이 나타난다. 염불조가 혼재된 양상은 다음 제12악구의 <악보 393>를 통해 살펴보겠다.

<악보 393> 허튼타령조 악곡에 염불조가 혼재된 양상(삼현도드리)

(4장)



<삼현도드리>에서 염불조가 혼재된 양상은 다음과 같다. 제12악구에서는 염불조의 구성음 f의 출현, b^b을 퇴성하는 것, 염불조의 핵음과 종지음인 a^b이 핵음과 종지음으로 등장하는 것, 염불조의 구조선율 b^b-a^b이 등장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제13악구에서는 f의 출현, 대금이 b^b을 퇴성하는 것, 염불조의 핵음 a^b이 등장하는 것, 염불조의 구조선율 b^b-a^b, a^b-e^b이 등장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제14악구에서는 피리에서 더름 주법으로 f가 출현하는 것과 b^b을 퇴성하는 것, 염불조의 구조선율 b^b-a^b이 등장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반면 대금은 허튼타령조의 진행만을 보인다.

<삼현도드리>의 혼재 양상은 짧은 구간에서 나타나며, 이는 악곡의 변

화를 주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를 정리하면 다음 [표 42]에서 보는 것과 같다.

[표 42] 허튼타령조 악곡에 엮불조가 혼재된 양상(삼현도드리)

음조직 출현 악구	출현음	시김새	핵음	구조선율	종지음
12					
13					
14					

※범례  : 엮불조가 혼재된 양상

#### (4) 삼현타령 제1장

《삼현영산회상》의 <삼현타령> 제1장은 제1악구, 제3악구, 제4악구, 제6악구에서 엮불조가 혼합되는 양상이 나타난다. 엮불조가 혼재된 양상은 다음 제1악구의 <악보 394>를 통해 살펴보겠다.

<악보 394> 허튼타령조 악곡에 엮불조가 혼재된 양상(삼현타령)


(1장)

《삼현영산회상》의 <삼현타령> 제1장에서 엮불조가 혼재된 양상은 다음과 같다. 제1악구는 피리의 더름 주법으로 f가 출현하는 것, 엮불조의 핵음 a^b이 등장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제3악구에서는 대금이 b^b을 하행농음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제4악구, 제6악구에서는 피리의 더름 주법으로 f가 출현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삼현타령> 제1장은 혼재 양상이 약하게 나타나며, 제2장부터 엮불조로 바뀐다.

이를 정리하면 다음 [표 43]에서 보는 것과 같다.

[표 43] 허튼타령조 악곡에 엽불조가 혼재된 양상(삼현타령)

음조직 출현 악구	출현음	시김새	핵음	구조선율	종지음
1					
3					
4, 6					

※범례  : 엽불조가 혼재된 양상

이상의 내용을 정리하면, 허튼타령조 악곡에 엽불조가 혼재된 양상은 엽불조의 구성음인 f의 출현, 엽불조의 시김새인 f의 퇴성,  $b^b$ 의 하행농음 또는 퇴성, 피리가  $a^b$ 을 농음하지 않고 평으로 내는 것, 엽불조의 핵음인  $a^b$ 이 핵음으로 나타나는 것, 엽불조의 관용적 구조선율인  $e^b - a^b \cdot a^b - e^b \cdot b^b - a^b$ 의 등장으로 나타난다. 종지음은 대체로 바탕 악조인 허튼타령조의 종지음이 나타나나 <중영산>에서 예외적으로 엽불조의 종지음인  $a^b$ 에서 종지감이 나타난다.

허튼타령조 악곡에 엽불조가 혼재된 양상은 《삼현영산회상》에서만 나타난다. 이는 <중영산>, <жат영산>에서 넓은 범위에 걸쳐 나타나며, 이외에 <삼현도드리> 제4장과 <삼현타령> 제1장에서는 간략하게 나타난다.

<중영산>은 악곡의 전반에 걸쳐 악조가 혼합되는 양상이 고루 분포해 있으며, 이에 비해 <жат영산>은 엽불조가 혼합되는 양상의 비중이 축소된다. 종지음을 살펴보면 <중영산>은 엽불조의 종지음  $a^b$ (레)과 허튼타령조의 종지음인  $g^b$ (도)이 혼합되어 나타나며, <жат영산>은 허튼타령조의 종지음인  $g^b$ (도)과  $b^b$ (미)이 나타난다. 또한 <중영산>의 핵음은  $a^b$ (레)과  $e^b$ (라)으로 엽불조인 <대영산>과 동일한 핵음이 나타나며, <жат영산>의 핵음은 <대영산>의 핵음에 허튼타령조의 핵음인  $b^b$ (미)이 더해져 <중영산>보다 허튼타령조의 비중이 높아진 것을 알 수 있다. 이후 <삼현도드리>에서는 온전한 허튼타령조로 진행된다. 위 내용을 종합하면 엽불조인 <대영산>에서 허튼타령조인 <삼현도드리>까지 도달하는 과정이 <중영



산>과 <잣영산>에서 악조가 혼재되는 양상으로 서서히 진행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요컨대, 허튼타령조 악곡에 엮불조가 혼재된 양상에서 네 가지 혼재 양상(출현음, 시김새, 핵음, 구조선율)의 빈도는 비등하게 나타난다. 종지음은 대부분 바탕 악조인 허튼타령조의 종지음이 나타나지만, <중영산>에서는 모든 악구에서 엮불조의 종지음이 혼합되어 나타난다. 혼재 양상은 《삼현영산회상》에서 나타나며, 주로 엮불조에서 허튼타령조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나타난다. 또한 악곡의 변화를 줄 때와 허튼타령조에서 엮불조로 바뀌기 전의 경계에서는 혼재 양상이 간략하게 나타난다.

## 다. 엮불조 악곡에 당악조가 혼재된 양상

엮불조 악곡에 당악조가 혼재된 양상은 《삼현영산회상》의 <삼현타령> 돌장에서 나타난다. 본 항에서는 위 악곡에서 나타나는 악조의 혼재 양상을 살펴보겠다.

### (1) 삼현타령 돌장

<삼현타령> 돌장은 제18악구, 제19악구이며 당악조가 혼합되는 양상이 나타난다. 당악조가 혼합되는 양상은 다음 제18악구의 <악보 395>를 통해 살펴보겠다.

<악보 395> 엮불조 악곡에 당악조가 혼재된 양상(삼현타령 돌장)

(돌장)

25

대금

피리

<삼현타령> 돌장에서 당악조가 혼재된 양상은 다음과 같다. 제18악구에서는 당악조의 구성음 c의 출현, 피리가 f에서 보통 농음을 하는 것, 당악조의 핵음 B^b이 핵음으로 등장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제19악구에서는 당악조의 구성음 c와 g의 출현, f와 b^b에서 보통 농음을 하는 것, 당악조의 핵음 b^b이 핵음으로 등장하는 것, <별곡타령>의 구조선율 b^b-e^b의 등장으로 나타난다. 그리고 돌장의 최종 종지는 당악조의 종지음 e^b으로 나타난다. <삼현타령> 돌장은 이와 같은 양상으로 당악조가 혼합되어 나타나며, 이후 당악조 악곡인 <별곡타령>이 이어진다.

이를 정리하면 다음 [표 44]에서 보는 것과 같다.

[표 44] 엽불조 악곡에 당악조가 혼재된 양상(삼현타령 돌장)

음조직 출현 악구	출현음	시김새	핵음	구조선율	종지음
18					
19					

※범례  : 당악조가 혼재된 양상

이상의 내용을 정리하면, 엽불조 악곡에 당악조가 혼재된 양상은 당악조의 구성음인 c와 g의 출현, 당악조의 시김새인 f와 b^b의 보통 농음, 당악조의 핵음인 b^b이 핵음으로 등장하는 것, 당악조의 구조선율 b^b-e^b의 등장으로 나타난다. 또한 마지막 악구의 종지음은 당악조의 종지음 e^b으로 나타난다.

엽불조 악곡에 당악조가 혼재된 양상은 조가 변화되는 경계에서 매우 짧게 나타난다. 이는 엽불조와 허튼타령조가 혼합되어 나타나는 악곡인 <삼현타령>에서 당악조 악곡인 <별곡타령>으로 넘어가기 위한 <삼현타령> 돌장에서 나타난다.

요컨대, 엽불조 악곡에 당악조가 혼재된 양상은 당악조의 출현음, 시김새, 핵음, 구조선율의 등장으로 나타나며, 최종 종지는 당악조의 종지음으로 한다. 혼자 양상이 나타나는 위치는 당악조 악곡으로 이동하는 경

계에서 나타난다.

## 라. 당악조 악곡에 염불조가 혼재된 양상

당악조 악곡에 염불조가 혼재된 양상은 <별곡타령>의 마지막 장단에  
서 나타난다. 본 항에서는 위 악곡에서 나타나는 악조의 혼재 양상을 살  
펴보겠다.

### (1) 별곡타령

<별곡타령>은 마지막 장단인 제28악구에서 염불조가 등장한다. 염불조  
가 혼합되는 양상은 다음 제28악구의 <악보 396>를 통해 살펴보겠다.

<악보 396> 당악조 악곡에 염불조가 혼재된 양상(별곡타령)

<별곡타령>에서 염불조가 혼재된 양상은 염불조의 시김새인  $b^b$ 을 하  
행 놓음하는 것, 염불조의 구성음인  $a^b$ 이 핵음과 종지음으로 나타나는  
것, 염불조의 구조선율  $b^b$ - $a^b$ 이 등장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별곡타령>  
은 이와 같은 양상으로 염불조가 나타나며, 이후 악곡을 마친다.

이를 정리하면 다음 [표 45]에서 보는 것과 같다.

[표 45] 당악조 악곡에 엽불조가 혼재된 양상(별곡타령)

음조직 출현 악구	출현음	시김새	핵음	구조선율	종지음
28					

※범례  : 엽불조가 혼재된 양상

이상의 내용을 정리하면, 당악조 악곡에서 엽불조가 혼재된 양상은 엽불조의 시김새인  $b^b$ 의 하행 농음, 엽불조의 구성음인  $a^b$ 이 핵음과 종지음으로 나타나는 것, 엽불조의 구조선율인  $b^b$ - $a^b$ 의 등장으로 나타난다. 이는 <별곡타령>의 마지막 장단에서 나타나며, <별곡타령>은 엽불조에서 악곡을 마친다.²⁶⁴⁾

요컨대, 당악조 악곡에 엽불조가 혼재된 양상은 다섯 가지 양상이 모두 나타난다. 혼재 양상이 나타나는 위치는 <별곡타령>의 최종 종지에서 나타난다.

## 마. 소결론

본 절에서는 악곡에서 중심이 되는 음계 또는 비중이 크게 나타나는 음조직을 바탕 악조로 보고, 바탕 악조의 특징과 동시에 다른 악조의 특징이 혼합되어 나타나는 것을 혼재된 양상으로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경기 삼현육각에서 나타나는 악조의 혼재 양상은 네 가지로 나타난다.

첫째, 엽불조 악곡에 허튼타령조가 혼재된 양상은 허튼타령조의 구성음인  $g^b$  또는  $d^b$ 의 출현, 허튼타령조의 시김새인  $g^b$ 의 퇴성· $a^b$ 의 상행

264) <<삼현영산회상>>과 <<취타풍류>>는 <별곡타령>으로 악곡을 마치므로 마지막 악곡은 당악조의 악곡이지만 최종 종지는 엽불조로 한다. <<엽불풍류>>의 마지막 악곡은 당악조인 <당악>이지만 <당악>을 마친 후 엽불조인 <굿거리>의 앞 세 장단을 연주하며 최종 종지하여 이 또한 엽불조 종지로 끝나게 된다. 이를 통해 경기 삼현육각에서 가장 안정된 종지감을 주는 악조가 엽불조라는 해석이 가능하다.

농음 ·  $b^b$ 을 평으로 내는 것 · 피리의  $d^b$  추성의 출현, 허튼타령조의 핵음인  $b^b$ 이 핵음으로 나타나는 것, 허튼타령조의 관용적 구조선율인  $e^b$ - $g^b$  ·  $b^b$ - $g^b$  ·  $b^b$ - $e^b$ 의 등장, 허튼타령조의 종지음  $g^b$ 이 종지음으로 출현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양상은 염불조의 악곡에서 허튼타령조의 악곡으로 진행하기 전, 허튼타령조의 선율에서 염불조로 진행한 후, 그리고 염불조 악곡의 긴장을 줄 때 나타난다. 이는 <염불도드리> 제1장~제4장, <삼현타령> 제2장~제3장, <삼현타령> 제1장 제1장단~제3장단, <대영산>, <길타령>에서 나타난다.

둘째, 허튼타령조 악곡에 염불조가 혼재된 양상은 염불조의 구성음인  $f$ 의 출현, 염불조의 시김새인  $f$ 의 퇴성 ·  $a^b$ 을 평으로 내는 것 ·  $b^b$ 의 하행 농음 또는 퇴성, 염불조의 핵음인  $a^b$ 이 핵음으로 나타나는 것, 염불조의 관용적 구조선율인  $e^b$ - $a^b$  ·  $a^b$ - $e^b$  ·  $b^b$ - $a^b$ 의 등장, 염불조의 종지음인  $a^b$ 에서 종지감이 드러나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양상은 주로 염불조에서 허튼타령조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나타난다. 또한 악곡의 변화를 줄 때와 허튼타령조에서 염불조로 바뀌기 전의 경계에서는 혼재 양상이 간략하게 나타난다. 이는 <중영산>, <жат영산>, <삼현도드리> 제4장, <삼현타령> 제1장에서 나타난다.

셋째, 염불조 악곡에 당악조가 혼재된 양상은 당악조의 구성음인  $c$ 와  $g$ 의 출현, 당악조의 시김새인  $f$ 와  $b^b$ 의 보통 농음, 당악조의 핵음인  $b^b$ 이 핵음으로 나타나는 것, 당악조의 구조선율  $b^b$ - $e^b$ 의 등장, 당악조의 종지음  $e^b$ 이 종지음으로 출현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양상은 악조가 변화되는 경계에서 매우 짧게 나타난다. 이는 <삼현타령> 둘장에서 나타난다.

넷째, 당악조 악곡에 염불조가 혼재된 양상은 염불조의 시김새인  $b^b$ 의 하행 농음, 염불조의 구성음 · 핵음 · 종지음인  $a^b$ 이 핵음과 종지음으로 나타나는 것, 염불조의 구조선율인  $b^b$ - $a^b$ 의 등장으로 나타난다. 이는 <별곡타령>의 마지막 장단에서 나타난다.

요컨대, 혼재 양상은 타 악조의 출현을 혼합이 가장 높은 빈도로 나타나고, 다음으로 시김새, 핵음, 구조선율 순으로 나타난다. 종지음은 대부

분 바탕 악조의 종지음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혼재된 악조로 조변화되기 직전 악구에서는 타 악조의 종지음이 나타난다. 혼재 양상이 나타나는 위치는 악조가 바뀌는 경계선의 바로 직전이나 직후에 많이 나타난다. 또한 염불조와 허튼타령조의 악곡에서는 악곡의 변화 또는 긴장을 줄 때 혼재 양상이 나타나기도 한다. 예외로 <삼현타령> 2~3장과 <중영산>에서는 악곡의 전반에 걸쳐 혼재 양상이 나타나며, 당악조 악곡에 염불조가 혼재된 양상은 악곡의 최종 종지 시에 나타난다.

## 5. 경기 삼현육각의 악조 전개 양상

경기 삼현육각의 세 모음곡 《염불풍류》, 《삼현영산회상》, 《취타풍류》는 세 가지 악조로 구성되며, 세 모음곡의 악조 전개 양상은 다음과 같다.

《염불풍류》와 《삼현영산회상》은 염불조의 악곡으로 시작하여 허튼타령조와 염불조의 악곡을 거쳐 마지막 악곡은 당악조이며, 완전한 종지는 염불조에서 한다. 《취타풍류》는 당악조의 악곡으로 시작하여 염불조와 허튼타령조의 악곡을 거쳐 마지막 악곡은 당악조이며, 완전한 종지는 염불조에서 한다. 세 모음곡 모두 마지막 악곡은 당악조이며, 최종 종지는 모두 염불조로 나타나는 것이 특징적이다.

이를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염불풍류》는 염불조 악곡인 <긴염불>로 시작하여 <반염불>까지 염불조로 전개된다. <삼현타령>은 염불조로 시작하여 허튼타령조가 혼합되며 제4장단부터 완전히 허튼타령조로 조가 바뀌게 된다. 이후 <느린허튼타령>, <중허튼타령>, <자진허튼타령>까지 허튼타령조로 전개된다. 다음으로 <굿거리>, <자진굿거리>가 염불조로 전개되며, 마지막 곡 <당악>은 당악조이다. <당악>을 마친 후 <굿거리>를 제1장단부터 제3장단까지 연주하여 염불조로 전 악곡을 마친다.

《삼현영산회상》은 염불조 악곡인 <대영산>으로 시작한다. <중영산>과 <작영산>은 허튼타령조이나 <대영산>의 악조인 염불조가 혼재되어 나타난다. 이후 <삼현도드리>에서는 온전한 허튼타령조의 양상이 나타난다. <염불도드리>는 염불조로 전개되며 제3장부터 허튼타령조의 양상이 혼합되어 나타나다가 제5장부터 허튼타령조로 바뀐다. 허튼타령조는 이후 <삼현타령> 제1장까지 전개된다. <삼현타령> 제2장과 제3장은 염불조로 조가 바뀌며 허튼타령조가 전반에 걸쳐 혼합되어 나타난다. <삼현타령> 돌장은 염불조이나 당악조가 혼합되고, 이후 당악조 악곡인 <별곡타령>으로 진행한다. <별곡타령>의 마지막 장단에서는 염불조로 조가 바뀌며 《삼현영산회상》을 마친다. 《삼현영산회상》은 악조의 변화와 혼재

양상이 다양하게 나타난다.

《취타풍류》는 당악조 악곡인 <취타>로 시작하여 <길군악>까지 당악조로 전개된다. 이후 <길타령>과 <염불타령>은 염불조로 전개된다. <삼현타령> 제1장은 염불조로 시작하여 허튼타령조가 혼합되며 제4장단부터 완전히 허튼타령조로 조가 바뀌게 된다. 이후 <삼현타령> 제2장~제3장, 돌장, 그리고 <별곡타령>의 내용은 《삼현영산회상》과 동일하다.

요컨대, 염불조는 허튼타령조나 당악조로 이동하고, 허튼타령조는 염불조로만 이동하며, 당악조는 염불조로만 이동한다. 마지막 악곡은 당악조이며, 마지막 악곡의 최종 종지는 염불조로 나타난다.

염불조는 허튼타령조로 이동 시 악조의 혼재 양상이 반드시 나타난다. 이러한 양상은 《염불풍류》와 《취타풍류》에서는 짧은 구간에서 나타나지만 《삼현영산회상》에서는 악곡 전반에 걸쳐 폭넓게 나타난다. 순수한 염불조에서 당악조의 이동은 나타나지 않으며, 허튼타령조가 혼재되어있는 염불조²⁶⁵⁾에서 당악조로 이동한다. 허튼타령조는 염불조로 이동하며, 이때 악조의 혼재 양상은 나타나지 않는다. 예외로 <삼현타령>에서 제1장에서 염불조(제2장~제3장)로의 조변화 전 혼재 양상이 약하게 나타난다.

이상의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 [표 46]²⁶⁶⁾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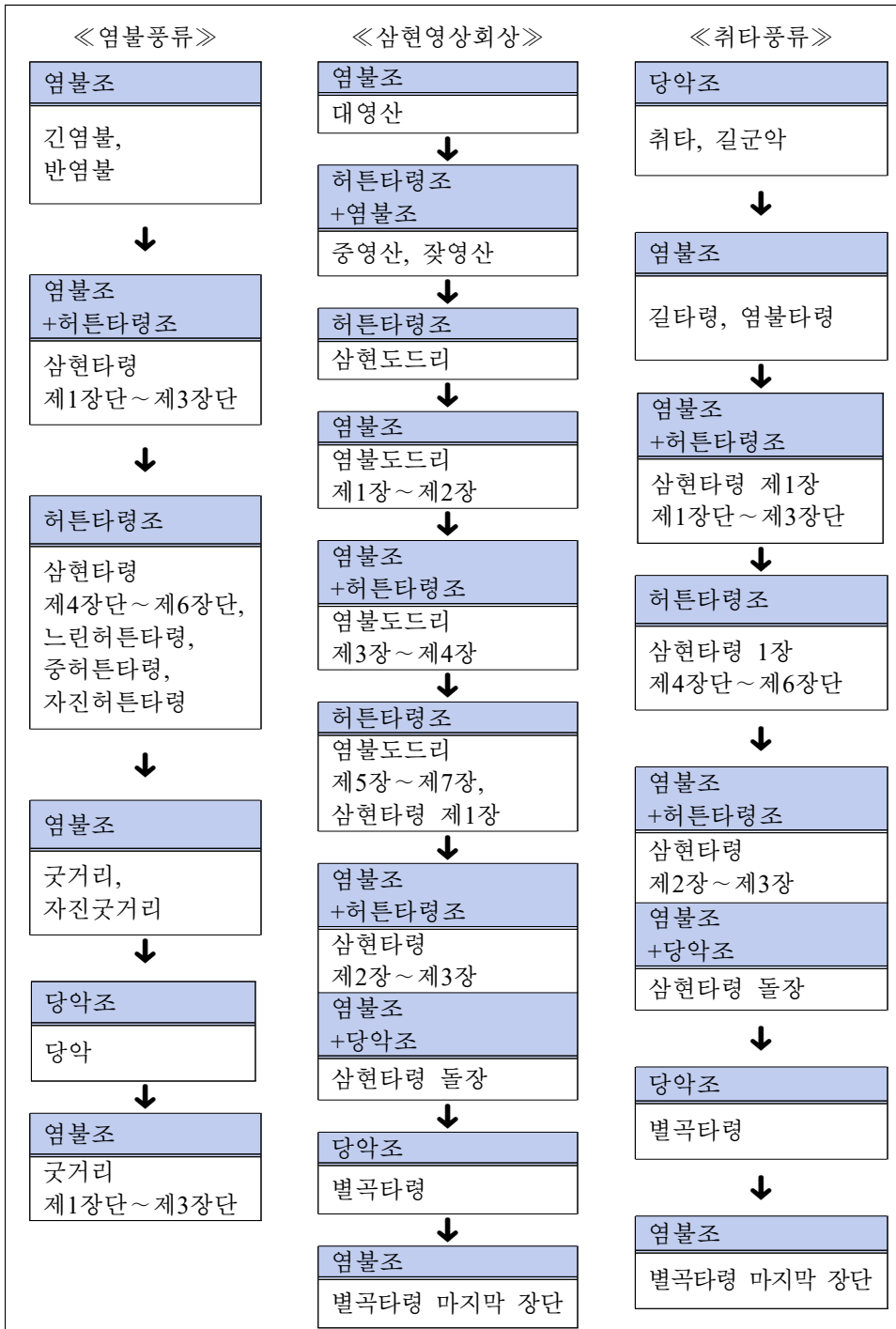
---

265) <삼현타령> 2~3장은 염불조를 중심으로 전반적으로 허튼타령조가 혼재되어 나타나는 양상을 보이는데, 순수한 염불조에 도달하지 않은 상태에서 당악조로 이동한다.

266) 혼재되는 양상이 나타나는 악곡일 경우 바탕 악조를 위에, 타 악조를 +와 함께 밑에 서술한다.



[표 46] 경기 삼현육각 악곡의 악조 전개



## IV. 결론

본 연구에서는 서울특별시 지정 무형문화재 ‘삼현육각’을 대상으로 이철주의 내관적 악조명을 전제하여 대금과 피리의 선율분석을 통하여 악조를 구명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 전제한 악조의 명칭은 ‘염불조’·‘허튼타령조’·‘당악조’이다. 연구결과 경기 삼현육각은 세 가지 악조로 구성되었고, 특정 악곡에서는 두 가지 악조가 혼재되는 양상이 나타났다. 본고의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염불조의 음계는 ‘e^b(솔)-f(라)-a^b(도)-b^b(레)-c'(미)’와 ‘e^b(솔)-f(라)-a^b(도)-b^b(레)-d^b(파)’ 두 가지로 나타난다. 종지음은 e^b(솔)·a^b(도) 두 가지로 나타나며, 주로 a^b(도)의 종지감이 강하다. 핵음은 e^b(솔)·a^b(도)이다. 주요 관용적 구조선율은 e^b-a^b, a^b-e^b, b^b-a^b으로 염불조의 구성음은 핵음 또는 종지음으로 귀결하려는 성격을 보인다. 염불조의 주요 시김새는 e^b(솔)의 굽은 농음 또는 보통 농음, f(라)의 퇴성, 시김새 없이 평으로 내는 a^b(도), b^b(레)의 하행농음 또는 퇴성, c'(미)와 d^b(파)의 빠르고 얇은 농음이다. d^b(파)은 대금에서는 퇴성, 피리에서는 추성 또한 나타난다. 염불조에 해당하는 악곡은 《염불풍류》 중 <긴염불>, <반염불>, <삼현타령> 제1장단~제3장단, <굿거리>, <자진굿거리>, 《삼현영산회상》 중 <대영산>, <염불도드리> 제1장~제4장, <삼현타령> 제2장~둘장, 《취타풍류》 중 <길타령>, <염불타령>, <삼현타령> 제1장 제1장단~제3장단, <삼현타령> 제2장~둘장이다.

둘째, 허튼타령조의 음계는 ‘e^b(라)-g^b(도)-a^b(레)-b^b(미)-d^b(솔)’이다. 종지음은 e^b(라)과 g^b(도)이다. 핵음은 e^b(라)와 b^b(미)으로 종지음 g^b(도)이 핵음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 특징이다. 주요 관용적 구조선율은 e^b-g^b, b^b-g^b, b^b-e^b으로 핵음에서 종지음 g^b(도)으로 또는 핵음에서 핵음으로 진행하려는 성격을 보인다. 허튼타령조의 주요 시김새는 e^b(라)의 굽은 농음 또는 보통 농음, g^b(도)의 퇴성, a^b(레)의 상행 농음 또는 보통 농음이 나타난다. b^b(미)는 시김새 없이 평으로 내며, d^b(솔)은 대금에서

퇴성, 피리에서 퇴성과 추성이 나타난다. 허튼타령조에 해당하는 악곡은 《염불풍류》 중 <삼현타령> 제4장단~제6장단, <느린허튼타령>, <중허튼타령>, <자진허튼타령>, 《삼현영산회상》 중 <중영산>, <жат영산>, <삼현도드리>, <염불도드리> 5~7장, <삼현타령> 1장, 《취타풍류》 중 <삼현타령> 제1장 제4장단~제6장단이다.

셋째, 당악조의 음계는 ‘e^b(도)-f(레)-g(미)-b^b(솔)-c^b(라)’이다. 종지는 e^b(도)에서 가장 안정된 종지감이 나타난다. 핵음은 e^b(도) · b^b(솔)이다. 당악조의 주요 관용적 구조선율은 g-e^b, g-b^b으로 당악조의 구성음은 핵음으로 귀결하려는 성격을 보인다. 당악조의 주요 시김새는 f(레)와 b^b(솔)의 보통농음, g(미)의 퇴성이며, g(미)는 보다 낮은 음고에서 끌어올려내는 시김새가 나타난다. 당악조는 핵음과 종지음 및 시김새가 악곡마다 상이한 점이 있다. 또한 <별곡타령>과 <취타>는 다섯 음이 고루 비중 있게 나타난다. 당악조에 해당하는 악곡은 《염불풍류》 중 <당악>, 《삼현영산회상》 중 <별곡타령>, 《취타풍류》 중 <취타>, <길군악>, <별곡타령>이다.

넷째, 악조의 혼재 양상은 염불조 악곡에 허튼타령조가 혼재된 양상, 허튼타령조 악곡에 염불조가 혼재된 양상, 염불조 악곡에 당악조가 혼재된 양상, 당악조 악곡에 염불조가 혼재된 양상 네 가지로 나타난다. 혼재 양상은 타 악조의 출현음이 혼합되는 것이 가장 높은 빈도로 나타나고, 다음으로 시김새, 핵음, 구조선율 순으로 나타난다. 종지음은 대부분 바탕 악조의 종지음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예외로 혼재된 악조로 조변화되기 직전 악구에서는 타 악조의 종지음이 나타난다. 혼재 양상이 나타나는 위치는 악조가 바뀌는 경계선의 바로 직전이나 직후에 많이 나타난다. 예외로 <삼현타령> 2~3장과 <중영산>에서는 악곡의 전반에 걸쳐 혼재 양상이 나타나며, 당악조 악곡에 염불조가 혼재된 양상은 악곡의 최종 종지 시에 나타난다. 또한 염불조와 허튼타령조의 악곡에서는 악곡의 변화 또는 긴장을 줄 때 혼재 양상이 나타나기도 한다.

다섯째, 분석 결과를 토대로 살펴본 경기 삼현육각의 악조 전개 양상은 다음과 같다. 《염불풍류》와 《삼현영산회상》은 염불조, 《취타풍류》는

당악조의 악곡으로 시작한다. 이후 엽불조 또는 허튼타령조의 악곡을 거친 후, 마지막 악곡은 모두 당악조의 악곡이다. 당악조인 마지막 악곡의 최종 종지는 엽불조에서 하는 것이 특징적이다. 엽불조는 허튼타령조나 당악조로 이동하고, 허튼타령조는 엽불조로 이동하며, 당악조는 엽불조로 이동한다. 순수한 엽불조에서 당악조의 이동은 나타나지 않으며, 허튼타령조가 혼재되어있는 엽불조에서 당악조로 이동한다.

이상으로 본 연구의 결과 <엽불타령>, <허튼타령>, <당악>의 세 악곡에서 시김새와 핵음, 종지음이 일관되게 나타나며, 악조가 혼합되지 않고 단일한 악조로 구성되어 삼현육각 악곡에서 대표성을 띠는 악곡임을 알 수 있었다. 그러므로 이철주가 사용하는 엽불조, 허튼타령조, 당악조의 악조 명칭을 사용하는 것에 타당함이 있다.

나아가 본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보다 다양한 음악과의 총체적인 연구를 통해 상위 악조로 분석하는 연구 과정이 필요하겠다. 또한 삼현육각은 경기지역 내에서도 지역마다 또 전승에 따라 음악이 달라, 타 계통의 음악에 대한 연구가 함께 이루어지게 된다면 보다 정밀하고 폭넓은 연구가 가능할 수 있겠다. 앞으로 삼현육각의 악조에 관한 연구와 나아가 밀접한 계통의 음악에 대한 총체적인 연구가 복합적으로 연계되어 본 연구에서 밝혀내지 못한 새로운 측면들이 발견되기를 소망한다.



## 참 고 문 헌

### 1. 단행본

- 국립국악원, 『민간 대풍류: 대영산·취타풍류·염불풍류』, 한국음악 제 37집, 서울: 국립국악원, 2008.
- 김영운, 『국악개론』, 파주: 음악세계, 2015.
- 김우진, 『한국 음악학 연구 방법론』, 서울: 민속원, 2015.
- 김해숙·백대웅·최태현 공저, 『전통음악개론』, 서울: 어울림, 1997.
- 노동은, 『지영희 평전』, 서울: 민속원, 2015.
- 박승률, 『대풍류』, 서울: 어울림, 1999.
- _____, 『지영희 피리풍류』, 서울: 민속원, 2007.
- 박정실·배종근 공저, 『쉽게 풀어쓴 해금가락2』, 서울: 예술, 2018.
- 성금연, 『다시 보는 지영희 민속음악연구자료집』, 서울: 채륜, 2014.
- 원완철, 『대금풍류』, 서울: 무송, 2015.
- 이성천, 『알기쉬운 국악개론』, 서울: 풍남, 1995.
- 장사훈, 『국악대사전』, 서울: 세광음악출판사, 1984.
- _____, 『최신 국악총론』, 서울: 세광문화출판사, 1983.
- 장사훈·한만영, 『국악개론』, 서울: 한국국악학회, 1975.
- 지수복·이보형·이진원·노재명·오민아, 『민족음악 수호영웅, 지영희』, 서울: 채륜, 2014.
- 지영희, 『해금교본』, 서울: 한국국악예술학교 예술부, 1969.
- 한만영, 『한국전통음악연구』, 서울: 풍남, 1995.

### 2. 학위논문

- 김민아, “염불풍류 피리가락 비교 분석 연구: 최경만, 허용업”, 한국예술종합학교 예술전문사 학위논문, 2013.

- 김세경, “삼현육각의 향피리 선율 연구: 지역별 분석 비교”,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8.
- 김소리, “서울 새남굿의 삼현육각 연구”, 한양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4.
- 김정림, “취타계열 음악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8.
- 김정희, “토속민요 음조직의 변이 양상”,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6.
- 김종찬, “국립국악원 전승 ‘군악’과 지영희가 계승한 취타풍류 한바탕의 ‘별곡타령’ 비교고찰: 대금선율을 중심으로”, 중앙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2.
- 김지윤, “국악원과 민간의 피리 주법연구: 삼현육각 음악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1.
- 변아미, “인천삼현육각의 해금선율에 관한 연구: 전태용 해금선율을 중심으로”, 한국예술종합학교 예술전문사 학위논문, 2006.
- 서경숙, “전주농삼현에 관한 연구”, 전북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0.
- 선주희, “경기·서도대풍류의 음악적 특징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2.
- 송지윤, “경기 삼현육각과 나주 삼현육각 비교연구: 대영산과 본령산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1.
- 안재숙, “국립국악원과 지영희·김정길의 관악영산회상 비교 연구: 해금선율을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9.
- 오용록, “보허자 형성고”,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85.
- 윤숙영, “대풍류와 민간대풍류의 비교연구: 상령산·중령산 아쟁선율을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9.
- 원완철, “삼현영산회상의 대영산과 관악영산회상의 상령산 비교연구: 대금선율을 중심으로”, 중앙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7.
- 이미경, “관악영산회상과 대풍류의 비교연구: 상령산과 대영산의 아쟁선율을 중심으로”, 단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9.
- 이귀영, “김덕진의 산조합주 분석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5.
- 이승희, “산대놀이 음악의 구조 연구: 염불타령, 허튼타령, 굿거리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7.

- 이윤경, “민간 대풍류 연구: 관악영산회상과의 선율비교”,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4.
- 이창선, “전주 민삼현육각에 관한 연구”, 목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7.
- 임혜정, “삼현육각 음악연구: 염불곡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88.
- 장재경, “대풍류의 해금가락 비교 분석 연구: 지영희와 허용업의 가락 중 염불, 굿거리, 당악을 중심으로”, 중앙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2.
- 조아라, “국립국악원 관악영산회상과 민간 대풍류의 비교연구: 상령산 · 중령산의 해금선율을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4.
- 진윤경, “20세기 삼현육각 음악의 전승 연구: 관악영산회상, 취타, 자진한 앞의 피리 선율을 중심으로”, 한국학중앙연구원 박사학위논문, 2018.
- 최명화, “피리산조의 음악적 특징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2.
- 황세원, “지영희와 이충선의 대풍류 피리선율비교: 긴염불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6.

### 3. 학술지논문

- 김우진, “거문고 산조의 우조 · 평조 · 계면조”, 『한국음악연구』 62, 서울: 한국국악학회, 2017.
- 김정승, “정악의 평조와 계면조 시김새 연구: 각 악기 연주자의 시김새 분석과 현악영산회상의 악조 검토를 중심으로”, 『동양음악』 39, 서울: 서울대학교 동양음악연구소, 2016.
- 서한범, “긴염불과 반염불의 비교연구”, 『한국전통음악학』 1, 한국전통음악학회, 2000.
- 오용록, “해금 길군악의 여러 선율”, 『한국음악형성론』, 서울: 민속원, 2012.



- 이보형, “무형문화재 조사보고서(4): 삼현육각”, 대전: 문화재관리국 문화재연구소, 1984.
- _____, “향제 삼현육각 소고”, 『문화재』 15, 대전: 국립문화재연구소, 1982.
- _____, “한국민속음악장단의 대강박(대박), 박, 분박(소박)에 대한 전통 기보론적 고찰”, 『국악원논문집』 4, 서울: 국립국악원, 1992.
- _____, “통사성분소가 생성하는 박 층위 인지론”, 『한국음악연구』 56, 한국국악학회, 2014.
- 이용식, “한국음악학과 에믹(emic)/에틱(etic) 논제”, 『음악논단』 17, 2003.
- 이자균, “유성기음반의 명인명창 열전(2)”, 『한국음반학』 4, 서울: 한국고음반연구회, 1994.
- 이진원, “김광식 대금산조에 대한 검토 -오아시스 유성기음반 <대금시나위>를 중심으로”, 『한국음반학』 19, 서울: 한국고음반연구회, 2009.
- 임병옥, “평조와 계면조의 구성음에 대한 연구: 각 음의 구조와 기능을 중심으로”, 『한국음악연구』 30, 서울: 한국국악학회, 2001.
- 임혜정, “삼현영산회상 염불도드리와 긴염불에 관한 연구”, 『한국음반학』 8, 서울: 한국고음반연구회, 1998.
- _____, “향제 삼현육각 <긴염불> 연구”, 『한국음반학』 12, 서울: 한국고음반연구회, 2002.
- _____, “해주 삼현육각 고”, 『한국음반학』 13, 서울: 한국고음반연구회, 2003.
- _____, “인천 삼현육각의 특징과 연원”, 『인천학연구』 7, 인천: 인천대학교 인천학연구원, 2007.
- _____, “근대 서울삼현육각의 전개와 서울새남굿의 삼현육각”, 『한국음악연구』 59, 한국국악학회, 2016.
- _____, “향제 삼현육각의 특징”, 『공연문화연구』 39, 한국공연문화학회, 2019.
- 진윤경, “20세기 삼현육각 <타령>에 관한 고찰: 서울·경기지역을 중심으로”, 『한국음악연구』 60, 서울: 한국국악학회, 2016.

- _____, “삼현육각 <염불>에 관한 음악적 고찰”, 『국악원논문집』 37, 서울: 국립국악원, 2018.
- _____, “서울 재수곳 삼현육각 음악연구: 김순봉 피리가락을 중심으로”, 『국악원논문집』 32, 서울: 국립국악원, 2015.
- 최상화, “경기 무속음악 대풍류(염불)의 음계 연구”, 『이화음악논집』 15, 서울: 이화여자대학교 음악연구소, 2011.
- 최태현, “지영희가 계승한 ‘취타풍류한바탕’과 ‘대풍류한바탕’의 음악적 구성”, 『중앙음악연구』 7, 안성: 중앙대학교 중앙음악연구소, 1998.
- _____, “지영희 명인의 ‘대풍류’가락 드디어 원래 모습 되찾다”, 『국악원논문집』 19, 서울: 국립국악원, 2009.
- _____, “지영희 음악에 나타난 경기음악의 특징”, 『한국음악학』 25, 서울: 한국고음악연구회, 2015.
- 최현, “만대엽의 선율구조분석 시론”, 『국악원논문집』 4, 국립국악원, 1992
- _____, “한국 전통음악의 선율 분석 방법 시론”, 『정신문화연구』 20, 한국학중앙연구원, 1997.

#### 4. 사전

- 송방송, 『한겨레음악대사전』, 서울: 보고사, 2012.
- _____, 『한국현대음악인사전 하』, 서울: 보고사, 2011.
- 장사훈, 『국악대사전』, 서울: 세광음악출판사, 1984.

#### 5. 영상자료

- 삼현육각보존회, 『제3회 삼현육각보존회 정기연주회』 DVD, 2009. 03. 24.(서울남산국악당).
- _____, 『2011년 삼현육각보존회 정기연주회』 DVD, 2011. 02. 08.(국립국악원 우면당).

## 6. 녹음자료

삼현육각보존회 보유자 및 이수자·전수자 합주 연습 녹음자료, 2019.

04. 20.(삼현육각 피리전수소).

이철주 개인 강습 녹음자료 ‘염불풍류’, 교육생 유경은, 2014. 07. 17.(삼현육각 대금전수소).

이철주 개인 강습 녹음자료 ‘삼현타령’, 교육생 유경은, 2015. 01. 07.(삼현육각 대금전수소).

이철주 개인 강습 녹음자료 ‘별곡타령’, 교육생 유경은, 2015. 01. 15.(삼현육각 대금전수소).

이철주 개인 강습 녹음자료 ‘대영산’, 교육생 유경은, 2015. 01. 31.(삼현육각 대금전수소).

이철주 개인 강습 녹음자료 ‘중영산’, 교육생 유경은, 2015. 02. 14.(삼현육각 대금전수소).

이철주 개인 강습 녹음자료 ‘жат영산’, 교육생 유경은, 2015. 02. 28.(삼현육각 대금전수소).

이철주 개인 강습 녹음자료 ‘삼현도드리’, 교육생 유경은, 2015. 03. 07.(삼현육각 대금전수소).

이철주 개인 강습 녹음자료 ‘염불도드리, 삼현타령 1장’, 교육생 유경은, 2015. 03. 14.(삼현육각 대금전수소).

최경만 개인 강습 녹음자료 ‘대영산, 중영산’, 교육생 여장근, 2017. 05. 17.(삼현육각 피리전수소).

최경만 개인 강습 녹음자료 ‘жат영산’, 교육생 여장근, 2017. 07. 20.(삼현육각 피리전수소).

최경만 개인 강습 녹음자료 ‘삼현도드리’, 교육생 여장근, 2017. 08. 08.(삼현육각 피리전수소).

최경만 개인 강습 녹음자료 ‘염불돌도드리’, 교육생 여장근, 2017. 09. 14.(삼현육각 피리전수소).

최경만 개인 강습 녹음자료 ‘삼현타령, 별곡타령’, 교육생 여장근, 2017.

10. 12.(삼현육각 피리전수소).

## 7. 현장조사

김방현, 경기도 파주시 동패동 카페 ‘커피에반하다’, 2019. 12. 24.

박승률, 경기도 동두천시 지행동 카페 ‘살롱드코나’, 2019. 12. 14.

_____, 경기도 동두천시 지행동 카페 ‘살롱드코나’, 2019. 12. 22.

이철주(현 삼현육각 보유자), 삼현육각 대금전수소, 2019. 04. 04.

최경만(현 삼현육각 보유자), 삼현육각 피리전수소, 2019. 04. 24.

_____, 전화 대담, 2019. 12. 19.

_____, 삼현육각 피리전수소, 2020. 1. 18.

## 8. 기타

이진원, 「경기시나위와 남도시나위: CD해설집」, 『국립문화재 연구소 소장자료 시리즈25: 경기시나위와 남도시나위』, KICP-062, 서울: 국립문화재연구소, 2003.



# Abstract

## **A Study on the *Samhyeonyuggak***

-Focused on the musical tone of the designated  
intangible cultural property of Seoul-

Yoo, Kyeongeun

Major in Korean traditional instrumental music

Department of Music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dentify the overall characteristics of the *Samhyeonyuggak*, a designated intangible cultural property of Seoul, by analysing its appearing tone, structural melody, nuclear tone, final tone, and sigimsae. In addition, attempts were made to use emic names of musical tone such as '*Yeombul-jo*', '*Heotteuntaryeong-jo*', and '*Dangak-jo*', that they have never been introduced for academic purpose, and to find out the validity of the names. As a result, musical tone of Gyeonggi area's *Samhyeonyuggak* was composed of three groups. And, in a particular musical piece, two different musical tone were mixed. The summary of this study is as follows.

First, the scale of *Yeombul-jo* appears in two ways; 'e^b(sol) -f(la) -a^b(do) -b^b(re)-c'(mi)' and 'e^b(sol)-f (la)-a^b(do)-b^b(re)-d^b(fa)'. There are two kinds

of final tone,  $e^b$ (sol) and  $a^b$ (do), and  $a^b$ (do) has a stronger sense of termination. And the nuclear tone is  $e^b$ (sol) ·  $a^b$ (do). The main idiomatic structural melodies of *Yeombul-jo* are  $e^b$ - $a^b$ ,  $a^b$ - $e^b$ ,  $b^b$ - $a^b$ . The constituting tone of *Yeombul-jo* have a tendency to end with nuclear tone or final tone. The main sigimsae of the *Yeombul-jo* are the coarse or normal vibrato of  $e^b$ (sol), the *toeseong*(drop pitch) of  $f$ (la), the downward-moving vibrato or *toeseong* of  $b^b$ (le), and fast and shallow vibrato of  $c'$ (mi) ·  $d^b'$ (fa).  $d^b'$ (fa) shows *toeseong* in Daegeum and *chuseong*(raise pitch) in Piri.  $a^b$  (do) usually appears as flat with no sigimsae.

Second, the scale of *Heotteuntaryeong-jo* is ' $e^b$ (la) - $g^b$ (do) - $a^b$ (re) - $b^b$ (mi) - $d^b'$ (sol). The final tone are  $e^b$ (la) and  $g^b$ (do), and the nuclear tone are  $e^b$ (la) and  $b^b$ (mi). The feature here is that the final tone is not included in the nuclear tone. The main idiomatic structural melodies of the *Heotteuntaryeong-jo* are  $e^b$ - $g^b$ ,  $b^b$ - $g^b$ ,  $b^b$ - $e^b$ , and characterized by progression from nuclear tone to final tone  $g^b$ (do) or from nuclear tone to nuclear tone. Major sigimsae of *Heotteuntaryeong-jo* are coarse or normal vibrato of  $e^b$ (la), *toeseong* of  $g^b$ (do), ascendant or normal vibrato of  $a^b$ (re).  $d^b'$ (sol) appears as *toeseong* in case of daegeum, and it can also appear as *toeseong* in case of piri. The  $b^b$ (mi) usually appears as flat with no sigimsae.

Third, the scale of the *Dangak-jo* is ' $e^b$ (do)- $f$ (re)- $g$ (mi)- $b^b$ (sol)- $c'$ (la)'. The most stable sense of termination appears in  $e^b$ (do). The main idiomatic melodies of the *Dangak-jo* are  $g$ - $e^b$  and  $g$ - $b^b$ . The constituting tone of the *Dangak-jo* are characterized by ending with the nuclear tone. And, the nuclear tone are  $e^b$ (do) and  $b^b$ (sol). The main sigimsae of the *Dangak-jo* is the normal vibrato of  $f$  (re) and  $b^b$ (sol), the *toeseong* of  $g$ (mi), and  $g$ (mi) shows the sigimsae that pulls up from the low pitch. *Dangak-jo* consists of different combination of the nuclear tone, final tone, and the sigimase. Also, *Dangak-jo* has a piece of music in which five notes are evenly important.

Fourth, there are four different mixed aspects such as the mixture of

*Heotteuntaryeong-jo* in the *Yeombul-jo* music, the mixture of *Yeombul-jo* in the *Heotteuntaryeong-jo* music, the mixture of *Dangak-jo* in the *Yeombul-jo* music, and the mixture of *Yeombul-jo* in the *Dangak-jo* music. In the mixed aspect, the mixture of appearing tone of different musical tone appears most frequently, followed by the *sigimsae*, the nuclear tone, and the structural melody. The final tone is mostly the final tone of the underlying musical tones. The mixed aspect appears mainly before or after when musical tone changes.

Lastly, based on the analysis results, the development patterns of *Gyeonggi Samhyeonyuggak* are as follows. *«Yeombul-pungryu»* and *«Samhyeon-Yeongsanhoesang»* begin with *Yeombul-jo*, while *«Chuita-Pungryoo»* begins with *Dangak-jo*. After going through the music of *Yeombul-jo* and *Heotteuntaryeong-jo*, all of the final music ends with the music of the *Dangak-jo* and the final ending is done in the *Yeombul-jo*.

In addition, *Yeombul-jo* moves to the *Heotteuntaryeong-jo* or *Dangak-jo*, and *Heotteuntaryeong-jo* moves only to *Yeombul-jo*. *Dangak-jo* moves only to *Yeombul-jo*. No transition from the pure *Yeombul-jo* to *Dangak-jo* was found whereas transition from *Yeombul-jo* mixed with *Heotteuntaryeong-jo* to *Dangak-jo* has been identified.

In *<Yeombultaryeong>*, *<Heotteuntaryeong>*, and *<Dangak>*, the *sigimase*, the nuclear tone, and the final tone were found consistently. Moreover, it is found that unique musical tone were used to organize those musical pieces so they could represent *Samhyeonyuggak*. Therefore, it is concluded that using the emic names that are referred by Lee Chuljoo, namely, *Yeombul-jo*, *Heotteuntaryeong-jo*, and *Dangak-jo*, is reasonable.

---

**Keywords :** *Samhyeonyuggak*, *Yeombul-pungryu*, *Samhyeon-Yeongsanhoesang*, *Chuita-Pungryoo*, Structure of melody, nuclear tone, *sigimsae*

**Student Number :** 2014-30583





## 부 록 목 차

<b>1. 현장조사자료 .....</b>	<b>431</b>
1) 이철주와 유경은의 대담 .....	431
2) 최경만과 유경은의 대담 .....	432
3) 박승률과 유경은의 대담 .....	434
4) 김방현과 유경은의 대담 .....	435
 <b>2. 삼현육각보존회 정기연주회 목록 .....</b>	<b>437</b>



# 1. 현장조사자료

## 1) 이철주와 유경은의 대담

◎일시 - 2019년 4월 4일 17:00~18:30

◎장소 - 서울시 도봉구 창동 삼현육각 대금전수소

유경은: 선생님께서는 음악을 어떻게 학습하셨나요?

이철주: 김광식 선생님께 경기 음악을 배웠다. 김광식 선생님은 경기도 광주 분이라. 산조는 한범수, 김동식 선생님께 배웠다.

옛날에는 경기도에 재인이 많았어. 지영희 선생은 평택 출신이고, 수원에 재인청이 있는데 재인청은 갈라쇼 단체야. 무용, 악기, 꼭두각시, 농악패 없는 거 없이 다 있어. 우리가 하는 음악이 거기서 사용하던 음악이야. 민속 풍류라고 하기도 하고 민간 풍류라고 하기도 하고.

옛날에 줄풍류도 있었는데 다 맥이 끊겼어. 현재 구례줄풍류만 살아있어. 민간 현악풍류. 우리가 하는 건 경기 관악풍류.

지영희선생님께서 학교에서 세 가지 삼현육각을 다 가르치셨어. 대영산, 취타풍류, 염불풍류.

김광식 선생님은 당시 몸이 편찮으셔서 그 제자 안윤선에게도 많이 배웠어.

민속악회 시나위할 적에 지영희선생님께 대영산을 많이 배웠어. 악기를 세 가지 다하셨으니까 세 파트를 다 가르치셨지.

지금 연주는 내가 더 분석하고 이해하면서 기교와 테크닉을 넣어서 정리를 더 한 것이다.

유경은: 대영산과 중영산 박자를 어떻게 연주해야하는지요?

이철주: 옛날 악보(필자주: 지영희 교본)에 써있어. 6446이지만 3223으로 연주한다고 악보에 있어. 신축성이 있고 호흡이 있는 음악이라 파트끼리 선율을 잘 알고 있어야 연주가 가능해.

유경은: 선생님께서 생각하시는 삼현육각의 악조는 어떠한가요?

이철주: 삼현육각은 전부 세 가지 조로 간다. 염불조, 허튼타령조, 당악조. 세 가지 스케일로만 다 떨어지는 거야. 그것이 왔다갔다 하는거지.

대영산은 무조건 염불조. 염불풍류의 염불과 박자와 스피드, 호흡만 다르지 조는 완전히 염불조이다. 중영산에서는 조가 변한다. 중영산에서 허튼타령조가 나오지. 대영산하고 중영산은 20박 6446. 연주는 3223으로 하지만은 중영산은 조금 빨라지는거야. 점점 몰아가는 거지. 그래서 그 변화가 중영산에서는 염불조와 틈타령조가 형클어져서 나와. 잣영산도 왔다 갔다. 이걸 삼현도드리를 가기 위한 준비를 하는 거야. 삼현도드리는 완전한 허튼타령조이지. 염불도드리는 다시 환원하는거야 다시 염불조로. 삼현타령은 별곡타령을 가기 위해 조가 계속 왔다 갔다 해. 끝부분에서는 별곡타령의 본청이 나오지.

## 2) 최경만과 유경은의 대답

◎일시 - 2019년 4월 24일 16:00~17:00

◎장소 -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삼현육각 피리전수소

유경은: 선생님께서는 음악을 어떻게 학습하셨는지요?

최경만: 지영희선생님한테만 거의 공부를 했어요. 최인서선생님께 대취타도 배웠고, 나머지는 다 지영희선생님께 배웠어요. 내가 63년도 고등학교 들어가면서 지영희 선생을 만난거니까. 그때 해금하고 피리는 다 지영희선생에게 배웠어요. 대금은 김광식선생님께 배웠고.

유경은: 대영산의 박자는 어떻게 연주하시나요?

최경만: 지영희선생님이 그때 뭐라고 하셨냐면은 6446, 20박인데, 선생님께서 둘을 하나로 보라고 하셔서 3223으로 연주를 했어요.

유경은: 선생님께서는 삼현육각에서 조는 어떻게 나타난다고 생각하시는  
지요?

최경만: 중영산에서 조가 바뀌지요. 대영산은  $E^b$ , 중영산은  $A^b$ . 중영산  
처음부터 조가 바뀌어요.

삼현도드리까지 같고, 염불도드리는 낮춰서 내요. 삼현도드리  
와 삼현타령은 같이가고 염불도드리 손가락을 다르게 해요.  
마지막 별곡타령에서 또 달라지고요. 염불도드리가 이렇게 조  
가 다르다는거에 김해숙선생님이 놀랐어요.

유경은: 지도하실 때 어떻게 가르치시나요?

최경만: 구음으로 우리는 나네누노느 이런식으로 가르쳐요. 그래서 우리  
는 선생님(지영희)을 멀리서도 보고 입만 보고 손가락이 띄어졌  
다니까. 그럴 정도로 구음을 듣고 하는 훈련이 되어있어요.

◎일시 - 2019년 12월 19일 16:00~16:20 전화 대담

유경은: 선생님, 대영산과 긴염불은 유사한 느낌이 있나요?

최경만: 피리같은 경우에는 너— 따라-(필자주:  $a^b$ —  $f-e^b$ )-더름쳐서 중려  
에서 황중으로 피리6관잡고, 그런 더름치는거.

대영산하고 긴염불하고 음을 움직이는데 비슷하지요. 그런데 대  
영산은 바로 흔들지는 않지 무게 있게. 대영산이 민속음악식으로  
표현하지만은 점잖아요. 그 다음에 긴염불은 좀 더 민속적으로  
세련되게 요성도 가늘게 하지요. 긴염불하고, 대영산, 염불도드  
리, 삼현타령 2-3장이 비슷해요.

유경은: 삼현영산회상의 삼현타령 1장은 위 악곡들과 다른가요?

최경만: 그렇지.

유경은: 너니—러할 때 니— 음정( $d^b$ )에 대한 느낌은 어떠신가요?

최경만: 그게 악보로 표기하기가 어려운 게 많이 있어요. 같은 소리인데  
곡마다의 특성상 약간 살려줘야 그런 맛이 나는 게 있고, 오히려  
떨어트려 줘야 그런 맛이 나는 게 있고. 그런 원리인거지.

◎일시 - 2020년 1월 18일 17:00

◎장소 -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삼현육각 피리전수소

유경은: (본고의 연구결과에 따른 악곡 분류를 보여드림) 선생님 이번 연구를 통해서 악조를 나누고 악곡을 분류해보았는데요. 이에 대한 선생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최경만: 맞다. 그렇게 생각한다.

### 3) 박승률과 유경은의 대담

◎일시 - 2019년 12월 14일 14:00~15:00

◎장소 - 경기도 동두천시 지행동 카페 ‘살롱드코나’

유경은: 선생님께서는 음악을 어떻게 학습하셨는지요?

박승률: 박범훈, 이철주, 이종대 이 세 사람이 동기야. 6기지. 나는 7기고. 김방현선생이 나랑 중학교 1학년때부터 같이 다녔어. 6년을 같이 다녔지. 지영희선생에게 악보랑 구음이랑 같이 배웠다. 김광식선생이 그때 많이 아프셨어. 김광식선생 음악은 지영희선생이 채보해서 지금까지 남아있게 된 거지.

◎일시 - 2019년 12월 22일 15:30~16:30

◎장소 - 경기도 동두천시 지행동 ‘카페 살롱드코나’

유경은: (본고의 연구결과에 따른 악곡 분류를 보여드림) 선생님 이번 연구를 통해서 악조를 나누고 악곡을 분류해보았는데요. 이에 대한 선생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박승률: 새로운 발상이다. 대영산과 긴염불의 음계는 다르지만 시김새 같은 걸 고려해보면 음조식이 유사하다.

유경은: 미와 파의 음정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박승률: 문제는 우리가 음악을 할 때 서양 음악처럼 건반을 치면 나오는 음정이 아니고 우리가 만들어내는 음이란 말이야. 나도 그렇고 (긴염불할 때) 박범훈선생, 최태현선생은 그 음을 미(필자주: 염불타령의 제5음)라고 하는데 의견 차이가 있는 사람이 있어. 이 철주선생도 미로 연주하지.

#### 4) 김방현과 유경은의 대담

◎일시 - 2019년 12월 24일 15:00~16:30

◎장소 - 경기도 파주시 동패동 카페 ‘커피에반하다’

유경은: (본고의 연구결과에 따른 악곡 분류를 보여드림) 선생님 이번 연구를 통해서 악조를 나누고 악곡을 분류해보았는데요. 이에 대한 선생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김방현: 그렇지. 대영산, 염불도드리, 삼현타령 2-3장, 긴염불, 굿거리 모두 비슷하다. (염불풍류의) 삼현타령은 브릿지 역할을 하는거야. 삼현타령 2-3장과 긴염불 같은조로 볼 수 있다. 그런데 삼현타령은 중간에 협종이랑 태주가 섞여 있잖아. 그게 조가 섞여 있는 거지. 염불이랑 같은 조야. 그 한 음만 왔다 갔다 한단 말이지. 원래 대풍류, 취타풍류 이런 게 다 굿풍류. 굿에 있어. 굿에 가면 사람들이 다 풍류대금으로 해. 그런데 사람마다 조금씩 연주가 달라. 지영희선생님은 당신이 한 가락을 후배에게 가르친 거다. 굿하는 사람들은 다 솔로야. 우리처럼 다 같이 앉아서 배운 사람들이 아니야. 그들은 다 일대일로 배웠지. 그래서 다 개개인으로 음악이 조금씩 달라. 토리가 좀 다르고 시김새, 가락도 조금씩 달라.

예고에서는 산조대금으로만 했어. 풍류대금은 아예 안 썼어.

유경은: 본청은 어떤 음이라고 생각하시나요?



김방현: 긴염불에서 노-니레너-- (필자주: a^b), 허튼타령의 본청은 너니  
떠이어-(필자주: b^b) 이게 본청이지. 취타는 황(필자주: e^b)이 본  
청. 당악도 그렇지.

유경은: d^b, 무역 음정이 대금과 피리가 다르거나 예전과 달라진 것이  
있나요?

김방현: 아닌데. 긴염불에서는 무역을 낮춰내고, 허튼타령에서는 무역을  
제대로 내야 한단 말이야. 이거는 장2도, 단3도 차이야. 표정만방  
지곡 상영산에 나오는 무역음하고 중광지곡에 나오는 무역음하  
고 조금 다르잖아. 중광지곡에서 무역음이 무역도 아니고 남려도  
아니고 중간에 걸려있지. 그걸 만들어서 내는거잖아. 긴염불은  
솔라도레미란 말이야. (미 음을)손가락으로는 단3도를 떼고, 소리  
는 장2도 소리를 내야한단 말이야.

유경은: 지영희선생님 악보 상에서 긴염불의 장 구분과 굿거리의 마루  
구분이 있는데요. 연주할 때 이에 대한 개념을 어떻게 갖고 계시  
나요?

김방현: 긴염불은 ‘두 마루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장수의 개념은 없다.  
반염불도 그렇고. 굿거리 마루 표시도 당신(지영희) 풍으로 해놓  
으신게 아닌가 싶어. 긴염불은 돌아가는 길 이렇게 되어있지. 한  
마루가 여섯 장단인데 딱 안 끊어진단 말이야.(필자주: 마지막 장  
단에서 종지가 안 나타난다.) 그래서 돌아가는 길 이렇게 한 거  
고.

## 2. 삼현육각보존회 정기연주회 목록

공연명	날짜	장소	프로그램
제1회 삼현육각 정기연주회	2008. 9. 9.	중앙대학교 국악당	미상(경기시나위 발표회)
제2회 삼현육각 정기연주회	2008. 9. 25.	민속극장 풍류	미상(경기시나위 발표회)
제3회 삼현육각보존회 정기연주회	2009. 3. 24.	서울 남산국악당	민간관악영산회상 (삼현도드리 ~ 별곡타령), 염불풍류, 취타풍류,
2010 삼현육각보존회 정기연주회	2010. 12. 21.	민속극장 풍류	삼현영산회상 (삼현도드리 ~ 별곡 타령), 승무(긴염불 ~ 굿거리)
2011 삼현육각보존회 정기연주회	2011. 2. 8.	국립국악원 우면당	대영산(대영산~별곡타령), 염불 풍류, 취타풍류
2012 삼현육각보존회 정기연주회	2012. 6. 22.	우리소리 소극장	대영산(대영산~별곡타령), 염불 풍류, 취타풍류
제7회 삼현육각보존회 정기연주회	2013. 3. 26.	서울 남산국악당	대영산(민간관악영산회상), 염불 풍류, 취타풍류
제1회 삼현육각 퍼리보존회 발표회	2015. 3. 31.	국립국악원 우면당	대영산, 대풍류
제1회 서울시 무형문화재 제44호 해금 전수 발표회	2015. 7. 7.	민속극장 풍류	대영산(대영산~별곡타령)
서울시 무형문화재 제44호 삼현육각 대금 전수 발표회	2015. 11. 1.	민속극장 풍류	취타풍류, 관악풍류(삼현도드리 ~ 별곡타령), 염불풍류
서울시무형문화재 제44호 전수 발표회	2016. 12. 27.	국립국악원 예악당	대영산, 취타풍류
서울시무형문화재 제44호 전수 발표회	2017. 4. 9.	국립국악원 우면당	취타풍류
서울시무형문화재 제44호 전수 발표회	2018. 10. 14.	민속극장 풍류	대영산, 대풍류
서울시무형문화재 제44호 전수 발표회 '삼현육각'	2020. 2. 16. 예정	민속극장 풍류	대영산(대영산~별곡타령)

*공연명과 악곡명은 프로그램 북에 제시된 명칭을 그대로 따랐다. 프로그램은 정기연주회의 프로그램 중 삼현육각 악곡만을 발췌하였다.